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정주(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소장)
김인규(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부장)
- ▶ 연구보조원 : 한초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분야의 최일선에 위치하여 청소년프로그램과 관련 청소년정책이 우리 국민 생활에 확산되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각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건전한 성장과 여러 역량들을 촉진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어떤 역할과 정체성을 갖고 그 서비스 기능을 강화시키느냐에 따라 청소년현장의 변화와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최근에 자유학기제의 시행, 진로교육과 인성교육의 강화, 창의적체험활동의 확대, 청소년활동에서의 안전 강조 등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어떻게 적절히 대응하고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그동안의 청소년수련시설이 갖고 있는 기대 역할이나 정체성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의 변화를 피하고 발전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여러 법제도적 기반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공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일정부분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5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재구조화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변화 요구와 수요를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둘째, 시대적·사회적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변화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청소년수련시설 지역별 시설운영자 현장협의회,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시설운영자 FGI, 그리고 일반청소년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청소년,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인지도 개선을 위한 수요자 중심 시설정책 추진, 수련시설의 이용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학교 교과/비교과 연계, 청소년의 수련시설 참여기대 제고를 위한 생활권 프로그램의 활성화, 지역현실에 부합하는 공모전 운영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형태 제도화, 수련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청소년지도자 보수 및 배치기준 마련,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주민자치와의 연계와 협력 강화,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상설연수 및 처우 개선 추진의 7가지로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정책제언은 정책별로 추진목적,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세부 결과들을 토대로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천방향에 대해 정책적 함의를 포함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정체성

연구 요약

1. 연구목적¹⁾

- 최근 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및 학교교육 등 타 분야와의 연계·협력이 요구되는 사회적 변화를 맞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역할과 기능 확립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의 전통적인 수련거리 제공 및 체험적 수련활동 운영과 더불어 학교교육과의 연계,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코디네이트,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연계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 절실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재구조화하는데 있음. 구체적으로는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변화 요구와 수요를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둘째, 시대적·사회적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변화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우선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과 현황을 정리하고, 그동안에 진행된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 관련 논의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헌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별 주요 특징 및 차별성을 살펴보고, 매년 일정 주기에 따라 시행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분석하였음

1) 이 장은 본 연구내용의 요약으로 이중 일부 내용은 연구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이슈브리프 제3호로 발간한 바 있음(“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2015년 5월 29일)

○ FGI 등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우선 정성적 측면에서 유형별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전문가 및 시설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음

○ 이슈브리프 발간

본 연구의 추진과정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쟁점 및 주요결과를 공유하고, 연구성과의 확산을 목적으로 ‘이슈브리프’를 연구성과물로 기 발간하였음

○ 설문조사

보다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전국의 청소년(일반 청소년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청소년 대상) 및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정책 워크숍

본 연구의 문헌고찰, 심층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나온 결과들을 기반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재정립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정책 워크숍을 실시함

3. 주요 결과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가 낮으며 그 위상(역할)도 매우 낮음.

조사 결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일반청소년의 응답 결과에 따르면 거주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 유무에 대해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응답이 52.1%로 조사되었음. 그런데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자연권 수련시설 보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생활권수련시설이 더 많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37.4%,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70.2%, 청소년수련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79.4%로 생활권 수련시설에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음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들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함
 청소년시설의 상대적 이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위청소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보유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87.7%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1.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상당히 인정하고 있음
-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근무강도에 비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상황임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응답 결과에 따르면 재직 중인 청소년시설의 직원 수와 관련하여 절반 이상의 응답(59.9%)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수련시설의 보수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62.2%, 직원 복지수준이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56.1%로 조사되었음. 직원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종사자의 업무 강도가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종사자들은 현재 직원 복지 및 보수 수준의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함
 시설종사자들은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에 불만족(76.3%)하며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79.5%)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지원 역시 불만족(62.8%)하며, 수련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84.0%)고 요구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수련시설의 인건비 지원(93.3%),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련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89.4%) 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수련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임. 청소년 수련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야 각 기관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고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일반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활용과 기대와 관련해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됨.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있어서 일반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수련원에 참여의향이 있는 청소년이 28.5%, 청소년수련관 25.3%, 청소년문화의집 24.3%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수련원에 참여의향이 있는 청소년이 75.0%, 청소년수련관 79.0%, 청소년문화의집 83.9%로 조사됨.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참여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들은 현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인식
 현장 청소년지도자들의 47.1%가 재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고, 57%는 수련이라는 용어 대신에 ‘활동’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며, 71.2%는 수련시설을 종합시설로 구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84.0%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85.9%는 시설운동을 공영화(지자체 직영 38.5%, 법인화 31.1%, 지자체산하 공단이 운영16.3%)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그리고 응답자의 56.1%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통합을 고려해볼만하다고 응답함

4. 정책 제언

- 정책방안 1. 청소년수련시설의 인지도 개선을 위한 수요자 중심 시설정책 추진
 - 추진목적 :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역사회 인지도 개선
 - 추진내용
 - 주민센터 등의 연계를 통한 소규모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역별 다양화 추진
 - 청소년 접근성을 고려한 변화가에 임대형태의 수련시설 설치 추진
 - 학교와 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화활동 중심 기관화
 - 추진방법 :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과의 연계, 협력사업 추진
 - 추진체계 : 청소년수련시설/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정책방안 2. 수련시설의 이용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학교 교과/비교과 연계
 - 추진목적 : 학교연계를 통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률 및 만족도 제고
 - 추진내용
 - 지역사회 학교와 교과연계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합동 추진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전 수요자 요구조사 강화
 - 학교 연계사업 확대를 통한 비교과 연계 활동프로그램의 강화
 - 추진방법 : 수련시설과 지역 내 초·중등학교의 협력사업 추진
 - 추진체계 : 청소년수련시설/초·중등학교,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 정책방안 3. 청소년의 수련시설 참여기대 제고를 위한 생활권 프로그램의 활성화
 - 추진목적 : 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수련시설의 도움과 참여기대 제고
 - 추진내용
 - 생활권 수련시설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학교단위 설명회 개최
 - 남녀청소년들의 양성 균형적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추진
 -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한 학교 및 지역사회 단위 홍보 강화
 - 추진방법 : 생활권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개편과 학교 합동 효과성 홍보
 - 추진체계 : 청소년수련시설/초·중등학교, 시·도교육청,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정책방안 4. 지역현실에 부합하는 공모전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형태 제도화
 - 추진목적 : 지역현실에 부합하는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안정화 도모
 - 추진내용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형태에 대한 법령 및 지침 개정 추진
 - 지역사회 청소년인구 및 실수요가 반영된 공모제도 운영
 -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추진
 - 추진방법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의견수렴 및 공청회, 법령 및 지침개정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책방안 5. 수련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청소년지도자 보수 및 배치기준 마련
 - 추진목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적정 지침을 통한 수련시설 운영의 정상화
 - 추진내용
 - 청소년지도자 보수기준 마련
 -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자 배치기준 강화
 - 청소년수련시설 배치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예산지원 기준 마련
 - 추진방법 : 지침 및 기준 개정안 연구, 중앙-지자체 협의, 지자체 공무원 연수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책방안 6.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주민자치와의 연계와 협력 강화
 - 추진목적 :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역할 강화
 - 추진내용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수요조사 강화
 - 지역사회 필요에 부응하는 연계사업의 확대와 강화
 - 지역사회 공동체 모임과 활동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적극 참여와 지원
 - 추진방법 : 지역사회 주민자치모임 및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추진
 - 추진체계 : 청소년수련시설, 지역 내 주민자치모임 및 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 정책방안 7. 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자 상설연수 및 처우 개선 추진
 - 추진목적 : 수련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
 - 추진내용
 - 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직군별 상설 연수프로그램 운영
 - (가칭)‘청소년지도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노력 강화
 - 추진방법 : 연수프로그램 강화 및 법령개정 추진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II. 청소년수련시설 개념 및 역할 관련 논의 고찰	7
1.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과 종류	9
2.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13
3.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	20
4.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논의를 통한 시사점	26
III.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실제	29
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주요 특징	31
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를 통한 시사점	35
IV.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현장 전문가 FGI	37
1. FGI 개요	39
2. 현장전문가 심층의견수렴을 위한 FGI 결과	40
V. 일반청소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조사	51
1. 조사개요	53
2. 일반청소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	56

VI.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청소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조사	173
1. 조사개요	175
2.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청소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	177
 VII. 시설종사자의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조사	293
1. 조사개요	295
2. 시설종사자의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	297
 VIII. 결론 및 정책 제언	447
1. 조사결과 요약	449
2. 정책 제언	459
3. 결론 :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책성 확립을 위한 실천	476
 참고문헌	485
 부 록	489
 Abstract	523

표 목 차

〈표 II-1〉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13
〈표 II-2〉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간 수입	14
〈표 II-3〉 청소년수련시설의 건축규모 및 수용정원	15
〈표 II-4〉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과 연간 운영일	16
〈표 II-5〉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간 이용자	17
〈표 II-6〉 청소년수련시설의 직원수	18
〈표 II-7〉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19
〈표 V-1〉 모집단 - 학교 수	53
〈표 V-2〉 조사 학교 수	54
〈표 V-3〉 조사 학생 수	54
〈표 V-4〉 응답자 현황	55
〈표 V-5〉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	56
〈표 V-6〉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58
〈표 V-7〉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59
〈표 V-8〉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60
〈표 V-9〉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61
〈표 V-10〉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62
〈표 V-11〉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63
〈표 V-12〉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64

〈표 V-13〉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65
〈표 V-14〉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66
〈표 V-15〉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67
〈표 V-16〉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68
〈표 V-17〉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69
〈표 V-18〉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70
〈표 V-19〉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71
〈표 V-20〉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72
〈표 V-21〉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73
〈표 V-22〉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74
〈표 V-23〉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75
〈표 V-24〉 각 청소년시설 간의 차이 인지 정도	76
〈표 V-25〉 각 청소년시설 간의 차이 인지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77
〈표 V-26〉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유무 여부	78
〈표 V-27〉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유무 여부 요인별 차이분석	79
〈표 V-28〉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활용 현황	80
〈표 V-29〉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원	83
〈표 V-30〉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84
〈표 V-31〉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관	85
〈표 V-32〉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86
〈표 V-33〉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87

〈표 V-34〉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88
〈표 V-35〉 청소년시설 이용 빈도	89
〈표 V-36〉 청소년시설 이용 빈도 요인별 차이분석	90
〈표 V-37〉 청소년시설에서 참여한 프로그램	91
〈표 V-38〉 청소년시설에서 참여한 프로그램 요인별 차이분석	92
〈표 V-39〉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93
〈표 V-40〉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94
〈표 V-41〉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의 공간/장비/설비에 대한 만족도	95
〈표 V-42〉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의 공간/장비/설비에 대한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96
〈표 V-43〉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97
〈표 V-44〉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98
〈표 V-45〉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99
〈표 V-46〉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100
〈표 V-47〉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 보유자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101
〈표 V-48〉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 보유자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요인별 차이분석	102
〈표 V-49〉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원	103
〈표 V-50〉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104
〈표 V-51〉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관	105
〈표 V-52〉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106
〈표 V-53〉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107

〈표 V-54〉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108
〈표 V-55〉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원	109
〈표 V-56〉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110
〈표 V-57〉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관	111
〈표 V-58〉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112
〈표 V-59〉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113
〈표 V-60〉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114
〈표 V-61〉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115
〈표 V-62〉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116
〈표 V-63〉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117
〈표 V-64〉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118
〈표 V-65〉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119
〈표 V-66〉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120
〈표 V-67〉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121
〈표 V-68〉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122
〈표 V-69〉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123
〈표 V-70〉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124

〈표 V-71〉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125
〈표 V-72〉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126
〈표 V-73〉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에 대한 기대	127
〈표 V-74〉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원	129
〈표 V-75〉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130
〈표 V-76〉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관	131
〈표 V-77〉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132
〈표 V-78〉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133
〈표 V-79〉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134
〈표 V-80〉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원	135
〈표 V-81〉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136
〈표 V-82〉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관	137
〈표 V-83〉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138
〈표 V-84〉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139
〈표 V-85〉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140
〈표 V-86〉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수련원	141
〈표 V-87〉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142
〈표 V-88〉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수련관	143
〈표 V-89〉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144

<표 V-90>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145
<표 V-91>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146
<표 V-92>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원	147
<표 V-93>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148
<표 V-94>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	149
<표 V-95>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150
<표 V-96>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문화의집	151
<표 V-97>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152
<표 V-98>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용어에 대한 인식	153
<표 V-99>	‘청소년활동’의 뜻 인지 정도	154
<표 V-100>	‘청소년활동’의 뜻 인지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155
<표 V-101>	‘수련’의 뜻 인지 정도	156
<표 V-102>	‘수련’의 뜻 인지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157
<표 V-103>	‘수련’이란 용어의 부정적 느낌 정도	158
<표 V-104>	‘수련’이란 용어의 부정적 느낌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159
<표 V-1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기대	160
<표 V-106>	청소년시설 필요 정도	162
<표 V-107>	청소년시설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163
<표 V-108>	청소년시설에 바라는 역할 및 기능	164
<표 V-109>	청소년시설에 바라는 역할 및 기능 요인별 차이분석	165
<표 V-110>	학교수업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166
<표 V-111>	학교수업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요인별 차이분석	167
<표 V-112>	방과후 프로그램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168

〈표 V-113〉 방과후프로그램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요인별 차이분석	169
〈표 V-114〉 선호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형태	170
〈표 V-115〉 선호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형태 요인별 차이분석	171
〈표 VI-1〉 응답자 특성	176
〈표 VI-2〉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	177
〈표 VI-3〉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179
〈표 VI-4〉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180
〈표 VI-5〉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181
〈표 VI-6〉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182
〈표 VI-7〉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183
〈표 VI-8〉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184
〈표 VI-9〉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185
〈표 VI-10〉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186
〈표 VI-11〉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187
〈표 VI-12〉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188
〈표 VI-13〉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189
〈표 VI-14〉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190
〈표 VI-15〉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191
〈표 VI-16〉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192
〈표 VI-17〉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193
〈표 VI-18〉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194

〈표 VI-19〉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195
〈표 VI-20〉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196
〈표 VI-21〉 각 청소년시설 간의 차이 인지 정도	197
〈표 VI-22〉 각 청소년시설 간의 차이 인지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198
〈표 VI-23〉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유무 여부	199
〈표 VI-24〉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유무 여부 요인별 차이분석	200
〈표 VI-25〉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활용 현황	201
〈표 VI-26〉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원	204
〈표 VI-27〉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205
〈표 VI-28〉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관	206
〈표 VI-29〉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207
〈표 VI-30〉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208
〈표 VI-31〉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209
〈표 VI-32〉 청소년시설 이용 빈도	210
〈표 VI-33〉 청소년시설 이용 빈도 요인별 차이분석	211
〈표 VI-34〉 청소년시설에서 참여한 프로그램	212
〈표 VI-35〉 청소년시설에서 참여한 프로그램 요인별 차이분석	213
〈표 VI-36〉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214
〈표 VI-37〉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215
〈표 VI-38〉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의 공간/장비/설비에 대한 만족도	216
〈표 VI-39〉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의 공간/장비/설비에 대한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217
〈표 VI-40〉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218

〈표 VI-41〉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219
〈표 VI-42〉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220
〈표 VI-43〉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221
〈표 VI-44〉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 보유자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222
〈표 VI-45〉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 보유자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요인별 차이분석	223
〈표 VI-46〉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원	224
〈표 VI-47〉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225
〈표 VI-48〉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관	226
〈표 VI-49〉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227
〈표 VI-50〉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228
〈표 VI-51〉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229
〈표 VI-52〉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원	230
〈표 VI-53〉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231
〈표 VI-54〉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관	232
〈표 VI-55〉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233
〈표 VI-56〉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234
〈표 VI-57〉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235
〈표 VI-58〉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236

〈표 VI-59〉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237
〈표 VI-60〉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238
〈표 VI-61〉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239
〈표 VI-62〉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240
〈표 VI-63〉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241
〈표 VI-64〉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242
〈표 VI-65〉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243
〈표 VI-66〉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244
〈표 VI-67〉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245
〈표 VI-68〉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246
〈표 VI-69〉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247
〈표 VI-70〉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에 대한 기대	248
〈표 VI-71〉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원	250
〈표 VI-72〉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251
〈표 VI-73〉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관	252
〈표 VI-74〉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253
〈표 VI-75〉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254
〈표 VI-76〉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255

〈표 VI-77〉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원	256
〈표 VI-78〉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257
〈표 VI-79〉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관	258
〈표 VI-80〉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259
〈표 VI-81〉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260
〈표 VI-82〉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261
〈표 VI-83〉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수련원	262
〈표 VI-84〉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263
〈표 VI-85〉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수련관	264
〈표 VI-86〉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265
〈표 VI-87〉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266
〈표 VI-88〉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267
〈표 VI-89〉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원	268
〈표 VI-90〉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269
〈표 VI-91〉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	270
〈표 VI-92〉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271
〈표 VI-93〉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문화의집	272
〈표 VI-94〉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273
〈표 VI-95〉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용어에 대한 인식	274
〈표 VI-96〉 ‘청소년활동’의 뜻 인지 정도	275
〈표 VI-97〉 ‘청소년활동’의 뜻 인지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276

〈표 VI-98〉 ‘수련’의 뜻 인지 정도	277
〈표 VI-99〉 ‘수련’의 뜻 인지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278
〈표 VI-100〉 ‘수련’이란 용어의 부정적 느낌 정도	279
〈표 VI-101〉 ‘수련’이란 용어의 부정적 느낌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280
〈표 VI-102〉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기대	281
〈표 VI-103〉 청소년시설 필요 정도	283
〈표 VI-104〉 청소년시설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284
〈표 VI-105〉 청소년시설에 바라는 역할 및 기능	285
〈표 VI-106〉 청소년시설에 바라는 역할 및 기능 요인별 차이분석	286
〈표 VI-107〉 학교수업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287
〈표 VI-108〉 학교수업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요인별 차이분석	288
〈표 VI-109〉 방과후 프로그램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289
〈표 VI-110〉 방과후 프로그램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요인별 차이분석	290
〈표 VI-111〉 선호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형태	291
〈표 VI-112〉 선호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형태 요인별 차이분석	292
〈표 VII-1〉 응답자 특성	296
〈표 VII-2〉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재 역할 및 기능	297
〈표 VII-3〉 수련시설의 역할/기능에 대한 만족도	299
〈표 VII-4〉 수련시설의 역할/기능에 대한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300
〈표 VII-5〉 수련시설의 역할/기능의 내용적 적절 정도	301
〈표 VII-6〉 수련시설의 역할/기능의 내용적 적절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302
〈표 VII-7〉 시설 명칭에서 ‘수련’이란 용어의 적절 정도	303
〈표 VII-8〉 시설 명칭에서 ‘수련’이란 용어의 적절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304

〈표 VII-9〉 수지분석 요구에 대한 적절 정도	305
〈표 VII-10〉 수지분석 요구에 대한 적절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306
〈표 VII-11〉 수련시설의 ‘안전’ 대비 정도	307
〈표 VII-12〉 수련시설의 ‘안전’ 대비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308
〈표 VII-13〉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	309
〈표 VII-14〉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 요인별 차이분석	310
〈표 VII-15〉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311
〈표 VII-16〉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요인별 차이분석	312
〈표 VII-17〉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동아리활동 운영	313
〈표 VII-18〉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동아리활동 운영 요인별 차이분석	314
〈표 VII-19〉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자단 등 자치조직 운영	315
〈표 VII-20〉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자단 등 자치조직 운영 요인별 차이분석	316
〈표 VII-21〉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지역 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317
〈표 VII-22〉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지역 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요인별 차이분석	318
〈표 VII-23〉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	319
〈표 VII-24〉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 요인별 차이분석	320
〈표 VII-25〉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	321
〈표 VII-26〉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 요인별 차이분석	322
〈표 VII-27〉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 복지지원	323

〈표 VII-28〉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 복지지원 요인별 차이분석	324
〈표 VII-29〉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	325
〈표 VII-30〉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 요인별 차이분석	326
〈표 VII-31〉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327
〈표 VII-32〉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요인별 차이분석	328
〈표 VII-33〉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동아리활동 운영	329
〈표 VII-34〉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동아리활동 운영 요인별 차이분석	330
〈표 VII-35〉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자단 등 자치조직 운영	331
〈표 VII-36〉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자단 등 자치조직 운영요인별 차이분석	332
〈표 VII-37〉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지역 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333
〈표 VII-38〉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지역 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요인별 차이분석	334
〈표 VII-39〉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	335
〈표 VII-40〉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 요인별 차이분석	336
〈표 VII-41〉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	337
〈표 VII-42〉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 요인별 차이분석	338
〈표 VII-43〉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 복지지원	339
〈표 VII-44〉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 복지지원 요인별 차이분석	340

〈표 VII-45〉 수련시설이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해 할일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정도	341
〈표 VII-46〉 수련시설이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해 할일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342
〈표 VII-47〉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만족도 및 전문성	343
〈표 VII-48〉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 수의 적정 정도	345
〈표 VII-49〉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 수의 적정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346
〈표 VII-50〉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보수에 대한 만족도	347
〈표 VII-51〉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보수에 대한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348
〈표 VII-52〉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복지수준 만족도	349
〈표 VII-53〉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복지수준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350
〈표 VII-54〉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교육 제공의 적절 정도	351
〈표 VII-55〉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교육 제공의 적절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352
〈표 VII-56〉 본인의 청소년분야에 대한 전문성 수준	353
〈표 VII-57〉 본인의 청소년분야에 대한 전문성 수준 요인별 차이분석	354
〈표 VII-58〉 수련시설 직원들의 전문성 다양화 필요 정도	355
〈표 VII-59〉 수련시설 직원들의 전문성 다양화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356
〈표 VII-60〉 수용정원대비'로 청소년지도사 보유 기준에 대한 의견 요인별 차이분석	357
〈표 VII-61〉 수용정원대비'로 청소년지도사 보유 기준에 대한 의견 요인별 차이분석	358
〈표 VII-62〉 교육정책 및 학교와의 관계	359
〈표 VII-63〉 수련시설의 교육정책과 연계 필요 정도	360
〈표 VII-64〉 수련시설의 교육정책과 연계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361

〈표 VII-65〉 수련시설의 교육정책과 연계 운영 정도	362
〈표 VII-66〉 수련시설의 교육정책과 연계 운영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363
〈표 VII-67〉 수련시설과 학교의 연계협력 사업의 필요 정도	364
〈표 VII-68〉 수련시설과 학교의 연계협력 사업의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365
〈표 VII-69〉 수련시설의 학교 연계협력 사업 필요 정도	366
〈표 VII-70〉 수련시설의 학교 연계협력 사업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367
〈표 VII-71〉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관계	368
〈표 VII-72〉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만족도	370
〈표 VII-73〉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371
〈표 VII-74〉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적정 정도	372
〈표 VII-75〉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적정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373
〈표 VII-76〉 청소년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	374
〈표 VII-77〉 청소년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375
〈표 VII-78〉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	376
〈표 VII-79〉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377
〈표 VII-80〉 수련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만족도	378
〈표 VII-81〉 수련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379
〈표 VII-82〉 수련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	380
〈표 VII-83〉 수련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381
〈표 VII-84〉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수련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382
〈표 VII-85〉 수련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요인별 차이분석	383
〈표 VII-86〉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련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	384

〈표 VII-87〉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련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 요인별 차이분석	385
〈표 VII-88〉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력 배치기준 재조정	386
〈표 VII-89〉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력 배치기준 재조정 요인별 차이분석 ...	387
〈표 VII-90〉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원기준 마련	388
〈표 VII-91〉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원기준 마련 요인별 차이분석 ...	389
〈표 VII-92〉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수련시설에 입점하는 기관의 제한 등에 대한 기준 마련	390
〈표 VII-93〉 수련시설에 입점하는 기관의 제한 등에 대한 기준 마련 요인별 차이분석	391
〈표 VII-94〉 지역사회 네트워크	392
〈표 VII-95〉 지역사회 주민들의 수련시설 인지 정도	394
〈표 VII-96〉 지역사회 주민들의 수련시설 인지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395
〈표 VII-97〉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인지 정도	396
〈표 VII-98〉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인지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397
〈표 VII-99〉 수련시설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연계/교류 필요 정도	398
〈표 VII-100〉 수련시설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연계/교류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399
〈표 VII-101〉 수련시설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현재 연계/교류 정도	400
〈표 VII-102〉 수련시설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현재 연계/교류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401

〈표 VII-103〉 수련시설과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연계/교류 필요 정도	402
〈표 VII-104〉 수련시설과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연계/교류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403
〈표 VII-105〉 수련시설과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현재 연계/교류 정도	404
〈표 VII-106〉 수련시설과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현재 연계/교류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405
〈표 VII-107〉 수련시설의 지역사회 홍보 적절 정도	406
〈표 VII-108〉 수련시설의 지역사회 홍보 적절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407
〈표 VII-109〉 향후 기대하는 수련시설의 역할 및 기능	408
〈표 VII-110〉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정도	410
〈표 VII-111〉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411
〈표 VII-112〉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적절한 직원 수	412
〈표 VII-113〉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적절한 직원 수 요인별 차이분석	413
〈표 VII-114〉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 보수 수준 향상 정도	414
〈표 VII-115〉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 보수 수준 향상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	415
〈표 VII-116〉 수련시설 직원의 적당한 초임 연봉 수준	416
〈표 VII-117〉 수련시설 직원의 적당한 초임 연봉 수준 요인별 차이분석	417
〈표 VII-118〉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복지수준의 확대 필요 정도	418
〈표 VII-119〉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복지수준의 확대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419
〈표 VII-120〉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교육의 확대 필요 정도	420

〈표 VII-121〉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교육의 확대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421
〈표 VII-122〉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수준 개선 필요 정도	422
〈표 VII-123〉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수준 개선 필요 정도	423
〈표 VII-124〉 재직 중인 수련시설 운영예산의 확대 필요 정도	424
〈표 VII-125〉 재직 중인 수련시설 운영예산의 확대 필요 정도	425
〈표 VII-126〉 향후 수련시설에 기대하는 정체성	426
〈표 VII-127〉 재직 중인 수련시설 시설명칭 변경 필요 정도	428
〈표 VII-128〉 재직 중인 수련시설 시설명칭 변경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429
〈표 VII-129〉 ‘수련’이란 용어 대체 시 적절한 용어	430
〈표 VII-130〉 ‘수련’이란 용어 대체 시 적절한 용어 요인별 차이분석	431
〈표 VII-131〉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 청소년수련원	432
〈표 VII-132〉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433
〈표 VII-133〉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	434
〈표 VII-134〉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435
〈표 VII-135〉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 청소년문화의집	436
〈표 VII-136〉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437
〈표 VII-137〉 향후 수련시설을 종합시설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적절 정도	438
〈표 VII-138〉 향후 수련시설을 종합시설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적절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439
〈표 VII-139〉 시설유형 통합에 대한 생각	440
〈표 VII-140〉 시설유형 통합에 대한 생각 요인별 차이분석	441
〈표 VII-141〉 재직 중인 시설유형을 기준으로, 적절한 수련시설 운영주체 형식	442
〈표 VII-142〉 재직 중인 시설유형을 기준으로, 적절한 수련시설 운영주체 형식	443
〈표 VII-143〉 지역사회에서 수련시설의 위상 수준	444
〈표 VII-144〉 지역사회에서 수련시설의 위상 수준 요인별 차이분석	445

그 림 목 차

【그림 V-1】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58
【그림 V-2】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60
【그림 V-3】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62
【그림 V-4】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64
【그림 V-5】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66
【그림 V-6】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68
【그림 V-7】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70
【그림 V-8】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72
【그림 V-9】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74
【그림 V-10】 각 청소년시설 간의 차이 인지 정도	76
【그림 V-11】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유무 여부	78
【그림 V-12】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원	83
【그림 V-13】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관	85
【그림 V-14】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87
【그림 V-15】 청소년시설 이용 빈도	89
【그림 V-16】 청소년시설에서 참여한 프로그램	91
【그림 V-17】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93
【그림 V-18】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의 공간/장비/설비에 대한 만족도	95
【그림 V-19】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97
【그림 V-20】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99
【그림 V-21】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 보유자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101
【그림 V-22】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원	103

【그림 V-23】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관	105
【그림 V-24】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107
【그림 V-25】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원	109
【그림 V-26】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관	111
【그림 V-27】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113
【그림 V-28】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115
【그림 V-29】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117
【그림 V-30】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119
【그림 V-31】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121
【그림 V-32】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123
【그림 V-33】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125
【그림 V-34】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원	129
【그림 V-35】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관	131
【그림 V-36】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133
【그림 V-37】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원	135
【그림 V-38】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관	137
【그림 V-39】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139
【그림 V-40】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원	141
【그림 V-41】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수련관	143
【그림 V-42】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145
【그림 V-43】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원	147
【그림 V-44】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	149
【그림 V-45】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문화의집	151
【그림 V-46】 ‘청소년활동’의 뜻 인지 정도	154
【그림 V-47】 ‘수련’의 뜻 인지 정도	156
【그림 V-48】 ‘수련’이란 용어의 부정적 느낌 정도	158

【그림 V-49】 청소년시설 필요 정도	162
【그림 V-50】 청소년시설에 바라는 역할 및 기능	164
【그림 V-51】 학교수업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166
【그림 V-52】 방과후 프로그램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168
【그림 V-53】 선호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형태	170
【그림 VI-1】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179
【그림 VI-2】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181
【그림 VI-3】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183
【그림 VI-4】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185
【그림 VI-5】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187
【그림 VI-6】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189
【그림 VI-7】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191
【그림 VI-8】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193
【그림 VI-9】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195
【그림 VI-10】 각 청소년시설 간의 차이 인지 정도	197
【그림 VI-11】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유무 여부	199
【그림 VI-12】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원	204
【그림 VI-13】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관	206
【그림 VI-14】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208
【그림 VI-15】 청소년시설 이용 빈도	210
【그림 VI-16】 청소년시설에서 참여한 프로그램	212
【그림 VI-17】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214

【그림 VI-18】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의 공간/장비/설비에 대한 만족도	216
【그림 VI-19】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218
【그림 VI-20】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220
【그림 VI-21】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 보유자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222
【그림 VI-22】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원	224
【그림 VI-23】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관	226
【그림 VI-24】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228
【그림 VI-25】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원	230
【그림 VI-26】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관	232
【그림 VI-27】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234
【그림 VI-28】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236
【그림 VI-29】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238
【그림 VI-30】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240
【그림 VI-31】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242
【그림 VI-32】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244
【그림 VI-33】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246
【그림 VI-34】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원	250
【그림 VI-35】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관	252
【그림 VI-36】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254
【그림 VI-37】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원	256
【그림 VI-38】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관	258
【그림 VI-39】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260
【그림 VI-40】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원	262
【그림 VI-41】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수련관	264
【그림 VI-42】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266

【그림 VI-43】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원	268
【그림 VI-44】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	270
【그림 VI-45】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문화의집	272
【그림 VI-46】 ‘청소년활동’의 뜻 인지 정도	275
【그림 VI-47】 ‘수련’의 뜻 인지 정도	277
【그림 VI-48】 ‘수련’이란 용어의 부정적 느낌 정도	279
【그림 VI-49】 청소년시설 필요 정도	283
【그림 VI-50】 청소년시설에 바라는 역할 및 기능	285
【그림 VI-51】 학교수업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287
【그림 VI-52】 방과후 프로그램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289
【그림 VI-53】 선호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형태	291
【그림 VII-1】 수련시설의 역할/기능에 대한 만족도	299
【그림 VII-2】 수련시설의 역할/기능의 내용적 적절 정도	301
【그림 VII-3】 시설 명칭에서 ‘수련’이란 용어의 적절 정도	303
【그림 VII-4】 수지분석 요구에 대한 적절 정도	305
【그림 VII-5】 수련시설의 ‘안전’ 대비 정도	307
【그림 VII-6】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	309
【그림 VII-7】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311
【그림 VII-8】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동아리활동 운영	313
【그림 VII-9】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자단 등 자치조직 운영	315
【그림 VII-10】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지역 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317
【그림 VII-11】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	319
【그림 VII-12】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	321
【그림 VII-13】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 복지지원	323

【그림 VII-14】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	325
【그림 VII-15】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327
【그림 VII-16】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동아리활동 운영	329
【그림 VII-17】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재단 등 자치조직 운영	331
【그림 VII-18】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지역 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333
【그림 VII-19】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	335
【그림 VII-20】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	337
【그림 VII-21】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 복지지원	339
【그림 VII-22】 수련시설이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해 할일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정도	341
【그림 VII-23】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 수의 적정 정도	345
【그림 VII-24】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보수에 대한 만족도	347
【그림 VII-25】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복지수준 만족도	349
【그림 VII-26】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교육 제공의 적절 정도	351
【그림 VII-27】 본인의 청소년분야에 대한 전문성 수준	353
【그림 VII-28】 수련시설 직원들의 전문성 다양화 필요 정도	355
【그림 VII-29】 ‘수용정원대비’로 청소년지도사 보유 기준에 대한 의견 요인별 차이분석	357
【그림 VII-30】 수련시설의 교육정책과 연계 필요 정도	360
【그림 VII-31】 수련시설의 교육정책과 연계 운영 정도	362
【그림 VII-32】 수련시설과 학교의 연계협력 사업의 필요 정도	364
【그림 VII-33】 수련시설의 학교 연계협력 사업 필요 정도	366
【그림 VII-34】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만족도	370
【그림 VII-35】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적정 정도	372
【그림 VII-36】 청소년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	374

【그림 VII-37】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	376
【그림 VII-38】 수련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만족도	378
【그림 VII-39】 수련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	380
【그림 VII-40】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수련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382
【그림 VII-41】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련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	384
【그림 VII-42】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력 배치기준 재조정	386
【그림 VII-43】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원기준 마련	388
【그림 VII-44】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수련시설에 입점하는 기관의 제한 등에 대한 기준 마련	390
【그림 VII-45】 지역사회 주민들의 수련시설 인지 정도	394
【그림 VII-46】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인지 정도	396
【그림 VII-47】 수련시설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연계/교류 필요 정도	398
【그림 VII-48】 수련시설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현재 연계/교류 정도	400
【그림 VII-49】 수련시설과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연계/교류 필요 정도	402
【그림 VII-50】 수련시설과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현재 연계/교류 정도	404
【그림 VII-51】 수련시설의 지역사회 홍보 적절 정도	406
【그림 VII-52】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정도	410
【그림 VII-53】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적정한 직원 수	412

【그림 VII-54】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 보수 수준 향상 정도	414
【그림 VII-55】 수련시설 직원의 적당한 초임 연봉 수준	416
【그림 VII-56】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복지수준의 확대 필요 정도	418
【그림 VII-57】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교육의 확대 필요 정도	420
【그림 VII-58】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수준 개선 필요 정도	422
【그림 VII-59】 재직 중인 수련시설 운영예산의 확대 필요 정도	424
【그림 VII-60】 재직 중인 수련시설 시설명칭 변경 필요 정도	428
【그림 VII-61】 ‘수련’이란 용어 대체 시 적절한 용어	430
【그림 VII-62】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 청소년수련원	432
【그림 VII-63】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	434
【그림 VII-64】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 청소년문화의집	436
【그림 VII-65】 향후 수련시설을 종합시설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적절 정도	438
【그림 VII-66】 시설유형 통합에 대한 생각	440
【그림 VII-67】 재직 중인 시설유형을 기준으로, 적절한 수련시설 운영주체 형식	442
【그림 VII-68】 지역사회에서 수련시설의 위상 수준	444
【그림 VIII-1】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 방안	460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²⁾

최근 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및 학교교육 등 타 분야와의 연계·협력이 요구되는 사회적 변화를 맞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역할과 기능 확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원이 188개, 청소년수련관이 187개, 청소년문화의집이 233개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의 98%, 청소년문화의집의 97%가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각 시설 역할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활용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역 간 혹은 시설 간 운영 수준의 격차를 줄여 청소년 육성 기반의 균형 있는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청소년수련시설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최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은 과거의 규격화된 수련거리나 수련활동 중심에서 벗어나 학교교육과의 연계,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진로직업체험을 통한 청소년들의 진로선택과의 연계 등으로 그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 학교 교육의 측면에서도 학교 내에서의 교과교육 중심에서 지역자원의 연계와 활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유연성이 커지고 있어 학교 내 자원과 인프라만으로 이러한 교육적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에 봉착해 있다.

특히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청소년사업과 교육사업을 연계 혹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청소년사업 만으로 한계가 있었던 예산의 부족 문제, 사업영역 및 범위의 확산 문제 등 정책효과를 확산하는데 부딪혔던 어려움들을 일정정도 극복해 나가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청소년분야의 통합과 통섭의 필요성과 새로운 시도의 전개라는 정책환경의

2) 이 장의 일부 내용은 연구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이슈브리프 제3호로 발간한 바 있음(“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2015년 5월 29일)

변화를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겠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전통적인 수련거리 제공 및 체험적 수련활동 운영과 더불어 학교교육과의 연계,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코디네이트,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연계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 절실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재구조화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변화 요구와 수요를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둘째, 시대적·사회적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변화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로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한정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해병대 수련활동 사고 등 최근 일련의 사건·사고를 거치며 자원권 청소년 시설로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청소년수련원과 생활권 공공시설이 대부분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이 본 정책연구의 대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청소년시설을 각 유형별로 분류할 때 전국적으로 이 세 유형의 청소년수련시설이 가장 많은 설치 개소 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우선 각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그 운영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로는 사회와 가정의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수요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수련활동의 확대와 강화를 도모하고, 셋째로는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 등 지역사회 내 여러 자원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보다 고객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청소년정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청소년수련시설의 개선된 역할과 정체성 확립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문헌 고찰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과 현황을 정리해 보고, 그동안에 진행된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 관련 논의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헌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별 주요 특징 및 차별성을 살펴보고, 매년 일정 주기에 따라 시행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전문가 및 현장 의견들에 대한 수렴이다. 우선 정성적 측면에서 유형별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전문가 및 시설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다. 또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전국의 청소년(일반 청소년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청소년 대상) 및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문헌고찰, 심층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나온 결과들을 기반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재정립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내용들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 역할 관련 논의와 선행연구 고찰, 그리고 유형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특징 및 문제점 분석 등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둘째, 청소년수련시설 전문가 자문회의와 청소년수련시설 지역별 시설운영자 현장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시설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안과 기능, 향후 변화에 대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추진과정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쟁점 및 주요결과를 공유하고, 연구성과의 확산을 목적으로 ‘이슈브리프’를 연구성과물로 기 발간하였다.

다섯째, 조사연구로서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하여 일반 청소년들과 더불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청소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섯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역할 및 정체성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등이 함께 하는 정책 워크숍과 정책담당자들과 함께하는 정책실무협의회를 추진하였다.

제 II 장

청소년수련시설 개념 및 역할 관련 논의 고찰

1.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과 종류
2.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3.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
4.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논의를 통한 시사점

제 II 장 청소년수련시설 개념 및 역할 관련 논의 고찰³⁾

1.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과 종류

1)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문화 활동, 청소년교류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청소년활동시설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는 청소년활동시설을 6개의 종류로 구분하고 각각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부터 제32조의2까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 보고의무, 금지행위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설치·운영되는 청소년활동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와 기능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와 기능은 1991년에 수립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 처음으로 제시되었다(체육청소년부, 1991). 이를 근거로 1991.12에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 1993.1에 시행하고, 제1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1997)이 수립·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국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3) 이 장은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인 김정주(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가 집필하였음

그 후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개정하고 새로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규정도 많이 변화되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하거나 수련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기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제정으로 청소년활동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청소년수련활동과 청소년활동의 관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와 기능을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제·개정 과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91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시기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부문을 설정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련거리개발, 수련터전확보,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배치, 청소년단체의 육성, 청소년의 수련활동 참여동기 부여 등의 정책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수련에 필요한 활동프로그램 및 사업을 수련거리로 명칭하고, 수련거리 개발과 실시에서 준거가 될 수 있는 수련지표로 건강, 정서, 용기 등의 개인성 지표와 예절, 협동, 긍지 등의 사회성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6대 덕목이라 하였다. 수련거리는 6대 덕목의 개별 덕목을 함양하는 것을 개별수련거리, 6대 덕목을 종합적으로 함양하는 것을 복합수련거리로 구분하고, 수련거리는 다수 보통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과학적·구체적으로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체육청소년부, 1991: 19-21).

또한,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개발된 수련거리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수련장소, 시설, 설비를 갖춘 장소를 청소년 수련터전이라 하였다. 그리고 수련터전은 생활권 수련터전과 자연권 수련터전으로 구분하고, 수련터전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기능을 설정하였으며, 수련터전의 확보를 위한 소요량의 산출, 규모와 입지기준, 전국적인 배치기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체육청소년부, 1991: 113-186).

생활권 수련터전은 일상생활 속에서 취미개발, 정서·예절함양,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시설 규모와 기능에 따라 청소년대전당, 수련원, 수련관, 수련의집, 수련실, 수련방 등으로 구분하고, 전국에 총 12,909개의 생활권 수련터전을 확보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체육청소년부, 1991: 114).

자연권수련터전은 대자연속에서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함양 등을 위하여 위치와 기능에

따라서 한국청소년신천지, 국토탐사로, 수련의집, 통일청소년광장, 수련마을(바들산수련장, 산천수련장, 잔디수련장, 문화권수련장) 등으로 구분하고, 자연경관과 지형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608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체육청소년부, 1991: 118).

(2) 1993년 청소년기본법 제정 및 시행 시기

1991에 제정되고 1993.1.1.일에 시행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은 ‘학교시설 외에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7조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일상생활권 안에서 행하는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생활권수련시설과 자연권수련시설, 여행하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유스호스텔로 구분하였다.

(3) 1999년 청소년기본법 개정 시기

1995.12에 전면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한 채,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을 ‘청소년수련활동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였다. 기존의 ‘학교시설 외’를 삭제하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교육원과 학생야영장 등도 청소년수련시설로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1999.8에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를 정비하여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로 구분하되, 생활권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자연권 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으로 구분하였다.

(4)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 이후 시기

2004.2에 청소년기본법의 전부 개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제정을 통해서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에 변화가 생겼다.

2004.2에 전부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시설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청소년시설로 정의하였다.

2.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1)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현황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1개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다.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은 1992년 이전에는 수련시설이 150여 개에 불과하였으나, 1993년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1997)의 시행으로 국가의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는 매년 증가하여 2014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787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종류별로 설치현황은 <표 II-1>과 같다.⁴⁾ 전국에 총 787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되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이 513개로 전체의 65.2%이고, 민간시설이 274개소에 34.8%이다. 전체 787개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종류별로는 청소년문화의집이 233개소로 가장 많고, 청소년수련관이 187개소, 청소년수련원이 188개소, 유스호스텔이 128개소, 특화시설이 9개소 등이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등 도심권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부문에서 주로 설치하였으며, 자연권에 위치하고 숙박시설을 갖춘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은 민간 부분에서 주로 많이 설치하였다.

표 II-1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구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87	187	233	188	42	128	9
공공	513	184	227	54	21	18	9
민간	274	3	6	134	21	110	0

*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2015.5.6)

4)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2015.5.6. 검색)

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1)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입

먼저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간 수입현황은 <표 II-2>와 같다. 수련시설 당 연간 총수입은 767,904천원이며 이중 자체수입은 525,518천원으로 자체수입률은 68.4%이다. 청소년수련시설 중에서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특화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보다는 자체 수익사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민간에서 참여가 많은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에서는 시설운영에 대한 정부지원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수련관도 전체 운영비용의 55.3%를 자체 수익사업으로 조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는 자체수입률이 18.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연간 총수입이 195,688천원으로 운영예산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의 수입으로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공공요금, 인건비 등과 같은 경상비에 대한 지출에 사용하면 청소년활동 사업비의 규모는 매우 작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자체수익사업에 의존해서 운영해야 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시설로서 책무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선결조건임을 보여준다.

표 II-2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간 수입

구분	시설수 (개)	총수입 (천원)	자체수입 (천원)	보조금수입 (천원)	자체수입률 (%)
전 체	676	767,904	525,518	242,387	68.4
청소년수련관	177	1,179,546	651,719	527,827	55.3
청소년문화의집	193	195,688	36,401	159,287	18.6
청소년수련원	149	1,033,901	844,353	189,548	81.7
청소년야영장	32	116,327	79,165	37,163	68.1
유스호스텔	117	855,255	851,636	3,619	99.6
특화시설	8	1,839,665	610,876	1,228,789	33.2

※ 주 : 본 표는 여성가족부가 2014년에 17개 시도에서 수집한 청소년수련시설조사의 원자료를 연구진이 분석하여 구성함

(2) 청소년수련시설의 건축규모와 수용정원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별 건축규모와 수용정원은 <표 II-3>과 같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평균적인 건축규모는 연건축면적이 평균 3,527㎡이다. 청소년수련관이 4,960㎡, 청소년수련원이 4,909㎡, 청소년특화시설이 4,644㎡, 유스호스텔이 4,392㎡ 등으로 대체로 비슷한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다. 건축규모가 작은 수련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이 1,003㎡, 야영장이 1,034㎡로 비슷한 규모였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용정원은 전체 평균이 452명이었다. 청소년특화시설이 평균 862명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수련관이 626명, 청소년수련원이 560명 등이었다. 건축규모가 가장 작은 청소년문화의집은 평균 183명의 수용정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정원 1인당 연건축면적은 평균 7.8㎡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시설 종류별로는 유스호스텔이 9.6㎡로 가장 크고, 야영장은 2.1㎡로 가장 작았다. 야영장의 경우 건축물로는 대피 시설, 취사시설, 샤워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는 정도의 건축이 필요하고 대부분 야영지를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수련관의 수용정원 1인당 연건축면적은 평균 7.9㎡인데 비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은 5.5㎡, 청소년특화시설은 5.4㎡로 나타나서 청소년수련관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 청소년수련시설의 건축규모 및 수용정원

구분	건축규모		수용정원		수용정원 1인당 연건축면적 (㎡)
	시설수 (개)	연건축면적 (㎡)	시설수 (개)	수용정원 (명)	
전 체	759	3,527	759	452	7.8
청소년수련관	186	4,960	186	626	7.9
청소년문화의집	210	1,003	210	183	5.5
청소년수련원	178	4,909	178	560	8.8
청소년야영장	43	1,034	43	482	2.1
유스호스텔	134	4,392	134	457	9.6
특화시설	8	4,644	8	862	5.4

※ 주 : 본 표는 여성가족부가 2014년에 17개 시도에서 수집한 청소년수련시설조사의 원자료를 연구진이 분석하여 구성함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건축면적과 실제 사용 가능한 활동 공간의 면적은 건축물의 구조나 설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시설 종류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수용정원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서 수용정원을 시설의 규모를 산출하는 기준지표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용정원의 산출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과 운영일수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과 연간 운영일수는 <표 II-4>와 같다.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이 보유하는 프로그램은 평균 31.7개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관이 73.2개로 가장 많았고, 특화시설이 49.3개, 청소년문화의집이 26.6개, 청소년수련원이 19.8개 등이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간 운영일수는 평균 287일이었고, 특화시설이 324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수련관이 319일, 청소년문화의집이 301일이었다. 청소수련원은 247일, 청소년야영장은 223일 등으로 생활권에 있는 수련시설보다 운영일수가 적었다.

수련시설의 연간 가동률은 365일 기준으로 평균 78.6%이었고,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 등 생활권 수련시설은 80% 이상의 연간 가동률을 보였으나 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 등 자연권 수련시설은 60%대의 연간 가동률을 보였다.

표 II-4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과 연간 운영일

구분	프로그램		연간 운영일		
	시설수 (개)	프로그램수 (개)	시설수 (개)	연간 운영 일수(일)	연간 가동률 (%)
전 체	759	31.7	759	287	78.6
청소년수련관	186	73.2	186	319	87.4
청소년문화의집	210	26.6	210	301	82.5
청소년수련원	178	19.8	178	247	67.7
청소년야영장	43	1.3	43	223	61.1
유스호스텔	134	6.7	134	276	75.6
특화시설	8	49.3	8	324	88.8

※ 주 : 본 표는 여성가족부가 2014년에 17개 시도에서 수집한 청소년수련시설조사의 원자료를 연구진이 분석하여 구성함

(4)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간 전체 이용자 및 청소년 이용자 현황은 <표 II-5>와 같다.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당 연간 전체 이용자수는 평균 83,348명이고, 그 중 청소년 이용자는 56,127명이어서 청소년이용률은 67.3%이다. 청소년수련시설 종류별로는 청소년이용자수는 청소년수련관이 연간 135,199명, 청소년문화의집이 36,344명, 청소년수련원이 29,578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용률은 청소년문화의집이 87.3%로 가장 높고, 청소년수련관이 61.6%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건축면적 대비 청소년이용자수는 전체 평균이 15.9명이었다. 특화시설이 51.3명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문화의집이 36.2명, 청소년수련관이 27.3명 등이었다.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등은 숙박 중심으로 운영하는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적었다.

실제 운영하는 1일당 청소년이용자수는 평균 195.6명이 이용하였고, 청소년수련관은 423.8명, 청소년문화의집은 120.7명, 청소년수련원은 119.7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수련관보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이용률이 높고 연건축면적대비 청소년이용자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화시설은 청소년이용자 수, 청소년이용률, 연건축면적대비 청소년이용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화시설 8개 중 6개가 수도권의 인구밀집지역에 있어 이용자가 많으며, 특히 그 중 1개 시설의 청소년이용자수가 매우 높게 보고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표 II-5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간 이용자

구분	시설수 (개)	전체 이용자수 (명)	청소년 이용자수 (명)	청소년 이용률 (%)	연건축면적대비 청소년이용자수 (명/㎡)	운영일당 청소년이용자 수(명/일)
전 체	759	83,348	56,127	67.3	15.9	195.6
청소년수련관	186	219,402	135,199	61.6	27.3	423.8
청소년문화의집	210	41,616	36,334	87.3	36.2	120.7
청소년수련원	178	40,075	29,579	73.8	6.0	119.8
청소년야영장	43	7,864	4,896	62.3	4.7	22.0
유스호스텔	134	27,274	18,220	66.8	4.1	66.0
특화시설	8	323,396	238,293	73.7	51.3	735.5

※ 주 : 본 표는 여성가족부가 2014년에 17개 시도에서 수집한 청소년수련시설조사의 원자료를 연구진이 분석하여 구성함

(5) 청소년수련시설의 직원수

청소년수련시설의 직원 현황은 <표 II-6>과 같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전체 직원수는 전국 평균이 123명이고 그중 정규직 직원수는 평균 84명, 비정규직 직원수는 평균 3.9명으로 나타나서 정규직의 비율은 68.3%이다.

청소년수련관은 전체 직원수가 18.5명에 12.1명이 정규직으로 정규직비율은 65.4%이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전체 직원수가 평균 4.6명이고, 그 중 정규직이 3.1명이며 정규직 직원의 비율은 67.5%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원은 전체 직원수가 15.9명이며, 그 중 정규직 직원은 11.1명으로 나타났다. 특화시설은 전체 직원수가 평균 2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야영장은 전체직원수가 2.5명으로 가장 적었다.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전국 평균 4.6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전체 직원 수가 1~2명인 시설이 57개소고, 정규직 직원이 없는 경우도 38개소에 달한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도 전체 직원이 10명 미만인 시설이 49개소이고, 청소년수련원도 전체 직원수가 10명 미만인 시설이 60개소이다.

이처럼 직원배치가 열악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설관리 이외에 청소년활동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6 청소년수련시설의 직원수

구분	시설수 (개)	전체 직원수(명)	정규직 직원수(명)	비정규직 직원수(명)	정규직 비율(%)
전 체	725	12.3	8.4	3.9	68.3
청소년수련관	184	18.5	12.1	6.4	65.4
청소년문화의집	210	4.6	3.1	1.6	67.4
청소년수련원	163	15.9	11.1	4.8	69.8
청소년야영장	36	2.5	1.6	1.0	64.0
유스호스텔	124	13.0	9.1	3.9	70.0
특화시설	8	27.0	23.1	3.9	85.6

※ 주 : 본 표는 여성가족부가 2014년에 17개 시도에서 수집한 청소년수련시설조사의 원자료를 연구진이 분석하여 구성함

(6)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확보 현황은 <표 II-7>과 같이 조사된 759개 청소년수련시설의 평균 청소년지도사수는 3.4명이었다. 청소년수련관이 5.1명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특화시설이

4.9명, 청소년수련원이 4.0명이었고, 청소년문화의집은 2.0명이었다.

청소년지도사 1인당 연간 청소년이용자수는 평균 16,732명이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26,442명, 청소년문화의집은 18,341명, 청소년수련원은 7,363명 등이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실제 운영하는 날 하루 동안에 청소년지도사 1명당 청소년이용자수는 평균 57.5명이었다. 청소년특화시설이 15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수련관이 83.1명, 청소년문화의집이 60.4명, 청소년수련원이 30.1명 등이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는 5명의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청소년지도사 1명당 하루에 83명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가 평균 2.0명이 배치되어 있고, 청소년지도사 1명당 하루 평균 60.4명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원 중에서 청소년지도사의 비율은 전체 평균이 27.3%이며, 청소년수련관은 27.6%, 청소년문화의집은 43.1%, 청소년수련원은 25.3%명, 청소년야영장은 86.3%, 유스호스텔은 19.1%, 특화시설은 18.1% 등이다.⁵⁾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등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7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구분	시설수	전체 지도사수 (명)	시설당 지도사수 (명)	지도사 1인당 연간 청소년이용자수 (명)	지도사 1인당 일별 청소년이용자수 (명)
전 체	759	2,546	3.4	16,732.3	57.5
청소년수련관	186	951	5.1	26,442.7	83.1
청소년문화의집	210	416	2.0	18,341.7	60.4
청소년수련원	178	715	4.0	7,363.7	30.0
청소년야영장	43	93	2.2	2,263.7	10.0
유스호스텔	134	332	2.5	7,353.9	26.4
특화시설	8	39	4.9	48,880.6	150.1

※ 주 : 본 표는 여성가족부가 2014년에 17개 시도에서 수집한 청소년수련시설조사의 원자료를 연구진이 분석하여 구성함

5) 전체직원 대비 청소년지도사 비율은 <표 II-11>의 전체직원수와 <표 II-12>의 시설당 청소년지도사수를 활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각각의 표에서 분석된 시설수가 다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

1) 청소년수련시설의 배치 및 설치모형에 관한 연구

체육청소년부(1991)의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위한 수련터전의 종류와 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국가 계획이다.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서는 수련터전을 생활권수련터전과 자연권수련터전으로 구분하고 시설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생활권 수련터전은 전국의 읍면동 단위까지 총 12,909개를 설치하고, 자연권 수련터전은 자연경관과 지형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608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1993.1. 시행된 청소년기본법과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서 수정되어 수련시설을 생활권수련시설과 자연권수련시설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문화체육부(1993)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당시 청소년기본법에 최초 시행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법적인 개념과 종류에 기반을 두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별로 설치모형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설계기준을 개발하였다. 특히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 등의 하위 유형별로 시설모형을 제시하고, 동시에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되어야 하는 단위공간별 시설과 설비의 설계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당시 새로운 제도로 시행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신규로 조성하려는 신규사업자, 시설 설계자, 시설 시공자, 시설 운영자 등이 참조할 수 있는 지침으로 제시된 것이다.

김호순·김영한(1997)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배치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생활권수련시설 중에서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수련관으로 전환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전국의 시·군·구 자치단체 당 1개소로 전국에 234개로 설치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은 향후 문화의집 등 청소년의 단순 기능적 시설로 전환하되 전국에 278개소를 설치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자연권 수련시설 중에서 청소년수련마을을 청소년수련의집으로 통합하고, 청소년수련의집은 전국에 120개소를 설치하고, 청소년야영장은 전국에 268개소를 설치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스호스텔은 전국에 119개소를 배치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전명기·김영한·박창남(1998)은 21세기 청소년상의 정립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당시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특성을 분석하여 시설별

특성화가 매우 미흡한 점을 밝히고, 수련시설의 지역여건과 시설 특성을 고려하고 21세기 청소년상의 6대 영역별로 특성화 과정을 운영할 것을 제시하였다.

김혁진(1997)은 소규모 청소년수련시설의 대안으로서 청소년정보문화공간 모형을 제시하였다. 당시 청소년들의 변화하는 활동욕구와 정보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정보문화공간을 설치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김혁진, 1997: 5). 이 모형은 향후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의 기준이 되었다.

김정주·김혁진·김진호·성기원(2002)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를 위한 공간모형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1999년의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실이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청소년문화의집의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기준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김혁진(1997)의 연구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 공간 및 설계도면을 제시하였고, 이후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를 위한 사전심의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유진이(2002)는 기존 청소년수련관의 증·개축을 통한 수련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수련관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제 기능을 못하거나 노후화로 인한 변형이나 교체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증·개축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증·개축을 위한 공간분석, 경제성 평가, 부지조건 분석, 기존 건물분석, 구조 안정성 평가, 증축 디자인의 유형, 건축 프로그램의 확보 등이 포함된다.

이광호·전명기·김혁진·김민(2003)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시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분류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보호복지시설,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시설은 다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활동지원시설(청소년활동의집, 청소년특성화시설, 청소년야영장)로 분류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2004년 청소년기본법의 전면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 등으로 이어지며 현재의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분류체계로 정착되었다.

김정주·천정웅·김영지·임지연(1997)과 유진이·홍영균·고계성·윤영식·이종국·주범·채철균(2004)의 연구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나,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이나 시설공간의 설치와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연구들이다. 김정주·천정웅·김영지·임지연(1997)은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지역사회 청소년육성 관련 자원의 활동거점으로서 기능하는 지역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진이·홍영균·고계성·윤영식·이종국·주범·채철균(200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여가문화활동을 위한 시설과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여가문화시설을 영상, 영화, 음악 등의 여가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신체적 활동을 수용하는 공간이 스포츠시설로 구분하고 각각의 활동시설에 대하여 공간규모, 공간구성, 각종 장비 및 설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문화활동을 소재로 하는 시설은 옥외카페, 보드카페, 모형자동차 경주, 여학생 전용공간, 코스프레·팬코스, 도자기공방, 회화방, DVD & 음악감상실, 집짓기, 애완동물농장, 영상영화제작 및 편집실 등에 관한 설치모형을 제시하였다. 스포츠활동 시설은 인공암벽등반, 길거리농구, 인라인스케이트, 포켓볼, 멀티코드, 미로(미로 놀이동산), 커로링, 골프퍼팅장, P.K(패티티킵)연습장 등에 대한 설치모형을 제시하였다.

2)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연구

김정명·전국재·김치조(1995)에 의하면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시설운영의 내실화, 시설의 지원·협조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유스호스텔별로 운영모형을 제시하였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전략으로는 스테핑전략, 동태적 운영조직의 활용, 외부인력의 활용 등을 제시하였고, 시설운영의 내실화 방안으로 효율적인 시설·프로그램의 상품화, 시설 홍보 및 이용자 유치방안,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가격정책, 시설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설의 지원·협조체계 구축으로 행정기관의 지원·협조, 청소년 유관단체 지원·협조체계, 수련시설 고유협력단체의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김호순·김영한(1997)은 청소년수련시설의 목적을 실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련시설 운영의 기본원리를 제시하고, 청소년수련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관리전략과 마케팅전략을 제시하였다. 조직관리전략은 기획과정, 집행과정, 평가과정으로 구분하고 조직편성 등을 제시하였다. 마케팅전략으로는 수련시설의 제품관리, 수련활동 서비스 가격관리, 수련시설의 경로관리, 수련시설의 촉진관리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광호·전명기·김혁진·김민(2003)은 청소년시설 간 연계·협력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유관기관 등이 청소년활동시설을 중심으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연계의 목표설정과 필요성 공유, 시설별로 특성화·전문화된 콘텐츠와 사업능력 확보, 지속적인 인적 교류, 공동사업 실행을 통한 효과성 체험, 지속성 있는

협력사업 추진, 연계대상 기관의 존중과 특수성 인정 등을 제시하였다.

권일남·김혁진·오해섭(2007)은 국가 주도적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은 청소년지도에 대한 국가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청소년들의 학교 및 사회부적응에 대한 예방적, 회복적 정책수단으로 체험활동을 통한 전인교육의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고 지적하였다(권일남·김혁진·오해섭, 2007: 8).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적 공간으로 인식, 공공기능 대행으로 인한 신뢰성과 공정성 구축, 다중이용시설의 안정성 확보, 청소년이용률 제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권일남·김혁진·오해섭, 2007:10~22).

박영균·김호순(2012)은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진단하고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정부 및 지자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방향 모호성, 청소년시설의 특성화 구현 미비, 청소년시설간의 관계 재조명 필요,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학교교육과정 이해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청소년시설의 목적과 개념설정 및 장단기 운영계획수립,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된 학교교육과정 탐색, 청소년시설-지역사회 중심의 운영전략 수립,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의 다각화, 청소년시설의 지역사회 중심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3)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활동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은 1991년도에 수립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수련활동을 수행하는 시설이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일 것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체성은 청소년수련활동과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의하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상 모호성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체성에 관한 혼란이 발생하였다. 특히 교육정책에서 1997년에 개정된 제7차교육과정과 그 이후의 수시개정 교육과정으로 학교의 창의적체험활동,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등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수련활동을 학교교육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설정하여 왔으나, 학교교육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교육을 강조하면서 학교의 교육활동과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수련활동의 정체성을 정책적으로 명료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대표적으로 이광호·전명기·김혁진·김민(2003)과 김현철·임희진·정효진·민경석(2013)의 연구가 있다.

이광호·전명기·김혁진·김민(2003)은 1993년도의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국가의 청소년육성정책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소년활동과 수련활동의 개념을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활동을 청소년기의 활동이라는 의미에서 고유영역, 임의영역, 수련영역으로 구분하고 그중에서 수련영역을 수련활동으로 정책화하였다. 이러한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그동안 청소년활동현장에서 이론적·실제적으로 다년간 축적한 봉사활동, 문화예술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자치활동, 교류활동 등과 같은 구체적인 영역을 가진 활동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청소년수련활동은 다양한 청소년활동 중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핵심이 되는 기본활동으로 국가가 정책적 지원의 관점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관리·지원하는 활동”으로 개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이광호·전명기·김혁진·김민, 2003 :38-39). 즉 청소년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의 형태와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법제화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가 법적인 기준에 따라 인준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련활동으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2004년의 청소년기본법 전면개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 시에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재정의 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법제화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수련활동이 정착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수련활동과 청소년활동의 모호한 관계가 지속되었다.

10년 후에 수행된 김현철·임희진·정효진·민경석(2013)의 연구는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화를 위하여 청소년활동의 재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04년도 청소년기본법 전면개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 이후에도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더불어 학교교육정책에서 창의적체험활동, 진로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다양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활용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를 갖추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청소년활동개념이 청소년수련활동이라는 개념 틀 안에서 학교교육과 차별화를 시도하였으나, 수련활동개념의

외연이 너무 넓고 청소년활동을 학교교육과 분리해 이해하는 것은 실천적으로 한계가 명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사업이나 청소년육성의 하위개념이나 방법론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소년활동정책과 청소년보호 및 복지영역과 점진적으로 통합되어가는 모델로 가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체험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청소년역량은 청소년활동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청소년활동의 자발적 참여, 참여 기간 또는 시간, 참여빈도 등과 같은 질적인 요소들이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였다.

즉 이 연구는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학교교육에서 시행하는 체험활동까지 포함하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장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은 보다 축소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청소년활동의 개념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과 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청소년활동과 수련활동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범위를 바꾸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따라서 여전히 청소년활동과 수련활동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법령규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0)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은 청소년활동진흥법의 법적기준을 중심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매뉴얼 형태로 제시하고 있어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서 참고할 중요한 자료이다.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0)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업무매뉴얼을 제시하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수행할 기능으로 문화체험, 네트워크, 만남과 소통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의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매뉴얼도 공통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실제적으로 좌우하게 되는 예산편성, 사업편성, 인력편성 등에 관한 기준은 제시하고 않고,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위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매뉴얼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4.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 논의를 통한 시사점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과 정체성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매우 적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과 유형분류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법률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념이나 정체성을 별도로 연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체성은 청소년수련활동 또는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체성은 결국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수련활동 개념의 재정립을 시도한 연구들에서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책연구들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정책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면서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과 기능이 설정되었다.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 않았으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들을 대학원의 학위논문 수준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셋째,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개별 수련시설의 운영여건은 대체로 열악한 상황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실태에서 수련시설유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청소년수련시설의 인력확보, 청소년지도사 배치 등 전반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여건이 미흡하다. 특히 청소년수련시설 자체수입의 비율이 평균 68.4%에 달하는 점은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인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청소년수련관의 평균 연간예산은 1,179백만 원이고 청소년문화의집은 평균 195백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예산규모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활동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처럼 운영여건의 미흡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

넷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이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매뉴얼 등에서도 청소년수련시설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것보다는 시설관리, 인력관리, 프로그램관리 등과 같은 운영상에서 지켜야 할 지침들이 제시되어 있다.

다섯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이 대부분의 설립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진 상황인데 비하여, 국가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예를 들어 운영비 및 인건비 편성 기준, 운영인력 배치기준, 프로그램 등 사업편성 기준과 같은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주체 및 운영자의 형편과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하게 됨으로써 각 개별 수련시설 간의 예산, 인력, 사업, 시설 등에서 매우 큰 편차가 발생한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공통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장애를 가져온다. 이러한 결과로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에 대한 혼란과 더불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여섯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역사회 중심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활성화에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시설, 유관기관, 청소년단체, 청소년이용시설 등 다양한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조직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협력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일곱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은 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의 마련과 운영여건의 개선을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법률이나 정책에 반영하여 재정립한다 하더라도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보호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현재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체성이 미흡한 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재정적 취약성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제 Ⅲ 장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실제

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주요 특징
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를
통한 시사점

제 III 장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실제⁶⁾

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주요 특징

1)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형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유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하고, 개인 및 법인, 단체에서 설치한 시설을 민간시설이라 분류한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유형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에 의한 운영과, 청소년단체 위탁에 의한 운영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에 의한 운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운영한다. 청소년단체 위탁에 의한 운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에 위탁운영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조에 의해 민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2) 청소년정책과 행정조직의 잦은 변화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정책 및 행정조직의 잦은 변화로 인한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잦은 중앙행정조직의 변화에 따라 현재 청소년관련 지방 행정조직은 여성가족과, 가족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교육청소년과 등의 다양한 행정조직명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행정 담당공무원의 잦은 자리이동으로 일선 지방행정 담당공무원과 청소년수련시설의 담당자들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업무과중 및 정보의 공유가 되지 않는 현상이 다수이다. 그로인해 지방 행정부서 담당공무원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지속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6) 이 장은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인 김인규(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집필하였음

현재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설립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정책개발보다는 국가 위탁사업 중심 운영 등 국가 정책사업들이 많이 몰려 있고,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관리·감독 기능 중심과 일선 현장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다.

3) 청소년수련시설의 열악한 재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위탁 청소년수련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설치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 또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하지 않고 있다. 보조금 외 재정은 수익사업인 정기형 강좌프로그램, 유아스포츠단 등 운영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수련시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전문성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열악한 예산운용과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체성 변질과 전문성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청소년육성재단 등의 공공법인 같은 경우 예산 및 청소년지도자 근무 안정성이 높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타 시설보다 떨어진다.

4) 청소년수련시설의 복합화 및 원스톱지원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건축방향은 수련시설을 다른 목적의 공공시설들과 복합화를 통해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 단독으로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보다 운영효율이 떨어지고 운영비가 증가하는 등 여러 양상의 갈등요소가 존재하고 있다(김정률, 2006).

일부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에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내 상담복지지원센터, 드림스타트, 위센터 등 각종 센터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기관운영 차원에서는 운영체계가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시설 내 기관장이 2명이 있어 시설관리 및 지휘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청소년수련시설

의 장(운영대표자)은 없고 시설 내 타기관장만 있는 시설이 일부 있는데 이러한 시설은 청소년수련 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정책 전무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배치기준 이외에 청소년학을 전공하거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근무함으로써 청소년정책에 무관심하고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열악한 재정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청소년보다 유아, 아동 및 일반시민의 비중이 높아지고 전문 인력확보의 어려움과 근무 안전성이 매우 낮아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의무화 등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확보 정책은 강화·확대하고 있지만 청소년지도자의 근무안전성 등 처우개선 및 복지를 위한 정책은 미흡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6) 지역별, 기관별 예산 및 인건비의 높은 격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가, 나, 다 등급에 맞는 시설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종사자 직무별 연봉 기준표가 매년 산정되어 기본적인 급여 수준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는 이러한 기준이 없어 지역과 시설별 기준이 다르고 격차가 매우 크다. 이로 인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는 상대적으로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이다.

7)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운영대표자) 및 실무자들의 잦은 자리 이동

위탁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는 3년의 단기간 위탁기간으로 인한 위탁법인의 변경에 따라 운영대표자 및 직원들이 자리 이동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실천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수련시설 위·수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위탁법인 변경 등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안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8) 지리적 접근성 및 여건 불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은 청소년들이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있어야 하지만 접근성과는 먼 곳에 위치한 수련시설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시설은 청소년활동 사업보다는 지역행사 위주의 대관 중심으로 운영하거나, 사업소 또는 지역사회 단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9) 지방교육청 및 학교와의 관계

청소년 중 80% 이상이 학생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학교와의 연계협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일부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은 학교 또는 지방교육청과 긴밀한 연계협력이 잘 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들이 있다. 학교 및 지방교육청에서는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기보다는 행정부처가 달라 정책의 소통과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이 있어서인지 청소년정책을 교육정책과 함께 통합하여 운영하는 지방 행정조직이 생겨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과 지방교육청 및 학교와의 연계협력을 위한 기반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정책과 여성가족부의 정책 간에 소통과 협력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현장에서는 충분한 전문성과 우수한 청소년활동사업(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에 끌려가는 경향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및 정체성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시설과 달리 개인재산을 투자하여 학교단체수련활동 중심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단체수련활동은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수련활동으로서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보다는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의 학교교육정책에 따라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민간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주무부처를

교육부로 이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단체수련활동은 대단위로 참여하는 수련활동으로서 사소한 사고라도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전국의 민간청소년수련시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주말을 이용한 개인형 프로그램의 개발, 방학기간을 활용한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소규모 운영을 권장하고 있지만,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정책이 없어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 특성상 단기적 재정확보를 위해 학교단체수련활동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은 학교단체수련활동이라는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공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고 하지만 위탁계약체결로 인해 ‘갑’과 ‘을’관계로서 시장원리를 벗어 날 수가 없는 현실이며, 이러한 관계로 인해 교육부 및 학교 교육정책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 세월호 사고로 인해 학교단체수련활동 중지라는 교육정책 방침에 의해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폐쇄한 민간 청소년수련시설도 발생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별, 설치 및 운영형태별 운영상의 특징이 다르고, 운영성과 및 활성화 수준도 매우 다르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급급하여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고유기능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과의 합의된 정책비전 제시와 정책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지원과 그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를 통한 시사점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2005년 시범시설로 시작하여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2015년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가 2년 주기로 의무화하여 평가결과(5등급)를 공개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별, 설치형태별, 운영형태별 운영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운영의 편차도 심하며 시설의 정체성 및 역할과 기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 2013년, 2014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여성가족부, 2012; 여성가족부, 2013; 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은 전반적으로는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에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정부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체성 및 전문성 확보, 시설운영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평가를 의무화하였지만, 평가결과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정책지원을 차등화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감독 기능도 중요하지만, 종합평가 결과 등급별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우수 및 우수시설은 장려금, 보통시설은 프로그램개발비 지원, 미흡 및 매우미흡은 컨설팅 의무화하여 컨설팅 결과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순기능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주기도 현재 2년에서 등급별 최우수 및 우수는 3년, 보통은 2년, 미흡 및 매우미흡은 1년으로 변경하여 현장의 업무과중을 줄이고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별 맞춤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시설의 직영시설은 운영대표자 선임 및 청소년지도사 확보 등을 통해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의 위탁시설 중 청소년단체의 위탁시설은 수탁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원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분한 재정 지원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공성과 정체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위탁시설 중 공공법인의 위탁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결론적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만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및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 확보 등 양적 확대에 치중하였다면 이제는 운영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 IV 장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현장 전문가 FGI

1. FGI 개요
2. 현장전문가 심층의견수렴을 위한
FGI 결과

제Ⅳ 장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현장전문가 FGI

1. FGI 개요

본 연구는 현장전문가들에 대한 심층의견을 조사하고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책임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수행하였으며, 더불어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 경향성이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법인화 추세를 반영하고자 법인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책임자들에 대한 FGI를 별도로 실시하였다. FGI 대상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관장이나 간부를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원 5명, 청소년수련관 6명, 청소년문화의집 5명, 법인화 청소년수련시설 5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각 FGI의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차 FGI : 청소년수련원 현장전문가, 2015. 3. 27
- 2차 FGI : 청소년수련관 현장전문가, 2015. 3. 31
- 3차 FGI : 청소년문화의집 현장전문가, 2015. 4. 2
- 4차 FGI : 법인화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현장전문가, 2015. 4. 23

FGI 주제는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로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최근의 이슈, 둘째, 청소년수련시설의 당면 문제, 셋째,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재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 넷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다섯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및 정체성 변화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이다.

2. 현장전문가 심층의견수렴을 위한 FGI 결과

1) 청소년수련원 현장전문가 FGI 결과

○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최근의 이슈

- 세월호 사건 이후 청소년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청소년 활동 전반에 어려움이 있음
- 학교 내 활동프로그램 최저 입찰제 도입으로 학교 청소년활동 시 문제 발생하고 있음
 - 최저 입찰로 인한 인건비와 활동비 절감으로 프로그램이 하향평준화 되고 있음
 - 일부 청소년수련원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학부모와 학교가 원하는 청소년수련원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위해 일정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는 청소년수련원이 피해를 보고 있음
- 세월호, 태안사건 이후 제정된 법들로 인해 학교 안에서 청소년 활동(수학여행, 수련회)이 제한되고 있음
 - 소집단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조항과 사전에 2배수 이상의 시설을 답사해야 된다는 조항 등으로 인해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활동을 아예 포기하는 학교도 발생하고 있음

○ 청소년수련원의 당면 문제

- 각 부처와 학교 자체에서 수련활동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로 인해 청소년활동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
- ‘수련’이란 단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모호하게 만듦
 - 명칭 개정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예) 청소년활동교육원

○ 청소년수련원의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 그 필요성

- 시설별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련시설마다 각각의 고유의 특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육부가 추진하는 인성교육, 안전교육에 청소년수련원이 동참함으로써 청소년수련원의 역할과 정체성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음

- 기존 청소년활동분야의 목표가 인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연계·협력 할 수 있을 것임
-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분야에서 기존 시설을 활용할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현 청소년지도자 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청소년을 전문으로 하는 인성·안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음

○ 청소년수련원의 역할 및 정체성 변화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

- 수련활동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 수련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할 만한 평가 필요함
 - 수련활동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수련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두 기관 간의 소통과 연계가 필요함
 - 인증심사를 하는 곳은 여성가족부이지만, 청소년을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학교와 교육부인데, 두 기관의 다른 인증기준과 운영기준으로 현실에서 청소년활동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두 부처의 합의된 운영기준이 필요함
-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정책을 수정·보완할 필요 있음
 - 청소년 정책 중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부분이 부족함
 - 현재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못해 정체성이 모호해 지고 있음. 그러므로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예) ‘단체 숙박 훈련’ 구절 포함
 - 현재 시설들의 규모와 역할이 변화되면서 법에 명시된 기관의 정의와 역할이 모호해지고 있음. 각 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들의 역할을 각기 다른 영역에서 정의할 필요 있음
 - 수련시설이 더 많은 기관과 연계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수련시설 역할 정의에 ‘교육 과정 지원 보완 활동’이란 구절 명시할 필요 있음
 - 학교 수련활동의 소규모화와 활동 규제 등과 같은 어려움들로 인해 학교 측에서 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경향 발생하고 있음.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법규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수정할 필요 있음
 - 민간 청소년수련원들과 더불어 국립청소년수련시설들의 역할 재정립과 그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증심사의 기준을 현실성 있게 수정할 필요 있음
- 기존 인증기준에 맞추기 위해 최소한의 자격요건과 경력을 가진 인력이 다수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설이 그 인력을 갖추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

2) 청소년수련관 현장전문가 FGI 결과

○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최근의 이슈

- 교육부에서 진행 중인 진로체험이 청소년수련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려는 움직임이 있음
- 현재 일부 청소년수련관에서 멘토교육이 시행 중이지만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청소년수련관에서 진로 체험처 재능기부 멘토를 연계할 때 성범죄 경력 조회와 같이 신뢰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음. 이러한 점으로 인해 추후 문제 발생하면 전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책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청소년수련관의 당면 문제

- 안전 점검으로 인한 문제점
 - 안전 문제가 대두 되면서 안전 관리 및 조사 등이 현실성 없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청소년지도사들의 자존감이 하락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 여러 곳에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행되고 있지만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음
 - 안전 점검의 횟수는 늘었으나 운영환경이 열악하여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함.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지적 받은 시설을 보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수정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운영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
 - 기관 설립과 설치에 국가는 지원하지만, 운영은 지자체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마다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도 차이가 발생함
 -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침이 필요함
- 기관 평가에 대한 문제점

- 각 수련시설의 자원과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평가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옴
 - 자원이 열악할수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늘려야 하지만,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면서 열악한 청소년수련관이 더 열악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음
 - 사전신고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절차로 인력 부족한 현장에 고충 증가시키고 있음
 - 재정적인 문제로 청소년지도사들을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
 - 사업을 늘어나지만 그에 따른 인력지원이 없어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재정 상태로 인해 단기 계약직이나 사업 단위에 따라 채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이 있음
 - 청소년 관련 정책이 자주 변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업무와 역할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 같다는 우려가 있음
 - 전문 활동가들의 입지가 약함
 - 현장 활동가들에 대한 복지향상 필요
 -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국가적인 법적 배치기준 필요
- 청소년수련관의 현재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
- 중소도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종합시설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청소년수련관 내에 상담센터, 인터넷 중독 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이 들어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그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내에 수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우려와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청소년 활동의 시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 청소년수련관의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변화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이란 명칭은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대변하지 못함
 - 수련시설 상위기관들도 더 이상 ‘수련’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음
 - 명칭이 변경될 필요 있음. 예) ‘청소년센터’

- 청소년수련원 역할에 대한 방향
 - 상담센터, 인터넷 중독 등 다양한 센터들과 함께 종합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
 -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인성교육과 진로교육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이 종합센터로 변한다면 청소년활동과 그 공간제공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음

○ 청소년수련관의 역할 및 정체성 변화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

- 청소년수련관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시설에 관해 인력·운영·지원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이 필요함
 -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아래 빠른 시일 내에 지원·운영 가능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운영비가 지원되어 이익창출의 걱정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청소년활동진흥법도 시설 설립 이외에 운영관련 매칭펀드 조항이 필요함
 - 국가가 운영비의 일정액을 지원한다면 청소년수련관은 수익창출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매번 정책마다 새로운 센터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형식으로 전개해서 현재 있는 시설들을 이용한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들의 새로운 기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임. 단, 그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인력지원과 운영지원이 필수적이어야 함

3) 청소년문화의집 현장전문가 FGI 결과

○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최근의 이슈와 당면 문제

- 지자체별 또는 기관들의 새로운 사업에 따른 청소년시설 역할과 입지가 변화하고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는 마을 공간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다양한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그중 몇몇 공간이 청소년 시설들의 역할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교육혁신특구사업과 같은 경우 그 안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일부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다른 협동조합과 공동체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청소년활동 안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의 입지가 줄어드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음

- 일부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현재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시간적인 이유와 직장 내 환경들로 인해 현실적으로 직장체험이 어려운 실정임.
- 운영 재정의 어려움
 - 열악한 국가 지원금으로 인해 교육부의 돌봄학교, 방과후아카데미, 바우처 사업을 통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의 문제
 - 지역과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일관적인 평가 지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청소년문화의집은 그 규모 편차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음

○ 청소년문화의집의 현재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

- 청소년수련관 안에 다양한 기관들이 들어서면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활동을 위한 공간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음
 - 반면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만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적은 직원 수와 적은 운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청소년수련관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진행하면서 성인 이용률이 높아졌고, 결국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졌음
 - 일부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활동에 관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대우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15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침의 문제
 - 2015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침에 자유 학기제에 대한 역할이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그에 따른 인력 보충이나 예산 지원이 없어 역할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임

○ 청소년문화의집의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변화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개념이 모호해 합쳐야 한다는 주장도 많음
 - 법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그 크기로 구분되지만,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중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생겨 그 기준이 불분명해졌음
 - 실제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차이가 없으며, 예산과

직원 수에서만 차이를 보임

-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을 통합해 시설의 효과성을 높이고, 규모가 작은 곳은 특성화 사업을 위주로 진행하는 등 규모에 대한 역할을 재분배하자는 의견도 제기됨

○ 청소년문화의집의 역할 및 정체성 변화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

- 청소년문화의집의 공공성 확보
 - 안정적 재정지원과 인력 규모에 대한 지침을 통해 청소년문화의집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함
 - 운영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지자체에 달려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기도 함. 그러므로 기본적인 운영지원과 배치기준이 필요함. 또한, 이러한 지침을 통해 지역 공공기관들과 원활한 협력이 가능해질 것임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역할
 - 인증 또는 예산과 같은 사항들을 맡게 되면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본래의 역할이 퇴색된 것 같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본래의 역할을 찾고 지역 시설들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4) 법인화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현장전문가 FGI 결과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최근의 이슈

- 법인화 추세
 - 서울·경기관 청소년수련시설들의 법인화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
 - 수련시설을 시설관리공단인 인수 시 문제점으로는 청소년전문가가 존재하지 않아 단순한 수치 및 성과 중심의 경영관리가 될 수 있고, 임용 권리자에 대한 권한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에 대한 고민보다는 지역사회 또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시설책임자 임용이 문제 될 수 있음
- 법인화의 장점
 - 공공성을 위한 요건 확보 가능
 - 신분 안전성과 급여 상승

- ‘공공행정망’ 사용으로 인한 행정 효율화
 - 교육청과 학교 등과의 의사소통에 유용함
 - 급여 형식에 공무원 임금체계를 반영하여 공무원의 몇 % 형식으로 비율 지급함
 - 지역 네트워크 기반 구축이 용이한데 민간의 경우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지만 재단의 경우 지역사회가 협조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축이 더욱 수월함
 - 지역 내 기업 투자 유치가 수월한데, 민간의 경우 다시 법인을 통해 시설로 투자받아야 하지만 재단의 경우 기본적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어 투자 의지만 있으면 쉽게 투자받을 수 있음. 지자체로서 공공성도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법인화의 단점
 - 관료화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됨
 -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성향이 퇴색됨. 청소년 관련된 운동성, 건강성 등 청소년 지도사의 사명감과 열정이 사라지고 공무원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음. 이렇게 되면 청소년 지도사가 전문화되었다고 할 수 없게 됨
 - 민간위탁의 경우 정치적 개입이 적고 자체적으로 중립선택 유지 할 수 있지만 재단 설립 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의 당면 문제,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 현재는 청소년정책 안에서의 포괄적인 제시만 존재하므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제시가 필요함
 - 정책 안에서도 시설들이 지역사회 안에서의 역할에 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적음. 또한, 열악한 지역일수록 지역 안에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보다는 수익을 따라갈 수 밖에 없음. 그러므로 열악한 지역에 대한 일정정도의 지원 보장이 필요함
 - 공공성을 위한 지역 내에서의 수련시설 역할
 - 학교 또는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지역 내 기관들을 연계하여 논의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문제 등을 공론화하고 공공성을 획득할 수 있음. 이런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음.
 - 지역 내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회, 단체 등에 참여하여 지역 의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성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공공성과 전문성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위탁만으로는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임

-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문제
 -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이를 자격을 통해 인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시설 내 직무 분석을 통해 역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협업을 위한 직무분석이 필요한데 직무분석은 직급의 업무뿐 아니라 관련 사원들과의 관계와 역할도 명시되어야 함. 직무 분석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얻을 수 있음.
- 운영대표자의 자격 기준 강화해야 함
 - 일정 기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운영대표자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대표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자격연수, 직무연수와 같은 교육을 통해 일정한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 같은 시설로 인해 정체성이 모호해지기도 함
 - 이런 시설의 기능과 전문성 때문에 ‘체육지도사’를 투입하지만, 지속적인 교육 연수가 부재한 상황임
 - 이 영향으로 ‘체육지도사’들이 외부 체육센터의 프로그램을 가져와 활용하고 수익성만 창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청소년수련관 내 체육시설로서 역할 정체성 찾을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재교육 또는 연수가 필요함
- 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이 정체성 확립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 현행 자격제도에서는 전문성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음
-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낮은 인식 문제
 - 사회복지사의 경우 지역 내 인식이 높고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크게 받지 않음
 -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같이 참여하여 지역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지역 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이렇듯 청소년지도사도 지역 사회복지의 아동·청소년 분과 등에 참여하여 지역 의제를 만들어내고 지역 문제를 개선하려고 한다면 ‘지역 내 전문성’을 인정받고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
- 민간위탁은 실상 예산 절감을 위한 것으로 청소년수련시설들이 법인화를 통해 건립·운영되

고 지자체의 투자가 함께 이루어지는 형태가 수련시설의 정체성과 역할을 찾을 수 있는 해결책일 것

○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재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 학교 또는 교육부 정책에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이 좌지우지되면서 자체적으로 정체성이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라 수련시설의 고유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그러나 학교와의 협업은 학생 청소년 다수가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시설 활용도를 제고 할 수 있어 필요한 활동임
- 청소년종합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 복합기능’ 어떻게 봐야 하는가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활동은 동시에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즉,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통합운영 권장도 고려할 필요 있음
 - 평생학습이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역할 중 일부라는 의견도 많음
- 정체성 확립을 위한 용어 혹은 명칭의 변화 필요함
 - ‘청소년 목적 사업’이란 명칭은 반대되는 ‘수익 사업’을 떠올리게 하므로 변경할 필요 있음. ‘청소년 사업’, ‘청소년시민사업’으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사업의 범위와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바꾸는 시설도 있음
- 전문성 확립이 정체성을 확립하게 할 것임
 - 현재의 정체성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찾아야 정체성 문제가 해결될 것
 - 교사의 경우 교과과정과 그 역할이 일치하고, 생활지도의 역할도 부여되면서 그 정체성과 전문성이 확고함
 - 청소년시설에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들어와서 업무를 보게 되면서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청소년과 관련된 기본적 가치관을 갖춘 인력을 보장받지 못하게 됨
 - 평생교육, 사회체육 전공자들과 행정 관련 공무원들이 들어오면서 기관의 정체성에 혼선이 생김
 - 청소년기본법 안에 시설 내 청소년 전문가 조항을 강화하여 시설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 있음
- 청소년수련관 ‘공용화’ 이미지 확립

-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공공성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수익성을 요구하지 않음. 이러한 모델을 청소년수련관에도 적용하여 청소년수련관도 공공시설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및 정체성 변화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

- 중앙정부의 역할
 - 현재는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청소년 시설의 상황이 빈번하게 변화하고 있음.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로서 허브 역할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수련시설의 공공성 부족이 취약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공공성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이와 관련된 정부 예산의 투자가 필요함
 - 중앙정부가 청소년 활동 내에서 이뤄낸 사업성과와 활동에 대한 것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정책과 관련된 곳들에 직접적으로 어필할 필요 있음
- 중앙정부에서 정한 운영지침 필요
 - 교육·평생 교육 분야의 프로그램 중 청소년 분야의 사업들과 상충하는 부분이 존재함. 이러한 사업의 협조 요청 또는 관련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도 협력하는 방안에 대한 세부 지침 존재하지 않아 부처 간 지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학교는 청소년수련관과의 연계 사업에서 일정한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청소년정책과 학교정책을 함께 협의한 후, 관련 예산을 반영한다면 시설의 역할이 발전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을 것임
 - 타 부처와 협업이 필요하다면 매뉴얼과 관련 지침의 변경이 필수적임. 청소년수련관 매뉴얼에서는 '평생학습기관 설치 불가'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 반면, 지자체 조례에서는 수련시설로 '사전 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평생학습시설로 본다.'는 조항이 존재하는 등의 괴리도 있는 상황임
- 청소년정책기본계획(5개년 계획)안에 시설 정책 미흡
 - 법률 내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익 구조에 대해 정확한 명시와 적절한 성인이용률에 대해 제시가 필요함
 - 각 지역의 차이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그 예시가 중 하나가 '법인화 모델'일 수 있음. 조례를 만들어 재정 지원한다면 지방의 열악한 수련시설들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제 V 장

일반청소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조사

1. 조사개요
2. 일반청소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

제 V 장

일반청소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조사

1. 조사개요

1) 모집단

본 연구의 조사 모집단은 교육통계연보(2014년 기준)의 전국 초·중등학생 DB를 이용하여, 전국의 초등학교(6학년), 중학교(2학년), 고등학교(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학교를 기본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학교 수를 모집단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표 V-1 모집단 - 학교 수

구분 단위[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성화고 포함)	전체
수도권	2,036	1,120	778	3,934
경상권	1,615	899	572	3,086
충청권	833	415	224	1,472
전라권	988	546	309	1,843
강원제주권	462	206	136	804
전체	5,934	3,186	2,019	11,139

7) 고등학교는 일반고와 특성화고를 조사대상으로 함

2) 표본추출

표본추출은 학교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첫째, 표본 배분은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제주권 5개 권역별로 비교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둘째, 여기서 학교급, 지역 등이 중요 변수로 다뤄지며, 이들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였다. 셋째, 층화과정은 크게 2단계로 하며 1단계로 5개 권역으로 나뉘고, 2단계는 학교급으로 나뉘 층화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표본 수가 각각 약 500명씩 고르게 분포되도록 조절하였다. 또한 한 학교 당 한 개 학급 전원을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 V-2 조사 학교 수

구분 단위[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성화고 포함)	전체
수도권	10	10	9	29
경상권	6	6	9	21
충청권	3	3	3	9
전라권	4	3	3	10
강원제주권	1	2	2	5
전체	24	24	26	74

표 V-3 조사 학생 수

구분 단위[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성화고 포함)	전체
수도권	275	251	207	733
경상권	122	138	208	468
충청권	56	59	80	195
전라권	90	76	73	239
강원제주권	26	63	46	135
전체	569	587	614	1,770

3) 조사 설계

- 조사표본 :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총 1,770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2.33\%$ Point
- 조사방법 : 설문지를 이용한 우편조사
- 표본추출 : 지역별/학교급별 층화표본추출
- 조사기간 : 2015년 6월 8일 ~ 6월 30일
- 조사내용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활용 현황,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에 대한 기대,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용어에 대한 인식,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기대 등

4) 응답자 특성

표 V-4 응답자 현황

구분		응답자수[명]	%
전체		1,770	100.0
성별	남성	934	52.8
	여성	836	47.2
학교급	초등학교	569	32.1
	중학교	587	33.2
	고등학교	614	34.7
거주지역	수도권	733	41.4
	경상권	467	26.4
	충청권	195	11.0
	전라권	240	13.6
	강원제주권	135	7.6
지역특징	대도시	843	47.6
	중소도시	457	25.8
	농산어촌	470	26.6

2. 일반청소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

1)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

응답자의 79.4%는 청소년수련원을 인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70.2%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문화의집은 59.3%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를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원은 62.6%, 청소년수련관은 52.0%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문화의집은 71.1%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를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원은 60.2%가 인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49.8%가 인지, 청소년문화의집은 70.7%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청소년시설 간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72.7%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33.6%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52.1%는 있는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표 V-5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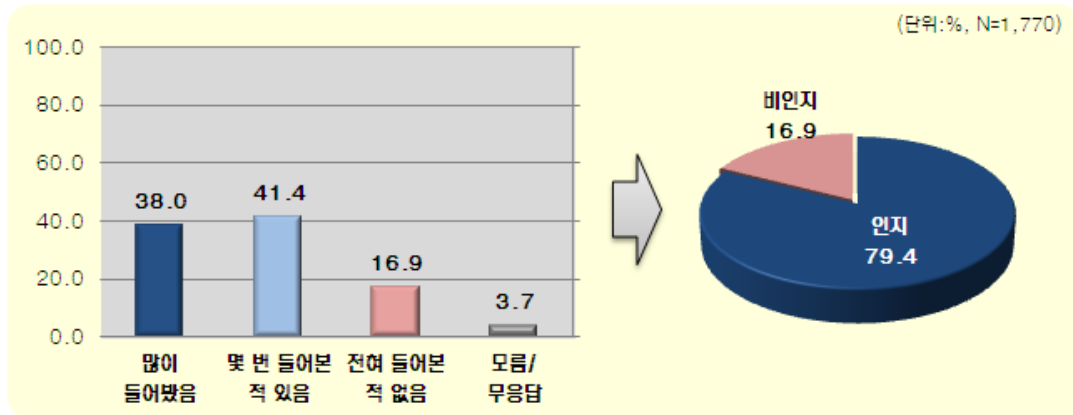
구분		내용[단위 : %]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청소년수련원	인지(들어봄)	79.4
		비인지(들어본 적 없음)	16.9
	청소년수련관	인지(들어봄)	70.2
		비인지(들어본 적 없음)	26.4
	청소년문화의집	인지(들어봄)	37.4
		비인지(들어본 적 없음)	59.3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청소년수련원	인지(알고 있음)	62.6
		비인지(전혀 모름)	32.4
	청소년수련관	인지(알고 있음)	52.0
		비인지(전혀 모름)	44.7
	청소년문화의집	인지(알고 있음)	26.6
		비인지(전혀 모름)	71.1

구분		내용[단위 : %]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청소년수련원	인지(알고 있음)	60.2
		비인지(전혀 모름)	33.8
	청소년수련관	인지(알고 있음)	49.8
		비인지(전혀 모름)	46.4
	청소년문화의집	인지(알고 있음)	26.8
		비인지(전혀 모름)	70.7
각 청소년시설 간의 차이 인지 정도		인지	10.3
		보통	15.5
		비인지	72.7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유무 여부		있다	33.6
		없다	12.6
		잘 모름	52.1

(1)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① 청소년수련원

79.4%는 '청소년수련원'을 들어본 적 있음
 [많이 들어봤음 38.0%, 몇 번 들어본 적 있음 41.4%]



【그림 V-1】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표 V-6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많이 들어봤음	몇 번 들어본 적 있음	전혀 들어본 적 없음	모름/무응답	*인지*	*비인지*
전체		1,770	38.0	41.4	16.9	3.7	79.4	16.9
성별	남성	934	34.2	42.8	19.0	4.1	77.0	19.0
	여성	836	42.3	39.7	14.6	3.3	82.1	14.6
학교급	초등학교	569	29.5	41.3	25.0	4.2	70.8	25.0
	중학교	587	37.8	43.6	14.8	3.7	81.4	14.8
	고등학교	614	46.1	39.3	11.4	3.3	85.3	1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33.0	43.4	20.3	3.3	76.4	20.3
	경상권	467	43.9	37.0	13.7	5.4	80.9	13.7
	충청권	195	46.7	36.9	13.3	3.1	83.6	13.3
	전라권	240	36.3	45.8	14.6	3.3	82.1	14.6
	강원제주권	135	35.6	43.7	18.5	2.2	79.3	18.5
지역특징	대도시	843	39.4	41.0	15.4	4.2	80.4	15.4
	중소도시	457	32.4	42.2	22.5	2.8	74.6	22.5
	농산어촌	470	41.1	41.1	14.0	3.8	82.1	14.0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인지(들어봄)’ 응답이 79.4%(많이 들어봤음: 38.0% + 몇 번 들어본 적 있음: 41.4%)로 ‘비인지(들어본 적 없음)’ 응답 16.9%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들어봄)’ 응답은 여성(82.1%)이 남성(77.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85.3%) 높게 나타났다. 지역특징 별로는 대도시(80.4%) 및 농산어촌(82.1%)에서 높았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학교급, 거주지역 및 지역특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인지 정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는 성별 및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학교급 및 거주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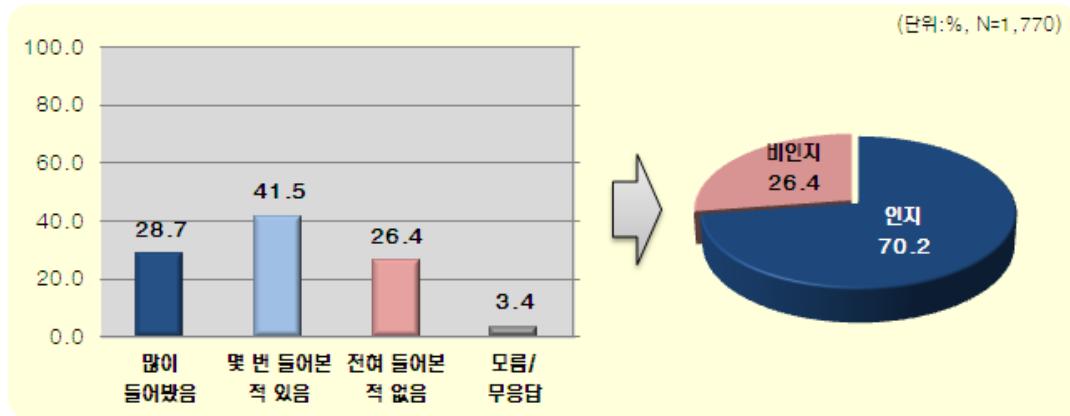
표 V-7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13.746** (0.001)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57.090*** (0.000)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28.634*** (0.000)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17.295** (0.002)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② 청소년수련관

70.2%는 '청소년수련관'을 들어본 적 있음
 [많이 들어봤음 28.7%, 몇 번 들어본 적 있음 41.5%]



【그림 V-2】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표 V-8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많이 들어봤음	몇 번 들어본 적 있음	전혀 들어본 적 없음	모름/ 무응답	*인지*	*비인지*
전체		1,770	28.7	41.5	26.4	3.4	70.2	26.4
성별	남성	934	22.8	43.4	30.3	3.5	66.2	30.3
	여성	836	35.3	39.4	22.0	3.3	74.6	22.0
학교급	초등학교	569	20.6	42.2	33.9	3.3	62.7	33.9
	중학교	587	28.3	42.2	25.6	3.9	70.5	25.6
	고등학교	614	36.6	40.1	20.2	3.1	76.7	20.2
거주지역	수도권	733	32.9	38.9	24.4	3.8	71.8	24.4
	경상권	467	22.5	43.9	29.6	4.1	66.4	29.6
	충청권	195	23.1	44.6	29.2	3.1	67.7	29.2
	전라권	240	35.0	40.8	21.3	2.9	75.8	21.3
	강원제주권	135	24.4	43.7	31.1	0.7	68.1	31.1
지역특징	대도시	843	28.0	43.7	24.3	4.0	71.6	24.3
	중소도시	457	30.4	38.5	28.0	3.1	68.9	28.0
	농산어촌	470	28.3	40.4	28.5	2.8	68.7	28.5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인지(들어봄)’ 응답이 70.2%(많이 들어봤음: 28.7% + 몇 번 들어본 적 있음: 41.5%)로 ‘비인지(들어본 적 없음)’ 응답 26.4%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들어봄)’ 응답은 여성(74.6%)이 남성(66.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76.7%)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전라권(75.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학교급,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인지 정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는 거주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성별 및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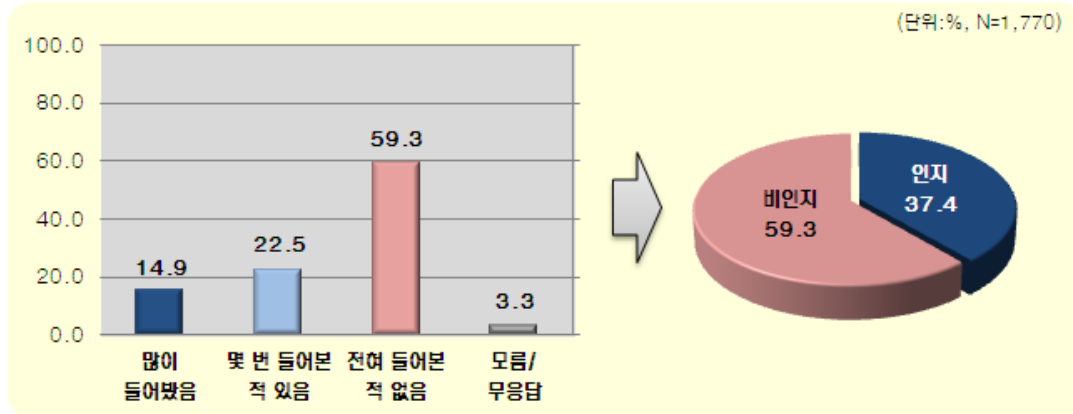
표 V-9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37.142*** (0.000)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48.295*** (0.000)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26.392** (0.001)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5.267 (0.261)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③ 청소년문화의집

59.3%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들어본 적 없음
[전혀 들어본 적 없음 59.3%]



【그림 V-3】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표 V-10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많이 들어봤음	몇 번 들어본 적 있음	전혀 들어본 적 없음	모름/무응답	*인지*	*비인지*
전체		1,770	14.9	22.5	59.3	3.3	37.4	59.3
성별	남성	934	11.1	23.4	62.4	3.0	34.6	62.4
	여성	836	19.1	21.4	55.9	3.6	40.6	55.9
학교급	초등학교	569	14.9	20.6	61.7	2.8	35.5	61.7
	중학교	587	10.4	21.5	64.4	3.7	31.9	64.4
	고등학교	614	19.2	25.2	52.3	3.3	44.5	52.3
거주지역	수도권	733	6.3	19.5	70.9	3.3	25.8	70.9
	경상권	467	18.0	23.1	54.6	4.3	41.1	54.6
	충청권	195	22.1	23.6	51.3	3.1	45.6	51.3
	전라권	240	19.6	28.3	49.2	2.9	47.9	49.2
	강원제주권	135	32.6	24.4	42.2	0.7	57.0	42.2
지역특징	대도시	843	7.7	21.0	67.9	3.4	28.7	67.9
	중소도시	457	22.3	24.3	50.3	3.1	46.6	50.3
	농산어촌	470	20.6	23.4	52.8	3.2	44.0	52.8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비인지(들어본 적 없음)’ 응답이 59.3%로 ‘인지(들어봄)’ 응답 37.4%(많이 들어봤음: 14.9% + 몇 번 들어본 적 있음: 22.5%)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들어봄)’ 응답은 여성(40.6%)이 남성(34.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44.5%)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경상권: 41.1%, 충청권: 45.6%, 전라권: 47.9%, 강원제주권: 57.0%)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특징별로는 중소도시(46.6%) 및 농산어촌(44.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학교급, 거주지역, 지역특징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인지 정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성별 및 학교급, 거주지역 그리고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22.951*** (0.000)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27.194*** (0.000)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115.380*** (0.000)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78.103*** (0.000)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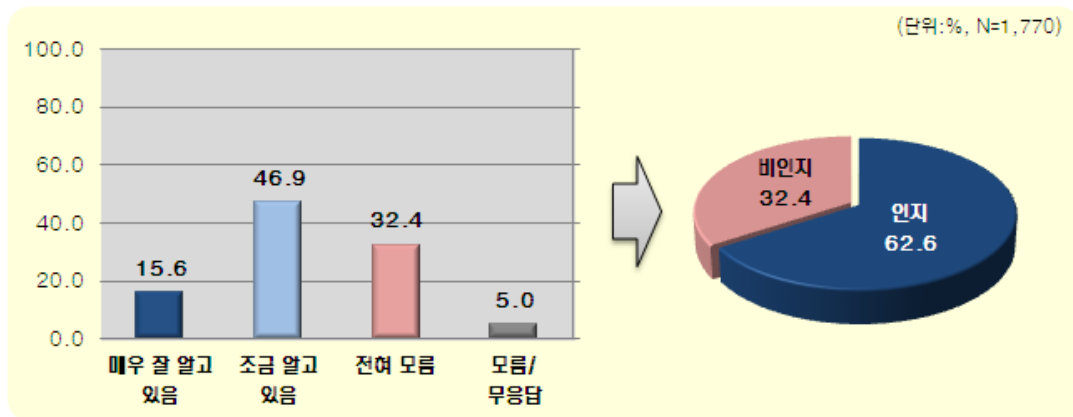
*p<.05, **p<.01, ***p<.001

(2)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① 청소년수련원

62.6%는 '청소년수련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15.6%, 조금 알고 있음 46.9%]



【그림 V-4】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표 V-12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전혀 모름	모름/무응답	*인지*	*비인지*
전체		1,770	15.6	46.9	32.4	5.0	62.6	32.4
성별	남성	934	17.2	44.4	33.7	4.6	61.7	33.7
	여성	836	13.9	49.8	30.9	5.5	63.6	30.9
학교급	초등학교	569	11.1	38.0	44.6	6.3	49.0	44.6
	중학교	587	18.2	46.8	30.0	4.9	65.1	30.0
	고등학교	614	17.4	55.4	23.3	3.9	72.8	23.3
거주지역	수도권	733	12.0	42.7	40.7	4.6	54.7	40.7
	경상권	467	18.0	49.9	26.8	5.4	67.9	26.8
	충청권	195	18.5	49.7	28.2	3.6	68.2	28.2
	전라권	240	19.6	47.9	25.4	7.1	67.5	25.4
	강원제주권	135	16.3	54.1	25.2	4.4	70.4	25.2
지역특징	대도시	843	15.2	47.7	31.8	5.3	62.9	31.8
	중소도시	457	12.9	43.5	39.2	4.4	56.5	39.2
	농산어촌	470	19.1	48.9	26.8	5.1	68.1	26.8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는지 살펴보면, ‘인지’ 응답이 62.6%(매우 잘 알고 있음: 15.6% + 조금 알고 있음: 46.9%)로 ‘비인지’ 응답 32.4%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 응답은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72.8%)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경상권: 67.9%, 충청권: 68.2%, 전라권: 67.5%, 강원제주권: 70.4%)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특징별로는 농산어촌(68.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학교급, 거주지역 및 지역특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업무(역할) 인지 정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학교급 및 거주지역 그리고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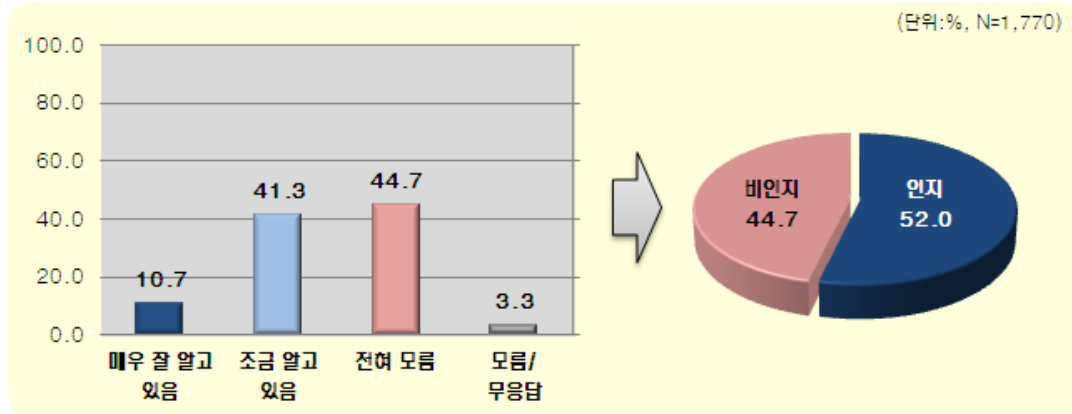
표 V-13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6.938* (0.031)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73.675*** (0.000)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43.435*** (0.000)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18.621*** (0.001)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② 청소년수련관

52.0%는 '청소년수련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10.7%, 조금 알고 있음 41.3%]



【그림 V-5】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표 V-14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전혀 모름	모름/무응답	*인지*	*비인지*
전체		1,770	10.7	41.3	44.7	3.3	52.0	44.7
성별	남성	934	10.5	39.5	46.6	3.4	50.0	46.6
	여성	836	11.0	43.3	42.6	3.1	54.3	42.6
학교급	초등학교	569	6.3	33.0	58.9	1.8	39.4	58.9
	중학교	587	11.9	41.6	41.9	4.6	53.5	41.9
	고등학교	614	13.7	48.7	34.2	3.4	62.4	34.2
거주지역	수도권	733	11.7	40.8	43.7	3.8	52.5	43.7
	경상권	467	9.4	40.3	46.7	3.6	49.7	46.7
	충청권	195	6.2	43.1	48.7	2.1	49.2	48.7
	전라권	240	17.1	40.8	38.8	3.3	57.9	38.8
	강원제주권	135	5.2	45.9	48.1	0.7	51.1	48.1
지역특징	대도시	843	9.6	41.2	45.4	3.8	50.8	45.4
	중소도시	457	10.5	42.7	44.6	2.2	53.2	44.6
	농산어촌	470	13.0	40.2	43.4	3.4	53.2	43.4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는지 살펴보면, ‘인지’ 응답이 52.0%(매우 잘 알고 있음: 10.7% + 조금 알고 있음: 41.3%)로 ‘비인지’ 응답 44.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 응답은 여성(54.3%) 및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62.4%)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전라권(57.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학교급 및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업무(역할) 인지 정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는 거주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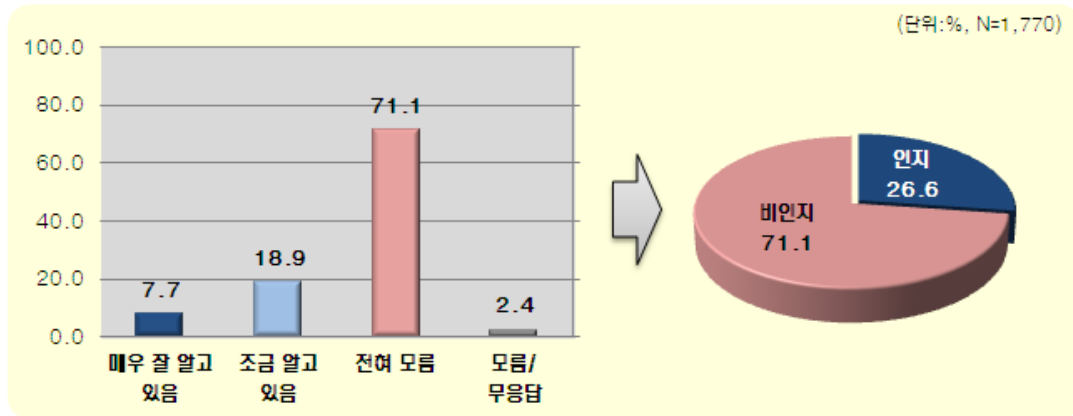
표 V-15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3.212 (0.071)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74.455*** (0.000)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22.396** (0.004)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3.775 (0.437)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③ 청소년문화의집

71.1%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름
[전혀 모름 71.1%]



【그림 V-6】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표 V-16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전혀 모름	모름/무응답	*인지*	*비인지*
전체		1,770	7.7	18.9	71.1	2.4	26.6	71.1
성별	남성	934	6.1	17.6	73.9	2.5	23.7	73.9
	여성	836	9.4	20.3	67.9	2.3	29.8	67.9
학교급	초등학교	569	6.3	16.7	75.9	1.1	23.0	75.9
	중학교	587	7.3	15.3	73.9	3.4	22.7	73.9
	고등학교	614	9.3	24.3	63.8	2.6	33.6	63.8
거주지역	수도권	733	2.3	11.2	84.0	2.5	13.5	84.0
	경상권	467	9.9	22.3	64.9	3.0	32.1	64.9
	충청권	195	12.3	25.1	60.5	2.1	37.4	60.5
	전라권	240	10.4	25.4	61.7	2.5	35.8	61.7
	강원제주권	135	17.8	28.1	54.1	0.0	45.9	54.1
지역특징	대도시	843	3.8	13.8	80.2	2.3	17.6	80.2
	중소도시	457	11.2	24.5	62.4	2.0	35.7	62.4
	농산어촌	470	11.3	22.6	63.2	3.0	33.8	63.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문화의집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는지 살펴보면, ‘비인지’ 응답이 71.1%로 ‘인지’ 응답 26.6%(매우 잘 알고 있음: 7.7% + 조금 알고 있음: 18.9%)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 응답은 여성(29.8%) 및 고등학교(33.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경상권: 32.1%, 충청권: 37.4, 전라권: 35.8%, 강원제주권: 45.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및 학교급, 거주지역 그리고 지역특징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업무(역할) 인지 정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학교급 및 거주지역 그리고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7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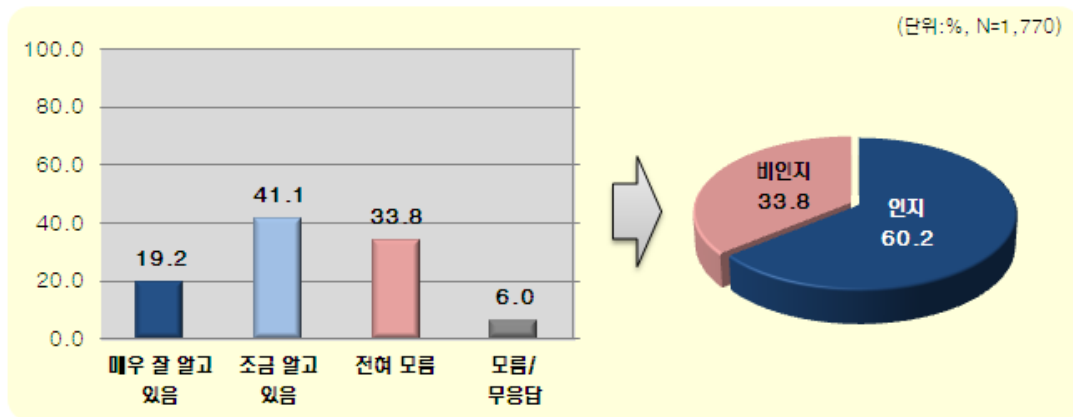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10.415** (0.005)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25.235*** (0.000)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128.089*** (0.000)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73.191*** (0.000)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3)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① 청소년수련원

60.2%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19.2%, 조금 알고 있음 41.1%]



【그림 V-7】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표 V-18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전혀 모름	모름/무응답	*인지*	*비인지*
전체		1,770	19.2	41.1	33.8	6.0	60.2	33.8
성별	남성	934	19.9	39.2	34.5	6.4	59.1	34.5
	여성	836	18.3	43.2	33.0	5.5	61.5	33.0
학교급	초등학교	569	14.1	33.9	45.2	6.9	48.0	45.2
	중학교	587	23.3	40.5	30.8	5.3	63.9	30.8
	고등학교	614	19.9	48.2	26.1	5.9	68.1	26.1
거주지역	수도권	733	16.6	37.4	40.5	5.5	54.0	40.5
	경상권	467	20.6	45.2	27.8	6.4	65.7	27.8
	충청권	195	25.6	40.0	30.3	4.1	65.6	30.3
	전라권	240	19.2	41.7	30.4	8.8	60.8	30.4
	강원제주권	135	18.5	47.4	28.9	5.2	65.9	28.9
지역특징	대도시	843	20.9	39.4	33.1	6.6	60.3	33.1
	중소도시	457	15.1	40.3	40.0	4.6	55.4	40.0
	농산어촌	470	20.0	44.9	28.9	6.2	64.9	28.9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살펴보면, ‘인지’ 응답이 60.2%(매우 잘 알고 있음: 19.2% + 조금 알고 있음: 41.1%)로 ‘비인지’ 응답 33.8%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 응답은 학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68.1%)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경상권(65.7%), 충청권(65.6%), 강원제주권(65.9%), 지역특징별로는 농산어촌(64.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학교급, 거주지역 그리고 지역특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는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학교급 및 거주지역 그리고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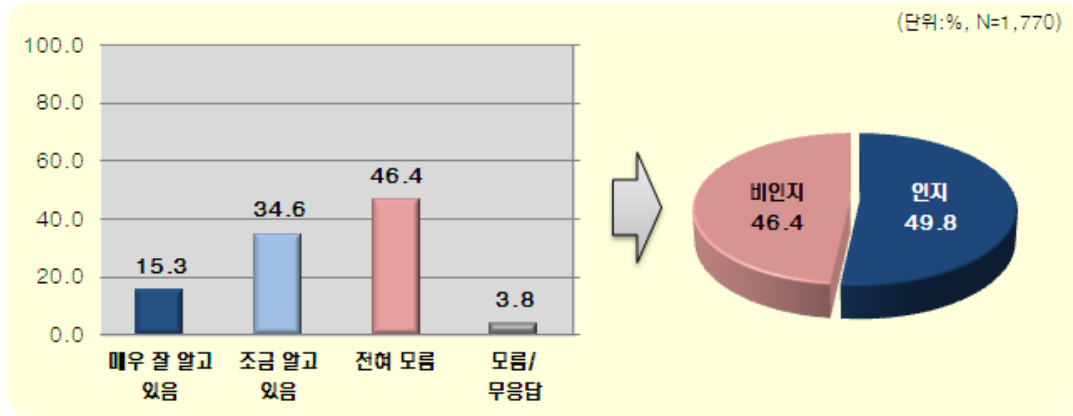
표 V-19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2.551 (0.279)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62.348*** (0.000)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29.704*** (0.000)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16.180** (0.003)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② 청소년수련관

49.8%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15.3%, 조금 알고 있음 34.6%]



【그림 V-8】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표 V-20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전혀 모름	모름/무응답	*인지*	*비인지*
전체		1,770	15.3	34.6	46.4	3.8	49.8	46.4
성별	남성	934	14.2	32.2	49.3	4.3	46.5	49.3
	여성	836	16.4	37.2	43.2	3.2	53.6	43.2
학교급	초등학교	569	11.6	26.9	59.1	2.5	38.5	59.1
	중학교	587	17.7	34.9	42.1	5.3	52.6	42.1
	고등학교	614	16.3	41.4	38.8	3.6	57.7	38.8
거주지역	수도권	733	17.1	34.0	44.9	4.1	51.0	44.9
	경상권	467	12.8	34.5	48.8	3.9	47.3	48.8
	충청권	195	11.3	35.4	51.3	2.1	46.7	51.3
	전라권	240	20.0	32.5	41.7	5.8	52.5	41.7
	강원제주권	135	11.1	40.7	47.4	0.7	51.9	47.4
지역특징	대도시	843	15.1	33.8	46.3	4.9	48.9	46.3
	중소도시	457	15.5	35.4	47.0	2.0	51.0	47.0
	농산어촌	470	15.3	35.1	46.0	3.6	50.4	46.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살펴보면, ‘인지’ 응답이 49.8%(매우 잘 알고 있음: 15.3% + 조금 알고 있음: 34.6%)로 ‘비인지’ 응답 46.4%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 응답은 여성(53.6%) 및 학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57.7%)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전라권(52.5%)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및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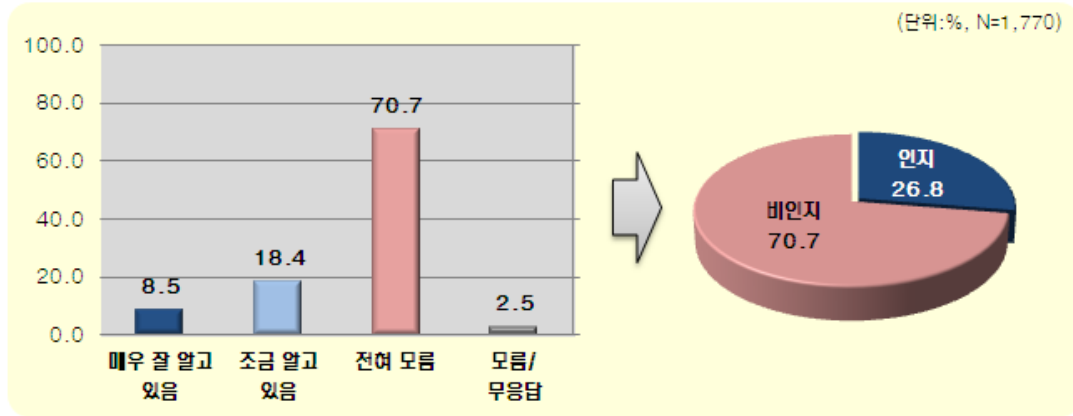
표 V-21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7.938* (0.019)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54.730*** (0.000)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15.120 (0.057)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0.132 (0.998)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③ 청소년문화의집

70.7%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모름
[전혀 모름 70.7%]



【그림 V-9】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표 V-22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전혀 모름	모름/무응답	*인지*	*비인지*
전체		1,770	8.5	18.4	70.7	2.5	26.8	70.7
성별	남성	934	5.8	17.0	74.4	2.8	22.8	74.4
	여성	836	11.5	19.9	66.5	2.2	31.3	66.5
학교급	초등학교	569	9.0	15.3	74.3	1.4	24.3	74.3
	중학교	587	7.5	15.2	73.9	3.4	22.7	73.9
	고등학교	614	9.0	24.3	64.2	2.6	33.2	64.2
거주지역	수도권	733	3.1	12.0	82.3	2.6	15.1	82.3
	경상권	467	11.3	19.3	66.4	3.0	30.6	66.4
	충청권	195	13.8	22.6	61.5	2.1	36.4	61.5
	전라권	240	9.6	25.4	62.1	2.9	35.0	62.1
	강원제주권	135	17.8	31.1	51.1	0.0	48.9	51.1
지역특징	대도시	843	5.3	12.2	79.8	2.6	17.6	79.8
	중소도시	457	12.5	24.3	61.3	2.0	36.8	61.3
	농산어촌	470	10.2	23.6	63.4	2.8	33.8	63.4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살펴보면, ‘비인지’ 응답이 70.7%로 ‘인지’ 응답 26.8%(매우 잘 알고 있음: 8.5% + 조금 알고 있음: 18.4%)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 응답은 여성(31.3%) 및 고등학교(33.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36.4%), 전라권(35.0%), 강원제주권(48.9%)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특징별로는 중소도시(36.8%) 및 농산어촌(33.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및 학교급, 거주지역 그리고 지역특징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01% 수준에서는 성별 및 학교급, 거주지역 그리고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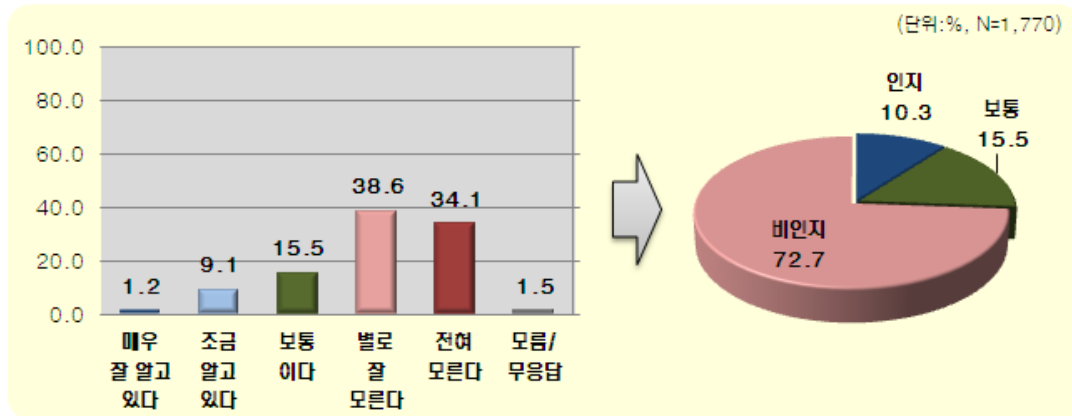
표 V-23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인지정도-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22.724*** (0.000)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24.393*** (0.000)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113.061*** (0.000)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72.407*** (0.000)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4) 각 청소년시설 간의 차이 인지 정도

72.7%는 각 청소년시설 간 차이를 모름
[전혀 모른다 34.1%, 별로 잘 모른다 38.6%]



【그림 V-10】 각 청소년시설 간의 차이 인지 정도

표 V-24 각 청소년시설 간의 차이 인지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보통 이다	별로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모름/무응답	*인지*	*보통*	*비인지*
전체		1,770	1.2	9.1	15.5	38.6	34.1	1.5	10.3	15.5	72.7
성별	남성	934	1.5	9.6	13.9	35.7	38.0	1.3	11.1	13.9	73.7
	여성	836	0.8	8.5	17.2	42.0	29.7	1.8	9.3	17.2	71.7
학교급	초등학교	569	0.4	8.6	15.1	35.5	39.9	0.5	9.0	15.1	75.4
	중학교	587	1.5	9.4	14.8	38.7	33.6	2.0	10.9	14.8	72.2
	고등학교	614	1.6	9.3	16.4	41.5	29.2	2.0	10.9	16.4	70.7
거주지역	수도권	733	1.0	7.6	10.9	39.4	39.3	1.8	8.6	10.9	78.7
	경상권	467	0.6	12.0	19.5	33.8	32.1	1.9	12.6	19.5	66.0
	충청권	195	2.6	8.7	16.4	44.6	26.2	1.5	11.3	16.4	70.8
	전라권	240	0.8	10.0	20.4	35.8	32.5	0.4	10.8	20.4	68.3
	강원제주권	135	3.0	5.9	16.3	47.4	26.7	0.7	8.9	16.3	74.1
지역특징	대도시	843	0.6	8.8	12.3	38.8	37.6	1.9	9.4	12.3	76.4
	중소도시	457	2.0	9.4	16.6	42.5	29.1	0.4	11.4	16.6	71.6
	농산어촌	470	1.5	9.4	20.0	34.7	32.6	1.9	10.9	20.0	67.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란 청소년시설 간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 살펴보면, ‘비인지(모른다)’ 응답이 72.7%(전혀 모른다: 34.1% + 별로 잘 모른다: 38.6%)로 가장 높고, ‘보통’ 15.5%, ‘인지(알고 있다)’ 10.3%(매우 잘 알고 있다: 1.2% + 조금 알고 있다: 9.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비인지(모른다)’ 응답은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75.4%)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78.7%)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특징 별로는 대도시(76.4%)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학교급, 거주지역 및 지역특징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거주지역 및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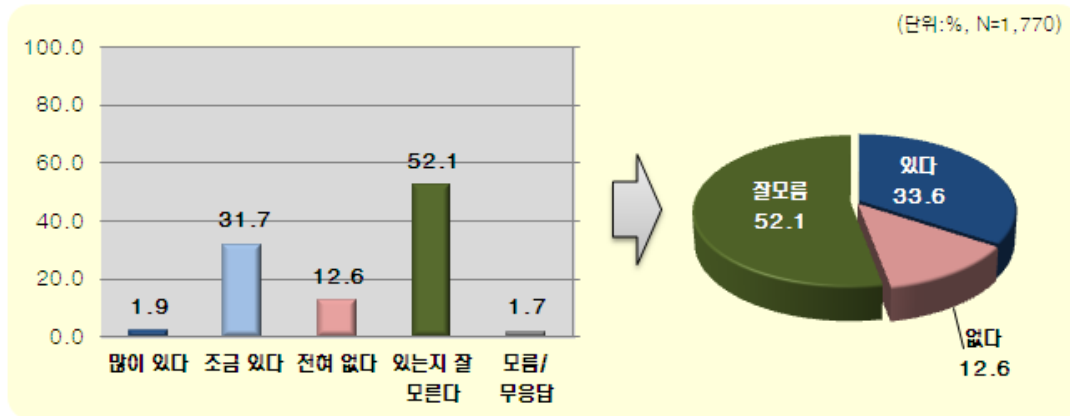
표 V-25 각 청소년시설 간의 차이 인지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2.501 (0.114)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4.671** (0.009)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6.061*** (0.000)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6.996*** (0.001)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5)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유무 여부

33.6%는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이 있다고 응답
[많이 있다 1.9%, 조금 있다 31.7%]



【그림 V-II】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유무 여부

표 V-26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유무 여부

단위[%]		사례수[명]	많이 있다	조금 있다	전혀 없다	있는지 잘 모른다	모름/무응답	*있다*	*없다*	*잘모름*
전체		1,770	1.9	31.7	12.6	52.1	1.7	33.6	12.6	52.1
성별	남성	934	1.7	28.6	13.2	55.0	1.5	30.3	13.2	55.0
	여성	836	2.2	35.2	12.0	48.8	1.9	37.3	12.0	48.8
학교급	초등학교	569	1.2	30.9	8.4	58.7	0.7	32.2	8.4	58.7
	중학교	587	1.2	21.6	15.2	59.8	2.2	22.8	15.2	59.8
	고등학교	614	3.3	42.0	14.0	38.6	2.1	45.3	14.0	38.6
거주지역	수도권	733	1.6	27.6	8.6	60.2	2.0	29.2	8.6	60.2
	경상권	467	1.5	24.0	16.9	55.7	1.9	25.5	16.9	55.7
	충청권	195	4.6	40.5	14.9	38.5	1.5	45.1	14.9	38.5
	전라권	240	0.8	43.3	17.1	37.9	0.8	44.2	17.1	37.9
	강원제주권	135	3.0	47.4	8.1	40.7	0.7	50.4	8.1	40.7
지역특징	대도시	843	2.0	22.2	11.4	62.5	1.9	24.2	11.4	62.5
	중소도시	457	2.4	39.8	8.8	48.1	0.9	42.2	8.8	48.1
	농산어촌	470	1.3	40.9	18.5	37.2	2.1	42.1	18.5	37.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지 살펴보면, ‘있다’ 응답이 33.6%로 ‘없다’는 응답 12.6%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52.1%는 ‘있는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있다’는 응답은 여성(37.3%) 및 고등학교(45.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45.1%) 및 전라권(44.2%) 그리고 강원제주권(50.4%)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특징별로는 중소도시(42.2%) 및 농산어촌(42.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및 학교급, 거주지역 그리고 지역특징에 따른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유무 여부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학교급 및 거주지역 그리고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7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유무 여부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10.263* (0.016)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93.154*** (0.000)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101.162*** (0.000)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지역특징	강원제주권	135	106.011*** (0.000)
	대도시	843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2)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활용 현황

청소년수련원 이용 경험은 46.2%가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30.5%, 청소년문화의집은 17.4%만이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시설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일년에 한 두 번이라는 응답이 6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에서 참여한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7.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공간/장비/설비에 대한 만족도는 46.7%,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45.2%, 그리고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만족도는 43.9%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 보유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54.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표 V-28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활용 현황

구분		내용[단위 : %]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청소년수련원	있음	46.2
		없음	47.5
	청소년수련관	있음	30.5
		없음	64.5
	청소년문화의집	있음	17.4
		없음	79.8
청소년시설 이용 빈도		매일 이용	1.0
		일주일에 한두번	8.7
		한 달에 한두번	7.8
		서너 달에 한두번	7.5
		일 년에 한두번	66.9
청소년시설에서 참여한 프로그램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46.1
		동아리활동	13.5
		청소년운영위원회	0.9
		학교수업과 연계한 활동	12.1
		청소년기자단	0.4
		상담활동	1.0
		경제적 지원	0.2
		어떤 활동에도 참여한 적 없음	13.9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으로 청소년수련원은 23.5%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19.5%, 청소년문화의집은 14.9%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으로 청소년수련원은 43.5%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31.2%, 청소년문화의집은 21.9%가 있다고 응답했다.

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원은 24.5%, 청소년수련관은 19.3%, 청소년문화의집은 12.4%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비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원 20.5%, 청소년수련관 17.2%, 청소년문화의집 12.1%가 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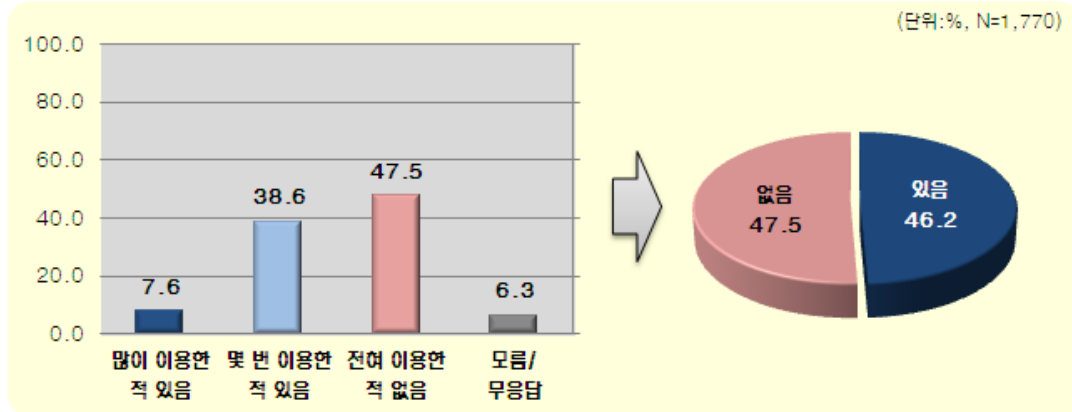
구분		내용[단위 : %]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만족도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만족	47.7
		보통	36.7
		불만족	5.0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의 공간/장비/설비에 대한 만족도	만족	46.7
		보통	36.3
		불만족	6.3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만족	45.2
		보통	37.9
		불만족	6.0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만족	43.9
		보통	38.5
		불만족	6.8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 보유자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그렇다	54.9
		보통	26.5
		그렇지 않다	5.2

구분		내용[단위 : %]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청소년수련원	있음	23.5
		없음	75.0
	청소년수련관	있음	19.5
		없음	78.4
	청소년문화의집	있음	14.9
		없음	83.0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청소년수련원	있음	43.5
		없음	55.0
	청소년수련관	있음	31.2
		없음	66.9
	청소년문화의집	있음	21.9
		없음	76.2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청소년수련원	있음	24.5
		없음	74.1
	청소년수련관	있음	19.3
		없음	78.9
	청소년문화의집	있음	12.4
		없음	85.8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청소년수련원	있음	20.5
		없음	78.2
	청소년수련관	있음	17.2
		없음	81.1
	청소년문화의집	있음	12.1
		없음	86.1

(1)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① 청소년수련원

46.2%는 청소년수련원 이용 경험이 있으며,
47.5% 이용 경험이 없음



【그림 V-12】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원

표 V-29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많이 이용한 적 있음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모름/무응답	*있음*	*없음*
전체		1,770	7.6	38.6	47.5	6.3	46.2	47.5
성별	남성	934	8.5	36.2	48.8	6.5	44.6	48.8
	여성	836	6.7	41.3	46.1	6.0	48.0	46.1
학교급	초등학교	569	2.8	29.2	61.7	6.3	32.0	61.7
	중학교	587	9.2	42.8	41.4	6.6	52.0	41.4
	고등학교	614	10.6	43.3	40.2	5.9	53.9	40.2
거주지역	수도권	733	6.0	29.6	59.3	5.0	35.6	59.3
	경상권	467	9.9	42.0	40.7	7.5	51.8	40.7
	충청권	195	10.8	45.1	39.0	5.1	55.9	39.0
	전라권	240	4.6	50.0	37.5	7.9	54.6	37.5
	강원제주권	135	9.6	45.9	37.0	7.4	55.6	37.0
지역특징	대도시	843	7.5	38.1	46.9	7.6	45.6	46.9
	중소도시	457	5.5	31.3	59.3	3.9	36.8	59.3
	농산어촌	470	10.0	46.6	37.2	6.2	56.6	37.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원을 찾아가서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다’는 응답이 46.2%(많이 이용한 적 있음: 7.6% +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38.6%)로 나타났으며, ‘없다’는 응답 47.5%로 나타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있다’는 응답은 여성(48.0%),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53.9%)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경상권: 51.8%, 충청권: 55.9%, 전라권: 54.6%, 강원제주권: 55.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특징별로는 농산어촌(56.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학교급, 거주지역 그리고 지역특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이용 경험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학교급 및 거주지역 그리고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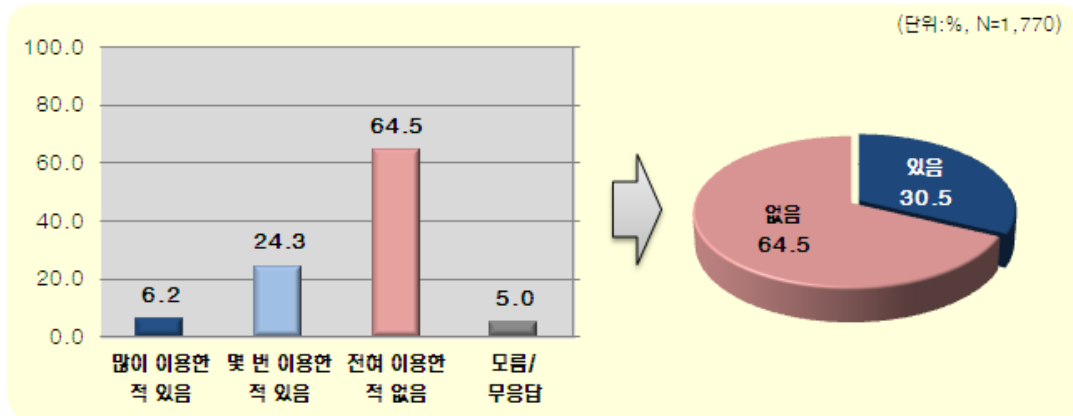
표 V-30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5.437 (0.066)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81.044*** (0.000)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77.494*** (0.000)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43.361*** (0.000)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② 청소년수련관

30.5%는 청소년수련관 이용 경험이 있으며,
64.5%는 이용 경험이 없음



【그림 V-13】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관

표 V-31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많이 이용한 적 있음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모름/무응답	*있음*	*없음*
전체		1,770	6.2	24.3	64.5	5.0	30.5	64.5
성별	남성	934	5.4	21.9	67.6	5.1	27.3	67.6
	여성	836	7.1	26.9	61.1	4.9	34.0	61.1
학교급	초등학교	569	4.4	14.2	77.9	3.5	18.6	77.9
	중학교	587	5.1	28.4	59.8	6.6	33.6	59.8
	고등학교	614	8.8	29.6	56.7	4.9	38.4	56.7
거주지역	수도권	733	7.5	24.1	62.3	6.0	31.7	62.3
	경상권	467	3.6	22.5	68.7	5.1	26.1	68.7
	충청권	195	3.6	23.6	69.7	3.1	27.2	69.7
	전라권	240	10.8	28.3	55.8	5.0	39.2	55.8
	강원제주권	135	3.0	25.2	69.6	2.2	28.1	69.6
지역특징	대도시	843	5.0	23.6	66.0	5.5	28.6	66.0
	중소도시	457	7.0	24.7	65.2	3.1	31.7	65.2
	농산어촌	470	7.4	25.1	61.3	6.2	32.6	61.3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관을 찾아가서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다’는 응답이 30.5%(많이 이용한 적 있음: 6.2% +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24.3%)로 나타났으며, ‘없다’는 응답 64.5%로 나타나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있다’는 응답은 여성(34.0%), 학교급이 높을수록(고등학교: 38.4%)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전라권(39.2%)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학교급 그리고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이용 경험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학교급 및 거주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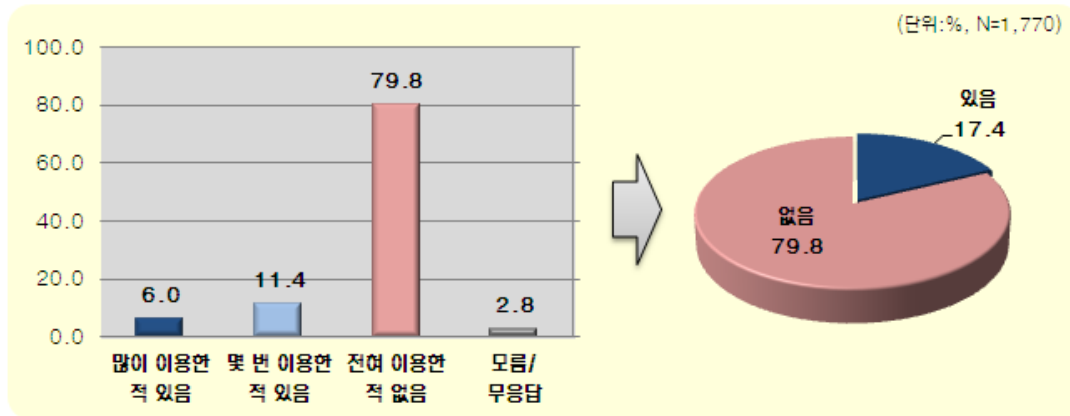
표 V-32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9.384** (0.009)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68.651*** (0.000)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27.772*** (0.001)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4.846 (0.303)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③ 청소년문화의집

17.4%는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경험이 있으며,
79.8%는 이용 경험이 없음



【그림 V-14】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표 V-33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많이 이용한 적 있음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모름/무응답	*있음*	*없음*
전체		1,770	6.0	11.4	79.8	2.8	17.4	79.8
성별	남성	934	4.1	9.9	83.6	2.5	13.9	83.6
	여성	836	8.3	13.0	75.6	3.1	21.3	75.6
학교급	초등학교	569	7.4	9.8	81.7	1.1	17.2	81.7
	중학교	587	4.4	7.7	83.3	4.6	12.1	83.3
	고등학교	614	6.4	16.3	74.8	2.6	22.6	74.8
거주지역	수도권	733	1.5	5.0	89.6	3.8	6.5	89.6
	경상권	467	8.4	11.6	77.3	2.8	19.9	77.3
	충청권	195	8.2	20.5	69.2	2.1	28.7	69.2
	전라권	240	8.3	15.8	74.6	1.3	24.2	74.6
	강원제주권	135	15.6	23.7	60.0	0.7	39.3	60.0
지역특징	대도시	843	3.7	5.3	87.8	3.2	9.0	87.8
	중소도시	457	9.6	18.6	70.5	1.3	28.2	70.5
	농산어촌	470	6.8	15.1	74.7	3.4	21.9	74.7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문화의집을 찾아가서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다’는 응답이 17.4%(많이 이용한 적 있음: 6.0% +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11.4%)로 나타났으며, ‘없다’는 응답 79.8%로 나타나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있다’는 응답은 여성(21.3%), 고등학교(22.6%)에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28.7%) 및 전라권(24.2%) 그리고 강원/제주권(39.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특징별로는 중소도시(28.2%) 및 농산어촌(21.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및 학교급 그리고 거주지역 및 지역특징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경험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성별 및 학교급 그리고 거주지역 및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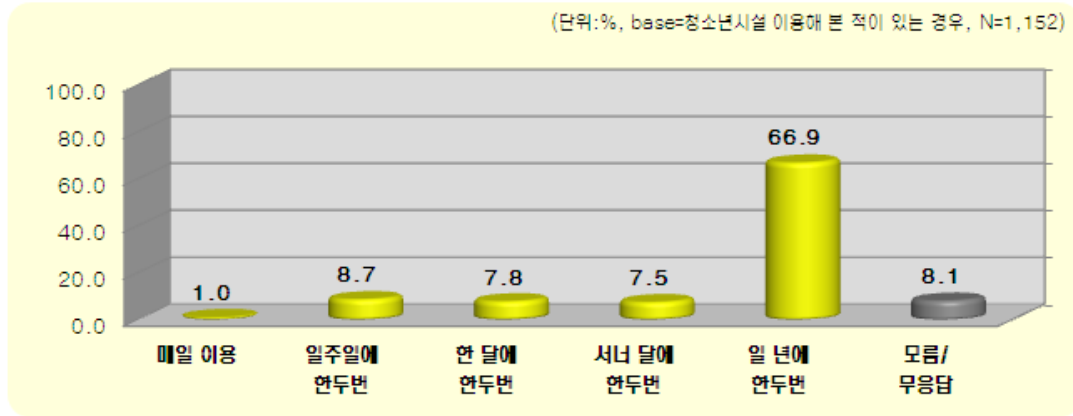
표 V-34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20.274*** (0.000)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28.511*** (0.000)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134.092*** (0.000)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84.636*** (0.000)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1-1) 청소년시설 이용 빈도

66.9%가 청소년시설을 일 년에 한두 번 이용



【그림 V-15】 청소년시설 이용 빈도

표 V-35 청소년시설 이용 빈도

단위[%]		사례수[명]	매일 이용	일주일에 한두번	한 달에 한두번	서너 달에 한두번	일 년에 한두번	모름/무응답
전체		1,152	1.0	8.7	7.8	7.5	66.9	8.1
성별	남성	573	1.6	7.5	5.9	6.3	70.9	7.9
	여성	579	0.5	9.8	9.7	8.6	63.0	8.3
학교급	초등학교	298	1.0	12.1	10.7	8.4	58.7	9.1
	중학교	405	1.0	7.4	4.4	4.9	74.1	8.1
	고등학교	449	1.1	7.6	8.9	9.1	65.9	7.3
거주지역	수도권	413	1.0	10.4	5.8	7.3	67.1	8.5
	경상권	314	1.6	8.3	7.3	6.4	67.8	8.6
	충청권	138	0.7	4.3	8.0	4.3	76.8	5.8
	전라권	192	1.0	6.3	11.5	9.9	60.9	10.4
	강원제주권	95	0.0	13.7	10.5	11.6	61.1	3.2
지역특징	대도시	530	1.1	9.1	4.5	4.9	70.4	10.0
	중소도시	272	0.7	12.9	13.2	11.0	57.7	4.4
	농산어촌	350	1.1	4.9	8.6	8.6	68.9	8.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시설 이용 빈도를 질문한 결과, ‘일 년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이 6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8.7%, ‘한 달에 한두 번’ 7.8%, ‘서너 달에 한두 번’ 7.5%, ‘매일 이용’ 1.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일 년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은 남성(70.9%), 중학교(74.1%)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76.8%)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70.4%)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학교급 그리고 지역특징에 따른 청소년시설 이용 빈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학교급 및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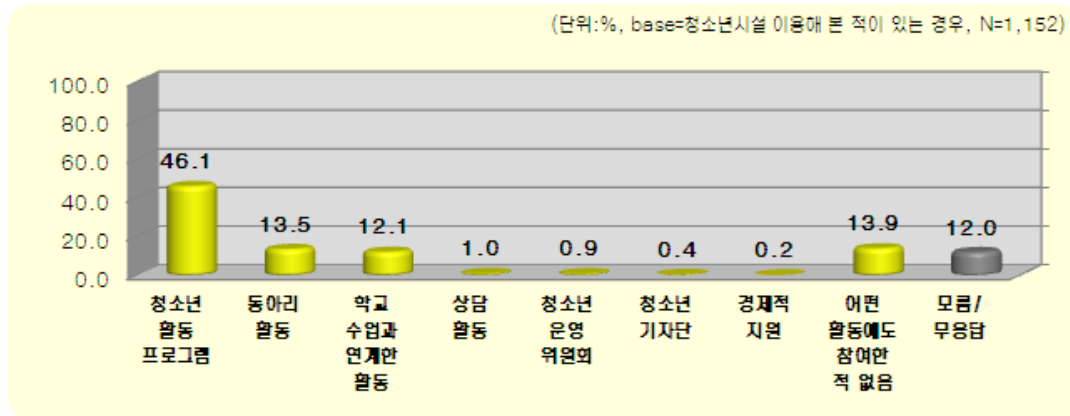
표 V-36 청소년시설 이용 빈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152	
성별	남성	573	14.789** (0.005)
	여성	579	
학교급	초등학교	298	26.906*** (0.001)
	중학교	405	
	고등학교	449	
거주지역	수도권	413	25.751 (0.058)
	경상권	314	
	충청권	138	
	전라권	192	
	강원제주권	95	
지역특징	대도시	530	42.796*** (0.000)
	중소도시	272	
	농산어촌	350	

*p<.05, **p<.01, ***p<.001

(1-2) 청소년시설에서 참여한 프로그램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46.1%로 가장 높음
동아리활동 13.5% ≥ 학교수업과 연계한 활동 12.1%



【그림 V-16】 청소년시설에서 참여한 프로그램

표 V-37 청소년시설에서 참여한 프로그램

단위[%]		사례수 [명]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학교수 업과 연계한 활동	상담 활동	청소년 운영 위원회	청소년 기자단	경제적 지원	어떤 활동에도 참여한 적 없음	모름/ 무응답
전체		1,152	46.1	13.5	12.1	1.0	0.9	0.4	0.2	13.9	12.0
성별	남성	573	48.5	11.7	10.1	0.9	0.7	0.7	0.2	16.1	11.2
	여성	579	43.7	15.4	14.0	1.0	1.0	0.2	0.2	11.7	12.8
학교급	초등학교	298	38.9	16.1	13.4	0.7	0.0	0.7	0.3	18.5	11.4
	중학교	405	51.1	12.3	10.6	0.2	0.7	0.7	0.2	11.4	12.6
	고등학교	449	46.3	12.9	12.5	1.8	1.6	0.0	0.0	13.1	11.8
거주지역	수도권	413	44.6	15.7	13.8	1.5	0.2	0.2	0.2	12.1	11.6
	경상권	314	43.6	11.5	14.6	1.0	0.6	0.6	0.0	16.9	11.1
	충청권	138	57.2	10.9	7.2	0.0	0.7	0.0	0.0	13.8	10.1
	전라권	192	42.7	12.0	9.9	1.0	1.0	1.0	0.5	14.1	17.7
	강원제주권	95	51.6	17.9	7.4	0.0	4.2	0.0	0.0	11.6	7.4
지역특징	대도시	530	49.8	12.1	12.3	0.9	0.2	0.6	0.4	11.3	12.5
	중소도시	272	37.9	16.5	14.7	0.7	1.5	0.4	0.0	19.5	8.8
	농산어촌	350	46.9	13.4	9.7	1.1	1.4	0.3	0.0	13.4	13.7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시설에서 주로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동아리활동’ 13.5%, ‘학교수업과 연계한 활동’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떤 활동에도 참여한 적 없음’이라는 응답은 13.9%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은 남성(48.5%), 중학교(51.1%)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57.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49.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학교급 및 거주지역 그리고 지역특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주로 참여한 프로그램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거주지역 및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8 청소년시설에서 참여한 프로그램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152	
성별	남성	573	13.961 (0.052)
	여성	579	
학교급	초등학교	298	30.507** (0.006)
	중학교	405	
	고등학교	449	
거주지역	수도권	413	43.049* (0.034)
	경상권	314	
	충청권	138	
	전라권	192	
	강원제주권	95	
지역특징	대도시	530	27.600* (0.016)
	중소도시	272	
	농산어촌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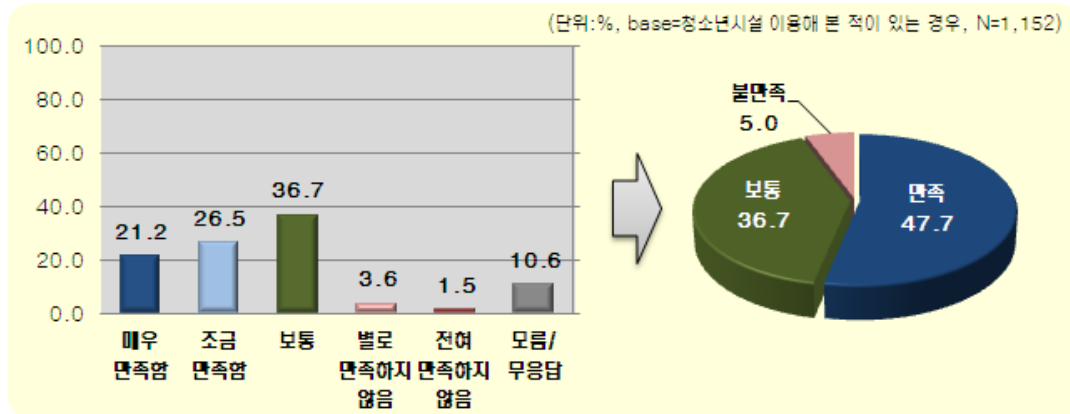
*p<.05, **p<.01, ***p<.001

(1-3)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만족도

①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47.7%는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전반적으로 만족

[매우 만족함 21.2%, 조금 만족함 26.5%]



【그림 V-17】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표 V-39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만족함	조금 만족함	보통	별로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모름/ 무응답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1,152	21.2	26.5	36.7	3.6	1.5	10.6	47.7	36.7	5.0
성별	남성	573	18.3	25.7	40.0	4.5	2.1	9.4	44.0	40.0	6.6
	여성	579	24.0	27.3	33.5	2.6	0.9	11.7	51.3	33.5	3.5
학교급	초등학교	298	30.5	31.2	23.8	2.3	0.7	11.4	61.7	23.8	3.0
	중학교	405	19.0	25.2	41.0	4.2	1.0	9.6	44.2	41.0	5.2
	고등학교	449	16.9	24.5	41.4	3.8	2.4	10.9	41.4	41.4	6.2
거주지역	수도권	413	22.5	26.9	37.3	2.2	0.5	10.7	49.4	37.3	2.7
	경상권	314	20.1	28.0	34.7	4.1	2.2	10.8	48.1	34.7	6.4
	충청권	138	18.1	32.6	35.5	4.3	0.7	8.7	50.7	35.5	5.1
	전라권	192	23.4	20.8	34.4	5.7	1.6	14.1	44.3	34.4	7.3
	강원제주권	95	18.9	22.1	47.4	2.1	4.2	5.3	41.1	47.4	6.3
지역특징	대도시	530	22.1	29.8	32.5	2.6	1.1	11.9	51.9	32.5	3.8
	중소도시	272	25.0	27.2	36.4	3.3	0.0	8.1	52.2	36.4	3.3
	농산어촌	350	16.9	20.9	43.4	5.1	3.1	10.6	37.7	43.4	8.3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응답이 47.7%(매우 만족함: 21.2% + 조금 만족함: 26.5%), ‘불만족’ 응답이 5.0%(전혀 만족하지 않음: 1.5% + 별로 만족하지 않음: 3.6%)로 나타나, 만족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 응답은 36.7%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만족’ 응답은 여성(51.3%),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61.7%)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50.7%)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51.9%) 및 중소도시(52.2%)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및 학교급 그리고 지역특징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성별 및 학교급 그리고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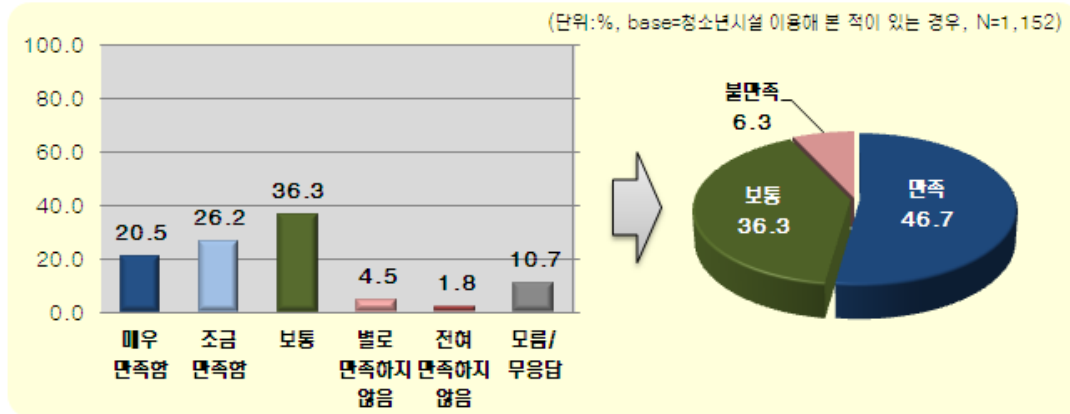
표 V-40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152	
성별	남성	573	13.652*** (0.000)
	여성	579	
학교급	초등학교	298	20.679*** (0.000)
	중학교	405	
	고등학교	449	
거주지역	수도권	413	1.438 (0.219)
	경상권	314	
	충청권	138	
	전라권	192	
	강원제주권	95	
지역특징	대도시	530	12.287*** (0.000)
	중소도시	272	
	농산어촌	350	

*p<.05, **p<.01, ***p<.001

②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의 공간/장비/설비에 대한 만족도

46.7%는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의 공간/장비/설비에 만족
[매우 만족함 20.5%, 조금 만족함 26.2%]



【그림 V-18】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의 공간/장비/설비에 대한 만족도

표 V-41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의 공간/장비/설비에 대한 만족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만족함	조금 만족함	보통	별로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1,152	20.5	26.2	36.3	4.5	1.8	10.7	46.7	36.3	6.3
성별	남성	573	16.9	26.9	38.7	5.2	2.6	9.6	43.8	38.7	7.9
	여성	579	24.0	25.6	33.9	3.8	1.0	11.7	49.6	33.9	4.8
학교급	초등학교	298	29.2	31.2	22.8	4.0	1.0	11.7	60.4	22.8	5.0
	중학교	405	19.0	23.7	41.0	5.2	1.5	9.6	42.7	41.0	6.7
	고등학교	449	16.0	25.2	41.0	4.2	2.7	10.9	41.2	41.0	6.9
거주지역	수도권	413	22.3	27.1	35.1	4.1	0.7	10.7	49.4	35.1	4.8
	경상권	314	20.1	24.5	36.9	4.5	2.9	11.1	44.6	36.9	7.3
	충청권	138	18.8	31.2	35.5	5.1	0.7	8.7	50.0	35.5	5.8
	전라권	192	20.3	21.9	36.5	5.2	2.1	14.1	42.2	36.5	7.3
	강원제주권	95	16.8	29.5	40.0	4.2	4.2	5.3	46.3	40.0	8.4
지역특징	대도시	530	20.6	30.0	32.1	3.6	1.7	12.1	50.6	32.1	5.3
	중소도시	272	26.1	27.6	34.9	3.3	0.0	8.1	53.7	34.9	3.3
	농산어촌	350	16.0	19.4	43.7	6.9	3.4	10.6	35.4	43.7	10.3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의 공간/장비/설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응답이 46.7%(매우 만족함: 20.5% + 조금 만족함: 26.2%), ‘불만족’ 응답이 6.3%(전혀 만족하지 않음: 1.8% + 별로 만족하지 않음: 4.5%)로 나타나, 만족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만족’ 응답은 여성(49.6%),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60.4%)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49.4%) 및 충청권(50.0%)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 별로는 대도시(50.6%) 및 중소도시(53.7%)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및 학교급 그리고 지역특징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성별 및 학교급 그리고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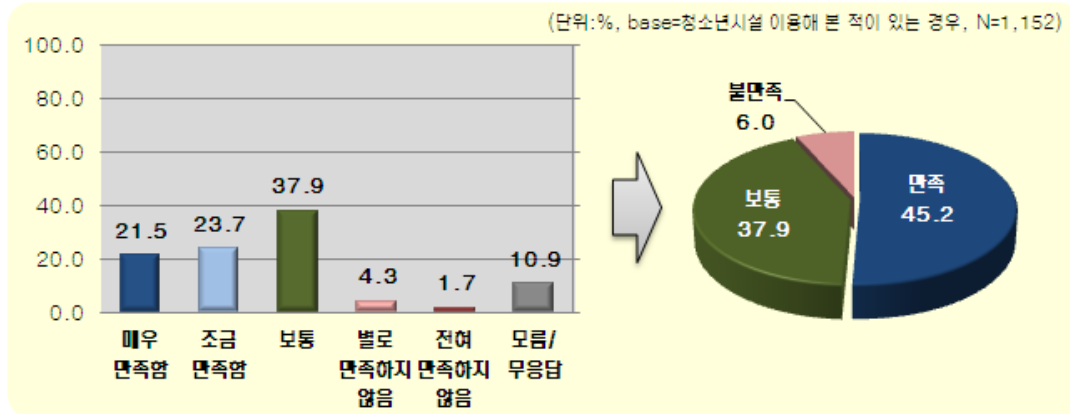
표 V-42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의 공간/장비/설비에 대한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152	
성별	남성	573	12.785*** (0.000)
	여성	579	
학교급	초등학교	298	16.772*** (0.000)
	중학교	405	
	고등학교	449	
거주지역	수도권	413	1.315 (0.262)
	경상권	314	
	충청권	138	
	전라권	192	
	강원제주권	95	
지역특징	대도시	530	15.542*** (0.000)
	중소도시	272	
	농산어촌	350	

*p<.05, **p<.01, ***p<.001

③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45.2%는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만족
[매우 만족함 21.5%, 조금 만족함 23.7%]



【그림 V-19】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표 V-43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만족함	조금 만족함	보통	별로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1,152	21.5	23.7	37.9	4.3	1.7	10.9	45.2	37.9	6.0
성별	남성	573	18.5	22.9	41.7	5.2	2.1	9.6	41.4	41.7	7.3
	여성	579	24.5	24.5	34.2	3.3	1.4	12.1	49.1	34.2	4.7
학교급	초등학교	298	32.2	26.2	26.2	2.3	1.0	12.1	58.4	26.2	3.4
	중학교	405	19.5	24.4	40.2	4.7	1.2	9.9	44.0	40.2	5.9
	고등학교	449	16.3	21.4	43.7	5.1	2.7	10.9	37.6	43.7	7.8
거주지역	수도권	413	21.1	25.2	37.5	4.6	0.5	11.1	46.2	37.5	5.1
	경상권	314	22.6	23.6	36.0	4.5	2.2	11.1	46.2	36.0	6.7
	충청권	138	21.7	27.5	37.0	2.9	2.2	8.7	49.3	37.0	5.1
	전라권	192	24.0	20.8	35.9	3.6	1.6	14.1	44.8	35.9	5.2
	강원제주권	95	14.7	17.9	51.6	5.3	5.3	5.3	32.6	51.6	10.5
지역특징	대도시	530	23.2	27.0	32.6	4.0	1.1	12.1	50.2	32.6	5.1
	중소도시	272	23.2	24.6	40.4	2.9	0.4	8.5	47.8	40.4	3.3
	농산어촌	350	17.7	18.0	44.0	5.7	3.7	10.9	35.7	44.0	9.4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응답이 45.2%(매우 만족함: 21.5% + 조금 만족함: 23.7%), ‘불만족’ 응답이 6.0%(전혀 만족하지 않음: 1.7% + 별로 만족하지 않음: 4.3%)로 나타나, 만족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 응답은 37.9%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만족’ 응답은 여성(49.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58.4%)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49.3%)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50.2%) 및 중소도시(47.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및 학교급 그리고 거주지역 및 지역특징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거주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성별 및 학교급 그리고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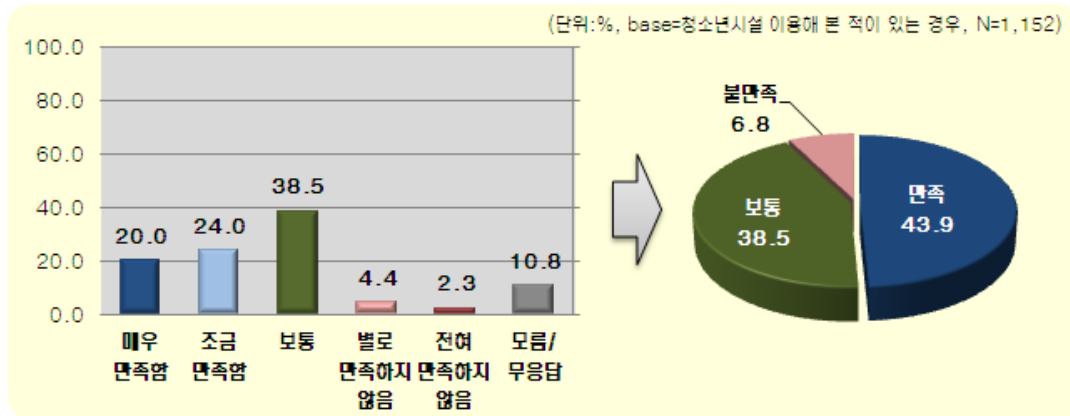
표 V-44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152	
성별	남성	573	12.477*** (0.000)
	여성	579	
학교급	초등학교	298	22.269*** (0.000)
	중학교	405	
	고등학교	449	
거주지역	수도권	413	2.986* (0.018)
	경상권	314	
	충청권	138	
	전라권	192	
	강원제주권	95	
지역특징	대도시	530	11.050*** (0.000)
	중소도시	272	
	농산어촌	350	

*p<.05, **p<.01, ***p<.001

④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43.9%는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만족
[매우 만족함 20.0%, 조금 만족함 24.0%]



【그림 V-20】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표 V-45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만족함	조금 만족함	보통	별로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모름/ 무응답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1,152	20.0	24.0	38.5	4.4	2.3	10.8	43.9	38.5	6.8
성별	남성	573	16.6	23.7	41.5	5.4	3.1	9.6	40.3	41.5	8.6
	여성	579	23.3	24.2	35.6	3.5	1.6	11.9	47.5	35.6	5.0
학교급	초등학교	298	28.2	27.5	28.5	3.4	0.7	11.7	55.7	28.5	4.0
	중학교	405	18.0	24.4	40.7	4.7	2.2	9.9	42.5	40.7	6.9
	고등학교	449	16.3	21.2	43.2	4.9	3.6	10.9	37.4	43.2	8.5
거주지역	수도권	413	19.9	25.4	39.0	4.4	0.5	10.9	45.3	39.0	4.8
	경상권	314	21.0	24.8	35.4	4.1	3.5	11.1	45.9	35.4	7.6
	충청권	138	20.3	27.5	37.0	5.1	1.4	8.7	47.8	37.0	6.5
	전라권	192	19.8	21.4	37.0	4.2	3.6	14.1	41.1	37.0	7.8
지역특징	강원제주권	95	16.8	14.7	52.6	5.3	5.3	5.3	31.6	52.6	10.5
	대도시	530	21.5	28.3	31.7	4.7	1.7	12.1	49.8	31.7	6.4
	중소도시	272	22.8	21.0	44.1	3.7	0.4	8.1	43.8	44.1	4.0
	농산어촌	350	15.4	19.7	44.6	4.6	4.9	10.9	35.1	44.6	9.4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응답이 43.9%(매우 만족함: 20.0% + 조금 만족함: 24.0%), ‘불만족’ 응답이 6.8%(전혀 만족하지 않음: 2.3% + 별로 만족하지 않음: 4.4%)로 나타나, 만족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 응답은 38.5%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만족’ 응답은 여성(47.5%),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55.7%)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47.8%)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49.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및 학교급 그리고 지역특징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성별 및 학교급 그리고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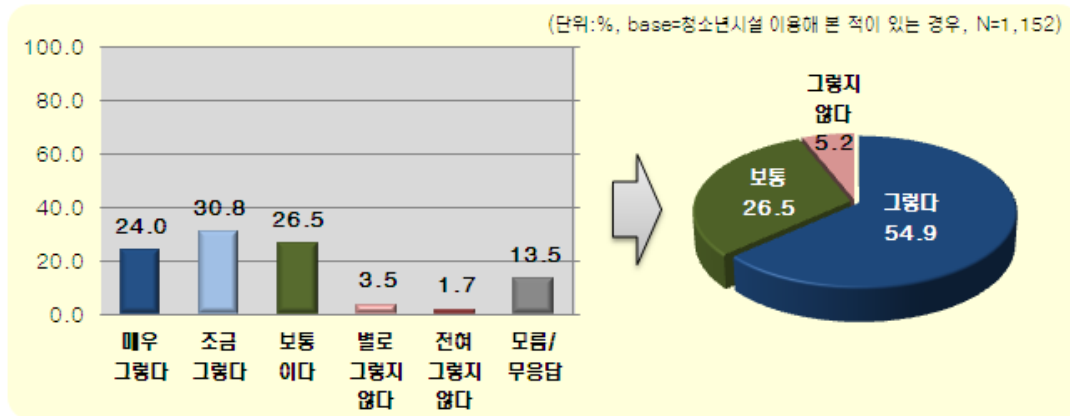
표 V-46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152	
성별	남성	573	14.543*** (0.000)
	여성	579	
학교급	초등학교	298	16.628*** (0.000)
	중학교	405	
	고등학교	449	
거주지역	수도권	413	2.209 (0.066)
	경상권	314	
	충청권	138	
	전라권	192	
	강원제주권	95	
지역특징	대도시	530	10.512*** (0.000)
	중소도시	272	
	농산어촌	350	

*p<.05, **p<.01, ***p<.001

(1-4)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 보유자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54.9%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 보유자라고 생각
[매우 그렇다 24.0%, 조금 그렇다 30.8%]



【그림 V-21】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 보유자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표 V-47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 보유자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단위[%]		사례수[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체		1,152	24.0	30.8	26.5	3.5	1.7	13.5	54.9	26.5	5.2
성별	남성	573	21.6	30.7	30.0	3.1	1.7	12.7	52.4	30.0	4.9
	여성	579	26.4	30.9	23.0	3.8	1.7	14.2	57.3	23.0	5.5
학교급	초등학교	298	31.5	27.2	23.2	2.3	1.0	14.8	58.7	23.2	3.4
	중학교	405	23.5	31.9	25.9	4.2	2.0	12.6	55.3	25.9	6.2
	고등학교	449	19.6	32.3	29.2	3.6	2.0	13.4	51.9	29.2	5.6
거주지역	수도권	413	27.8	29.5	24.7	3.4	1.0	13.6	57.4	24.7	4.4
	경상권	314	22.6	29.9	26.8	3.8	2.9	14.0	52.5	26.8	6.7
	충청권	138	22.5	31.9	29.0	5.1	1.4	10.1	54.3	29.0	6.5
	전라권	192	21.9	29.7	28.1	2.1	2.1	16.1	51.6	28.1	4.2
	강원제주권	95	18.9	40.0	26.3	3.2	1.1	10.5	58.9	26.3	4.2
지역특징	대도시	530	27.4	31.1	21.9	3.2	2.1	14.3	58.5	21.9	5.3
	중소도시	272	25.7	31.3	28.7	2.6	0.4	11.4	57.0	28.7	2.9
	농산어촌	350	17.7	30.0	31.7	4.6	2.3	13.7	47.7	31.7	6.9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 보유자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이 54.9%(매우 그렇다: 24.0% + 조금 그렇다: 30.8%)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5.2%(전혀 그렇지 않다: 1.7% + 별로 그렇지 않다: 3.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6.5%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은 여성(57.3%),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58.7%)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57.4%) 및 강원제주권(58.9%)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 별로는 대도시(58.5%) 및 중소도시(57.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및 학교급 그리고 지역특징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 수준에서는 학교급, 그리고 0.1% 수준에서는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8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 보유자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152	
성별	남성	573	3.969* (0.047)
	여성	579	
학교급	초등학교	298	6.487** (0.002)
	중학교	405	
	고등학교	449	
거주지역	수도권	413	1.412 (0.228)
	경상권	314	
	충청권	138	
	전라권	192	
	강원제주권	95	
지역특징	대도시	530	7.893*** (0.000)
	중소도시	272	
	농산어촌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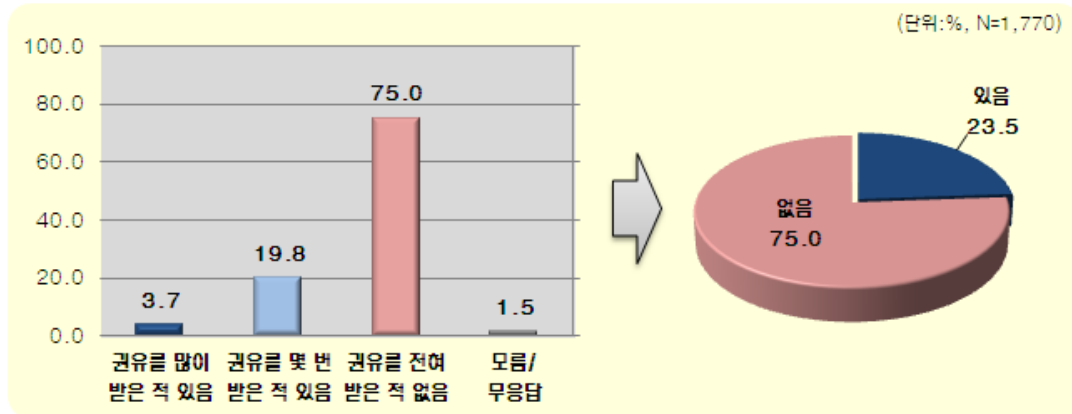
*p<.05, **p<.01, ***p<.001

(2)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①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원

75.0%는 청소년수련원 이용 권유 경험이 없음

[권유를 전혀 받은 적 없음 75.0%]



【그림 V-22】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원

표 V-49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권유를 많이 받은 적 있음	권유를 몇 번 받은 적 있음	권유를 전혀 받은 적 없음	모름/무응답	*있음*	*없음*
전체		1,770	3.7	19.8	75.0	1.5	23.5	75.0
성별	남성	934	3.7	19.2	75.4	1.7	22.9	75.4
	여성	836	3.7	20.5	74.5	1.3	24.2	74.5
학교급	초등학교	569	1.9	17.8	78.7	1.6	19.7	78.7
	중학교	587	4.6	18.9	74.8	1.7	23.5	74.8
	고등학교	614	4.6	22.5	71.7	1.3	27.0	71.7
거주지역	수도권	733	3.4	15.6	79.7	1.4	19.0	79.7
	경상권	467	4.5	19.9	73.7	1.9	24.4	73.7
	충청권	195	2.6	23.1	72.8	1.5	25.6	72.8
	전라권	240	4.2	20.4	73.3	2.1	24.6	73.3
	강원제주권	135	3.7	36.3	60.0	0.0	40.0	60.0
지역특징	대도시	843	3.4	17.7	77.2	1.7	21.1	77.2
	중소도시	457	3.3	20.6	75.1	1.1	23.9	75.1
	농산어촌	470	4.7	22.8	70.9	1.7	27.4	70.9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도록 권유(추천) 받은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이 75.0%로 ‘있다’는 응답 23.5%(권유를 많이 받은 적 있음: 3.7% + 권유를 몇 번 받은 적 있음: 19.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은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78.7%)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79.7%)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학교급 및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도록 권유(추천) 경험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거주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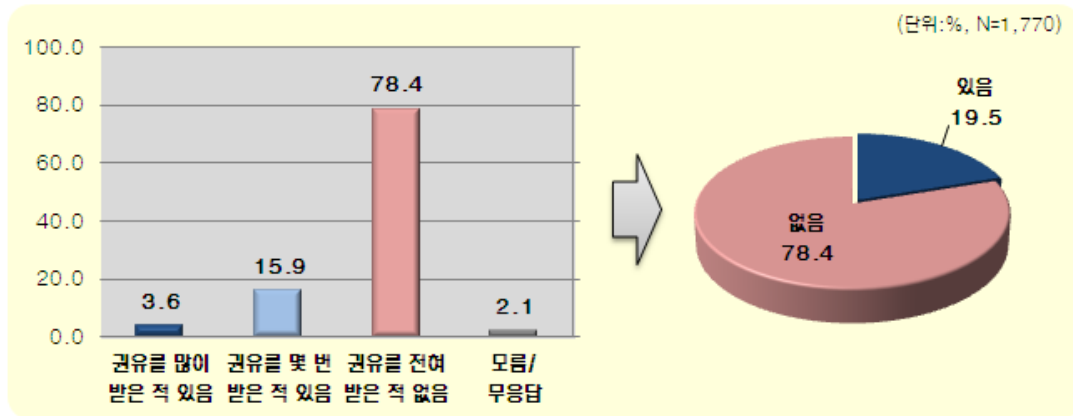
표 V-50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0.409 (0.815)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12.885* (0.012)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34.250*** (0.000)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7.361 (0.118)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②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관

78.4%는 청소년수련관 이용 권유 경험이 없음
[권유를 전혀 받은 적 없음 78.4%]



【그림 V-23】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관

표 V-51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권유를 많이 받은 적 있음	권유를 몇 번 받은 적 있음	권유를 전혀 받은 적 없음	모름/무응답	*있음*	*없음*
전체		1,770	3.6	15.9	78.4	2.1	19.5	78.4
성별	남성	934	3.2	15.4	79.0	2.4	18.6	79.0
	여성	836	3.9	16.5	77.8	1.8	20.5	77.8
학교급	초등학교	569	2.3	11.2	84.7	1.8	13.5	84.7
	중학교	587	3.4	15.7	78.4	2.6	19.1	78.4
	고등학교	614	4.9	20.5	72.6	2.0	25.4	72.6
거주지역	수도권	733	3.4	16.9	78.0	1.6	20.3	78.0
	경상권	467	3.9	15.0	77.5	3.6	18.8	77.5
	충청권	195	2.1	15.4	81.5	1.0	17.4	81.5
	전라권	240	5.0	17.1	75.4	2.5	22.1	75.4
지역특징	강원제주권	135	3.0	12.6	84.4	0.0	15.6	84.4
	대도시	843	2.8	13.9	81.3	2.0	16.7	81.3
	중소도시	457	3.7	17.7	76.8	1.8	21.4	76.8
	농산어촌	470	4.7	17.9	74.9	2.6	22.6	74.9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도록 권유(추천) 받은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이 78.4%로 ‘있다’는 응답 19.5%(권유를 많이 받은 적 있음: 3.6% + 권유를 몇 번 받은 적 있음: 15.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은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84.7%)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81.5%) 및 강원제주권(84.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81.3%)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도록 권유(추천) 경험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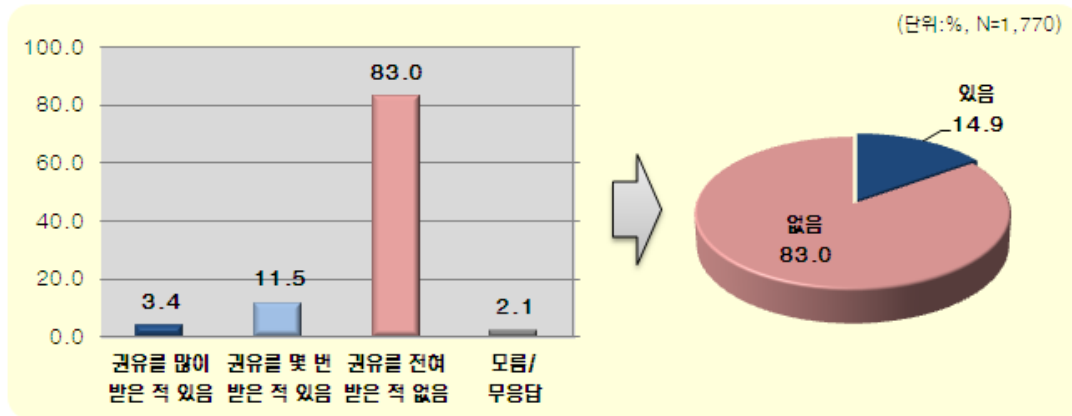
표 V-52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1.074 (0.584)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27.053*** (0.000)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5.776 (0.672)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8.914 (0.063)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③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83.0%는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권유 경험이 없음
[권유를 전혀 받은 적 없음 83.0%]



【그림 V-24】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표 V-53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권유를 많이 받은 적 있음	권유를 몇 번 받은 적 있음	권유를 전혀 받은 적 없음	모름/무응답	*있음*	*없음*
전체		1,770	3.4	11.5	83.0	2.1	14.9	83.0
성별	남성	934	2.8	9.2	85.8	2.2	12.0	85.8
	여성	836	4.1	14.0	79.9	2.0	18.1	79.9
학교급	초등학교	569	3.0	9.8	85.1	2.1	12.8	85.1
	중학교	587	3.6	9.2	84.8	2.4	12.8	84.8
	고등학교	614	3.6	15.1	79.3	2.0	18.7	79.3
거주지역	수도권	733	1.5	6.3	90.2	2.0	7.8	90.2
	경상권	467	4.5	13.3	78.8	3.4	17.8	78.8
	충청권	195	6.7	15.9	76.4	1.0	22.6	76.4
	전라권	240	2.1	15.8	80.0	2.1	17.9	80.0
	강원제주권	135	7.4	19.3	73.3	0.0	26.7	73.3
지역특징	대도시	843	2.0	5.8	90.0	2.1	7.8	90.0
	중소도시	457	6.1	17.5	74.4	2.0	23.6	74.4
	농산어촌	470	3.2	15.7	78.7	2.3	18.9	78.7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도록 권유(추천) 받은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이 83.0%로 ‘있다’는 응답 14.9%(권유를 많이 받은 적 있음: 3.4% + 권유를 몇 번 받은 적 있음: 11.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은 남성(85.8%),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85.1%)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90.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90.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및 학교급 그리고 거주지역 및 지역특징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도록 권유(추천) 경험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0.1% 수준에서는 거주지역 및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4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12.778** (0.002)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13.109* (0.011)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64.002*** (0.000)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70.468*** (0.000)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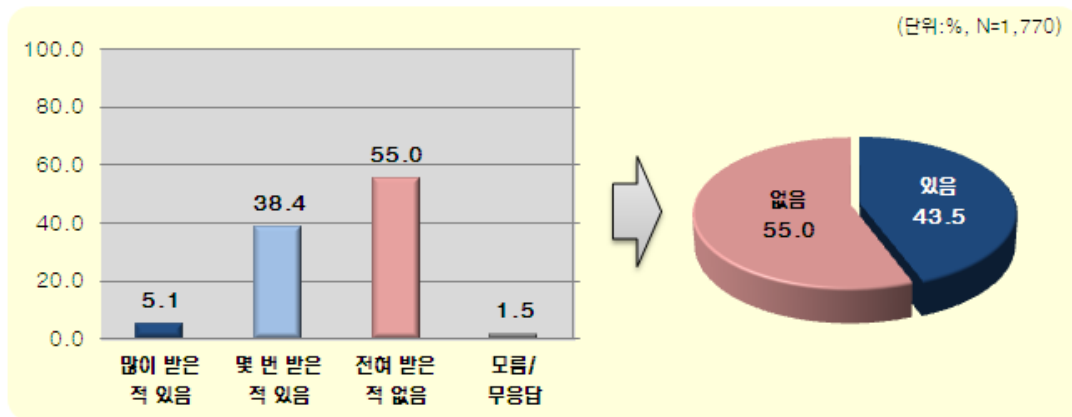
*p<.05, **p<.01, ***p<.001

(3)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①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원

55.0%는 청소년수련원 안내문 수령 경험이 없음

[전혀 받은 적 없음 55.0%]



【그림 V-25】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원

표 V-55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많이 받은 적 있음	몇 번 받은 적 있음	전혀 받은 적 없음	모름/ 무응답	*있음*	*없음*
전체		1,770	5.1	38.4	55.0	1.5	43.5	55.0
성별	남성	934	4.9	38.0	55.2	1.8	42.9	55.2
	여성	836	5.3	38.9	54.7	1.2	44.1	54.7
학교급	초등학교	569	2.8	30.1	65.2	1.9	32.9	65.2
	중학교	587	6.3	43.1	49.2	1.4	49.4	49.2
	고등학교	614	6.0	41.7	51.0	1.3	47.7	51.0
거주지역	수도권	733	5.0	33.2	60.2	1.6	38.2	60.2
	경상권	467	5.8	39.2	53.3	1.7	45.0	53.3
	충청권	195	5.1	42.6	51.8	0.5	47.7	51.8
	전라권	240	3.8	36.7	57.1	2.5	40.4	57.1
	강원제주권	135	5.2	61.5	33.3	0.0	66.7	33.3
지역특징	대도시	843	5.6	38.0	55.2	1.3	43.5	55.2
	중소도시	457	3.9	35.7	58.6	1.8	39.6	58.6
	농산어촌	470	5.3	41.9	51.1	1.7	47.2	51.1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이 55.0%로 ‘있다’는 응답 43.5%(많이 받은 적 있음: 5.1% + 몇 번 받은 적 있음: 38.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은 초등학교(65.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60.2%)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학교급 및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 수령 경험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학교급 및 거주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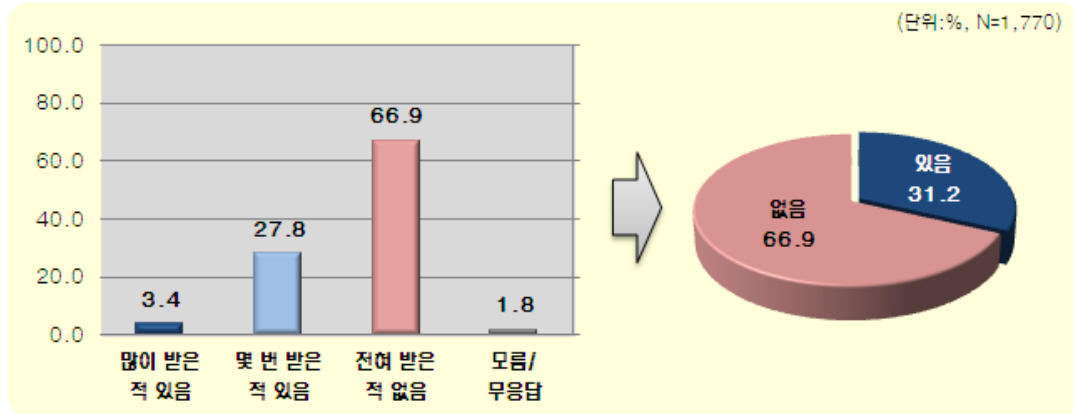
표 V-56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0.195 (0.907)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40.199*** (0.000)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41.763*** (0.000)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6.508 (0.164)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②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관

66.9%는 청소년수련관 안내문 수령 경험이 없음
[전혀 받은 적 없음 66.9%]



【그림 V-26】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관

표 V-57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많이 받은 적 있음	몇 번 받은 적 있음	전혀 받은 적 없음	모름/ 무응답	*있음*	*없음*
전체		1,770	3.4	27.8	66.9	1.8	31.2	66.9
성별	남성	934	3.4	27.0	67.5	2.1	30.4	67.5
	여성	836	3.5	28.7	66.4	1.4	32.2	66.4
학교급	초등학교	569	1.9	17.4	79.4	1.2	19.3	79.4
	중학교	587	3.7	35.9	57.9	2.4	39.7	57.9
	고등학교	614	4.6	29.6	64.0	1.8	34.2	64.0
거주지역	수도권	733	3.8	29.5	65.1	1.6	33.3	65.1
	경상권	467	4.1	26.6	66.4	3.0	30.6	66.4
	충청권	195	1.5	24.1	73.8	0.5	25.6	73.8
	전라권	240	3.8	24.6	69.6	2.1	28.3	69.6
	강원제주권	135	1.5	34.1	64.4	0.0	35.6	64.4
지역특징	대도시	843	3.3	27.2	68.1	1.4	30.5	68.1
	중소도시	457	2.8	27.4	67.8	2.0	30.2	67.8
	농산어촌	470	4.3	29.4	64.0	2.3	33.6	64.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이 66.9%로 ‘있다’는 응답 31.2%(많이 받은 적 있음: 3.4% + 몇 번 받은 적 있음: 27.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은 초등학교(79.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73.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 수령 경험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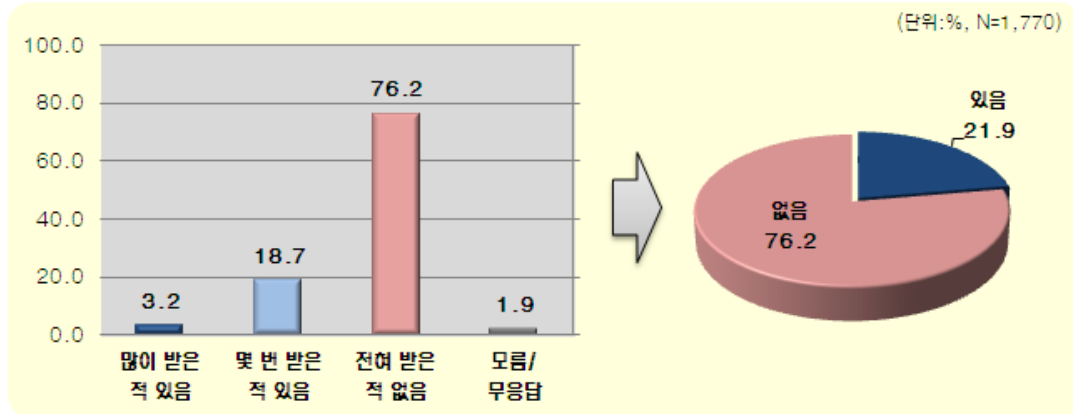
표 V-58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0.528 (0.768)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64.103*** (0.000)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11.125 (0.195)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2.771 (0.597)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③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76.2%는 청소년문화의집 안내문 수령 경험이 없음
[전혀 받은 적 없음 76.2%]



【그림 V-27】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표 V-59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많이 받은 적 있음	몇 번 받은 적 있음	전혀 받은 적 없음	모름/ 무응답	*있음*	*없음*
전체		1,770	3.2	18.7	76.2	1.9	21.9	76.2
성별	남성	934	2.6	17.3	77.9	2.1	19.9	77.9
	여성	836	3.9	20.2	74.3	1.6	24.2	74.3
학교급	초등학교	569	3.7	11.1	83.7	1.6	14.8	83.7
	중학교	587	3.4	22.8	71.6	2.2	26.2	71.6
	고등학교	614	2.6	21.8	73.8	1.8	24.4	73.8
거주지역	수도권	733	1.5	14.3	82.1	2.0	15.8	82.1
	경상권	467	3.9	19.3	74.1	2.8	23.1	74.1
	충청권	195	7.7	20.5	71.3	0.5	28.2	71.3
	전라권	240	2.1	19.2	77.1	1.7	21.3	77.1
	강원제주권	135	5.9	37.0	57.0	0.0	43.0	57.0
지역특징	대도시	843	1.8	13.5	83.3	1.4	15.3	83.3
	중소도시	457	5.9	25.4	66.3	2.4	31.3	66.3
	농산어촌	470	3.2	21.5	73.2	2.1	24.7	73.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이 76.2%로 ‘있다’는 응답 21.9%(많이 받은 적 있음: 3.2% + 몇 번 받은 적 있음: 18.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은 초등학교(83.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82.1%)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83.3%)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학교급 및 거주지역 그리고 지역특징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 수령 경험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학교급 및 거주지역 그리고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0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5.303 (0.071)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33.665*** (0.000)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65.590*** (0.000)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52.627*** (0.000)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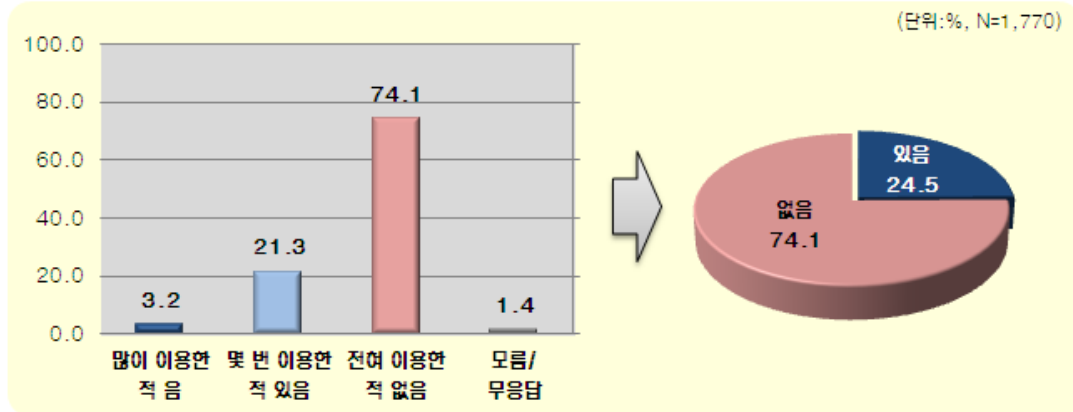
*p<.05, **p<.01, ***p<.001

(4)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①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74.1%는 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수련원 이동수업 경험이 없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74.1%]



[그림 V-28]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표 V-61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많이 이용한 적 있음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모름/무응답	*있음*	*없음*
전체		1,770	3.2	21.3	74.1	1.4	24.5	74.1
성별	남성	934	2.9	21.5	74.1	1.5	24.4	74.1
	여성	836	3.5	21.1	74.2	1.3	24.5	74.2
학교급	초등학교	569	1.2	15.6	81.4	1.8	16.9	81.4
	중학교	587	3.6	26.1	69.3	1.0	29.6	69.3
	고등학교	614	4.6	22.0	72.0	1.5	26.5	72.0
거주지역	수도권	733	2.6	16.2	79.7	1.5	18.8	79.7
	경상권	467	3.9	24.2	70.4	1.5	28.1	70.4
	충청권	195	4.6	12.8	82.1	0.5	17.4	82.1
	전라권	240	1.3	30.8	65.4	2.5	32.1	65.4
	강원제주권	135	5.2	34.1	60.7	0.0	39.3	60.7
지역특징	대도시	843	2.6	20.2	75.8	1.4	22.8	75.8
	중소도시	457	3.7	20.6	74.4	1.3	24.3	74.4
	농산어촌	470	3.6	24.0	70.9	1.5	27.7	70.9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학교에서 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수련원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이 74.1%로 ‘있다’는 응답 24.5%(많이 이용한 적 있음: 3.2% +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21.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은 초등학교(81.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79.7%) 및 충청권(82.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학교급 및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이동 수업 경험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학교급 및 거주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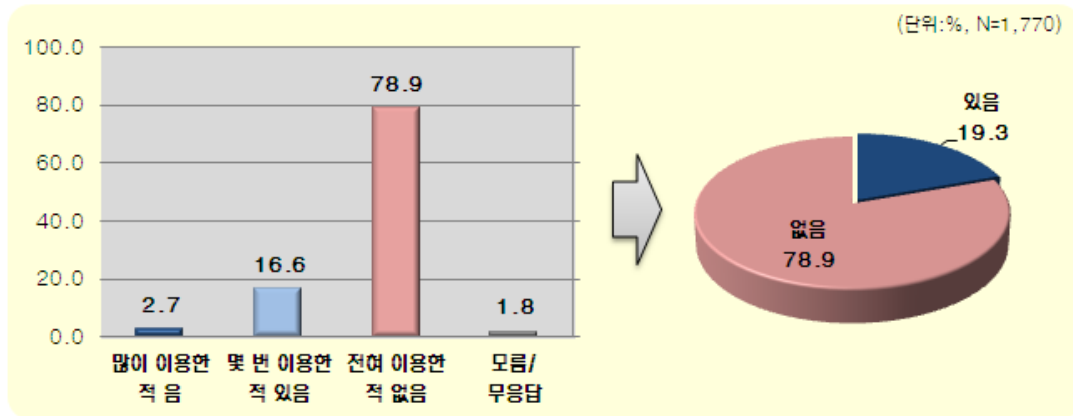
표 V-62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0.510 (0.775)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32.019*** (0.000)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56.194*** (0.000)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4.858 (0.302)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②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78.9%는 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수련관 이동수업 경험이 없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78.9%]



【그림 V-29】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표 V-63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많이 이용한 적 있음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모름/무응답	*있음*	*없음*
전체		1,770	2.7	16.6	78.9	1.8	19.3	78.9
성별	남성	934	1.7	16.7	79.6	2.0	18.4	79.6
	여성	836	3.7	16.5	78.2	1.6	20.2	78.2
학교급	초등학교	569	1.9	11.2	85.2	1.6	13.2	85.2
	중학교	587	3.4	22.1	72.4	2.0	25.6	72.4
	고등학교	614	2.6	16.3	79.3	1.8	18.9	79.3
거주지역	수도권	733	3.5	18.6	76.4	1.5	22.1	76.4
	경상권	467	2.6	15.8	78.6	3.0	18.4	78.6
	충청권	195	2.1	7.2	90.3	0.5	9.2	90.3
	전라권	240	1.3	18.8	77.5	2.5	20.0	77.5
지역특징	강원제주권	135	1.5	18.5	80.0	0.0	20.0	80.0
	대도시	843	2.3	15.4	80.5	1.8	17.7	80.5
	중소도시	457	3.5	18.8	76.1	1.5	22.3	76.1
	농산어촌	470	2.6	16.6	78.7	2.1	19.1	78.7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학교에서 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이 78.9%로 ‘있다’는 응답 19.3%(많이 이용한 적 있음: 2.7% +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16.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은 초등학교(85.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90.3%)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및 학교급 그리고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이동 수업 경험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 수준에서는 거주지역, 그리고 0.1%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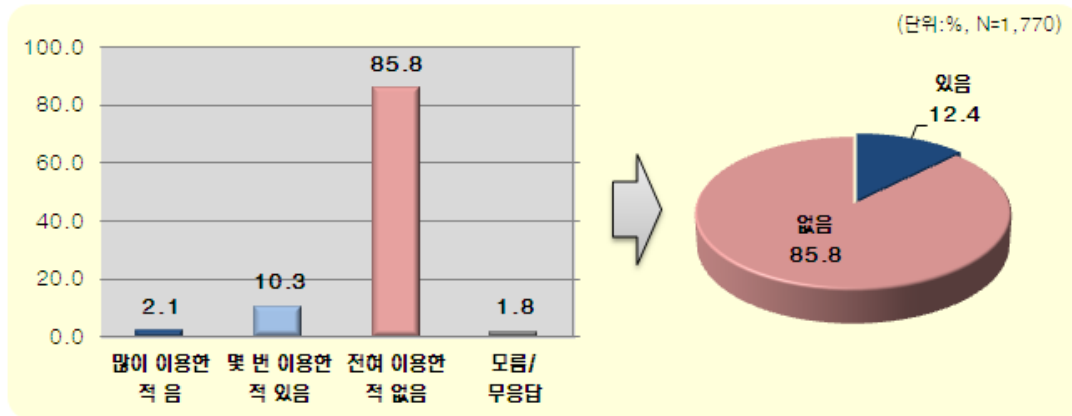
표 V-64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6.708* (0.035)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29.141*** (0.000)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21.688** (0.006)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4.532 (0.339)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③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85.8%는 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문화의집 이동수업 경험이 없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85.8%]



【그림 V-30】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표 V-65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많이 이용한 적 있음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모름/무응답	*있음*	*없음*
전체		1,770	2.1	10.3	85.8	1.8	12.4	85.8
성별	남성	934	1.6	10.1	86.4	1.9	11.7	86.4
	여성	836	2.6	10.6	85.0	1.7	13.3	85.0
학교급	초등학교	569	3.0	7.0	88.2	1.8	10.0	88.2
	중학교	587	2.2	12.4	83.5	1.9	14.7	83.5
	고등학교	614	1.1	11.4	85.7	1.8	12.5	85.7
거주지역	수도권	733	0.5	7.1	90.6	1.8	7.6	90.6
	경상권	467	2.8	10.3	84.2	2.8	13.1	84.2
	충청권	195	6.7	10.8	82.1	0.5	17.4	82.1
	전라권	240	0.8	13.8	83.3	2.1	14.6	83.3
	강원제주권	135	3.7	21.5	74.8	0.0	25.2	74.8
지역특징	대도시	843	0.9	6.9	90.4	1.8	7.8	90.4
	중소도시	457	4.6	14.2	79.4	1.8	18.8	79.4
	농산어촌	470	1.7	12.8	83.6	1.9	14.5	83.6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학교에서 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이 85.8%로 ‘있다’는 응답 12.4%(많이 이용한 적 있음: 2.1% +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10.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은 초등학교(88.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90.6%)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90.4%)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학교급 및 거주지역 그리고 지역특징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 이동 수업 경험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거주지역 및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6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2.455 (0.293)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14.838** (0.005)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62.658*** (0.000)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42.889*** (0.000)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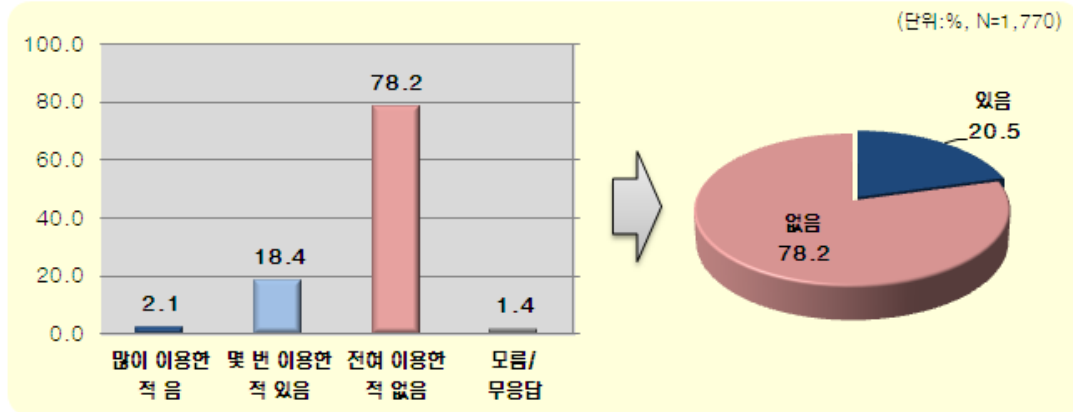
*p<.05, **p<.01, ***p<.001

(5)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①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78.2%는 비교과시간에 청소년수련원 이동수업 경험이 없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78.2%]



【그림 V-31】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표 V-67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많이 이용한 적 있음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모름/무응답	*있음*	*없음*
전체		1,770	2.1	18.4	78.2	1.4	20.5	78.2
성별	남성	934	2.4	18.6	77.5	1.5	21.0	77.5
	여성	836	1.8	18.1	78.9	1.2	19.9	78.9
학교급	초등학교	569	1.1	16.5	81.0	1.4	17.6	81.0
	중학교	587	2.4	21.0	75.5	1.2	23.3	75.5
	고등학교	614	2.8	17.6	78.2	1.5	20.4	78.2
거주지역	수도권	733	2.3	14.7	81.4	1.5	17.1	81.4
	경상권	467	2.4	21.0	75.2	1.5	23.3	75.2
	충청권	195	2.1	14.9	82.6	0.5	16.9	82.6
	전라권	240	1.3	25.0	71.7	2.1	26.3	71.7
	강원제주권	135	1.5	22.2	76.3	0.0	23.7	76.3
지역특징	대도시	843	1.9	17.8	79.0	1.3	19.7	79.0
	중소도시	457	1.8	18.2	79.0	1.1	19.9	79.0
	농산어촌	470	2.8	19.6	76.0	1.7	22.3	76.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학교에서 비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수련원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이 78.2%로 ‘있다’는 응답 20.5%(많이 이용한 적 있음: 2.1% +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18.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은 초등학교(81.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81.4%) 및 충청권(82.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이동 수업 경험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거주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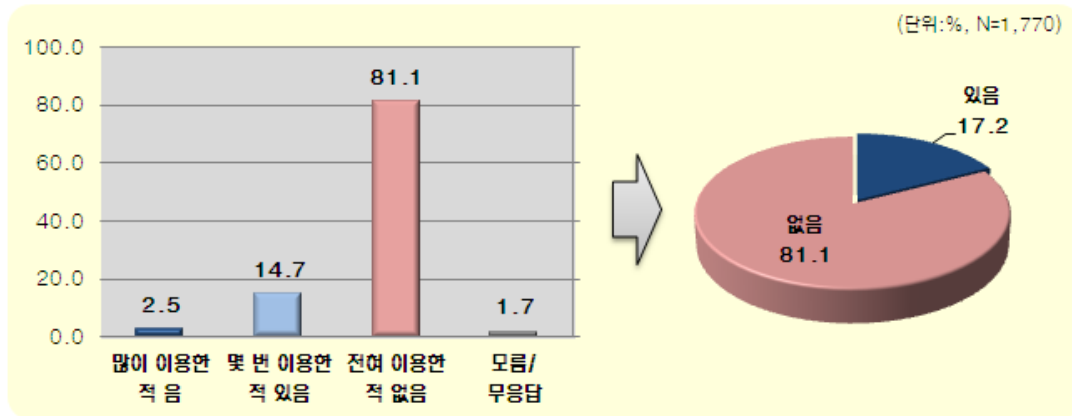
표 V-68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0.853 (0.653)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9.050 (0.060)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19.916* (0.011)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2.367 (0.669)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②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81.1%는 비교과시간에 청소년수련관 이동수업 경험이 없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81.1%]



【그림 V-32】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표 V-69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많이 이용한 적 있음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모름/무응답	*있음*	*없음*
전체		1,770	2.5	14.7	81.1	1.7	17.2	81.1
성별	남성	934	1.9	14.5	81.6	2.0	16.4	81.6
	여성	836	3.1	15.0	80.6	1.3	18.1	80.6
학교급	초등학교	569	2.1	9.3	87.5	1.1	11.4	87.5
	중학교	587	3.1	18.9	76.0	2.0	22.0	76.0
	고등학교	614	2.3	15.6	80.1	2.0	17.9	80.1
거주지역	수도권	733	3.7	16.4	78.3	1.6	20.1	78.3
	경상권	467	2.8	15.6	79.0	2.6	18.4	79.0
	충청권	195	1.0	8.2	90.3	0.5	9.2	90.3
	전라권	240	0.8	13.3	83.8	2.1	14.2	83.8
지역특징	강원제주권	135	0.0	14.1	85.9	0.0	14.1	85.9
	대도시	843	2.5	14.6	81.4	1.5	17.1	81.4
	중소도시	457	2.8	16.8	79.0	1.3	19.7	79.0
	농산어촌	470	2.1	12.8	82.8	2.3	14.9	82.8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학교에서 비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이 81.1%로 ‘있다’는 응답 17.2%(많이 이용한 적 있음: 2.5% +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14.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은 초등학교(87.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90.3%) 및 강원제주권(85.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학교급 및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이동 수업 경험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는 거주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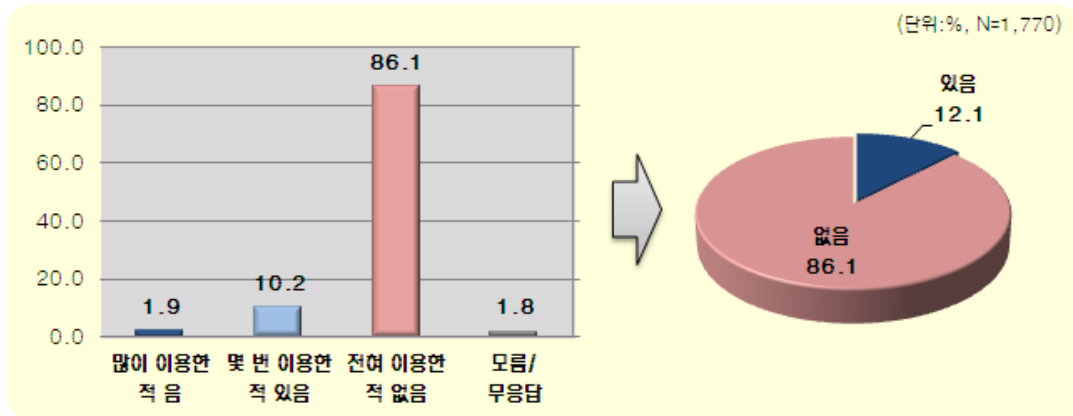
표 V-70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2.584 (0.275)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24.676*** (0.000)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22.970** (0.003)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3.512 (0.476)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③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86.1%는 비교과시간에 청소년문화의집 이동수업 경험이 없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86.1%]



【그림 V-33】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표 V-71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많이 이용한 적 있음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모름/무응답	*있음*	*없음*
전체		1,770	1.9	10.2	86.1	1.8	12.1	86.1
성별	남성	934	1.8	9.7	86.5	1.9	11.6	86.5
	여성	836	2.0	10.8	85.6	1.6	12.8	85.6
학교급	초등학교	569	1.9	7.2	89.6	1.2	9.1	89.6
	중학교	587	2.2	12.8	83.0	2.0	15.0	83.0
	고등학교	614	1.6	10.6	85.8	2.0	12.2	85.8
거주지역	수도권	733	0.7	7.8	89.6	1.9	8.5	89.6
	경상권	467	2.6	10.1	84.8	2.6	12.6	84.8
	충청권	195	3.6	12.3	83.6	0.5	15.9	83.6
	전라권	240	1.7	12.9	83.8	1.7	14.6	83.8
	강원제주권	135	4.4	16.3	79.3	0.0	20.7	79.3
지역특징	대도시	843	1.1	7.5	89.9	1.5	8.5	89.9
	중소도시	457	3.9	12.9	81.4	1.8	16.8	81.4
	농산어촌	470	1.5	12.6	83.8	2.1	14.0	83.8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학교에서 비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이 86.1%로 ‘있다’는 응답 12.1%(많이 이용한 적 있음: 1.9% +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10.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은 초등학교(89.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89.6%)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89.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학교급 및 거주지역 그리고 지역특징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 이동 수업 경험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거주지역 및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2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0.587 (0.745)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10.886* (0.028)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27.847*** (0.001)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28.152*** (0.000)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3)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에 대한 기대

청소년수련원 이용 의향은 26.7%가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24.4%, 청소년문화의집은 21.6%만이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의향 없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원은 28.5%, 청소년수련관은 25.3%, 청소년문화의집은 24.3%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참여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시설 이용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원은 34.4%, 청소년수련관은 32.7%, 청소년문화의집은 31.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 청소년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질문한 결과, 청소년수련원은 32.0%, 청소년수련관은 29.9%, 청소년문화의집은 30.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V-73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에 대한 기대

구분		내용[단위 : %]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청소년수련원	의향 있음	26.7
		보통	35.4
		의향 없음	37.1
	청소년수련관	의향 있음	24.4
		보통	35.5
		의향 없음	38.8
	청소년문화의집	의향 있음	21.6
		보통	36.6
		의향 없음	40.6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청소년수련원	의향 있음	28.5
		보통	35.1
		의향 없음	35.5
	청소년수련관	의향 있음	25.3
		보통	36.2
		의향 없음	37.3
	청소년문화의집	의향 있음	24.3
		보통	36.2
		의향 없음	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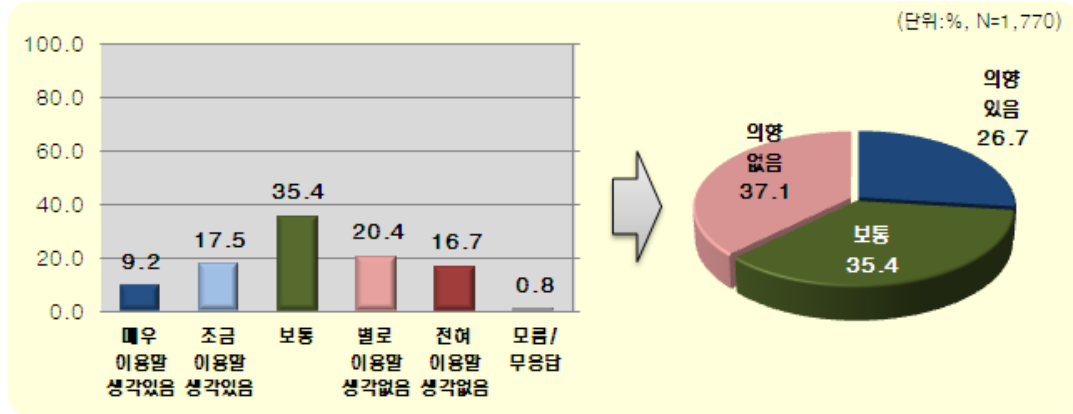
구분		내용[단위 : %]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청소년수련원	도움	34.4
		보통	40.7
		도움 안 됨	24.0
	청소년수련관	도움	32.7
		보통	41.4
		도움 안 됨	24.8
	청소년문화의집	도움	31.5
		보통	41.0
		도움 안 됨	26.2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청소년수련원	필요	32.0
		보통	39.0
		불필요	28.1
	청소년수련관	필요	29.9
		보통	40.6
		불필요	28.2
	청소년문화의집	필요	30.2
		보통	39.7
		불필요	28.8

(1)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①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원

37.1%는 청소년수련원 이용 의향이 없음

[전혀 이용할 생각 없음 16.7%, 별로 이용할 생각 없음 20.4%]



【그림 V-34】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원

표 V-74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매우 이용할 생각 있음	조금 이용할 생각 있음	보통	별로 이용할 생각 없음	전혀 이용할 생각 없음	모름/ 무응답	*의향 있음*	*보통*	*의향 없음*
전체		1,770	9.2	17.5	35.4	20.4	16.7	0.8	26.7	35.4	37.1
성별	남성	934	7.7	15.0	31.6	22.2	22.9	0.6	22.7	31.6	45.1
	여성	836	10.9	20.3	39.7	18.4	9.7	1.0	31.2	39.7	28.1
학교급	초등학교	569	11.1	20.0	27.9	20.9	18.8	1.2	31.1	27.9	39.7
	중학교	587	10.1	15.5	37.5	21.1	15.3	0.5	25.6	37.5	36.5
	고등학교	614	6.7	17.1	40.4	19.2	16.0	0.7	23.8	40.4	35.2
거주지역	수도권	733	7.4	16.6	34.1	22.8	18.4	0.7	24.0	34.1	41.2
	경상권	467	8.8	18.8	38.5	16.7	16.1	1.1	27.6	38.5	32.8
	충청권	195	10.8	19.5	33.3	24.1	11.8	0.5	30.3	33.3	35.9
	전라권	240	13.3	16.3	32.5	19.2	17.5	1.3	29.6	32.5	36.7
	강원제주권	135	11.1	17.0	40.0	17.0	14.8	0.0	28.1	40.0	31.9
지역특징	대도시	843	9.6	19.3	31.8	21.6	17.1	0.6	28.9	31.8	38.7
	중소도시	457	7.7	15.3	37.9	23.9	14.2	1.1	23.0	37.9	38.1
	농산어촌	470	10.0	16.4	39.6	14.9	18.3	0.9	26.4	39.6	33.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 생각(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의향 없다’는 응답이 37.1%(전혀 이용할 생각 없음: 16.7% + 별로 이용할 생각 없음: 20.4%), ‘의향 있다’는 응답이 26.7%(매우 이용할 생각 있음: 9.2% + 조금 이용할 생각 있음: 17.5%)로 나타나, 의향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5.4%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의향 없다’는 응답은 남성(45.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39.7%)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41.2%)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및 거주지역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거주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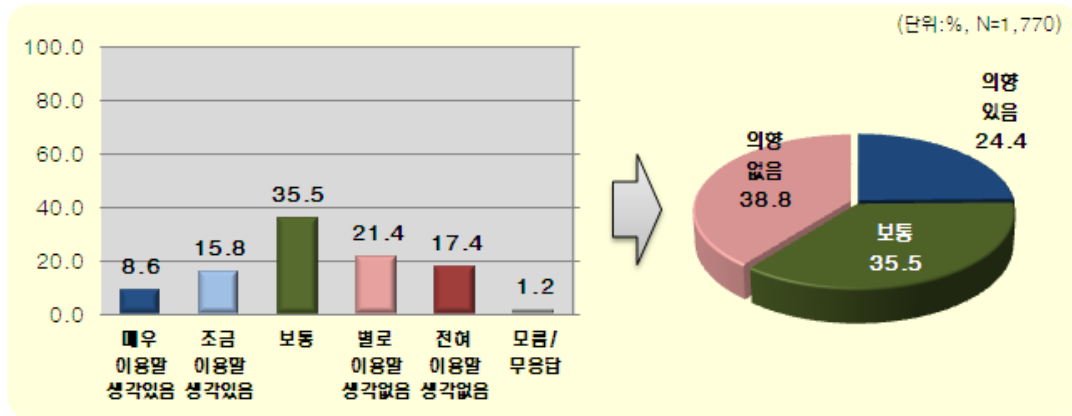
표 V-75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58.223*** (0.000)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0.297 (0.743)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2.578* (0.036)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0.389 (0.678)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②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관

38.8%는 청소년수련관 이용 의향이 없음
 [전혀 이용할 생각 없음 17.4%, 별로 이용할 생각 없음 21.4%]



【그림 V-35】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관

표 V-76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매우 이용할 생각 있음	조금 이용할 생각 있음	보통	별로 이용할 생각 없음	전혀 이용할 생각 없음	모름/ 무응답	*의향 있음*	*보통*	*의향 없음*
전체		1,770	8.6	15.8	35.5	21.4	17.4	1.2	24.4	35.5	38.8
성별	남성	934	5.9	13.5	31.6	23.4	24.1	1.5	19.4	31.6	47.5
	여성	836	11.6	18.4	40.0	19.1	9.9	1.0	30.0	40.0	29.1
학교급	초등학교	569	9.3	17.4	29.5	22.0	20.6	1.2	26.7	29.5	42.5
	중학교	587	8.7	12.6	38.2	23.0	16.4	1.2	21.3	38.2	39.4
	고등학교	614	7.8	17.4	38.6	19.4	15.5	1.3	25.2	38.6	34.9
거주지역	수도권	733	9.5	14.7	34.4	22.9	17.7	0.7	24.3	34.4	40.7
	경상권	467	7.5	14.6	37.7	19.5	18.6	2.1	22.1	37.7	38.1
	충청권	195	7.2	20.0	35.9	23.6	12.8	0.5	27.2	35.9	36.4
	전라권	240	10.4	17.9	31.7	19.6	17.9	2.5	28.3	31.7	37.5
	강원제주권	135	5.9	16.3	40.7	20.0	17.0	0.0	22.2	40.7	37.0
지역특징	대도시	843	8.4	14.9	33.6	23.7	18.4	0.9	23.4	33.6	42.1
	중소도시	457	8.3	16.0	37.9	22.1	14.4	1.3	24.3	37.9	36.5
	농산어촌	470	9.1	17.2	36.8	16.6	18.5	1.7	26.4	36.8	35.1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생각(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의향 없다’는 응답이 38.8%(전혀 이용할 생각 없음: 17.4% + 별로 이용할 생각 없음: 21.4%), ‘의향 있다’는 응답이 24.4%(매우 이용할 생각 있음: 8.6% + 조금 이용할 생각 있음: 15.8%)로 나타나, 의향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5.5%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의향 없다’는 응답은 남성(47.5%),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42.5%)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42.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성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7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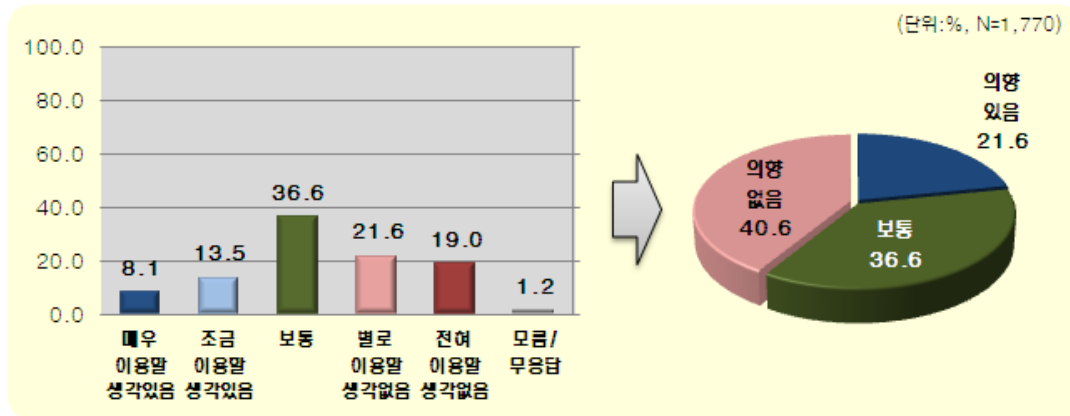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82.386*** (0.000)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1.266 (0.282)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0.619 (0.649)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1.741 (0.176)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③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40.6%는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의향이 없음

[전혀 이용할 생각 없음 19.0%, 별로 이용할 생각 없음 21.6%]



【그림 V-36】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표 V-78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매우 이용할 생각 있음	조금 이용할 생각 있음	보통	별로 이용할 생각 없음	전혀 이용할 생각 없음	모름/ 무응답	*의향 있음*	*보통*	*의향 없음*
전체		1,770	8.1	13.5	36.6	21.6	19.0	1.2	21.6	36.6	40.6
성별	남성	934	5.4	10.6	32.4	24.1	26.2	1.3	16.0	32.4	50.3
	여성	836	11.1	16.7	41.1	18.9	10.9	1.2	27.9	41.1	29.8
학교급	초등학교	569	10.4	14.1	30.9	22.0	21.3	1.4	24.4	30.9	43.2
	중학교	587	7.5	10.7	38.3	23.3	18.9	1.2	18.2	38.3	42.2
	고등학교	614	6.5	15.6	40.1	19.7	16.9	1.1	22.1	40.1	36.6
거주지역	수도권	733	6.3	11.3	35.2	24.7	21.6	1.0	17.6	35.2	46.2
	경상권	467	9.0	12.4	37.7	20.6	18.4	1.9	21.4	37.7	39.0
	충청권	195	10.3	20.0	37.4	18.5	13.3	0.5	30.3	37.4	31.8
	전라권	240	8.8	14.6	35.8	21.3	17.5	2.1	23.3	35.8	38.8
지역특징	강원제주권	135	10.4	17.8	40.0	14.1	17.8	0.0	28.1	40.0	31.9
	대도시	843	7.2	11.4	34.3	25.0	21.1	0.9	18.6	34.3	46.1
	중소도시	457	10.1	14.2	39.2	19.7	15.1	1.8	24.3	39.2	34.8
	농산어촌	470	7.7	16.6	38.1	17.4	18.9	1.3	24.3	38.1	36.4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생각(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의향 없다’는 응답이 40.6%(전혀 이용할 생각 없음: 19.0% + 별로 이용할 생각 없음: 21.6%), ‘의향 있다’는 응답이 21.6%(매우 이용할 생각 있음: 8.1% + 조금 이용할 생각 있음: 13.5%)로 나타나, 의향 없다는 응답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6.6%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의향 없다’는 응답은 남성(50.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46.2%)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46.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및 거주지역 그리고 지역특징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성별 및 거주지역 그리고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9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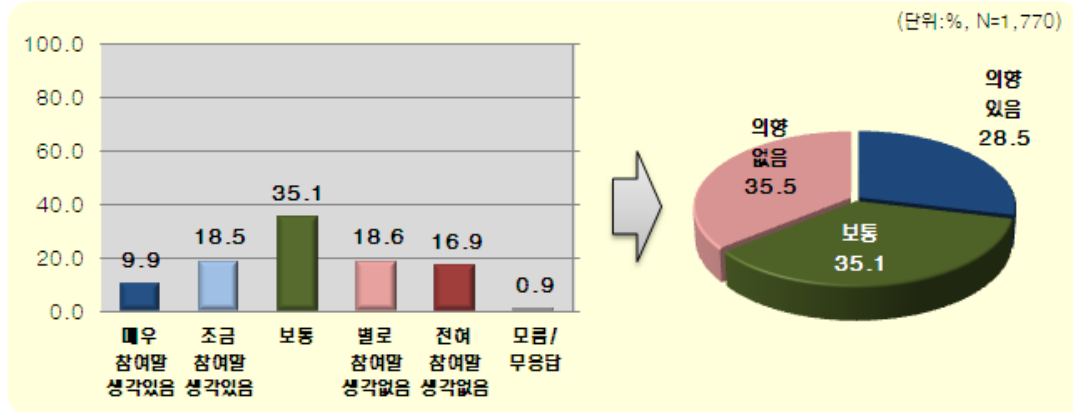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99.905*** (0.000)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1.329 (0.265)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6.168*** (0.000)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8.328*** (0.000)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2)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①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원

35.5%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의향이 없음
[전혀 참여할 생각 없음 16.9%, 별로 참여할 생각 없음 18.6%]



【그림 V-37】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원

표 V-80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매우 참여할 생각 있음	조금 참여할 생각 있음	보통	별로 참여할 생각 없음	전혀 참여할 생각 없음	모름/ 무응답	*의향 있음*	*보통*	*의향 없음*
전체		1,770	9.9	18.5	35.1	18.6	16.9	0.9	28.5	35.1	35.5
성별	남성	934	8.1	15.6	31.3	21.1	23.0	0.9	23.8	31.3	44.1
	여성	836	12.0	21.8	39.4	15.8	10.2	1.0	33.7	39.4	26.0
학교급	초등학교	569	12.7	20.7	27.8	19.0	18.6	1.2	33.4	27.8	37.6
	중학교	587	10.7	15.7	37.8	19.9	15.3	0.5	26.4	37.8	35.3
	고등학교	614	6.7	19.2	39.3	16.9	16.9	1.0	25.9	39.3	33.9
거주지역	수도권	733	8.0	18.4	33.7	20.2	18.8	0.8	26.5	33.7	39.0
	경상권	467	10.1	18.2	37.7	17.3	15.4	1.3	28.3	37.7	32.8
	충청권	195	11.8	23.1	32.3	21.0	11.3	0.5	34.9	32.3	32.3
	전라권	240	12.1	19.2	33.3	16.3	17.9	1.3	31.3	33.3	34.2
	강원제주권	135	13.3	12.6	40.7	14.8	18.5	0.0	25.9	40.7	33.3
지역특징	대도시	843	9.5	21.0	32.1	20.0	16.6	0.7	30.5	32.1	36.7
	중소도시	457	9.2	15.5	36.5	21.2	16.4	1.1	24.7	36.5	37.6
	농산어촌	470	11.5	17.0	38.9	13.4	18.1	1.1	28.5	38.9	31.5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원에서 제공하는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의향 없다'는 응답이 35.5%(전혀 참여할 생각 없음: 16.9% + 별로 참여할 생각 없음: 18.6%), '의향 있다'는 응답이 28.5%(매우 참여할 생각 있음: 9.9% + 조금 참여할 생각 있음: 18.5%)로 나타나, 의향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5.1%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의향 없다'는 응답은 남성(44.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37.6%)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39.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성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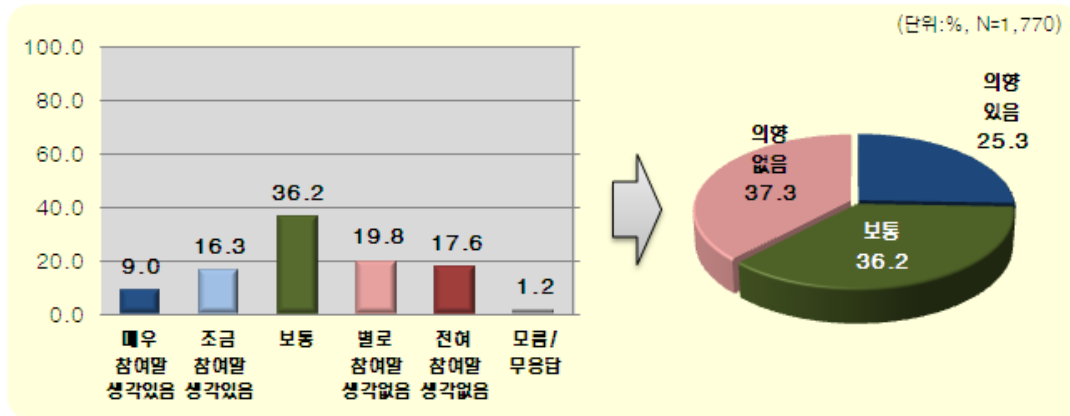
표 V-81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64.815*** (0.000)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0.678 (0.508)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2.376 (0.050)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0.944 (0.389)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②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관

37.3%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의향이 없음
[전혀 참여할 생각 없음 17.6%, 별로 참여할 생각 없음 19.8%]



【그림 V-38】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관

표 V-82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매우 참여할 생각 있음	조금 참여할 생각 있음	보통	별로 참여할 생각 없음	전혀 참여할 생각 없음	모름/ 무응답	*의향 있음*	*보통*	*의향 없음*
전체		1,770	9.0	16.3	36.2	19.8	17.6	1.2	25.3	36.2	37.3
성별	남성	934	6.4	13.1	33.1	22.3	23.7	1.5	19.5	33.1	45.9
	여성	836	11.8	19.9	39.6	17.0	10.8	1.0	31.7	39.6	27.8
학교급	초등학교	569	9.7	18.3	30.8	19.9	20.2	1.2	27.9	30.8	40.1
	중학교	587	9.0	14.0	38.7	21.3	15.8	1.2	23.0	38.7	37.1
	고등학교	614	8.3	16.6	38.8	18.2	16.8	1.3	24.9	38.8	35.0
거주지역	수도권	733	9.3	16.4	34.7	20.7	18.1	0.8	25.6	34.7	38.9
	경상권	467	8.6	15.2	37.5	18.6	18.2	1.9	23.8	37.5	36.8
	충청권	195	8.2	22.1	34.4	22.1	12.8	0.5	30.3	34.4	34.9
	전라권	240	10.8	15.0	36.3	17.9	17.5	2.5	25.8	36.3	35.4
	강원제주권	135	6.7	13.3	42.2	18.5	19.3	0.0	20.0	42.2	37.8
지역특징	대도시	843	8.8	16.5	33.8	21.8	18.0	1.1	25.3	33.8	39.9
	중소도시	457	7.7	16.2	38.1	20.8	16.0	1.3	23.9	38.1	36.8
	농산어촌	470	10.6	16.0	38.5	15.1	18.3	1.5	26.6	38.5	33.4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의향 없다'는 응답이 37.3%(전혀 참여할 생각 없음: 17.6% + 별로 참여할 생각 없음: 19.8%), '의향 있다'는 응답이 25.3%(매우 참여할 생각 있음: 9.0% + 조금 참여할 생각 있음: 16.3%)로 나타나, 의향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6.2%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의향 없다'는 응답은 남성(45.9%), 학년이 낮을수록(초등학교: 40.1%)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39.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성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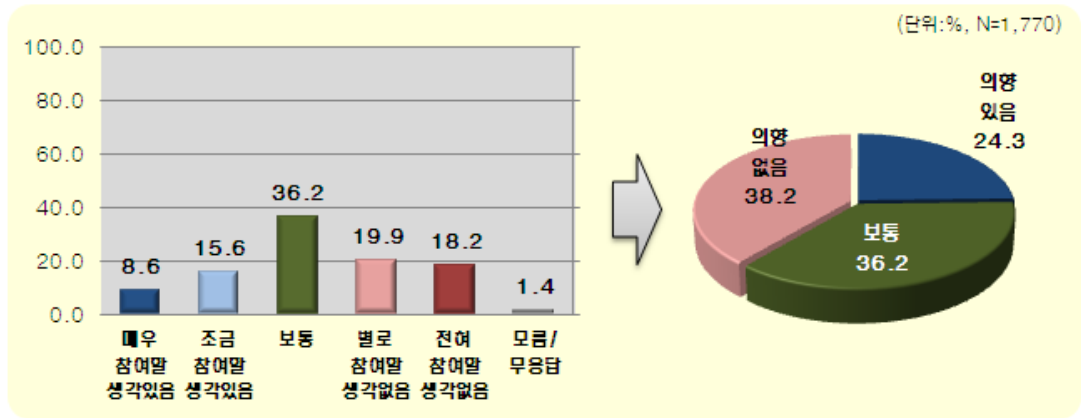
표 V-83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79.908*** (0.000)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0.177 (0.838)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0.826 (0.508)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0.951 (0.387)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③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38.2%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의향이 없음
 [전혀 참여할 생각 없음 18.2%, 별로 참여할 생각 없음 19.9%]



【그림 V-39】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표 V-84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매우 참여할 생각 있음	조금 참여할 생각 있음	보통	별로 참여할 생각 없음	전혀 참여할 생각 없음	모름/ 무응답	*의향 있음*	*보통*	*의향 없음*
전체		1,770	8.6	15.6	36.2	19.9	18.2	1.4	24.3	36.2	38.2
성별	남성	934	6.0	11.5	32.9	23.6	24.6	1.5	17.5	32.9	48.2
	여성	836	11.6	20.3	39.8	15.9	11.1	1.2	31.9	39.8	27.0
학교급	초등학교	569	10.7	17.2	30.2	20.6	19.9	1.4	27.9	30.2	40.4
	중학교	587	8.5	12.3	39.0	20.6	18.4	1.2	20.8	39.0	39.0
	고등학교	614	6.8	17.4	38.9	18.7	16.6	1.5	24.3	38.9	35.3
거주지역	수도권	733	7.2	14.2	34.9	21.8	20.7	1.1	21.4	34.9	42.6
	경상권	467	9.6	14.1	36.6	19.7	17.8	2.1	23.8	36.6	37.5
	충청권	195	11.3	22.1	36.9	19.0	10.3	0.5	33.3	36.9	29.2
	전라권	240	7.9	18.8	35.0	18.3	17.9	2.1	26.7	35.0	36.3
	강원제주권	135	10.4	14.1	42.2	14.8	18.5	0.0	24.4	42.2	33.3
지역특징	대도시	843	7.7	14.9	34.0	23.1	19.1	1.1	22.7	34.0	42.2
	중소도시	457	9.8	15.5	38.1	19.0	15.8	1.8	25.4	38.1	34.8
	농산어촌	470	9.1	17.0	38.1	15.1	19.1	1.5	26.2	38.1	34.3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제공하는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의향 없다'는 응답이 38.2%(전혀 참여할 생각 없음: 18.2% + 별로 참여할 생각 없음: 19.9%), '의향 있다'는 응답이 24.3%(매우 참여할 생각 있음: 8.6% + 조금 참여할 생각 있음: 15.6%)로 나타나, 의향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6.2%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의향 없다'는 응답은 남성(48.2%), 학년이 낮을수록(초등학교: 40.4%)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42.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42.2%)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및 거주지역 그리고 지역특징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성별 및 거주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5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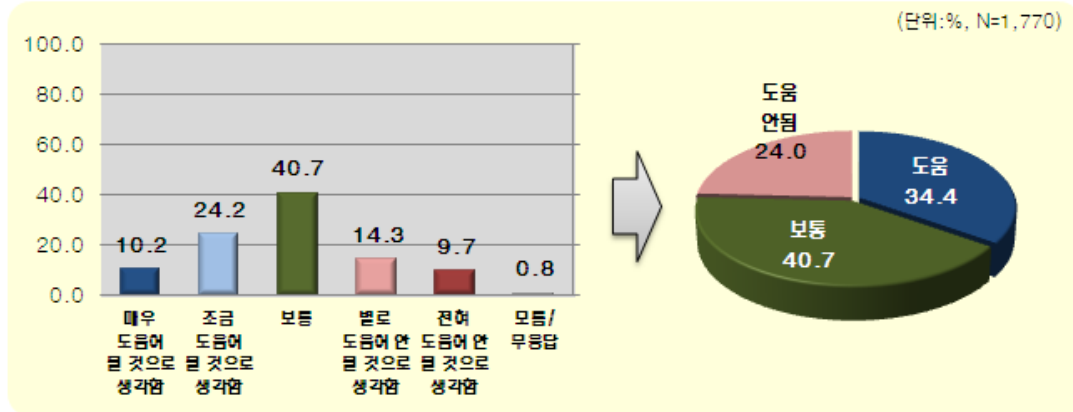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102.104*** (0.000)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0.694 (0.500)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4.784*** (0.001)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3.263* (0.039)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3)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①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수련원

34.4%는 청소년수련원 이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10.2%,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24.2%]



【그림 V-40】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원

표 V-86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보통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모름/ 무응답	*도움*	*보통*	*도움 안됨*
전체		1,770	10.2	24.2	40.7	14.3	9.7	0.8	34.4	40.7	24.0
성별	남성	934	9.6	21.0	39.6	16.3	12.7	0.7	30.6	39.6	29.0
	여성	836	10.8	27.9	42.0	12.1	6.3	1.0	38.6	42.0	18.4
학교급	초등학교	569	13.5	26.4	36.2	13.0	9.7	1.2	39.9	36.2	22.7
	중학교	587	9.0	23.3	43.6	13.1	10.4	0.5	32.4	43.6	23.5
	고등학교	614	8.1	23.1	42.2	16.6	9.1	0.8	31.3	42.2	25.7
거주지역	수도권	733	8.2	24.3	40.5	15.4	10.9	0.7	32.5	40.5	26.3
	경상권	467	10.7	24.6	39.6	14.1	9.6	1.3	35.3	39.6	23.8
	충청권	195	12.8	28.7	42.6	10.3	5.1	0.5	41.5	42.6	15.4
	전라권	240	13.3	20.4	42.1	14.2	8.8	1.3	33.8	42.1	22.9
	강원제주권	135	9.6	23.0	40.7	14.8	11.9	0.0	32.6	40.7	26.7
지역특징	대도시	843	10.4	26.0	39.0	14.4	9.6	0.6	36.4	39.0	24.0
	중소도시	457	10.1	23.0	40.9	16.2	8.8	1.1	33.0	40.9	24.9
	농산어촌	470	9.8	22.3	43.6	12.3	10.9	1.1	32.1	43.6	23.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34.4%(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10.2% +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24.2%)로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 24.0%(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9.7% +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14.3%)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40.7%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여성(38.6%), 학년이 낮을수록(초등학교: 39.9%)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41.5%)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및 학교급 그리고 거주지역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학교급, 1% 수준에서는 거주지역, 그리고 0.1%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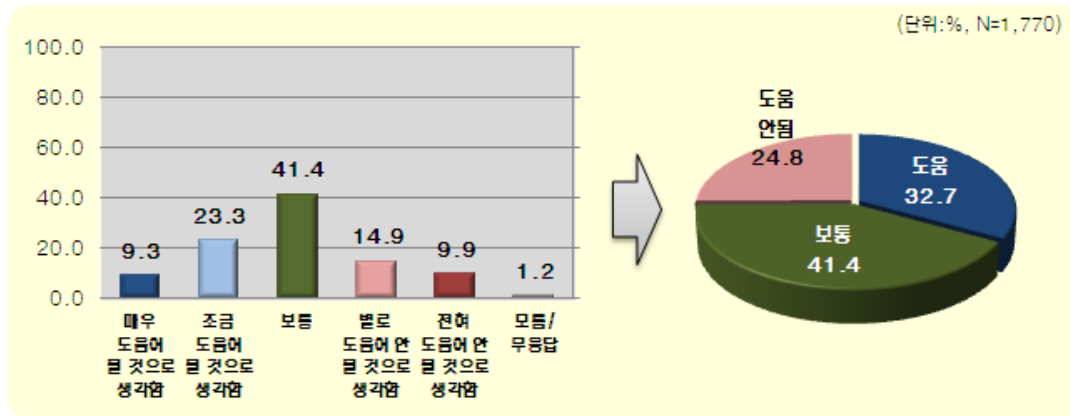
표 V-87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26.191*** (0.000)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3.746* (0.024)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3.371** (0.009)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0.423 (0.655)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②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수련관

32.7%는 청소년수련관 이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9.3%,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23.3%]



【그림 V-41】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수련관

표 V-88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보통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모름/ 무응답	*도움*	*보통*	*도움 안 함*
전체		1,770	9.3	23.3	41.4	14.9	9.9	1.2	32.7	41.4	24.8
성별	남성	934	7.6	21.2	39.5	17.1	13.2	1.4	28.8	39.5	30.3
	여성	836	11.2	25.7	43.4	12.3	6.3	1.0	37.0	43.4	18.7
학교급	초등학교	569	11.4	26.2	37.4	14.6	9.1	1.2	37.6	37.4	23.7
	중학교	587	8.2	21.3	45.1	13.6	10.6	1.2	29.5	45.1	24.2
	고등학교	614	8.5	22.6	41.4	16.3	10.1	1.1	31.1	41.4	26.4
거주지역	수도권	733	10.0	22.9	40.5	15.7	10.1	0.8	32.9	40.5	25.8
	경상권	467	8.8	22.1	39.8	15.8	11.6	1.9	30.8	39.8	27.4
	충청권	195	11.3	28.2	44.1	8.7	7.2	0.5	39.5	44.1	15.9
	전라권	240	7.5	24.6	43.3	15.4	7.1	2.1	32.1	43.3	22.5
지역특징	강원제주권	135	8.1	20.7	43.7	14.8	12.6	0.0	28.9	43.7	27.4
	대도시	843	9.0	23.8	40.1	15.5	10.6	0.9	32.9	40.1	26.1
	중소도시	457	11.2	21.7	42.0	15.8	8.1	1.3	32.8	42.0	23.9
	농산어촌	470	8.1	24.0	43.0	12.8	10.6	1.5	32.1	43.0	23.4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32.7%(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9.3% +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23.3%)로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 24.8%(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9.9% +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14.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41.4%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여성(37.0%), 초등학교(37.6%)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39.5%)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및 거주지역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거주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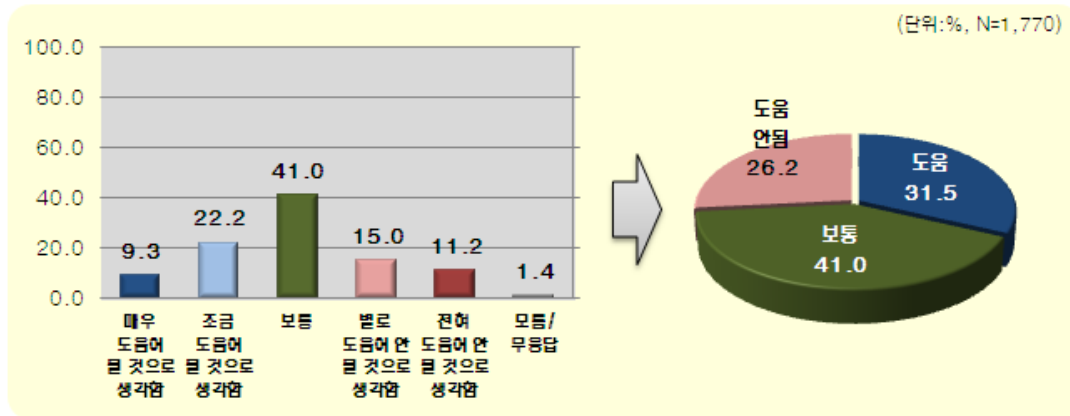
표 V-89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35.835*** (0.000)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2.846 (0.058)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2.555* (0.037)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0.634 (0.530)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③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31.5%는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9.3%,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22.2%]



【그림 V-42】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표 V-90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보통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모름/ 무응답	*도움*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1,770	9.3	22.2	41.0	15.0	11.2	1.4	31.5	41.0	26.2
성별	남성	934	7.2	18.3	40.4	17.8	14.9	1.5	25.5	40.4	32.7
	여성	836	11.6	26.6	41.6	12.0	7.1	1.2	38.2	41.6	19.0
학교급	초등학교	569	11.6	24.3	39.5	13.5	9.7	1.4	35.9	39.5	23.2
	중학교	587	7.8	20.6	43.8	14.7	11.9	1.2	28.4	43.8	26.6
	고등학교	614	8.5	21.8	39.6	16.8	11.9	1.5	30.3	39.6	28.7
거주지역	수도권	733	7.5	21.1	41.3	16.9	12.0	1.1	28.6	41.3	28.9
	경상권	467	9.6	21.0	40.3	15.8	11.1	2.1	30.6	40.3	27.0
	충청권	195	13.3	29.2	42.1	6.7	8.2	0.5	42.6	42.1	14.9
	전라권	240	10.4	21.3	42.1	14.6	9.6	2.1	31.7	42.1	24.2
	강원제주권	135	9.6	23.7	37.8	14.8	14.1	0.0	33.3	37.8	28.9
지역특징	대도시	843	8.9	21.4	40.8	16.5	11.4	1.1	30.2	40.8	27.9
	중소도시	457	11.2	21.9	41.4	14.7	9.2	1.8	33.0	41.4	23.9
	농산어촌	470	8.1	24.0	40.9	12.8	12.8	1.5	32.1	40.9	25.5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31.5%(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9.3% +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22.2%)로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 26.2%(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11.2% +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15.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41.0%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여성(38.2%), 초등학교(35.9%)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42.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및 학교급 그리고 거주지역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성별 및 거주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1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56.866*** (0.000)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4.485* (0.011)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4.751*** (0.001)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1.649 (0.193)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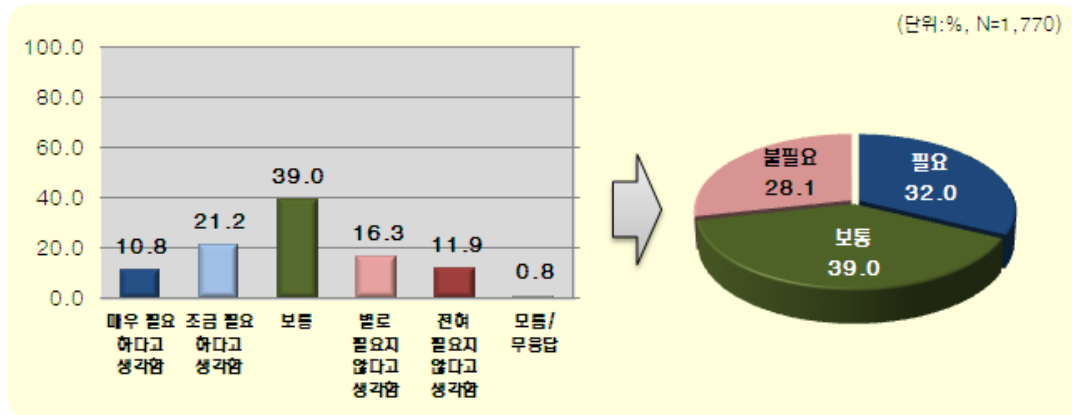
*p<.05, **p<.01, ***p<.001

(4)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①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원

32.0%는 거주지역에 청소년수련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28.1%는 불필요하다고 생각



【그림 V-43】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원

표 V-92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매우 필요 하다고 생각함	조금 필요 하다고 생각함	보통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모름/ 무응답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1,770	10.8	21.2	39.0	16.3	11.9	0.8	32.0	39.0	28.1
성별	남성	934	10.0	18.8	36.3	18.0	16.2	0.7	28.8	36.3	34.2
	여성	836	11.7	23.8	42.1	14.4	7.1	1.0	35.5	42.1	21.4
학교급	초등학교	569	13.0	22.8	36.0	15.3	11.6	1.2	35.9	36.0	26.9
	중학교	587	9.7	19.6	42.8	16.7	10.7	0.5	29.3	42.8	27.4
	고등학교	614	9.8	21.2	38.3	16.8	13.2	0.8	30.9	38.3	30.0
거주지역	수도권	733	9.7	21.0	39.8	16.5	12.3	0.7	30.7	39.8	28.8
	경상권	467	9.9	18.4	38.1	18.8	13.5	1.3	28.3	38.1	32.3
	충청권	195	12.3	28.7	39.0	13.3	6.2	0.5	41.0	39.0	19.5
	전라권	240	15.0	20.0	36.7	16.3	10.8	1.3	35.0	36.7	27.1
	강원제주권	135	10.4	23.0	42.2	10.4	14.1	0.0	33.3	42.2	24.4
지역특징	대도시	843	11.2	19.9	38.8	18.0	11.5	0.6	31.1	38.8	29.5
	중소도시	457	10.9	21.4	38.9	17.1	10.5	1.1	32.4	38.9	27.6
	농산어촌	470	10.0	23.2	39.6	12.3	13.8	1.1	33.2	39.6	26.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었으면 좋겠다(필요성)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32.0%(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함: 10.8% +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함: 21.2%)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28.1%(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11.9% +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16.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9.0%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여성(35.5%), 초등학교(35.9%)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41.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및 거주지역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는 거주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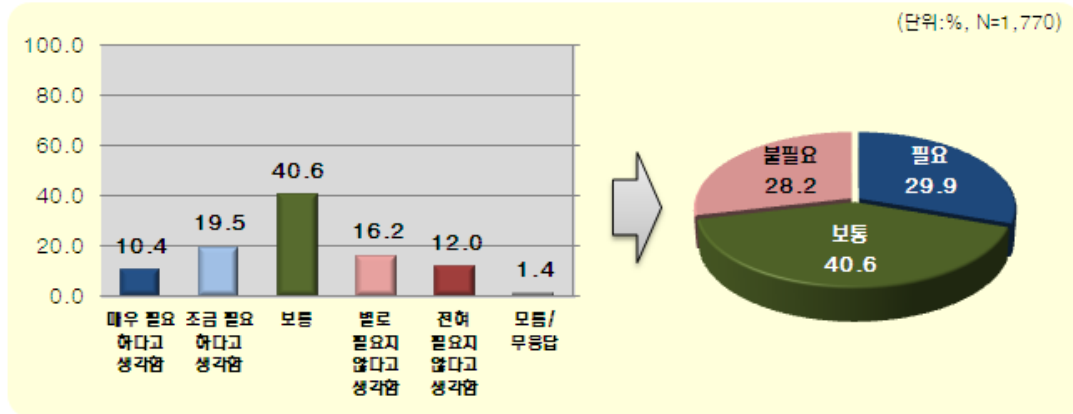
표 V-93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32.736*** (0.000)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1.945 (0.143)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3.979** (0.003)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0.197 (0.821)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②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

29.9%는 거주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하다고 생각,
28.2%는 불필요하다고 생각



【그림 V-44】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

표 V-94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매우 필요 하다고 생각함	조금 필요 하다고 생각함	보통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모름/ 무응답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1,770	10.4	19.5	40.6	16.2	12.0	1.4	29.9	40.6	28.2
성별	남성	934	8.9	16.5	38.2	18.2	16.5	1.7	25.4	38.2	34.7
	여성	836	12.1	22.8	43.2	13.9	7.1	1.0	34.9	43.2	20.9
학교급	초등학교	569	12.0	21.4	38.1	15.3	12.0	1.2	33.4	38.1	27.2
	중학교	587	9.5	17.5	43.8	17.2	10.7	1.2	27.1	43.8	27.9
	고등학교	614	9.8	19.5	39.7	16.0	13.4	1.6	29.3	39.7	29.3
거주지역	수도권	733	11.2	19.5	40.5	16.4	11.7	0.7	30.7	40.5	28.1
	경상권	467	8.6	15.4	40.9	18.4	14.6	2.1	24.0	40.9	33.0
	충청권	195	10.3	28.7	42.1	10.8	7.7	0.5	39.0	42.1	18.5
	전라권	240	11.7	20.0	37.1	18.3	10.0	2.9	31.7	37.1	28.3
	강원제주권	135	10.4	19.3	43.7	11.1	14.8	0.7	29.6	43.7	25.9
지역특징	대도시	843	10.4	17.7	40.7	18.3	12.0	0.9	28.1	40.7	30.2
	중소도시	457	11.4	20.1	41.6	15.1	10.5	1.3	31.5	41.6	25.6
	농산어촌	470	9.4	22.1	39.4	13.4	13.6	2.1	31.5	39.4	27.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었으면 좋겠다(필요성)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29.9%(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함: 10.4% +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함: 19.5%)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28.2%(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12.0% +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16.2%)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40.6%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여성(34.9%), 초등학교(33.4%)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39.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및 거주지역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는 거주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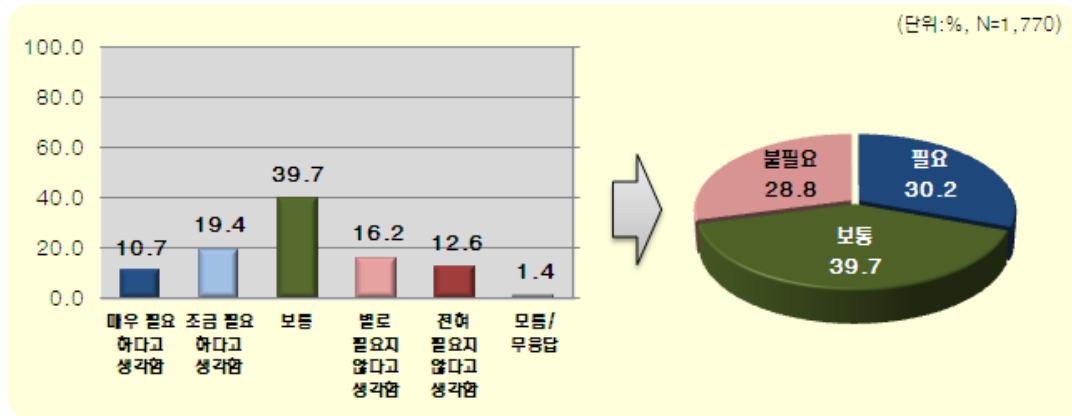
표 V-95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47.069*** (0.000)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1.270 (0.281)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4.377** (0.002)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1.291 (0.275)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③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문화의집

30.2%는 거주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
28.8%는 불필요하다고 생각



【그림 V-45】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문화의집

표 V-96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매우 필요 하다고 생각함	조금 필요 하다고 생각함	보통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모름/ 무응답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1,770	10.7	19.4	39.7	16.2	12.6	1.4	30.2	39.7	28.8
성별	남성	934	8.4	14.8	39.1	18.8	17.5	1.5	23.1	39.1	36.3
	여성	836	13.4	24.6	40.4	13.2	7.2	1.2	38.0	40.4	20.3
학교급	초등학교	569	12.7	20.7	38.3	14.9	12.0	1.4	33.4	38.3	26.9
	중학교	587	9.9	16.4	43.1	17.4	12.1	1.2	26.2	43.1	29.5
	고등학교	614	9.8	21.2	37.8	16.1	13.7	1.5	30.9	37.8	29.8
거주지역	수도권	733	8.9	20.5	40.0	16.8	13.0	1.0	29.3	40.0	29.7
	경상권	467	11.1	15.0	38.5	19.3	14.1	1.9	26.1	38.5	33.4
	충청권	195	13.8	27.7	41.0	8.7	8.2	0.5	41.5	41.0	16.9
	전라권	240	11.7	17.5	38.8	18.3	11.3	2.5	29.2	38.8	29.6
지역특징	강원제주권	135	13.3	20.7	42.2	8.9	14.1	0.7	34.1	42.2	23.0
	대도시	843	10.9	16.4	40.3	19.1	12.3	0.9	27.3	40.3	31.4
	중소도시	457	12.0	22.5	39.4	13.8	10.5	1.8	34.6	39.4	24.3
	농산어촌	470	9.1	21.9	38.9	13.2	15.1	1.7	31.1	38.9	28.3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었으면 좋겠다(필요성)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30.2%(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함: 10.7% +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함: 19.4%)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28.8%(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12.6% +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16.2%)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9.7%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여성(38.0%), 초등학교(33.4%)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41.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특징별로는 중소도시(34.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및 거주지역 그리고 지역특징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지역특징, 0.1% 수준에서는 성별 및 거주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7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76.701*** (0.000)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1.992 (0.137)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4.997*** (0.001)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지역특징	강원제주권	135	3.678* (0.025)
	대도시	843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4)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용어에 대한 인식

‘청소년활동’의 뜻을 알고 있었는지 살펴보면, 43.6%가 몰랐다고 응답해, 알고 있다는 응답 23.4%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련’의 뜻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48.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몰랐다는 응답 22.5%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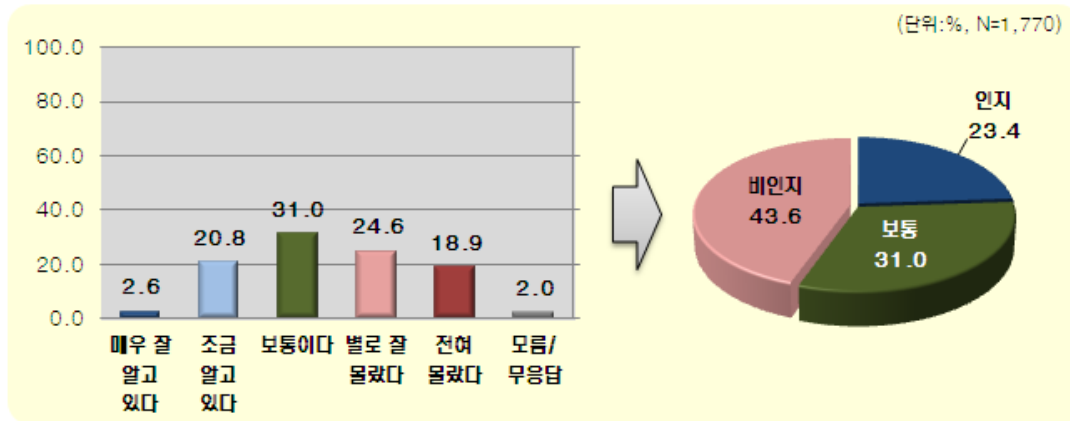
‘수련’이란 용어에서 어려운 훈련이나 강요된 교육과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6.6%로 나타나, 그렇다는 응답 29.3%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98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용어에 대한 인식

구분	내용[단위 : %]	
‘청소년활동’의 뜻 인지 정도	인지	23.4
	보통	31.0
	비인지	43.6
‘수련’의 뜻 인지 정도	인지	48.1
	보통	27.7
	비인지	22.5
‘수련’이란 용어의 부정적 느낌 정도	그렇다(부정)	29.3
	보통	31.7
	그렇지 않다(긍정)	36.6

(1) '청소년활동'의 뜻 인지 정도

43.6%는 '청소년활동'의 뜻을 인지하지 못함
[전혀 몰랐다 18.9%, 별로 잘 몰랐다 24.6%]



【그림 V-46】 ‘청소년활동’의 뜻 인지 정도

표 V-99 '청소년활동'의 뜻 인지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보통 이다	별로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모름/ 무응답	*인지*	*보통*	*비인지*
전체		1,770	2.6	20.8	31.0	24.6	18.9	2.0	23.4	31.0	43.6
성별	남성	934	2.2	16.2	31.8	24.5	22.7	2.6	18.4	31.8	47.2
	여성	836	3.0	26.1	30.0	24.8	14.7	1.4	29.1	30.0	39.5
학교급	초등학교	569	3.0	17.4	26.4	25.8	24.8	2.6	20.4	26.4	50.6
	중학교	587	2.0	21.6	33.2	22.1	18.7	2.2	23.7	33.2	40.9
	고등학교	614	2.8	23.3	33.1	25.9	13.7	1.3	26.1	33.1	39.6
거주지역	수도권	733	2.9	21.4	28.4	24.3	20.7	2.3	24.3	28.4	45.0
	경상권	467	1.3	19.3	31.3	26.3	19.3	2.6	20.6	31.3	45.6
	충청권	195	2.6	24.6	29.2	28.7	13.3	1.5	27.2	29.2	42.1
	전라권	240	3.8	19.2	35.8	22.9	17.9	0.4	22.9	35.8	40.8
	강원제주권	135	3.7	20.7	37.8	17.8	17.8	2.2	24.4	37.8	35.6
지역특징	대도시	843	2.4	19.2	30.2	26.8	19.7	1.7	21.6	30.2	46.5
	중소도시	457	2.6	21.7	32.2	21.7	18.6	3.3	24.3	32.2	40.3
	농산어촌	470	3.0	23.0	31.1	23.6	17.9	1.5	26.0	31.1	41.5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활동’의 뜻 인지 정도에 대해서 ‘몰랐다’는 응답이 43.6%(전혀 몰랐다: 18.9% + 별로 잘 몰랐다: 24.6%)로 ‘알고 있다’는 응답 23.4%(매우 잘 알고 있다: 2.6% + 조금 알고 있다: 20.8%)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1.0%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몰랐다’는 응답은 남성(47.2%), 학년이 낮을수록(초등학교: 50.6%)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46.5%)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및 학교급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성별 및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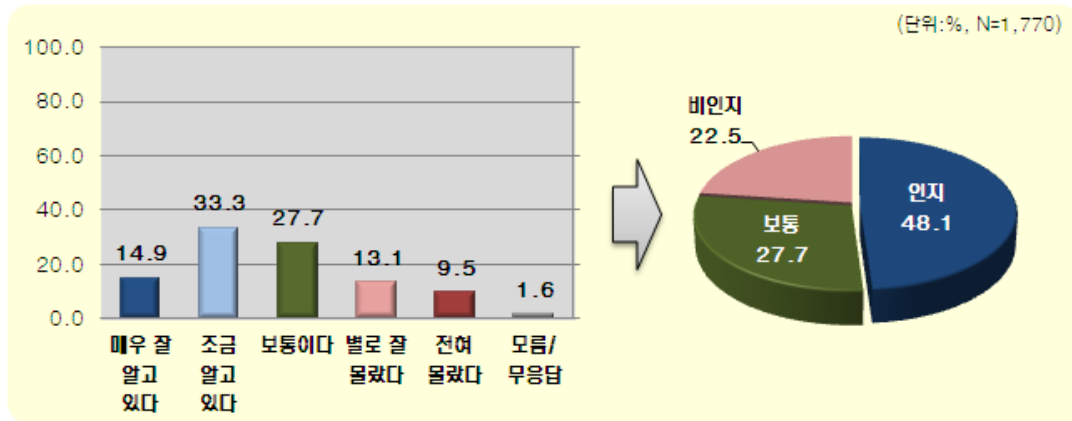
표 V-100 ‘청소년활동’의 뜻 인지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28.775*** (0.000)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9.956*** (0.000)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1.519 (0.194)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2.222 (0.109)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2) '수련'의 뜻 인지 정도

48.1%는 '수련'의 뜻을 인지하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다 14.9%, 조금 알고 있다 33.3%]



【그림 V-47】 '수련'의 뜻 인지 정도

표 V-101 '수련'의 뜻 인지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보통 이다	별로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모름/무응답	*인지*	*보통*	*비인지*
전체		1,770	14.9	33.3	27.7	13.1	9.5	1.6	48.1	27.7	22.5
성별	남성	934	15.5	32.3	27.0	11.8	11.3	2.0	47.9	27.0	23.1
	여성	836	14.1	34.3	28.6	14.5	7.4	1.1	48.4	28.6	21.9
학교급	초등학교	569	17.9	32.7	24.8	13.2	10.0	1.4	50.6	24.8	23.2
	중학교	587	12.4	31.7	28.3	13.5	11.8	2.4	44.1	28.3	25.2
	고등학교	614	14.3	35.3	30.0	12.5	6.8	1.0	49.7	30.0	19.4
거주지역	수도권	733	17.3	34.0	25.8	10.9	10.5	1.5	51.3	25.8	21.4
	경상권	467	15.0	33.0	27.0	13.7	8.8	2.6	48.0	27.0	22.5
	충청권	195	11.3	41.0	30.8	11.8	5.1	0.0	52.3	30.8	16.9
	전라권	240	15.0	27.1	30.4	15.8	10.8	0.8	42.1	30.4	26.7
	강원제주권	135	5.9	30.4	31.9	19.3	10.4	2.2	36.3	31.9	29.6
지역특징	대도시	843	18.0	32.7	26.8	11.4	9.5	1.5	50.8	26.8	20.9
	중소도시	457	12.7	33.5	28.0	16.4	7.4	2.0	46.2	28.0	23.9
	농산어촌	470	11.3	34.0	29.1	12.8	11.5	1.3	45.3	29.1	24.3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수련’의 뜻 인지 정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48.1%(매우 잘 알고 있다: 14.9% + 조금 알고 있다: 33.3%)로 ‘몰랐다’는 응답 22.5%(전혀 몰랐다: 9.5% + 별로 잘 몰랐다: 13.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7.7%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알고 있다’는 응답은 초등학교(50.6%) 및 고등학교(49.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51.3%) 및 충청권(52.3%)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50.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학교급 및 거주지역 그리고 지역특징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 학교급 및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 수준에서는 거주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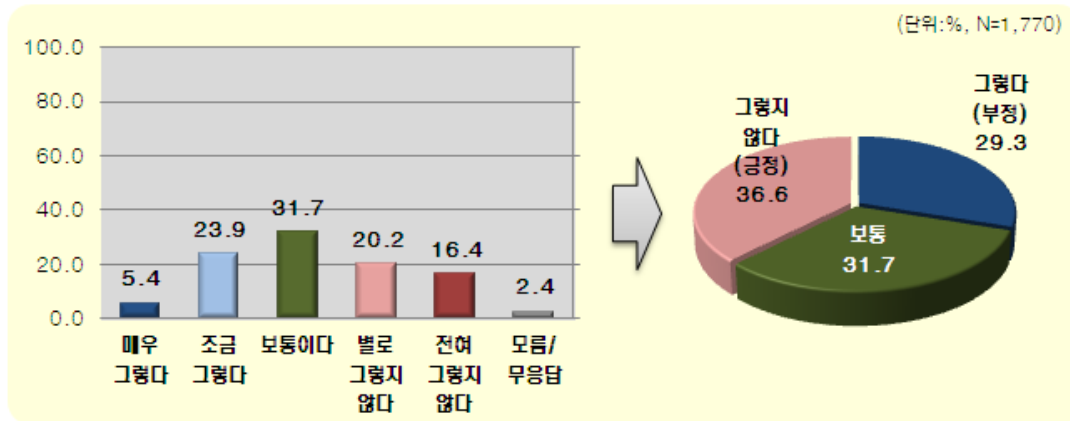
표 V-102 ‘수련’의 뜻 인지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0.542 (0.462)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4.119* (0.017)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3.844** (0.004)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지역특징	강원제주권	135	3.764* (0.023)
	대도시	843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3) '수련'이란 용어의 부정적 느낌 정도

36.6%는 '수련'이란 용어의 부정적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16.4%, 별로 그렇지 않다 20.2%]



【그림 V-48】 '수련'이란 용어의 부정적 느낌 정도

표 V-103 '수련'이란 용어의 부정적 느낌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그렇다 (부정)*	*보통*	*그렇지 않다 (긍정)*
전체		1,770	5.4	23.9	31.7	20.2	16.4	2.4	29.3	31.7	36.6
성별	남성	934	6.5	21.9	29.6	20.1	18.7	3.1	28.5	29.6	38.9
	여성	836	4.2	26.1	34.1	20.3	13.8	1.6	30.3	34.1	34.1
학교급	초등학교	569	5.4	20.0	29.3	21.3	20.7	3.2	25.5	29.3	42.0
	중학교	587	5.6	25.0	30.7	21.1	14.8	2.7	30.7	30.7	35.9
	고등학교	614	5.2	26.4	34.9	18.4	13.8	1.3	31.6	34.9	32.2
거주지역	수도권	733	5.5	24.8	29.3	19.0	19.2	2.2	30.3	29.3	38.2
	경상권	467	6.0	21.4	31.0	21.2	16.9	3.4	27.4	31.0	38.1
	충청권	195	4.6	27.7	33.8	22.6	10.8	0.5	32.3	33.8	33.3
	전라권	240	6.3	20.4	37.1	21.7	12.1	2.5	26.7	37.1	33.8
	강원제주권	135	3.0	28.1	34.1	17.8	14.8	2.2	31.1	34.1	32.6
지역특징	대도시	843	5.7	24.6	28.7	21.5	17.3	2.3	30.2	28.7	38.8
	중소도시	457	3.9	23.9	33.9	19.3	16.2	2.8	27.8	33.9	35.4
	농산어촌	470	6.4	22.8	34.9	18.9	14.9	2.1	29.1	34.9	33.8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수련’이란 용어에서 어려운 훈련이나 강요된 교육과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6.6%(전혀 그렇지 않다: 16.4% + 별로 그렇지 않다: 20.2%)로 ‘그렇다’는 응답 29.3%(매우 그렇다: 5.4% + 조금 그렇다: 23.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1.7%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남성(38.9%), 학년이 낮을수록(초등학교: 42.0%)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학교급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 학교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04 ‘수련’이란 용어의 부정적 느낌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3.128 (0.077)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6.375** (0.002)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1.045 (0.383)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0.659 (0.517)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기대

청소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42.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7.3%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시설이 청소년들에게 중점적으로 해주기 바라는 역할이나 기능으로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아리활동 지원이 26.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수업이 지역(동네)의 청소년시설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34.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5.9%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역(동네) 청소년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응답(31.9%)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18.0%)보다 높게 나타났다.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 청소년활동, 청소년상담, 청소년보호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형태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든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통합 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응답이 26.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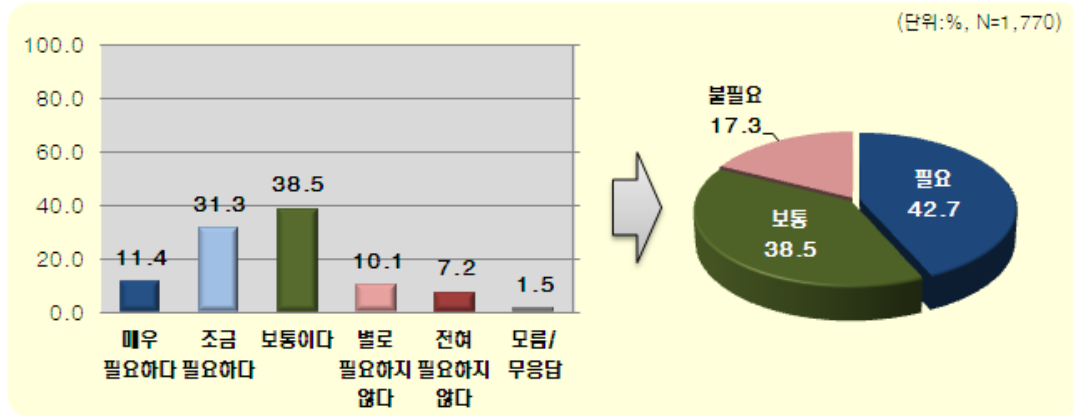
표 V-1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기대

구분	내용[단위 : %]	
청소년시설 필요 정도	필요	42.7
	보통	38.5
	불필요	17.3
청소년시설에 바라는 역할 및 기능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제공	35.9
	동아리활동 지원	26.5
	학교수업과 연계	12.4
	청소년 상담	9.2
	어려운 청소년 지원	14.1
학교수업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필요	34.4
	보통	47.3
	불필요	15.9
방과후 프로그램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필요	31.9
	보통	48.4
	불필요	18.0

구분	내용[단위 : %]	
선호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형태	청소년 시설은 통합 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6.3
	청소년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5.9
	학교와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9.0
	어떤 식으로 운영되든 상관이 없을 것 같다	35.6

(1) 청소년시설 필요 정도

42.7%는 학생이나 또래 친구들에게 청소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
[매우 필요하다 11.4%, 조금 필요하다 31.3%]



【그림 V-49】 청소년시설 필요 정도

표 V-106 청소년시설 필요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필요 하다	조금 필요 하다	보통 이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1,770	11.4	31.3	38.5	10.1	7.2	1.5	42.7	38.5	17.3
성별	남성	934	9.4	28.9	38.2	11.0	10.3	2.1	38.3	38.2	21.3
	여성	836	13.5	34.0	38.9	9.0	3.8	0.8	47.5	38.9	12.8
학교급	초등학교	569	12.0	31.6	34.8	12.7	7.6	1.4	43.6	34.8	20.2
	중학교	587	11.8	29.0	40.7	8.2	8.3	2.0	40.7	40.7	16.5
	고등학교	614	10.4	33.2	39.9	9.4	5.9	1.1	43.6	39.9	15.3
거주지역	수도권	733	11.3	29.7	39.0	10.0	8.5	1.5	41.1	39.0	18.4
	경상권	467	10.3	31.3	36.6	11.8	7.5	2.6	41.5	36.6	19.3
	충청권	195	10.8	39.0	37.9	8.7	3.6	0.0	49.7	37.9	12.3
	전라권	240	12.9	30.0	41.7	8.3	5.8	1.3	42.9	41.7	14.2
	강원제주권	135	13.3	31.1	37.8	9.6	7.4	0.7	44.4	37.8	17.0
지역특징	대도시	843	10.8	32.4	36.9	11.5	6.9	1.5	43.2	36.9	18.4
	중소도시	457	10.3	31.5	40.3	10.1	6.3	1.5	41.8	40.3	16.4
	농산어촌	470	13.4	29.1	39.8	7.4	8.7	1.5	42.6	39.8	16.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42.7%(매우 필요하다: 11.4% + 조금 필요하다: 31.3%)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7.3%(전혀 필요하지 않다: 7.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10.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8.5%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47.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49.7%)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성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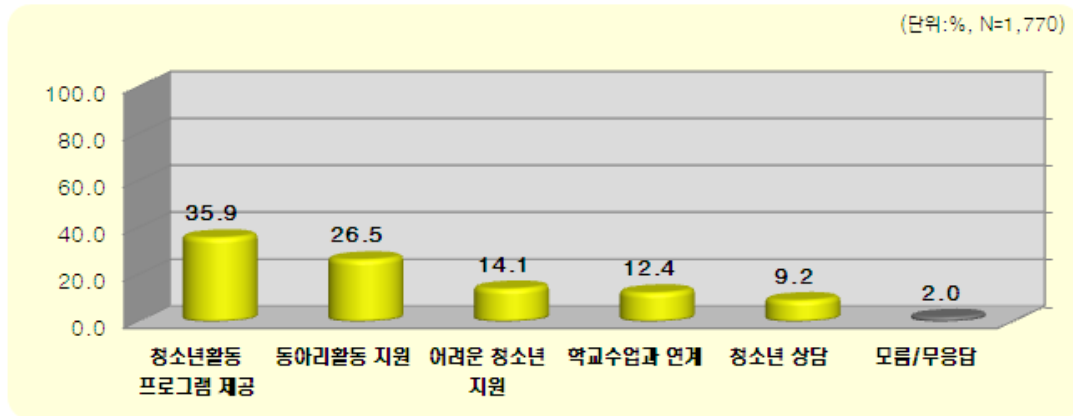
표 V-107 청소년시설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32.484*** (0.000)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0.475 (0.622)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1.689 (0.150)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0.078 (0.925)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2) 청소년시설에 바라는 역할 및 기능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제공이 35.9%로 가장 높음
동아리활동 지원 26.5% > 어려운 청소년 지원 14.1%



【그림 V-50】 청소년시설에 바라는 역할 및 기능

표 V-108 청소년시설에 바라는 역할 및 기능

단위[%]		사례수[명]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제공	동아리활동 지원	어려운 청소년 지원	학교수업과 연계	청소년 상담	모름/ 무응답
전체		1,770	35.9	26.5	14.1	12.4	9.2	2.0
성별	남성	934	32.9	25.4	16.8	14.9	7.3	2.8
	여성	836	39.2	27.8	11.0	9.7	11.2	1.1
학교급	초등학교	569	35.9	30.8	12.1	11.2	8.1	1.9
	중학교	587	36.6	25.4	14.5	12.1	8.9	2.6
	고등학교	614	35.2	23.6	15.5	13.8	10.4	1.5
거주지역	수도권	733	31.8	28.1	14.6	14.1	9.7	1.8
	경상권	467	34.9	25.1	15.2	10.5	11.1	3.2
	충청권	195	41.0	24.6	14.9	11.3	7.7	0.5
	전라권	240	45.4	26.3	9.6	11.7	5.4	1.7
	강원제주권	135	37.0	25.9	14.1	13.3	8.1	1.5
지역특징	대도시	843	37.7	25.5	14.2	11.5	9.0	2.0
	중소도시	457	31.9	27.1	12.5	15.1	11.4	2.0
	농산어촌	470	36.4	27.7	15.3	11.5	7.2	1.9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시설이 청소년들에게 중점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역할이나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동아리활동 지원’ 26.5%, ‘어려운 청소년 지원’ 14.1%, ‘학교수업과 연계’ 12.4%, ‘청소년 상담’ 9.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은 여성(39.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41.0%) 및 전라권(45.4%)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에 따른 청소년시설에 바라는 역할 및 기능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성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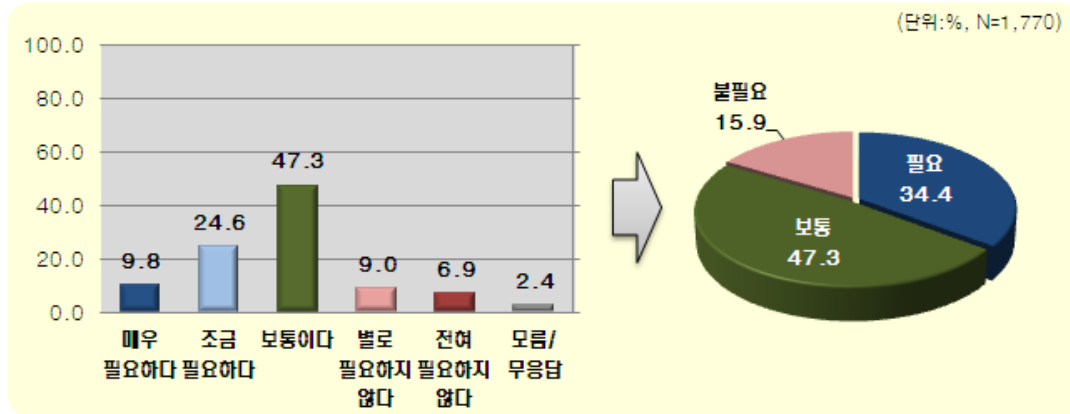
표 V-109 청소년시설에 바라는 역할 및 기능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33.471*** (0.000)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12.191 (0.143)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26.283 (0.050)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12.701 (0.123)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3) 학교수업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34.4%는 학교수업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매우 필요하다 9.8%, 조금 필요하다 24.6%]



【그림 V-51】 학교수업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표 V-110 학교수업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명]	매우 필요 하다	조금 필요 하다	보통 이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1,770	9.8	24.6	47.3	9.0	6.9	2.4	34.4	47.3	15.9
성별	남성	934	8.6	21.9	45.6	10.9	9.5	3.4	30.5	45.6	20.4
	여성	836	11.1	27.5	49.2	6.8	4.1	1.3	38.6	49.2	10.9
학교급	초등학교	569	10.4	27.9	41.8	9.8	6.9	3.2	38.3	41.8	16.7
	중학교	587	9.7	21.6	50.9	8.2	6.8	2.7	31.3	50.9	15.0
	고등학교	614	9.3	24.3	48.9	9.0	7.2	1.5	33.6	48.9	16.1
거주지역	수도권	733	10.0	23.2	49.5	8.3	6.8	2.2	33.2	49.5	15.1
	경상권	467	8.4	24.4	45.4	9.6	9.0	3.2	32.8	45.4	18.6
	충청권	195	9.2	28.7	47.2	9.2	3.6	2.1	37.9	47.2	12.8
	전라권	240	12.5	25.4	44.2	11.3	4.6	2.1	37.9	44.2	15.8
	강원제주권	135	9.6	25.2	47.4	5.9	9.6	2.2	34.8	47.4	15.6
지역특징	대도시	843	9.1	25.7	44.4	11.4	6.3	3.1	34.9	44.4	17.7
	중소도시	457	9.6	25.6	50.3	6.3	5.9	2.2	35.2	50.3	12.3
	농산어촌	470	11.1	21.5	49.6	7.2	9.1	1.5	32.6	49.6	16.4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학교에서의 수업이 지역(동네)의 청소년시설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34.4%(매우 필요하다: 9.8% + 조금 필요하다: 24.6%)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5.9%(전혀 필요하지 않다: 6.9% + 별로 필요하지 않다: 9.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47.3%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38.6%), 초등학교(38.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37.9%) 및 전라권(37.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성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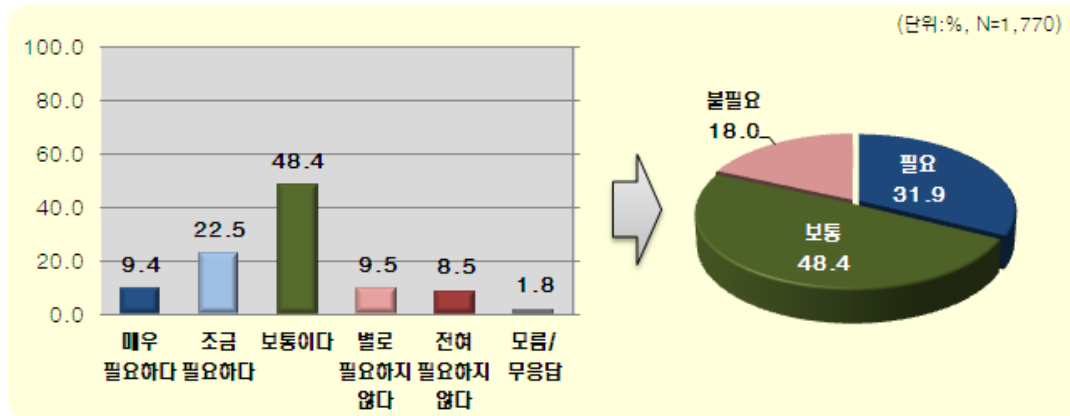
표 V-III 학교수업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29.787*** (0.000)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0.719 (0.487)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1.645 (0.160)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1.017 (0.362)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4) 방과후 프로그램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31.9%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매우 필요하다 9.4%, 조금 필요하다 22.5%]



【그림 V-52】 방과후 프로그램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표 V-112 방과후 프로그램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명]	매우 필요 하다	조금 필요 하다	보통 이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1,770	9.4	22.5	48.4	9.5	8.5	1.8	31.9	48.4	18.0
성별	남성	934	8.4	18.2	48.1	10.6	12.2	2.6	26.6	48.1	22.8
	여성	836	10.5	27.3	48.8	8.3	4.3	0.8	37.8	48.8	12.6
학교급	초등학교	569	12.1	24.1	45.7	8.6	7.9	1.6	36.2	45.7	16.5
	중학교	587	9.5	20.8	47.4	9.9	9.9	2.6	30.3	47.4	19.8
	고등학교	614	6.7	22.6	52.0	9.9	7.7	1.1	29.3	52.0	17.6
거주지역	수도권	733	9.8	22.1	47.9	9.7	8.9	1.6	31.9	47.9	18.6
	경상권	467	7.1	23.8	48.2	9.2	9.0	2.8	30.8	48.2	18.2
	충청권	195	8.2	25.1	51.3	9.7	4.6	1.0	33.3	51.3	14.4
	전라권	240	13.3	20.0	48.3	8.3	8.8	1.3	33.3	48.3	17.1
	강원제주권	135	9.6	20.7	48.1	11.1	9.6	0.7	30.4	48.1	20.7
지역특징	대도시	843	8.9	22.9	47.1	10.8	8.2	2.1	31.8	47.1	19.0
	중소도시	457	9.8	23.2	51.0	8.3	6.1	1.5	33.0	51.0	14.4
	농산어촌	470	9.8	21.1	48.3	8.3	11.3	1.3	30.9	48.3	19.6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역(동네)의 청소년시설과 연계되어 운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31.9%(매우 필요하다: 9.4% + 조금 필요하다: 22.5%)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8.0%(전혀 필요하지 않다: 8.5% + 별로 필요하지 않다: 9.5%)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48.4%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37.8%), 학교급이 낮을수록(초등학교: 36.2%)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및 학교급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3 방과후프로그램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43.724*** (0.000)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3.313* (0.037)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0.768 (0.546)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강원제주권	135	
지역특징	대도시	843	1.924 (0.146)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5) 선호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형태

35.6%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든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
26.3%는 통합 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



【그림 V-53】 선호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형태

표 V-114 선호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형태

단위[%]		사례수[명]	청소년 시설은 통합 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청소년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학교와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든 상관이 없을 것 같다	모름/ 무응답
전체		1,770	26.3	15.9	19.0	35.6	3.2
성별	남성	934	22.5	14.0	19.6	39.4	4.5
	여성	836	30.6	18.1	18.3	31.3	1.7
학교급	초등학교	569	27.4	13.4	19.3	36.7	3.2
	중학교	587	24.2	14.0	18.6	38.3	4.9
	고등학교	614	27.4	20.2	19.1	31.9	1.5
거주지역	수도권	733	25.5	15.7	20.9	34.9	3.0
	경상권	467	26.6	17.1	17.8	34.9	3.6
	충청권	195	30.3	17.9	21.0	28.2	2.6
	전라권	240	26.7	14.6	15.0	40.0	3.8
	강원제주권	135	23.7	12.6	17.0	44.4	2.2
지역특징	대도시	843	26.0	16.4	20.0	34.3	3.3
	중소도시	457	24.5	16.0	18.2	38.7	2.6
	농산어촌	470	28.7	15.1	17.9	34.9	3.4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 청소년활동, 청소년상담, 청소년보호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형태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든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통합 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응답이 26.3%, ‘학교와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9.0%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5.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든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은 남성(39.4%), 중학교(38.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전라권(40.0%) 및 제주/강원권(44.4%)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중소도시(38.7%)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및 학교급에 따른 선호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형태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학교급, 0.1%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5 선호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형태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770	
성별	남성	934	23.653*** (0.000)
	여성	836	
학교급	초등학교	569	15.705* (0.015)
	중학교	587	
	고등학교	614	
거주지역	수도권	733	15.643 (0.208)
	경상권	467	
	충청권	195	
	전라권	240	
지역특징	강원제주권	135	4.624 (0.593)
	대도시	843	
	중소도시	457	
	농산어촌	470	

*p<.05, **p<.01, ***p<.001

제 VI 장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청소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조사

1. 조사개요
2.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청소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

제 VI 장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청소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조사

1. 조사개요

1) 모집단의 정의

이 연구의 조사 모집단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 초·중·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 설계

- 조사표본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124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8.8\%$ Point
- 조사방법 : 설문지 기반의 온라인 조사
- 표본추출 :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 초·중·고 대상 편의추출
- 조사기간 : 2015년 6월 10일 ~ 6월 30일
- 조사내용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활용 현황, 청소년수련 시설 활용에 대한 기대,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용어에 대한 인식,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기대 등

3) 응답자 특성

표 VI-1 응답자 특성

단위[%]		사례수[명]	%
전체		124	100.0
성별	남성	31	25.0
	여성	93	75.0
학교급	중학교	35	28.2
	고등학교	89	71.8
거주지역	수도권	73	58.9
	경상권	26	21.0
	충청권	6	4.8
	전라권	19	15.3
지역특징	대도시	46	37.1
	중소도시	59	47.6
	농산어촌	19	15.3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3	2.4
	청소년수련관	63	50.8
	청소년문화의집	58	46.8

2.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청소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

1)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

응답자의 88.7%는 청소년수련원을 인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96.0%, 청소년문화의집은 87.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를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원은 83.9%, 청소년수련관은 91.1%, 청소년문화의집은 84.7%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를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원은 79.8%, 청소년수련관은 91.1%, 청소년문화의집은 85.5%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청소년시설 간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35.5%는 인지하고 있으며, 35.5%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89.5%가 있다고 응답했다.

표 VI-2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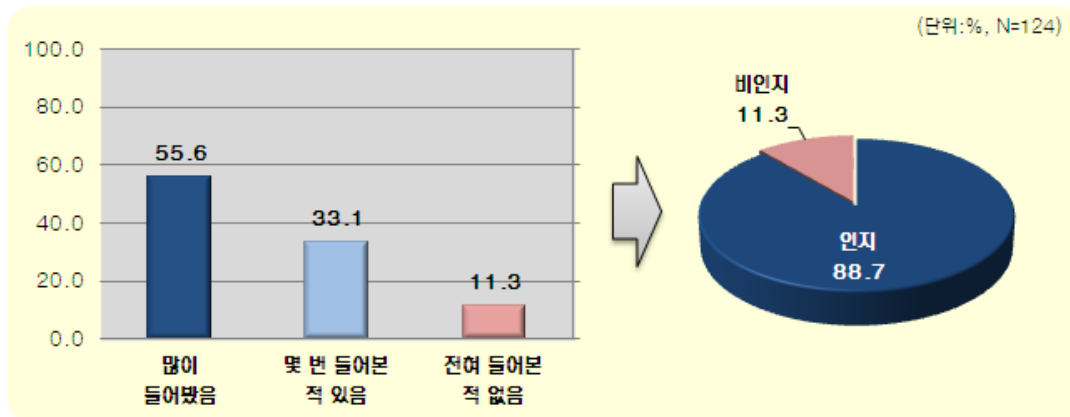
구분		내용[단위 : %]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청소년수련원	인지(들어봄)	88.7
		비인지(들어본 적 없음)	11.3
	청소년수련관	인지(들어봄)	96.0
		비인지(들어본 적 없음)	4.0
	청소년문화의집	인지(들어봄)	87.9
		비인지(들어본 적 없음)	12.1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청소년수련원	인지(알고 있음)	83.9
		비인지(전혀 모름)	16.1
	청소년수련관	인지(알고 있음)	91.1
		비인지(전혀 모름)	8.9
	청소년문화의집	인지(알고 있음)	84.7
		비인지(전혀 모름)	15.3

구분		내용[단위 : %]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청소년수련원	인지(알고 있음)	79.8
		비인지(전혀 모름)	20.2
	청소년수련관	인지(알고 있음)	91.1
		비인지(전혀 모름)	8.9
	청소년문화의집	인지(알고 있음)	85.5
		비인지(전혀 모름)	14.5
각 청소년시설 간의 차이 인지 정도		인지	35.5
		보통	29.0
		비인지	35.5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유무 여부		있다	89.5
		없다	4.8
		잘 모름	5.6

(1)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① 청소년수련원

88.7%는 '청소년수련원'을 들어본 적 있음
[많이 들어봤음 55.6%, 몇 번 들어본 적 있음 33.1%]



【그림 VI-1】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표 VI-3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많이 들어봤음	몇 번 들어본 적 있음	전혀 들어본 적 없음	*인지*	*비인지*
전체		124	55.6	33.1	11.3	88.7	11.3
성별	남성	31	54.8	29.0	16.1	83.9	16.1
	여성	93	55.9	34.4	9.7	90.3	9.7
학교급	중학교	35	45.7	34.3	20.0	80.0	20.0
	고등학교	89	59.6	32.6	7.9	92.1	7.9
거주지역	수도권	73	50.7	37.0	12.3	87.7	12.3
	경상권	26	69.2	19.2	11.5	88.5	11.5
	충청권	6	83.3	16.7	0.0	100.0	0.0
	전라권	19	47.4	42.1	10.5	89.5	10.5
지역특징	대도시	46	63.0	28.3	8.7	91.3	8.7
	중소도시	59	49.2	39.0	11.9	88.1	11.9
	농산어촌	19	57.9	26.3	15.8	84.2	15.8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3	66.7	33.3	0.0	100.0	0.0
	청소년수련관	63	54.0	34.9	11.1	88.9	11.1
	청소년문화의집	58	56.9	31.0	12.1	87.9	12.1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인지(들어봄)’ 응답이 88.7%(많이 들어봤음: 55.6% + 몇 번 들어본 적 있음: 33.1%)로 ‘비인지(들어본 적 없음)’ 응답 11.3%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들어봄)’ 응답은 여성(90.3%)이 남성(83.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92.1%)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특징 별로는 대도시(91.3%)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4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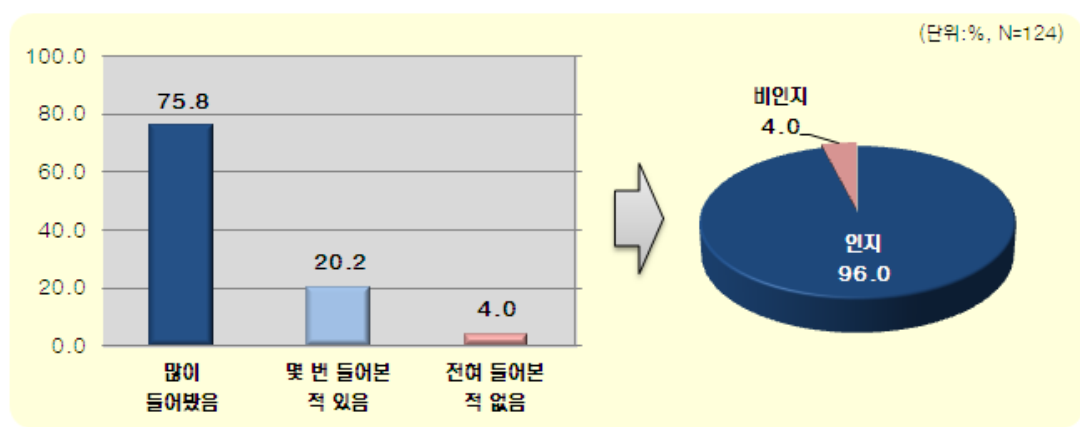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1.065 (0.587)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4.163 (0.125)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3.406 (0.492)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2.757 (0.599)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0.209 (0.901)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② 청소년수련관

96.0%는 '청소년수련관'을 들어본 적 있음
 [많이 들어봤음 75.8%, 몇 번 들어본 적 있음 20.2%]



【그림 VI-2】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표 VI-5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많이 들어봤음	몇 번 들어본 적 있음	전혀 들어본 적 없음	*인지*	*비인지*
전체		124	75.8	20.2	4.0	96.0	4.0
성별	남성	31	80.6	19.4	0.0	100.0	0.0
	여성	93	74.2	20.4	5.4	94.6	5.4
학교급	중학교	35	71.4	25.7	2.9	97.1	2.9
	고등학교	89	77.5	18.0	4.5	95.5	4.5
거주지역	수도권	73	71.2	26.0	2.7	97.3	2.7
	경상권	26	65.4	23.1	11.5	88.5	11.5
	충청권	6	100.0	0.0	0.0	100.0	0.0
지역특징	전라권	19	100.0	0.0	0.0	100.0	0.0
	대도시	46	78.3	21.7	0.0	100.0	0.0
	중소도시	59	66.1	25.4	8.5	91.5	8.5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농산어촌	19	100.0	0.0	0.0	100.0	0.0
	청소년수련원	3	33.3	33.3	33.3	66.7	33.3
	청소년수련관	63	95.2	4.8	0.0	100.0	0.0
시설유형	청소년문화의집	58	56.9	36.2	6.9	93.1	6.9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인지(들어봄)’ 응답이 96.0%(많이 들어봤음: 75.8% + 몇 번 들어본 적 있음: 20.2%)로 ‘비인지(들어본 적 없음)’ 응답 4.0%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들어봄)’ 응답은 남성(100.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100.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거주지역 및 지역특징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인지 정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 수준에서는 거주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0.1% 수준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6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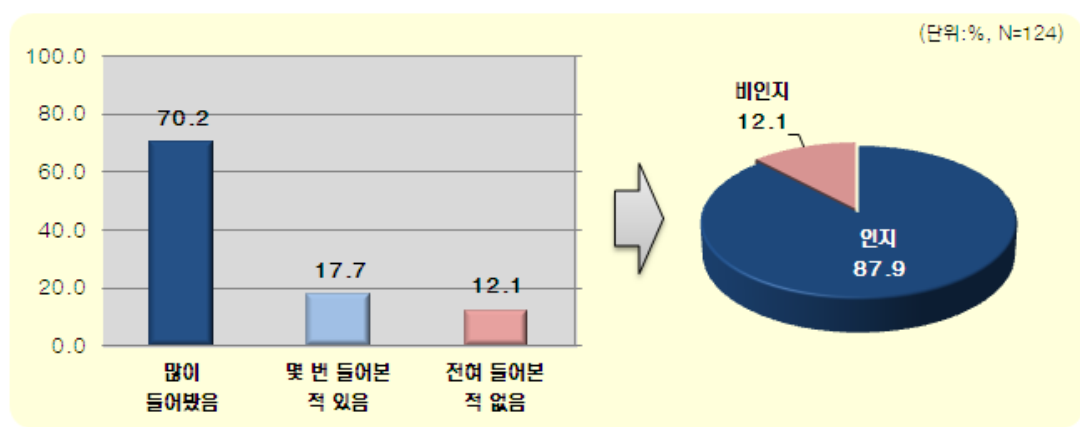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1.808 (0.405)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1.036 (0.596)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13.844** (0.008)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12.443* (0.014)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25.175*** (0.000)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③ 청소년문화의집

87.9%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들어본 적 있음
[많이 들어봤음 70.2%, 몇 번 들어본 적 있음 17.7%]



【그림 VI-3】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표 VI-7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많이 들어봤음	몇 번 들어본 적 있음	전혀 들어본 적 없음	*인지*	*비인지*
전체		124	70.2	17.7	12.1	87.9	12.1
성별	남성	31	64.5	32.3	3.2	96.8	3.2
	여성	93	72.0	12.9	15.1	84.9	15.1
학교급	중학교	35	82.9	11.4	5.7	94.3	5.7
	고등학교	89	65.2	20.2	14.6	85.4	14.6
거주지역	수도권	73	79.5	12.3	8.2	91.8	8.2
	경상권	26	73.1	23.1	3.8	96.2	3.8
	충청권	6	83.3	0.0	16.7	83.3	16.7
	전라권	19	26.3	36.8	36.8	63.2	36.8
지역특징	대도시	46	84.8	10.9	4.3	95.7	4.3
	중소도시	59	69.5	20.3	10.2	89.8	10.2
	농산어촌	19	36.8	26.3	36.8	63.2	36.8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3	0.0	66.7	33.3	66.7	33.3
	청소년수련관	63	49.2	28.6	22.2	77.8	22.2
시설유형	청소년문화의집	58	96.6	3.4	0.0	100.0	0.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인지(들어봄)’ 응답이 87.9%(많이 들어봤음: 70.2% + 몇 번 들어본 적 있음: 17.7%)로 ‘비인지(들어본 적 없음)’ 응답 12.1%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들어봄)’ 응답은 남성(96.8%)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94.3%) 그리고 경상권(96.2%)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95.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100.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거주지역 및 지역특징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인지 정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거주지역 및 지역특징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8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7.786* (0.020)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3.858 (0.145)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17.834*** (0.001)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18.730*** (0.001)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33.835*** (0.000)
	청소년문화의집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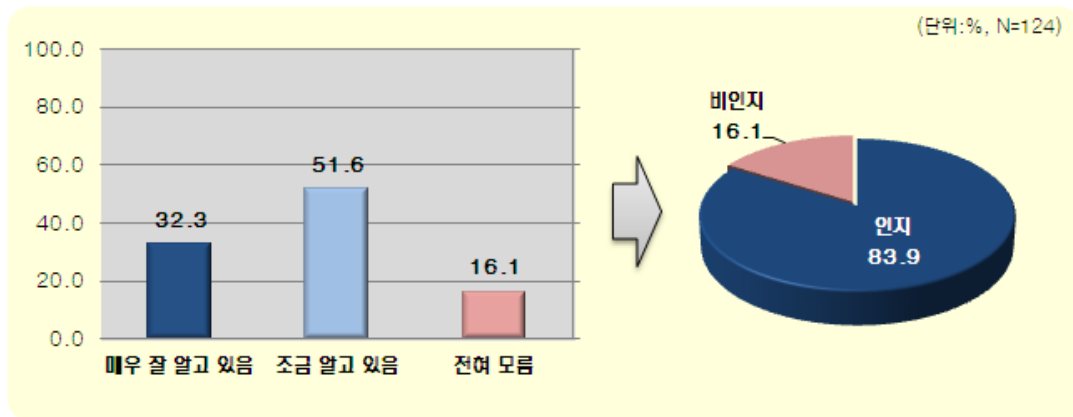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2)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① 청소년수련원

83.9%는 '청소년수련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32.3%, 조금 알고 있음 51.6%]



【그림 VI-4】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표 VI-9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전혀 모름	*인지*	*비인지*
전체		124	32.3	51.6	16.1	83.9	16.1
성별	남성	31	25.8	45.2	29.0	71.0	29.0
	여성	93	34.4	53.8	11.8	88.2	11.8
학교급	중학교	35	20.0	48.6	31.4	68.6	31.4
	고등학교	89	37.1	52.8	10.1	89.9	10.1
거주지역	수도권	73	31.5	50.7	17.8	82.2	17.8
	경상권	26	30.8	57.7	11.5	88.5	11.5
	충청권	6	50.0	33.3	16.7	83.3	16.7
	전라권	19	31.6	52.6	15.8	84.2	15.8
지역특징	대도시	46	39.1	47.8	13.0	87.0	13.0
	중소도시	59	25.4	55.9	18.6	81.4	18.6
	농산어촌	19	36.8	47.4	15.8	84.2	15.8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3	33.3	66.7	0.0	100.0	0.0
	청소년수련관	63	34.9	49.2	15.9	84.1	15.9
	청소년문화의집	58	29.3	53.4	17.2	82.8	17.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는지 살펴보면, ‘인지’ 응답이 83.9%(매우 잘 알고 있음: 32.3% + 조금 알고 있음: 51.6%)로 ‘비인지’ 응답 16.1%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 응답은 여성(88.2%), 고등학교(89.9%)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로는 경상권(88.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87.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업무(역할) 인지 정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 학교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0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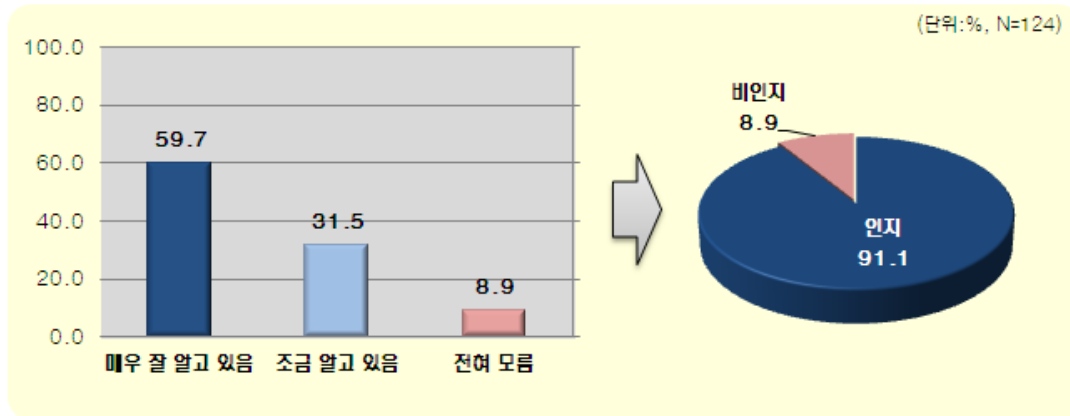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5.133 (0.077)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9.436** (0.009)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0.868 (0.929)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2.563 (0.633)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0.435 (0.804)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② 청소년수련관

91.1%는 '청소년수련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59.7%, 조금 알고 있음 31.5%]



【그림 VI-5】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표 VI-11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전혀 모름	*인지*	*비인지*
전체		124	59.7	31.5	8.9	91.1	8.9
성별	남성	31	71.0	16.1	12.9	87.1	12.9
	여성	93	55.9	36.6	7.5	92.5	7.5
학교급	중학교	35	51.4	34.3	14.3	85.7	14.3
	고등학교	89	62.9	30.3	6.7	93.3	6.7
거주지역	수도권	73	53.4	37.0	9.6	90.4	9.6
	경상권	26	42.3	42.3	15.4	84.6	15.4
	충청권	6	83.3	16.7	0.0	100.0	0.0
	전라권	19	100.0	0.0	0.0	100.0	0.0
지역특징	대도시	46	58.7	32.6	8.7	91.3	8.7
	중소도시	59	49.2	39.0	11.9	88.1	11.9
	농산어촌	19	94.7	5.3	0.0	100.0	0.0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3	33.3	33.3	33.3	66.7	33.3
	청소년수련관	63	88.9	11.1	0.0	100.0	0.0
	청소년문화의집	58	29.3	53.4	17.2	82.8	17.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는지 살펴보면, ‘인지’ 응답이 91.1%(매우 잘 알고 있음: 59.7% + 조금 알고 있음: 31.5%)로 ‘비인지’ 응답 8.9%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 응답은 여성(92.5%) 및 고등학교(93.3%)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100.0%) 및 전라권(100.0%), 농산어촌(100.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100.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거주지역 및 지역특징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업무(역할) 인지 정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거주지역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2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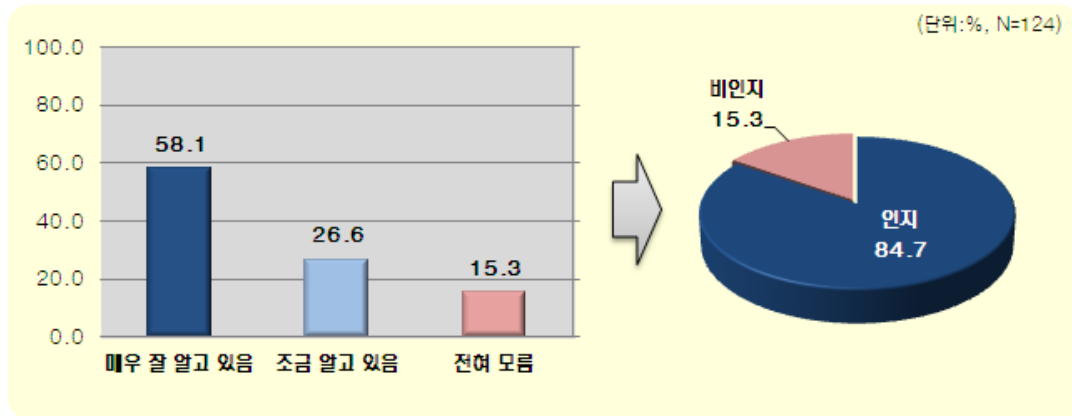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4.726 (0.094)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2.292 (0.318)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18.499*** (0.001)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12.526* (0.014)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45.865*** (0.000)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③ 청소년문화의집

84.7%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58.1%, 조금 알고 있음 26.6%]



【그림 VI-6】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표 VI-13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전혀 모름	*인지*	*비인지*
전체		124	58.1	26.6	15.3	84.7	15.3
성별	남성	31	54.8	32.3	12.9	87.1	12.9
	여성	93	59.1	24.7	16.1	83.9	16.1
학교급	중학교	35	68.6	22.9	8.6	91.4	8.6
	고등학교	89	53.9	28.1	18.0	82.0	18.0
거주지역	수도권	73	67.1	21.9	11.0	89.0	11.0
	경상권	26	65.4	30.8	3.8	96.2	3.8
	충청권	6	50.0	33.3	16.7	83.3	16.7
	전라권	19	15.8	36.8	47.4	52.6	47.4
지역특징	대도시	46	73.9	19.6	6.5	93.5	6.5
	중소도시	59	54.2	32.2	13.6	86.4	13.6
	농산어촌	19	31.6	26.3	42.1	57.9	42.1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3	0.0	66.7	33.3	66.7	33.3
	청소년수련관	63	34.9	36.5	28.6	71.4	28.6
시설유형	청소년문화의집	58	86.2	13.8	0.0	100.0	0.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문화의집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는지 살펴보면, ‘인지’ 응답이 84.7%(매우 잘 알고 있음: 58.1% + 조금 알고 있음: 26.6%)로 ‘비인지’ 응답 15.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 응답은 남성(87.1%) 및 중학교(91.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경상권(96.2%)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93.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100.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거주지역 및 지역특징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업무(역할) 인지 정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는 지역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거주지역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4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0.727 (0.695)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2.636 (0.268)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20.947*** (0.000)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17.326** (0.002)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36.002*** (0.000)
	청소년문화의집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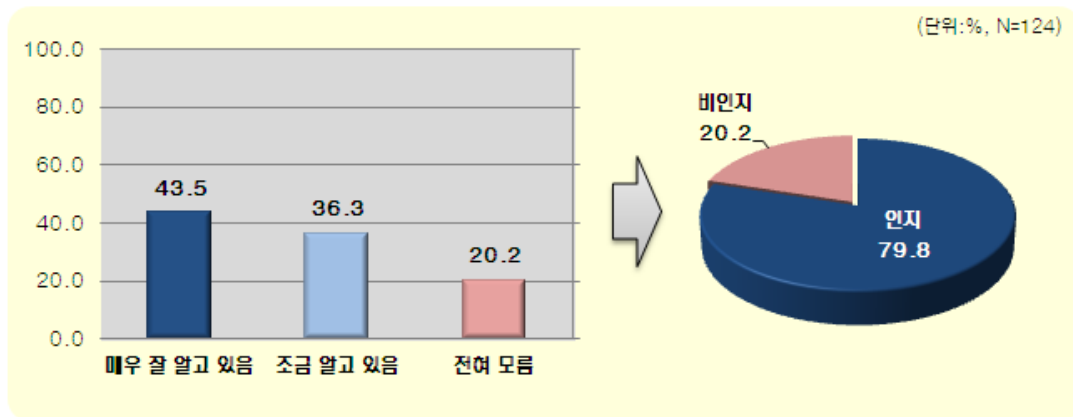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3)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① 청소년수련원

79.8%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43.5%, 조금 알고 있음 36.3%]



【그림 VI-7】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표 VI-15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전혀 모름	*인지*	*비인지*
전체		124	43.5	36.3	20.2	79.8	20.2
성별	남성	31	38.7	32.3	29.0	71.0	29.0
	여성	93	45.2	37.6	17.2	82.8	17.2
학교급	중학교	35	37.1	34.3	28.6	71.4	28.6
	고등학교	89	46.1	37.1	16.9	83.1	16.9
거주지역	수도권	73	45.2	32.9	21.9	78.1	21.9
	경상권	26	34.6	46.2	19.2	80.8	19.2
	충청권	6	66.7	33.3	0.0	100.0	0.0
	전라권	19	42.1	36.8	21.1	78.9	21.1
지역특징	대도시	46	54.3	28.3	17.4	82.6	17.4
	중소도시	59	37.3	42.4	20.3	79.7	20.3
	농산어촌	19	36.8	36.8	26.3	73.7	26.3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3	66.7	33.3	0.0	100.0	0.0
	청소년수련관	63	47.6	34.9	17.5	82.5	17.5
	청소년문화의집	58	37.9	37.9	24.1	75.9	24.1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살펴보면, ‘인지’ 응답이 79.8%(매우 잘 알고 있음: 43.5% + 조금 알고 있음: 36.3%)로 ‘비인지’ 응답 20.2%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 응답은 여성(82.8%), 고등학교(83.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82.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16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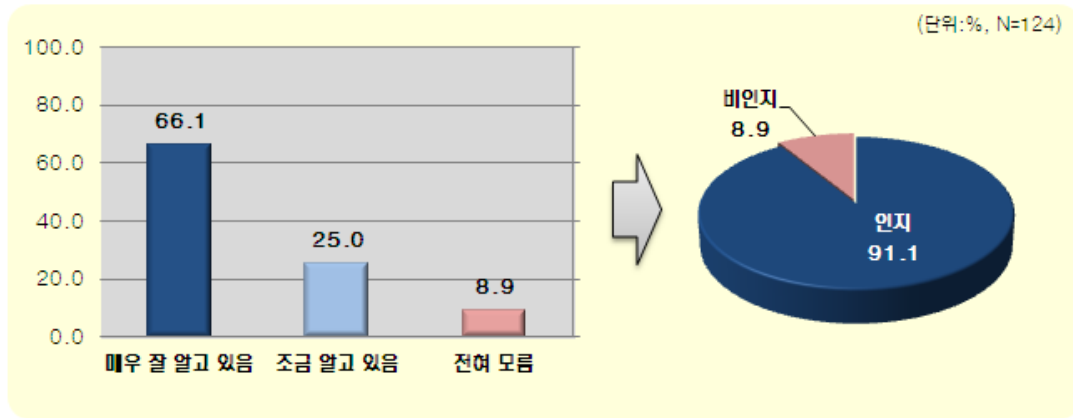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2.021 (0.364)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2.224 (0.329)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1.906 (0.753)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3.912 (0.418)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1.387 (0.500)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② 청소년수련관

91.1%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66.1%, 조금 알고 있음 25.0%]



【그림 VI-8】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표 VI-17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전혀 모름	*인지*	*비인지*
전체		124	66.1	25.0	8.9	91.1	8.9
성별	남성	31	74.2	22.6	3.2	96.8	3.2
	여성	93	63.4	25.8	10.8	89.2	10.8
학교급	중학교	35	60.0	25.7	14.3	85.7	14.3
	고등학교	89	68.5	24.7	6.7	93.3	6.7
거주지역	수도권	73	61.6	28.8	9.6	90.4	9.6
	경상권	26	50.0	34.6	15.4	84.6	15.4
	충청권	6	100.0	0.0	0.0	100.0	0.0
	전라권	19	94.7	5.3	0.0	100.0	0.0
지역특징	대도시	46	69.6	23.9	6.5	93.5	6.5
	중소도시	59	55.9	30.5	13.6	86.4	13.6
	농산어촌	19	89.5	10.5	0.0	100.0	0.0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3	33.3	33.3	33.3	66.7	33.3
	청소년수련관	63	87.3	12.7	0.0	100.0	0.0
시설유형	청소년문화의집	58	44.8	37.9	17.2	82.8	17.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살펴보면, ‘인지’ 응답이 91.1%(매우 잘 알고 있음: 66.1% + 조금 알고 있음: 25.0%)로 ‘비인지’ 응답 8.9%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 응답은 남성(96.8%) 및 고등학교(93.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100.0%) 및 전라권(100.0%), 지역특징별로는 농산어촌(100.0%)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100.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거주지역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는 거주지역, 0.1% 수준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8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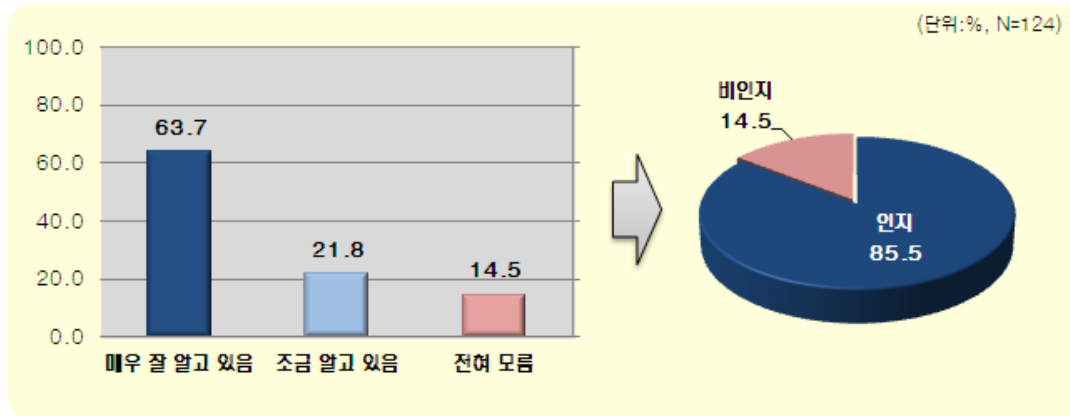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1.988
	여성	93	(0.370)
학교급	중학교	35	1.899
	고등학교	89	(0.387)
거주지역	수도권	73	13.908** (0.008)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8.339 (0.080)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26.755*** (0.000)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③ 청소년문화의집

85.5%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63.7%, 조금 알고 있음 21.8%]



【그림 VI-9】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표 VI-19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전혀 모름	*인지*	*비인지*
전체		124	63.7	21.8	14.5	85.5	14.5
성별	남성	31	58.1	25.8	16.1	83.9	16.1
	여성	93	65.6	20.4	14.0	86.0	14.0
학교급	중학교	35	74.3	20.0	5.7	94.3	5.7
	고등학교	89	59.6	22.5	18.0	82.0	18.0
거주지역	수도권	73	74.0	15.1	11.0	89.0	11.0
	경상권	26	69.2	26.9	3.8	96.2	3.8
	충청권	6	33.3	66.7	0.0	100.0	0.0
	전라권	19	26.3	26.3	47.4	52.6	47.4
지역특징	대도시	46	82.6	13.0	4.3	95.7	4.3
	중소도시	59	57.6	28.8	13.6	86.4	13.6
	농산어촌	19	36.8	21.1	42.1	57.9	42.1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3	0.0	66.7	33.3	66.7	33.3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42.9	30.2	27.0	73.0	27.0
	청소년문화의집	58	89.7	10.3	0.0	100.0	0.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살펴보면, ‘인지’ 응답이 85.5%(매우 잘 알고 있음: 63.7% + 조금 알고 있음: 21.8%)로 ‘비인지’ 응답 14.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 응답은 중학교(94.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경상권(96.2%) 및 충청권(100.0%)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95.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100.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거주지역 및 지역특징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는 거주지역 및 지역특징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0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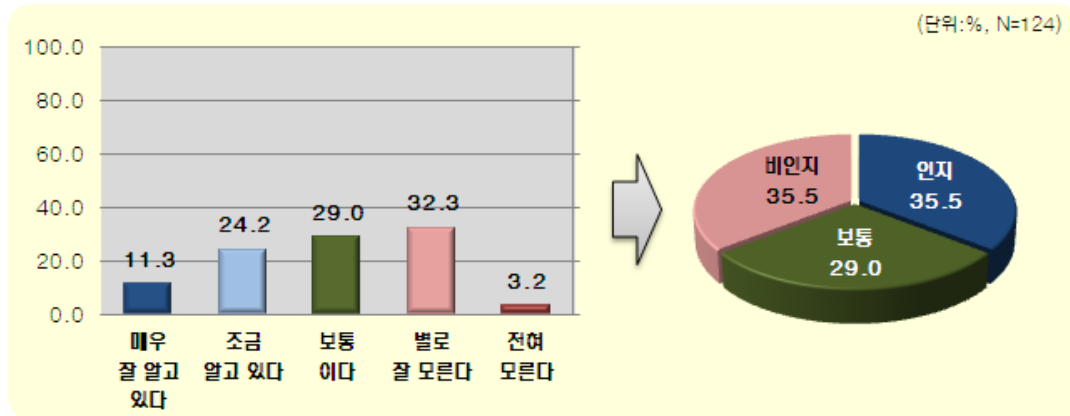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0.589 (0.745)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3.529 (0.171)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21.107*** (0.000)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21.308*** (0.000)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31.519*** (0.000)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4) 각 청소년시설 간의 차이 인지 정도

각 청소년시설 간 차이를 알고 있다 35.5% = 모른다 35.5%
보통이다 29.0%



【그림 VI-10】 각 청소년시설 간의 차이 인지 정도

표 VI-21 각 청소년시설 간의 차이 인지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인지*	*보통*	*비인지*
전체		124	11.3	24.2	29.0	32.3	3.2	35.5	29.0	35.5
성별	남성	31	6.5	29.0	35.5	25.8	3.2	35.5	35.5	29.0
	여성	93	12.9	22.6	26.9	34.4	3.2	35.5	26.9	37.6
학교급	중학교	35	8.6	31.4	25.7	28.6	5.7	40.0	25.7	34.3
	고등학교	89	12.4	21.3	30.3	33.7	2.2	33.7	30.3	36.0
거주지역	수도권	73	13.7	21.9	24.7	38.4	1.4	35.6	24.7	39.7
	경상권	26	3.8	34.6	34.6	23.1	3.8	38.5	34.6	26.9
	충청권	6	16.7	50.0	16.7	16.7	0.0	66.7	16.7	16.7
	전라권	19	10.5	10.5	42.1	26.3	10.5	21.1	42.1	36.8
지역특징	대도시	46	17.4	32.6	15.2	34.8	0.0	50.0	15.2	34.8
	중소도시	59	8.5	18.6	35.6	32.2	5.1	27.1	35.6	37.3
	농산어촌	19	5.3	21.1	42.1	26.3	5.3	26.3	42.1	31.6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3	0.0	33.3	33.3	33.3	0.0	33.3	33.3	33.3
	청소년수련관	63	14.3	19.0	28.6	34.9	3.2	33.3	28.6	38.1
시설유형	청소년문화의집	58	8.6	29.3	29.3	29.3	3.4	37.9	29.3	32.8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란 청소년시설 간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 살펴보면, ‘인지(알고 있다)’ 응답이 35.5%(매우 잘 알고 있다: 11.3% + 조금 알고 있다: 24.2%), ‘비인지(모른다)’ 35.5%(전혀 모른다: 3.2% + 별로 잘 모른다: 32.3%)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9.0%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알고 있다)’ 응답은 중학교(40.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경상권(38.5%) 및 충청권(66.7%)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 별로는 대도시(50.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22 각 청소년시설 간의 차이 인지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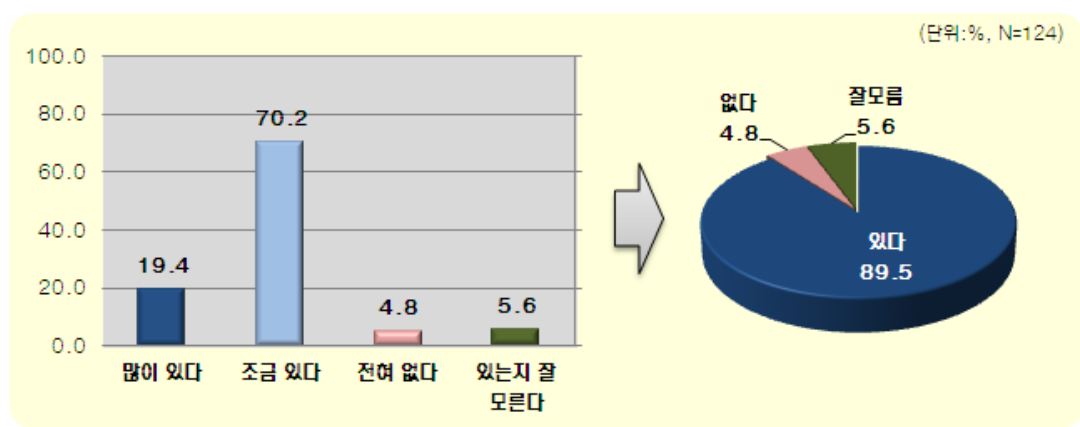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0.009 (0.923)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0.001 (0.974)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0.031 (0.969)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1.950 (0.147)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0.041 (0.839)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5)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유무 여부

89.5%는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이 있다고 응답
[많이 있다 19.4%, 조금 있다 70.2%]



【그림 VI-II】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유무 여부

표 VI-23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유무 여부

단위[%]		사례수[명]	많이 있다	조금 있다	전혀 없다	있는지 잘 모른다	*있다*	*없다*	*잘모름*
전체		124	19.4	70.2	4.8	5.6	89.5	4.8	5.6
성별	남성	31	25.8	74.2	0.0	0.0	100.0	0.0	0.0
	여성	93	17.2	68.8	6.5	7.5	86.0	6.5	7.5
학교급	중학교	35	11.4	80.0	2.9	5.7	91.4	2.9	5.7
	고등학교	89	22.5	66.3	5.6	5.6	88.8	5.6	5.6
거주지역	수도권	73	26.0	60.3	6.8	6.8	86.3	6.8	6.8
	경상권	26	7.7	80.8	3.8	7.7	88.5	3.8	7.7
	충청권	6	16.7	83.3	0.0	0.0	100.0	0.0	0.0
	전라권	19	10.5	89.5	0.0	0.0	100.0	0.0	0.0
지역특징	대도시	46	30.4	58.7	4.3	6.5	89.1	4.3	6.5
	중소도시	59	13.6	72.9	6.8	6.8	86.4	6.8	6.8
	농산어촌	19	10.5	89.5	0.0	0.0	100.0	0.0	0.0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3	0.0	66.7	0.0	33.3	66.7	0.0	33.3
	청소년수련관	63	22.2	71.4	3.2	3.2	93.7	3.2	3.2
	청소년문화의집	58	17.2	69.0	6.9	6.9	86.2	6.9	6.9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지 살펴보면, ‘있다’ 응답이 89.5%로 ‘없다’는 응답 4.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5.6%는 ‘있는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있다’는 응답은 남성(100.0%) 및 중학교(91.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100.0%) 및 전라권(100.0%)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농산어촌(100.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93.7%)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24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유무 여부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5.318 (0.150)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2.652 (0.448)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10.437 (0.107)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9.312 (0.157)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2.091 (0.554)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2)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활용 현황

청소년수련원 이용 경험은 52.4%가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79.0%, 청소년문화의집은 70.2%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시설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는 응답이 6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에서 참여한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8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90.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공간/장비/설비에 대한 만족도는 85.2%,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84.4%, 그리고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만족도는 89.3%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 보유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87.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표 VI-25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활용 현황

구분		내용[단위 : %]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청소년수련원	있음	52.4
		없음	47.6
	청소년수련관	있음	79.0
		없음	21.0
	청소년문화의집	있음	70.2
		없음	29.8
청소년시설 이용 빈도		매일 이용	2.5
		일주일에 한두번	29.5
		한 달에 한두번	61.5
		서너 달에 한두번	4.1
		일 년에 한두번	2.5
청소년시설에서 참여한 프로그램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4.9
		동아리활동	10.7
		청소년운영위원회	84.4
		학교수업과 연계한 활동	0.0
		청소년기자단	0.0
		상담활동	0.0
		경제적 지원	0.0
		어떤 활동에도 참여한 적 없음	0.0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으로 청소년수련원은 38.7%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66.9%, 청소년문화의집은 55.6%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으로 청소년수련원은 35.5%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50.8%, 청소년문화의집은 52.4%가 있다고 응답했다.

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원은 29.0%, 청소년수련관은 33.9%, 청소년문화의집은 22.6%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비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원 12.1%, 청소년수련관 29.8%, 청소년문화의집 19.4%가 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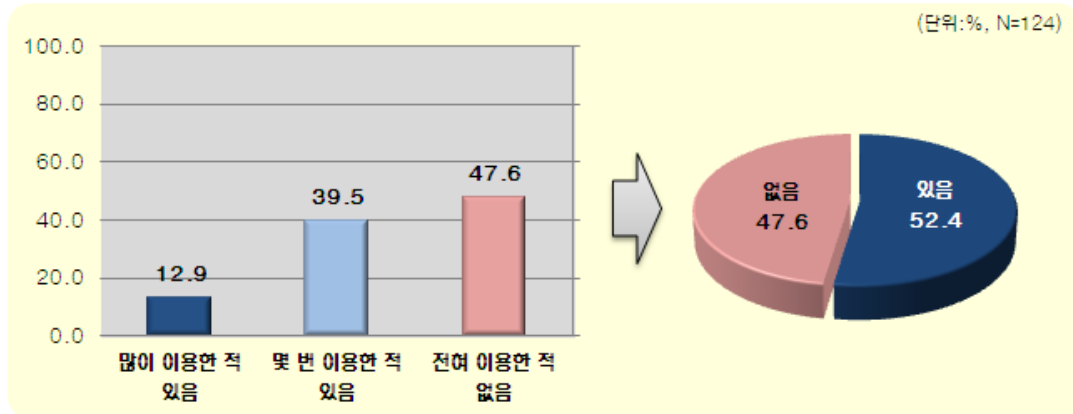
구분		내용[단위 : %]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만족도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만족	90.2
		보통	8.2
		불만족	1.6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의 공간/장비/설비에 대한 만족도	만족	85.2
		보통	13.1
		불만족	1.6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만족	84.4
		보통	13.1
		불만족	2.5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만족	89.3
		보통	9.8
		불만족	0.8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 보유자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그렇다	87.7
		보통	10.7
		그렇지 않다	1.6

구분		내용[단위 : %]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청소년수련원	있음	38.7
		없음	61.3
	청소년수련관	있음	66.9
		없음	33.1
	청소년문화의집	있음	55.6
		없음	44.4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청소년수련원	있음	35.5
		없음	64.5
	청소년수련관	있음	50.8
		없음	49.2
	청소년문화의집	있음	52.4
		없음	47.6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청소년수련원	있음	29.0
		없음	71.0
	청소년수련관	있음	33.9
		없음	66.1
	청소년문화의집	있음	22.6
		없음	77.4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청소년수련원	있음	12.1
		없음	87.9
	청소년수련관	있음	29.8
		없음	70.2
	청소년문화의집	있음	19.4
		없음	80.6

(1)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① 청소년수련원

52.4%는 청소년수련원 이용 경험이 있으며,
47.6% 이용 경험이 없음



【그림 VI-12】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원

표 VI-26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많이 이용한 적 있음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24	12.9	39.5	47.6	52.4	47.6
성별	남성	31	16.1	41.9	41.9	58.1	41.9
	여성	93	11.8	38.7	49.5	50.5	49.5
학교급	중학교	35	11.4	40.0	48.6	51.4	48.6
	고등학교	89	13.5	39.3	47.2	52.8	47.2
거주지역	수도권	73	9.6	39.7	50.7	49.3	50.7
	경상권	26	15.4	53.8	30.8	69.2	30.8
	충청권	6	33.3	50.0	16.7	83.3	16.7
	전라권	19	15.8	15.8	68.4	31.6	68.4
지역특징	대도시	46	15.2	45.7	39.1	60.9	39.1
	중소도시	59	8.5	39.0	52.5	47.5	52.5
	농산어촌	19	21.1	26.3	52.6	47.4	52.6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3	33.3	33.3	33.3	66.7	33.3
	청소년수련관	63	15.9	30.2	54.0	46.0	54.0
	청소년문화의집	58	8.6	50.0	41.4	58.6	41.4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원을 찾아가서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다’는 응답이 52.4%(많이 이용한 적 있음: 12.9% +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39.5%)로 나타났으며, ‘없다’는 응답 47.6%로 나타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있다’는 응답은 남성(58.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경상권(69.2%) 및 충청권(83.3%)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60.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58.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27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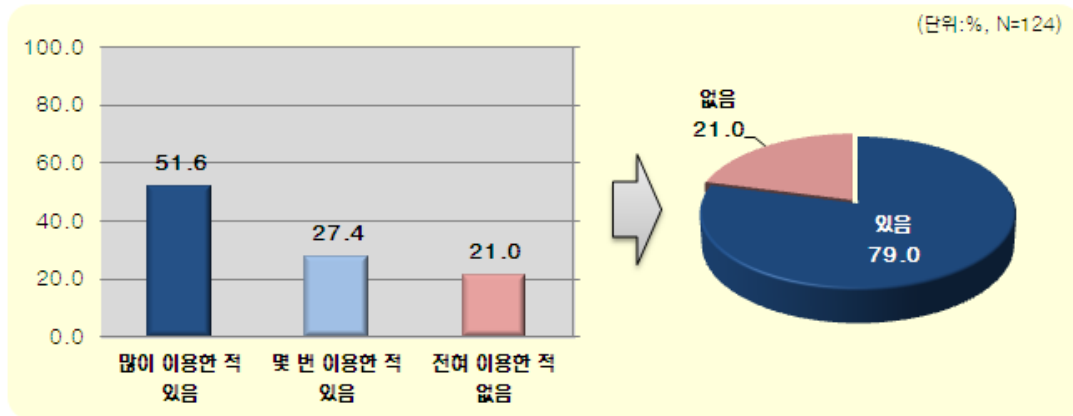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0.671 (0.715)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0.095 (0.954)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6.661 (0.155)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4.443 (0.349)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5.277 (0.071)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② 청소년수련관

79.0%는 청소년수련관 이용 경험이 있으며,
21.0%는 이용 경험이 없음



【그림 VI-13】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관

표 VI-28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많이 이용한 적 있음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24	51.6	27.4	21.0	79.0	21.0
성별	남성	31	58.1	29.0	12.9	87.1	12.9
	여성	93	49.5	26.9	23.7	76.3	23.7
학교급	중학교	35	45.7	31.4	22.9	77.1	22.9
	고등학교	89	53.9	25.8	20.2	79.8	20.2
거주지역	수도권	73	43.8	28.8	27.4	72.6	27.4
	경상권	26	38.5	38.5	23.1	76.9	23.1
	충청권	6	100.0	0.0	0.0	100.0	0.0
	전라권	19	84.2	15.8	0.0	100.0	0.0
지역특징	대도시	46	45.7	30.4	23.9	76.1	23.9
	중소도시	59	47.5	27.1	25.4	74.6	25.4
	농산어촌	19	78.9	21.1	0.0	100.0	0.0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3	33.3	0.0	66.7	33.3	66.7
	청소년수련관	63	84.1	14.3	1.6	98.4	1.6
시설유형	청소년문화의집	58	17.2	43.1	39.7	60.3	39.7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관을 찾아가서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다’는 응답이 79.0%(많이 이용한 적 있음: 51.6% +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27.4%)로 나타났으며, ‘없다’는 응답 21.0%로 나타나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있다’는 응답은 남성(87.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100.0%) 및 전라권(100.0%)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농산어촌(100.0%),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98.4%)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거주지역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이용 경험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거주지역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9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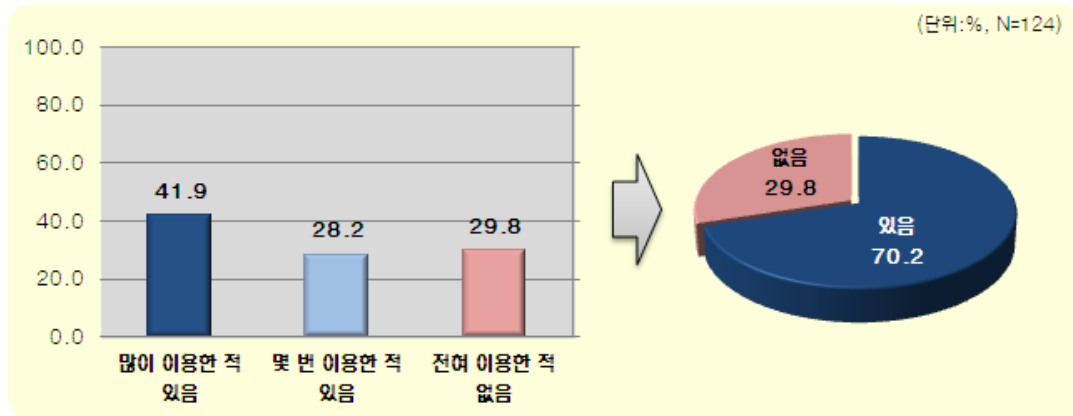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1.655 (0.437)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0.698 (0.706)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18.249*** (0.001)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8.433 (0.077)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56.936*** (0.000)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③ 청소년문화의집

70.2%는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경험이 있으며,
29.8%는 이용 경험이 없음



【그림 VI-14】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표 VI-30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많이 이용한 적 있음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24	41.9	28.2	29.8	70.2	29.8
성별	남성	31	32.3	32.3	35.5	64.5	35.5
	여성	93	45.2	26.9	28.0	72.0	28.0
학교급	중학교	35	54.3	25.7	20.0	80.0	20.0
	고등학교	89	37.1	29.2	33.7	66.3	33.7
거주지역	수도권	73	47.9	26.0	26.0	74.0	26.0
	경상권	26	50.0	38.5	11.5	88.5	11.5
	충청권	6	33.3	16.7	50.0	50.0	50.0
	전라권	19	10.5	26.3	63.2	36.8	63.2
지역특징	대도시	46	47.8	32.6	19.6	80.4	19.6
	중소도시	59	42.4	27.1	30.5	69.5	30.5
	농산어촌	19	26.3	21.1	52.6	47.4	52.6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3	0.0	33.3	66.7	33.3	66.7
	청소년수련관	63	12.7	31.7	55.6	44.4	55.6
	청소년문화의집	58	75.9	24.1	0.0	100.0	0.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문화의집을 찾아가서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다’는 응답이 70.2%(많이 이용한 적 있음: 41.9% +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28.2%)로 나타났으며, ‘없다’는 응답은 29.8%로 나타나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있다’는 응답은 여성(72.0%), 중학교(80.0%)에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경상권(88.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80.4%)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100.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거주지역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경험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는 거주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1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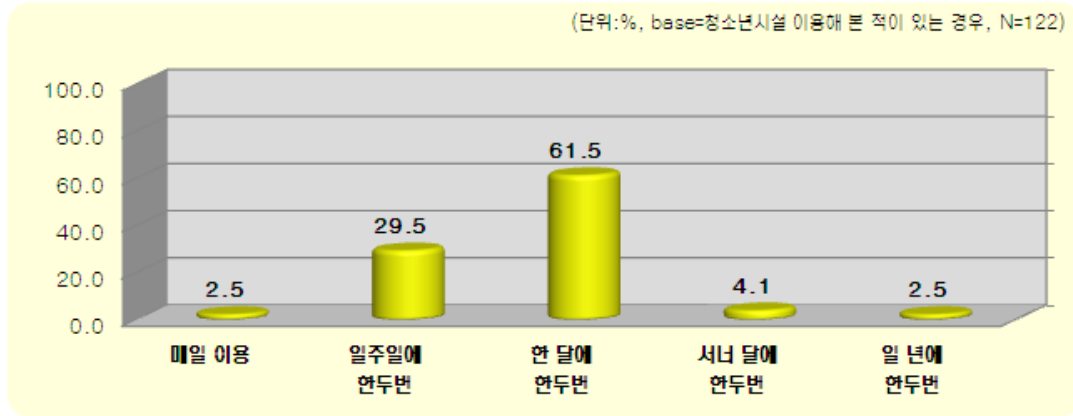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1.603 (0.449)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3.465 (0.177)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17.186** (0.002)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7.118 (0.130)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60.879*** (0.000)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1-1) 청소년시설 이용 빈도

61.5%가 청소년시설을 한 달에 한두 번 이용



【그림 VI-15】 청소년시설 이용 빈도

표 VI-32 청소년시설 이용 빈도

단위[%]		사례수[명]	매일 이용	일주일에 한두번	한 달에 한두번	서너 달에 한두번	일 년에 한두번
전체		122	2.5	29.5	61.5	4.1	2.5
성별	남성	31	0.0	45.2	51.6	3.2	0.0
	여성	91	3.3	24.2	64.8	4.4	3.3
학교급	중학교	35	5.7	37.1	54.3	2.9	0.0
	고등학교	87	1.1	26.4	64.4	4.6	3.4
거주지역	수도권	71	1.4	28.2	66.2	4.2	0.0
	경상권	26	7.7	15.4	57.7	7.7	11.5
	충청권	6	0.0	50.0	50.0	0.0	0.0
	전라권	19	0.0	47.4	52.6	0.0	0.0
지역특징	대도시	45	2.2	28.9	60.0	2.2	6.7
	중소도시	58	3.4	31.0	58.6	6.9	0.0
	농산어촌	19	0.0	26.3	73.7	0.0	0.0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2	0.0	0.0	100.0	0.0	0.0
	청소년수련관	62	1.6	32.3	64.5	1.6	0.0
시설유형	청소년문화의집	58	3.4	27.6	56.9	6.9	5.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시설 이용 빈도를 질문한 결과, ‘한 달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이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29.5%, ‘서너 달에 한두 번’ 4.1%, ‘매일 이용’ 2.5%, ‘일 년에 한두 번’ 2.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는 응답은 여성(64.8%), 고등학교(64.4%)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시설 이용 빈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 거주지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3 청소년시설 이용 빈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2	
성별	남성	31	6.230 (0.183)
	여성	91	
학교급	중학교	35	4.889 (0.299)
	고등학교	87	
거주지역	수도권	71	22.134** (0.005)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5	8.786 (0.361)
	중소도시	58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2	6.122 (0.190)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1-2) 청소년시설에서 참여한 프로그램

청소년운영위원회가 84.4%로 가장 높음
동아리활동 10.7%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4.9%



【그림 VI-16】 청소년시설에서 참여한 프로그램

표 VI-34 청소년시설에서 참여한 프로그램

단위[%]		사례수[명]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활동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전체		122	84.4	10.7	4.9
성별	남성	31	87.1	9.7	3.2
	여성	91	83.5	11.0	5.5
학교급	중학교	35	80.0	11.4	8.6
	고등학교	87	86.2	10.3	3.4
거주지역	수도권	71	87.3	9.9	2.8
	경상권	26	73.1	15.4	11.5
	충청권	6	83.3	16.7	0.0
	전라권	19	89.5	5.3	5.3
지역특징	대도시	45	88.9	8.9	2.2
	중소도시	58	84.5	10.3	5.2
	농산어촌	19	73.7	15.8	10.5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2	100.0	0.0	0.0
	청소년수련관	62	82.3	12.9	4.8
	청소년문화의집	58	86.2	8.6	5.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시설에서 주로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라는 응답이 8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동아리활동’ 10.7%,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라는 응답은 남성(87.1%), 고등학교(86.2%)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87.3%) 및 전라권(89.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88.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35 청소년시설에서 참여한 프로그램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2	
성별	남성	31	0.314 (0.855)
	여성	91	
학교급	중학교	35	1.473 (0.479)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4.256 (0.372)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2.861 (0.581)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0.570 (0.752)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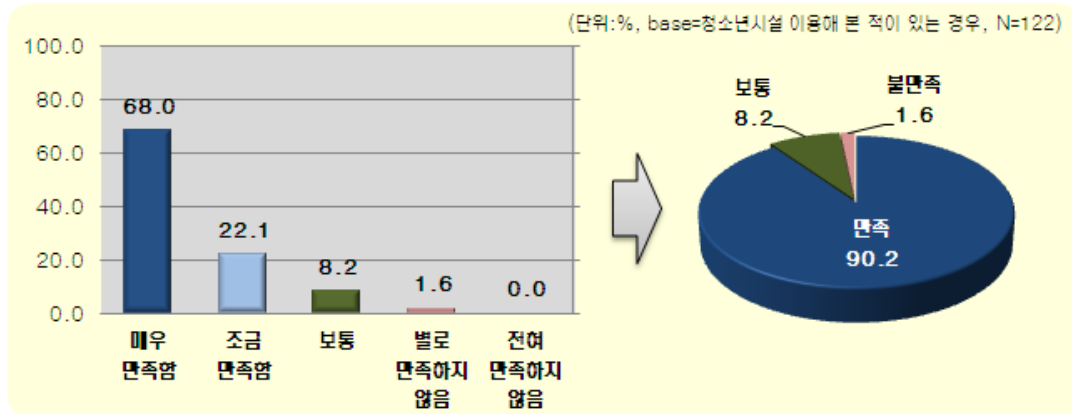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1-3)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만족도

①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90.2%는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전반적으로 만족

[매우 만족함 68.0%, 조금 만족함 22.1%]



【그림 VI-17】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표 VI-36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만족함	조금 만족함	보통	별로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122	68.0	22.1	8.2	1.6	0.0	90.2	8.2	1.6
성별	남성	31	74.2	19.4	6.5	0.0	0.0	93.5	6.5	0.0
	여성	91	65.9	23.1	8.8	2.2	0.0	89.0	8.8	2.2
학교급	중학교	35	77.1	14.3	8.6	0.0	0.0	91.4	8.6	0.0
	고등학교	87	64.4	25.3	8.0	2.3	0.0	89.7	8.0	2.3
거주지역	수도권	71	66.2	23.9	7.0	2.8	0.0	90.1	7.0	2.8
	경상권	26	73.1	23.1	3.8	0.0	0.0	96.2	3.8	0.0
	충청권	6	66.7	16.7	16.7	0.0	0.0	83.3	16.7	0.0
	전라권	19	68.4	15.8	15.8	0.0	0.0	84.2	15.8	0.0
지역특징	대도시	45	68.9	24.4	6.7	0.0	0.0	93.3	6.7	0.0
	중소도시	58	65.5	24.1	6.9	3.4	0.0	89.7	6.9	3.4
	농산어촌	19	73.7	10.5	15.8	0.0	0.0	84.2	15.8	0.0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2	100.0	0.0	0.0	0.0	0.0	100.0	0.0	0.0
	청소년수련관	62	64.5	24.2	11.3	0.0	0.0	88.7	11.3	0.0
	청소년문화의집	58	70.7	20.7	5.2	3.4	0.0	91.4	5.2	3.4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응답이 90.2%(매우 만족함: 68.0% + 조금 만족함: 22.1%), ‘불만족’ 응답이 1.6%(전혀 만족하지 않음: 0.0% + 별로 만족하지 않음: 1.6%)로 나타나, 만족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 응답은 8.2%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만족’ 응답은 남성(93.5%), 경상권(96.2%)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93.3%)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37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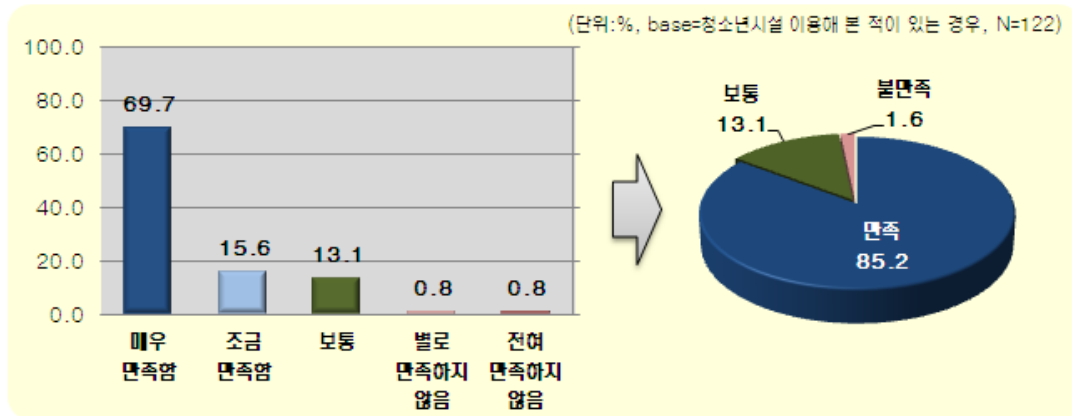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22	
성별	남성	31	1.015 (0.316)
	여성	91	
학교급	중학교	35	1.388 (0.241)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0.518 (0.597)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0.273 (0.761)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0.167 (0.683)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②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의 공간/장비/설비에 대한 만족도

85.2%는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의 공간/장비/설비에 만족
[매우 만족함 69.7%, 조금 만족함 15.6%]



【그림 VI-18】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의 공간/장비/설비에 대한 만족도

표 VI-38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의 공간/장비/설비에 대한 만족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만족함	조금 만족함	보통	별로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122	69.7	15.6	13.1	0.8	0.8	85.2	13.1	1.6
성별	남성	31	80.6	12.9	3.2	0.0	3.2	93.5	3.2	3.2
	여성	91	65.9	16.5	16.5	1.1	0.0	82.4	16.5	1.1
학교급	중학교	35	82.9	8.6	8.6	0.0	0.0	91.4	8.6	0.0
	고등학교	87	64.4	18.4	14.9	1.1	1.1	82.8	14.9	2.3
거주지역	수도권	71	69.0	16.9	11.3	1.4	1.4	85.9	11.3	2.8
	경상권	26	69.2	11.5	19.2	0.0	0.0	80.8	19.2	0.0
	충청권	6	83.3	16.7	0.0	0.0	0.0	100.0	0.0	0.0
	전라권	19	68.4	15.8	15.8	0.0	0.0	84.2	15.8	0.0
지역특징	대도시	45	75.6	11.1	11.1	2.2	0.0	86.7	11.1	2.2
	중소도시	58	65.5	19.0	13.8	0.0	1.7	84.5	13.8	1.7
	농산어촌	19	68.4	15.8	15.8	0.0	0.0	84.2	15.8	0.0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2	100.0	0.0	0.0	0.0	0.0	100.0	0.0	0.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2	66.1	16.1	14.5	1.6	1.6	82.3	14.5	3.2
	청소년문화의집	58	72.4	15.5	12.1	0.0	0.0	87.9	12.1	0.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의 공간/장비/설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응답이 85.2%(매우 만족함: 69.7% + 조금 만족함: 15.6%), ‘불만족’ 응답이 1.6%(전혀 만족하지 않음: 0.8% + 별로 만족하지 않음: 0.8%)로 나타나, 만족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 응답은 13.1%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만족’ 응답은 남성(93.5%), 중학교(91.4%)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학교급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 학교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9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의 공간/장비/설비에 대한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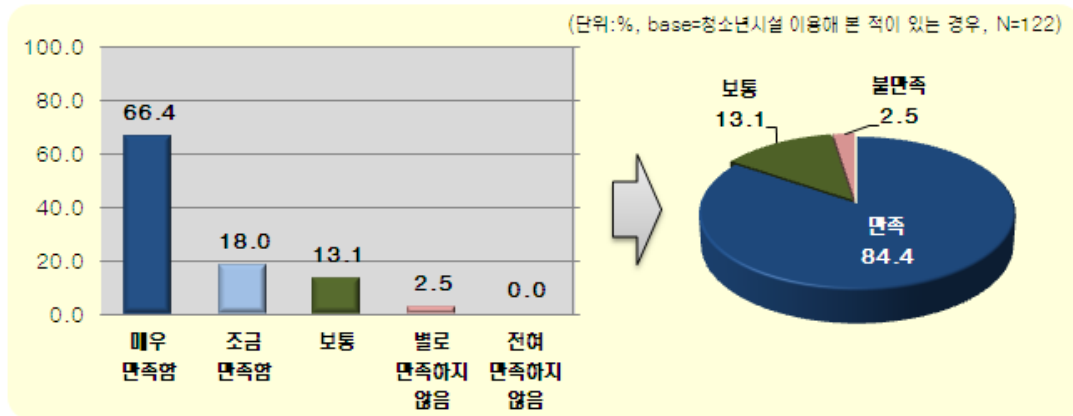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22	
성별	남성	31	1.466 (0.228)
	여성	91	
학교급	중학교	35	4.829* (0.031)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0.133 (0.875)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0.341 (0.712)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1.283 (0.260)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③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84.4%는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만족
[매우 만족함 66.4%, 조금 만족함 18.0%]



【그림 VI-19】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표 VI-40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만족함	조금 만족함	보통	별로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122	66.4	18.0	13.1	2.5	0.0	84.4	13.1	2.5
성별	남성	31	74.2	9.7	16.1	0.0	0.0	83.9	16.1	0.0
	여성	91	63.7	20.9	12.1	3.3	0.0	84.6	12.1	3.3
학교급	중학교	35	77.1	14.3	8.6	0.0	0.0	91.4	8.6	0.0
	고등학교	87	62.1	19.5	14.9	3.4	0.0	81.6	14.9	3.4
거주지역	수도권	71	66.2	15.5	14.1	4.2	0.0	81.7	14.1	4.2
	경상권	26	69.2	23.1	7.7	0.0	0.0	92.3	7.7	0.0
	충청권	6	66.7	33.3	0.0	0.0	0.0	100.0	0.0	0.0
	전라권	19	63.2	15.8	21.1	0.0	0.0	78.9	21.1	0.0
지역특징	대도시	45	66.7	17.8	13.3	2.2	0.0	84.4	13.3	2.2
	중소도시	58	65.5	19.0	12.1	3.4	0.0	84.5	12.1	3.4
	농산어촌	19	68.4	15.8	15.8	0.0	0.0	84.2	15.8	0.0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2	100.0	0.0	0.0	0.0	0.0	100.0	0.0	0.0
	청소년수련관	62	61.3	16.1	21.0	1.6	0.0	77.4	21.0	1.6
	청소년문화의집	58	70.7	20.7	5.2	3.4	0.0	91.4	5.2	3.4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응답이 84.4%(매우 만족함: 66.4% + 조금 만족함: 18.0%), ‘불만족’ 응답이 25%(전혀 만족하지 않음: 0.0% + 별로 만족하지 않음: 25%)로 나타나, 만족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 응답은 13.1%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만족’ 응답은 중학교(91.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경상권(92.3%) 및 충청권(100.0%)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91.4%)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학교급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 학교급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41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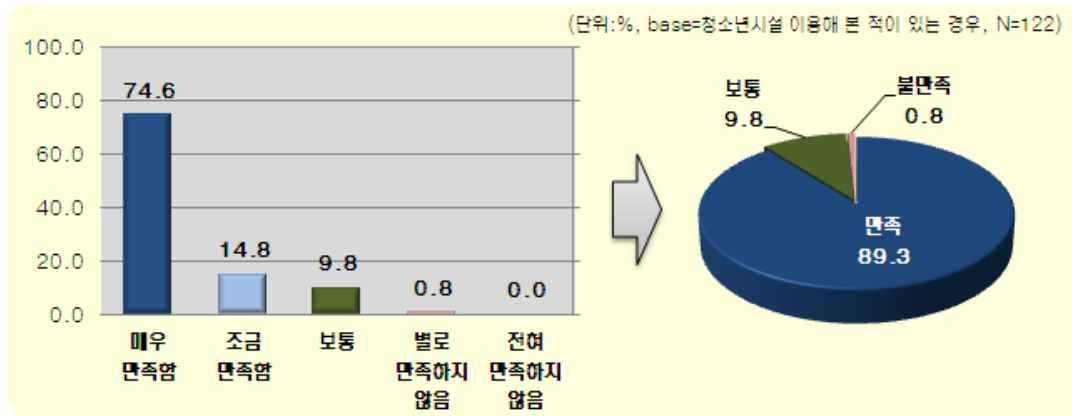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22	
성별	남성	31	0.586 (0.445)
	여성	91	
학교급	중학교	35	4.005* (0.049)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0.453 (0.637)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0.041 (0.960)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2.107 (0.149)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④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89.3%는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만족
[매우 만족함 74.6%, 조금 만족함 14.8%]



【그림 VI-20】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표 VI-42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만족함	조금 만족함	보통	별로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122	74.6	14.8	9.8	0.8	0.0	89.3	9.8	0.8
성별	남성	31	87.1	12.9	0.0	0.0	0.0	100.0	0.0	0.0
	여성	91	70.3	15.4	13.2	1.1	0.0	85.7	13.2	1.1
학교급	중학교	35	80.0	11.4	8.6	0.0	0.0	91.4	8.6	0.0
	고등학교	87	72.4	16.1	10.3	1.1	0.0	88.5	10.3	1.1
거주지역	수도권	71	73.2	14.1	11.3	1.4	0.0	87.3	11.3	1.4
	경상권	26	84.6	11.5	3.8	0.0	0.0	96.2	3.8	0.0
	충청권	6	50.0	50.0	0.0	0.0	0.0	100.0	0.0	0.0
	전라권	19	73.7	10.5	15.8	0.0	0.0	84.2	15.8	0.0
지역특징	대도시	45	71.1	15.6	13.3	0.0	0.0	86.7	13.3	0.0
	중소도시	58	79.3	13.8	5.2	1.7	0.0	93.1	5.2	1.7
	농산어촌	19	68.4	15.8	15.8	0.0	0.0	84.2	15.8	0.0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2	100.0	0.0	0.0	0.0	0.0	100.0	0.0	0.0
	청소년수련관	62	69.4	19.4	11.3	0.0	0.0	88.7	11.3	0.0
	청소년문화의집	58	79.3	10.3	8.6	1.7	0.0	89.7	8.6	1.7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응답이 89.3%(매우 만족함: 74.6% + 조금 만족함: 14.8%), ‘불만족’ 응답이 0.8%(전혀 만족하지 않음: 0.0% + 별로 만족하지 않음: 0.8%)로 나타나, 만족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 응답은 9.8%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만족’ 응답은 남성(100.0%), 중학교(91.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경상권(96.2%) 및 충청권(100.0%)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 별로는 중소도시(93.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 성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43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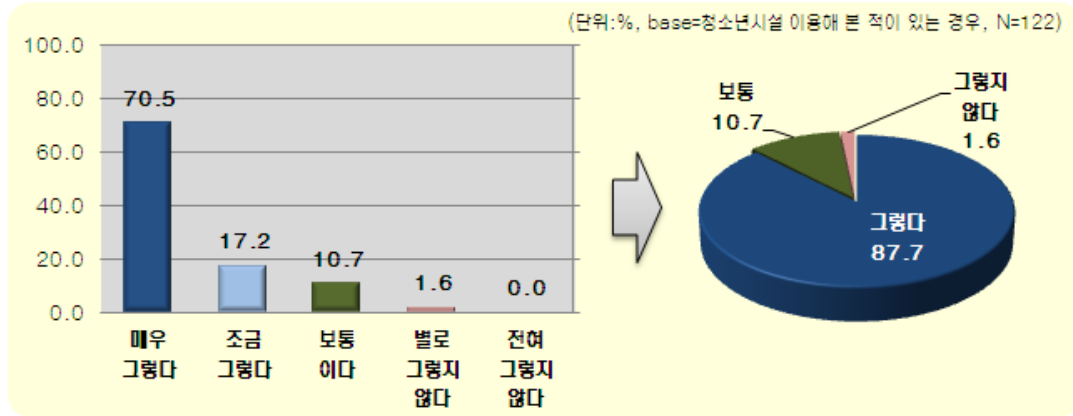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22	
성별	남성	31	10.175** (0.002)
	여성	91	
학교급	중학교	35	0.701 (0.404)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1.689 (0.194)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0.690 (0.503)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0.515 (0.475)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1-4)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 보유자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87.7%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 보유자라고 생각
[매우 그렇다 70.5%, 조금 그렇다 17.2%]



【그림 VI-21】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 보유자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표 VI-44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 보유자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단위[%]		사례수[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체		122	70.5	17.2	10.7	1.6	0.0	87.7	10.7	1.6
성별	남성	31	71.0	25.8	3.2	0.0	0.0	96.8	3.2	0.0
	여성	91	70.3	14.3	13.2	2.2	0.0	84.6	13.2	2.2
학교급	중학교	35	77.1	17.1	5.7	0.0	0.0	94.3	5.7	0.0
	고등학교	87	67.8	17.2	12.6	2.3	0.0	85.1	12.6	2.3
거주지역	수도권	71	71.8	16.9	8.5	2.8	0.0	88.7	8.5	2.8
	경상권	26	69.2	23.1	7.7	0.0	0.0	92.3	7.7	0.0
	충청권	6	50.0	33.3	16.7	0.0	0.0	83.3	16.7	0.0
	전라권	19	73.7	5.3	21.1	0.0	0.0	78.9	21.1	0.0
지역특징	대도시	45	68.9	20.0	8.9	2.2	0.0	88.9	8.9	2.2
	중소도시	58	72.4	19.0	6.9	1.7	0.0	91.4	6.9	1.7
	농산어촌	19	68.4	5.3	26.3	0.0	0.0	73.7	26.3	0.0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2	50.0	0.0	50.0	0.0	0.0	50.0	50.0	0.0
	청소년수련관	62	67.7	16.1	16.1	0.0	0.0	83.9	16.1	0.0
	청소년문화의집	58	74.1	19.0	3.4	3.4	0.0	93.1	3.4	3.4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 보유자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이 87.7%(매우 그렇다: 70.5% + 조금 그렇다: 17.2%)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1.6%(전혀 그렇지 않다: 0.0% + 별로 그렇지 않다: 1.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0.7%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은 남성(96.8%), 중학교(94.3%)에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경상권(92.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특징 별로는 중소도시(91.4%)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93.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45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 보유자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22	
성별	남성	31	1.354 (0.248)
	여성	91	
학교급	중학교	35	2.586 (0.111)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0.226 (0.798)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0.510 (0.602)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0.809 (0.370)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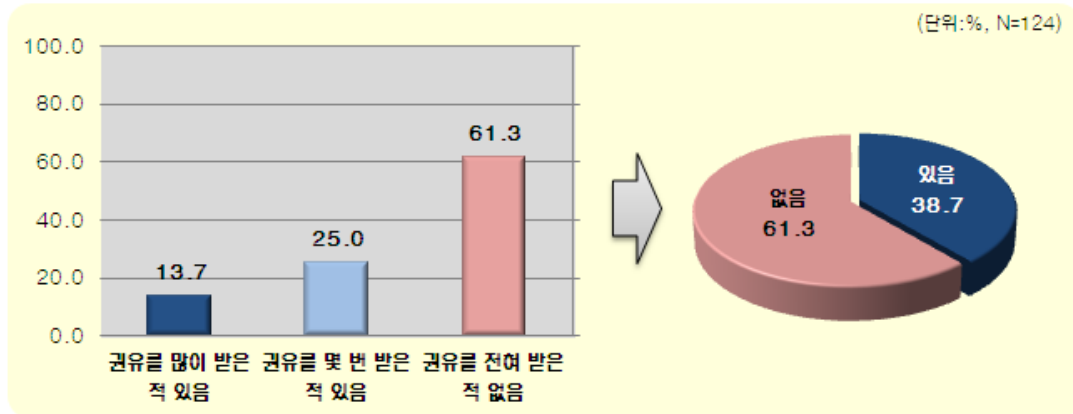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2)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①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원

61.3%는 청소년수련원 이용 권유 경험이 없음

[권유를 전혀 받은 적 없음 61.3%]



【그림 VI-22】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원

표 VI-46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권유를 많이 받은 적 있음	권유를 몇 번 받은 적 있음	권유를 전혀 받은 적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24	13.7	25.0	61.3	38.7	61.3
성별	남성	31	22.6	32.3	45.2	54.8	45.2
	여성	93	10.8	22.6	66.7	33.3	66.7
학교급	중학교	35	14.3	28.6	57.1	42.9	57.1
	고등학교	89	13.5	23.6	62.9	37.1	62.9
거주지역	수도권	73	9.6	21.9	68.5	31.5	68.5
	경상권	26	19.2	30.8	50.0	50.0	50.0
	충청권	6	50.0	16.7	33.3	66.7	33.3
	전라권	19	10.5	31.6	57.9	42.1	57.9
지역특징	대도시	46	15.2	19.6	65.2	34.8	65.2
	중소도시	59	10.2	30.5	59.3	40.7	59.3
	농산어촌	19	21.1	21.1	57.9	42.1	57.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3	0.0	33.3	66.7	33.3	66.7
	청소년수련관	63	15.9	23.8	60.3	39.7	60.3
	청소년문화의집	58	12.1	25.9	62.1	37.9	62.1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도록 권유(추천) 받은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이 61.3%로 ‘있다’는 응답 38.7%(권유를 많이 받은 적 있음: 13.7% + 권유를 몇 번 받은 적 있음: 25.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은 여성(66.7%), 고등학교(62.9%)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68.5%)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47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4.998 (0.082)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0.397 (0.820)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4.428 (0.351)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2.930 (0.570)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0.377 (0.828)
	청소년문화의집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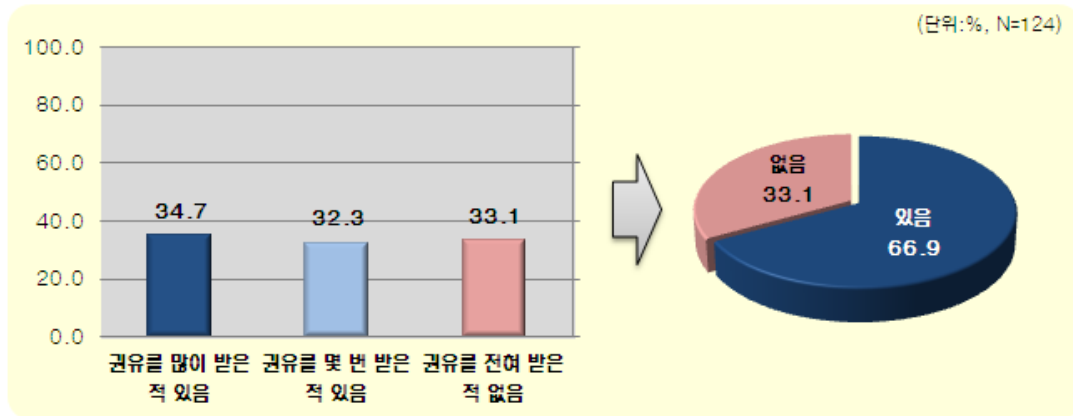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②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관

66.9%는 청소년수련관 이용 권유 경험이 있음

[권유를 많이 받은 적 있음 34.7%, 권유를 몇 번 받은 적 있음 32.3]



【그림 VI-23】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관

표 VI-48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권유를 많이 받은 적 있음	권유를 몇 번 받은 적 있음	권유를 전혀 받은 적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24	34.7	32.3	33.1	66.9	33.1
성별	남성	31	41.9	32.3	25.8	74.2	25.8
	여성	93	32.3	32.3	35.5	64.5	35.5
학교급	중학교	35	25.7	40.0	34.3	65.7	34.3
	고등학교	89	38.2	29.2	32.6	67.4	32.6
거주지역	수도권	73	26.0	32.9	41.1	58.9	41.1
	경상권	26	23.1	38.5	38.5	61.5	38.5
	충청권	6	83.3	16.7	0.0	100.0	0.0
	전라권	19	68.4	26.3	5.3	94.7	5.3
지역특징	대도시	46	30.4	28.3	41.3	58.7	41.3
	중소도시	59	30.5	35.6	33.9	66.1	33.9
	농산어촌	19	57.9	31.6	10.5	89.5	10.5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3	33.3	0.0	66.7	33.3	66.7
	청소년수련관	63	54.0	34.9	11.1	88.9	11.1
	청소년문화의집	58	13.8	31.0	55.2	44.8	55.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도록 권유(추천) 받은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있다’는 응답이 66.9%(권유를 많이 받은 적 있음: 34.7% + 권유를 몇 번 받은 적 있음: 32.39%)로 ‘없다’는 응답 33.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있다’는 응답은 남성(74.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100.0%) 및 전라권(94.7%)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특징별로는 농산어촌(89.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88.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거주지역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도록 권유(추천) 경험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거주지역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49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1.286 (0.526)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2.058 (0.357)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21.514*** (0.000)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7.798 (0.099)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32.370*** (0.000)
	청소년문화의집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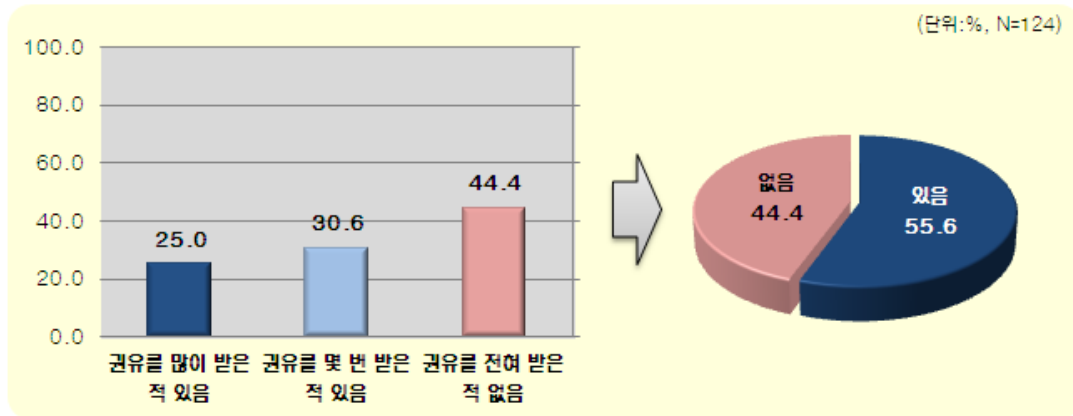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③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55.6%는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권유 경험이 있음

[권유를 많이 받은 적 있음 25.0%, 권유를 몇 번 받은 적 있음 30.6]



【그림 VI-24】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표 VI-50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권유를 많이 받은 적 있음	권유를 몇 번 받은 적 있음	권유를 전혀 받은 적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24	25.0	30.6	44.4	55.6	44.4
성별	남성	31	19.4	32.3	48.4	51.6	48.4
	여성	93	26.9	30.1	43.0	57.0	43.0
학교급	중학교	35	31.4	37.1	31.4	68.6	31.4
	고등학교	89	22.5	28.1	49.4	50.6	49.4
거주지역	수도권	73	26.0	26.0	47.9	52.1	47.9
	경상권	26	34.6	42.3	23.1	76.9	23.1
	충청권	6	33.3	16.7	50.0	50.0	50.0
	전라권	19	5.3	36.8	57.9	42.1	57.9
지역특징	대도시	46	32.6	26.1	41.3	58.7	41.3
	중소도시	59	22.0	30.5	47.5	52.5	47.5
	농산어촌	19	15.8	42.1	42.1	57.9	42.1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3	0.0	0.0	100.0	0.0	100.0
	청소년수련관	63	9.5	25.4	65.1	34.9	65.1
	청소년문화의집	58	43.1	37.9	19.0	81.0	19.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도록 권유(추천) 받은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있다’는 응답이 55.6% (권유를 많이 받은 적 있음: 25.0% + 권유를 몇 번 받은 적 있음: 30.6%)로 ‘없다’는 응답 44.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있다’는 응답은 여성(57.0%), 중학교(68.6%)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로는 경상권(76.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81.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도록 권유(추천) 경험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51 청소년시설 이용 권유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0.713 (0.700)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3.315 (0.191)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7.990 (0.092)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3.290 (0.510)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29.744*** (0.000)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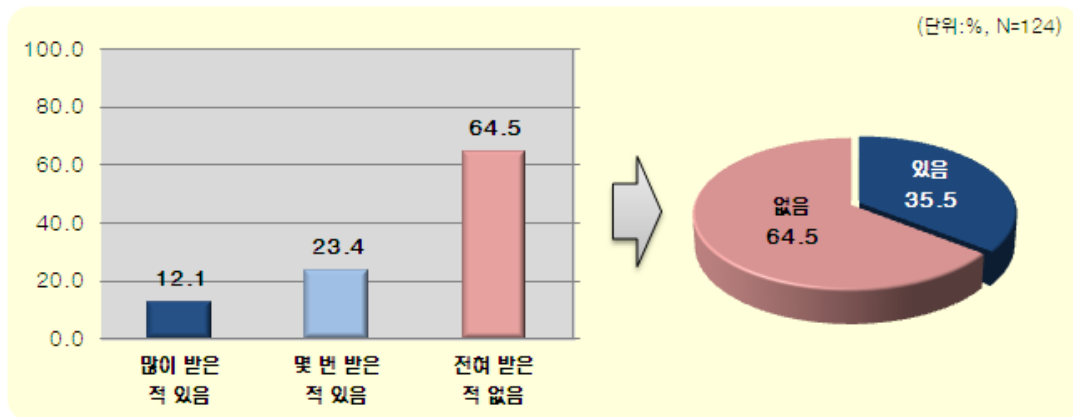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3)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①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원

64.5%는 청소년수련원 안내문 수령 경험이 없음

[전혀 받은 적 없음 64.5%]



【그림 VI-25】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원

표 VI-52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많이 받은 적 있음	몇 번 받은 적 있음	전혀 받은 적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24	12.1	23.4	64.5	35.5	64.5
성별	남성	31	16.1	22.6	61.3	38.7	61.3
	여성	93	10.8	23.7	65.6	34.4	65.6
학교급	중학교	35	11.4	28.6	60.0	40.0	60.0
	고등학교	89	12.4	21.3	66.3	33.7	66.3
거주지역	수도권	73	8.2	21.9	69.9	30.1	69.9
	경상권	26	11.5	30.8	57.7	42.3	57.7
	충청권	6	50.0	16.7	33.3	66.7	33.3
	전라권	19	15.8	21.1	63.2	36.8	63.2
지역특징	대도시	46	10.9	23.9	65.2	34.8	65.2
	중소도시	59	10.2	25.4	64.4	35.6	64.4
	농산어촌	19	21.1	15.8	63.2	36.8	63.2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3	33.3	33.3	33.3	66.7	33.3
	청소년수련관	63	14.3	20.6	65.1	34.9	65.1
	청소년문화의집	58	8.6	25.9	65.5	34.5	65.5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이 64.5%로 ‘있다’는 응답 35.5%(많이 받은 적 있음: 12.1% + 몇 번 받은 적 있음: 23.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은 고등학교(66.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69.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53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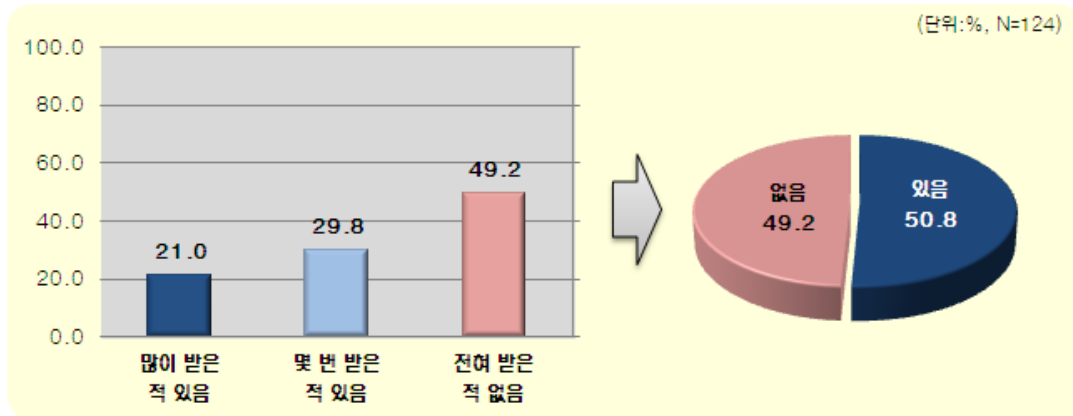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0.634 (0.728)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0.733 (0.693)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5.430 (0.246)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2.086 (0.720)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1.195 (0.550)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②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관

50.8%는 청소년수련관 안내문 수령 경험이 있으며,
49.2%는 없음



【그림 VI-26】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관

표 VI-54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많이 받은 적 있음	몇 번 받은 적 있음	전혀 받은 적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24	21.0	29.8	49.2	50.8	49.2
성별	남성	31	25.8	25.8	48.4	51.6	48.4
	여성	93	19.4	31.2	49.5	50.5	49.5
학교급	중학교	35	14.3	34.3	51.4	48.6	51.4
	고등학교	89	23.6	28.1	48.3	51.7	48.3
거주지역	수도권	73	15.1	27.4	57.5	42.5	57.5
	경상권	26	15.4	34.6	50.0	50.0	50.0
	충청권	6	50.0	33.3	16.7	83.3	16.7
	전라권	19	42.1	31.6	26.3	73.7	26.3
지역특징	대도시	46	19.6	32.6	47.8	52.2	47.8
	중소도시	59	16.9	25.4	57.6	42.4	57.6
	농산어촌	19	36.8	36.8	26.3	73.7	26.3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3	33.3	0.0	66.7	33.3	66.7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31.7	31.7	36.5	63.5	36.5
	청소년문화의집	58	8.6	29.3	62.1	37.9	62.1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있다’는 응답이 50.8%(많이 받은 적 있음: 21.0% + 몇 번 받은 적 있음: 29.8%)로 ‘없다’는 응답 49.2%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있다’는 응답은 고등학교(51.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83.3%) 및 전라권(73.7%)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농산어촌(73.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63.5%)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거주지역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 수령 경험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거주지역, 1% 수준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55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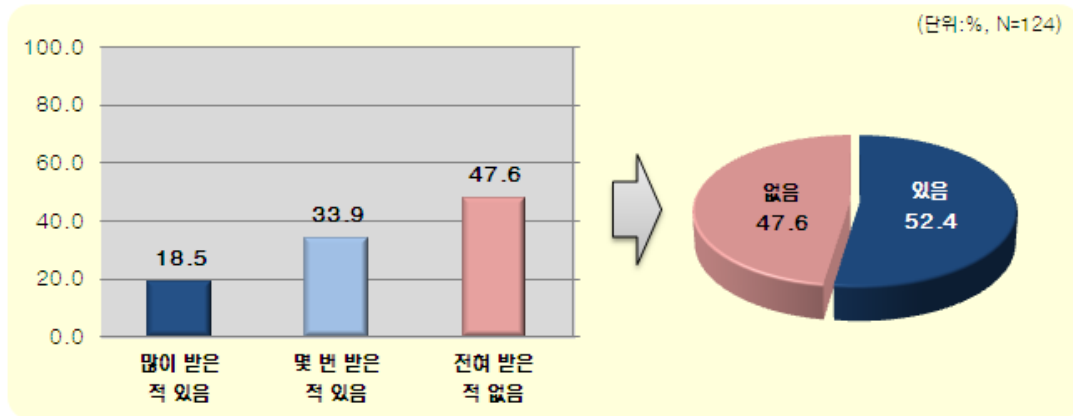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0.692 (0.707)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1.411 (0.494)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12.568* (0.014)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6.489 (0.165)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11.921** (0.003)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③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52.4%는 청소년문화의집 안내문 수령 경험이 있으며,
47.6%는 없음



【그림 VI-27】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표 VI-56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많이 받은 적 있음	몇 번 받은 적 있음	전혀 받은 적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24	18.5	33.9	47.6	52.4	47.6
성별	남성	31	16.1	35.5	48.4	51.6	48.4
	여성	93	19.4	33.3	47.3	52.7	47.3
학교급	중학교	35	20.0	45.7	34.3	65.7	34.3
	고등학교	89	18.0	29.2	52.8	47.2	52.8
거주지역	수도권	73	20.5	30.1	49.3	50.7	49.3
	경상권	26	19.2	46.2	34.6	65.4	34.6
	충청권	6	33.3	33.3	33.3	66.7	33.3
	전라권	19	5.3	31.6	63.2	36.8	63.2
지역특징	대도시	46	23.9	32.6	43.5	56.5	43.5
	중소도시	59	13.6	37.3	49.2	50.8	49.2
	농산어촌	19	21.1	26.3	52.6	47.4	52.6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3	0.0	33.3	66.7	33.3	66.7
	청소년수련관	63	7.9	23.8	68.3	31.7	68.3
	청소년문화의집	58	31.0	44.8	24.1	75.9	24.1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있다’는 응답이 52.4%(많이 받은 적 있음: 18.5% + 몇 번 받은 적 있음: 33.9%)로 ‘없다’는 응답 47.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있다’는 응답은 중학교(65.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경상권(65.4%) 및 충청권(66.7%)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75.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 수령 경험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57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 수령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0.168 (0.920)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3.886 (0.143)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3.563 (0.468)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2.410 (0.661)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24.889*** (0.000)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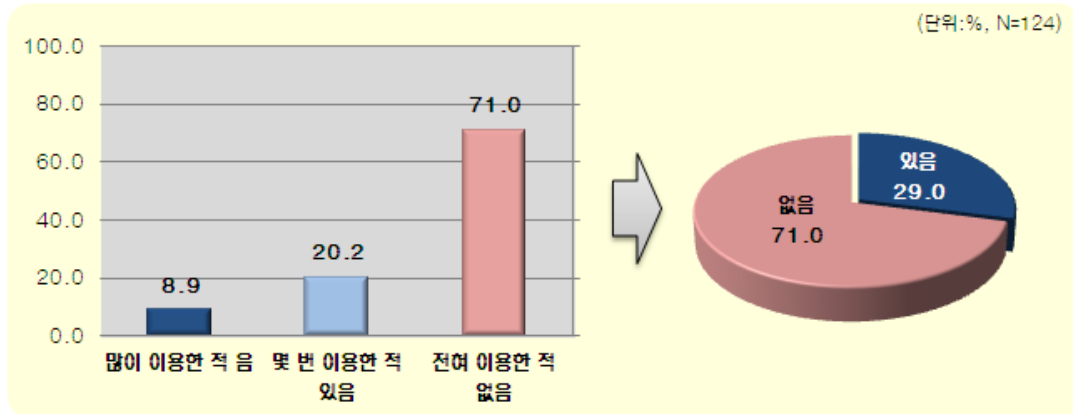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4)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①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71.0%는 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수련원 이동수업 경험이 없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71.0%]



【그림 VI-28】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표 VI-58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많이 이용한 적 있음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24	8.9	20.2	71.0	29.0	71.0
성별	남성	31	9.7	16.1	74.2	25.8	74.2
	여성	93	8.6	21.5	69.9	30.1	69.9
학교급	중학교	35	11.4	17.1	71.4	28.6	71.4
	고등학교	89	7.9	21.3	70.8	29.2	70.8
거주지역	수도권	73	8.2	13.7	78.1	21.9	78.1
	경상권	26	11.5	23.1	65.4	34.6	65.4
	충청권	6	16.7	50.0	33.3	66.7	33.3
	전라권	19	5.3	31.6	63.2	36.8	63.2
지역특징	대도시	46	13.0	15.2	71.7	28.3	71.7
	중소도시	59	5.1	20.3	74.6	25.4	74.6
	농산어촌	19	10.5	31.6	57.9	42.1	57.9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3	0.0	66.7	33.3	66.7	33.3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9.5	20.6	69.8	30.2	69.8
	청소년문화의집	58	8.6	17.2	74.1	25.9	74.1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학교에서 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수련원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이 71.0%로 ‘있다’는 응답 29.0%(많이 이용한 적 있음: 8.92% +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20.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은 남성(74.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78.1%)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74.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59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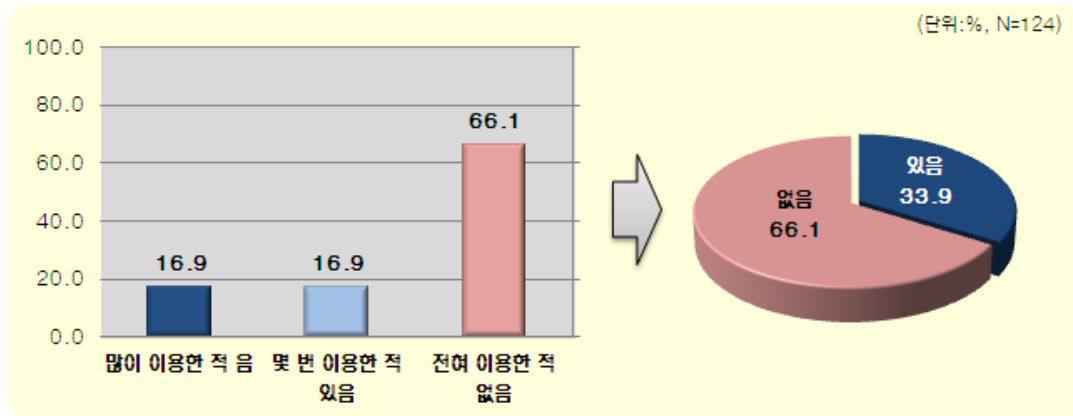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0.424 (0.809)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0.581 (0.748)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6.422 (0.170)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4.272 (0.370)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0.288 (0.866)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②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66.1%는 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수련관 이동수업 경험이 없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66.1%]



【그림 VI-29】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표 VI-60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많이 이용한 적 있음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24	16.9	16.9	66.1	33.9	66.1
성별	남성	31	25.8	12.9	61.3	38.7	61.3
	여성	93	14.0	18.3	67.7	32.3	67.7
학교급	중학교	35	20.0	22.9	57.1	42.9	57.1
	고등학교	89	15.7	14.6	69.7	30.3	69.7
거주지역	수도권	73	15.1	13.7	71.2	28.8	71.2
	경상권	26	11.5	30.8	57.7	42.3	57.7
	충청권	6	16.7	16.7	66.7	33.3	66.7
	전라권	19	31.6	10.5	57.9	42.1	57.9
지역특징	대도시	46	10.9	19.6	69.6	30.4	69.6
	중소도시	59	18.6	15.3	66.1	33.9	66.1
	농산어촌	19	26.3	15.8	57.9	42.1	57.9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3	33.3	0.0	66.7	33.3	66.7
	청소년수련관	63	23.8	14.3	61.9	38.1	61.9
	청소년문화의집	58	8.6	20.7	70.7	29.3	70.7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학교에서 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이 66.1%로 ‘있다’는 응답 33.9%(많이 이용한 적 있음: 16.9% +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16.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은 여성(67.7%), 고등학교(69.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71.2%)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61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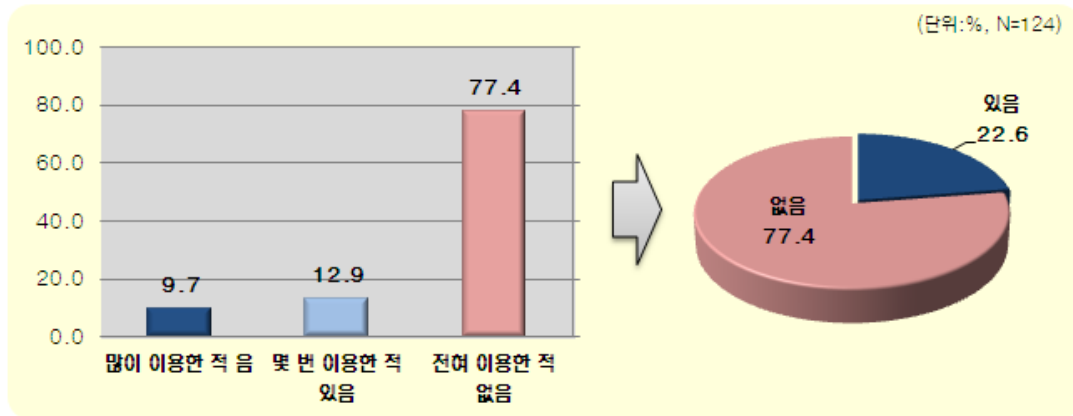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2.464 (0.292)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1.876 (0.391)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6.863 (0.143)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2.666 (0.615)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5.281 (0.071)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③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77.4%는 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문화의집 이동수업 경험이 없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77.4%]



【그림 VI-30】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표 VI-62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많이 이용한 적 있음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24	9.7	12.9	77.4	22.6	77.4
성별	남성	31	6.5	9.7	83.9	16.1	83.9
	여성	93	10.8	14.0	75.3	24.7	75.3
학교급	중학교	35	14.3	11.4	74.3	25.7	74.3
	고등학교	89	7.9	13.5	78.7	21.3	78.7
거주지역	수도권	73	9.6	12.3	78.1	21.9	78.1
	경상권	26	15.4	15.4	69.2	30.8	69.2
	충청권	6	16.7	0.0	83.3	16.7	83.3
	전라권	19	0.0	15.8	84.2	15.8	84.2
지역특징	대도시	46	13.0	8.7	78.3	21.7	78.3
	중소도시	59	5.1	16.9	78.0	22.0	78.0
	농산어촌	19	15.8	10.5	73.7	26.3	73.7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3	0.0	0.0	100.0	0.0	100.0
	청소년수련관	63	4.8	14.3	81.0	19.0	81.0
	청소년문화의집	58	15.5	12.1	72.4	27.6	72.4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학교에서 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이 77.4%로 ‘있다’는 응답 22.6%(많이 이용한 적 있음: 9.7% +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12.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은 남성(83.9%), 고등학교(78.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충청권(83.3%) 및 전라권(84.2%)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63 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1.000 (0.607)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1.214 (0.545)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2.236 (0.692)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4.062 (0.398)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3.921 (0.141)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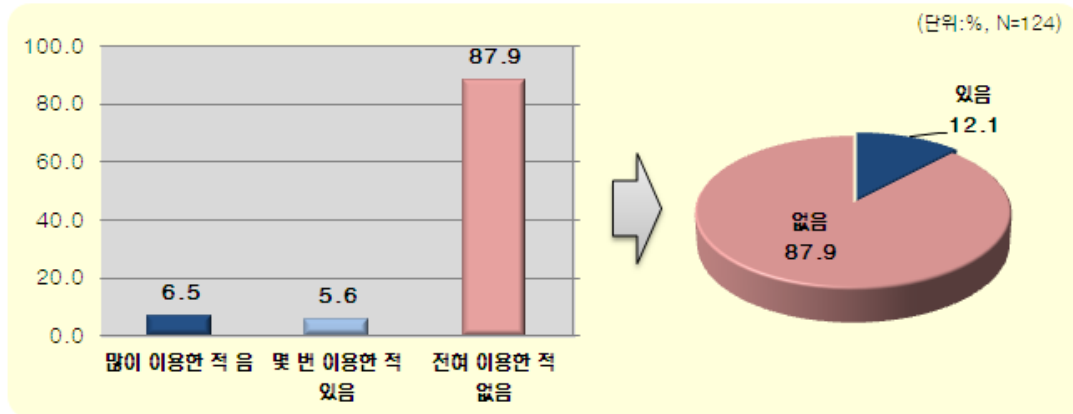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5)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①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87.9%는 비교과시간에 청소년수련원 이동수업 경험이 없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87.9%]



【그림 VI-31】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표 VI-64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많이 이용한 적 있음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24	6.5	5.6	87.9	12.1	87.9
성별	남성	31	9.7	6.5	83.9	16.1	83.9
	여성	93	5.4	5.4	89.2	10.8	89.2
학교급	중학교	35	5.7	5.7	88.6	11.4	88.6
	고등학교	89	6.7	5.6	87.6	12.4	87.6
거주지역	수도권	73	5.5	5.5	89.0	11.0	89.0
	경상권	26	7.7	7.7	84.6	15.4	84.6
	충청권	6	16.7	0.0	83.3	16.7	83.3
	전라권	19	5.3	5.3	89.5	10.5	89.5
지역특징	대도시	46	8.7	4.3	87.0	13.0	87.0
	중소도시	59	3.4	6.8	89.8	10.2	89.8
	농산어촌	19	10.5	5.3	84.2	15.8	84.2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3	0.0	0.0	100.0	0.0	100.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7.9	9.5	82.5	17.5	82.5
	청소년문화의집	58	5.2	1.7	93.1	6.9	93.1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학교에서 비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수련원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이 87.9%로 ‘있다’는 응답 12.1%(많이 이용한 적 있음: 6.5% +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5.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은 여성(89.2%),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93.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65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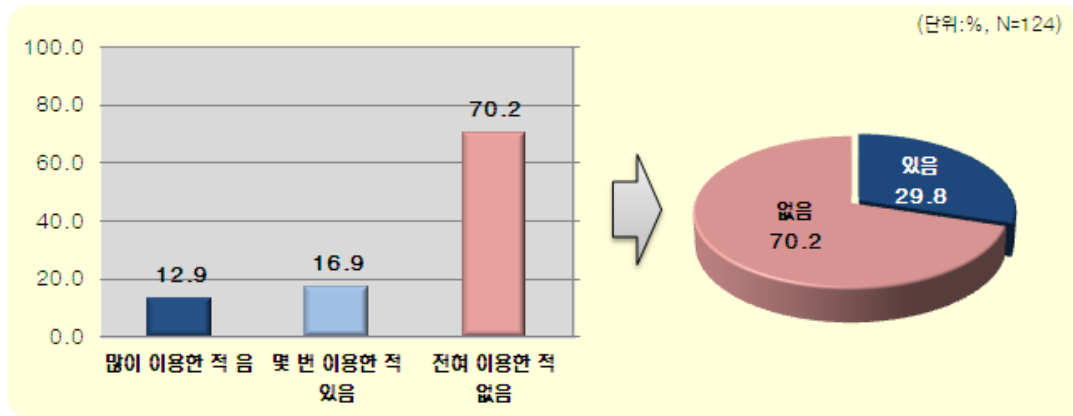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0.791 (0.673)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0.044 (0.978)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0.621 (0.961)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2.041 (0.728)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3.909 (0.142)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②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70.2%는 비교과시간에 청소년수련관 이동수업 경험이 없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70.2%]



【그림 VI-32】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표 VI-66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많이 이용한 적 있음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24	12.9	16.9	70.2	29.8	70.2
성별	남성	31	22.6	16.1	61.3	38.7	61.3
	여성	93	9.7	17.2	73.1	26.9	73.1
학교급	중학교	35	8.6	17.1	74.3	25.7	74.3
	고등학교	89	14.6	16.9	68.5	31.5	68.5
거주지역	수도권	73	13.7	11.0	75.3	24.7	75.3
	경상권	26	7.7	26.9	65.4	34.6	65.4
	충청권	6	16.7	33.3	50.0	50.0	50.0
	전라권	19	15.8	21.1	63.2	36.8	63.2
지역특징	대도시	46	13.0	10.9	76.1	23.9	76.1
	중소도시	59	11.9	20.3	67.8	32.2	67.8
	농산어촌	19	15.8	21.1	63.2	36.8	63.2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3	0.0	0.0	100.0	0.0	100.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19.0	23.8	57.1	42.9	57.1
	청소년문화의집	58	6.9	10.3	82.8	17.2	82.8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학교에서 비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이 70.2%로 ‘있다’는 응답 29.8%(많이 이용한 적 있음: 12.9% +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16.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은 여성(73.1%), 중학교(74.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75.3%)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76.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82.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이동 수업 경험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67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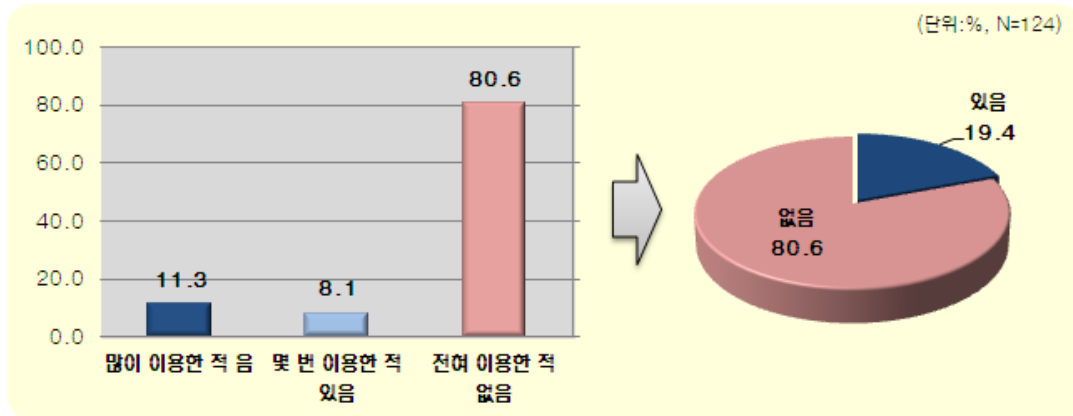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3.479 (0.176)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0.829 (0.661)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5.308 (0.257)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2.176 (0.703)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9.381** (0.009)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③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80.6%는 비교과시간에 청소년문화의집 이동수업 경험이 없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80.6%]



【그림 VI-33】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표 VI-68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많이 이용한 적 있음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24	11.3	8.1	80.6	19.4	80.6
성별	남성	31	12.9	6.5	80.6	19.4	80.6
	여성	93	10.8	8.6	80.6	19.4	80.6
학교급	중학교	35	17.1	8.6	74.3	25.7	74.3
	고등학교	89	9.0	7.9	83.1	16.9	83.1
거주지역	수도권	73	9.6	5.5	84.9	15.1	84.9
	경상권	26	19.2	15.4	65.4	34.6	65.4
	충청권	6	16.7	0.0	83.3	16.7	83.3
	전라권	19	5.3	10.5	84.2	15.8	84.2
지역특징	대도시	46	13.0	2.2	84.8	15.2	84.8
	중소도시	59	8.5	11.9	79.7	20.3	79.7
	농산어촌	19	15.8	10.5	73.7	26.3	73.7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3	0.0	0.0	100.0	0.0	100.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7.9	7.9	84.1	15.9	84.1
	청소년문화의집	58	15.5	8.6	75.9	24.1	75.9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학교에서 비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이 80.6%로 ‘있다’는 응답 19.4%(많이 이용한 적 있음: 11.3% +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8.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은 고등학교(83.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특징별로는 수도권(84.8%)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84.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69 비교과수업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0.229 (0.892)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1.739 (0.419)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5.163 (0.271)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4.277 (0.370)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1.774 (0.412)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3)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에 대한 기대

청소년수련원 이용 의향은 69.4%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78.2%, 청소년문화의 집은 79.0%가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의향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원은 75.0%, 청소년수련관은 79.0%, 청소년문화의집은 83.9%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없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시설 이용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원은 79.8%, 청소년수련 관은 82.3%, 청소년문화의집은 85.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 청소년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질문한 결과, 청소년수련원은 77.4%, 청소년수련관은 79.8%, 청소년문화의집은 83.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VI-70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에 대한 기대

구분		내용[단위 : %]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청소년수련원	의향 있음	69.4
		보통	20.2
		의향 없음	10.5
	청소년수련관	의향 있음	78.2
		보통	18.5
		의향 없음	3.2
	청소년문화의집	의향 있음	79.0
		보통	14.5
		의향 없음	6.5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청소년수련원	의향 있음	75.0
		보통	18.5
		의향 없음	6.5
	청소년수련관	의향 있음	79.0
		보통	19.4
		의향 없음	1.6
	청소년문화의집	의향 있음	83.9
		보통	13.7
		의향 없음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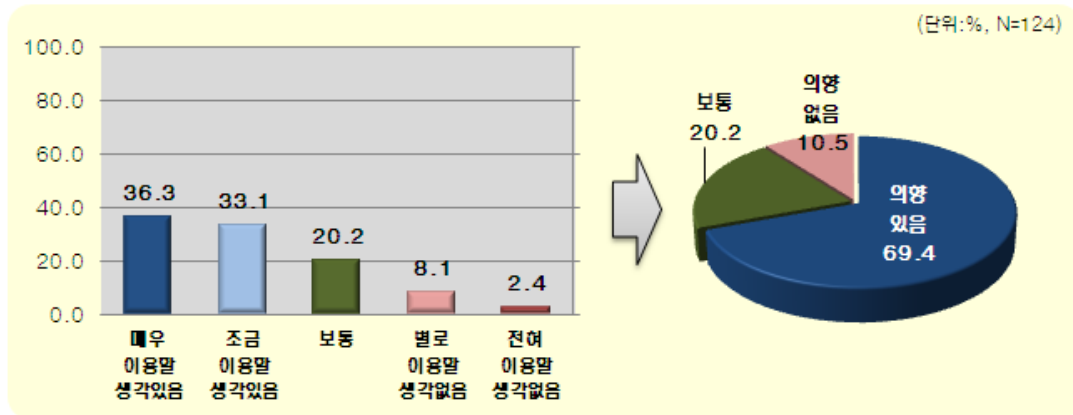
구분		내용[단위 : %]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청소년수련원	도움	79.8
		보통	16.9
		도움 안 됨	3.2
	청소년수련관	도움	82.3
		보통	16.9
		도움 안 됨	0.8
	청소년문화의집	도움	85.5
		보통	13.7
		도움 안 됨	0.8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청소년수련원	필요	77.4
		보통	18.5
		불필요	4.0
	청소년수련관	필요	79.8
		보통	18.5
		불필요	1.6
	청소년문화의집	필요	83.9
		보통	15.3
		불필요	0.8

(1)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①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원

69.4%는 청소년수련원 이용 의향이 있음

[매우 이용할 생각 있음 36.3%, 조금 이용할 생각 있음 33.1%]



【그림 VI-34】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원

표 VI-71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매우 이용할 생각 있음	조금 이용할 생각 있음	보통	별로 이용할 생각 없음	전혀 이용할 생각 없음	*의향 있음*	*보통*	*의향 없음*
전체		124	36.3	33.1	20.2	8.1	2.4	69.4	20.2	10.5
성별	남성	31	45.2	29.0	9.7	12.9	3.2	74.2	9.7	16.1
	여성	93	33.3	34.4	23.7	6.5	2.2	67.7	23.7	8.6
학교급	중학교	35	34.3	34.3	20.0	8.6	2.9	68.6	20.0	11.4
	고등학교	89	37.1	32.6	20.2	7.9	2.2	69.7	20.2	10.1
거주지역	수도권	73	34.2	32.9	17.8	11.0	4.1	67.1	17.8	15.1
	경상권	26	38.5	38.5	19.2	3.8	0.0	76.9	19.2	3.8
	충청권	6	50.0	33.3	16.7	0.0	0.0	83.3	16.7	0.0
	전라권	19	36.8	26.3	31.6	5.3	0.0	63.2	31.6	5.3
지역특징	대도시	46	39.1	30.4	17.4	8.7	4.3	69.6	17.4	13.0
	중소도시	59	35.6	39.0	16.9	6.8	1.7	74.6	16.9	8.5
	농산어촌	19	31.6	21.1	36.8	10.5	0.0	52.6	36.8	10.5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3	33.3	33.3	0.0	0.0	33.3	66.7	0.0	33.3
	청소년수련관	63	38.1	33.3	22.2	4.8	1.6	71.4	22.2	6.3
	청소년문화의집	58	34.5	32.8	19.0	12.1	1.7	67.2	19.0	13.8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 생각(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의향 있다’는 응답이 69.4%(매우 이용할 생각 있음: 36.3% + 조금 이용할 생각 있음: 33.1%), ‘의향 없다’는 응답이 10.5%(전혀 이용할 생각 없음: 2.4% + 별로 이용할 생각 없음: 8.1%)로 나타나, 의향 있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0.2%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의향 있다’는 응답은 남성(74.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경상권(76.9%) 및 충청권(83.3%)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중소도시(74.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72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0.195 (0.659)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0.076 (0.783)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0.923 (0.400)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0.452 (0.638)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0.675 (0.413)
	청소년문화의집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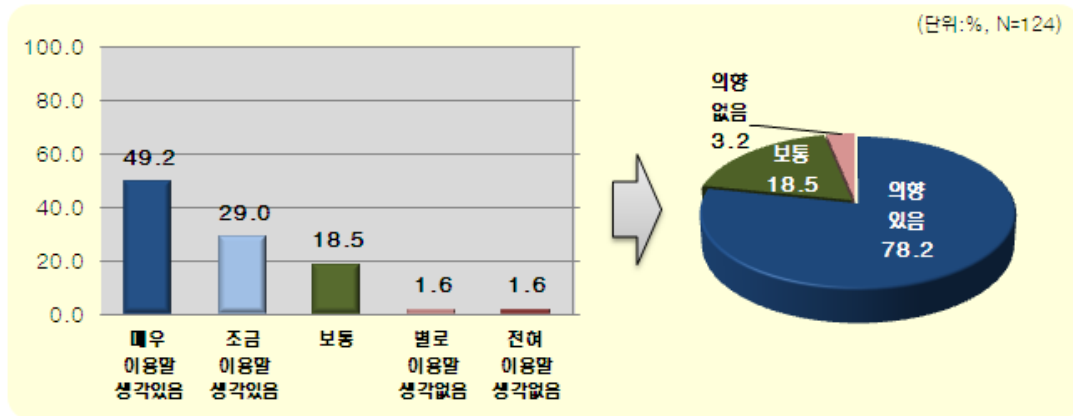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②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관

78.2%는 청소년수련관 이용 의향이 있음

[매우 이용할 생각 있음 49.2%, 조금 이용할 생각 있음 29.0%]



【그림 VI-35】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관

표 VI-73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매우 이용할 생각 있음	조금 이용할 생각 있음	보통	별로 이용할 생각 없음	전혀 이용할 생각 없음	*의향 있음*	*보통*	*의향 없음*
전체		124	49.2	29.0	18.5	1.6	1.6	78.2	18.5	3.2
성별	남성	31	54.8	35.5	6.5	3.2	0.0	90.3	6.5	3.2
	여성	93	47.3	26.9	22.6	1.1	2.2	74.2	22.6	3.2
학교급	중학교	35	45.7	34.3	17.1	0.0	2.9	80.0	17.1	2.9
	고등학교	89	50.6	27.0	19.1	2.2	1.1	77.5	19.1	3.4
거주지역	수도권	73	45.2	28.8	20.5	2.7	2.7	74.0	20.5	5.5
	경상권	26	50.0	38.5	11.5	0.0	0.0	88.5	11.5	0.0
	충청권	6	66.7	33.3	0.0	0.0	0.0	100.0	0.0	0.0
	전라권	19	57.9	15.8	26.3	0.0	0.0	73.7	26.3	0.0
지역특징	대도시	46	54.3	28.3	10.9	2.2	4.3	82.6	10.9	6.5
	중소도시	59	45.8	32.2	20.3	1.7	0.0	78.0	20.3	1.7
	농산어촌	19	47.4	21.1	31.6	0.0	0.0	68.4	31.6	0.0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3	33.3	0.0	33.3	0.0	33.3	33.3	33.3	33.3
	청소년수련관	63	61.9	23.8	14.3	0.0	0.0	85.7	14.3	0.0
시설유형		청소년문화의집	58	36.2	36.2	22.4	3.4	72.4	22.4	5.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생각(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의향 있다’는 응답이 78.2%(매우 이용할 생각 있음: 49.2% + 조금 이용할 생각 있음: 29.0%), ‘의향 없다’는 응답이 3.2%(전혀 이용할 생각 없음: 1.6% + 별로 이용할 생각 없음: 1.6%)로 나타나, 의향 있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8.5%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의향 있다’는 응답은 남성(90.3%), 중학교(80.0%)에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경상권(88.5%) 및 충청권(100.0%),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82.6%)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85.7%)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74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1.850 (0.176)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0.038 (0.845)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1.434 (0.242)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0.085 (0.918)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8.937** (0.003)
	청소년문화의집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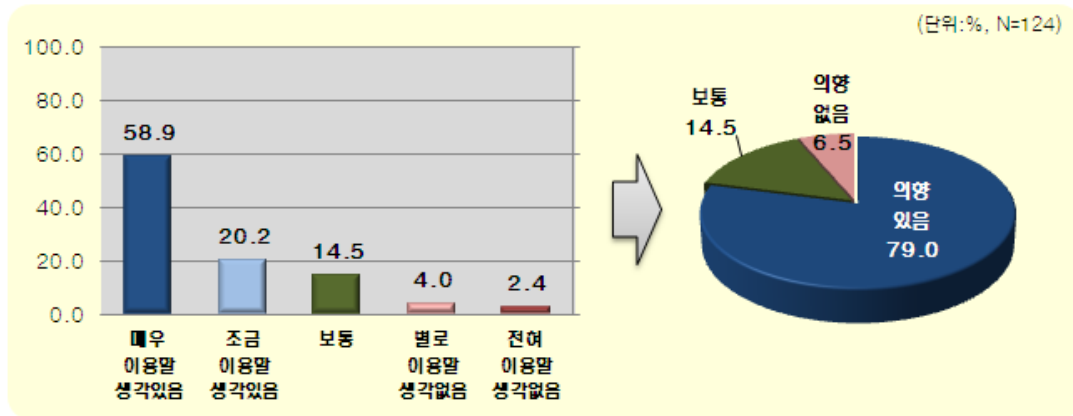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③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79.0%는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의향이 있음

[매우 이용할 생각 있음 58.9%, 조금 이용할 생각 있음 20.2%]



【그림 VI-36】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표 VI-75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매우 이용할 생각 있음	조금 이용할 생각 있음	보통	별로 이용할 생각 없음	전혀 이용할 생각 없음	*의향 있음*	*보통*	*의향 없음*
전체		124	58.9	20.2	14.5	4.0	2.4	79.0	14.5	6.5
성별	남성	31	61.3	29.0	3.2	0.0	6.5	90.3	3.2	6.5
	여성	93	58.1	17.2	18.3	5.4	1.1	75.3	18.3	6.5
학교급	중학교	35	68.6	20.0	11.4	0.0	0.0	88.6	11.4	0.0
	고등학교	89	55.1	20.2	15.7	5.6	3.4	75.3	15.7	9.0
거주지역	수도권	73	58.9	19.2	13.7	5.5	2.7	78.1	13.7	8.2
	경상권	26	73.1	19.2	3.8	3.8	0.0	92.3	3.8	3.8
	충청권	6	50.0	33.3	16.7	0.0	0.0	83.3	16.7	0.0
	전라권	19	42.1	21.1	31.6	0.0	5.3	63.2	31.6	5.3
지역특징	대도시	46	67.4	13.0	10.9	6.5	2.2	80.4	10.9	8.7
	중소도시	59	55.9	27.1	11.9	3.4	1.7	83.1	11.9	5.1
	농산어촌	19	47.4	15.8	31.6	0.0	5.3	63.2	31.6	5.3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3	33.3	0.0	33.3	0.0	33.3	33.3	33.3	33.3
	청소년수련관	63	42.9	28.6	19.0	6.3	3.2	71.4	19.0	9.5
	청소년문화의집	58	77.6	12.1	8.6	1.7	0.0	89.7	8.6	1.7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생각(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의향 있다'는 응답이 79.0%(매우 이용할 생각 있음: 58.9% + 조금 이용할 생각 있음: 20.2%), '의향 없다'는 응답이 6.5%(전혀 이용할 생각 없음: 2.4% + 별로 이용할 생각 없음: 4.0%)로 나타나, 의향 있다는 응답이 없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4.5%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의향 있다'는 응답은 남성(90.3%), 중학교(88.6%)에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경상권(92.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특징별로는 중소도시(83.1%)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89.7%)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학교급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학교급, 0.1% 수준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76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0.371 (0.543)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5.557* (0.020)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2.151 (0.121)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0.939 (0.394)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14.868*** (0.000)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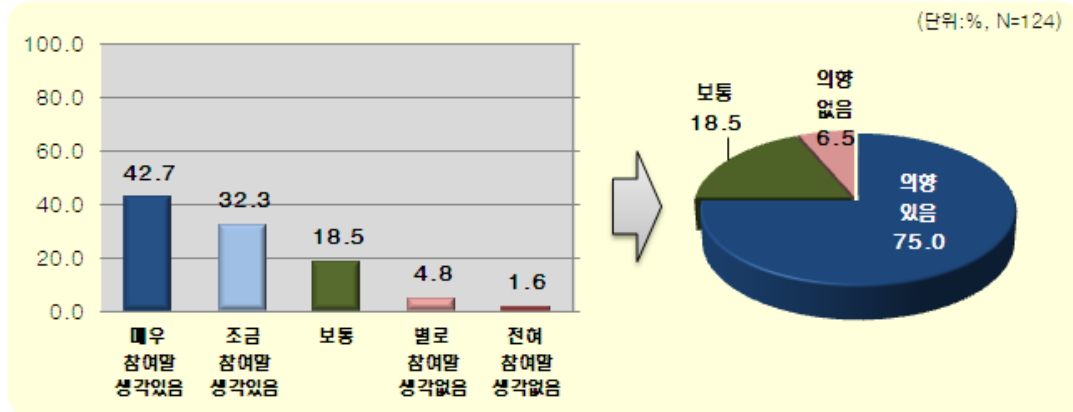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2)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①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원

75.0%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의향이 있음

[매우 참여할 생각 있음 42.7%, 조금 참여할 생각 있음 32.3%]



【그림 VI-37】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원

표 VI-77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매우 참여할 생각 있음	조금 참여할 생각 있음	보통	별로 참여할 생각 없음	전혀 참여할 생각 없음	*의향 있음*	*보통*	*의향 없음*
전체		124	42.7	32.3	18.5	4.8	1.6	75.0	18.5	6.5
성별	남성	31	45.2	29.0	12.9	6.5	6.5	74.2	12.9	12.9
	여성	93	41.9	33.3	20.4	4.3	0.0	75.3	20.4	4.3
학교급	중학교	35	40.0	34.3	20.0	5.7	0.0	74.3	20.0	5.7
	고등학교	89	43.8	31.5	18.0	4.5	2.2	75.3	18.0	6.7
거주지역	수도권	73	38.4	31.5	21.9	6.8	1.4	69.9	21.9	8.2
	경상권	26	42.3	46.2	7.7	3.8	0.0	88.5	7.7	3.8
	충청권	6	66.7	16.7	16.7	0.0	0.0	83.3	16.7	0.0
	전라권	19	52.6	21.1	21.1	0.0	5.3	73.7	21.1	5.3
지역특징	대도시	46	45.7	32.6	17.4	4.3	0.0	78.3	17.4	4.3
	중소도시	59	42.4	35.6	15.3	5.1	1.7	78.0	15.3	6.8
	농산어촌	19	36.8	21.1	31.6	5.3	5.3	57.9	31.6	10.5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3	33.3	33.3	33.3	0.0	0.0	66.7	33.3	0.0
	청소년수련관	63	47.6	31.7	15.9	1.6	3.2	79.4	15.9	4.8
	청소년문화의집	58	37.9	32.8	20.7	8.6	0.0	70.7	20.7	8.6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원에서 제공하는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의향 있다'는 응답이 75.0%(매우 참여할 생각 있음: 42.7% + 조금 참여할 생각 있음: 32.3%), '의향 없다'는 응답이 6.5%(전혀 참여할 생각 없음: 1.6% + 별로 참여할 생각 없음: 4.8%)로 나타나, 의향 있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8.5%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의향 있다'는 응답은 경상권(88.5%)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78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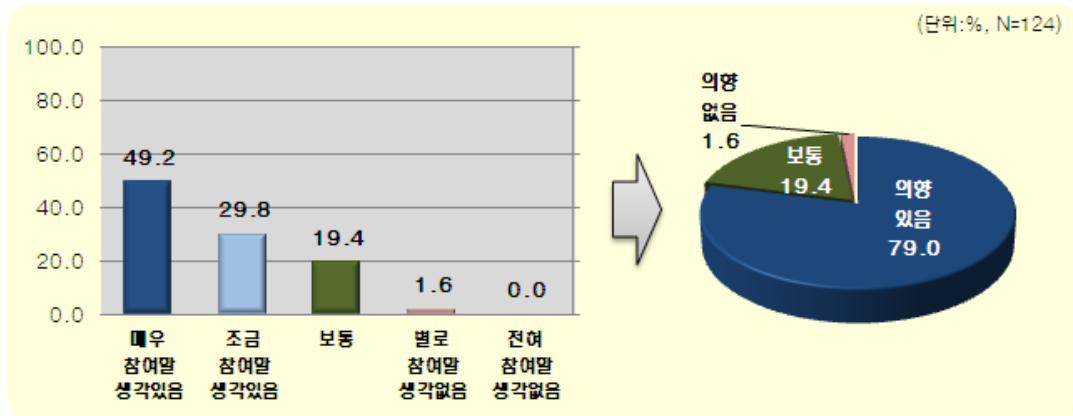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0.406 (0.525)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0.006 (0.937)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1.149 (0.320)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1.200 (0.305)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0.675 (0.413)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②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관

79.0%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의향이 있음
[매우 참여할 생각 있음 49.2%, 조금 참여할 생각 있음 29.8%]



[그림 VI-38]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관

표 VI-79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매우 참여할 생각 있음	조금 참여할 생각 있음	보통	별로 참여할 생각 없음	전혀 참여할 생각 없음	*의향 있음*	*보통*	*의향 없음*
전체		124	49.2	29.8	19.4	1.6	0.0	79.0	19.4	1.6
성별	남성	31	51.6	35.5	9.7	3.2	0.0	87.1	9.7	3.2
	여성	93	48.4	28.0	22.6	1.1	0.0	76.3	22.6	1.1
학교급	중학교	35	42.9	34.3	22.9	0.0	0.0	77.1	22.9	0.0
	고등학교	89	51.7	28.1	18.0	2.2	0.0	79.8	18.0	2.2
거주지역	수도권	73	43.8	32.9	20.5	2.7	0.0	76.7	20.5	2.7
	경상권	26	50.0	38.5	11.5	0.0	0.0	88.5	11.5	0.0
	충청권	6	50.0	16.7	33.3	0.0	0.0	66.7	33.3	0.0
	전라권	19	68.4	10.5	21.1	0.0	0.0	78.9	21.1	0.0
지역특징	대도시	46	54.3	30.4	13.0	2.2	0.0	84.8	13.0	2.2
	중소도시	59	45.8	33.9	18.6	1.7	0.0	79.7	18.6	1.7
	농산어촌	19	47.4	15.8	36.8	0.0	0.0	63.2	36.8	0.0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3	33.3	33.3	33.3	0.0	0.0	66.7	33.3	0.0
	청소년수련관	63	61.9	20.6	17.5	0.0	0.0	82.5	17.5	0.0
시설유형	청소년문화의집	58	36.2	39.7	20.7	3.4	0.0	75.9	20.7	3.4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의향 있다'는 응답이 79.0%(매우 참여할 생각 있음: 49.2% + 조금 참여할 생각 있음: 29.8%), '의향 없다'는 응답이 1.6%(전혀 참여할 생각 없음: 0.0% + 별로 참여할 생각 없음: 1.6%)로 나타나, 의향 있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9.4%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의향 있다'는 응답은 남성(87.1%)에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경상권(88.5%),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84.8%)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82.5%)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80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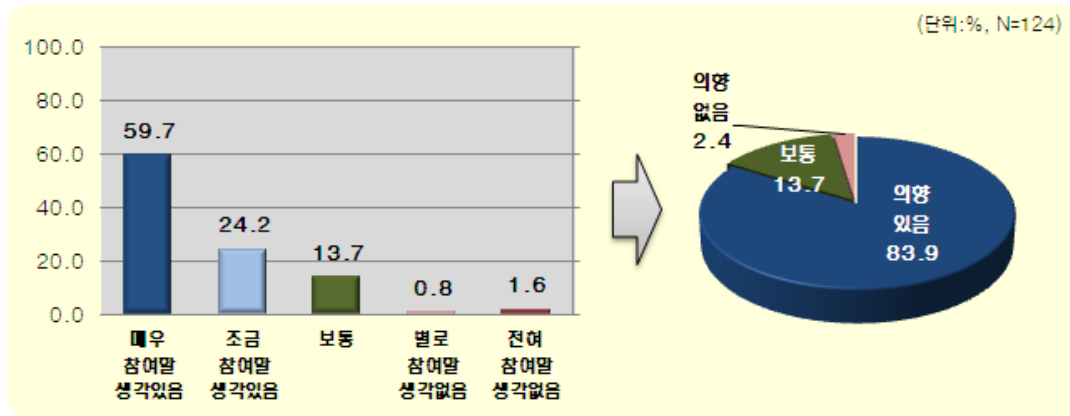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0.473 (0.493)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0.310 (0.579)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1.007 (0.368)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0.751 (0.474)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5.903* (0.017)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③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83.9%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의향이 있음
 [매우 참여할 생각 있음 59.7%, 조금 참여할 생각 있음 24.2%]



【그림 VI-39】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표 VI-81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매우 참여할 생각 있음	조금 참여할 생각 있음	보통	별로 참여할 생각 없음	전혀 참여할 생각 없음	*의향 있음*	*보통*	*의향 없음*
전체		124	59.7	24.2	13.7	0.8	1.6	83.9	13.7	2.4
성별	남성	31	67.7	22.6	3.2	0.0	6.5	90.3	3.2	6.5
	여성	93	57.0	24.7	17.2	1.1	0.0	81.7	17.2	1.1
학교급	중학교	35	74.3	20.0	5.7	0.0	0.0	94.3	5.7	0.0
	고등학교	89	53.9	25.8	16.9	1.1	2.2	79.8	16.9	3.4
거주지역	수도권	73	60.3	24.7	12.3	1.4	1.4	84.9	12.3	2.7
	경상권	26	61.5	30.8	7.7	0.0	0.0	92.3	7.7	0.0
	충청권	6	50.0	16.7	33.3	0.0	0.0	66.7	33.3	0.0
	전라권	19	57.9	15.8	21.1	0.0	5.3	73.7	21.1	5.3
지역특징	대도시	46	71.7	19.6	6.5	2.2	0.0	91.3	6.5	2.2
	중소도시	59	54.2	30.5	13.6	0.0	1.7	84.7	13.6	1.7
	농산어촌	19	47.4	15.8	31.6	0.0	5.3	63.2	31.6	5.3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3	33.3	33.3	33.3	0.0	0.0	66.7	33.3	0.0
	청소년수련관	63	47.6	27.0	20.6	1.6	3.2	74.6	20.6	4.8
	청소년문화의집	58	74.1	20.7	5.2	0.0	0.0	94.8	5.2	0.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제공하는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의향 있다'는 응답이 83.9%(매우 참여할 생각 있음: 59.7% + 조금 참여할 생각 있음: 24.2%), '의향 없다'는 응답이 2.4%(전혀 참여할 생각 없음: 1.6% + 별로 참여할 생각 없음: 0.8%)로 나타나, 의향 있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3.7%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의향 있다'는 응답은 남성(90.3%), 중학교(94.3%)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로는 경상권(92.3%),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91.3%)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94.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학교급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는 학교급, 0.1% 수준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82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0.172 (0.679)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8.337** (0.005)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0.938 (0.398)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2.900 (0.065)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13.664*** (0.000)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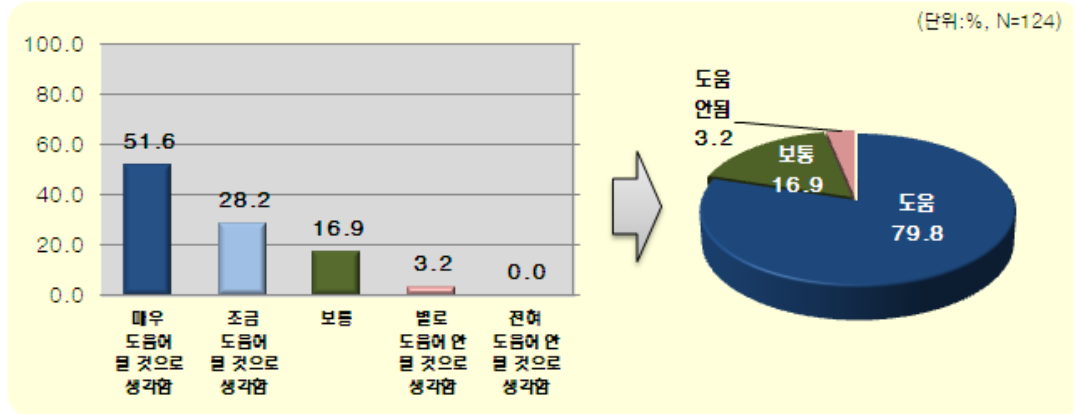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3)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①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수련원

79.8%는 청소년수련원 이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51.6%,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28.2%]



【그림 VI-40】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청소년수련원

표 VI-83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보통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도움*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124	51.6	28.2	16.9	3.2	0.0	79.8	16.9	3.2
성별	남성	31	51.6	32.3	9.7	6.5	0.0	83.9	9.7	6.5
	여성	93	51.6	26.9	19.4	2.2	0.0	78.5	19.4	2.2
학교급	중학교	35	54.3	31.4	11.4	2.9	0.0	85.7	11.4	2.9
	고등학교	89	50.6	27.0	19.1	3.4	0.0	77.5	19.1	3.4
거주지역	수도권	73	47.9	32.9	16.4	2.7	0.0	80.8	16.4	2.7
	경상권	26	50.0	30.8	15.4	3.8	0.0	80.8	15.4	3.8
	충청권	6	66.7	16.7	16.7	0.0	0.0	83.3	16.7	0.0
	전라권	19	63.2	10.5	21.1	5.3	0.0	73.7	21.1	5.3
지역특징	대도시	46	52.2	34.8	13.0	0.0	0.0	87.0	13.0	0.0
	중소도시	59	54.2	25.4	16.9	3.4	0.0	79.7	16.9	3.4
	농산어촌	19	42.1	21.1	26.3	10.5	0.0	63.2	26.3	10.5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3	66.7	0.0	33.3	0.0	0.0	66.7	33.3	0.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57.1	22.2	17.5	3.2	0.0	79.4	17.5	3.2
	청소년문화의집	58	44.8	36.2	15.5	3.4	0.0	81.0	15.5	3.4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79.8%(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51.6% +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28.2%)로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 3.2%(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0.0% +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3.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6.9%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남성(83.9%), 중학교(85.7%)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87.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표 VI-84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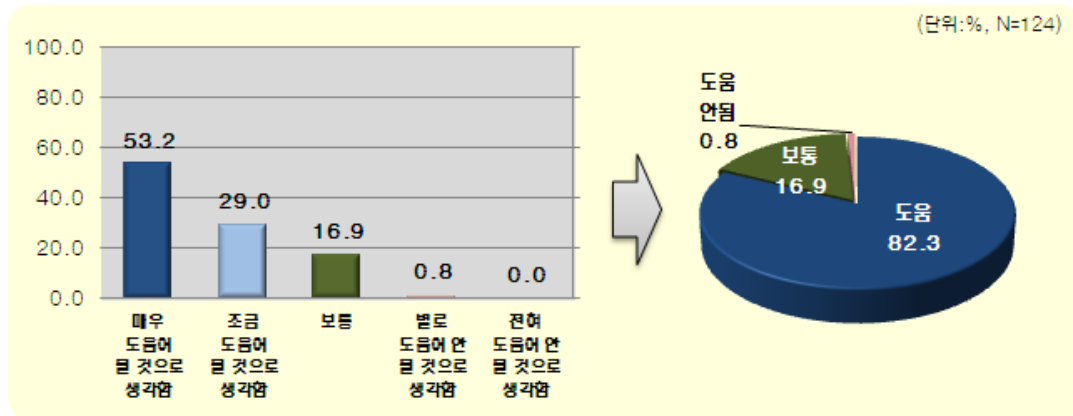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0.004 (0.952)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0.521 (0.472)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0.127 (0.881)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1.350 (0.269)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0.486 (0.487)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②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수련관

82.3%는 청소년수련관 이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53.2%,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29.0%]



【그림 VI-41】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수련관

표 VI-85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보통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도움*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124	53.2	29.0	16.9	0.8	0.0	82.3	16.9	0.8
성별	남성	31	58.1	38.7	3.2	0.0	0.0	96.8	3.2	0.0
	여성	93	51.6	25.8	21.5	1.1	0.0	77.4	21.5	1.1
학교급	중학교	35	57.1	34.3	8.6	0.0	0.0	91.4	8.6	0.0
	고등학교	89	51.7	27.0	20.2	1.1	0.0	78.7	20.2	1.1
거주지역	수도권	73	47.9	34.2	16.4	1.4	0.0	82.2	16.4	1.4
	경상권	26	53.8	26.9	19.2	0.0	0.0	80.8	19.2	0.0
	충청권	6	66.7	33.3	0.0	0.0	0.0	100.0	0.0	0.0
	전라권	19	68.4	10.5	21.1	0.0	0.0	78.9	21.1	0.0
지역특징	대도시	46	52.2	37.0	10.9	0.0	0.0	89.1	10.9	0.0
	중소도시	59	55.9	25.4	16.9	1.7	0.0	81.4	16.9	1.7
	농산어촌	19	47.4	21.1	31.6	0.0	0.0	68.4	31.6	0.0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3	66.7	0.0	33.3	0.0	0.0	66.7	33.3	0.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63.5	20.6	15.9	0.0	0.0	84.1	15.9	0.0
	청소년문화의집	58	41.4	39.7	17.2	1.7	0.0	81.0	17.2	1.7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82.3%(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53.2% +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29.0%)로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 0.8%(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0.0% +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0.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6.9%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남성(96.8%), 중학교(91.4%)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89.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 성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86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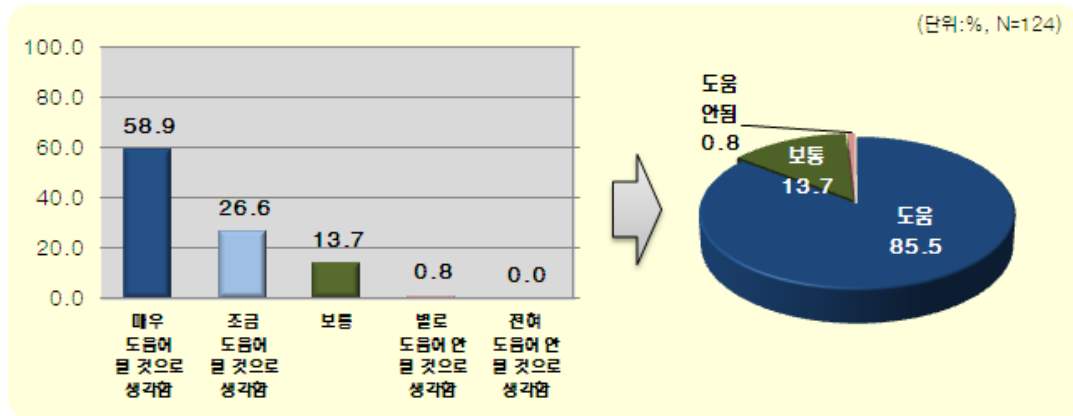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4.021* (0.048)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1.864 (0.176)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0.810 (0.447)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0.712 (0.493)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3.659 (0.058)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③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85.5%는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58.9%,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26.6%]



【그림 VI-42】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표 VI-87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보통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도움*	*보통*	*도움 안 됨*
전체		124	58.9	26.6	13.7	0.8	0.0	85.5	13.7	0.8
성별	남성	31	67.7	22.6	6.5	3.2	0.0	90.3	6.5	3.2
	여성	93	55.9	28.0	16.1	0.0	0.0	83.9	16.1	0.0
학교급	중학교	35	71.4	22.9	5.7	0.0	0.0	94.3	5.7	0.0
	고등학교	89	53.9	28.1	16.9	1.1	0.0	82.0	16.9	1.1
거주지역	수도권	73	60.3	27.4	12.3	0.0	0.0	87.7	12.3	0.0
	경상권	26	53.8	34.6	11.5	0.0	0.0	88.5	11.5	0.0
	충청권	6	50.0	33.3	16.7	0.0	0.0	83.3	16.7	0.0
	전라권	19	63.2	10.5	21.1	5.3	0.0	73.7	21.1	5.3
지역특징	대도시	46	58.7	34.8	6.5	0.0	0.0	93.5	6.5	0.0
	중소도시	59	62.7	22.0	15.3	0.0	0.0	84.7	15.3	0.0
	농산어촌	19	47.4	21.1	26.3	5.3	0.0	68.4	26.3	5.3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3	66.7	0.0	33.3	0.0	0.0	66.7	33.3	0.0
	청소년수련관	63	55.6	22.2	20.6	1.6	0.0	77.8	20.6	1.6
시설유형	청소년문화의집	58	62.1	32.8	5.2	0.0	0.0	94.8	5.2	0.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85.5%(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58.9% +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26.6%)로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 0.8%(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0.0% +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0.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3.7%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남성(90.3%), 중학교(94.3%)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93.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94.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학교급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 학교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88 청소년시설 예상 도움 정도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0.919 (0.340)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5.557* (0.021)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0.414 (0.662)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1.417 (0.253)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3.553 (0.062)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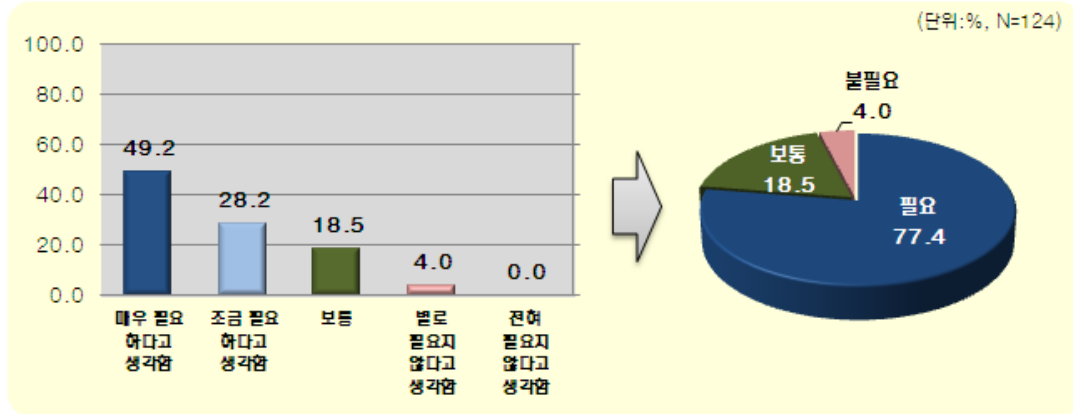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4)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①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원

77.4%는 거주지역에 청소년수련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함 49.2%,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함 28.2%]



【그림 VI-43】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원

표 VI-89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매우 필요 하다고 생각함	조금 필요 하다고 생각함	보통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124	49.2	28.2	18.5	4.0	0.0	77.4	18.5	4.0
성별	남성	31	61.3	38.7	0.0	0.0	0.0	100.0	0.0	0.0
	여성	93	45.2	24.7	24.7	5.4	0.0	69.9	24.7	5.4
학교급	중학교	35	54.3	25.7	17.1	2.9	0.0	80.0	17.1	2.9
	고등학교	89	47.2	29.2	19.1	4.5	0.0	76.4	19.1	4.5
거주지역	수도권	73	41.1	37.0	16.4	5.5	0.0	78.1	16.4	5.5
	경상권	26	57.7	11.5	26.9	3.8	0.0	69.2	26.9	3.8
	충청권	6	66.7	33.3	0.0	0.0	0.0	100.0	0.0	0.0
	전라권	19	63.2	15.8	21.1	0.0	0.0	78.9	21.1	0.0
지역특징	대도시	46	45.7	28.3	23.9	2.2	0.0	73.9	23.9	2.2
	중소도시	59	52.5	30.5	11.9	5.1	0.0	83.1	11.9	5.1
	농산어촌	19	47.4	21.1	26.3	5.3	0.0	68.4	26.3	5.3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3	33.3	0.0	66.7	0.0	0.0	33.3	66.7	0.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47.6	34.9	14.3	3.2	0.0	82.5	14.3	3.2
	청소년문화의집	58	51.7	22.4	20.7	5.2	0.0	74.1	20.7	5.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었으면 좋겠다(필요성)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77.4%(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함: 49.2% +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함: 28.2%)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4.0%(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0.0% +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4.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8.5%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남성(100.0%), 중학교(80.0%)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중소도시(83.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성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90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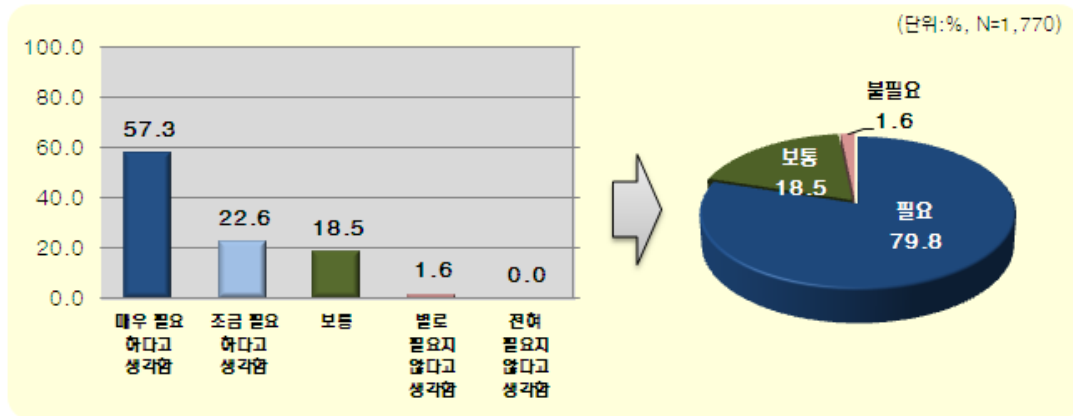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15.015*** (0.000)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0.479 (0.490)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1.389 (0.253)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0.481 (0.619)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0.152 (0.698)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②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

79.8%는 거주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하다고 생각,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함 57.3%,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함 22.6%]



【그림 VI-44】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

표 VI-91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매우 필요 하다고 생각함	조금 필요 하다고 생각함	보통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124	57.3	22.6	18.5	1.6	0.0	79.8	18.5	1.6
성별	남성	31	74.2	22.6	3.2	0.0	0.0	96.8	3.2	0.0
	여성	93	51.6	22.6	23.7	2.2	0.0	74.2	23.7	2.2
학교급	중학교	35	60.0	25.7	14.3	0.0	0.0	85.7	14.3	0.0
	고등학교	89	56.2	21.3	20.2	2.2	0.0	77.5	20.2	2.2
거주지역	수도권	73	49.3	32.9	15.1	2.7	0.0	82.2	15.1	2.7
	경상권	26	65.4	7.7	26.9	0.0	0.0	73.1	26.9	0.0
	충청권	6	66.7	16.7	16.7	0.0	0.0	83.3	16.7	0.0
	전라권	19	73.7	5.3	21.1	0.0	0.0	78.9	21.1	0.0
지역특징	대도시	46	47.8	23.9	28.3	0.0	0.0	71.7	28.3	0.0
	중소도시	59	64.4	23.7	8.5	3.4	0.0	88.1	8.5	3.4
	농산어촌	19	57.9	15.8	26.3	0.0	0.0	73.7	26.3	0.0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3	33.3	0.0	66.7	0.0	0.0	33.3	66.7	0.0
	청소년수련관	63	58.7	22.2	17.5	1.6	0.0	81.0	17.5	1.6
시설유형	청소년문화의집	58	56.9	24.1	17.2	1.7	0.0	81.0	17.2	1.7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었으면 좋겠다(필요성)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79.8%(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함: 57.3% +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함: 22.6%)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1.6%(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0.0% +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1.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8.5%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남성(96.8%), 중학교(85.7%)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중소도시(88.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성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92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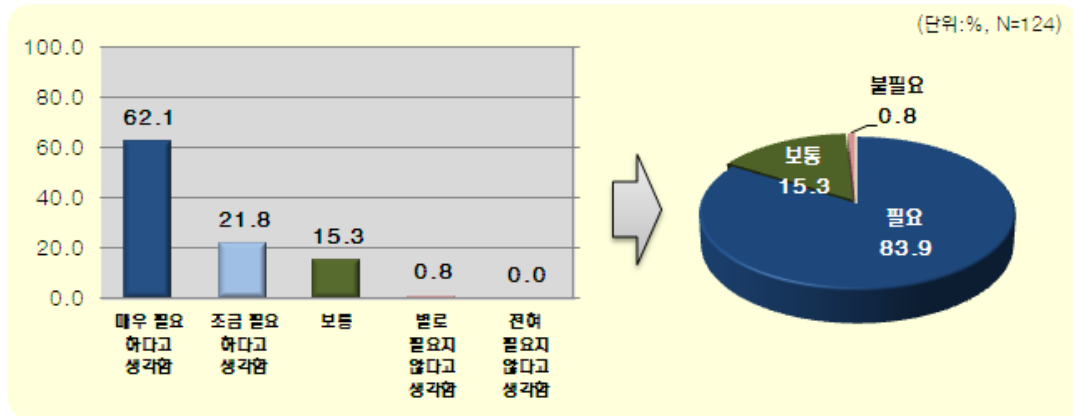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12.772*** (0.001)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0.725 (0.396)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0.733 (0.483)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1.653 (0.196)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0.016 (0.901)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③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문화의집

83.9%는 거주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함 62.1%,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함 21.8%]



【그림 VI-45】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문화의집

표 VI-93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매우 필요 하다고 생각함	조금 필요 하다고 생각함	보통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124	62.1	21.8	15.3	0.8	0.0	83.9	15.3	0.8
성별	남성	31	71.0	22.6	6.5	0.0	0.0	93.5	6.5	0.0
	여성	93	59.1	21.5	18.3	1.1	0.0	80.6	18.3	1.1
학교급	중학교	35	77.1	17.1	5.7	0.0	0.0	94.3	5.7	0.0
	고등학교	89	56.2	23.6	19.1	1.1	0.0	79.8	19.1	1.1
거주지역	수도권	73	60.3	24.7	13.7	1.4	0.0	84.9	13.7	1.4
	경상권	26	69.2	11.5	19.2	0.0	0.0	80.8	19.2	0.0
	충청권	6	50.0	50.0	0.0	0.0	0.0	100.0	0.0	0.0
	전라권	19	63.2	15.8	21.1	0.0	0.0	78.9	21.1	0.0
지역특징	대도시	46	65.2	17.4	17.4	0.0	0.0	82.6	17.4	0.0
	중소도시	59	62.7	25.4	10.2	1.7	0.0	88.1	10.2	1.7
	농산어촌	19	52.6	21.1	26.3	0.0	0.0	73.7	26.3	0.0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3	33.3	0.0	66.7	0.0	0.0	33.3	66.7	0.0
	청소년수련관	63	50.8	30.2	17.5	1.6	0.0	81.0	17.5	1.6
	청소년문화의집	58	75.9	13.8	10.3	0.0	0.0	89.7	10.3	0.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었으면 좋겠다(필요성)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83.9%(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함: 62.1% +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함: 21.8%)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0.8%(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0.0% +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0.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5.3%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남성(93.5%), 중학교(94.3%)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중소도시(88.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89.7%)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학교급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1% 수준에서는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94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필요성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3.471 (0.067)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7.855** (0.006)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0.062 (0.939)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0.656 (0.521)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6.885* (0.010)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4)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용어에 대한 인식

‘청소년활동’의 뜻을 알고 있었는지 살펴보면, 83.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몰랐다는 응답 4.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수련’의 뜻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청소년활동’의 뜻 인지 정도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81.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몰랐다는 응답 5.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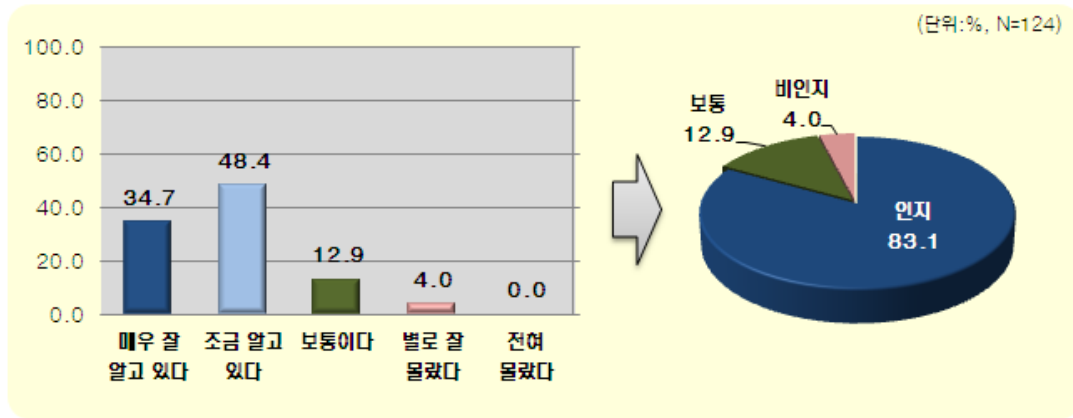
‘수련’이란 용어에서 어려운 훈련이나 강요된 교육과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1.9%로 나타나, 그렇다는 응답 29.8%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I-95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용어에 대한 인식

구분	내용[단위 : %]	
‘청소년활동’의 뜻 인지 정도	인지	83.1
	보통	12.9
	비인지	4.0
‘수련’의 뜻 인지 정도	인지	81.5
	보통	12.9
	비인지	5.6
‘수련’이란 용어의 부정적 느낌 정도	그렇다(부정)	29.8
	보통	28.2
	그렇지 않다(긍정)	41.9

(1) '청소년활동'의 뜻 인지 정도

83.1%는 '청소년활동'의 뜻을 인지하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다 34.7%, 조금 알고 있다 48.4%]



【그림 VI-46】 '청소년활동'의 뜻 인지 정도

표 VI-96 '청소년활동'의 뜻 인지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보통 이다	별로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인지*	*보통*	*비인지*
전체		124	34.7	48.4	12.9	4.0	0.0	83.1	12.9	4.0
성별	남성	31	29.0	61.3	3.2	6.5	0.0	90.3	3.2	6.5
	여성	93	36.6	44.1	16.1	3.2	0.0	80.6	16.1	3.2
학교급	중학교	35	28.6	60.0	8.6	2.9	0.0	88.6	8.6	2.9
	고등학교	89	37.1	43.8	14.6	4.5	0.0	80.9	14.6	4.5
거주지역	수도권	73	32.9	49.3	13.7	4.1	0.0	82.2	13.7	4.1
	경상권	26	46.2	42.3	11.5	0.0	0.0	88.5	11.5	0.0
	충청권	6	33.3	50.0	16.7	0.0	0.0	83.3	16.7	0.0
	전라권	19	26.3	52.6	10.5	10.5	0.0	78.9	10.5	10.5
지역특징	대도시	46	34.8	52.2	10.9	2.2	0.0	87.0	10.9	2.2
	중소도시	59	32.2	50.8	13.6	3.4	0.0	83.1	13.6	3.4
	농산어촌	19	42.1	31.6	15.8	10.5	0.0	73.7	15.8	10.5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3	33.3	33.3	0.0	33.3	0.0	66.7	0.0	33.3
	청소년수련관	63	28.6	52.4	12.7	6.3	0.0	81.0	12.7	6.3
시설유형	청소년문화의집	58	41.4	44.8	13.8	0.0	0.0	86.2	13.8	0.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활동’의 뜻 인지 정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83.1%(매우 잘 알고 있다: 34.7% + 조금 알고 있다: 48.4%)로 ‘몰랐다’는 응답 4.0%(전혀 몰랐다: 0.0% + 별로 잘 몰랐다: 4.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2.9%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남성(90.3%), 중학교(88.6%)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별로는 경상권(88.5%),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87.0%)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86.2%)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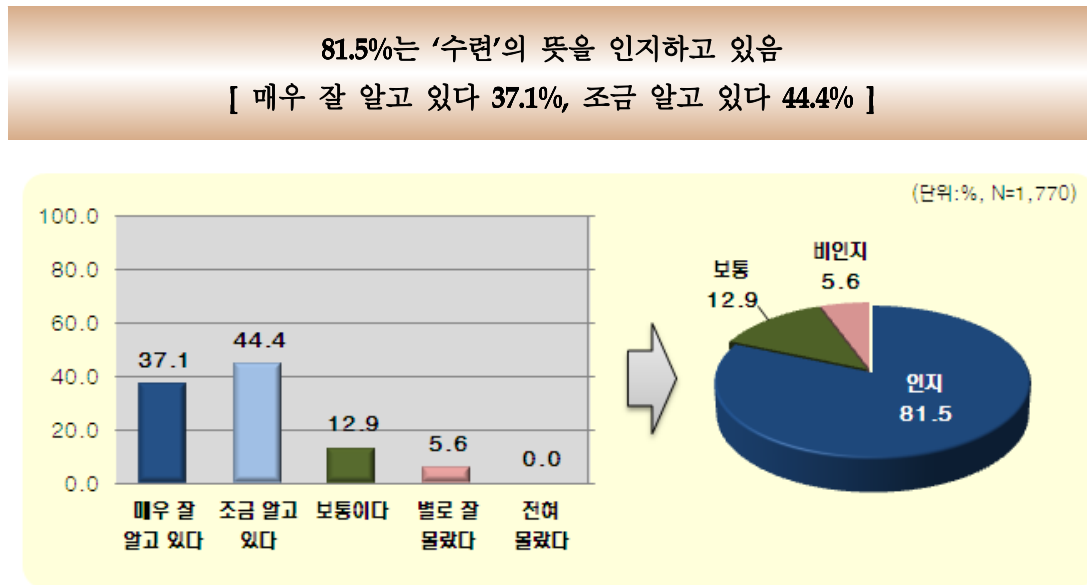
표 VI-97 ‘청소년활동’의 뜻 인지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0.004 (0.948)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0.003 (0.960)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1.340 (0.266)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0.248 (0.781)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3.080 (0.082)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2) '수련'의 뜻 인지 정도



【그림 VI-47】 '수련'의 뜻 인지 정도

표 VI-98 '수련'의 뜻 인지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보통 이다	별로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인지*	*보통*	*비인지*
전체		124	37.1	44.4	12.9	5.6	0.0	81.5	12.9	5.6
성별	남성	31	48.4	35.5	12.9	3.2	0.0	83.9	12.9	3.2
	여성	93	33.3	47.3	12.9	6.5	0.0	80.6	12.9	6.5
학교급	중학교	35	40.0	40.0	17.1	2.9	0.0	80.0	17.1	2.9
	고등학교	89	36.0	46.1	11.2	6.7	0.0	82.0	11.2	6.7
거주지역	수도권	73	37.0	42.5	15.1	5.5	0.0	79.5	15.1	5.5
	경상권	26	30.8	53.8	7.7	7.7	0.0	84.6	7.7	7.7
	충청권	6	50.0	33.3	16.7	0.0	0.0	83.3	16.7	0.0
	전라권	19	42.1	42.1	10.5	5.3	0.0	84.2	10.5	5.3
지역특징	대도시	46	45.7	32.6	13.0	8.7	0.0	78.3	13.0	8.7
	중소도시	59	28.8	55.9	11.9	3.4	0.0	84.7	11.9	3.4
	농산어촌	19	42.1	36.8	15.8	5.3	0.0	78.9	15.8	5.3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3	0.0	33.3	33.3	33.3	0.0	33.3	33.3	33.3
	청소년수련관	63	41.3	41.3	12.7	4.8	0.0	82.5	12.7	4.8
시설유형	청소년문화의집	58	34.5	48.3	12.1	5.2	0.0	82.8	12.1	5.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수련’의 뜻 인지 정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81.5%(매우 잘 알고 있다: 37.1% + 조금 알고 있다: 44.4%)로 ‘몰랐다’는 응답 5.6%(전혀 몰랐다: 0.0% + 별로 잘 몰랐다: 5.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2.9%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알고 있다’는 응답은 중소도시(84.7%)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VI-99 ‘수련’의 뜻 인지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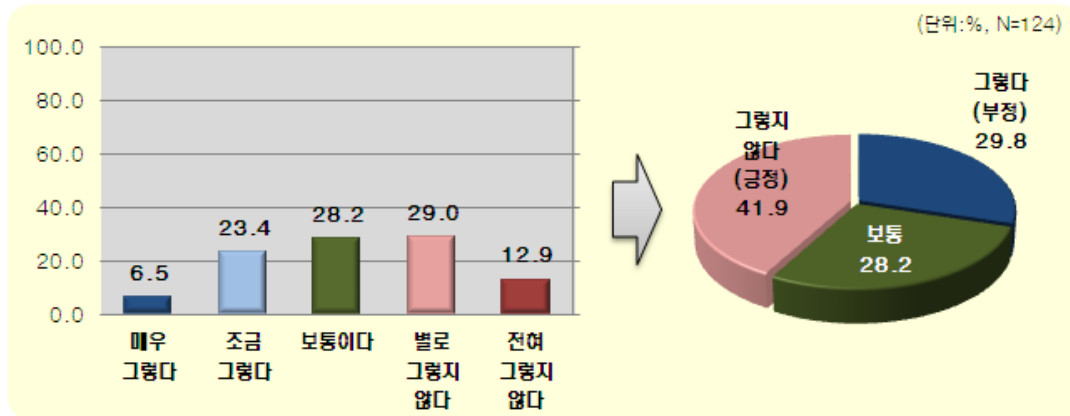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1.510 (0.221)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0.122 (0.728)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0.281 (0.756)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0.059 (0.943)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0.214 (0.645)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3) '수련'이란 용어의 부정적 느낌 정도

41.9%는 '수련'이란 용어의 부정적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12.9%, 별로 그렇지 않다 29.0%]



【그림 VI-48】 '수련'이란 용어의 부정적 느낌 정도

표 VI-100 '수련'이란 용어의 부정적 느낌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부정)*	*보통*	*그렇지 않다 (긍정)*
전체		124	6.5	23.4	28.2	29.0	12.9	29.8	28.2	41.9
성별	남성	31	6.5	12.9	32.3	25.8	22.6	19.4	32.3	48.4
	여성	93	6.5	26.9	26.9	30.1	9.7	33.3	26.9	39.8
학교급	중학교	35	5.7	25.7	34.3	25.7	8.6	31.4	34.3	34.3
	고등학교	89	6.7	22.5	25.8	30.3	14.6	29.2	25.8	44.9
거주지역	수도권	73	2.7	24.7	31.5	31.5	9.6	27.4	31.5	41.1
	경상권	26	15.4	34.6	11.5	30.8	7.7	50.0	11.5	38.5
	충청권	6	16.7	0.0	16.7	50.0	16.7	16.7	16.7	66.7
	전라권	19	5.3	10.5	42.1	10.5	31.6	15.8	42.1	42.1
지역특징	대도시	46	6.5	23.9	26.1	34.8	8.7	30.4	26.1	43.5
	중소도시	59	5.1	27.1	25.4	30.5	11.9	32.2	25.4	42.4
	농산어촌	19	10.5	10.5	42.1	10.5	26.3	21.1	42.1	36.8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3	0.0	0.0	66.7	33.3	0.0	0.0	66.7	33.3
	청소년수련관	63	7.9	15.9	33.3	27.0	15.9	23.8	33.3	42.9
시설유형	청소년문화의집	58	5.2	32.8	20.7	31.0	10.3	37.9	20.7	41.4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수련’이란 용어에서 어려운 훈련이나 강요된 교육과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1.9%(전혀 그렇지 않다: 12.9% + 별로 그렇지 않다: 29.0%)로 ‘그렇다’는 응답 29.8%(매우 그렇다: 6.5% + 조금 그렇다: 23.4%)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8.2%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남성(48.4%), 고등학교(44.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VII-101 ‘수련’이란 용어의 부정적 느낌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2.322 (0.130)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0.628 (0.429)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2.633 (0.076)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0.150 (0.860)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0.782 (0.378)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기대

청소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90.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6%로 비교적 매우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시설이 청소년들에게 중점적으로 해주기 바라는 역할이나 기능으로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아리활동 지원이 19.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수업이 지역(동네)의 청소년시설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5.8%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3.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역(동네) 청소년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응답(69.4%)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 청소년활동, 청소년상담, 청소년보호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형태로는 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통합 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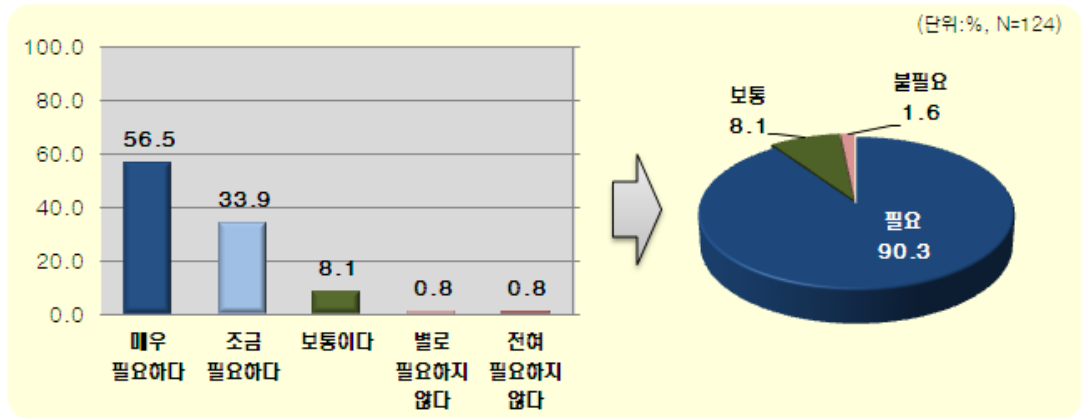
표 VI-102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기대

구분	내용[단위 : %]	
청소년시설 필요 정도	필요	90.3
	보통	8.1
	불필요	1.6
청소년시설에 바라는 역할 및 기능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제공	49.2
	동아리활동 지원	19.4
	학교수업과 연계	8.1
	청소년 상담	15.3
	어려운 청소년 지원	8.1
학교수업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 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필요	75.8
	보통	21.0
	불필요	3.2
방과후 프로그램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 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필요	69.4
	보통	25.8
	불필요	4.8

구분	내용[단위 : %]	
선호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형태	청소년 시설은 통합 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3.5
	청소년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9.8
	학교와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3.7
	어떤 식으로 운영되든 상관이 없을 것 같다	12.9

(1) 청소년시설 필요 정도

90.3%는 학생이나 또래 친구들에게 청소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
[매우 필요하다 56.5%, 조금 필요하다 33.9%]



【그림 VI-49】 청소년시설 필요 정도

표 VI-103 청소년시설 필요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필요 하다	조금 필요 하다	보통 이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124	56.5	33.9	8.1	0.8	0.8	90.3	8.1	1.6
성별	남성	31	58.1	41.9	0.0	0.0	0.0	100.0	0.0	0.0
	여성	93	55.9	31.2	10.8	1.1	1.1	87.1	10.8	2.2
학교급	중학교	35	48.6	42.9	5.7	2.9	0.0	91.4	5.7	2.9
	고등학교	89	59.6	30.3	9.0	0.0	1.1	89.9	9.0	1.1
거주지역	수도권	73	42.5	46.6	8.2	1.4	1.4	89.0	8.2	2.7
	경상권	26	80.8	19.2	0.0	0.0	0.0	100.0	0.0	0.0
	충청권	6	83.3	0.0	16.7	0.0	0.0	83.3	16.7	0.0
	전라권	19	68.4	15.8	15.8	0.0	0.0	84.2	15.8	0.0
지역특징	대도시	46	52.2	37.0	8.7	2.2	0.0	89.1	8.7	2.2
	중소도시	59	59.3	35.6	3.4	0.0	1.7	94.9	3.4	1.7
	농산어촌	19	57.9	21.1	21.1	0.0	0.0	78.9	21.1	0.0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3	66.7	0.0	33.3	0.0	0.0	66.7	33.3	0.0
	청소년수련관	63	55.6	33.3	7.9	1.6	1.6	88.9	7.9	3.2
	청소년문화의집	58	56.9	36.2	6.9	0.0	0.0	93.1	6.9	0.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90.3%(매우 필요하다: 56.5% + 조금 필요하다: 33.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6%(전혀 필요하지 않다: 0.8% + 별로 필요하지 않다: 0.8%)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8.1%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100.0%), 경상권(100.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특징별로는 중소도시(94.9%)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93.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거주지역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거주지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04 청소년시설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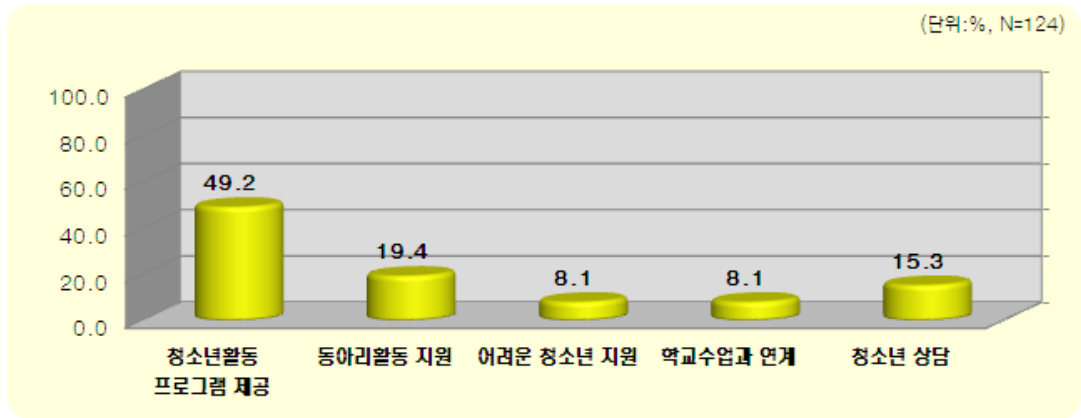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2.204 (0.141)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0.453 (0.502)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9.596*** (0.000)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0.428 (0.653)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0.583 (0.447)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2) 청소년시설에 바라는 역할 및 기능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제공이 49.3%로 가장 높음
동아리활동 지원 19.4% > 어려운 청소년 지원 8.1%



【그림 VI-50】 청소년시설에 바라는 역할 및 기능

표 VI-105 청소년시설에 바라는 역할 및 기능

단위[%]		사례수[명]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제공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상담	학교수업과 연계	어려운 청소년 지원
전체		124	49.2	19.4	15.3	8.1	8.1
성별	남성	31	58.1	29.0	6.5	0.0	6.5
	여성	93	46.2	16.1	18.3	10.8	8.6
학교급	중학교	35	42.9	22.9	17.1	5.7	11.4
	고등학교	89	51.7	18.0	14.6	9.0	6.7
거주지역	수도권	73	47.9	23.3	16.4	6.8	5.5
	경상권	26	42.3	15.4	15.4	11.5	15.4
	충청권	6	33.3	33.3	16.7	0.0	16.7
	전라권	19	68.4	5.3	10.5	10.5	5.3
지역특징	대도시	46	45.7	26.1	10.9	6.5	10.9
	중소도시	59	52.5	16.9	18.6	6.8	5.1
	농산어촌	19	47.4	10.5	15.8	15.8	10.5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3	66.7	0.0	0.0	33.3	0.0
	청소년수련관	63	52.4	25.4	9.5	9.5	3.2
시설유형	청소년문화의집	58	44.8	13.8	22.4	5.2	13.8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시설이 청소년들에게 중점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역할이나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동아리활동 지원’ 19.4%, ‘청소년 상담’ 15.3%, ‘학교수업과 연계’ 8.1%, ‘어려운 청소년 지원’ 8.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은 남성(58.1%), 고등학교(51.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전라권(68.4%), 지역특징별로는 중소도시(52.5%)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52.4%)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 바라는 역할 및 기능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06 청소년시설에 바라는 역할 및 기능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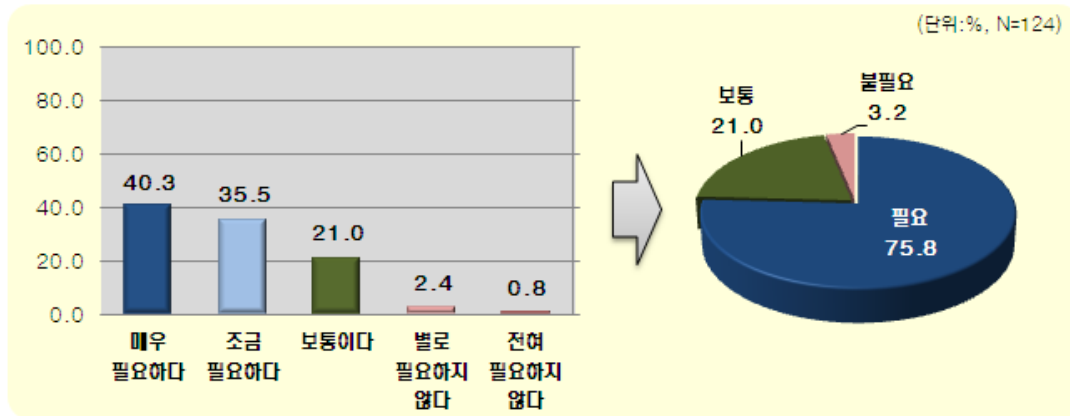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8.251 (0.083)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1.831 (0.767)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5.456 (0.708)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6.210 (0.624)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10.487* (0.033)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3) 학교수업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75.8%는 학교수업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매우 필요하다 40.3%, 조금 필요하다 35.5%]



【그림 VI-51】 학교수업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표 VI-107 학교수업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명]	매우 필요 하다	조금 필요 하다	보통 이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124	40.3	35.5	21.0	2.4	0.8	75.8	21.0	3.2
성별	남성	31	35.5	41.9	12.9	6.5	3.2	77.4	12.9	9.7
	여성	93	41.9	33.3	23.7	1.1	0.0	75.3	23.7	1.1
학교급	중학교	35	34.3	42.9	17.1	2.9	2.9	77.1	17.1	5.7
	고등학교	89	42.7	32.6	22.5	2.2	0.0	75.3	22.5	2.2
거주지역	수도권	73	31.5	39.7	23.3	4.1	1.4	71.2	23.3	5.5
	경상권	26	50.0	46.2	3.8	0.0	0.0	96.2	3.8	0.0
	충청권	6	50.0	16.7	33.3	0.0	0.0	66.7	33.3	0.0
	전라권	19	57.9	10.5	31.6	0.0	0.0	68.4	31.6	0.0
지역특징	대도시	46	32.6	45.7	19.6	0.0	2.2	78.3	19.6	2.2
	중소도시	59	42.4	35.6	16.9	5.1	0.0	78.0	16.9	5.1
	농산어촌	19	52.6	10.5	36.8	0.0	0.0	63.2	36.8	0.0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3	66.7	0.0	33.3	0.0	0.0	66.7	33.3	0.0
	청소년수련관	63	44.4	23.8	27.0	3.2	1.6	68.3	27.0	4.8
시설유형	청소년문화의집	58	34.5	50.0	13.8	1.7	0.0	84.5	13.8	1.7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학교에서의 수업이 지역(동네)의 청소년시설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75.8%(매우 필요하다: 40.3% + 조금 필요하다: 35.5%)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3.2%(전혀 필요하지 않다: 0.8% + 별로 필요하지 않다: 2.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1.0%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경상권(96.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84.5%)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거주지역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 거주지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08 학교수업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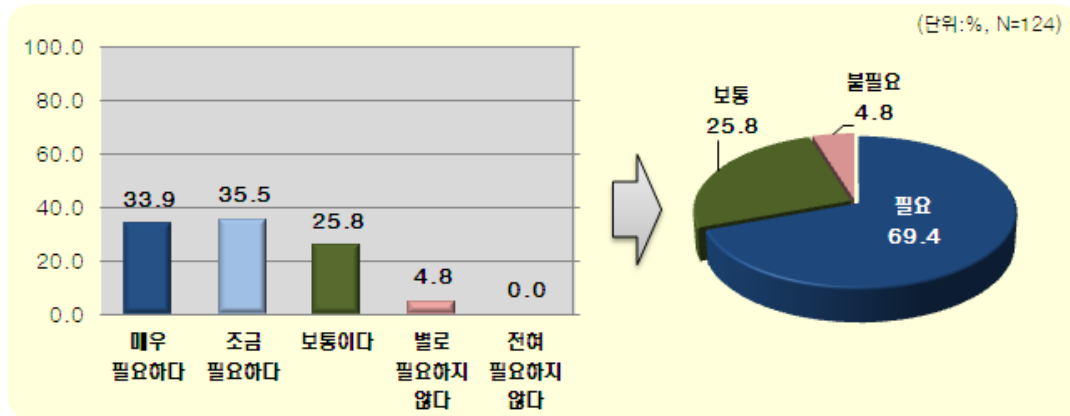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0.780 (0.379)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0.536 (0.466)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3.558* (0.032)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0.145 (0.865)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0.475 (0.492)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4) 방과후 프로그램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69.4%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매우 필요하다 33.9%, 조금 필요하다 35.5%]



【그림 VI-52】 방과후 프로그램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표 VI-109 방과후 프로그램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명]	매우 필요 하다	조금 필요 하다	보통 이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124	33.9	35.5	25.8	4.8	0.0	69.4	25.8	4.8
성별	남성	31	29.0	38.7	25.8	6.5	0.0	67.7	25.8	6.5
	여성	93	35.5	34.4	25.8	4.3	0.0	69.9	25.8	4.3
학교급	중학교	35	20.0	51.4	22.9	5.7	0.0	71.4	22.9	5.7
	고등학교	89	39.3	29.2	27.0	4.5	0.0	68.5	27.0	4.5
거주지역	수도권	73	23.3	38.4	31.5	6.8	0.0	61.6	31.5	6.8
	경상권	26	50.0	46.2	3.8	0.0	0.0	96.2	3.8	0.0
	충청권	6	33.3	16.7	50.0	0.0	0.0	50.0	50.0	0.0
	전라권	19	52.6	15.8	26.3	5.3	0.0	68.4	26.3	5.3
지역특징	대도시	46	32.6	39.1	23.9	4.3	0.0	71.7	23.9	4.3
	중소도시	59	32.2	37.3	25.4	5.1	0.0	69.5	25.4	5.1
	농산어촌	19	42.1	21.1	31.6	5.3	0.0	63.2	31.6	5.3
청소년운영 위원회 참여	청소년수련원	3	66.7	0.0	0.0	33.3	0.0	66.7	0.0	33.3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34.9	30.2	28.6	6.3	0.0	65.1	28.6	6.3
	청소년문화의집	58	31.0	43.1	24.1	1.7	0.0	74.1	24.1	1.7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역(동네)의 청소년시설과 연계되어 운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69.4%(매우 필요하다: 33.9% + 조금 필요하다: 35.5%)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4.8%(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 별로 필요하지 않다: 4.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5.8%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중학교(71.4%)에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경상권(96.2%), 지역특징별로는 대도시(71.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자(74.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거주지역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거주지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10 방과후 프로그램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운영되는 것에 대한 생각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0.336 (0.563)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0.983 (0.323)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9.629*** (0.000)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0.022 (0.978)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0.376 (0.541)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5) 선호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형태

43.5%는 통합 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
29.8%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



【그림 VI-53】 선호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형태

표 VI-III 선호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형태

단위[%]		사례수[명]	청소년시설은 통합 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청소년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학교와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든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전체		124	43.5	29.8	13.7	12.9
성별	남성	31	29.0	38.7	12.9	19.4
	여성	93	48.4	26.9	14.0	10.8
학교급	중학교	35	48.6	25.7	11.4	14.3
	고등학교	89	41.6	31.5	14.6	12.4
거주지역	수도권	73	45.2	27.4	11.0	16.4
	경상권	26	50.0	26.9	19.2	3.8
	충청권	6	33.3	16.7	33.3	16.7
	전라권	19	31.6	47.4	10.5	10.5
지역특징	대도시	46	41.3	32.6	13.0	13.0
	중소도시	59	47.5	25.4	13.6	13.6
	농산어촌	19	36.8	36.8	15.8	10.5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3	66.7	0.0	33.3	0.0
	청소년수련관	63	41.3	25.4	17.5	15.9
	청소년문화의집	58	44.8	36.2	8.6	10.3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 청소년활동, 청소년상담, 청소년보호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형태로 '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통합 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응답이 29.8%, '학교와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3.7% '어떤 식으로 운영되든 상관이 없을 것 같다' 12.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통합 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응답은 여성(48.4%), 중학교(48.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로는 경상권(50.0%)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징별로는 중소도시(47.5%)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112 선호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형태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124	
성별	남성	31	4.443 (0.217)
	여성	93	
학교급	중학교	35	0.818 (0.845)
	고등학교	89	
거주지역	수도권	73	5.598 (0.470)
	경상권	26	
	충청/전라권	25	
지역특징	대도시	46	1.452 (0.963)
	중소도시	59	
	농산어촌	19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시설유형	청소년수련관	63	3.725 (0.293)
	청소년문화의집	58	

*p<.05, **p<.01, ***p<.001

※ 위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충청권 및 청소년수련원은 표본 수가 매우 적어 충청권은 전라권에 포함 및 청소년수련원은 제외함

제 VII 장

시설종사자의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조사

1. 조사개요
2. 시설종사자의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

제Ⅶ장

시설종사자의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조사

1. 조사개요

1) 모집단의 정의

이 연구의 조사 모집단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 설계

- 조사표본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 312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5.55\%$ Point
- 조사방법 : 설문지 기반의 온라인 조사
- 표본추출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 대상 편의추출
- 조사기간 : 2015년 6월 10일 ~ 6월 30일
- 조사내용 :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재 역할 및 기능,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만족도 및 전문성, 교육정책 및 학교와의 연계,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관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향후 기대하는 수련시설의 역할 및 기능, 향후 수련시설에 기대하는 정체성 등

3) 응답자 특성

표 Ⅶ-1 응답자 특성

단위[%]		사례수[명]	%
전체		312	100.0
근무지역	수도권	127	40.7
	경상권	61	19.6
	충청권	25	8.0
	전라권	61	19.6
	강원제주권	38	12.2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30.4
	중소도시	127	40.7
	농산어촌	90	28.8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5.7
	청소년수련관	140	44.9
	청소년문화의집	123	39.4
운영주체	지자체직영	56	17.9
	법인	122	39.1
	민간위탁	102	32.7
	지자체 산하공단	32	10.3
직위	관장	29	9.3
	간부	56	17.9
	일반직원	227	72.8
자격증 보유	1급	33	10.6
	2급	193	61.9
	3급	24	7.7
	없음	62	19.9

2. 시설종사자의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

1)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재 역할 및 기능

현재 재직 중인 수련시설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역할과 기능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61.9%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련시설의 역할과 기능의 내용적 적절 정도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70.8%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에서 ‘수련’이란 용어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3.3%로 적절하다는 응답 27.2%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시설에 수지분석(수익확보) 요구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3.2%로 적절하다는 응답 18.9%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인 수련시설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85.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중요성과 실제 실행되고 있는 수준을 살펴보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도 및 실행수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는 중요도 및 실행수준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은 중요도(92.6%)는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실행수준(84.6%)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시설이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78.8%가 그렇다고 응답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 5.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VII-2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재 역할 및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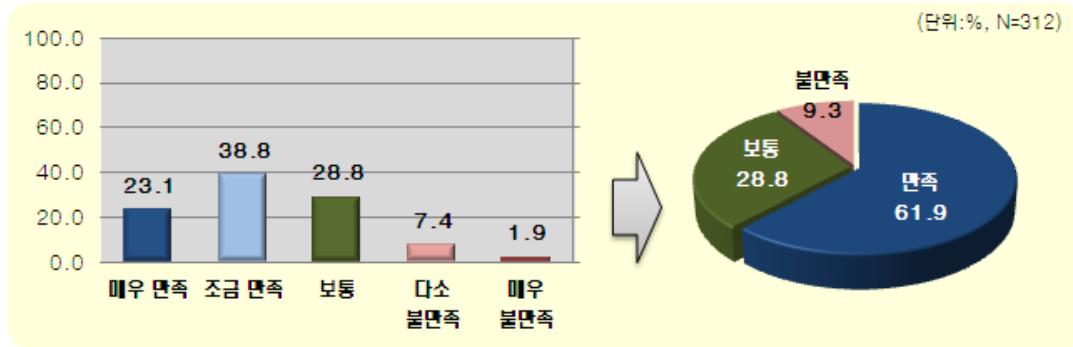
구분	내용[단위 : %]	
수련시설의 역할/기능에 대한 만족도	만족	61.9
	보통	28.8
	불만족	9.3
수련시설의 역할/기능의 내용적 적절 정도	적절	70.8
	보통	21.5
	부적절	7.7
시설 명칭에서 ‘수련’이란 용어의 적절 정도	적절	27.2
	보통	29.5
	부적절	43.3

구분		내용[단위 : %]	
수지분석 요구에 대한 적절 정도		적절	18.9
		보통	27.9
		부적절	53.2
수련시설의 ‘안전’ 대비 정도		대비	85.6
		보통	9.9
		대비 부족	4.5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	중요	89.1
		비중요	10.9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중요	98.4
		비중요	1.6
	동아리활동 운영	중요	91.0
		비중요	9.0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지단 등 자치조직 운영	중요	92.0
		비중요	8.0
	지역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중요	92.6
		비중요	7.4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	중요	92.3
		비중요	7.7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	중요	84.9
		비중요	15.1
	청소년 복지지원	중요	86.9
		비중요	13.1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	실행	78.5
		미실행	21.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실행	98.4
		미실행	1.6
	동아리활동 운영	실행	87.8
		미실행	12.2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지단 등 자치조직 운영	실행	88.5
		미실행	11.5
수련시설이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해 할일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정도	지역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실행	84.6
		미실행	15.4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	실행	84.9
		미실행	15.1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	실행	61.5
		미실행	38.5
	청소년 복지지원	실행	65.7
		미실행	34.3
		그렇다	78.8
		보통	15.4
		그렇지 않다	5.8

(1) 수련시설의 역할/기능에 대한 만족도

61.9%는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만족함

[매우 만족 23.1%, 조금 만족 38.8%]



【그림 VII-1】 수련시설의 역할/기능에 대한 만족도

표 VII-3 수련시설의 역할/기능에 대한 만족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312	23.1	38.8	28.8	7.4	1.9	61.9	28.8	9.3
근무지역	수도권	127	29.9	36.2	25.2	5.5	3.1	66.1	25.2	8.7
	경상권	61	26.2	45.9	19.7	6.6	1.6	72.1	19.7	8.2
	충청권	25	20.0	36.0	40.0	0.0	4.0	56.0	40.0	4.0
	전라권	61	18.0	44.3	29.5	8.2	0.0	62.3	29.5	8.2
	강원제주권	38	5.3	28.9	47.4	18.4	0.0	34.2	47.4	18.4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32.6	41.1	20.0	5.3	1.1	73.7	20.0	6.3
	중소도시	127	19.7	45.7	24.4	8.7	1.6	65.4	24.4	10.2
	농산어촌	90	17.8	26.7	44.4	7.8	3.3	44.4	44.4	11.1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22.4	20.4	44.9	6.1	6.1	42.9	44.9	12.2
	청소년수련관	140	18.6	42.9	28.6	8.6	1.4	61.4	28.6	10.0
	청소년문화의집	123	28.5	41.5	22.8	6.5	0.8	69.9	22.8	7.3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19.6	30.4	41.1	8.9	0.0	50.0	41.1	8.9
	법인	122	29.5	37.7	26.2	4.1	2.5	67.2	26.2	6.6
	민간위탁	102	18.6	43.1	27.5	9.8	1.0	61.8	27.5	10.8
	지자체 산하공단	32	18.8	43.8	21.9	9.4	6.3	62.5	21.9	15.6
직위	관장	29	31.0	51.7	10.3	6.9	0.0	82.8	10.3	6.9
	간부	56	23.2	32.1	28.6	16.1	0.0	55.4	28.6	16.1
	일반직원	227	22.0	38.8	31.3	5.3	2.6	60.8	31.3	7.9
자격증 보유	1급	33	42.4	39.4	18.2	0.0	0.0	81.8	18.2	0.0
	2급	193	20.2	39.4	28.5	9.3	2.6	59.6	28.5	11.9
	3급	24	12.5	25.0	45.8	12.5	4.2	37.5	45.8	16.7
	없음	62	25.8	41.9	29.0	3.2	0.0	67.7	29.0	3.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재직 중인 수련시설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역할과 기능들에 대해 만족하는지 질문한 결과, '만족' 응답이 61.9%(매우 만족: 23.1% + 조금 만족: 38.8%)로 '불만족' 응답 9.3%(매우 불만족: 1.9% + 다소 불만족: 7.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 응답은 28.8%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만족' 응답은 경상권(72.1%), 대도시(73.7%), 청소년문화의집(69.9%)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운영주체별로는 법인(67.2%), 직위별로는 관장(82.8%)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1급 자격증 보유자(81.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근무지역, 시설입지특징, 시설유형 및 자격증 보유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시설유형, 1% 수준에서는 근무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시설입지특징 및 자격증 보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 수련시설의 역할/기능에 대한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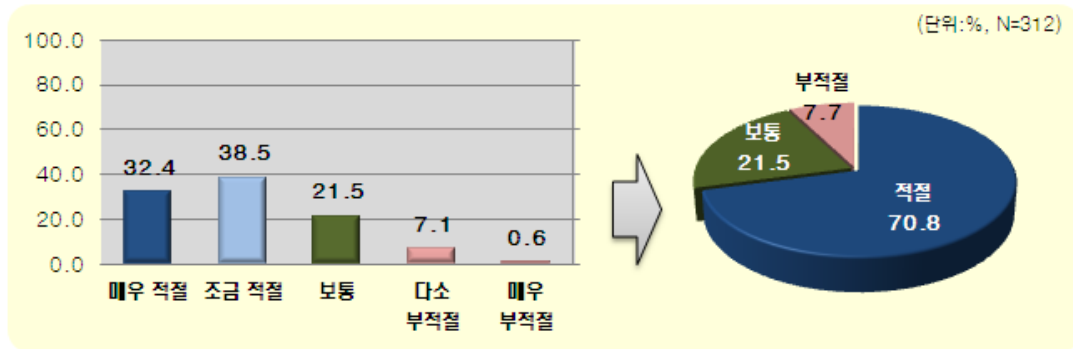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3.762** (0.005)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6.818*** (0.001)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4.008* (0.019)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1.549 (0.202)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2.158 (0.117)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6.182*** (0.000)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2) 수련시설의 역할/기능의 내용적 적절 정도

70.8%는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내용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

[매우 적절 32.4%, 조금 적절 38.5%]



[그림 VII-2] 수련시설의 역할/기능의 내용적 적절 정도

표 VII-5 수련시설의 역할/기능의 내용적 적절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적절	조금 적절	보통	다소 부적절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전체		312	32.4	38.5	21.5	7.1	0.6	70.8	21.5	7.7
근무지역	수도권	127	33.9	38.6	20.5	7.1	0.0	72.4	20.5	7.1
	경상권	61	37.7	32.8	19.7	8.2	1.6	70.5	19.7	9.8
	충청권	25	32.0	32.0	20.0	12.0	4.0	64.0	20.0	16.0
	전라권	61	32.8	41.0	21.3	4.9	0.0	73.8	21.3	4.9
	강원제주권	38	18.4	47.4	28.9	5.3	0.0	65.8	28.9	5.3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45.3	34.7	14.7	4.2	1.1	80.0	14.7	5.3
	중소도시	127	26.0	44.9	24.4	4.7	0.0	70.9	24.4	4.7
	농산어촌	90	27.8	33.3	24.4	13.3	1.1	61.1	24.4	14.4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24.5	26.5	36.7	10.2	2.0	51.0	36.7	12.2
	청소년수련관	140	27.9	42.9	22.1	7.1	0.0	70.7	22.1	7.1
	청소년문화의집	123	40.7	38.2	14.6	5.7	0.8	78.9	14.6	6.5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28.6	33.9	23.2	14.3	0.0	62.5	23.2	14.3
	법인	122	31.1	41.8	21.3	4.9	0.8	73.0	21.3	5.7
	민간위탁	102	37.3	38.2	19.6	4.9	0.0	75.5	19.6	4.9
	지자체 산하공단	32	28.1	34.4	25.0	9.4	3.1	62.5	25.0	12.5
직위	관장	29	37.9	55.2	3.4	3.4	0.0	93.1	3.4	3.4
	간부	56	33.9	33.9	19.6	12.5	0.0	67.9	19.6	12.5
	일반직원	227	31.3	37.4	24.2	6.2	0.9	68.7	24.2	7.0
자격증 보유	1급	33	45.5	39.4	9.1	6.1	0.0	84.8	9.1	6.1
	2급	193	28.5	40.9	19.7	9.8	1.0	69.4	19.7	10.9
	3급	24	16.7	37.5	41.7	4.2	0.0	54.2	41.7	4.2
	없음	62	43.5	30.6	25.8	0.0	0.0	74.2	25.8	0.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수련시설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역할과 기능의 내용적 적절 정도를 살펴보면, ‘적절’ 응답이 70.8%(매우 적절: 32.4% + 조금 적절: 38.5%)로 ‘부적절’ 응답 7.7%(매우 부적절: 0.6% + 다소 부적절: 7.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 응답은 21.5%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적절’ 응답은 대도시(80.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문화의집(78.9%)에서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법인(73.0%) 및 민간위탁(75.5%), 직위별로는 관장(93.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1급 자격증 보유자(84.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시설입지특징 및 시설유형, 자격증 보유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자격증 보유, 1% 수준에서는 시설입지특징 및 시설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6 수련시설의 역할/기능의 내용적 적절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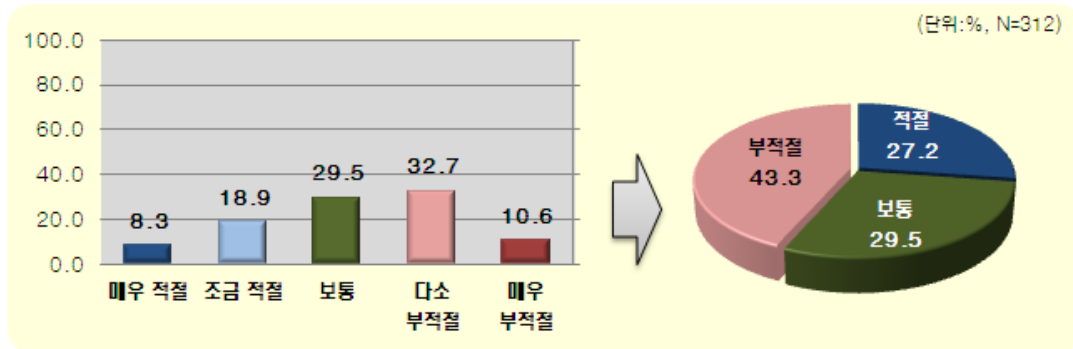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0.678 (0.607)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5.219** (0.006)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5.509** (0.004)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1.875 (0.134)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1.980 (0.140)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3.705* (0.012)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3) 시설 명칭에서 '수련'이란 용어의 적절 정도

43.3%는 '수련'이란 용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

[매우 부적절 10.6%, 다소 부적절 32.7%]



[그림 VII-3] 시설 명칭에서 '수련'이란 용어의 적절 정도

표 VII-7 시설 명칭에서 '수련'이란 용어의 적절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적절	조금 적절	보통	다소 부적절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전체		312	8.3	18.9	29.5	32.7	10.6	27.2	29.5	43.3
근무지역	수도권	127	7.9	18.1	27.6	34.6	11.8	26.0	27.6	46.5
	경상권	61	18.0	13.1	31.1	27.9	9.8	31.1	31.1	37.7
	충청권	25	4.0	32.0	28.0	24.0	12.0	36.0	28.0	36.0
	전라권	61	3.3	26.2	31.1	32.8	6.6	29.5	31.1	39.3
	강원제주권	38	5.3	10.5	31.6	39.5	13.2	15.8	31.6	52.6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9.5	17.9	27.4	32.6	12.6	27.4	27.4	45.3
	중소도시	127	7.9	17.3	29.1	35.4	10.2	25.2	29.1	45.7
	농산어촌	90	7.8	22.2	32.2	28.9	8.9	30.0	32.2	37.8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20.4	28.6	30.6	20.4	0.0	49.0	30.6	20.4
	청소년수련관	140	7.9	20.0	30.0	29.3	12.9	27.9	30.0	42.1
	청소년문화의집	123	4.1	13.8	28.5	41.5	12.2	17.9	28.5	53.7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7.1	17.9	19.6	42.9	12.5	25.0	19.6	55.4
	법인	122	9.0	24.6	32.8	24.6	9.0	33.6	32.8	33.6
	민간위탁	102	4.9	14.7	32.4	35.3	12.7	19.6	32.4	48.0
	지자체 산하공단	32	18.8	12.5	25.0	37.5	6.3	31.3	25.0	43.8
직위	관장	29	24.1	6.9	27.6	31.0	10.3	31.0	27.6	41.4
	간부	56	7.1	19.6	28.6	26.8	17.9	26.8	28.6	44.6
	일반직원	227	6.6	20.3	30.0	34.4	8.8	26.9	30.0	43.2
자격증 보유	1급	33	12.1	24.2	9.1	33.3	21.2	36.4	9.1	54.5
	2급	193	6.2	16.1	29.0	39.9	8.8	22.3	29.0	48.7
	3급	24	4.2	25.0	41.7	16.7	12.5	29.2	41.7	29.2
	없음	62	14.5	22.6	37.1	16.1	9.7	37.1	37.1	25.8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수련시설 명칭에서 ‘수련’이란 용어의 적절 정도를 살펴보면, ‘부적절’ 응답이 43.3%(매우 부적절: 10.6% + 다소 부적절: 32.7%)로 ‘적절’ 응답 27.7%(매우 적절: 8.3% + 조금 적절: 18.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 응답은 29.5%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부적절’ 응답은 수도권(46.5%) 및 강원제주권(52.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문화의집(53.7%)에서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직영(55.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1급 자격증 보유자(54.5%)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시설유형 및 운영주체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운영주체, 0.1% 수준에서는 시설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8 시설 명칭에서 ‘수련’이란 용어의 적절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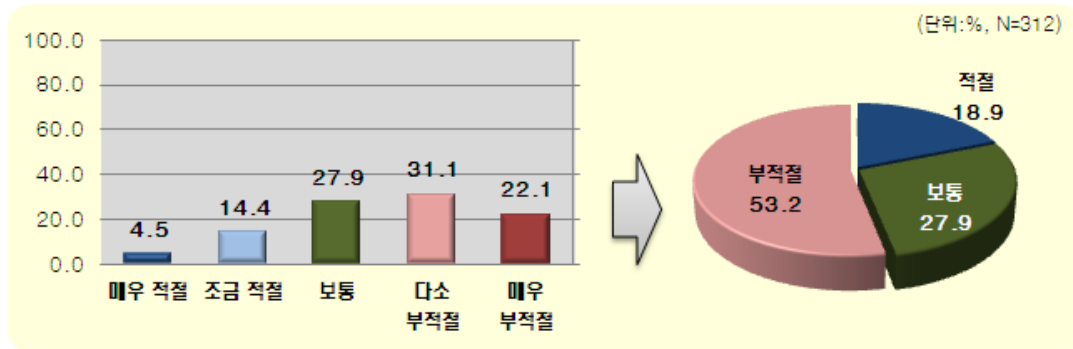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207 (0.308)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453 (0.636)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3.119*** (0.000)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2.769* (0.042)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0.789 (0.455)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2.553 (0.063)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4) 수지분석 요구에 대한 적절 정도

53.2%는 수지분석 요구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

[매우 부적절 22.1%, 다소 부적절 31.1%]



【그림 VII-4】 수지분석 요구에 대한 적절 정도

표 VII-9 수지분석 요구에 대한 적절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적절	조금 적절	보통	다소 부적절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전체		312	4.5	14.4	27.9	31.1	22.1	18.9	27.9	53.2
근무지역	수도권	127	4.7	16.5	22.0	28.3	28.3	21.3	22.0	56.7
	경상권	61	11.5	14.8	29.5	29.5	14.8	26.2	29.5	44.3
	충청권	25	0.0	24.0	48.0	12.0	16.0	24.0	48.0	28.0
	전라권	61	1.6	13.1	34.4	34.4	16.4	14.8	34.4	50.8
	강원제주권	38	0.0	2.6	21.1	50.0	26.3	2.6	21.1	76.3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5.3	21.1	22.1	28.4	23.2	26.3	22.1	51.6
	중소도시	127	1.6	11.8	31.5	29.1	26.0	13.4	31.5	55.1
	농산어촌	90	7.8	11.1	28.9	36.7	15.6	18.9	28.9	52.2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0.2	16.3	26.5	38.8	8.2	26.5	26.5	46.9
	청소년수련관	140	5.0	12.9	28.6	25.0	28.6	17.9	28.6	53.6
	청소년문화의집	123	1.6	15.4	27.6	35.0	20.3	17.1	27.6	55.3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3.6	14.3	35.7	28.6	17.9	17.9	35.7	46.4
	법인	122	7.4	17.2	29.5	32.8	13.1	24.6	29.5	45.9
	민간위탁	102	2.0	8.8	23.5	32.4	33.3	10.8	23.5	65.7
	지자체 산하공단	32	3.1	21.9	21.9	25.0	28.1	25.0	21.9	53.1
직위	관장	29	17.2	13.8	10.3	27.6	31.0	31.0	10.3	58.6
	간부	56	1.8	10.7	23.2	33.9	30.4	12.5	23.2	64.3
	일반직원	227	3.5	15.4	31.3	30.8	18.9	18.9	31.3	49.8
자격증 보유	1급	33	9.1	12.1	18.2	30.3	30.3	21.2	18.2	60.6
	2급	193	4.1	13.5	29.5	31.1	21.8	17.6	29.5	52.8
	3급	24	0.0	25.0	20.8	41.7	12.5	25.0	20.8	54.2
	없음	62	4.8	14.5	30.6	27.4	22.6	19.4	30.6	50.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수련시설에 수지분석(수익확보) 요구에 대해서는 ‘부적절’ 응답이 53.2%(매우 부적절: 22.1% + 다소 부적절: 31.1%)로 ‘적절’ 응답 18.9%(매우 적절: 4.5% + 조금 적절: 14.4%)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 응답은 27.9%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부적절’ 응답은 수도권(56.7%) 및 강원제주권(76.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주체별로는 민간위탁(65.7%)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간부(64.3%), 1급 자격증 보유자(60.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근무지역 및 운영주체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근무지역 및 운영주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0 수지분석 요구에 대한 적절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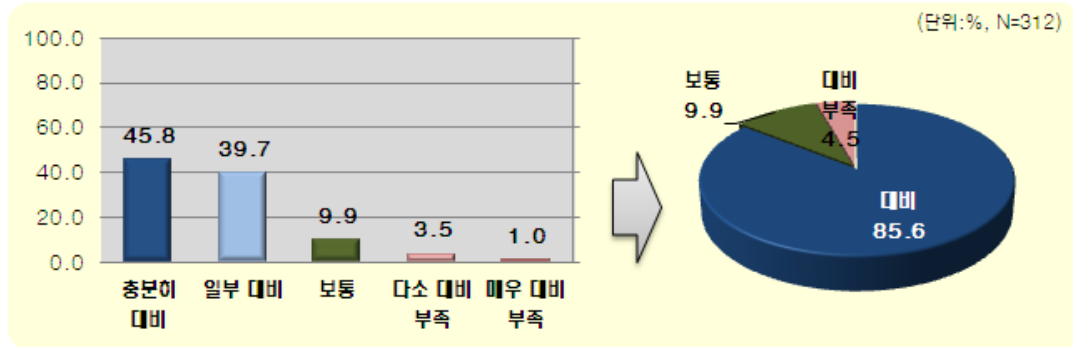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5.102*** (0.001)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1.743 (0.177)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2.653 (0.072)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5.566*** (0.001)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2.401 (0.099)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0.157 (0.925)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5) 수련시설의 '안전' 대비 정도

85.6%는 수련시설이 '안전'문제에 대해 대비되어 있다고 응답

[충분히 대비 45.8%, 일부 대비 39.7%]



【그림 VII-5】 수련시설의 '안전' 대비 정도

표 VII-11 수련시설의 '안전' 대비 정도

단위[%]		사례수[명]	충분히 대비	일부 대비	보통	다소 대비 부족	매우 대비 부족	*대비*	*보통*	*대비 부족*
전체		312	45.8	39.7	9.9	3.5	1.0	85.6	9.9	4.5
근무지역	수도권	127	48.8	36.2	11.8	1.6	1.6	85.0	11.8	3.1
	경상권	61	55.7	31.1	11.5	0.0	1.6	86.9	11.5	1.6
	충청권	25	24.0	72.0	0.0	4.0	0.0	96.0	0.0	4.0
	전라권	61	50.8	32.8	9.8	6.6	0.0	83.6	9.8	6.6
	강원제주권	38	26.3	55.3	7.9	10.5	0.0	81.6	7.9	10.5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45.3	41.1	10.5	2.1	1.1	86.3	10.5	3.2
	중소도시	127	44.1	40.9	10.2	3.9	0.8	85.0	10.2	4.7
	농산어촌	90	48.9	36.7	8.9	4.4	1.1	85.6	8.9	5.6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61.2	28.6	8.2	2.0	0.0	89.8	8.2	2.0
	청소년수련관	140	50.0	37.9	8.6	2.1	1.4	87.9	8.6	3.6
	청소년문화의집	123	35.0	46.3	12.2	5.7	0.8	81.3	12.2	6.5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32.1	44.6	12.5	10.7	0.0	76.8	12.5	10.7
	법인	122	50.0	36.9	9.0	4.1	0.0	86.9	9.0	4.1
	민간위탁	102	44.1	46.1	7.8	0.0	2.0	90.2	7.8	2.0
	지자체 산하공단	32	59.4	21.9	15.6	0.0	3.1	81.3	15.6	3.1
직위	관장	29	62.1	37.9	0.0	0.0	0.0	100.0	0.0	0.0
	간부	56	50.0	37.5	10.7	0.0	1.8	87.5	10.7	1.8
	일반직원	227	42.7	40.5	11.0	4.8	0.9	83.3	11.0	5.7
자격증 보유	1급	33	63.6	24.2	3.0	6.1	3.0	87.9	3.0	9.1
	2급	193	39.9	44.6	11.4	3.6	0.5	84.5	11.4	4.1
	3급	24	45.8	41.7	8.3	0.0	4.2	87.5	8.3	4.2
	없음	62	54.8	32.3	9.7	3.2	0.0	87.1	9.7	3.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수련시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비되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대비’ 응답이 85.6%(충분히 대비: 45.8% + 일부 대비: 39.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대비 부족’ 응답은 4.5%(매우 대비 부족: 1.0% + 다소 대비 부족: 3.5%)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 응답은 9.9%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대비’ 응답은 충청권(96.0%), 청소년수련원(89.8%) 및 청소년수련관(87.9%)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운영주체별로는 민간위탁(90.2%), 직위별로는 관장(100.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시설유형 및 직위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직위, 1% 수준에서는 시설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2 수련시설의 ‘안전’ 대비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608 (0.172)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081 (0.922)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4.855** (0.008)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2.492 (0.060)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3.614* (0.028)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1.095 (0.351)
	2급	193	
	3급	24	
	없음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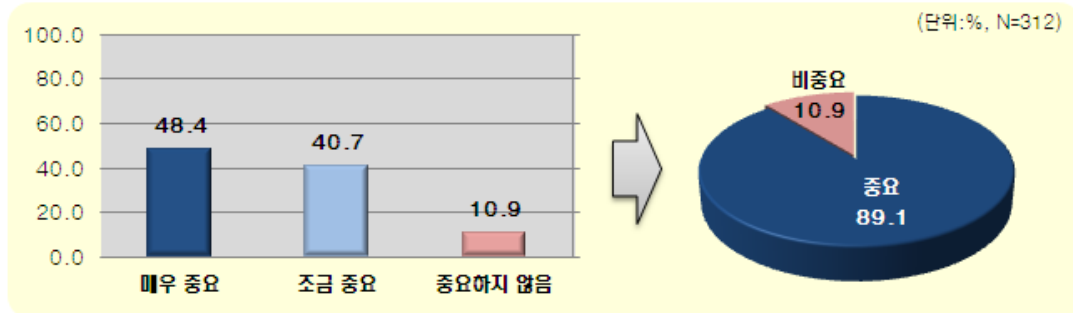
*p<.05, **p<.01, ***p<.001

(6-1)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①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

89.1%가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은 중요하다고 응답

[매우 중요 48.4%, 조금 중요 40.7%]



【그림 VII-6】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

표 VII-13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

단위[%]		사례수[명]	매우 중요	조금 중요	중요하지 않음	*중요*	*비중요*
전체		312	48.4	40.7	10.9	89.1	10.9
근무지역	수도권	127	42.5	44.1	13.4	86.6	13.4
	경상권	61	45.9	42.6	11.5	88.5	11.5
	충청권	25	56.0	32.0	12.0	88.0	12.0
	전라권	61	65.6	27.9	6.6	93.4	6.6
	강원제주권	38	39.5	52.6	7.9	92.1	7.9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47.4	47.4	5.3	94.7	5.3
	중소도시	127	46.5	44.9	8.7	91.3	8.7
	농산어촌	90	52.2	27.8	20.0	80.0	20.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26.5	34.7	38.8	61.2	38.8
	청소년수련관	140	56.4	40.0	3.6	96.4	3.6
	청소년문화의집	123	48.0	43.9	8.1	91.9	8.1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46.4	41.1	12.5	87.5	12.5
	법인	122	46.7	38.5	14.8	85.2	14.8
	민간위탁	102	50.0	42.2	7.8	92.2	7.8
	지자체 산하공단	32	53.1	43.8	3.1	96.9	3.1
직위	관장	29	48.3	37.9	13.8	86.2	13.8
	간부	56	42.9	42.9	14.3	85.7	14.3
	일반직원	227	49.8	40.5	9.7	90.3	9.7
자격증 보유	1급	33	33.3	48.5	18.2	81.8	18.2
	2급	193	50.8	39.9	9.3	90.7	9.3
	3급	24	45.8	29.2	25.0	75.0	25.0
	없음	62	50.0	43.5	6.5	93.5	6.5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 기능의 중요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89.1%(매우 중요: 48.4% + 조금 중요: 40.7%)로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 10.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중요하다’는 응답은 전라권(93.4%) 및 강원제주권(92.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94.7%)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관(96.4%), 운영주체별로는 민간위탁(92.2%) 및 지자체 산하공단(96.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자격증 미보유자(93.5%)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시설입지특징 및 시설유형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 기능의 중요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는 시설입지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시설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4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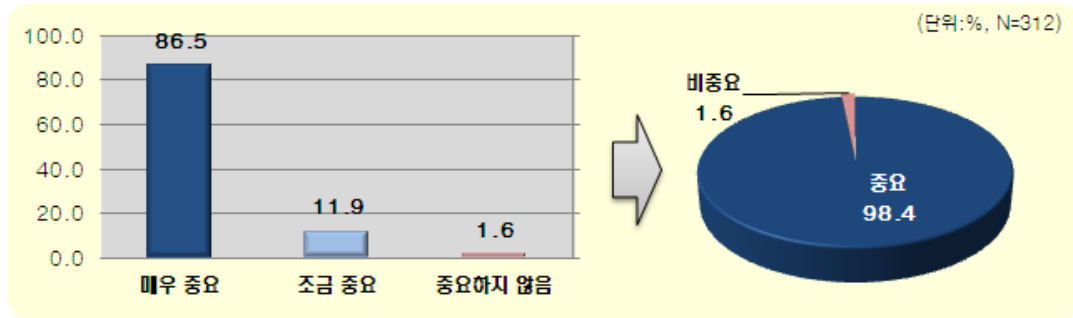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2.440 (0.133)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15.860** (0.003)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50.178*** (0.000)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5.032 (0.540)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1.681 (0.794)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10.817 (0.094)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②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98.4%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중요하다고 응답

[매우 중요 86.5%, 조금 중요 11.9%]



【그림 VII-7】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표 VII-15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단위[%]		사례수[명]	매우 중요	조금 중요	중요하지 않음	*중요*	*비중요*
전체		312	86.5	11.9	1.6	98.4	1.6
근무지역	수도권	127	86.6	12.6	0.8	99.2	0.8
	경상권	61	91.8	8.2	0.0	100.0	0.0
	충청권	25	88.0	12.0	0.0	100.0	0.0
	전라권	61	82.0	11.5	6.6	93.4	6.6
	강원제주권	38	84.2	15.8	0.0	100.0	0.0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91.6	7.4	1.1	98.9	1.1
	중소도시	127	84.3	14.2	1.6	98.4	1.6
	농산어촌	90	84.4	13.3	2.2	97.8	2.2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83.7	14.3	2.0	98.0	2.0
	청소년수련관	140	90.7	9.3	0.0	100.0	0.0
	청소년문화의집	123	82.9	13.8	3.3	96.7	3.3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85.7	12.5	1.8	98.2	1.8
	법인	122	91.0	6.6	2.5	97.5	2.5
	민간위탁	102	84.3	14.7	1.0	99.0	1.0
	지자체 산하공단	32	78.1	21.9	0.0	100.0	0.0
직위	관장	29	96.6	3.4	0.0	100.0	0.0
	간부	56	89.3	10.7	0.0	100.0	0.0
	일반직원	227	84.6	13.2	2.2	97.8	2.2
자격증 보유	1급	33	93.9	6.1	0.0	100.0	0.0
	2급	193	86.0	13.0	1.0	99.0	1.0
	3급	24	83.3	12.5	4.2	95.8	4.2
	없음	62	85.5	11.3	3.2	96.8	3.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기능의 중요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98.4%(매우 중요: 86.5% + 조금 중요: 11.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중요하다’는 응답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VII-16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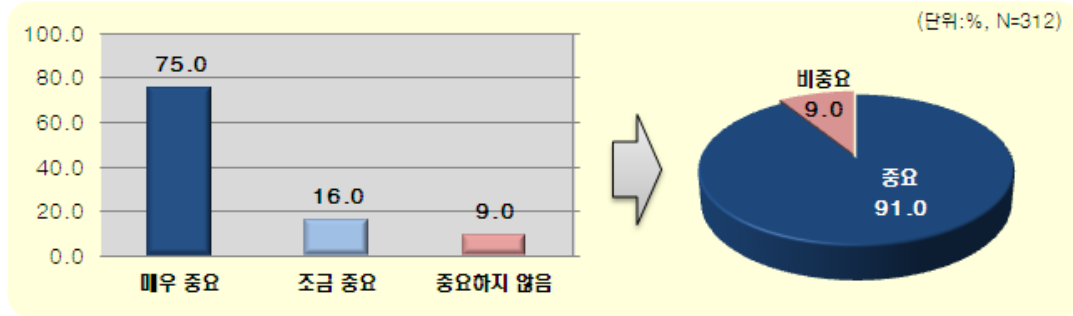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3.483 (0.096)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3.151 (0.533)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6.329 (0.176)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8.247 (0.221)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4.502 (0.342)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4.326 (0.633)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③ 동아리활동 운영

91.0%가 '동아리활동 운영'은 중요하다고 응답

[매우 중요 75.0%, 조금 중요 16.0%]



【그림 VII-8】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동아리활동 운영

표 VII-17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동아리활동 운영

단위[%]		사례수[명]	매우 중요	조금 중요	중요하지 않음	*중요*	*비중요*
전체		312	75.0	16.0	9.0	91.0	9.0
근무지역	수도권	127	76.4	15.7	7.9	92.1	7.9
	경상권	61	72.1	18.0	9.8	90.2	9.8
	충청권	25	64.0	20.0	16.0	84.0	16.0
	전라권	61	75.4	13.1	11.5	88.5	11.5
	강원제주권	38	81.6	15.8	2.6	97.4	2.6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91.6	8.4	0.0	100.0	0.0
	중소도시	127	77.2	18.1	4.7	95.3	4.7
	농산어촌	90	54.4	21.1	24.4	75.6	24.4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6.3	40.8	42.9	57.1	42.9
	청소년수련관	140	87.9	10.0	2.1	97.9	2.1
	청소년문화의집	123	83.7	13.0	3.3	96.7	3.3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71.4	14.3	14.3	85.7	14.3
	법인	122	72.1	13.9	13.9	86.1	13.9
	민간위탁	102	80.4	16.7	2.9	97.1	2.9
	지자체 산하공단	32	75.0	25.0	0.0	100.0	0.0
직위	관장	29	72.4	13.8	13.8	86.2	13.8
	간부	56	76.8	10.7	12.5	87.5	12.5
	일반직원	227	74.9	17.6	7.5	92.5	7.5
자격증 보유	1급	33	78.8	9.1	12.1	87.9	12.1
	2급	193	81.3	11.9	6.7	93.3	6.7
	3급	24	45.8	33.3	20.8	79.2	20.8
	없음	62	64.5	25.8	9.7	90.3	9.7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동아리활동 운영 기능의 중요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91.0%(매우 중요: 75.0% + 조금 중요: 16.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9.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중요하다’는 응답은 강원제주권(97.4%), 대도시(100.0%) 및 중소도시(95.3%)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관(97.9%) 및 청소년문화의 집(96.7%), 운영주체별로는 민간위탁(97.1%) 및 지자체 산하공단(100.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시설입지특징 및 시설유형, 운영주체 그리고 자격증 보유에 따른 동아리활동 운영 기능의 중요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운영주체, 1% 수준에서는 자격증 보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시설입지특징 및 시설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8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동아리활동 운영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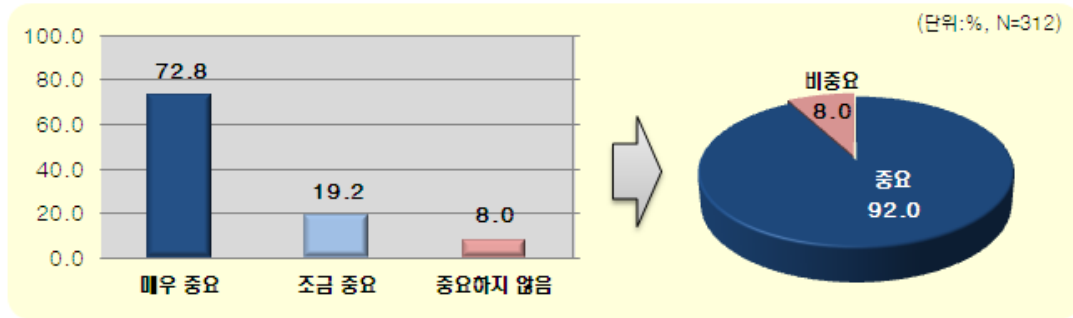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5.178 (0.738)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48.939*** (0.000)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23.944*** (0.000)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14.811* (0.022)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3.571 (0.467)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21.178** (0.002)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④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자단 등 자치조직 운영

92.0%가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자단 등 자치조직 운영'은 중요하다고 응답

[매우 중요 72.8%, 조금 중요 19.2%]



【그림 VII-9】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자단 등 자치조직 운영

표 VII-19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자단 등 자치조직 운영

단위[%]		사례수[명]	매우 중요	조금 중요	중요하지 않음	*중요*	*비중요*
전체		312	72.8	19.2	8.0	92.0	8.0
근무지역	수도권	127	71.7	20.5	7.9	92.1	7.9
	경상권	61	78.7	13.1	8.2	91.8	8.2
	충청권	25	68.0	24.0	8.0	92.0	8.0
	전라권	61	68.9	21.3	9.8	90.2	9.8
	강원제주권	38	76.3	18.4	5.3	94.7	5.3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86.3	12.6	1.1	98.9	1.1
	중소도시	127	75.6	19.7	4.7	95.3	4.7
	농산어촌	90	54.4	25.6	20.0	80.0	20.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22.4	36.7	40.8	59.2	40.8
	청소년수련관	140	82.9	15.7	1.4	98.6	1.4
	청소년문화의집	123	81.3	16.3	2.4	97.6	2.4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71.4	21.4	7.1	92.9	7.1
	법인	122	68.0	17.2	14.8	85.2	14.8
	민간위탁	102	78.4	18.6	2.9	97.1	2.9
	지자체 산하공단	32	75.0	25.0	0.0	100.0	0.0
직위	관장	29	72.4	13.8	13.8	86.2	13.8
	간부	56	69.6	19.6	10.7	89.3	10.7
	일반직원	227	73.6	19.8	6.6	93.4	6.6
자격증 보유	1급	33	75.8	18.2	6.1	93.9	6.1
	2급	193	79.3	15.0	5.7	94.3	5.7
	3급	24	50.0	33.3	16.7	83.3	16.7
	없음	62	59.7	27.4	12.9	87.1	12.9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자단 등 자치조직 운영 기능의 중요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92.0%(매우 중요: 72.8% + 조금 중요: 19.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중요하다’는 응답은 대도시(98.9%) 및 중소도시(95.3%)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관(98.6%) 및 청소년문화의집(97.6%), 운영주체별로는 민간위탁(97.1%) 및 지자체 산하공단(100.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근무지역 및 시설입지특징, 시설유형 그리고 직위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자단 등 자치조직 운영 기능의 중요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시설유형 및 직위, 0.1% 수준에서는 근무지역 및 시설입지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0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자단 등 자치조직 운영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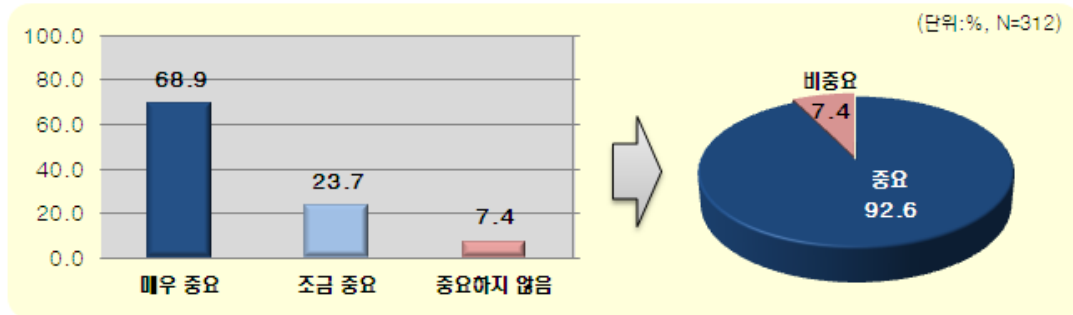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34.323*** (0.000)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107.661*** (0.000)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4.644* (0.023)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2.866 (0.580)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16.311* (0.012)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6.585 (0.582)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⑤ 지역 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92.6%가 '지역 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은 중요하다고 응답

[매우 중요 68.9%, 조금 중요 23.7%]



【그림 VII-10】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지역 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표 VII-21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지역 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단위[%]		사례수[명]	매우 중요	조금 중요	중요하지 않음	*중요*	*비중요*
전체		312	68.9	23.7	7.4	92.6	7.4
근무지역	수도권	127	70.1	26.0	3.9	96.1	3.9
	경상권	61	70.5	18.0	11.5	88.5	11.5
	충청권	25	60.0	28.0	12.0	88.0	12.0
	전라권	61	67.2	23.0	9.8	90.2	9.8
	강원제주권	38	71.1	23.7	5.3	94.7	5.3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80.0	15.8	4.2	95.8	4.2
	중소도시	127	68.5	25.2	6.3	93.7	6.3
	농산어촌	90	57.8	30.0	12.2	87.8	12.2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38.8	36.7	24.5	75.5	24.5
	청소년수련관	140	72.9	23.6	3.6	96.4	3.6
	청소년문화의집	123	76.4	18.7	4.9	95.1	4.9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69.6	19.6	10.7	89.3	10.7
	법인	122	65.6	24.6	9.8	90.2	9.8
	민간위탁	102	74.5	20.6	4.9	95.1	4.9
	지자체 산하공단	32	62.5	37.5	0.0	100.0	0.0
직위	관장	29	65.5	20.7	13.8	86.2	13.8
	간부	56	64.3	28.6	7.1	92.9	7.1
	일반직원	227	70.5	22.9	6.6	93.4	6.6
자격증 보유	1급	33	63.6	30.3	6.1	93.9	6.1
	2급	193	71.0	21.8	7.3	92.7	7.3
	3급	24	62.5	25.0	12.5	87.5	12.5
	없음	62	67.7	25.8	6.5	93.5	6.5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지역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기능의 중요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92.6%(매우 중요: 68.9% + 조금 중요: 23.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7.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중요하다’는 응답은 수도권(96.1%), 대도시(95.8%)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관(96.4%) 및 청소년문화의집(95.1%),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산하공단(100.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시설입지특징 및 시설유형에 따른 지역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기능의 중요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시설입지특징, 0.1% 수준에서는 시설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2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지역 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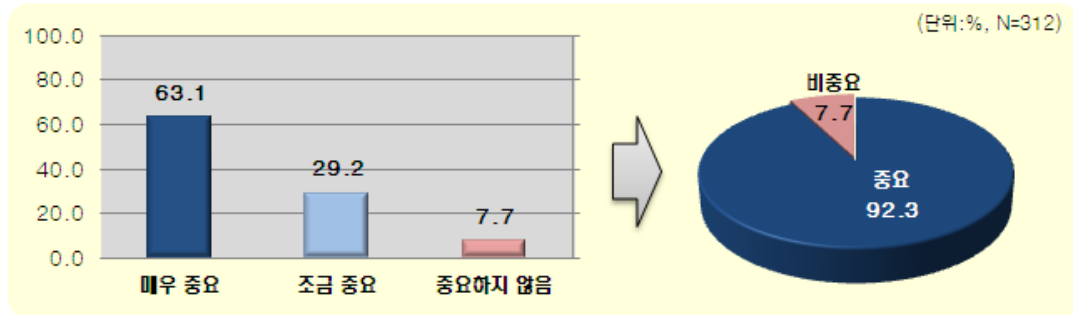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6.585 (0.582)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11.808* (0.019)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35.847*** (0.000)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9.328 (0.156)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2.841 (0.585)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2.462 (0.873)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⑥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

92.3%가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은 중요하다고 응답

[매우 중요 63.1%, 조금 중요 29.2%]



【그림 VII-11】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

표 VII-23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

단위[%]		사례수[명]	매우 중요	조금 중요	중요하지 않음	*중요*	*비중요*
전체		312	63.1	29.2	7.7	92.3	7.7
근무지역	수도권	127	63.8	29.9	6.3	93.7	6.3
	경상권	61	67.2	29.5	3.3	96.7	3.3
	충청권	25	52.0	28.0	20.0	80.0	20.0
	전라권	61	60.7	26.2	13.1	86.9	13.1
	강원제주권	38	65.8	31.6	2.6	97.4	2.6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77.9	17.9	4.2	95.8	4.2
	중소도시	127	57.5	36.2	6.3	93.7	6.3
	농산어촌	90	55.6	31.1	13.3	86.7	13.3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49.0	34.7	16.3	83.7	16.3
	청소년수련관	140	69.3	27.1	3.6	96.4	3.6
	청소년문화의집	123	61.8	29.3	8.9	91.1	8.9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57.1	28.6	14.3	85.7	14.3
	법인	122	68.0	24.6	7.4	92.6	7.4
	민간위탁	102	61.8	32.4	5.9	94.1	5.9
	지자체 산하공단	32	59.4	37.5	3.1	96.9	3.1
직위	관장	29	72.4	13.8	13.8	86.2	13.8
	간부	56	58.9	35.7	5.4	94.6	5.4
	일반직원	227	63.0	29.5	7.5	92.5	7.5
자격증 보유	1급	33	63.6	30.3	6.1	93.9	6.1
	2급	193	62.2	29.5	8.3	91.7	8.3
	3급	24	66.7	25.0	8.3	91.7	8.3
	없음	62	64.5	29.0	6.5	93.5	6.5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 기능의 중요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92.3%(매우 중요: 63.1% + 조금 중요: 29.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7.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중요하다’는 응답은 경상권(96.7%) 및 강원제주권(97.4%), 대도시(95.8%)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관(96.4%),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산하공단(96.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시설입지특징 및 시설유형에 따른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 기능의 중요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시설유형, 1% 수준에서는 시설입지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4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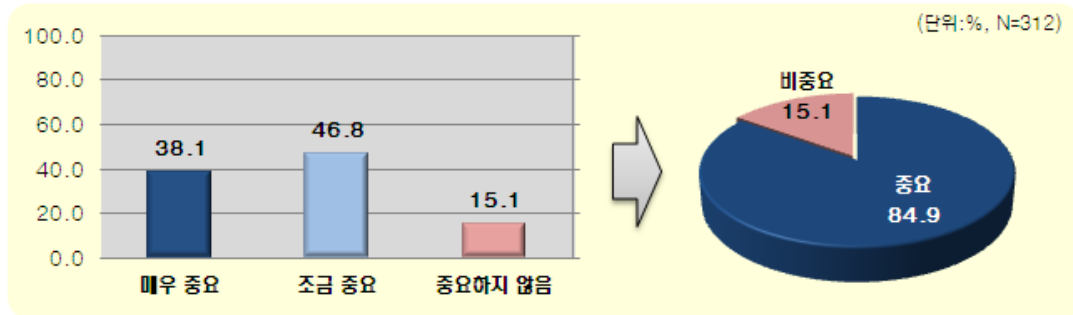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1.442 (0.178)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16.702** (0.002)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1.229* (0.024)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7.367 (0.288)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5.548 (0.236)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0.603 (0.996)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⑦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

84.9%가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는 중요하다고 응답

[매우 중요 38.1%, 조금 중요 46.8%]



【그림 VII-12】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

표 VII-25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

단위[%]		사례수[명]	매우 중요	조금 중요	중요하지 않음	*중요*	*비중요*
전체		312	38.1	46.8	15.1	84.9	15.1
근무지역	수도권	127	33.1	52.8	14.2	85.8	14.2
	경상권	61	44.3	41.0	14.8	85.2	14.8
	충청권	25	28.0	52.0	20.0	80.0	20.0
	전라권	61	52.5	32.8	14.8	85.2	14.8
	강원제주권	38	28.9	55.3	15.8	84.2	15.8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43.2	48.4	8.4	91.6	8.4
	중소도시	127	34.6	52.8	12.6	87.4	12.6
	농산어촌	90	37.8	36.7	25.6	74.4	25.6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8.4	46.9	34.7	65.3	34.7
	청소년수련관	140	47.9	43.6	8.6	91.4	8.6
	청소년문화의집	123	35.0	50.4	14.6	85.4	14.6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33.9	53.6	12.5	87.5	12.5
	법인	122	41.0	41.0	18.0	82.0	18.0
	민간위탁	102	37.3	51.0	11.8	88.2	11.8
	지자체 산하공단	32	37.5	43.8	18.8	81.3	18.8
직위	관장	29	37.9	41.4	20.7	79.3	20.7
	간부	56	23.2	60.7	16.1	83.9	16.1
	일반직원	227	41.9	44.1	14.1	85.9	14.1
자격증 보유	1급	33	24.2	51.5	24.2	75.8	24.2
	2급	193	38.9	47.2	14.0	86.0	14.0
	3급	24	50.0	29.2	20.8	79.2	20.8
	없음	62	38.7	50.0	11.3	88.7	11.3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 기능의 중요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84.9%(매우 중요: 38.1% + 조금 중요: 46.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5.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중요하다’는 응답은 대도시(91.6%)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관(91.4%), 운영주체별로는 민간위탁(88.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자격증 미보유자(88.7%)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시설입지특징 및 시설유형에 따른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 기능의 중요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는 시설입지특징, 0.1% 수준에서는 시설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6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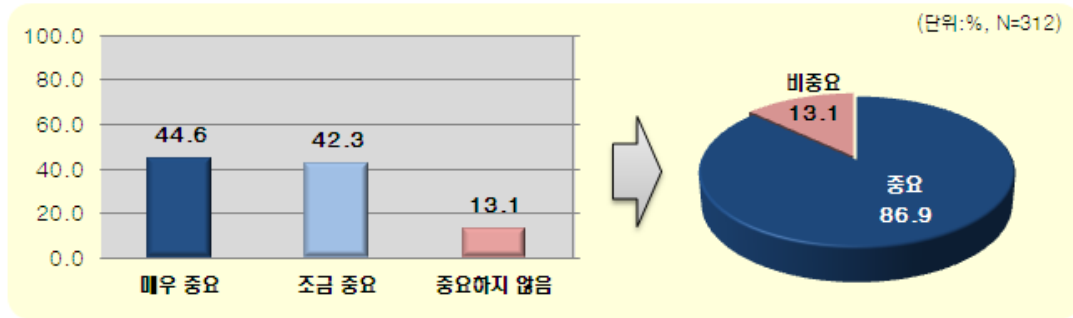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1.432 (0.178)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13.900** (0.008)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25.935*** (0.000)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4.403 (0.622)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7.744 (0.101)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7.590 (0.270)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⑧ 청소년 복지지원

86.9%가 '청소년 복지지원'은 중요하다고 응답

[매우 중요 44.6%, 조금 중요 42.3%]



【그림 VII-13】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 복지지원

표 VII-27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 복지지원

단위[%]		사례수[명]	매우 중요	조금 중요	중요하지 않음	*중요*	*비중요*
전체		312	44.6	42.3	13.1	86.9	13.1
근무지역	수도권	127	39.4	48.0	12.6	87.4	12.6
	경상권	61	47.5	39.3	13.1	86.9	13.1
	충청권	25	44.0	36.0	20.0	80.0	20.0
	전라권	61	60.7	27.9	11.5	88.5	11.5
	강원제주권	38	31.6	55.3	13.2	86.8	13.2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48.4	44.2	7.4	92.6	7.4
	중소도시	127	44.1	46.5	9.4	90.6	9.4
	농산어촌	90	41.1	34.4	24.4	75.6	24.4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30.6	36.7	32.7	67.3	32.7
	청소년수련관	140	51.4	38.6	10.0	90.0	10.0
	청소년문화의집	123	42.3	48.8	8.9	91.1	8.9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50.0	35.7	14.3	85.7	14.3
	법인	122	43.4	37.7	18.9	81.1	18.9
	민간위탁	102	42.2	50.0	7.8	92.2	7.8
	지자체 산하공단	32	46.9	46.9	6.3	93.8	6.3
직위	관장	29	31.0	51.7	17.2	82.8	17.2
	간부	56	35.7	50.0	14.3	85.7	14.3
	일반직원	227	48.5	39.2	12.3	87.7	12.3
자격증 보유	1급	33	18.2	63.6	18.2	81.8	18.2
	2급	193	44.6	41.5	14.0	86.0	14.0
	3급	24	66.7	25.0	8.3	91.7	8.3
	없음	62	50.0	40.3	9.7	90.3	9.7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 복지지원 기능의 중요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86.9%(매우 중요: 44.6% + 조금 중요: 42.3%)로,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 13.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중요하다’는 응답은 대도시(92.6%) 및 중소도시(90.6%)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관(90.0%) 및 청소년문화의집(91.1%), 운영주체별로는 민간위탁(92.2%) 및 지자체 산하공단(93.8%)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3급 자격증 보유자(91.7%) 및 자격증 미보유자(90.3%)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시설입지특징 및 시설유형, 자격증 보유에 따른 청소년 복지지원 기능의 중요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자격증 보유 1% 수준에서는 시설입지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시설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8 수련시설 기능 중요도 - 청소년 복지지원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2.787 (0.119)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14.955** (0.005)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22.703*** (0.000)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9.767 (0.135)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5.395 (0.249)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15.269* (0.018)
	2급	193	
	3급	24	
	없음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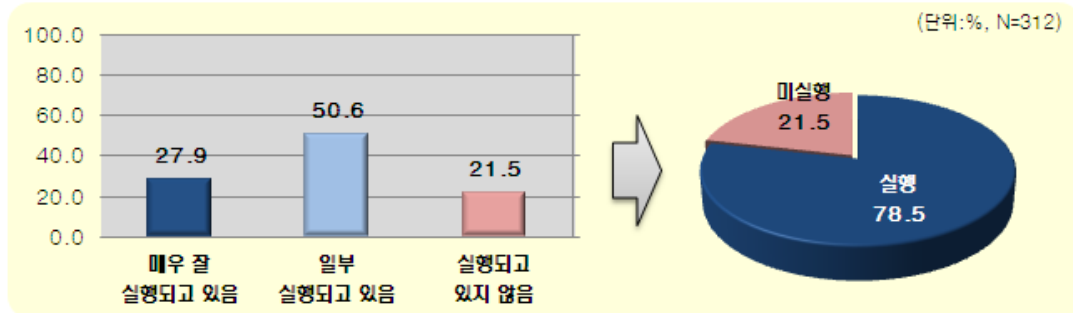
*p<.05, **p<.01, ***p<.001

(6-2)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①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

78.5%가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은 실행되고 있다고 응답

[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27.9%, 일부 실행되고 있음 50.6%]



【그림 VII-14】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

표 VII-29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일부 실행되고 있음	실행되고 있지 않음	*실행*	*미실행*
전체		312	27.9	50.6	21.5	78.5	21.5
근무지역	수도권	127	30.7	48.8	20.5	79.5	20.5
	경상권	61	23.0	54.1	23.0	77.0	23.0
	충청권	25	40.0	40.0	20.0	80.0	20.0
	전라권	61	31.1	47.5	21.3	78.7	21.3
	강원제주권	38	13.2	63.2	23.7	76.3	23.7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37.9	53.7	8.4	91.6	8.4
	중소도시	127	20.5	57.5	22.0	78.0	22.0
	농산어촌	90	27.8	37.8	34.4	65.6	34.4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6.3	10.2	73.5	26.5	73.5
	청소년수련관	140	32.9	59.3	7.9	92.1	7.9
	청소년문화의집	123	26.8	56.9	16.3	83.7	16.3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30.4	53.6	16.1	83.9	16.1
	법인	122	25.4	45.9	28.7	71.3	28.7
	민간위탁	102	20.6	58.8	20.6	79.4	20.6
	지자체 산하공단	32	56.3	37.5	6.3	93.8	6.3
직위	관장	29	20.7	58.6	20.7	79.3	20.7
	간부	56	19.6	51.8	28.6	71.4	28.6
	일반직원	227	30.8	49.3	19.8	80.2	19.8
자격증 보유	1급	33	18.2	63.6	18.2	81.8	18.2
	2급	193	29.5	50.8	19.7	80.3	19.7
	3급	24	25.0	41.7	33.3	66.7	33.3
	없음	62	29.0	46.8	24.2	75.8	24.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 기능의 실행수준에 대해서 ‘실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78.5%(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27.9% + 일부 실행되고 있음: 50.6%)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 21.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실행되고 있다’는 응답은 대도시(91.6%)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관(92.1%) 및 청소년문화의집(83.7%),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운영(83.9%) 및 지자체 산하공단(93.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시설입지특징 및 시설유형, 운영주체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 기능의 실행수준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시설입지특징 및 시설유형, 운영주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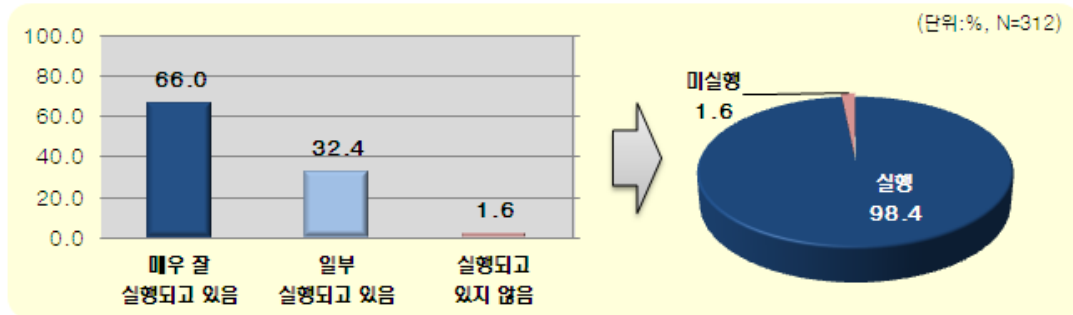
표 VII-30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7.712 (0.462)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24.811*** (0.000)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97.814*** (0.000)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21.857*** (0.001)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4.677 (0.322)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5.307 (0.505)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②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98.4%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실행되고 있다고 응답
[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66.0%, 일부 실행되고 있음 32.4%]



[그림 VII-15]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표 VII-31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일부 실행되고 있음	실행되고 있지 않음	*실행*	*미실행*
전체		312	66.0	32.4	1.6	98.4	1.6
근무지역	수도권	127	70.9	29.1	0.0	100.0	0.0
	경상권	61	75.4	24.6	0.0	100.0	0.0
	충청권	25	68.0	32.0	0.0	100.0	0.0
	전라권	61	50.8	42.6	6.6	93.4	6.6
	강원제주권	38	57.9	39.5	2.6	97.4	2.6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76.8	23.2	0.0	100.0	0.0
	중소도시	127	64.6	33.1	2.4	97.6	2.4
	농산어촌	90	56.7	41.1	2.2	97.8	2.2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69.4	26.5	4.1	95.9	4.1
	청소년수련관	140	68.6	31.4	0.0	100.0	0.0
	청소년문화의집	123	61.8	35.8	2.4	97.6	2.4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55.4	44.6	0.0	100.0	0.0
	법인	122	67.2	30.3	2.5	97.5	2.5
	민간위탁	102	66.7	31.4	2.0	98.0	2.0
	지자체 산하공단	32	78.1	21.9	0.0	100.0	0.0
직위	관장	29	62.1	34.5	3.4	96.6	3.4
	간부	56	71.4	26.8	1.8	98.2	1.8
	일반직원	227	65.2	33.5	1.3	98.7	1.3
자격증 보유	1급	33	72.7	27.3	0.0	100.0	0.0
	2급	193	63.2	35.8	1.0	99.0	1.0
	3급	24	75.0	25.0	0.0	100.0	0.0
	없음	62	67.7	27.4	4.8	95.2	4.8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기능의 실행수준에 대해서 ‘실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98.4%(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66.0% + 일부 실행되고 있음: 32.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1.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실행되고 있다’는 응답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근무지역 및 시설입지특징에 따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기능의 실행수준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시설입지특징, 1% 수준에서는 근무지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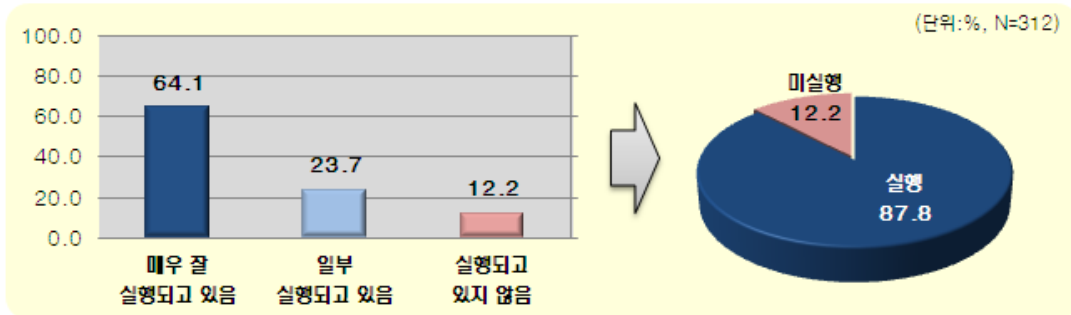
표 VII-32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20.931** (0.007)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9.748* (0.045)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6.210 (0.184)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7.641 (0.266)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1.746 (0.782)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7.946 (0.242)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③ 동아리활동 운영

87.8%가 '동아리활동 운영'은 실행되고 있다고 응답
[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64.1%, 일부 실행되고 있음 23.7%]



【그림 VII-16】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동아리활동 운영

표 VII-33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동아리활동 운영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일부 실행되고 있음	실행되고 있지 않음	*실행*	*미실행*
전체		312	64.1	23.7	12.2	87.8	12.2
근무지역	수도권	127	67.7	20.5	11.8	88.2	11.8
	경상권	61	65.6	21.3	13.1	86.9	13.1
	충청권	25	60.0	20.0	20.0	80.0	20.0
	전라권	61	63.9	21.3	14.8	85.2	14.8
	강원제주권	38	52.6	44.7	2.6	97.4	2.6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82.1	17.9	0.0	100.0	0.0
	중소도시	127	62.2	27.6	10.2	89.8	10.2
	농산어촌	90	47.8	24.4	27.8	72.2	27.8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8.2	26.5	65.3	34.7	65.3
	청소년수련관	140	76.4	21.4	2.1	97.9	2.1
	청소년문화의집	123	72.4	25.2	2.4	97.6	2.4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53.6	35.7	10.7	89.3	10.7
	법인	122	61.5	17.2	21.3	78.7	21.3
	민간위탁	102	68.6	26.5	4.9	95.1	4.9
	지자체 산하공단	32	78.1	18.8	3.1	96.9	3.1
직위	관장	29	55.2	24.1	20.7	79.3	20.7
	간부	56	60.7	17.9	21.4	78.6	21.4
	일반직원	227	66.1	25.1	8.8	91.2	8.8
자격증 보유	1급	33	69.7	21.2	9.1	90.9	9.1
	2급	193	66.8	23.8	9.3	90.7	9.3
	3급	24	54.2	29.2	16.7	83.3	16.7
	없음	62	56.5	22.6	21.0	79.0	21.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동아리활동 운영 기능의 실행수준에 대해서 ‘실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87.8%(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64.1% + 일부 실행되고 있음: 23.7%)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 12.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실행되고 있다’는 응답은 강원제주권(97.4%), 대도시(100.0%)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관(97.9%) 및 청소년문화의집(97.6%), 운영주체별로는 민간위탁(95.1%) 및 지자체 산하공단(96.9%)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직원(91.2%), 1급(90.9%) 및 2급(90.7%) 자격증 보유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0.1% 수준에서 시설입지특징 및 시설유형 그리고 운영주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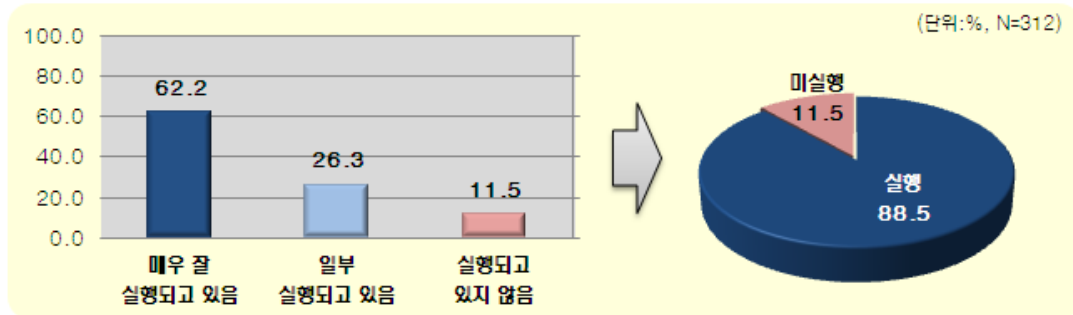
표 VII-34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동아리활동 운영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3.701 (0.090)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40.728*** (0.000)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63.844*** (0.000)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23.682*** (0.001)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9.371 (0.052)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7.622 (0.267)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④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자단 등 자치조직 운영

88.5%가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자단 등 자치조직 운영'은 실행되고 있다고 응답
[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62.2%, 일부 실행되고 있음 26.3%]



【그림 VII-17】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자단 등 자치조직 운영

표 VII-35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자단 등 자치조직 운영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일부 실행되고 있음	실행되고 있지 않음	*실행*	*미실행*
전체		312	62.2	26.3	11.5	88.5	11.5
근무지역	수도권	127	65.4	21.3	13.4	86.6	13.4
	경상권	61	68.9	18.0	13.1	86.9	13.1
	충청권	25	56.0	32.0	12.0	88.0	12.0
	전라권	61	55.7	32.8	11.5	88.5	11.5
	강원제주권	38	55.3	42.1	2.6	97.4	2.6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77.9	22.1	0.0	100.0	0.0
	중소도시	127	60.6	29.1	10.2	89.8	10.2
	농산어촌	90	47.8	26.7	25.6	74.4	25.6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0.2	22.4	67.3	32.7	67.3
	청소년수련관	140	72.9	25.7	1.4	98.6	1.4
	청소년문화의집	123	70.7	28.5	0.8	99.2	0.8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50.0	37.5	12.5	87.5	12.5
	법인	122	59.0	21.3	19.7	80.3	19.7
	민간위탁	102	66.7	29.4	3.9	96.1	3.9
	지자체 산하공단	32	81.3	15.6	3.1	96.9	3.1
직위	관장	29	62.1	20.7	17.2	82.8	17.2
	간부	56	55.4	21.4	23.2	76.8	23.2
	일반직원	227	63.9	28.2	7.9	92.1	7.9
자격증 보유	1급	33	78.8	15.2	6.1	93.9	6.1
	2급	193	64.2	27.5	8.3	91.7	8.3
	3급	24	58.3	20.8	20.8	79.2	20.8
	없음	62	48.4	30.6	21.0	79.0	21.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자단 등 자치조직 운영 기능의 실행수준에 대해서 ‘실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88.5%(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62.2% + 일부 실행되고 있음: 26.3%)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 11.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실행되고 있다’는 응답은 강원제주권(97.4%), 대도시(100.0%), 청소년수련관(98.6%) 및 청소년문화의집(99.2%), 민간위탁(96.1%) 및 지자체 산하공단(96.9%)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직원(92.1%), 1급(93.9%) 및 2급(91.7%) 자격증 보유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시설입지특징 및 시설유형, 운영주체 그리고 직위 및 자격증 보유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자단 등 자치조직 운영 기능의 실행수준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직위 및 자격증 보유, 0.1% 수준에서는 시설입지 특징 및 시설유형 그리고 운영주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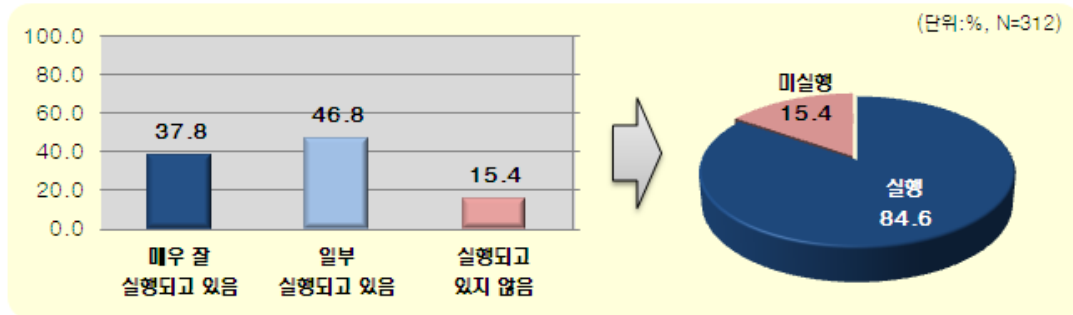
표 VII-36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자단 등 자치조직 운영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2.332 (0.137)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34.327*** (0.000)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82.745*** (0.000)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23.457*** (0.001)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11.683* (0.020)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15.126* (0.019)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⑤ 지역 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84.6%가 '지역 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은 실행되고 있다고 응답
[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37.8%, 일부 실행되고 있음 46.8%]



【그림 VII-18】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지역 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표 VII-37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지역 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일부 실행되고 있음	실행되고 있지 않음	*실행*	*미실행*
전체		312	37.8	46.8	15.4	84.6	15.4
근무지역	수도권	127	47.2	44.9	7.9	92.1	7.9
	경상권	61	27.9	52.5	19.7	80.3	19.7
	충청권	25	24.0	52.0	24.0	76.0	24.0
	전라권	61	36.1	39.3	24.6	75.4	24.6
	강원제주권	38	34.2	52.6	13.2	86.8	13.2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58.9	36.8	4.2	95.8	4.2
	중소도시	127	33.9	51.2	15.0	85.0	15.0
	농산어촌	90	21.1	51.1	27.8	72.2	27.8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8.2	40.8	51.0	49.0	51.0
	청소년수련관	140	37.1	55.0	7.9	92.1	7.9
	청소년문화의집	123	50.4	39.8	9.8	90.2	9.8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25.0	57.1	17.9	82.1	17.9
	법인	122	38.5	39.3	22.1	77.9	22.1
	민간위탁	102	41.2	50.0	8.8	91.2	8.8
	지자체 산하공단	32	46.9	46.9	6.3	93.8	6.3
직위	관장	29	34.5	51.7	13.8	86.2	13.8
	간부	56	37.5	39.3	23.2	76.8	23.2
	일반직원	227	38.3	48.0	13.7	86.3	13.7
자격증 보유	1급	33	42.4	48.5	9.1	90.9	9.1
	2급	193	34.7	50.3	15.0	85.0	15.0
	3급	24	41.7	37.5	20.8	79.2	20.8
	없음	62	43.5	38.7	17.7	82.3	17.7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지역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기능의 실행수준에 대해서 ‘실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84.6% (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37.8% + 일부 실행되고 있음: 46.8%)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 15.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실행되고 있다’는 응답은 수도권(92.1%), 대도시(95.8%), 청소년수련관(92.1%) 및 청소년문화의집(90.2%), 민간위탁(91.2%) 및 지자체 산하공단(93.8%)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1급 자격증 보유자(90.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근무지역, 시설입지특징 및 시설유형 그리고 운영주체에 따른 지역 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운영 기능의 실행수준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근무지역 및 운영주체, 0.1% 수준에서는 시설입지특징 및 시설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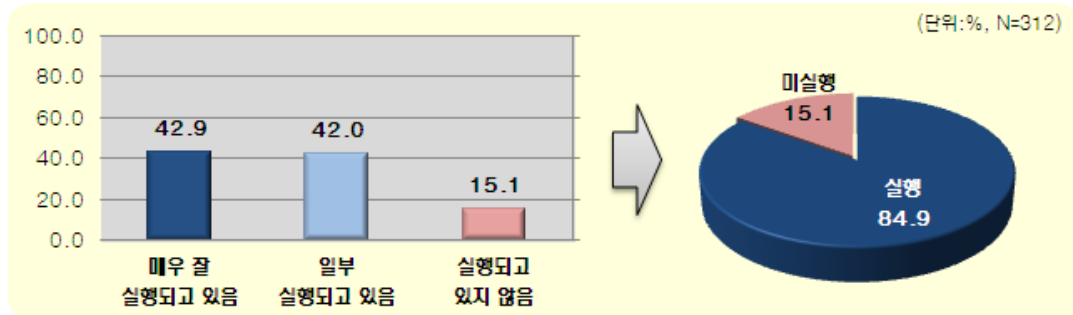
표 VII-38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지역 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7.759* (0.023)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37.984*** (0.000)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68.361*** (0.000)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14.821* (0.022)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3.720 (0.445)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4.686 (0.585)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⑥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

84.9%가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은 실행되고 있다고 응답
[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42.9%, 일부 실행되고 있음 42.0%]



【그림 VII-19】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

표 VII-39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일부 실행되고 있음	실행되고 있지 않음	*실행*	*미실행*
전체		312	42.9	42.0	15.1	84.9	15.1
근무지역	수도권	127	53.5	34.6	11.8	88.2	11.8
	경상권	61	36.1	55.7	8.2	91.8	8.2
	충청권	25	44.0	32.0	24.0	76.0	24.0
	전라권	61	32.8	45.9	21.3	78.7	21.3
	강원제주권	38	34.2	44.7	21.1	78.9	21.1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63.2	32.6	4.2	95.8	4.2
	중소도시	127	40.2	46.5	13.4	86.6	13.4
	농산어촌	90	25.6	45.6	28.9	71.1	28.9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8.4	34.7	46.9	53.1	46.9
	청소년수련관	140	51.4	42.9	5.7	94.3	5.7
	청소년문화의집	123	43.1	43.9	13.0	87.0	13.0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30.4	48.2	21.4	78.6	21.4
	법인	122	41.8	37.7	20.5	79.5	20.5
	민간위탁	102	43.1	47.1	9.8	90.2	9.8
	지자체 산하공단	32	68.8	31.3	0.0	100.0	0.0
직위	관장	29	44.8	41.4	13.8	86.2	13.8
	간부	56	30.4	51.8	17.9	82.1	17.9
	일반직원	227	45.8	39.6	14.5	85.5	14.5
자격증 보유	1급	33	48.5	45.5	6.1	93.9	6.1
	2급	193	42.5	42.0	15.5	84.5	15.5
	3급	24	45.8	41.7	12.5	87.5	12.5
	없음	62	40.3	40.3	19.4	80.6	19.4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 기능의 실행수준에 대해서 ‘실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84.9%(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42.9% + 일부 실행되고 있음: 42.0%)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 15.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실행되고 있다’는 응답은 경상권(91.8%), 대도시(95.8%)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관(94.3%), 운영주체별로는 민간위탁(90.2%) 및 지자체 산하공단(100.0%)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1급 자격증 보유자(93.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근무지역, 시설입지특징 및 시설유형 그리고 운영주체에 따른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 기능의 실행수준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근무지역, 1% 수준에서는 운영주체, 0.1% 수준에서는 시설입지특징 및 시설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0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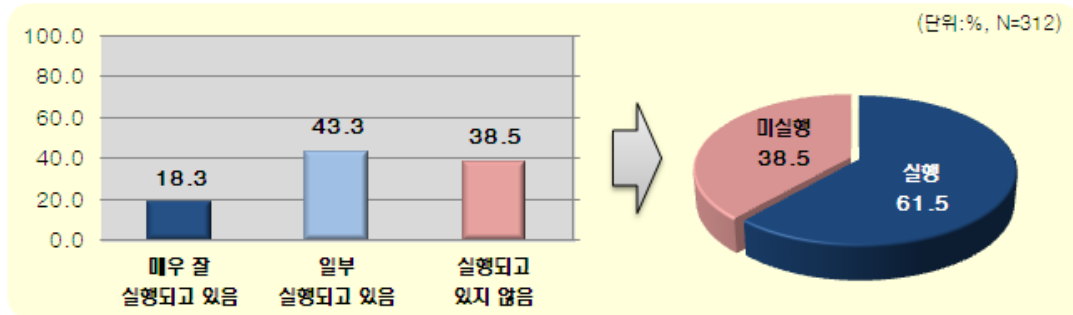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8.015* (0.021)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37.546*** (0.000)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51.509*** (0.000)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20.205** (0.003)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4.467 (0.346)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3.195 (0.784)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⑦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

61.5%가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는 실행되고 있다고 응답

[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18.3%, 일부 실행되고 있음 43.3%]



【그림 VII-20】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

표 VII-41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일부 실행되고 있음	실행되고 있지 않음	*실행*	*미실행*
전체	312	18.3	43.3	38.5	61.5	38.5
근무지역	수도권	127	20.5	44.1	35.4	64.6
	경상권	61	14.8	45.9	39.3	60.7
	충청권	25	8.0	32.0	60.0	40.0
	전라권	61	24.6	49.2	26.2	73.8
	강원제주권	38	13.2	34.2	52.6	47.4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26.3	49.5	24.2	75.8
	중소도시	127	11.8	48.0	40.2	59.8
	농산어촌	90	18.9	30.0	51.1	48.9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6.1	18.4	75.5	24.5
	청소년수련관	140	25.7	45.7	28.6	71.4
	청소년문화의집	123	14.6	50.4	35.0	65.0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19.6	37.5	42.9	57.1
	법인	122	18.9	43.4	37.7	62.3
	민간위탁	102	15.7	50.0	34.3	65.7
	지자체 산하공단	32	21.9	31.3	46.9	53.1
직위	관장	29	24.1	37.9	37.9	62.1
	간부	56	10.7	42.9	46.4	53.6
	일반직원	227	19.4	44.1	36.6	63.4
자격증 보유	1급	33	18.2	45.5	36.4	63.6
	2급	193	16.1	46.1	37.8	62.2
	3급	24	20.8	33.3	45.8	54.2
	없음	62	24.2	37.1	38.7	61.3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 기능의 실행수준에 대해서 ‘실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61.5%(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18.3% + 일부 실행되고 있음: 43.3%)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 38.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실행되고 있다’는 응답은 전라권(73.8%), 대도시(75.8%)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관(71.4%) 및 청소년문화의집(65.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시설입지특징 및 시설유형에 따른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 기능의 실행수준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시설입지특징 및 시설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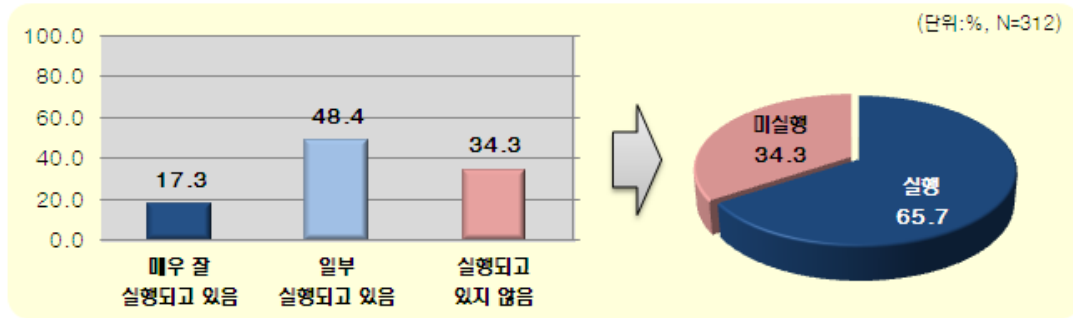
표 VII-42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3.823 (0.087)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20.314*** (0.000)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39.198*** (0.000)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4.593 (0.597)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3.815 (0.432)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3.681 (0.720)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⑧ 청소년 복지지원

65.7%가 '청소년 복지지원'은 실행되고 있다고 응답
[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17.3%, 일부 실행되고 있음 48.4%]



【그림 VII-21】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 복지지원

표 VII-43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 복지지원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일부 실행되고 있음	실행되고 있지 않음	*실행*	*미실행*
전체		312	17.3	48.4	34.3	65.7	34.3
근무지역	수도권	127	18.1	51.2	30.7	69.3	30.7
	경상권	61	16.4	39.3	44.3	55.7	44.3
	충청권	25	12.0	64.0	24.0	76.0	24.0
	전라권	61	26.2	45.9	27.9	72.1	27.9
	강원제주권	38	5.3	47.4	47.4	52.6	47.4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26.3	52.6	21.1	78.9	21.1
	중소도시	127	12.6	52.0	35.4	64.6	35.4
	농산어촌	90	14.4	38.9	46.7	53.3	46.7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2.0	28.6	69.4	30.6	69.4
	청소년수련관	140	20.7	52.9	26.4	73.6	26.4
	청소년문화의집	123	19.5	51.2	29.3	70.7	29.3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17.9	46.4	35.7	64.3	35.7
	법인	122	18.0	45.1	36.9	63.1	36.9
	민간위탁	102	16.7	52.0	31.4	68.6	31.4
	지자체 산하공단	32	15.6	53.1	31.3	68.8	31.3
직위	관장	29	3.4	62.1	34.5	65.5	34.5
	간부	56	16.1	37.5	46.4	53.6	46.4
	일반직원	227	19.4	49.3	31.3	68.7	31.3
자격증 보유	1급	33	12.1	51.5	36.4	63.6	36.4
	2급	193	16.6	46.6	36.8	63.2	36.8
	3급	24	25.0	41.7	33.3	66.7	33.3
	없음	62	19.4	54.8	25.8	74.2	25.8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 복지지원 기능의 실행수준에 대해서 ‘실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65.7%(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17.3% + 일부 실행되고 있음: 48.4%)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 3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실행되고 있다’는 응답은 충청권(76.0%) 및 전라권(72.1%), 대도시(78.9%)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관(73.6%) 및 청소년문화의집(70.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자격증 미보유자(74.2%)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시설입지특징 및 시설유형에 따른 청소년 복지지원 기능의 실행수준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시설입지특징 및 시설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4 수련시설 기능 실행수준 - 청소년 복지지원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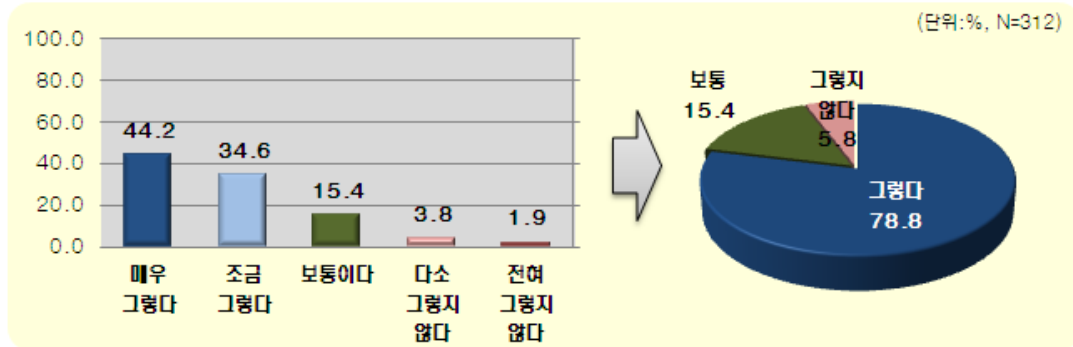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4.699 (0.065)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17.798*** (0.001)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33.668*** (0.000)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1.473 (0.961)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9.376 (0.052)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4.189 (0.651)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7) 수련시설이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해 할일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정도

78.8%는 수련시설은 지역에서 할 일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응답

[매우 그렇다 44.2%, 조금 그렇다 34.6%]



【그림 VII-22】 수련시설이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해 할일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정도

표 VII-45 수련시설이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해 할일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정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체	312	44.2	34.6	15.4	3.8	1.9	78.8	15.4	5.8
근무지역	수도권	127	47.2	33.9	14.2	3.1	1.6	81.1	14.2
	경상권	61	50.8	34.4	9.8	3.3	1.6	85.2	9.8
	충청권	25	40.0	32.0	24.0	4.0	0.0	72.0	24.0
	전라권	61	42.6	36.1	8.2	8.2	4.9	78.7	8.2
	강원제주권	38	28.9	36.8	34.2	0.0	0.0	65.8	34.2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57.9	28.4	11.6	2.1	0.0	86.3	11.6
	중소도시	127	38.6	41.7	15.0	2.4	2.4	80.3	15.0
	농산어촌	90	37.8	31.1	20.0	7.8	3.3	68.9	20.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30.6	28.6	22.4	10.2	8.2	59.2	22.4
	청소년수련관	140	47.1	35.7	13.6	2.9	0.7	82.9	13.6
	청소년문화의집	123	46.3	35.8	14.6	2.4	0.8	82.1	14.6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35.7	37.5	19.6	3.6	3.6	73.2	19.6
	법인	122	41.8	36.9	16.4	3.3	1.6	78.7	16.4
	민간위탁	102	50.0	31.4	11.8	4.9	2.0	81.4	11.8
	지자체 산하공단	32	50.0	31.3	15.6	3.1	0.0	81.3	15.6
직위	관장	29	69.0	24.1	0.0	6.9	0.0	93.1	0.0
	간부	56	42.9	32.1	10.7	8.9	5.4	75.0	10.7
	일반직원	227	41.4	36.6	18.5	2.2	1.3	78.0	18.5
자격증 보유	1급	33	66.7	15.2	9.1	6.1	3.0	81.8	9.1
	2급	193	39.4	39.9	14.5	4.7	1.6	79.3	14.5
	3급	24	50.0	16.7	29.2	4.2	0.0	66.7	29.2
	없음	62	45.2	35.5	16.1	0.0	3.2	80.6	16.1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수련시설이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해 할일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정도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78.8%(매우 그렇다: 44.2% + 조금 그렇다: 34.6%)로, ‘그렇지 않다’ 응답 5.8%(전혀 그렇지 않다: 1.9% + 다소 그렇지 않다: 3.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5.4%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은 경상권(85.2%), 대도시(86.3%), 청소년수련관(82.9%) 및 청소년문화의집(82.1%)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장(93.1%), 1급 자격증 보유자(91.8%) 및 자격증 미보유자(80.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5% 수준에서는 직위, 1% 수준에서는 시설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시설입지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6

수련시설이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해 할일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231 (0.297)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7.203*** (0.001)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5.469** (0.005)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1.005 (0.391)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3.524* (0.031)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0.723 (0.539)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2)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만족도 및 전문성

현재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 수의 적정 정도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응답이 23.1%, 부족하다는 응답이 59.9%로 나타나, 절반 이상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중인 수련시설에서 받는 보수(월급)에 만족하는지 질문한 결과,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62.2%로 만족한다는 응답 17.6%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련시설의 직원복지수준 만족도를 살펴보면,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56.1%, 만족한다는 응답 20.8%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련시설의 직원교육 제공의 적절 정도에 대해서는 46.5%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25.0%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본인의 청소년분야에 대한 전문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53.5%는 높다고 응답했으며, 7.1%는 낮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련시설에서 재직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다양화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7.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사 보유 기준을 수련시설의 '수용정원대비'라는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51.0%로 나타나, 적합하다는 응답 30.4%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II-47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만족도 및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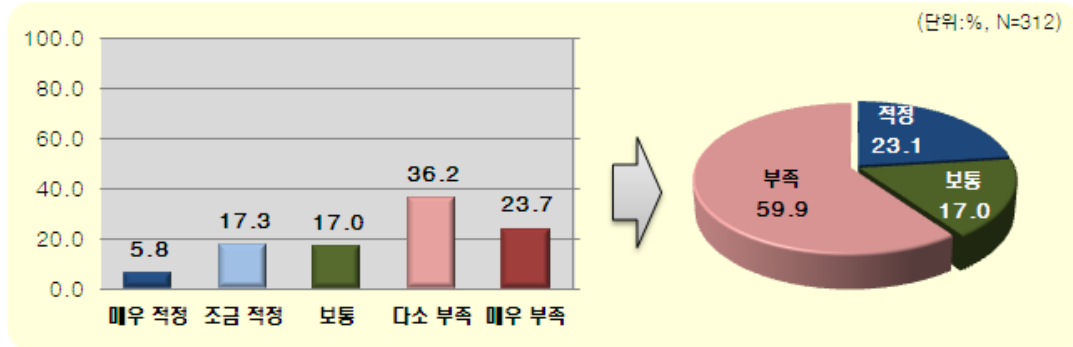
구분	내용[단위 : %]	
재직중인 수련시설의 직원 수의 적정 정도	적정	23.1
	보통	17.0
	부족	59.9
재직중인 수련시설의 보수에 대한 만족도	만족	17.6
	보통	20.2
	불만족	62.2
재직중인 수련시설의 직원복지수준 만족도	만족	20.8
	보통	23.1
	불만족	56.1
재직중인 수련시설의 직원교육 제공의 적절 정도	적절	46.5
	보통	28.5
	부적절	25.0

구분	내용[단위 : %]	
본인의 청소년분야에 대한 전문성 수준	높음	53.5
	보통	39.4
	낮음	7.1
수련시설 직원들의 전문성 다양화 필요 정도	필요	87.8
	보통	8.7
	불필요	3.5
청소년지도사 보유 기준을 ‘수용정원대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	적합	30.4
	보통	18.6
	부적합	51.0

(1)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 수의 적정 정도

59.9%는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

[매우 부족 23.7%, 다소 부족 36.2%]



[그림 VII-23]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 수의 적정 정도

표 VII-48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 수의 적정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적정	조금 적정	보통	다소 부족	매우 부족	*적정*	*보통*	*부족*
전체		312	5.8	17.3	17.0	36.2	23.7	23.1	17.0	59.9
근무지역	수도권	127	4.7	22.8	16.5	36.2	19.7	27.6	16.5	55.9
	경상권	61	4.9	9.8	4.9	45.9	34.4	14.8	4.9	80.3
	충청권	25	12.0	8.0	36.0	28.0	16.0	20.0	36.0	44.0
	전라권	61	8.2	19.7	19.7	32.8	19.7	27.9	19.7	52.5
	강원제주권	38	2.6	13.2	21.1	31.6	31.6	15.8	21.1	63.2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9.5	18.9	12.6	40.0	18.9	28.4	12.6	58.9
	중소도시	127	2.4	19.7	18.1	34.6	25.2	22.0	18.1	59.8
	농산어촌	90	6.7	12.2	20.0	34.4	26.7	18.9	20.0	61.1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2.0	8.2	24.5	40.8	24.5	10.2	24.5	65.3
	청소년수련관	140	6.4	17.9	17.1	31.4	27.1	24.3	17.1	58.6
	청소년문화의집	123	6.5	20.3	13.8	39.8	19.5	26.8	13.8	59.3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3.6	14.3	14.3	32.1	35.7	17.9	14.3	67.9
	법인	122	7.4	19.7	18.0	38.5	16.4	27.0	18.0	54.9
	민간위탁	102	4.9	13.7	16.7	38.2	26.5	18.6	16.7	64.7
	지자체 산하공단	32	6.3	25.0	18.8	28.1	21.9	31.3	18.8	50.0
직위	관장	29	6.9	13.8	13.8	31.0	34.5	20.7	13.8	65.5
	간부	56	5.4	14.3	16.1	44.6	19.6	19.6	16.1	64.3
	일반직원	227	5.7	18.5	17.6	34.8	23.3	24.2	17.6	58.1
자격증 보유	1급	33	3.0	24.2	12.1	27.3	33.3	27.3	12.1	60.6
	2급	193	5.7	18.1	14.5	37.8	23.8	23.8	14.5	61.7
	3급	24	12.5	0.0	20.8	41.7	25.0	12.5	20.8	66.7
	없음	62	4.8	17.7	25.8	33.9	17.7	22.6	25.8	51.6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 수의 적정 정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응답이 59.9%(매우 부족: 23.7% + 다소 부족: 36.2%)로, ‘적정하다’는 응답 23.1%(매우 적정: 5.8% + 조금 적정: 17.3%)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7.0%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부족하다’는 응답은 경상권(80.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원(65.3%),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직영(67.9%) 및 민간위탁(64.7%)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관장(65.5%) 및 간부(64.3%)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근무지역 및 운영주체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 근무지역 및 운영주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49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 수의 적정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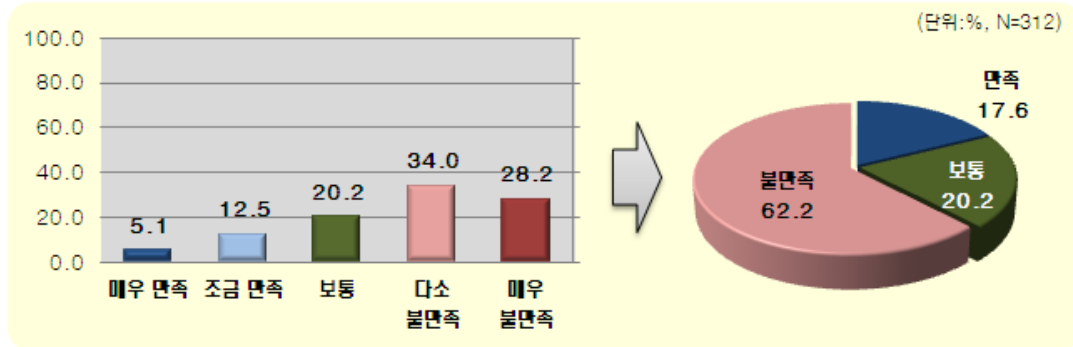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3.126* (0.015)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1.061 (0.348)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634 (0.199)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2.654* (0.049)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0.434 (0.648)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0.385 (0.764)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2)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보수에 대한 만족도

62.2%는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보수에 대해 불만족

[매우 불만족 28.2%, 다소 불만족 34.0%]



【그림 VII-24】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보수에 대한 만족도

표 VII-50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보수에 대한 만족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312	5.1	12.5	20.2	34.0	28.2	17.6	20.2	62.2
근무지역	수도권	127	4.7	19.7	21.3	27.6	26.8	24.4	21.3	54.3
	경상권	61	6.6	9.8	21.3	34.4	27.9	16.4	21.3	62.3
	충청권	25	8.0	12.0	24.0	32.0	24.0	20.0	24.0	56.0
	전라권	61	4.9	8.2	21.3	42.6	23.0	13.1	21.3	65.6
	강원제주권	38	2.6	0.0	10.5	42.1	44.7	2.6	10.5	86.8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6.3	15.8	26.3	22.1	29.5	22.1	26.3	51.6
	중소도시	127	2.4	15.7	16.5	37.0	28.3	18.1	16.5	65.4
	농산어촌	90	7.8	4.4	18.9	42.2	26.7	12.2	18.9	68.9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8.2	12.2	24.5	40.8	14.3	20.4	24.5	55.1
	청소년수련관	140	5.0	12.1	22.1	27.1	33.6	17.1	22.1	60.7
	청소년문화의집	123	4.1	13.0	16.3	39.0	27.6	17.1	16.3	66.7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5.4	8.9	10.7	42.9	32.1	14.3	10.7	75.0
	법인	122	4.9	13.9	22.1	34.4	24.6	18.9	22.1	59.0
	민간위탁	102	3.9	8.8	20.6	32.4	34.3	12.7	20.6	66.7
	지자체 산하공단	32	9.4	25.0	28.1	21.9	15.6	34.4	28.1	37.5
직위	관장	29	13.8	3.4	31.0	24.1	27.6	17.2	31.0	51.7
	간부	56	8.9	16.1	14.3	39.3	21.4	25.0	14.3	60.7
	일반직원	227	3.1	12.8	20.3	33.9	30.0	15.9	20.3	63.9
자격증 보유	1급	33	15.2	18.2	15.2	24.2	27.3	33.3	15.2	51.5
	2급	193	3.6	12.4	17.6	37.8	28.5	16.1	17.6	66.3
	3급	24	4.2	12.5	25.0	29.2	29.2	16.7	25.0	58.3
	없음	62	4.8	9.7	29.0	29.0	27.4	14.5	29.0	56.5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보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62.2%(매우 불만족: 28.2% + 다소 불만족: 34.0%)로, ‘만족한다’는 응답 17.6%(매우 만족: 5.1% + 조금 만족: 12.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0.2%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강원제주권(86.8%), 중소도시(65.4%) 및 농산어촌(68.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문화의집(66.7%),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직영(75.0%)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직원(63.9%), 2급 자격증 보유자(66.3%)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근무지역 및 운영주체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 근무지역 및 운영주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51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보수에 대한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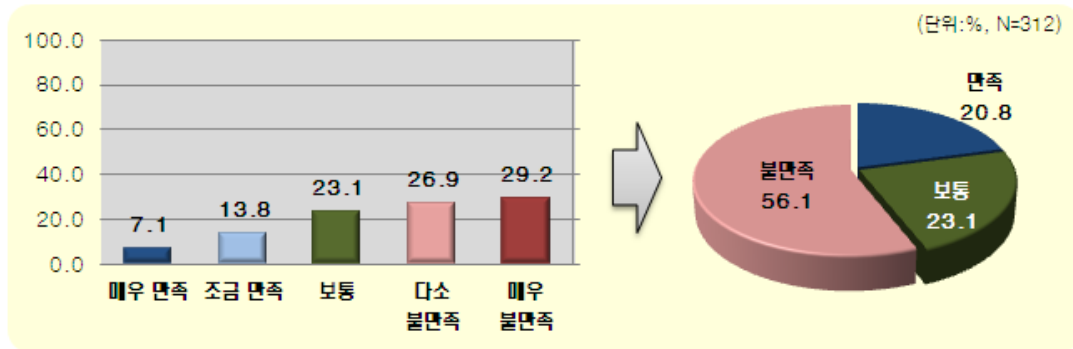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4.735** (0.002)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1.154 (0.317)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562 (0.211)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4.256** (0.006)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1.640 (0.196)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0.998 (0.399)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3)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복지수준 만족도

56.1%는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복지수준 대해 불만족

[매우 불만족 29.2%, 다소 불만족 26.9%]



[그림 VII-25]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복지수준 만족도

표 VII-52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복지수준 만족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312	7.1	13.8	23.1	26.9	29.2	20.8	23.1	56.1
근무지역	수도권	127	8.7	18.9	22.0	27.6	22.8	27.6	50.4
	경상권	61	9.8	13.1	21.3	27.9	27.9	23.0	55.7
	충청권	25	12.0	12.0	24.0	28.0	24.0	24.0	52.0
	전라권	61	1.6	9.8	31.1	27.9	29.5	11.5	57.4
	강원제주권	38	2.6	5.3	15.8	21.1	55.3	7.9	76.3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10.5	14.7	24.2	26.3	24.2	25.3	50.5
	중소도시	127	6.3	14.2	21.3	28.3	29.9	20.5	58.3
	농산어촌	90	4.4	12.2	24.4	25.6	33.3	16.7	58.9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0.2	16.3	28.6	24.5	20.4	26.5	44.9
	청소년수련관	140	6.4	11.4	21.4	25.7	35.0	17.9	60.7
	청소년문화의집	123	6.5	15.4	22.8	29.3	26.0	22.0	55.3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5.4	8.9	16.1	30.4	39.3	14.3	69.6
	법인	122	7.4	13.9	25.4	30.3	23.0	21.3	53.3
	민간위탁	102	2.9	12.7	25.5	25.5	33.3	15.7	58.8
	지자체 산하공단	32	21.9	25.0	18.8	12.5	21.9	46.9	34.4
직위	관장	29	10.3	6.9	24.1	31.0	27.6	17.2	58.6
	간부	56	10.7	17.9	26.8	23.2	21.4	28.6	44.6
	일반직원	227	5.7	13.7	22.0	27.3	31.3	19.4	58.6
자격증 보유	1급	33	12.1	21.2	18.2	27.3	21.2	33.3	48.5
	2급	193	5.7	11.9	21.8	29.0	31.6	17.6	60.6
	3급	24	8.3	16.7	20.8	33.3	20.8	25.0	54.2
	없음	62	8.1	14.5	30.6	17.7	29.0	22.6	46.8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복지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6.1% (매우 불만족: 29.2% + 다소 불만족: 26.9%)로, ‘만족한다’는 응답 20.8%(매우 만족: 7.1% + 조금 만족: 13.8%)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3.1%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강원제주권(76.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관(60.7%),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직영(69.6%)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2급 자격증 보유자(60.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근무지역 및 운영주체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는 근무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운영주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53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복지수준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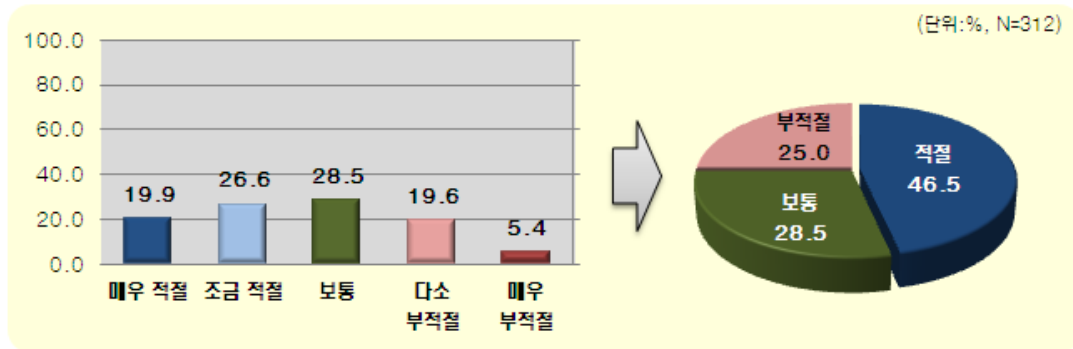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3.954** (0.004)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1.683 (0.188)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2.332 (0.099)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5.728*** (0.001)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2.131 (0.120)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1.689 (0.169)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4)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교육 제공의 적절 정도

46.5%는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교육 제공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

[매우 적절 19.9%, 조금 적절 26.6%]



【그림 VII-26】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교육 제공의 적절 정도

표 VII-54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교육 제공의 적절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적절	조금 적절	보통	다소 부적절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전체		312	19.9	26.6	28.5	19.6	5.4	46.5	28.5	25.0
근무지역	수도권	127	22.8	25.2	27.6	17.3	7.1	48.0	27.6	24.4
	경상권	61	24.6	27.9	29.5	9.8	8.2	52.5	29.5	18.0
	충청권	25	12.0	40.0	20.0	28.0	0.0	52.0	20.0	28.0
	전라권	61	16.4	27.9	31.1	23.0	1.6	44.3	31.1	24.6
	강원제주권	38	13.2	18.4	31.6	31.6	5.3	31.6	31.6	36.8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20.0	31.6	29.5	16.8	2.1	51.6	29.5	18.9
	중소도시	127	17.3	26.8	29.1	18.9	7.9	44.1	29.1	26.8
	농산어촌	90	23.3	21.1	26.7	23.3	5.6	44.4	26.7	28.9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20.4	28.6	24.5	18.4	8.2	49.0	24.5	26.5
	청소년수련관	140	18.6	22.1	32.1	20.7	6.4	40.7	32.1	27.1
	청소년문화의집	123	21.1	30.9	26.0	18.7	3.3	52.0	26.0	22.0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26.8	17.9	23.2	26.8	5.4	44.6	23.2	32.1
	법인	122	18.9	28.7	24.6	19.7	8.2	47.5	24.6	27.9
	민간위탁	102	13.7	26.5	37.3	19.6	2.9	40.2	37.3	22.5
	지자체 산하공단	32	31.3	34.4	25.0	6.3	3.1	65.6	25.0	9.4
직위	관장	29	24.1	34.5	31.0	6.9	3.4	58.6	31.0	10.3
	간부	56	14.3	39.3	28.6	12.5	5.4	53.6	28.6	17.9
	일반직원	227	20.7	22.5	28.2	22.9	5.7	43.2	28.2	28.6
자격증 보유	1급	33	21.2	42.4	18.2	12.1	6.1	63.6	18.2	18.2
	2급	193	17.1	26.9	26.9	23.3	5.7	44.0	26.9	29.0
	3급	24	29.2	16.7	33.3	12.5	8.3	45.8	33.3	20.8
	없음	62	24.2	21.0	37.1	14.5	3.2	45.2	37.1	17.7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교육 제공의 적절 정도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46.5%(매우 적절: 19.9% + 조금 적절: 26.6%)로, '부적절하다'는 응답 25.0%(매우 부적절: 5.4% + 다소 부적절: 19.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8.5%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경상권(52.5%) 및 충청권(52.0%), 대도시(51.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문화의집(52.0%),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산하공단(65.6%)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장(58.6%) 및 간부(53.6%), 1급 자격증 보유자(63.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VII-55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교육 제공의 적절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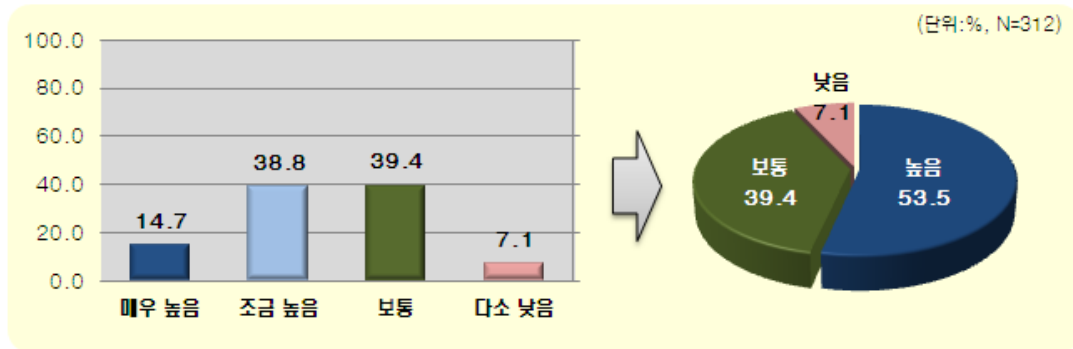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062 (0.375)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1.168 (0.312)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206 (0.301)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2.506 (0.063)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1.683 (0.187)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1.225 (0.301)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5) 본인의 청소년분야에 대한 전문성 수준

53.5%는 본인의 청소년분야에 대한 전문성 수준을 높다고 생각

[매우 높음 14.7%, 조금 높음 38.8%]



【그림 VII-27】 본인의 청소년분야에 대한 전문성 수준

표 VII-56 본인의 청소년분야에 대한 전문성 수준

단위[%]		사례수[명]	매우 높음	조금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매우 낮음	*높음*	*보통*	*낮음*
전체		312	14.7	38.8	39.4	7.1	0.0	53.5	39.4	7.1
근무지역	수도권	127	15.7	37.0	40.2	7.1	0.0	52.8	40.2	7.1
	경상권	61	16.4	45.9	37.7	0.0	0.0	62.3	37.7	0.0
	충청권	25	16.0	48.0	36.0	0.0	0.0	64.0	36.0	0.0
	전라권	61	8.2	34.4	39.3	18.0	0.0	42.6	39.3	18.0
	강원제주권	38	18.4	34.2	42.1	5.3	0.0	52.6	42.1	5.3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12.6	44.2	37.9	5.3	0.0	56.8	37.9	5.3
	중소도시	127	12.6	37.8	42.5	7.1	0.0	50.4	42.5	7.1
	농산어촌	90	20.0	34.4	36.7	8.9	0.0	54.4	36.7	8.9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20.4	34.7	36.7	8.2	0.0	55.1	36.7	8.2
	청소년수련관	140	15.7	37.1	41.4	5.7	0.0	52.9	41.4	5.7
	청소년문화의집	123	11.4	42.3	38.2	8.1	0.0	53.7	38.2	8.1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19.6	33.9	39.3	7.1	0.0	53.6	39.3	7.1
	법인	122	12.3	40.2	39.3	8.2	0.0	52.5	39.3	8.2
	민간위탁	102	14.7	38.2	41.2	5.9	0.0	52.9	41.2	5.9
	지자체 산하공단	32	15.6	43.8	34.4	6.3	0.0	59.4	34.4	6.3
직위	관장	29	31.0	51.7	17.2	0.0	0.0	82.8	17.2	0.0
	간부	56	19.6	46.4	26.8	7.1	0.0	66.1	26.8	7.1
	일반직원	227	11.5	35.2	45.4	7.9	0.0	46.7	45.4	7.9
자격증 보유	1급	33	51.5	36.4	12.1	0.0	0.0	87.9	12.1	0.0
	2급	193	8.3	47.2	38.3	6.2	0.0	55.4	38.3	6.2
	3급	24	20.8	29.2	37.5	12.5	0.0	50.0	37.5	12.5
	없음	62	12.9	17.7	58.1	11.3	0.0	30.6	58.1	11.3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본인의 청소년분야에 대한 전문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높다’는 응답이 53.5%(매우 높음: 14.7% + 조금 높음: 38.8%)로, ‘낮다’는 응답 7.1%(매우 낮음: 0.0% + 다소 낮음: 7.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9.4%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높다’는 응답은 경상권(62.3%) 및 충청권(64.0%), 지자체 산하공단(59.4%)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관장(82.8%) 및 간부(66.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1급 자격증 보유자(87.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근무지역 및 직위 그리고 자격증 보유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근무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직위 및 자격증 보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57 본인의 청소년분야에 대한 전문성 수준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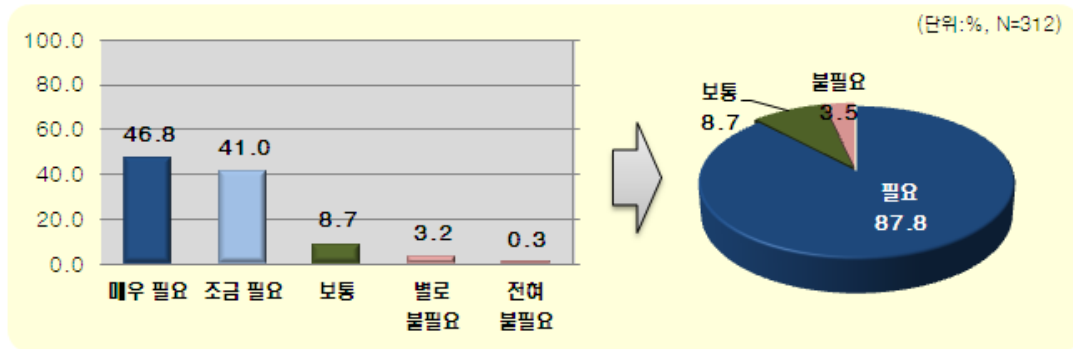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2.942* (0.021)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452 (0.637)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0.332 (0.718)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0.285 (0.836)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9.732*** (0.000)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14.281*** (0.000)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6) 수련시설 직원들의 전문성 다양화 필요 정도

87.8%는 수련시설 직원들의 전문성을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매우 필요 46.8%, 조금 필요 41.0%]



【그림 VII-28】 수련시설 직원들의 전문성 다양화 필요 정도

표 VII-58 수련시설 직원들의 전문성 다양화 필요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필요	조금 필요	보통	별로 불필요	전혀 불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312	46.8	41.0	8.7	3.2	0.3	87.8	8.7	3.5
근무지역	수도권	127	48.8	37.8	8.7	4.7	0.0	86.6	8.7	4.7
	경상권	61	55.7	36.1	4.9	3.3	0.0	91.8	4.9	3.3
	충청권	25	40.0	48.0	12.0	0.0	0.0	88.0	12.0	0.0
	전라권	61	45.9	44.3	8.2	0.0	1.6	90.2	8.2	1.6
	강원제주권	38	31.6	50.0	13.2	5.3	0.0	81.6	13.2	5.3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50.5	41.1	7.4	1.1	0.0	91.6	7.4	1.1
	중소도시	127	38.6	42.5	12.6	5.5	0.8	81.1	12.6	6.3
	농산어촌	90	54.4	38.9	4.4	2.2	0.0	93.3	4.4	2.2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57.1	32.7	6.1	4.1	0.0	89.8	6.1	4.1
	청소년수련관	140	45.0	43.6	8.6	2.9	0.0	88.6	8.6	2.9
	청소년문화의집	123	44.7	41.5	9.8	3.3	0.8	86.2	9.8	4.1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50.0	41.1	7.1	1.8	0.0	91.1	7.1	1.8
	법인	122	43.4	42.6	8.2	4.9	0.8	86.1	8.2	5.7
	민간위탁	102	49.0	38.2	11.8	1.0	0.0	87.3	11.8	1.0
	지자체 산하공단	32	46.9	43.8	3.1	6.3	0.0	90.6	3.1	6.3
직위	관장	29	65.5	27.6	3.4	3.4	0.0	93.1	3.4	3.4
	간부	56	48.2	44.6	5.4	1.8	0.0	92.9	5.4	1.8
	일반직원	227	44.1	41.9	10.1	3.5	0.4	85.9	10.1	4.0
자격증 보유	1급	33	57.6	39.4	0.0	3.0	0.0	97.0	0.0	3.0
	2급	193	46.1	42.5	7.8	3.1	0.5	88.6	7.8	3.6
	3급	24	50.0	41.7	8.3	0.0	0.0	91.7	8.3	0.0
	없음	62	41.9	37.1	16.1	4.8	0.0	79.0	16.1	4.8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수련시설 직원들의 전문성 다양화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7.8%(매우 필요: 46.8% + 조금 필요: 41.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5%(전혀 불필요: 0.3% + 별로 불필요: 3.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8.7%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경상권(91.8%) 및 전라권(90.2%), 대도시(91.6%) 및 농산어촌(93.3%)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관장(93.1%) 및 간부(92.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1급 자격증 보유자(97.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시설입지특징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 시설입지특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59 수련시설 직원들의 전문성 다양화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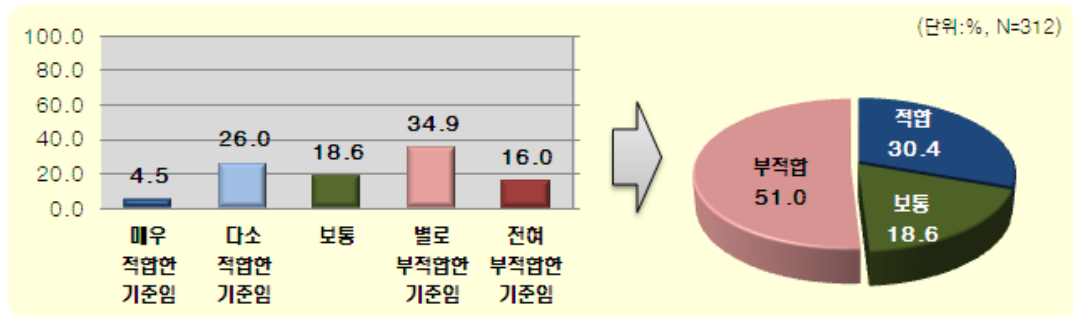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274 (0.280)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5.975** (0.003)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0.802 (0.449)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0.731 (0.534)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2.241 (0.108)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1.645 (0.179)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7) '수용정원대비'로 청소년지도사 보유 기준에 대한 의견 요인별 차이분석

51.0%는 '수용정원대비'로 청소년지도사 보유 기준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생각

[전혀 부적합한 기준임 16.0%, 별로 부적합한 기준임 34.9%]



【그림 VII-29】 '수용정원대비'로 청소년지도사 보유 기준에 대한 의견 요인별 차이분석

표 VII-60 '수용정원대비'로 청소년지도사 보유 기준에 대한 의견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매우 적합한 기준임	다소 적합한 기준임	보통	별로 부적합한 기준임	전혀 부적합한 기준임	*적합*	*보통*	*부적합*
전체	312	4.5	26.0	18.6	34.9	16.0	30.4	18.6	51.0
근무지역	수도권	127	4.7	26.8	17.3	39.4	11.8	31.5	51.2
	경상권	61	4.9	24.6	14.8	27.9	27.9	29.5	55.7
	충청권	25	0.0	28.0	16.0	36.0	20.0	28.0	56.0
	전라권	61	6.6	24.6	26.2	31.1	11.5	31.1	42.6
	강원제주권	38	2.6	26.3	18.4	36.8	15.8	28.9	52.6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4.2	29.5	17.9	35.8	12.6	33.7	48.4
	중소도시	127	4.7	23.6	21.3	34.6	15.7	28.3	50.4
	농산어촌	90	4.4	25.6	15.6	34.4	20.0	30.0	54.4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4.1	32.7	16.3	28.6	18.4	36.7	46.9
	청소년수련관	140	5.7	31.4	17.9	31.4	13.6	37.1	45.0
	청소년문화의집	123	3.3	17.1	20.3	41.5	17.9	20.3	59.3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7.1	16.1	16.1	35.7	25.0	23.2	60.7
	법인	122	4.1	29.5	23.8	34.4	8.2	33.6	42.6
	민간위탁	102	3.9	28.4	15.7	34.3	17.6	32.4	52.0
	지자체 산하공단	32	3.1	21.9	12.5	37.5	25.0	25.0	62.5
직위	관장	29	0.0	31.0	17.2	37.9	13.8	31.0	51.7
	간부	56	5.4	21.4	19.6	35.7	17.9	26.8	53.6
	일반직원	227	4.8	26.4	18.5	34.4	15.9	31.3	50.2
자격증 보유	1급	33	6.1	33.3	12.1	24.2	24.2	39.4	48.5
	2급	193	3.6	24.9	15.5	38.9	17.1	28.5	56.0
	3급	24	4.2	20.8	16.7	29.2	29.2	25.0	58.3
	없음	62	6.5	27.4	32.3	30.6	3.2	33.9	32.3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지도사 보유 기준을 수련시설의 ‘수용정원대비’라는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부적합한 기준이다’는 응답이 51.0%(전혀 부적합한 기준임: 16.0% + 별로 부적합한 기준임: 34.9%)로 ‘적합한 기준이다’는 응답 30.4%(매우 적합한 기준임: 4.5% + 다소 적합한 기준임: 26.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8.6%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부적합한 기준이다’는 응답은 청소년문화의집(59.3%),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직영(60.7%) 및 지자체 산하공단(62.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2급(56.0%) 및 3급(58.3%) 자격증 보유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시설유형 및 자격증 보유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 시설유형 및 자격증 보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61 ‘수용정원대비’로 청소년지도사 보유 기준에 대한 의견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0.817 (0.515)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499 (0.607)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3.730* (0.025)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2.495 (0.060)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0.153 (0.858)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3.262* (0.027)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3) 교육정책 및 학교와의 관계

수련시설이 교육정책과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80.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수련시설이 교육정책과 어느 정도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응답이 41.3%, 연계 안 되어 있다는 응답이 29.2%로 나타났다.

수련시설과 학교의 연계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85.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 없다는 응답은 3.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최근 수련시설이 학교 연계협력 사업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밀접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3%, 연계협력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밀접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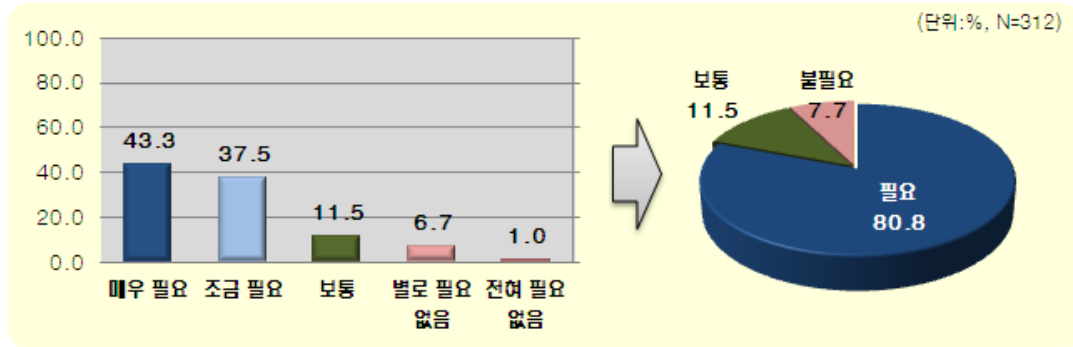
표 VII-62 교육정책 및 학교와의 관계

구분	내용[단위 : %]	
수련시설의 교육정책과 연계 필요 정도	필요	80.8
	보통	11.5
	불필요	7.7
수련시설의 교육정책과 연계 운영 정도	연계	41.3
	보통	29.5
	비연계	29.2
수련시설과 학교의 연계협력 사업의 필요 정도	필요	85.9
	보통	10.3
	불필요	3.8
수련시설의 학교 연계협력 사업 필요 정도	밀접한 연계 필요	83.3
	보통	11.5
	연계 불필요	5.1

(1) 수련시설의 교육정책과 연계 필요 정도

80.8%는 수련시설의 교육정책과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매우 필요 43.3%, 조금 필요 37.5%]



【그림 VII-30】 수련시설의 교육정책과 연계 필요 정도

표 VII-63 수련시설의 교육정책과 연계 필요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필요	조금 필요	보통	별로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312	43.3	37.5	11.5	6.7	1.0	80.8	11.5	7.7
근무지역	수도권	127	40.2	38.6	13.4	7.1	0.8	78.7	13.4	7.9
	경상권	61	52.5	32.8	11.5	3.3	0.0	85.2	11.5	3.3
	충청권	25	44.0	36.0	8.0	12.0	0.0	80.0	8.0	12.0
	전라권	61	41.0	39.3	9.8	6.6	3.3	80.3	9.8	9.8
	강원제주권	38	42.1	39.5	10.5	7.9	0.0	81.6	10.5	7.9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48.4	31.6	13.7	5.3	1.1	80.0	13.7	6.3
	중소도시	127	33.9	47.2	11.0	7.9	0.0	81.1	11.0	7.9
	농산어촌	90	51.1	30.0	10.0	6.7	2.2	81.1	10.0	8.9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53.1	32.7	10.2	4.1	0.0	85.7	10.2	4.1
	청소년수련관	140	44.3	36.4	11.4	6.4	1.4	80.7	11.4	7.9
	청소년문화의집	123	38.2	40.7	12.2	8.1	0.8	78.9	12.2	8.9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50.0	26.8	16.1	5.4	1.8	76.8	16.1	7.1
	법인	122	39.3	42.6	10.7	6.6	0.8	82.0	10.7	7.4
	민간위탁	102	47.1	35.3	11.8	4.9	1.0	82.4	11.8	5.9
	지자체 산하공단	32	34.4	43.8	6.3	15.6	0.0	78.1	6.3	15.6
직위	관장	29	69.0	20.7	3.4	3.4	3.4	89.7	3.4	6.9
	간부	56	53.6	37.5	3.6	5.4	0.0	91.1	3.6	5.4
	일반직원	227	37.4	39.6	14.5	7.5	0.9	77.1	14.5	8.4
자격증 보유	1급	33	54.5	30.3	6.1	9.1	0.0	84.8	6.1	9.1
	2급	193	44.6	39.4	9.3	5.2	1.6	83.9	9.3	6.7
	3급	24	45.8	25.0	16.7	12.5	0.0	70.8	16.7	12.5
	없음	62	32.3	40.3	19.4	8.1	0.0	72.6	19.4	8.1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수련시설이 교육정책과 연계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80.8%(매우 필요: 43.3% + 조금 필요: 37.5%)로 ‘필요 없다’는 응답 7.7%(전혀 필요 없음: 1.0% + 별로 필요 없음: 6.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1.5%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경상권(85.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원(85.7%)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관장(89.7%) 및 간부(91.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1급(84.8%) 및 2급(83.9%) 자격증 보유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직위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 직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64 수련시설의 교육정책과 연계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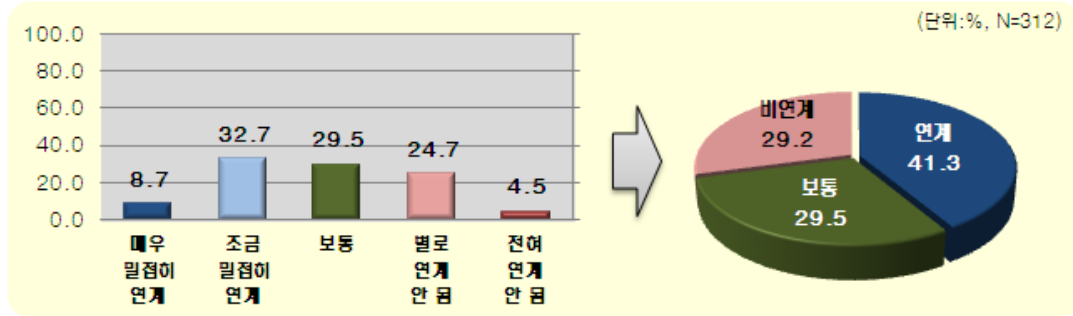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0.817 (0.515)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834 (0.435)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493 (0.226)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0.646 (0.586)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5.026** (0.007)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1.376 (0.250)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2) 수련시설의 교육정책과 연계 운영 정도

41.3%는 수련시설의 교육정책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

[매우 밀접히 연계 8.7%, 조금 밀접히 연계 32.7%]



[그림 VII-31] 수련시설의 교육정책과 연계 운영 정도

표 VII-65 수련시설의 교육정책과 연계 운영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밀접히 연계	조금 밀접히 연계	보통	별로 연계 안 됨	전혀 연계 안 됨	*연계*	*보통*	*비연계*
전체		312	8.7	32.7	29.5	24.7	4.5	41.3	29.5	29.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3.4	33.1	27.6	22.8	3.1	46.5	27.6	26.0
	경상권	61	3.3	34.4	27.9	27.9	6.6	37.7	27.9	34.4
	충청권	25	16.0	20.0	24.0	36.0	4.0	36.0	24.0	40.0
	전라권	61	3.3	36.1	27.9	27.9	4.9	39.3	27.9	32.8
	강원제주권	38	5.3	31.6	44.7	13.2	5.3	36.8	44.7	18.4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13.7	25.3	28.4	29.5	3.2	38.9	28.4	32.6
	중소도시	127	4.7	43.3	31.5	16.5	3.9	48.0	31.5	20.5
	농산어촌	90	8.9	25.6	27.8	31.1	6.7	34.4	27.8	37.8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0.2	16.3	36.7	28.6	8.2	26.5	36.7	36.7
	청소년수련관	140	7.1	40.7	27.1	22.9	2.1	47.9	27.1	25.0
	청소년문화의집	123	9.8	30.1	29.3	25.2	5.7	39.8	29.3	30.9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3.6	19.6	39.3	32.1	5.4	23.2	39.3	37.5
	법인	122	12.3	29.5	30.3	22.1	5.7	41.8	30.3	27.9
	민간위탁	102	7.8	37.3	24.5	26.5	3.9	45.1	24.5	30.4
	지자체 산하공단	32	6.3	53.1	25.0	15.6	0.0	59.4	25.0	15.6
직위	관장	29	20.7	27.6	31.0	6.9	13.8	48.3	31.0	20.7
	간부	56	7.1	25.0	30.4	32.1	5.4	32.1	30.4	37.5
	일반직원	227	7.5	35.2	29.1	25.1	3.1	42.7	29.1	28.2
자격증 보유	1급	33	18.2	33.3	18.2	27.3	3.0	51.5	18.2	30.3
	2급	193	7.8	34.7	26.9	26.4	4.1	42.5	26.9	30.6
	3급	24	8.3	33.3	37.5	16.7	4.2	41.7	37.5	20.8
	없음	62	6.5	25.8	40.3	21.0	6.5	32.3	40.3	27.4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최근 수련시설이 교육정책과 어느 정도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응답이 41.3%(매우 밀접히 연계: 8.7% + 조금 밀접히 연계: 32.7%)로 ‘연계 안 되어 있다’는 응답 29.2%(전혀 연계 안 됨: 4.5% + 별로 연계 안 됨: 24.7%)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9.5%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응답은 수도권(46.5%), 중소도시(48.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관(47.9%), 운영주체별로는 민간위탁(45.1%) 및 지자체 산하공단(59.4%)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관장(48.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1급 자격증 보유자(51.5%)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운영주체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 운영주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66 수련시설의 교육정책과 연계 운영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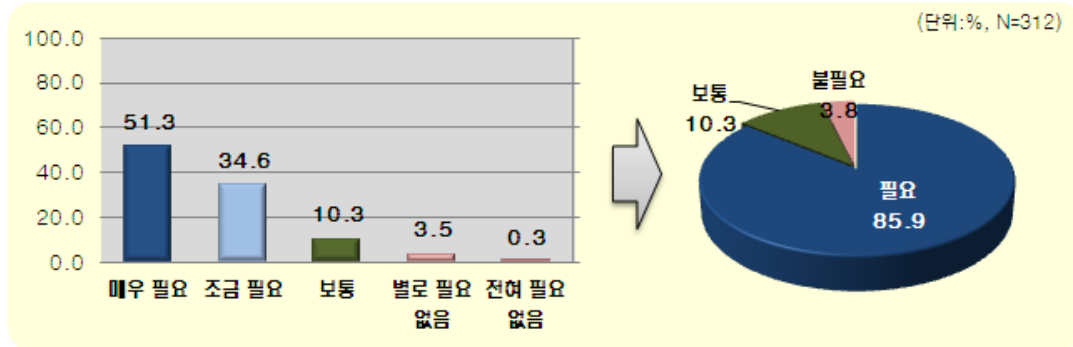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220 (0.302)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2,141 (0.119)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2,313 (0.101)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3,088* (0.027)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1,552 (0.213)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0,722 (0.540)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3) 수련시설과 학교의 연계협력 사업의 필요 정도

85.9%는 수련시설과 학교의 연계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

[매우 필요 51.3%, 조금 필요 34.6%]



【그림 VII-32】 수련시설과 학교의 연계협력 사업의 필요 정도

표 VII-67 수련시설과 학교의 연계협력 사업의 필요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필요	조금 필요	보통	별로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312	51.3	34.6	10.3	3.5	0.3	85.9	10.3	3.8
근무지역	수도권	127	47.2	40.2	9.4	3.1	0.0	87.4	9.4
	경상권	61	62.3	27.9	6.6	3.3	0.0	90.2	6.6
	충청권	25	60.0	16.0	16.0	4.0	4.0	76.0	16.0
	전라권	61	44.3	41.0	11.5	3.3	0.0	85.2	11.5
	강원제주권	38	52.6	28.9	13.2	5.3	0.0	81.6	13.2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53.7	35.8	6.3	4.2	0.0	89.5	6.3
	중소도시	127	46.5	37.8	12.6	3.1	0.0	84.3	12.6
	농산어촌	90	55.6	28.9	11.1	3.3	1.1	84.4	11.1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53.1	32.7	14.3	0.0	0.0	85.7	14.3
	청소년수련관	140	54.3	33.6	7.9	4.3	0.0	87.9	7.9
	청소년문화의집	123	47.2	36.6	11.4	4.1	0.8	83.7	11.4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53.6	25.0	17.9	1.8	1.8	78.6	17.9
	법인	122	51.6	36.9	9.0	2.5	0.0	88.5	9.0
	민간위탁	102	51.0	35.3	9.8	3.9	0.0	86.3	9.8
	지자체 산하공단	32	46.9	40.6	3.1	9.4	0.0	87.5	3.1
직위	관장	29	69.0	20.7	3.4	6.9	0.0	89.7	3.4
	간부	56	57.1	35.7	3.6	3.6	0.0	92.9	3.6
	일반직원	227	47.6	36.1	12.8	3.1	0.4	83.7	12.8
자격증 보유	1급	33	72.7	18.2	3.0	6.1	0.0	90.9	3.0
	2급	193	50.8	34.7	10.9	3.6	0.0	85.5	10.9
	3급	24	58.3	29.2	4.2	4.2	4.2	87.5	4.2
	없음	62	38.7	45.2	14.5	1.6	0.0	83.9	14.5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수련시설과 학교의 연계협력 사업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5.9%(매우 필요: 51.3% + 조금 필요: 34.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 없다’는 응답은 3.8%(전혀 필요 없음: 0.3% + 별로 필요 없음: 3.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0.3%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경상권(90.2%), 대도시(89.5%)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간부(92.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1급 자격증 보유자(90.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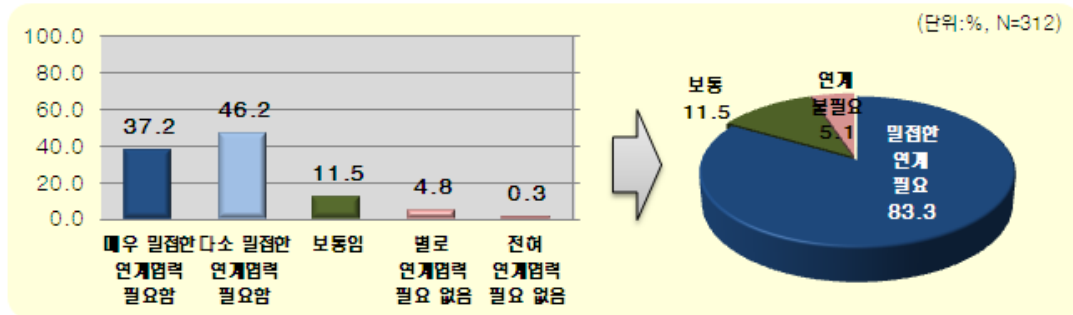
표 VII-68 수련시설과 학교의 연계협력 사업의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0.798 (0.527)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537 (0.585)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0.914 (0.402)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0.338 (0.798)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2.048 (0.131)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1.427 (0.235)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4) 수련시설의 학교 연계협력 사업 필요 정도

83.3%는 수련시설과 학교간 밀접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매우 밀접한 연계협력이 필요함 37.2%, 다소 밀접한 연계협력이 필요함 46.2%]



【그림 VII-33】 수련시설의 학교 연계협력 사업 필요 정도

표 VII-69 수련시설의 학교 연계협력 사업 필요 정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밀접한 연계협력 필요함	다소 밀접한 연계협력 필요함	보통임	별로 연계협력 필요 없음	전혀 연계협력 필요 없음	*밀접한 연계 필요*	*보통*	*연계 불필요*
전체	312	37.2	46.2	11.5	4.8	0.3	83.3	11.5	5.1
근무지역	수도권	127	38.6	44.9	11.0	5.5	0.0	83.5	11.0
	경상권	61	45.9	39.3	11.5	1.6	1.6	85.2	11.5
	충청권	25	40.0	32.0	20.0	8.0	0.0	72.0	20.0
	전라권	61	26.2	57.4	11.5	4.9	0.0	83.6	11.5
	강원제주권	38	34.2	52.6	7.9	5.3	0.0	86.8	7.9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42.1	42.1	8.4	6.3	1.1	84.2	8.4
	중소도시	127	32.3	50.4	13.4	3.9	0.0	82.7	13.4
	농산어촌	90	38.9	44.4	12.2	4.4	0.0	83.3	12.2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44.9	32.7	18.4	4.1	0.0	77.6	18.4
	청소년수련관	140	38.6	49.3	8.6	2.9	0.7	87.9	8.6
	청소년문화의집	123	32.5	48.0	12.2	7.3	0.0	80.5	12.2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28.6	48.2	17.9	5.4	0.0	76.8	17.9
	법인	122	39.3	45.1	10.7	4.9	0.0	84.4	10.7
	민간위탁	102	35.3	51.0	9.8	2.9	1.0	86.3	9.8
	지자체 산하공단	32	50.0	31.3	9.4	9.4	0.0	81.3	9.4
직위	관장	29	62.1	31.0	0.0	6.9	0.0	93.1	0.0
	간부	56	33.9	53.6	7.1	3.6	1.8	87.5	7.1
	일반직원	227	34.8	46.3	14.1	4.8	0.0	81.1	14.1
자격증 보유	1급	33	57.6	30.3	6.1	6.1	0.0	87.9	6.1
	2급	193	36.8	45.6	11.4	5.7	0.5	82.4	11.4
	3급	24	37.5	54.2	4.2	4.2	0.0	91.7	4.2
	없음	62	27.4	53.2	17.7	1.6	0.0	80.6	17.7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최근 수련시설의 학교 연계협력 사업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밀접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3%(매우 밀접한 연계협력 필요함: 37.2% + 다소 밀접한 연계협력 필요함: 46.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연계협력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5.1%(전혀 연계협력 필요 없음: 0.3% + 별로 연계협력 필요 없음: 4.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1.5%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밀접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청소년수련관(87.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직위별로는 관장(93.1%) 및 간부(87.5%)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1급(87.9%) 및 3급(91.7%) 자격증 보유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VII-70 수련시설의 학교 연계협력 사업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0.624 (0.646)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253 (0.777)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337 (0.264)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0.784 (0.504)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2.626 (0.074)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1.354 (0.257)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4)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관계

최근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여성가족부)의 여러 지원(예산 등)에 대해 만족하는지 질문한 결과,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76.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여러 지원의 적정 정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81.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청소년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0.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7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최근 지자체의 수련시설에 대한 여러 지원에 대해 만족하는지 살펴보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62.8%로 만족한다는 응답 16.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수련시설에 대한 역할(시설정책) 확대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4.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청소년정책 중, 수련시설의 기능과 수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항목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81.7%가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며,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련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 항목에 대해서는 89.4%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력 배치기준 재조정 항목은 84.9%가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며,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원기준 마련 항목에 대해서는 93.3%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수련시설에 입점하는 기관의 제한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항목에 대해서는 74.7%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71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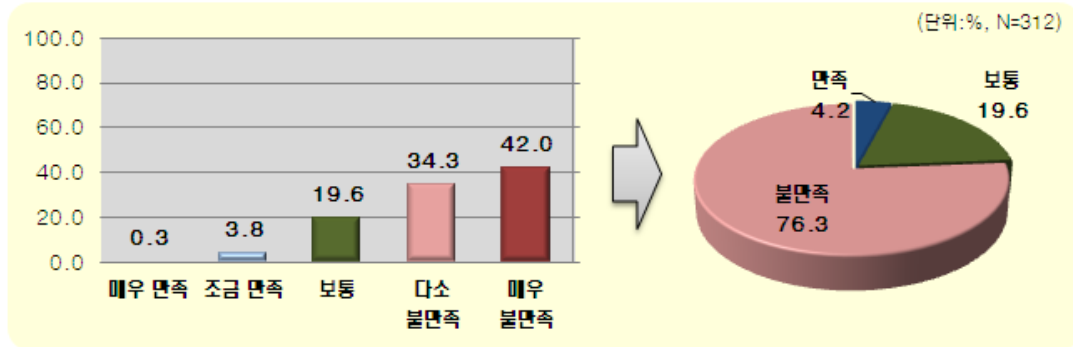
구분	내용[단위 : %]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만족도	만족	4.2
	보통	19.6
	불만족	76.3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적정 정도	적정	4.2
	보통	14.7
	부족	81.1
청소년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	필요	80.8
	보통	10.6
	불필요	8.7

구분		내용[단위 : %]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		필요	79.5
		보통	10.3
		불필요	10.3
수련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만족도		만족	16.0
		보통	21.2
		불만족	62.8
수련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		필요	84.0
		보통	11.9
		불필요	4.2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수련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시급	81.7
		보통	15.4
		시급 안함	2.9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련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	시급	89.4
		보통	9.0
		시급 안함	1.6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력 배치기준 재조정	시급	84.9
		보통	12.5
		시급 안함	2.6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원기준 마련	시급	93.3
		보통	6.1
		시급 안함	0.6
	수련시설에 입점하는 기관의 제한 등에 대한 기준 마련	시급	74.7
		보통	21.8
		시급 안함	3.5

(1)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만족도

76.3%는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에 불만족

[매우 불만족 42.0%, 다소 불만족 34.3%]



[그림 VII-34]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만족도

표 VII-72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만족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312	0.3	3.8	19.6	34.3	42.0	4.2	19.6	76.3
근무지역	수도권	127	0.8	5.5	25.2	33.9	34.6	6.3	25.2
	경상권	61	0.0	4.9	14.8	26.2	54.1	4.9	14.8
	충청권	25	0.0	4.0	16.0	36.0	44.0	4.0	16.0
	전라권	61	0.0	1.6	18.0	41.0	39.3	1.6	18.0
	강원제주권	38	0.0	0.0	13.2	36.8	50.0	0.0	13.2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1.1	7.4	23.2	32.6	35.8	8.4	23.2
	중소도시	127	0.0	1.6	21.3	37.8	39.4	1.6	21.3
	농산어촌	90	0.0	3.3	13.3	31.1	52.2	3.3	13.3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0.0	6.1	16.3	24.5	53.1	6.1	16.3
	청소년수련관	140	0.0	5.7	19.3	30.0	45.0	5.7	19.3
	청소년문화의집	123	0.8	0.8	21.1	43.1	34.1	1.6	21.1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0.0	3.6	10.7	44.6	41.1	3.6	10.7
	법인	122	0.0	5.7	25.4	27.9	41.0	5.7	25.4
	민간위탁	102	0.0	2.0	14.7	38.2	45.1	2.0	14.7
	지자체 산하공단	32	3.1	3.1	28.1	28.1	37.5	6.3	28.1
직위	관장	29	0.0	0.0	17.2	20.7	62.1	0.0	17.2
	간부	56	0.0	1.8	14.3	44.6	39.3	1.8	14.3
	일반직원	227	0.4	4.8	21.1	33.5	40.1	5.3	21.1
자격증 보유	1급	33	3.0	0.0	18.2	18.2	60.6	3.0	18.2
	2급	193	0.0	3.1	18.1	38.3	40.4	3.1	18.1
	3급	24	0.0	8.3	29.2	20.8	41.7	8.3	29.2
	없음	62	0.0	6.5	21.0	35.5	37.1	6.5	21.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최근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여러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76.3%(매우 불만족: 42.0% + 다소 불만족: 34.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4.2%(매우 만족: 0.3% + 조금 만족: 3.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9.6%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강원제주권(86.8%), 농산어촌(83.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직영(85.7%) 및 민간위탁(83.3%)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관장(82.8%) 및 간부(83.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근무지역 및 시설입지특징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 근무지역 및 시설입지특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73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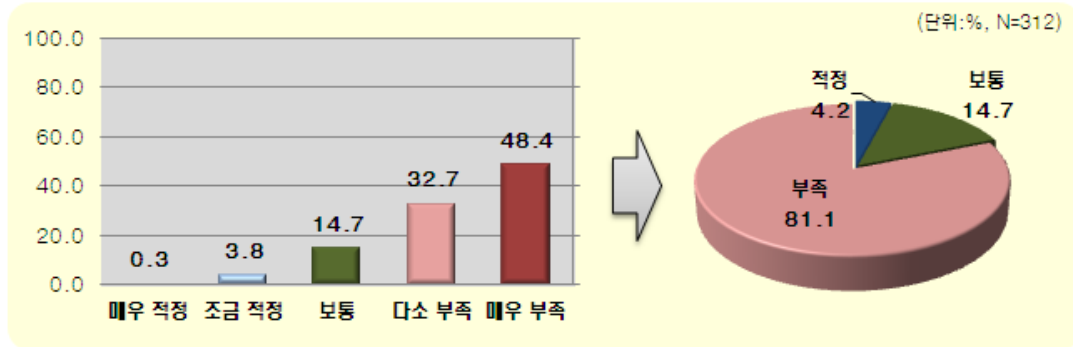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2.519* (0.041)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4.261* (0.015)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0.525 (0.593)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1.967 (0.119)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2.519 (0.082)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1.208 (0.307)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2)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적정 정도

81.1%는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

[매우 부족 48.4%, 다소 부족 32.7%]



[그림 VII-35]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적정 정도

표 VII-74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적정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적정	조금 적정	보통	다소 부족	매우 부족	*적정*	*보통*	*부족*
전체		312	0.3	3.8	14.7	32.7	48.4	4.2	14.7	81.1
근무지역	수도권	127	0.8	4.7	21.3	33.1	40.2	5.5	21.3	73.2
	경상권	61	0.0	4.9	9.8	21.3	63.9	4.9	9.8	85.2
	충청권	25	0.0	8.0	8.0	36.0	48.0	8.0	8.0	84.0
	전라권	61	0.0	1.6	13.1	37.7	47.5	1.6	13.1	85.2
	강원제주권	38	0.0	0.0	7.9	39.5	52.6	0.0	7.9	92.1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1.1	7.4	20.0	30.5	41.1	8.4	20.0	71.6
	중소도시	127	0.0	1.6	12.6	40.9	44.9	1.6	12.6	85.8
	농산어촌	90	0.0	3.3	12.2	23.3	61.1	3.3	12.2	84.4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0.0	6.1	12.2	26.5	55.1	6.1	12.2	81.6
	청소년수련관	140	0.0	5.0	14.3	27.1	53.6	5.0	14.3	80.7
	청소년문화의집	123	0.8	1.6	16.3	41.5	39.8	2.4	16.3	81.3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0.0	3.6	10.7	35.7	50.0	3.6	10.7	85.7
	법인	122	0.0	4.9	16.4	31.1	47.5	4.9	16.4	78.7
	민간위탁	102	0.0	2.9	12.7	34.3	50.0	2.9	12.7	84.3
	지자체 산하공단	32	3.1	3.1	21.9	28.1	43.8	6.3	21.9	71.9
		29	0.0	0.0	3.4	27.6	69.0	0.0	3.4	96.6
직위	관장	29	0.0	0.0	3.4	27.6	69.0	0.0	3.4	96.6
	간부	56	0.0	1.8	8.9	32.1	57.1	1.8	8.9	89.3
	일반직원	227	0.4	4.8	17.6	33.5	43.6	5.3	17.6	77.1
자격증 보유	1급	33	3.0	0.0	12.1	15.2	69.7	3.0	12.1	84.8
	2급	193	0.0	2.6	11.9	37.3	48.2	2.6	11.9	85.5
	3급	24	0.0	12.5	29.2	16.7	41.7	12.5	29.2	58.3
	없음	62	0.0	6.5	19.4	33.9	40.3	6.5	19.4	74.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최근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여러 지원의 적정 정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81.1%(매우 부족: 48.4% + 다소 부족: 32.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적정하다’는 응답은 4.2%(매우 적정: 0.3% + 조금 적정: 3.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4.7%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부족하다’는 응답은 강원제주권(92.1%), 중소도시(85.8%) 및 농산어촌(84.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직영(85.7%) 및 민간위탁(84.3%)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관장(96.6%) 및 간부(89.3%)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근무지역 및 시설입지특징 그리고 직위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근무지역, 1% 수준에서는 시설입지특징, 0.1% 수준에서는 직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75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적정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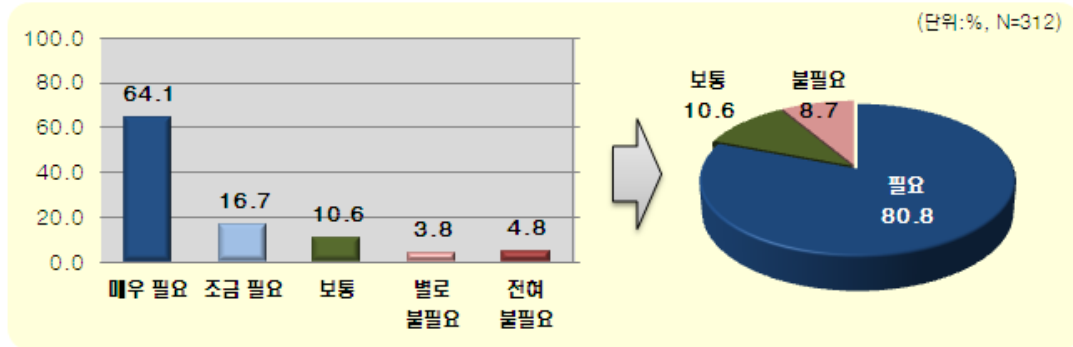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2.729* (0.029)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5.047** (0.007)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0.684 (0.505)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0.879 (0.452)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10.044*** (0.000)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2.560 (0.063)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3) 청소년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

80.8%는 청소년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매우 필요 64.1%, 조금 필요 16.7%]



【그림 VII-36】 청소년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

표 VII-76 청소년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필요	조금 필요	보통	별로 불필요	전혀 불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312	64.1	16.7	10.6	3.8	4.8	80.8	10.6	8.7
근무지역	수도권	127	59.8	19.7	11.0	4.7	79.5	11.0	9.4
	경상권	61	73.8	13.1	9.8	0.0	86.9	9.8	3.3
	충청권	25	60.0	8.0	20.0	8.0	68.0	20.0	12.0
	전라권	61	55.7	18.0	9.8	6.6	73.8	9.8	16.4
	강원제주권	38	78.9	15.8	5.3	0.0	94.7	5.3	0.0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61.1	18.9	14.7	3.2	80.0	14.7	5.3
	중소도시	127	66.9	15.0	9.4	4.7	81.9	9.4	8.7
	농산어촌	90	63.3	16.7	7.8	3.3	80.0	7.8	12.2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65.3	16.3	4.1	4.1	81.6	4.1	14.3
	청소년수련관	140	67.1	17.1	10.7	2.9	84.3	10.7	5.0
	청소년문화의집	123	60.2	16.3	13.0	4.9	76.4	13.0	10.6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66.1	16.1	8.9	3.6	82.1	8.9	8.9
	법인	122	62.3	17.2	10.7	2.5	79.5	10.7	9.8
	민간위탁	102	67.6	13.7	12.7	3.9	81.4	12.7	5.9
	지자체 산하공단	32	56.3	25.0	6.3	9.4	81.3	6.3	12.5
직위	관장	29	75.9	10.3	6.9	3.4	86.2	6.9	6.9
	간부	56	76.8	12.5	5.4	1.8	89.3	5.4	5.4
	일반직원	227	59.5	18.5	12.3	4.4	78.0	12.3	9.7
자격증 보유	1급	33	75.8	12.1	6.1	0.0	87.9	6.1	6.1
	2급	193	65.8	16.1	9.3	4.7	81.9	9.3	8.8
	3급	24	70.8	16.7	8.3	0.0	87.5	8.3	4.2
	없음	62	50.0	21.0	17.7	4.8	71.0	17.7	11.3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전반적인 청소년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0.8%(매우 필요: 64.1% + 조금 필요: 16.7%), ‘불필요하다’는 응답 8.7%(전혀 불필요: 4.8% + 별로 불필요: 3.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0.6%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경상권(86.9%) 및 강원제주권(94.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직위별로는 관장(86.2%) 및 간부(89.3%)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1급(87.9%) 및 3급(87.5%) 자격증 보유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근무지역 및 직위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직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근무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77 청소년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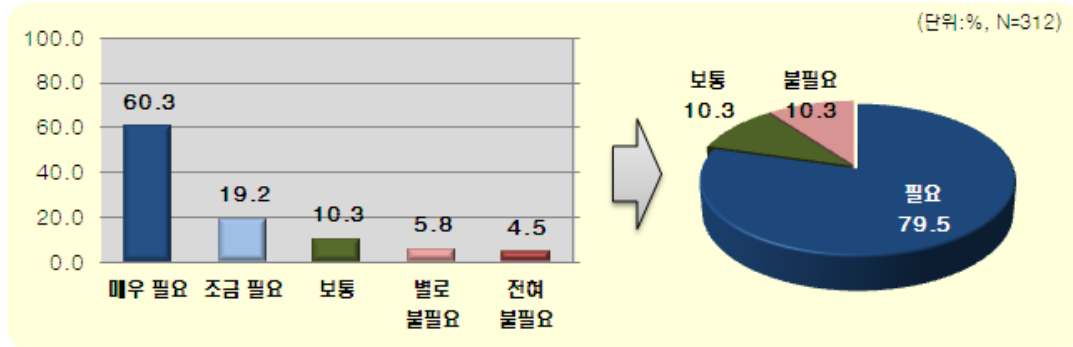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5.457*** (0.000)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444 (0.642)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817 (0.167)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0.500 (0.683)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3.202* (0.047)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1.983 (0.117)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4)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

79.5%는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매우 필요 60.3%, 조금 필요 19.2%]



【그림 VII-37】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

표 VII-78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필요	조금 필요	보통	별로 불필요	전혀 불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312	60.3	19.2	10.3	5.8	4.5	79.5	10.3	10.3
근무지역	수도권	127	56.7	21.3	9.4	7.9	4.7	78.0	9.4	12.6
	경상권	61	72.1	13.1	11.5	1.6	1.6	85.2	11.5	3.3
	충청권	25	56.0	16.0	20.0	8.0	0.0	72.0	20.0	8.0
	전라권	61	49.2	21.3	11.5	8.2	9.8	70.5	11.5	18.0
	강원제주권	38	73.7	21.1	2.6	0.0	2.6	94.7	2.6	2.6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60.0	21.1	12.6	4.2	2.1	81.1	12.6	6.3
	중소도시	127	58.3	21.3	10.2	5.5	4.7	79.5	10.2	10.2
	농산어촌	90	63.3	14.4	7.8	7.8	6.7	77.8	7.8	14.4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63.3	14.3	6.1	8.2	8.2	77.6	6.1	16.3
	청소년수련관	140	62.1	20.7	10.0	5.0	2.1	82.9	10.0	7.1
	청소년문화의집	123	56.9	19.5	12.2	5.7	5.7	76.4	12.2	11.4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64.3	16.1	8.9	5.4	5.4	80.4	8.9	10.7
	법인	122	57.4	21.3	9.0	6.6	5.7	78.7	9.0	12.3
	민간위탁	102	62.7	17.6	12.7	3.9	2.9	80.4	12.7	6.9
	지자체 산하공단	32	56.3	21.9	9.4	9.4	3.1	78.1	9.4	12.5
직위	관장	29	69.0	10.3	6.9	10.3	3.4	79.3	6.9	13.8
	간부	56	73.2	14.3	8.9	0.0	3.6	87.5	8.9	3.6
	일반직원	227	55.9	21.6	11.0	6.6	4.8	77.5	11.0	11.5
자격증 보유	1급	33	72.7	18.2	3.0	0.0	6.1	90.9	3.0	6.1
	2급	193	61.1	20.7	7.8	6.2	4.1	81.9	7.8	10.4
	3급	24	75.0	8.3	12.5	4.2	0.0	83.3	12.5	4.2
	없음	62	45.2	19.4	21.0	8.1	6.5	64.5	21.0	14.5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9.5%(매우 필요: 60.3% + 조금 필요: 19.2%), ‘불필요하다’는 응답 10.3%(전혀 불필요: 4.5% + 별로 불필요: 5.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0.3%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경상권(85.2%) 및 강원제주권(94.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관(82.9%), 직위별로는 간부(87.5%)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1급 자격증 보유자(90.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근무지역 및 자격증 보유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자격증 보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 수준에서는 근무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79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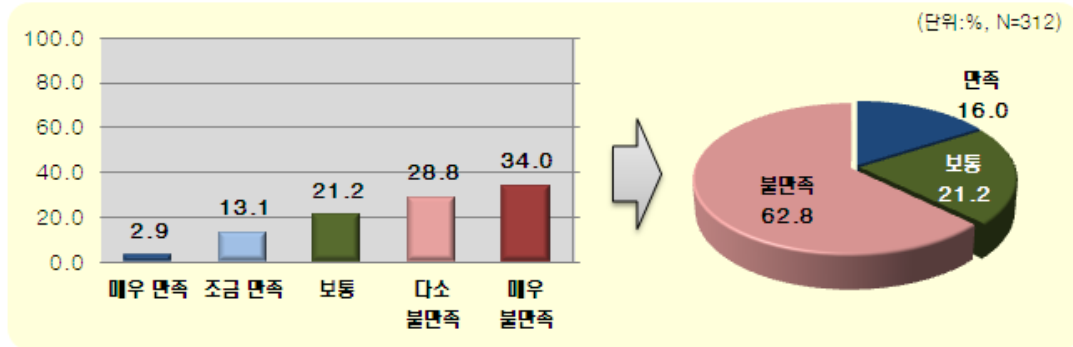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4.114** (0.004)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326 (0.722)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188 (0.308)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0.387 (0.762)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3.063 (0.054)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3.233* (0.027)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5) 수련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만족도

62.8%는 수련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에 대해 불만족

[매우 불만족 34.0%, 다소 불만족 28.8%]



[그림 VII-38] 수련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만족도

표 VII-80 수련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만족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312	2.9	13.1	21.2	28.8	34.0	16.0	21.2	62.8
근무지역	수도권	127	4.7	16.5	22.8	26.8	29.1	21.3	22.8	55.9
	경상권	61	3.3	14.8	24.6	18.0	39.3	18.0	24.6	57.4
	충청권	25	0.0	12.0	24.0	36.0	28.0	12.0	24.0	64.0
	전라권	61	1.6	8.2	19.7	39.3	31.1	9.8	19.7	70.5
	강원제주권	38	0.0	7.9	10.5	31.6	50.0	7.9	10.5	81.6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6.3	12.6	24.2	25.3	31.6	18.9	24.2	56.8
	중소도시	127	1.6	13.4	19.7	29.9	35.4	15.0	19.7	65.4
	농산어촌	90	1.1	13.3	20.0	31.1	34.4	14.4	20.0	65.6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0.0	16.3	22.4	22.4	38.8	16.3	22.4	61.2
	청소년수련관	140	2.9	7.9	20.7	32.1	36.4	10.7	20.7	68.6
	청소년문화의집	123	4.1	17.9	21.1	27.6	29.3	22.0	21.1	56.9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0.0	21.4	17.9	33.9	26.8	21.4	17.9	60.7
	법인	122	2.5	12.3	24.6	25.4	35.2	14.8	24.6	60.7
	민간위탁	102	1.0	11.8	18.6	29.4	39.2	12.7	18.6	68.6
	지자체 산하공단	32	15.6	6.3	21.9	31.3	25.0	21.9	21.9	56.3
직위	관장	29	6.9	17.2	13.8	27.6	34.5	24.1	13.8	62.1
	간부	56	0.0	23.2	16.1	25.0	35.7	23.2	16.1	60.7
	일반직원	227	3.1	10.1	23.3	30.0	33.5	13.2	23.3	63.4
자격증 보유	1급	33	9.1	27.3	12.1	18.2	33.3	36.4	12.1	51.5
	2급	193	3.1	9.8	18.7	32.1	36.3	13.0	18.7	68.4
	3급	24	0.0	16.7	33.3	16.7	33.3	16.7	33.3	50.0
	없음	62	0.0	14.5	29.0	29.0	27.4	14.5	29.0	56.5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최근 지자체의 수련시설에 대한 여러 지원에 대해 만족하는지 질문한 결과,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62.8%(매우 불만족: 34.0% + 다소 불만족: 28.8%), ‘만족한다’는 응답 16.0%(매우 만족: 2.9% + 조금 만족: 13.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1.2%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전라권(70.5%) 및 강원제주권(81.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관(68.6%)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운영주체별로는 민간위탁(68.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2급 자격증 보유자(68.4%)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근무지역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 근무지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81 수련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만족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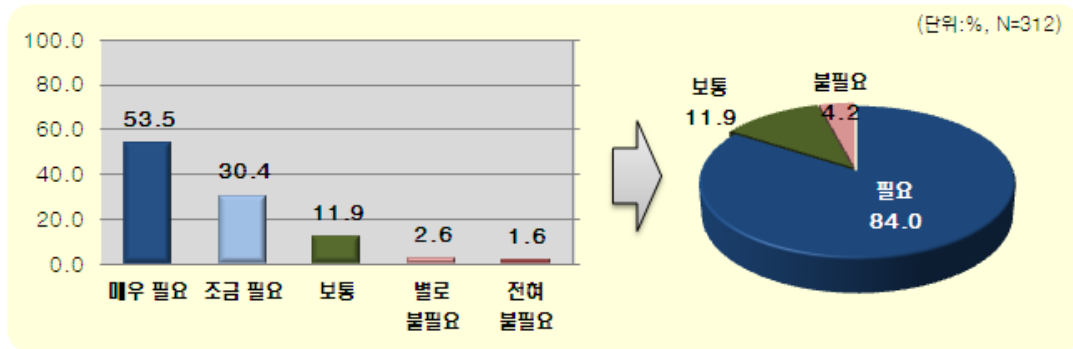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3.100* (0.019)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1.148 (0.319)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2.491 (0.087)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1.875 (0.134)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0.283 (0.754)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1.569 (0.205)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6) 수련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

84.0%는 수련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매우 필요 53.5%, 조금 필요 30.4%]



【그림 VII-39】 수련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

표 VII-82 수련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필요	조금 필요	보통	별로 불필요	전혀 불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312	53.5	30.4	11.9	2.6	1.6	84.0	11.9	4.2
근무지역	수도권	127	52.8	29.1	15.0	2.4	0.8	81.9	15.0
	경상권	61	59.0	24.6	13.1	0.0	3.3	83.6	13.1
	충청권	25	48.0	24.0	16.0	8.0	4.0	72.0	16.0
	전라권	61	45.9	41.0	8.2	3.3	1.6	86.9	8.2
	강원제주권	38	63.2	31.6	2.6	2.6	0.0	94.7	2.6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54.7	25.3	13.7	4.2	2.1	80.0	13.7
	중소도시	127	52.0	33.9	12.6	1.6	0.0	85.8	12.6
	농산어촌	90	54.4	31.1	8.9	2.2	3.3	85.6	8.9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40.8	32.7	18.4	2.0	6.1	73.5	18.4
	청소년수련관	140	58.6	29.3	10.0	1.4	0.7	87.9	10.0
	청소년문화의집	123	52.8	30.9	11.4	4.1	0.8	83.7	11.4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51.8	33.9	8.9	5.4	0.0	85.7	8.9
	법인	122	48.4	31.1	14.8	3.3	2.5	79.5	14.8
	민간위탁	102	58.8	27.5	11.8	1.0	1.0	86.3	11.8
	지자체 산하공단	32	59.4	31.3	6.3	0.0	3.1	90.6	6.3
직위	관장	29	72.4	17.2	3.4	3.4	3.4	89.7	3.4
	간부	56	57.1	26.8	12.5	0.0	3.6	83.9	12.5
	일반직원	227	50.2	33.0	12.8	3.1	0.9	83.3	12.8
자격증 보유	1급	33	69.7	21.2	9.1	0.0	0.0	90.9	9.1
	2급	193	53.9	32.1	9.3	2.6	2.1	86.0	9.3
	3급	24	54.2	33.3	12.5	0.0	0.0	87.5	12.5
	없음	62	43.5	29.0	21.0	4.8	1.6	72.6	21.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수련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4.0%(매우 필요: 53.5% + 조금 필요: 30.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2%(전혀 불필요: 1.6% + 별로 불필요: 2.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1.9%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강원제주권(94.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관(87.9%)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산하공단(90.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시설유형 및 자격증 보유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 시설유형 및 자격증 보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83 수련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358 (0.248)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334 (0.716)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4.396* (0.013)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1.395 (0.244)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0.874 (0.418)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2.745* (0.043)
	2급	193	
	3급	24	
	없음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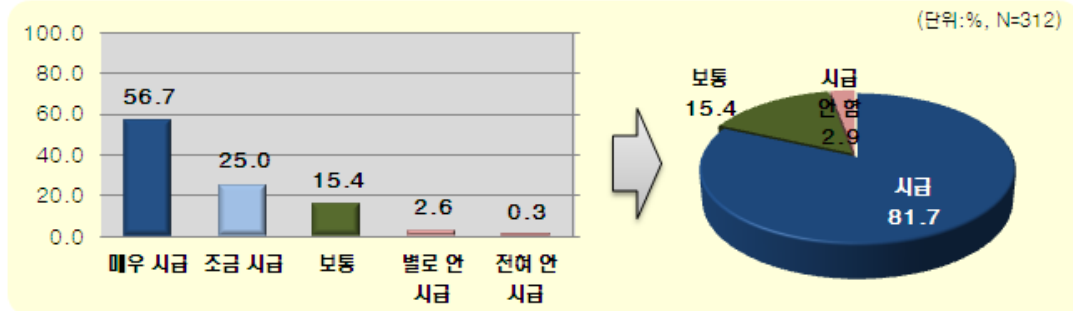
*p<.05, **p<.01, ***p<.001

(7)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①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수련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81.7%는 '수련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생각

[매우 시급 56.7%, 조금 시급 25.0%]



【그림 VII-40】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수련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표 VII-84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수련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단위[%]		사례수[명]	매우 시급	조금 시급	보통	별로 안 시급	전혀 안 시급	*시급*	*보통*	*시급 안함*
전체		312	56.7	25.0	15.4	2.6	0.3	81.7	15.4	2.9
근무지역	수도권	127	52.0	24.4	20.5	2.4	0.8	76.4	20.5	3.1
	경상권	61	60.7	21.3	14.8	3.3	0.0	82.0	14.8	3.3
	충청권	25	72.0	20.0	8.0	0.0	0.0	92.0	8.0	0.0
	전라권	61	50.8	36.1	11.5	1.6	0.0	86.9	11.5	1.6
	강원제주권	38	65.8	18.4	10.5	5.3	0.0	84.2	10.5	5.3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52.6	26.3	18.9	1.1	1.1	78.9	18.9	2.1
	중소도시	127	52.8	28.3	16.5	2.4	0.0	81.1	16.5	2.4
	농산어촌	90	66.7	18.9	10.0	4.4	0.0	85.6	10.0	4.4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71.4	10.2	14.3	4.1	0.0	81.6	14.3	4.1
	청소년수련관	140	55.0	29.3	13.6	2.1	0.0	84.3	13.6	2.1
	청소년문화의집	123	52.8	26.0	17.9	2.4	0.8	78.9	17.9	3.3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64.3	19.6	12.5	3.6	0.0	83.9	12.5	3.6
	법인	122	58.2	22.1	15.6	3.3	0.8	80.3	15.6	4.1
	민간위탁	102	51.0	26.5	20.6	2.0	0.0	77.5	20.6	2.0
	지자체 산하공단	32	56.3	40.6	3.1	0.0	0.0	96.9	3.1	0.0
직위	관장	29	55.2	31.0	10.3	3.4	0.0	86.2	10.3	3.4
	간부	56	53.6	26.8	16.1	3.6	0.0	80.4	16.1	3.6
	일반직원	227	57.7	23.8	15.9	2.2	0.4	81.5	15.9	2.6
자격증 보유	1급	33	51.5	33.3	12.1	3.0	0.0	84.8	12.1	3.0
	2급	193	61.1	23.8	11.4	3.1	0.5	85.0	11.4	3.6
	3급	24	54.2	29.2	16.7	0.0	0.0	83.3	16.7	0.0
	없음	62	46.8	22.6	29.0	1.6	0.0	69.4	29.0	1.6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정부의 청소년정책 중, 수련시설의 기능과 수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항목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시급하다’는 응답이 81.7%(매우 시급: 56.7% + 조금 시급: 25.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은 2.9%(전혀 안 시급: 0.3% + 별로 안 시급: 2.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5.4%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시급하다’는 응답은 충청권(92.0%) 및 전라권(86.9%), 농산어촌(85.6%)에서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산하공단(96.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직위별로는 관장(86.2%)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VII-85 수련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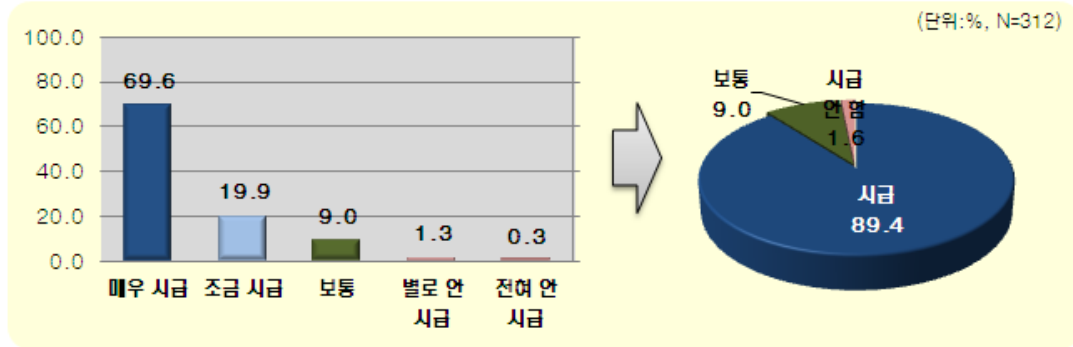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771 (0.140)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1.396 (0.249)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155 (0.316)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1.563 (0.202)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0.117 (0.889)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1.635 (0.181)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②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련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

89.4%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련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생각

[매우 시급 69.6%, 조금 시급 19.9%]



【그림 VII-41】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련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

표 VII-86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련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

단위[%]		사례수[명]	매우 시급	조금 시급	보통	별로 안 시급	전혀 안 시급	*시급*	*보통*	*시급 안함*
전체		312	69.6	19.9	9.0	1.3	0.3	89.4	9.0	1.6
근무지역	수도권	127	59.1	26.8	13.4	0.8	0.0	85.8	13.4	0.8
	경상권	61	77.0	14.8	4.9	1.6	1.6	91.8	4.9	3.3
	충청권	25	68.0	20.0	12.0	0.0	0.0	88.0	12.0	0.0
	전라권	61	77.0	16.4	4.9	1.6	0.0	93.4	4.9	1.6
	강원제주권	38	81.6	10.5	5.3	2.6	0.0	92.1	5.3	2.6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67.4	26.3	6.3	0.0	0.0	93.7	6.3	0.0
	중소도시	127	67.7	18.9	12.6	0.8	0.0	86.6	12.6	0.8
	농산어촌	90	74.4	14.4	6.7	3.3	1.1	88.9	6.7	4.4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65.3	18.4	12.2	2.0	2.0	83.7	12.2	4.1
	청소년수련관	140	70.0	20.7	8.6	0.7	0.0	90.7	8.6	0.7
	청소년문화의집	123	70.7	19.5	8.1	1.6	0.0	90.2	8.1	1.6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66.1	19.6	8.9	5.4	0.0	85.7	8.9	5.4
	법인	122	68.0	18.0	13.1	0.0	0.8	86.1	13.1	0.8
	민간위탁	102	78.4	17.6	2.9	1.0	0.0	96.1	2.9	1.0
	지자체 산하공단	32	53.1	34.4	12.5	0.0	0.0	87.5	12.5	0.0
직위	관장	29	79.3	10.3	6.9	3.4	0.0	89.7	6.9	3.4
	간부	56	73.2	12.5	8.9	3.6	1.8	85.7	8.9	5.4
	일반직원	227	67.4	22.9	9.3	0.4	0.0	90.3	9.3	0.4
자격증 보유	1급	33	63.6	21.2	12.1	3.0	0.0	84.8	12.1	3.0
	2급	193	75.6	15.5	7.8	0.5	0.5	91.2	7.8	1.0
	3급	24	75.0	20.8	4.2	0.0	0.0	95.8	4.2	0.0
	없음	62	51.6	32.3	12.9	3.2	0.0	83.9	12.9	3.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정부의 청소년정책 중,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련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 항목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시급하다’는 응답이 89.4%(매우 시급: 69.6% + 조금 시급: 19.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은 1.6%(전혀 안 시급: 0.3% + 별로 안 시급: 1.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9.0%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시급하다’는 응답은 경상권(91.8%) 및 전라권(93.4%) 그리고 강원제주권(92.1%), 대도시(93.7%)에서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민간위탁(96.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2급(91.2%) 및 3급(95.8%) 자격증 보유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운영주체 및 자격증 보유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 운영주체 및 자격증 보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87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련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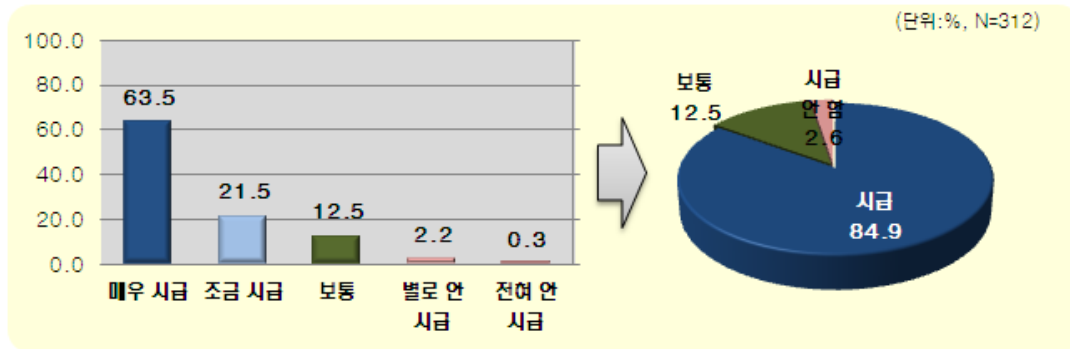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902 (0.116)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288 (0.750)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0.721 (0.488)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3.523* (0.018)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0.335 (0.716)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3.291* (0.026)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③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력 배치기준 재조정

84.9%는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력 배치기준 재조정'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생각

[매우 시급 63.5%, 조금 시급 21.5%]



【그림 VII-42】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력 배치기준 재조정

표 VII-88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력 배치기준 재조정

단위[%]	사례수[명]	매우 시급	조금 시급	보통	별로 안 시급	전혀 안 시급	*시급*	*보통*	*시급 안함*
전체	312	63.5	21.5	12.5	2.2	0.3	84.9	12.5	2.6
근무지역	수도권	127	55.9	28.3	15.0	0.8	84.3	15.0	0.8
	경상권	61	75.4	18.0	3.3	1.6	93.4	3.3	3.3
	충청권	25	76.0	16.0	4.0	4.0	92.0	4.0	4.0
	전라권	61	59.0	18.0	19.7	3.3	77.0	19.7	3.3
	강원제주권	38	68.4	13.2	13.2	5.3	81.6	13.2	5.3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57.9	29.5	10.5	2.1	87.4	10.5	2.1
	중소도시	127	64.6	18.1	15.0	2.4	82.7	15.0	2.4
	농산어촌	90	67.8	17.8	11.1	2.2	85.6	11.1	3.3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55.1	22.4	18.4	2.0	77.6	18.4	4.1
	청소년수련관	140	65.0	22.1	10.7	2.1	87.1	10.7	2.1
	청소년문화의집	123	65.0	20.3	12.2	2.4	85.4	12.2	2.4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78.6	14.3	5.4	1.8	92.9	5.4	1.8
	법인	122	58.2	22.1	17.2	1.6	80.3	17.2	2.5
	민간위탁	102	62.7	19.6	13.7	3.9	82.4	13.7	3.9
	지자체 산하공단	32	59.4	37.5	3.1	0.0	96.9	3.1	0.0
직위	관장	29	55.2	34.5	10.3	0.0	89.7	10.3	0.0
	간부	56	57.1	19.6	19.6	1.8	76.8	19.6	3.6
	일반직원	227	66.1	20.3	11.0	2.6	86.3	11.0	2.6
자격증 보유	1급	33	66.7	24.2	9.1	0.0	90.9	9.1	0.0
	2급	193	69.9	18.7	9.8	1.0	88.6	9.8	1.6
	3급	24	54.2	33.3	8.3	4.2	87.5	8.3	4.2
	없음	62	45.2	24.2	24.2	6.5	69.4	24.2	6.5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정부의 청소년정책 중,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력 배치기준 재조정 항목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시급하다’는 응답이 84.9%(매우 시급: 63.5% + 조금 시급: 21.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은 2.6%(전혀 안 시급: 0.3% + 별로 안 시급: 2.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2.5%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시급하다’는 응답은 경상권(93.4%) 및 충청권(92.0%), 청소년수련관(87.1%), 지자체 직영(92.9%) 및 지자체 산하공단(96.9%)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장(89.7%), 1급(90.9%) 및 2급(88.6%) 자격증 보유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운영주체 및 자격증 보유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운영주체, 1% 수준에서는 자격증 보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89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력 배치기준 재조정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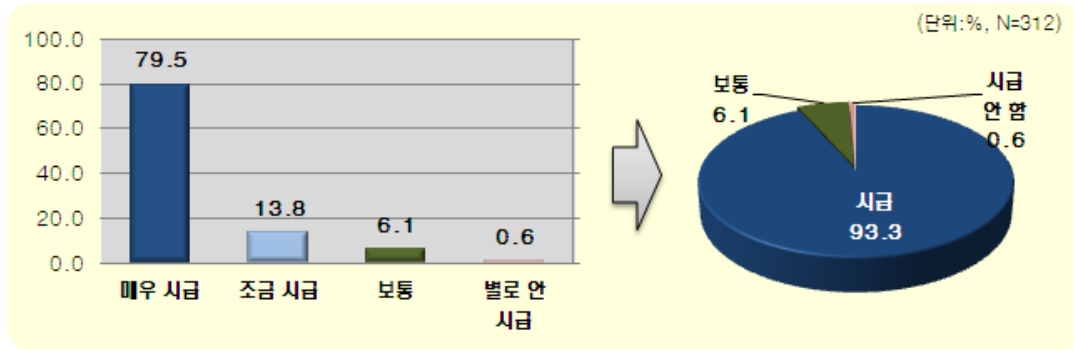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695 (0.157)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118 (0.888)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582 (0.207)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3.240* (0.025)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1.153 (0.322)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4.487** (0.006)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④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원기준 마련

93.3%는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원기준 마련'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생각

[매우 시급 79.5%, 조금 시급 13.8%]



【그림 VII-43】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원기준 마련

표 VII-90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원기준 마련

단위[%]		사례수[명]	매우 시급	조금 시급	보통	별로 안 시급	전혀 안 시급	*시급*	*보통*	*시급 안함*
전체		312	79.5	13.8	6.1	0.6	0.0	93.3	6.1	0.6
근무지역	수도권	127	73.2	16.5	10.2	0.0	0.0	89.8	10.2	0.0
	경상권	61	91.8	4.9	1.6	1.6	0.0	96.7	1.6	1.6
	충청권	25	84.0	16.0	0.0	0.0	0.0	100.0	0.0	0.0
	전라권	61	70.5	21.3	6.6	1.6	0.0	91.8	6.6	1.6
	강원제주권	38	92.1	5.3	2.6	0.0	0.0	97.4	2.6	0.0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80.0	13.7	6.3	0.0	0.0	93.7	6.3	0.0
	중소도시	127	76.4	15.7	7.1	0.8	0.0	92.1	7.1	0.8
	농산어촌	90	83.3	11.1	4.4	1.1	0.0	94.4	4.4	1.1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79.6	10.2	8.2	2.0	0.0	89.8	8.2	2.0
	청소년수련관	140	82.9	11.4	5.7	0.0	0.0	94.3	5.7	0.0
	청소년문화의집	123	75.6	17.9	5.7	0.8	0.0	93.5	5.7	0.8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83.9	8.9	5.4	1.8	0.0	92.9	5.4	1.8
	법인	122	77.0	14.8	7.4	0.8	0.0	91.8	7.4	0.8
	민간위탁	102	81.4	14.7	3.9	0.0	0.0	96.1	3.9	0.0
	지자체 산하공단	32	75.0	15.6	9.4	0.0	0.0	90.6	9.4	0.0
직위	관장	29	86.2	6.9	6.9	0.0	0.0	93.1	6.9	0.0
	간부	56	85.7	12.5	0.0	1.8	0.0	98.2	0.0	1.8
	일반직원	227	77.1	15.0	7.5	0.4	0.0	92.1	7.5	0.4
자격증 보유	1급	33	84.8	12.1	3.0	0.0	0.0	97.0	3.0	0.0
	2급	193	85.0	10.4	4.7	0.0	0.0	95.3	4.7	0.0
	3급	24	75.0	20.8	4.2	0.0	0.0	95.8	4.2	0.0
	없음	62	61.3	22.6	12.9	3.2	0.0	83.9	12.9	3.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정부의 청소년정책 중,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원기준 마련 항목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시급하다’는 응답이 93.3%(매우 시급: 79.5% + 조금 시급: 13.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은 0.6%(전혀 안 시급: 0.0% + 별로 안 시급: 0.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6.1%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시급하다’는 응답은 경상권(96.7%) 및 충청권(100.0%) 그리고 강원제주권(97.4%)에서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민간위탁(96.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간부(98.2%), 1급 자격증 보유자(97.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근무지역 및 자격증 보유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 근무지역 및 자격증 보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91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원기준 마련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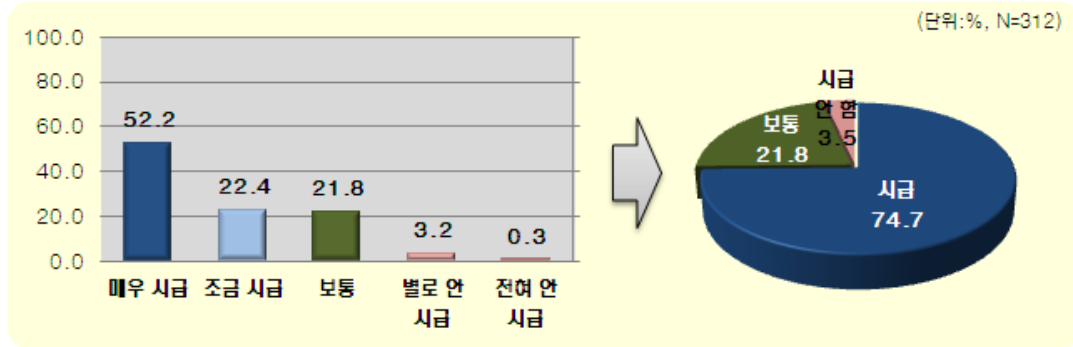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3.329* (0.011)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627 (0.535)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0.913 (0.404)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0.619 (0.603)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1.602 (0.209)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4.012* (0.011)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⑤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수련시설에 입점하는 기관의 제한 등에 대한 기준 마련

74.7%는 '수련시설에 입점하는 기관의 제한 등에 대한 기준 마련'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생각

[매우 시급 52.2%, 조금 시급 22.4%]



【그림 VII-44】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수련시설에 입점하는 기관의 제한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표 VII-92 청소년정책의 시급성 - 수련시설에 입점하는 기관의 제한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단위[%]	사례수[명]	매우 시급	조금 시급	보통	별로 안 시급	전혀 안 시급	*시급*	*보통*	*시급 안함*
전체	312	52.2	22.4	21.8	3.2	0.3	74.7	21.8	3.5
근무지역	수도권	127	50.4	23.6	24.4	1.6	0.0	74.0	24.4
	경상권	61	55.7	18.0	19.7	4.9	1.6	73.8	19.7
	충청권	25	60.0	24.0	12.0	4.0	0.0	84.0	12.0
	전라권	61	45.9	27.9	24.6	1.6	0.0	73.8	24.6
	강원제주권	38	57.9	15.8	18.4	7.9	0.0	73.7	18.4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55.8	22.1	20.0	2.1	0.0	77.9	20.0
	중소도시	127	48.8	24.4	22.8	3.9	0.0	73.2	22.8
	농산어촌	90	53.3	20.0	22.2	3.3	1.1	73.3	22.2
시설유형	청4소년수련원	49	49.0	16.3	30.6	4.1	0.0	65.3	30.6
	청소년수련관	140	52.1	25.7	19.3	2.1	0.7	77.9	19.3
	청소년문화의집	123	53.7	21.1	21.1	4.1	0.0	74.8	21.1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58.9	19.6	16.1	5.4	0.0	78.6	16.1
	법인	122	50.8	23.0	24.6	1.6	0.0	73.8	24.6
	민간위탁	102	52.0	22.5	21.6	3.9	0.0	74.5	21.6
	지자체 산하공단	32	46.9	25.0	21.9	3.1	3.1	71.9	21.9
직위	관장	29	44.8	31.0	17.2	6.9	0.0	75.9	17.2
	간부	56	42.9	21.4	30.4	5.4	0.0	64.3	30.4
	일반직원	227	55.5	21.6	20.3	2.2	0.4	77.1	20.3
자격증 보유	1급	33	42.4	27.3	18.2	12.1	0.0	69.7	18.2
	2급	193	56.5	22.8	19.2	1.0	0.5	79.3	19.2
	3급	24	58.3	16.7	20.8	4.2	0.0	75.0	20.8
	없음	62	41.9	21.0	32.3	4.8	0.0	62.9	32.3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정부의 청소년정책 중, 수련시설에 입점하는 기관의 제한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항목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시급하다’는 응답이 74.7%(매우 시급: 52.2% + 조금 시급: 22.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은 3.5%(전혀 안 시급: 0.3% + 별로 안 시급: 3.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1.8%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시급하다’는 응답은 충청권(84.0%), 대도시(77.9%)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관(77.9%),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직영(78.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2급 자격증 보유자(79.3%)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자격증 보유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 자격증 보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93 수련시설에 입점하는 기관의 제한 등에 대한 기준 마련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0.261 (0.903)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609 (0.544)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0.583 (0.559)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0.416 (0.741)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2.219 (0.110)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2.934* (0.034)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5)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 주민들의 수련시설 인지 정도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42.6%,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32.7%로 나타나,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인지 정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56.7%로 나타나, 알지 못한다는 응답 20.5%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재직 중인 수련시설이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관시설이나 유관단체와 연계/교류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90.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연계/교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는 응답이 73.1%,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11.9%로 나타났다.

재직 중인 수련시설이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이나 유관단체와 연계/교류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3.0%로 불필요하다는 응답 1.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이나 유관단체와 연계/교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는 응답이 46.8%,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30.4%로 나타났다.

재직 중인 수련시설이 지역사회에 홍보를 적절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적절히 하고 있다는 응답이 58.3%로, 적절히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 15.1%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II-94 지역사회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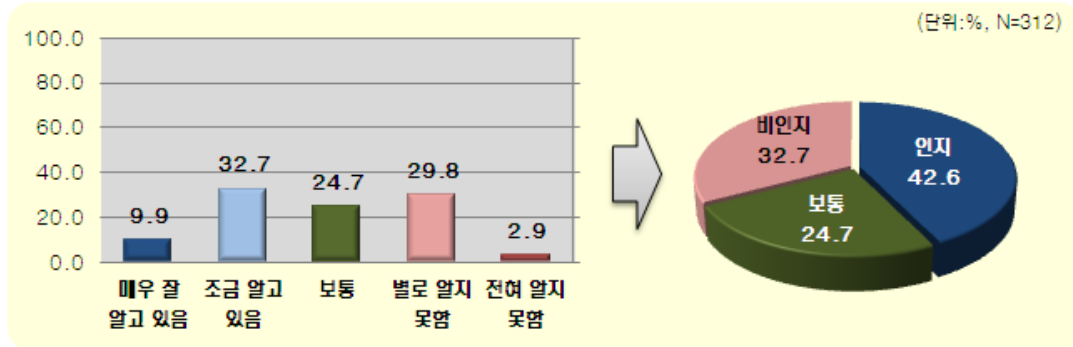
구분	내용[단위 : %]	
지역사회 주민들의 수련시설 인지 정도	인지	42.6
	보통	24.7
	비인지	32.7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인지 정도	인지	56.7
	보통	22.8
	비인지	20.5
재직중인 수련시설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연계/교류 필요 정도	필요	90.1
	보통	8.3
	불필요	1.6
재직중인 수련시설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현재 연계/교류 정도	하고 있음	73.1
	보통	15.1
	안 하고 있음	11.9

구분	내용[단위 : %]	
재직중인 수련시설과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연계/교류 필요 정도	필요	83.0
	보통	15.1
	불필요	1.9
재직중인 수련시설과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현재 연계/교류 정도	하고 있음	46.8
	보통	22.8
	안 하고 있음	30.4
재직중인 수련시설의 지역사회 홍보 적절 정도	적절	58.3
	보통	26.6
	부적절	15.1

(1) 지역사회 주민들의 수련시설 인지 정도

42.6%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수련시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

[매우 잘 알고 있음 9.9%, 조금 알고 있음 32.7%]



【그림 VII-45】 지역사회 주민들의 수련시설 인지 정도

표 VII-95 지역사회 주민들의 수련시설 인지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보통	별로 알지 못함	전혀 알지 못함	*인지*	*보통*	*비인지*
전체		312	9.9	32.7	24.7	29.8	2.9	42.6	24.7	32.7
근무지역	수도권	127	15.7	28.3	23.6	31.5	0.8	44.1	23.6	32.3
	경상권	61	8.2	29.5	29.5	29.5	3.3	37.7	29.5	32.8
	충청권	25	12.0	36.0	16.0	32.0	4.0	48.0	16.0	36.0
	전라권	61	4.9	45.9	14.8	27.9	6.6	50.8	14.8	34.4
	강원제주권	38	0.0	28.9	42.1	26.3	2.6	28.9	42.1	28.9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10.5	35.8	20.0	32.6	1.1	46.3	20.0	33.7
	중소도시	127	6.3	32.3	27.6	30.7	3.1	38.6	27.6	33.9
	농산어촌	90	14.4	30.0	25.6	25.6	4.4	44.4	25.6	30.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24.5	14.3	26.5	26.5	8.2	38.8	26.5	34.7
	청소년수련관	140	7.9	35.7	26.4	29.3	0.7	43.6	26.4	30.0
	청소년문화의집	123	6.5	36.6	22.0	31.7	3.3	43.1	22.0	35.0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8.9	21.4	39.3	28.6	1.8	30.4	39.3	30.4
	법인	122	16.4	27.9	23.0	29.5	3.3	44.3	23.0	32.8
	민간위탁	102	3.9	37.3	21.6	33.3	3.9	41.2	21.6	37.3
	지자체 산하공단	32	6.3	56.3	15.6	21.9	0.0	62.5	15.6	21.9
직위	관장	29	17.2	41.4	13.8	24.1	3.4	58.6	13.8	27.6
	간부	56	7.1	25.0	28.6	33.9	5.4	32.1	28.6	39.3
	일반직원	227	9.7	33.5	25.1	29.5	2.2	43.2	25.1	31.7
자격증 보유	1급	33	9.1	42.4	21.2	27.3	0.0	51.5	21.2	27.3
	2급	193	8.8	30.1	27.5	31.1	2.6	38.9	27.5	33.7
	3급	24	8.3	25.0	25.0	33.3	8.3	33.3	25.0	41.7
	없음	62	14.5	38.7	17.7	25.8	3.2	53.2	17.7	29.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지역사회 주민들의 수련시설 인지 정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42.6%(매우 잘 알고 있음: 9.9% + 조금 알고 있음: 32.7%)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32.7%(전혀 알지 못함: 2.9% + 별로 알지 못함: 29.8%)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4.7%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알고 있다’는 응답은 충청권(48.0%) 및 전라권(50.8%)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산하공단(62.5%)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장(58.6%), 1급 자격증 보유자(51.5%) 및 자격증 미보유자(53.2%)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VII-96 지역사회 주민들의 수련시설 인지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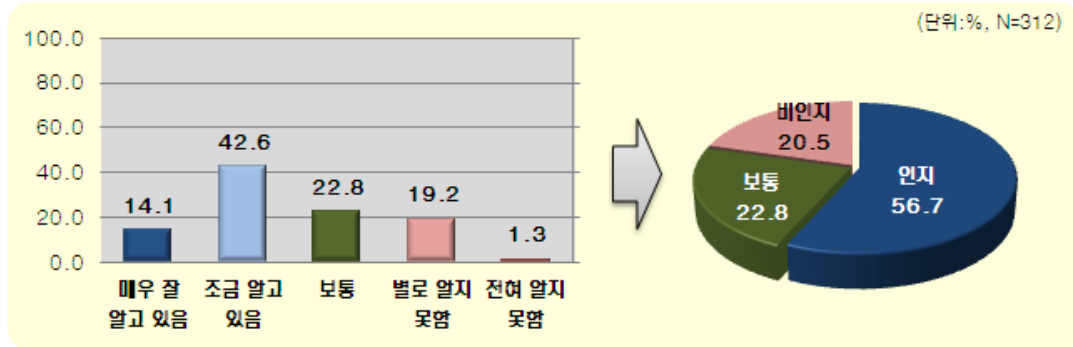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0.838 (0.504)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824 (0.440)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0.298 (0.743)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2.050 (0.111)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2.325 (0.099)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1.550 (0.202)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2)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인지 정도

56.7%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수련시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

[매우 잘 알고 있음 14.1%, 조금 알고 있음 42.6%]



[그림 VII-46]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인지 정도

표 VII-97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인지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보통	별로 알지 못함	전혀 알지 못함	*인지*	*보통*	*비인지*
전체		312	14.1	42.6	22.8	19.2	1.3	56.7	22.8	20.5
근무지역	수도권	127	14.2	44.9	19.7	20.5	0.8	59.1	19.7	21.3
	경상권	61	13.1	37.7	26.2	21.3	1.6	50.8	26.2	23.0
	충청권	25	12.0	32.0	36.0	16.0	4.0	44.0	36.0	20.0
	전라권	61	21.3	37.7	21.3	18.0	1.6	59.0	21.3	19.7
	강원제주권	38	5.3	57.9	21.1	15.8	0.0	63.2	21.1	15.8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11.6	43.2	23.2	21.1	1.1	54.7	23.2	22.1
	중소도시	127	10.2	46.5	24.4	17.3	1.6	56.7	24.4	18.9
	농산어촌	90	22.2	36.7	20.0	20.0	1.1	58.9	20.0	21.1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6.3	28.6	30.6	22.4	2.0	44.9	30.6	24.5
	청소년수련관	140	12.1	44.3	24.3	18.6	0.7	56.4	24.3	19.3
	청소년문화의집	123	15.4	46.3	17.9	18.7	1.6	61.8	17.9	20.3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17.9	35.7	26.8	19.6	0.0	53.6	26.8	19.6
	법인	122	14.8	39.3	25.4	19.7	0.8	54.1	25.4	20.5
	민간위탁	102	11.8	46.1	20.6	19.6	2.0	57.8	20.6	21.6
	지자체 산하공단	32	12.5	56.3	12.5	15.6	3.1	68.8	12.5	18.8
직위	관장	29	31.0	41.4	6.9	20.7	0.0	72.4	6.9	20.7
	간부	56	10.7	42.9	21.4	23.2	1.8	53.6	21.4	25.0
	일반직원	227	12.8	42.7	25.1	18.1	1.3	55.5	25.1	19.4
자격증 보유	1급	33	27.3	36.4	21.2	15.2	0.0	63.6	21.2	15.2
	2급	193	10.4	46.1	23.8	17.6	2.1	56.5	23.8	19.7
	3급	24	12.5	29.2	33.3	25.0	0.0	41.7	33.3	25.0
	없음	62	19.4	40.3	16.1	24.2	0.0	59.7	16.1	24.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인지 정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56.7%(매우 잘 알고 있음: 14.1% + 조금 알고 있음: 42.6%)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20.5%(전혀 알지 못함: 1.3% + 별로 알지 못함: 19.2%)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2.8%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알고 있다’는 응답은 수도권(59.1%) 및 전라권(59.0%) 그리고 강원제주권(63.2%)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문화의집(61.8%),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산하공단(68.8%)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장(72.4%), 1급 자격증 보유자(63.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VII-98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인지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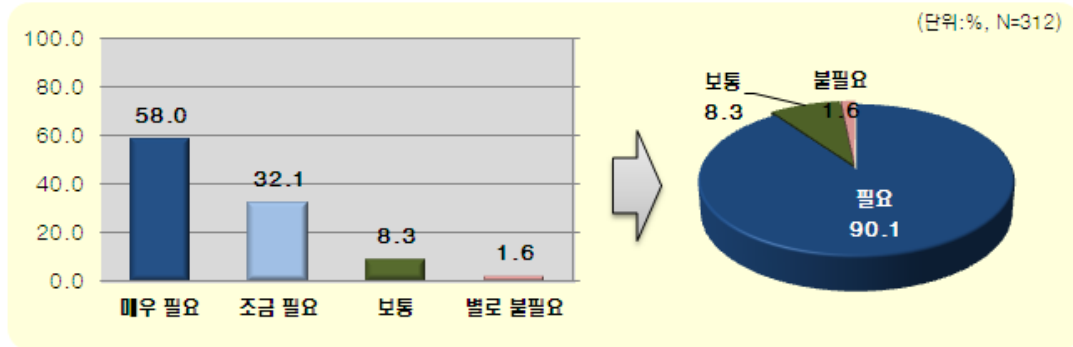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0.502 (0.734)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644 (0.526)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0.747 (0.475)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0.166 (0.919)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2.067 (0.128)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1.279 (0.282)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3) 수련시설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연계/교류 필요 정도

90.1%는 수련시설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연계/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

[매우 필요 58.0%, 조금 필요 32.1%]



[그림 VII-47] 수련시설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연계/교류 필요 정도

표 VII-99 수련시설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연계/교류 필요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필요	조금 필요	보통	별로 불필요	전혀 불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312	58.0	32.1	8.3	1.6	0.0	90.1	8.3	1.6
근무지역	수도권	127	58.3	34.6	6.3	0.8	0.0	92.9	6.3
	경상권	61	68.9	23.0	8.2	0.0	0.0	91.8	8.2
	충청권	25	44.0	40.0	12.0	4.0	0.0	84.0	12.0
	전라권	61	54.1	32.8	9.8	3.3	0.0	86.9	9.8
	강원제주권	38	55.3	31.6	10.5	2.6	0.0	86.8	10.5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58.9	33.7	6.3	1.1	0.0	92.6	6.3
	중소도시	127	58.3	30.7	8.7	2.4	0.0	89.0	8.7
	농산어촌	90	56.7	32.2	10.0	1.1	0.0	88.9	10.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49.0	32.7	16.3	2.0	0.0	81.6	16.3
	청소년수련관	140	57.9	32.1	8.6	1.4	0.0	90.0	8.6
	청소년문화의집	123	61.8	31.7	4.9	1.6	0.0	93.5	4.9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60.7	32.1	5.4	1.8	0.0	92.9	5.4
	법인	122	54.1	34.4	9.0	2.5	0.0	88.5	9.0
	민간위탁	102	58.8	28.4	11.8	1.0	0.0	87.3	11.8
	지자체 산하공단	32	65.6	34.4	0.0	0.0	0.0	100.0	0.0
직위	관장	29	75.9	17.2	6.9	0.0	0.0	93.1	6.9
	간부	56	64.3	32.1	0.0	3.6	0.0	96.4	0.0
	일반직원	227	54.2	33.9	10.6	1.3	0.0	88.1	10.6
자격증 보유	1급	33	78.8	21.2	0.0	0.0	0.0	100.0	0.0
	2급	193	56.0	34.7	7.8	1.6	0.0	90.7	7.8
	3급	24	54.2	16.7	20.8	8.3	0.0	70.8	20.8
	없음	62	54.8	35.5	9.7	0.0	0.0	90.3	9.7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수련시설이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시설이나 유관단체와 연계/교류의 필요 정도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90.1%(매우 필요: 58.0% + 조금 필요: 32.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6%(전혀 불필요: 0.0% + 별로 불필요: 1.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8.3%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문화의집(93.5%),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산하공단(100.0%)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장(93.1%) 및 간부(96.4%), 1급 자격증 보유자(100.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직위 및 자격증 보유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직위, 0.1% 수준에서는 자격증 보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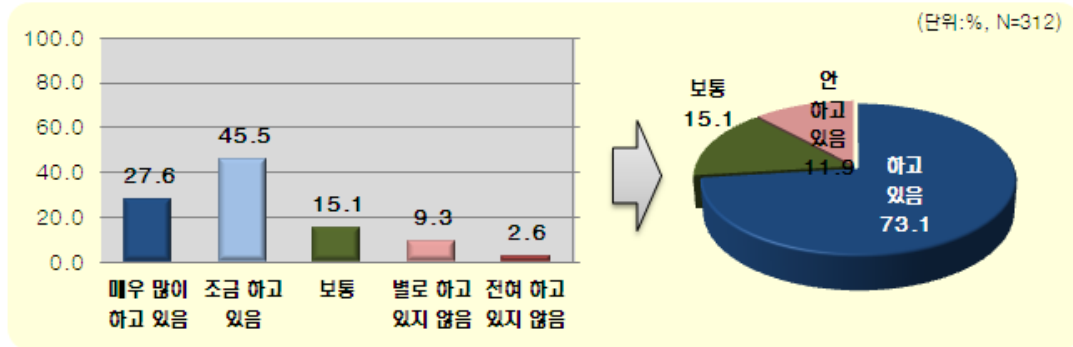
표 VII-100 수련시설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연계/교류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640 (0.164)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218 (0.804)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2.165 (0.117)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1.924 (0.129)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3.262* (0.044)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6.180*** (0.001)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4) 수련시설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현재 연계/교류 정도

73.1%는 수련시설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현재 연계/교류를 하고 있음
[매우 많이 하고 있음 27.6%, 조금 하고 있음 45.5%]



【그림 VII-48】 수련시설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현재 연계/교류 정도

표 VII-101 수련시설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현재 연계/교류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많이 하고 있음	조금 하고 있음	보통	별로 하고 있지 않음	전혀 하고 있지 않음	*하고 있음*	*보통*	*안 하고 있음*
전체		312	27.6	45.5	15.1	9.3	2.6	73.1	15.1	11.9
근무지역	수도권	127	37.0	40.2	15.7	5.5	1.6	77.2	15.7	7.1
	경상권	61	21.3	55.7	8.2	9.8	4.9	77.0	8.2	14.8
	충청권	25	8.0	44.0	32.0	12.0	4.0	52.0	32.0	16.0
	전라권	61	21.3	42.6	18.0	14.8	3.3	63.9	18.0	18.0
	강원제주권	38	28.9	52.6	7.9	10.5	0.0	81.6	7.9	10.5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38.9	44.2	12.6	4.2	0.0	83.2	12.6	4.2
	중소도시	127	27.6	52.8	10.2	7.9	1.6	80.3	10.2	9.4
	농산어촌	90	15.6	36.7	24.4	16.7	6.7	52.2	24.4	23.3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8.2	26.5	24.5	26.5	14.3	34.7	24.5	40.8
	청소년수련관	140	25.0	56.4	12.1	6.4	0.0	81.4	12.1	6.4
	청소년문화의집	123	38.2	40.7	14.6	5.7	0.8	78.9	14.6	6.5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19.6	48.2	19.6	10.7	1.8	67.9	19.6	12.5
	법인	122	19.7	48.4	17.2	11.5	3.3	68.0	17.2	14.8
	민간위탁	102	36.3	42.2	11.8	7.8	2.0	78.4	11.8	9.8
	지자체 산하공단	32	43.8	40.6	9.4	3.1	3.1	84.4	9.4	6.3
직위	관장	29	44.8	48.3	6.9	0.0	0.0	93.1	6.9	0.0
	간부	56	28.6	46.4	8.9	10.7	5.4	75.0	8.9	16.1
	일반직원	227	25.1	44.9	17.6	10.1	2.2	70.0	17.6	12.3
자격증 보유	1급	33	51.5	39.4	3.0	6.1	0.0	90.9	3.0	6.1
	2급	193	22.3	50.3	15.5	8.8	3.1	72.5	15.5	11.9
	3급	24	25.0	29.2	25.0	20.8	0.0	54.2	25.0	20.8
	없음	62	32.3	40.3	16.1	8.1	3.2	72.6	16.1	11.3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현재 재직 중인 수련시설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시설이나 유관단체와 연계/교류 정도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는 응답이 73.1%(매우 많이 하고 있음: 27.6% + 조금 하고 있음: 45.5%)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 11.9%(전혀 하지 않고 있음: 2.6% + 별로 하지 않고 있음: 9.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5.1%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하고 있다’는 응답은 수도권(77.2%), 경상권(77.0%) 및 강원제주권(81.6%)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관(81.4%) 및 청소년문화의집(78.9%), 운영주체별로는 민간위탁(78.4%) 및 지자체 산하공단(84.4%)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5% 수준에서는 운영주체 및 직위 그리고 자격증 보유, 1% 수준에서는 근무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시설입지특징 및 시설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02

수련시설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현재 연계/교류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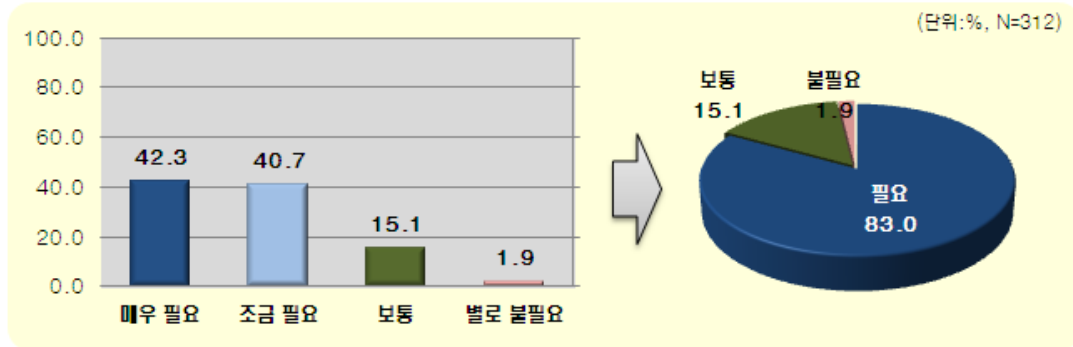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3.613** (0.007)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15.116*** (0.000)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21.292*** (0.000)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3.548* (0.015)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4.315* (0.014)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3.737* (0.012)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5) 수련시설과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연계/교류 필요 정도

83.0%는 수련시설과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연계/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

[매우 필요 42.3%, 조금 필요 40.7%]



【그림 VII-49】 수련시설과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연계/교류 필요 정도

표 VII-103 수련시설과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연계/교류 필요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필요	조금 필요	보통	별로 불필요	전혀 불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312	42.3	40.7	15.1	1.9	0.0	83.0	15.1	1.9
근무지역	수도권	127	39.4	42.5	15.7	2.4	0.0	81.9	15.7
	경상권	61	65.6	27.9	4.9	1.6	0.0	93.4	4.9
	충청권	25	28.0	40.0	24.0	8.0	0.0	68.0	24.0
	전라권	61	36.1	42.6	21.3	0.0	0.0	78.7	21.3
	강원제주권	38	34.2	52.6	13.2	0.0	0.0	86.8	13.2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40.0	45.3	12.6	2.1	0.0	85.3	12.6
	중소도시	127	44.1	40.2	15.0	0.8	0.0	84.3	15.0
	농산어촌	90	42.2	36.7	17.8	3.3	0.0	78.9	17.8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36.7	40.8	18.4	4.1	0.0	77.6	18.4
	청소년수련관	140	42.1	41.4	15.0	1.4	0.0	83.6	15.0
	청소년문화의집	123	44.7	39.8	13.8	1.6	0.0	84.6	13.8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51.8	35.7	10.7	1.8	0.0	87.5	10.7
	법인	122	36.9	45.1	14.8	3.3	0.0	82.0	14.8
	민간위탁	102	40.2	40.2	19.6	0.0	0.0	80.4	19.6
	지자체 산하공단	32	53.1	34.4	9.4	3.1	0.0	87.5	9.4
직위	관장	29	44.8	48.3	3.4	3.4	0.0	93.1	3.4
	간부	56	42.9	42.9	14.3	0.0	0.0	85.7	14.3
	일반직원	227	41.9	39.2	16.7	2.2	0.0	81.1	16.7
자격증 보유	1급	33	54.5	36.4	6.1	3.0	0.0	90.9	6.1
	2급	193	43.0	40.4	15.0	1.6	0.0	83.4	15.0
	3급	24	45.8	33.3	16.7	4.2	0.0	79.2	16.7
	없음	62	32.3	46.8	19.4	1.6	0.0	79.0	19.4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현재 재직 중인 수련시설과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이나 유관단체와 연계/교류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3.0%(매우 필요: 42.3% + 조금 필요: 40.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9%(전혀 불필요: 0.0% + 별로 불필요: 1.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5.1%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경상권(93.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직영(87.5%) 및 지자체 산하공단(87.5%)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장(93.1%), 1급 자격증 보유자(90.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근무지역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근무지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04 수련시설과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연계/교류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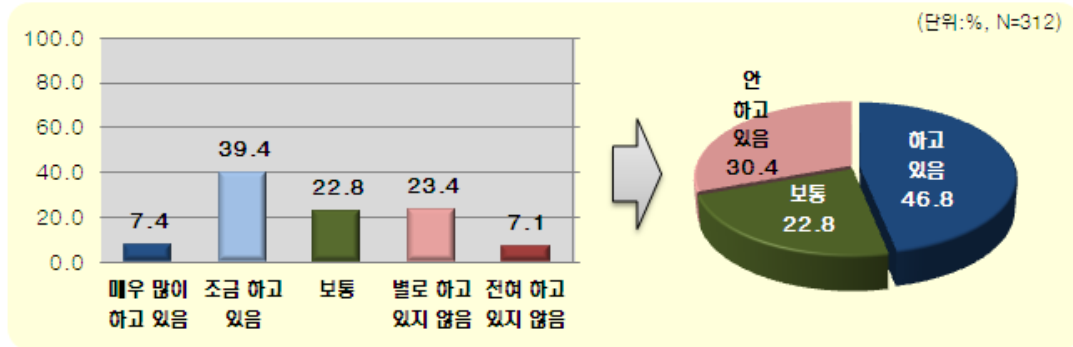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4.784*** (0.001)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421 (0.657)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0.907 (0.405)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1.443 (0.230)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0.560 (0.572)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1.354 (0.257)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6) 수련시설과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현재 연계/교류 정도

46.8%는 수련시설과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현재 연계/교류를 하고 있음

[매우 많이 하고 있음 7.4%, 조금 하고 있음 39.4%]



【그림 VII-50】 수련시설과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현재 연계/교류 정도

표 VII-105 수련시설과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현재 연계/교류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많이 하고 있음	조금 하고 있음	보통	별로 하고 있지 않음	전혀 하고 있지 않음	*하고 있음*	*보통*	*안 하고 있음*
전체		312	7.4	39.4	22.8	23.4	7.1	46.8	22.8	30.4
근무지역	수도권	127	9.4	40.9	22.8	23.6	3.1	50.4	22.8	26.8
	경상권	61	8.2	37.7	23.0	19.7	11.5	45.9	23.0	31.1
	충청권	25	4.0	52.0	20.0	16.0	8.0	56.0	20.0	24.0
	전라권	61	4.9	32.8	21.3	29.5	11.5	37.7	21.3	41.0
	강원제주권	38	5.3	39.5	26.3	23.7	5.3	44.7	26.3	28.9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9.5	47.4	18.9	22.1	2.1	56.8	18.9	24.2
	중소도시	127	7.1	42.5	26.0	19.7	4.7	49.6	26.0	24.4
	농산어촌	90	5.6	26.7	22.2	30.0	15.6	32.2	22.2	45.6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8.2	18.4	30.6	24.5	18.4	26.5	30.6	42.9
	청소년수련관	140	6.4	48.6	20.7	21.4	2.9	55.0	20.7	24.3
	청소년문화의집	123	8.1	37.4	22.0	25.2	7.3	45.5	22.0	32.5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7.1	32.1	26.8	23.2	10.7	39.3	26.8	33.9
	법인	122	4.9	39.3	25.4	23.0	7.4	44.3	25.4	30.3
	민간위탁	102	8.8	44.1	19.6	22.5	4.9	52.9	19.6	27.5
	지자체 산하공단	32	12.5	37.5	15.6	28.1	6.3	50.0	15.6	34.4
직위	관장	29	6.9	44.8	34.5	10.3	3.4	51.7	34.5	13.8
	간부	56	5.4	50.0	17.9	17.9	8.9	55.4	17.9	26.8
	일반직원	227	7.9	36.1	22.5	26.4	7.0	44.1	22.5	33.5
자격증 보유	1급	33	6.1	48.5	18.2	21.2	6.1	54.5	18.2	27.3
	2급	193	6.7	38.3	22.3	25.4	7.3	45.1	22.3	32.6
	3급	24	8.3	29.2	29.2	29.2	4.2	37.5	29.2	33.3
	없음	62	9.7	41.9	24.2	16.1	8.1	51.6	24.2	24.2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현재 재직 중인 수련시설이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이나 유관단체와 연계/교류 정도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는 응답이 46.8%(매우 많이 하고 있음: 7.4% + 조금 하고 있음: 39.4%)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 30.4%(전혀 하지 않고 있음: 7.1% + 별로 하지 않고 있음: 23.4%)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2.8%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하고 있다’는 응답은 수도권(50.4%) 및 충청권(56.0%), 대도시(56.8%), 청소년수련관(55.0%), 민간위탁(52.9%)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간부(55.4%), 1급 자격증 보유자(54.5%) 및 자격증 미보유자(51.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시설입지특징 및 시설유형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수준에서는 시설유형, 0.1% 수준에서는 시설입지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06 수련시설과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단체와 현재 연계/교류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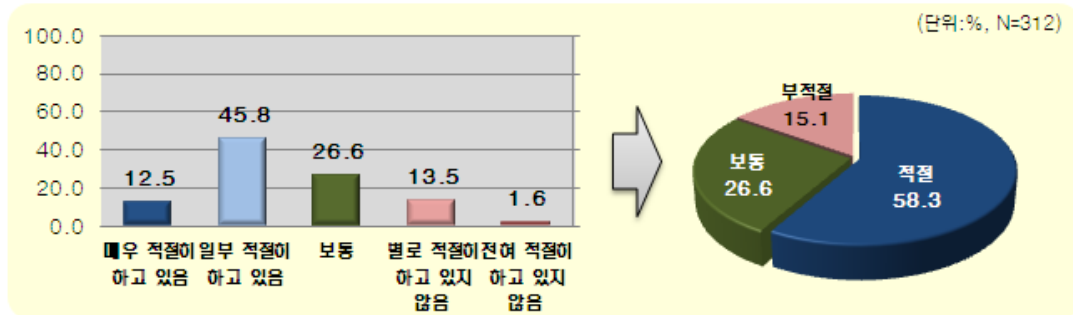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492 (0.204)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9.406*** (0.000)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5.935** (0.003)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0.934 (0.424)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1.177 (0.310)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0.540 (0.655)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7) 수련시설의 지역사회 홍보 적절 정도

58.3%는 수련시설이 지역사회에 홍보를 적절히 하고 있다고 생각

[매우 적절히 하고 있음 12.5%, 일부 적절히 하고 있음 45.8%]



[그림 VII-51] 수련시설의 지역사회 홍보 적절 정도

표 VII-107 수련시설의 지역사회 홍보 적절 정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히 하고 있음	일부 적절히 하고 있음	보통	별로 적절히 하고 있지 않음	전혀 적절히 하고 있지 않음	*적절*	*보통*	*부적절*
전체		312	12.5	45.8	26.6	13.5	1.6	58.3	26.6	15.1
근무지역	수도권	127	15.7	47.2	26.0	10.2	0.8	63.0	26.0	11.0
	경상권	61	11.5	50.8	19.7	14.8	3.3	62.3	19.7	18.0
	충청권	25	4.0	44.0	32.0	16.0	4.0	48.0	32.0	20.0
	전라권	61	16.4	41.0	27.9	13.1	1.6	57.4	27.9	14.8
	강원제주권	38	2.6	42.1	34.2	21.1	0.0	44.7	34.2	21.1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13.7	49.5	23.2	12.6	1.1	63.2	23.2	13.7
	중소도시	127	11.0	45.7	29.9	11.8	1.6	56.7	29.9	13.4
	농산어촌	90	13.3	42.2	25.6	16.7	2.2	55.6	25.6	18.9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4.3	36.7	30.6	14.3	4.1	51.0	30.6	18.4
	청소년수련관	140	12.1	45.7	26.4	14.3	1.4	57.9	26.4	15.7
	청소년문화의집	123	12.2	49.6	25.2	12.2	0.8	61.8	25.2	13.0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10.7	42.9	32.1	12.5	1.8	53.6	32.1	14.3
	법인	122	13.9	41.8	28.7	13.9	1.6	55.7	28.7	15.6
	민간위탁	102	8.8	51.0	24.5	13.7	2.0	59.8	24.5	15.7
	지자체 산하공단	32	21.9	50.0	15.6	12.5	0.0	71.9	15.6	12.5
직위	관장	29	6.9	65.5	20.7	6.9	0.0	72.4	20.7	6.9
	간부	56	16.1	41.1	25.0	14.3	3.6	57.1	25.0	17.9
	일반직원	227	12.3	44.5	27.8	14.1	1.3	56.8	27.8	15.4
자격증 보유	1급	33	21.2	54.5	15.2	9.1	0.0	75.8	15.2	9.1
	2급	193	9.8	43.5	27.5	17.1	2.1	53.4	27.5	19.2
	3급	24	12.5	58.3	25.0	4.2	0.0	70.8	25.0	4.2
	없음	62	16.1	43.5	30.6	8.1	1.6	59.7	30.6	9.7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현재 재직 중인 수련시설이 지역사회에 홍보를 적절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적절히 하고 있다’는 응답이 58.3%(매우 적절히 하고 있음: 12.5% + 일부 적절히 하고 있음: 45.8%)로 ‘적절히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 15.1%(전혀 적절히 하고 있지 않음: 1.6% + 별로 적절히 하고 있지 않음: 13.5%)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6.6%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적절히 하고 있다’는 응답은 수도권(63.0%) 및 경상권(62.3%), 대도시(63.2%), 청소년문화의집(61.8%), 지자체 산하공단(71.9%)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장(72.4%), 1급(75.8%) 및 3급(70.8%) 자격증 보유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자격증 보유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 자격증 보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08 수련시설의 지역사회 홍보 적절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990 (0.096)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571 (0.566)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0.629 (0.534)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1.033 (0.378)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0.993 (0.376)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3.845* (0.013)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6) 향후 기대하는 수련시설의 역할 및 기능

현재 재직 중인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 정도를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86.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적장한 직원 수는 몇 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10명 미만(32.1%)에서 10명~20명 미만(30.1%)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평균 17.3명으로 나타났다.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 보수의 적정한 향상 수준에 대해서는 약 30% 인상이라는 응답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 20% 인상이라는 응답이 22.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련시설 직원의 적당한 초임 연봉 수준은 2,000~2,5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직원복지수준의 확대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93.9%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재직 중인 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직원교육(연수)의 확대 필요 정도를 살펴보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7.9%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수준의 개선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84.3%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운영예산 확대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약 40%내에서 확대 필요라는 응답이 27.9%, 약 20%내에서 확대 필요라는 응답이 27.6%로 비슷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II-109 향후 기대하는 수련시설의 역할 및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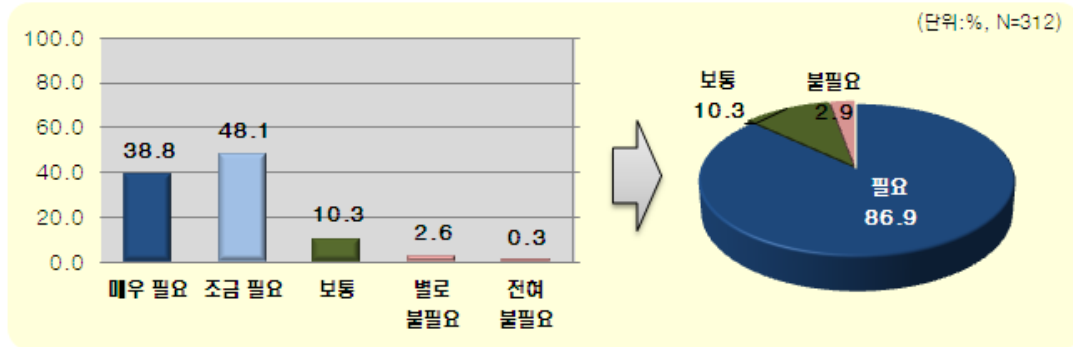
구분	내용[단위 : %]	
재직중인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정도	필요	86.9
	보통	10.3
	불필요	2.9
재직중인 수련시설의 적정한 직원 수	10명 미만	32.1
	10명-20명 미만	30.1
	20명-30명 미만	18.9
	30명 이상	18.9

구분	내용[단위 : %]	
재직중인 수련시설의 직원 보수 수준 향상 정도	현재 수준 적정함	3.5
	약 10% 인상	8.3
	약 20% 인상	22.4
	약 30% 인상	34.6
	약 40% 인상	8.0
	약 50% 인상	10.6
	50% 초과하는 인상 필요	12.5
수련시설 직원의 적당한 초임 연봉 수준	1,500-2,000만원 미만	9.9
	2,000-2,500만원 미만	51.9
	2,500-3,000만원 미만	31.1
	3,000-3,500만원 미만	5.1
	3,500-4,000만원 미만	1.3
	4,000만원 이상	0.6
재직중인 수련시설 직원복지수준의 확대 필요 정도	확대 필요	93.9
	적정	5.8
	축소 필요	0.3
재직중인 수련시설 직원교육의 확대 필요 정도	확대 필요	77.9
	적정	21.2
	축소 필요	1.0
재직중인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수준 개선 필요 정도	개선 필요	84.3
	적정	10.9
	이미 높음	4.8
재직중인 수련시설 운영예산의 확대 필요 정도	현재 수준 적정함	6.1
	약 20%내에서 확대 필요	27.6
	약 40%내에서 확대 필요	27.9
	약 60%내에서 확대 필요	13.5
	약 80%내에서 확대 필요	6.1
	약 100%내에서 확대 필요	6.1
	100% 초과하는 확대 필요	12.8

(1)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정도

86.9%는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

[매우 필요 38.8%, 조금 필요 48.1%]



【그림 VII-52】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정도

표 VII-110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필요	조금 필요	보통	별로 불필요	전혀 불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312	38.8	48.1	10.3	2.6	0.3	86.9	10.3	2.9
근무지역	수도권	127	33.1	52.8	11.0	3.1	0.0	85.8	11.0
	경상권	61	52.5	34.4	9.8	3.3	0.0	86.9	9.8
	충청권	25	28.0	52.0	12.0	8.0	0.0	80.0	12.0
	전라권	61	37.7	52.5	8.2	0.0	1.6	90.2	8.2
	강원제주권	38	44.7	44.7	10.5	0.0	0.0	89.5	10.5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29.5	50.5	13.7	6.3	0.0	80.0	13.7
	중소도시	127	37.0	51.2	11.8	0.0	0.0	88.2	11.8
	농산어촌	90	51.1	41.1	4.4	2.2	1.1	92.2	4.4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40.8	42.9	12.2	2.0	2.0	83.7	12.2
	청소년수련관	140	37.9	50.0	10.0	2.1	0.0	87.9	10.0
	청소년문화의집	123	39.0	48.0	9.8	3.3	0.0	87.0	9.8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51.8	37.5	8.9	1.8	0.0	89.3	8.9
	법인	122	33.6	54.1	9.0	2.5	0.8	87.7	9.0
	민간위탁	102	36.3	46.1	13.7	3.9	0.0	82.4	13.7
	지자체 산하공단	32	43.8	50.0	6.3	0.0	0.0	93.8	6.3
직위	관장	29	44.8	44.8	0.0	10.3	0.0	89.7	0.0
	간부	56	32.1	53.6	12.5	1.8	0.0	85.7	12.5
	일반직원	227	39.6	47.1	11.0	1.8	0.4	86.8	11.0
자격증 보유	1급	33	51.5	48.5	0.0	0.0	0.0	100.0	0.0
	2급	193	39.4	49.2	8.8	2.6	0.0	88.6	8.8
	3급	24	37.5	41.7	16.7	4.2	0.0	79.2	16.7
	없음	62	30.6	46.8	17.7	3.2	1.6	77.4	17.7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현재 재직 중인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 정도를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86.9%(매우 필요: 38.8% + 조금 필요: 48.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9%(전혀 불필요: 0.3% + 별로 불필요: 2.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0.3%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라권(90.2%), 농산어촌(92.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산하공단(93.8%)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1급 자격증 보유자(100.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시설입지특징 및 자격증 보유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자격증 보유, 1% 수준에서는 시설입지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II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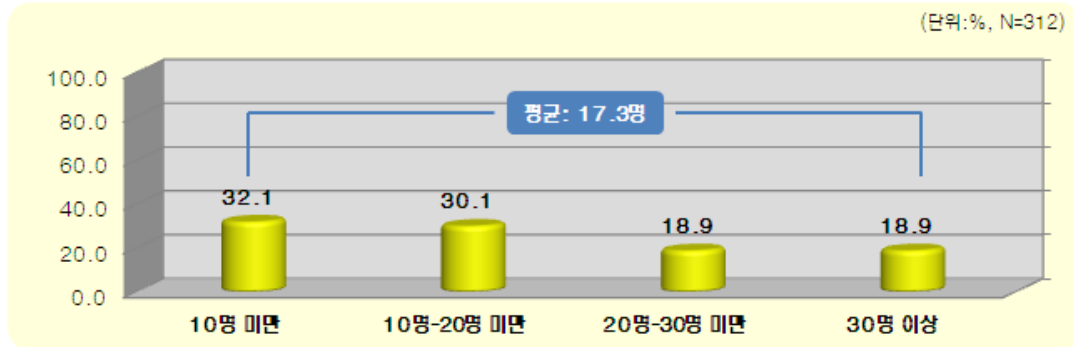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543 (0.189)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5,439** (0.005)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0.087 (0.917)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1,911 (0.128)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0.240 (0.787)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3,504* (0.016)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2)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적정한 직원 수

10명 미만 32.1% ≥ 10명-20명 미만 30.1%

[평균 17.3명]



【그림 VII-53】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적정한 직원 수

표 VII-112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적정한 직원 수

단위[%]		사례수[명]	10명 미만	10명~20명 미만	20명~30명 미만	30명 이상	*평균* [명]
전체		312	32.1	30.1	18.9	18.9	17.3
근무지역	수도권	127	20.5	27.6	22.8	29.1	22.5
	경상권	61	32.8	23.0	27.9	16.4	16.4
	충청권	25	60.0	24.0	4.0	12.0	11.7
	전라권	61	36.1	49.2	11.5	3.3	11.9
	강원제주권	38	44.7	23.7	13.2	18.4	13.6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26.3	25.3	20.0	28.4	21.1
	중소도시	127	30.7	32.3	21.3	15.7	16.1
	농산어촌	90	40.0	32.2	14.4	13.3	14.8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0.2	32.7	22.4	34.7	23.9
	청소년수련관	140	13.6	27.1	30.0	29.3	22.4
	청소년문화의집	123	61.8	32.5	4.9	0.8	8.8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60.7	19.6	10.7	8.9	11.1
	법인	122	24.6	32.0	21.3	22.1	20.2
	민간위탁	102	30.4	36.3	19.6	13.7	15.4
	지자체 산하공단	32	15.6	21.9	21.9	40.6	23.0
직위	관장	29	17.2	41.4	13.8	27.6	20.5
	간부	56	23.2	33.9	28.6	14.3	17.7
	일반직원	227	36.1	27.8	17.2	18.9	16.8
자격증 보유	1급	33	21.2	45.5	18.2	15.2	16.9
	2급	193	36.3	29.0	17.6	17.1	16.0
	3급	24	37.5	29.2	20.8	12.5	17.6
	없음	62	22.6	25.8	22.6	29.0	21.3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적정한 직원 수는 몇 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10명 미만’이라는 응답이 32.1%, ‘10명~20명 미만’ 30.1%, ‘20명~30명 미만’ 18.9%, ‘30명 이상’ 18.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균은 17.3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10명 미만’이라는 응답은 충청권(60.0%) 및 강원제주권(44.7%), 농산어촌(40.0%)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문화의집(61.8%),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직영(60.7%)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직원(36.1%), 2급 자격증 보유자(36.3%)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1% 수준에서는 시설입지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근무지역 및 시설유형, 운영주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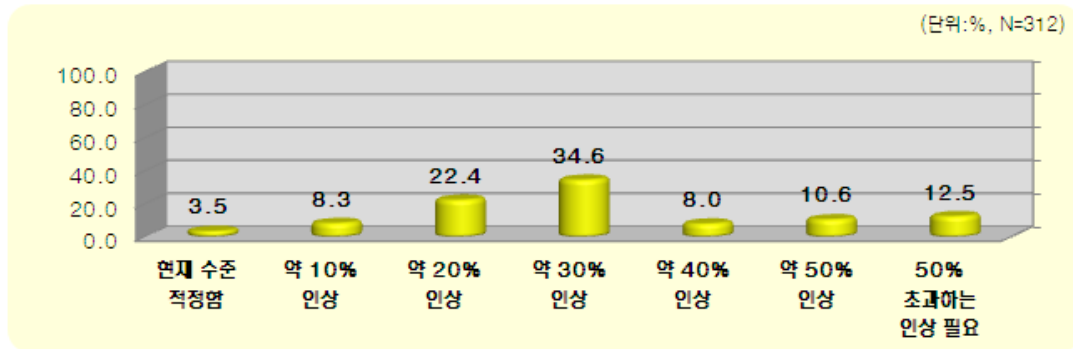
표 VII-113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적정한 직원 수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1.398*** (0.000)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5.031** (0.007)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80.164*** (0.000)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10.393*** (0.000)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1.072 (0.344)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2.580 (0.054)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3)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 보수 수준 향상 정도

약 30% 인상 34.6% > 약 20% 인상 22.4%



【그림 VII-54】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 보수 수준 향상 정도

표 VII-114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 보수 수준 향상 정도

단위[%]		사례수 [명]	현재 수준 적정함	약 10% 인상	약 20% 인상	약 30% 인상	약 40% 인상	약 50% 인상	50% 초과 인상 필요
전체		312	3.5	8.3	22.4	34.6	8.0	10.6	12.5
근무지역	수도권	127	3.1	11.0	23.6	36.2	9.4	7.9	8.7
	경상권	61	4.9	8.2	18.0	26.2	11.5	14.8	16.4
	충청권	25	4.0	8.0	36.0	24.0	8.0	0.0	20.0
	전라권	61	4.9	6.6	21.3	37.7	4.9	13.1	11.5
	강원제주권	38	0.0	2.6	18.4	44.7	2.6	15.8	15.8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1.1	9.5	25.3	36.8	8.4	8.4	10.5
	중소도시	127	4.7	6.3	21.3	37.8	7.9	11.8	10.2
	농산어촌	90	4.4	10.0	21.1	27.8	7.8	11.1	17.8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6.1	16.3	20.4	34.7	8.2	6.1	8.2
	청소년수련관	140	2.9	7.1	19.3	34.3	8.6	12.9	15.0
	청소년문화의집	123	3.3	6.5	26.8	35.0	7.3	9.8	11.4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7.1	5.4	16.1	30.4	3.6	17.9	19.6
	법인	122	2.5	6.6	23.8	33.6	9.8	10.7	13.1
	민간위탁	102	2.9	12.7	19.6	40.2	7.8	5.9	10.8
	지자체 산하공단	32	3.1	6.3	37.5	28.1	9.4	12.5	3.1
직위	관장	29	6.9	13.8	17.2	37.9	0.0	6.9	17.2
	간부	56	7.1	7.1	21.4	33.9	12.5	5.4	12.5
	일반직원	227	2.2	7.9	23.3	34.4	7.9	12.3	11.9
자격증 보유	1급	33	9.1	9.1	15.2	36.4	12.1	6.1	12.1
	2급	193	2.6	6.7	23.8	32.6	7.8	13.5	13.0
	3급	24	0.0	12.5	20.8	37.5	4.2	4.2	20.8
	없음	62	4.8	11.3	22.6	38.7	8.1	6.5	8.1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 보수 수준 향상 정도에 대해서는 ‘약 30% 인상’이라는 응답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약 20% 인상’ 22.4%, ‘50% 초과 인상 필요’ 12.5%, ‘약 50% 인상’ 10.6%, ‘약 10% 인상’ 8.3%, ‘약 40% 인상’ 8.0%, ‘현재 수준 적정함’ 3.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약 30% 인상’이라는 응답은 강원제주권(44.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주체별로는 민간위탁(40.2%)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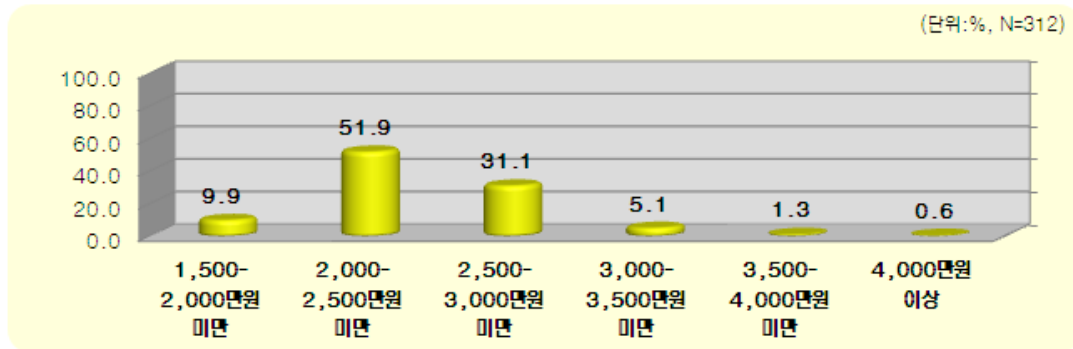
표 VII-115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 보수 수준 향상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24.263 (0.447)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9.146 (0.690)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0.782 (0.548)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24.355 (0.144)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12.677 (0.393)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15.464 (0.630)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4) 수련시설 직원의 적당한 초임 연봉 수준

2,000-2,500만원 미만 51.9% > 2,500-3,000만원 미만 31.1%



【그림 VII-55】 수련시설 직원의 적당한 초임 연봉 수준

표 VII-116 수련시설 직원의 적당한 초임 연봉 수준

단위[%]		사례수 [명]	1,500~2,000 만원 미만	2,000~2,500 만원 미만	2,500~3,000 만원 미만	3,000~3,500 만원 미만	3,500~4,000 만원 미만	4,000만원 이상
전체		312	9.9	51.9	31.1	5.1	1.3	0.6
근무지역	수도권	127	7.1	44.1	40.2	4.7	2.4	1.6
	경상권	61	8.2	52.5	29.5	9.8	0.0	0.0
	충청권	25	0.0	64.0	36.0	0.0	0.0	0.0
	전라권	61	19.7	55.7	19.7	3.3	1.6	0.0
	강원제주권	38	13.2	63.2	18.4	5.3	0.0	0.0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5.3	49.5	38.9	3.2	2.1	1.1
	중소도시	127	8.7	58.3	26.8	5.5	0.8	0.0
	농산어촌	90	16.7	45.6	28.9	6.7	1.1	1.1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4.3	49.0	28.6	4.1	2.0	2.0
	청소년수련관	140	9.3	48.6	32.9	7.9	1.4	0.0
	청소년문화의집	123	8.9	56.9	30.1	2.4	0.8	0.8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7.1	53.6	33.9	5.4	0.0	0.0
	법인	122	11.5	51.6	29.5	4.9	1.6	0.8
	민간위탁	102	12.7	52.0	30.4	3.9	0.0	1.0
	지자체 산하공단	32	0.0	50.0	34.4	9.4	6.3	0.0
직위	관장	29	6.9	69.0	6.9	17.2	0.0	0.0
	간부	56	19.6	42.9	32.1	1.8	1.8	1.8
	일반직원	227	7.9	52.0	33.9	4.4	1.3	0.4
자격증 보유	1급	33	12.1	51.5	24.2	9.1	3.0	0.0
	2급	193	7.3	56.0	31.1	4.1	0.5	1.0
	3급	24	12.5	29.2	54.2	4.2	0.0	0.0
	없음	62	16.1	48.4	25.8	6.5	3.2	0.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수련시설 직원의 적당한 초임 연봉 수준에 대해서는 ‘2,000~2,5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2,500~3,000만원 미만’ 31.1%, ‘1,500~2,000만원 미만’ 9.9%, ‘3,000~3,500만원 미만’ 5.1%, ‘3,500~4,000만원 미만’ 1.3%, ‘4,000만원 이상’ 0.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2,000~2,5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충청권(64.0%) 및 강원제주권(63.2%), 중소도시(58.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문화의집(56.9%)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장(69.0%), 2급 자격증 보유자(56.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5% 수준에서는 근무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 수준에서는 직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17 수련시설 직원의 적당한 초임 연봉 수준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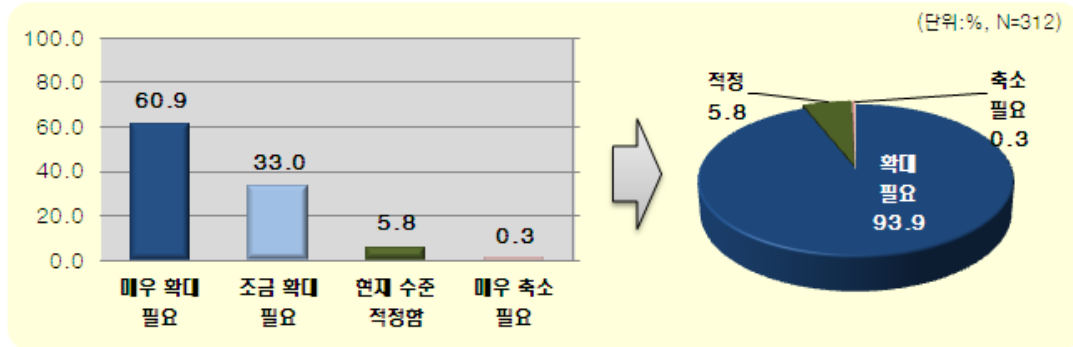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31.431* (0.050)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14.296 (0.160)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9.148 (0.518)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15.691 (0.403)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26.781** (0.003)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19.085 (0.210)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5)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복지수준의 확대 필요 정도

93.9%는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복지수준의 확대가 필요하고 생각

[매우 필요 60.9%, 조금 필요 33.0%]



[그림 VII-56]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복지수준의 확대 필요 정도

표 VII-118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복지수준의 확대 필요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확대 필요	조금 확대 필요	현재 수준 적정함	조금 축소 필요	매우 축소 필요	*확대 필요*	*적정*	*축소 필요*
전체		312	60.9	33.0	5.8	0.0	0.3	93.9	5.8	0.3
근무지역	수도권	127	54.3	39.4	6.3	0.0	0.0	93.7	6.3	0.0
	경상권	61	70.5	24.6	3.3	0.0	1.6	95.1	3.3	1.6
	충청권	25	64.0	24.0	12.0	0.0	0.0	88.0	12.0	0.0
	전라권	61	57.4	39.3	3.3	0.0	0.0	96.7	3.3	0.0
	강원제주권	38	71.1	21.1	7.9	0.0	0.0	92.1	7.9	0.0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63.2	28.4	8.4	0.0	0.0	91.6	8.4	0.0
	중소도시	127	59.1	34.6	6.3	0.0	0.0	93.7	6.3	0.0
	농산어촌	90	61.1	35.6	2.2	0.0	1.1	96.7	2.2	1.1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51.0	42.9	4.1	0.0	2.0	93.9	4.1	2.0
	청소년수련관	140	65.0	29.3	5.7	0.0	0.0	94.3	5.7	0.0
	청소년문화의집	123	60.2	33.3	6.5	0.0	0.0	93.5	6.5	0.0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73.2	23.2	1.8	0.0	1.8	96.4	1.8	1.8
	법인	122	57.4	37.7	4.9	0.0	0.0	95.1	4.9	0.0
	민간위탁	102	60.8	31.4	7.8	0.0	0.0	92.2	7.8	0.0
	지자체 산하공단	32	53.1	37.5	9.4	0.0	0.0	90.6	9.4	0.0
직위	관장	29	51.7	34.5	13.8	0.0	0.0	86.2	13.8	0.0
	간부	56	53.6	39.3	5.4	0.0	1.8	92.9	5.4	1.8
	일반직원	227	63.9	31.3	4.8	0.0	0.0	95.2	4.8	0.0
자격증 보유	1급	33	66.7	30.3	3.0	0.0	0.0	97.0	3.0	0.0
	2급	193	61.7	32.6	5.7	0.0	0.0	94.3	5.7	0.0
	3급	24	66.7	20.8	12.5	0.0	0.0	87.5	12.5	0.0
	없음	62	53.2	40.3	4.8	0.0	1.6	93.5	4.8	1.6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복지수준의 확대 필요 정도를 질문한 결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3.9%(매우 확대 필요: 60.9% + 조금 확대 필요: 33.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축소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0.3%(매우 축소 필요: 0.3% + 조금 축소 필요: 0.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5.8%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라권(96.7%), 농산어촌(96.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직영(96.4%) 및 법인(95.1%)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직원(95.2%), 1급 자격증 보유자(97.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VII-119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복지수준의 확대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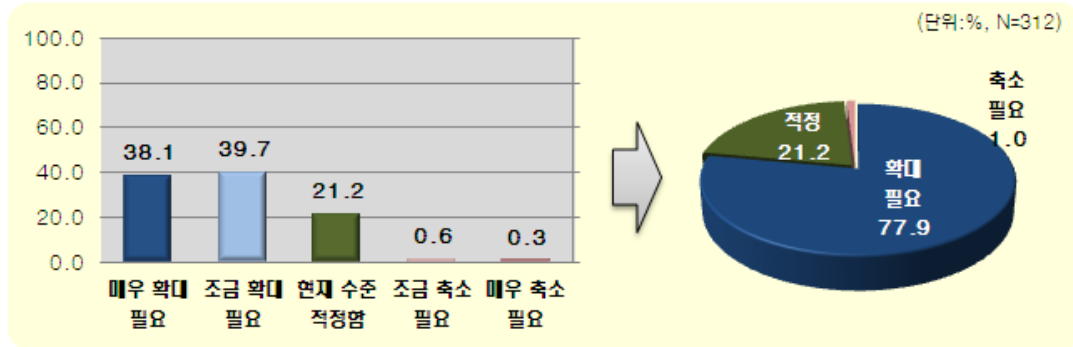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0.741 (0.565)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056 (0.945)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547 (0.215)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0.985 (0.400)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2.013 (0.143)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0.872 (0.456)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6)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교육의 확대 필요 정도

77.9%는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교육의 확대가 필요하고 생각

[매우 필요 38.1%, 조금 필요 39.7%]



【그림 VII-57】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교육의 확대 필요 정도

표 VII-120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교육의 확대 필요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확대 필요	조금 확대 필요	현재 수준 적정함	조금 축소 필요	매우 축소 필요	*확대 필요*	*적정*	*축소 필요*
전체	312	38.1	39.7	21.2	0.6	0.3	77.9	21.2	1.0
근무지역	수도권	127	31.5	47.2	21.3	0.0	0.0	78.7	21.3
	경상권	61	49.2	34.4	14.8	0.0	1.6	83.6	14.8
	충청권	25	36.0	32.0	32.0	0.0	0.0	68.0	32.0
	전라권	61	41.0	36.1	23.0	0.0	0.0	77.0	23.0
	강원제주권	38	39.5	34.2	21.1	5.3	0.0	73.7	21.1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27.4	47.4	25.3	0.0	0.0	74.7	25.3
	중소도시	127	37.8	40.9	19.7	1.6	0.0	78.7	19.7
	농산어촌	90	50.0	30.0	18.9	0.0	1.1	80.0	18.9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42.9	40.8	14.3	0.0	2.0	83.7	14.3
	청소년수련관	140	39.3	38.6	20.7	1.4	0.0	77.9	20.7
	청소년문화의집	123	35.0	40.7	24.4	0.0	0.0	75.6	24.4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55.4	25.0	17.9	0.0	1.8	80.4	17.9
	법인	122	36.1	41.0	22.1	0.8	0.0	77.0	22.1
	민간위탁	102	32.4	45.1	21.6	1.0	0.0	77.5	21.6
	지자체 산하공단	32	34.4	43.8	21.9	0.0	0.0	78.1	21.9
직위	관장	29	24.1	51.7	24.1	0.0	0.0	75.9	24.1
	간부	56	28.6	48.2	17.9	3.6	1.8	76.8	17.9
	일반직원	227	42.3	36.1	21.6	0.0	0.0	78.4	21.6
자격증 보유	1급	33	30.3	51.5	18.2	0.0	0.0	81.8	18.2
	2급	193	40.4	40.4	19.2	0.0	0.0	80.8	19.2
	3급	24	45.8	20.8	25.0	8.3	0.0	66.7	25.0
	없음	62	32.3	38.7	27.4	0.0	1.6	71.0	27.4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교육의 확대 필요 정도를 질문한 결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7.9%(매우 확대 필요: 38.1% + 조금 확대 필요: 39.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축소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0%(매우 축소 필요: 0.3% + 조금 축소 필요: 0.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21.2%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경상권(83.6%), 농산어촌(80.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원(83.7%),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직영(80.4%)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1급(81.8%) 및 2급(80.8%) 자격증 보유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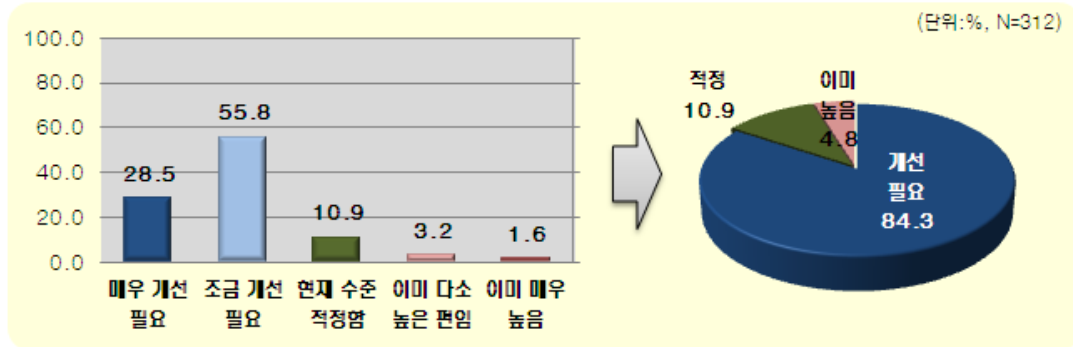
표 VII-121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교육의 확대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0.843 (0.499)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2.448 (0.089)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0.411 (0.663)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1.139 (0.333)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2.384 (0.094)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1.136 (0.341)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7)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수준 개선 필요 정도

84.3%는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수준 개선이 필요하고 생각
[매우 개선 필요 28.5%, 조금 개선 필요 55.8%]



[그림 VII-58]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수준 개선 필요 정도

표 VII-122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수준 개선 필요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개선 필요	조금 개선 필요	현재 수준 적정함	이미 다소 높은 편임	이미 매우 높음	*개선 필요*	*적정*	*이미 높음*
전체	312	28.5	55.8	10.9	3.2	1.6	84.3	10.9	4.8
근무지역	수도권	127	28.3	59.1	8.7	3.1	0.8	87.4	8.7
	경상권	61	31.1	59.0	4.9	1.6	3.3	90.2	4.9
	충청권	25	28.0	40.0	24.0	4.0	4.0	68.0	24.0
	전라권	61	27.9	52.5	14.8	4.9	0.0	80.3	14.8
	강원제주권	38	26.3	55.3	13.2	2.6	2.6	81.6	13.2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28.4	51.6	13.7	5.3	1.1	80.0	13.7
	중소도시	127	24.4	61.4	8.7	3.9	1.6	85.8	8.7
	농산어촌	90	34.4	52.2	11.1	0.0	2.2	86.7	11.1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30.6	61.2	4.1	0.0	4.1	91.8	4.1
	청소년수련관	140	27.9	53.6	13.6	3.6	1.4	81.4	13.6
	청소년문화의집	123	28.5	56.1	10.6	4.1	0.8	84.6	10.6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37.5	46.4	8.9	1.8	5.4	83.9	8.9
	법인	122	26.2	62.3	9.8	1.6	0.0	88.5	9.8
	민간위탁	102	26.5	50.0	14.7	6.9	2.0	76.5	14.7
	지자체 산하공단	32	28.1	65.6	6.3	0.0	0.0	93.8	6.3
직위	관장	29	24.1	65.5	6.9	0.0	3.4	89.7	6.9
	간부	56	32.1	55.4	10.7	0.0	1.8	87.5	10.7
	일반직원	227	28.2	54.6	11.5	4.4	1.3	82.8	11.5
자격증 보유	1급	33	27.3	66.7	3.0	0.0	3.0	93.9	3.0
	2급	193	30.1	57.5	8.8	2.6	1.0	87.6	8.8
	3급	24	41.7	33.3	12.5	12.5	0.0	75.0	12.5
	없음	62	19.4	53.2	21.0	3.2	3.2	72.6	21.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수준 개선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4.3%(매우 개선 필요: 28.5% + 조금 개선 필요: 55.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미 높다’는 응답은 4.8%(이미 매우 높음: 1.6% + 이미 다소 높은 편임: 3.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현재 수준 적정하다’는 응답은 10.9%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수도권(87.4%) 및 경상권(90.2%)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원(91.8%), 운영주체별로는 법인(88.5%) 및 지자체 산하공단(93.8%)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장(89.7%) 및 간부(87.5%), 1급(93.9%) 및 2급(87.6%) 자격증 보유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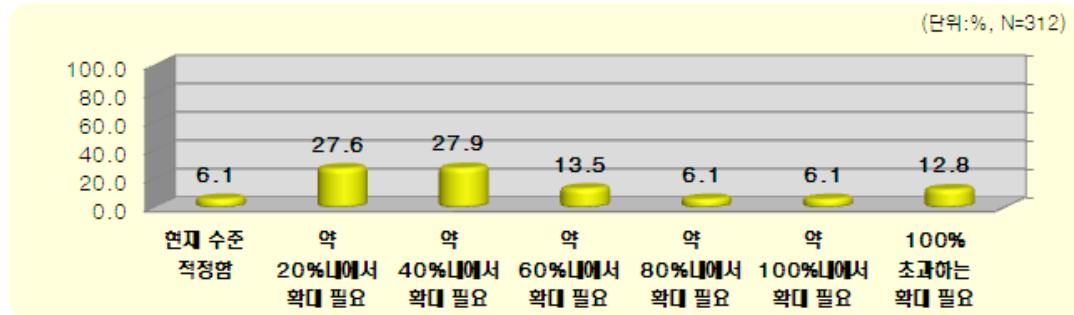
표 VII-123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수준 개선 필요 정도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0.756 (0.555)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1.019 (0.362)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0.368 (0.693)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1.820 (0.148)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0.494 (0.611)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2.392 (0.069)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8) 재직 중인 수련시설 운영예산의 확대 필요 정도

약 40% 내에서 확대 필요 27.9% ≒ 약 20% 내에서 확대 필요 27.6%



【그림 VII-59】 재직 중인 수련시설 운영예산의 확대 필요 정도

표 VII-124 재직 중인 수련시설 운영예산의 확대 필요 정도

단위[%]	사례수 [명]	현재 수준 적정함	약 20%내에서 확대 필요	약 40%내에서 확대 필요	약 60%내에서 확대 필요	약 80%내에서 확대 필요	약 100%내에서 확대 필요	100% 초과하는 확대 필요
전체	312	6.1	27.6	27.9	13.5	6.1	6.1	12.8
근무지역	수도권	127	8.7	37.8	28.3	9.4	5.5	7.1
	경상권	61	6.6	18.0	29.5	13.1	3.3	14.8
	충청권	25	8.0	32.0	24.0	20.0	8.0	8.0
	전라권	61	3.3	24.6	27.9	21.3	8.2	13.1
	강원제주권	38	0.0	10.5	26.3	10.5	7.9	31.6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8.4	32.6	26.3	11.6	5.3	6.3
	중소도시	127	4.7	26.0	29.1	13.4	6.3	7.1
	농산어촌	90	5.6	24.4	27.8	15.6	6.7	4.4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2.2	28.6	26.5	10.2	8.2	2.0
	청소년수련관	140	4.3	25.0	29.3	9.3	5.7	10.7
	청소년문화의집	123	5.7	30.1	26.8	19.5	5.7	2.4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8.9	16.1	25.0	16.1	3.6	7.1
	법인	122	5.7	24.6	33.6	13.9	7.4	4.1
	민간위탁	102	4.9	27.5	28.4	13.7	7.8	4.9
	지자체 산하공단	32	6.3	59.4	9.4	6.3	0.0	15.6
직위	관장	29	6.9	31.0	20.7	0.0	6.9	3.4
	간부	56	7.1	25.0	32.1	12.5	10.7	5.4
	일반직원	227	5.7	27.8	27.8	15.4	4.8	6.6
자격증 보유	1급	33	9.1	27.3	33.3	6.1	3.0	0.0
	2급	193	5.2	25.9	27.5	16.6	5.7	5.2
	3급	24	8.3	20.8	29.2	16.7	8.3	0.0
	없음	62	6.5	35.5	25.8	6.5	8.1	14.5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재직 중인 수련시설 운영예산의 확대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약 40%내에서 확대 필요’라는 응답이 27.9%, ‘약 20%내에서 확대 필요’라는 응답이 27.6%로 비슷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약 60%내에서 확대 필요’ 13.5%, ‘100% 초과하는 확대 필요’ 12.8%, ‘현재 수준 적정함’ 및 ‘약 80%내에서 확대 필요’ 그리고 ‘약 100%내에서 확대 필요’ 6.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약 40%내에서 확대 필요’이라는 응답은 법인(33.6%), 간부(32.1%), 1급 자격증 보유자(33.3%)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5% 수준에서는 시설유형, 1% 수준에서는 운영주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는 근무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25 재직 중인 수련시설 운영예산의 확대 필요 정도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53.383*** (0.001)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5.463 (0.941)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21.354* (0.045)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39.715** (0.002)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18.058 (0.114)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27.477 (0.070)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7) 향후 수련시설에 기대하는 정체성

현재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시설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이 47.1%로 불필요하다는 응답 31.4%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이란 명칭에서 ‘수련’이란 용어 대체 시 적절한 용어로는 활동이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설명칭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원은 명칭변경이 필요 있다는 응답이 50.6%, 필요 없다는 응답이 49.4%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은 명칭변경이 필요 있다는 응답이 65.7%, 필요 없다는 응답이 34.3%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54.5%는 명칭변경이 필요 있다고 응답했으며, 45.5%는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향후 수련시설을 종합시설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71.2%로 부적절하다는 응답 17.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유형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통합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응답이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시설유형을 기준으로 볼 때, 적절한 수련시설의 운영주체 형식으로는 지자체 직영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법인화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31.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수련시설의 위상(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4.0%로 이미 높은 위상을 갖추고 있다는 응답 9.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VII-126 향후 수련시설에 기대하는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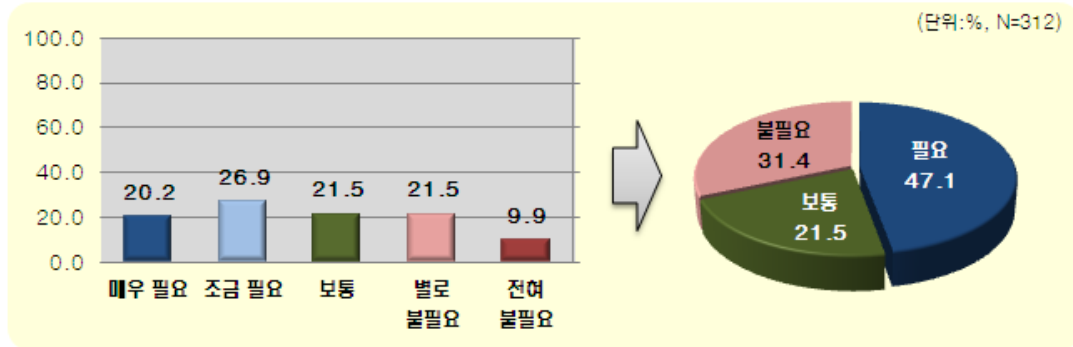
구분	내용[단위 : %]	
재직중인 수련시설 시설명칭 변경 필요 정도	필요	47.1
	보통	21.5
	불필요	31.4
‘수련’이란 용어 대체 시 적절한 용어	교육	9.0
	참여	11.2
	활동	57.1
	문화	16.3
	체험	6.4

구분		내용[단위 : %]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청소년수련원	명칭변경 필요 있음	50.6
		명칭변경 필요 없음	49.4
	청소년수련관	명칭변경 필요 있음	65.7
		명칭변경 필요 없음	34.3
	청소년문화의집	명칭변경 필요 있음	54.5
		명칭변경 필요 없음	45.5
향후 수련시설을 종합시설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적절 정도		적절	71.2
		보통	11.9
		부적절	17.0
시설유형 통합에 대한 생각		향후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관’ 통합을 고려해 볼 만함	13.5
		향후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문화의집’ 통합을 고려해 볼 만함	3.8
		향후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통합을 고려해 볼 만함	56.1
		향후 시설유형간 통합은 불필요함	26.6
재직종인 시설유형을 기준으로, 적절한 수련시설 운영주체 형식		지자체 직영이 적절	38.5
		법인화가 적절	31.1
		민간위탁이 적절	11.9
		지자체 산하공단이 적절	16.3
		기타	2.2
지역사회에서 수련시설의 위상 수준		위상 정립 필요	84.0
		현재 적정	6.1
		이미 높은 위상임	9.9

(1) 재직 중인 수련시설 시설명칭 변경 필요 정도

47.1%는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시설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

[매우 필요 20.2%, 조금 필요 26.9%]



【그림 VII-60】 재직 중인 수련시설 시설명칭 변경 필요 정도

표 VII-127 재직 중인 수련시설 시설명칭 변경 필요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필요	조금 필요	보통	별로 불필요	전혀 불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312	20.2	26.9	21.5	21.5	9.9	47.1	21.5	31.4
근무지역	수도권	127	14.2	30.7	25.2	18.9	11.0	44.9	25.2	29.9
	경상권	61	24.6	16.4	14.8	31.1	13.1	41.0	14.8	44.3
	충청권	25	20.0	40.0	20.0	16.0	4.0	60.0	20.0	20.0
	전라권	61	21.3	16.4	24.6	24.6	13.1	37.7	24.6	37.7
	강원제주권	38	31.6	39.5	15.8	13.2	0.0	71.1	15.8	13.2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18.9	31.6	20.0	21.1	8.4	50.5	20.0	29.5
	중소도시	127	18.9	29.9	22.0	21.3	7.9	48.8	22.0	29.1
	농산어촌	90	23.3	17.8	22.2	22.2	14.4	41.1	22.2	36.7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4.3	20.4	20.4	30.6	14.3	34.7	20.4	44.9
	청소년수련관	140	20.0	22.9	25.0	20.7	11.4	42.9	25.0	32.1
	청소년문화의집	123	22.8	34.1	17.9	18.7	6.5	56.9	17.9	25.2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30.4	28.6	12.5	16.1	12.5	58.9	12.5	28.6
	법인	122	13.9	24.6	25.4	26.2	9.8	38.5	25.4	36.1
	민간위탁	102	22.5	30.4	21.6	19.6	5.9	52.9	21.6	25.5
	지자체 산하공단	32	18.8	21.9	21.9	18.8	18.8	40.6	21.9	37.5
직위	관장	29	20.7	24.1	10.3	34.5	10.3	44.8	10.3	44.8
	간부	56	32.1	21.4	16.1	21.4	8.9	53.6	16.1	30.4
	일반직원	227	17.2	28.6	24.2	19.8	10.1	45.8	24.2	30.0
자격증 보유	1급	33	36.4	21.2	9.1	24.2	9.1	57.6	9.1	33.3
	2급	193	21.8	31.1	19.7	19.2	8.3	52.8	19.7	27.5
	3급	24	12.5	12.5	37.5	20.8	16.7	25.0	37.5	37.5
	없음	62	9.7	22.6	27.4	27.4	12.9	32.3	27.4	40.3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재직 중인 수련시설 시설명칭 변경 필요 정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47.1%(매우 필요: 20.2% + 조금 필요: 26.9%)로 ‘불필요하다’는 응답 31.4%(전혀 불필요: 9.9% + 별로 불필요: 21.5%)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1.5%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충청권(60.0%) 및 강원제주권(71.1%)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문화의집(56.9%),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직영(58.9%) 및 민간위탁(52.9%)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간부(53.6%), 1급(57.6%) 및 2급(52.8%) 자격증 보유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근무지역 및 시설유형 그리고 자격증 보유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시설유형, 1% 수준에서는 근무지역 및 자격증 보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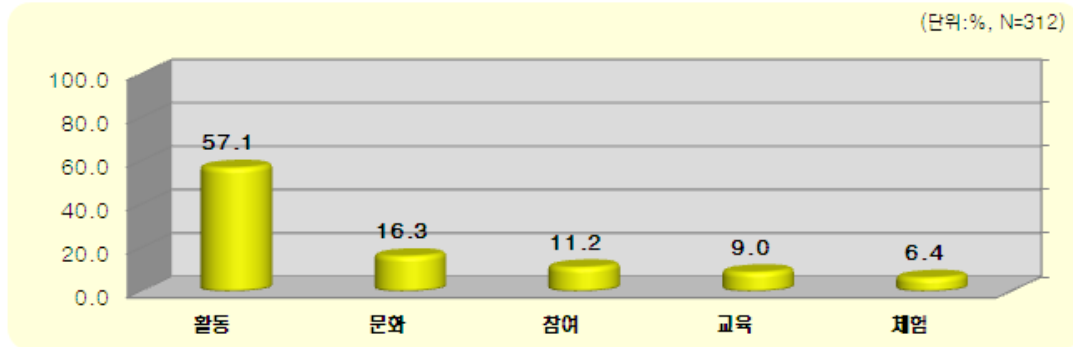
표 VII-128 재직 중인 수련시설 시설명칭 변경 필요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4.605** (0.002)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620 (0.539)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4.071* (0.018)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2.579 (0.054)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1.003 (0.368)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3.859** (0.010)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2) '수련'이란 용어 대체 시 적절한 용어

57.1%는 '수련'이란 용어 대체 시 적절한 용어로 '활동'이라고 응답



【그림 VII-61】 '수련'이란 용어 대체 시 적절한 용어

표 VII-129 '수련'이란 용어 대체 시 적절한 용어

	단위[%]	사례수[명]	활동	문화	참여	교육	체험
전체		312	57.1	16.3	11.2	9.0	6.4
근무지역	수도권	127	53.5	15.7	13.4	10.2	7.1
	경상권	61	63.9	13.1	6.6	11.5	4.9
	충청권	25	40.0	16.0	20.0	8.0	16.0
	전라권	61	60.7	23.0	8.2	3.3	4.9
	강원제주권	38	63.2	13.2	10.5	10.5	2.6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61.1	17.9	12.6	3.2	5.3
	중소도시	127	55.1	18.1	11.8	9.4	5.5
	농산어촌	90	55.6	12.2	8.9	14.4	8.9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36.7	6.1	6.1	28.6	22.4
	청소년수련관	140	56.4	15.7	15.7	8.6	3.6
	청소년문화의집	123	65.9	21.1	8.1	1.6	3.3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53.6	10.7	12.5	14.3	8.9
	법인	122	57.4	13.1	12.3	10.7	6.6
	민간위탁	102	58.8	22.5	9.8	5.9	2.9
	지자체 산하공단	32	56.3	18.8	9.4	3.1	12.5
직위	관장	29	51.7	13.8	13.8	13.8	6.9
	간부	56	57.1	16.1	8.9	12.5	5.4
	일반직원	227	57.7	16.7	11.5	7.5	6.6
자격증 보유	1급	33	63.6	12.1	6.1	15.2	3.0
	2급	193	59.6	17.1	10.4	6.2	6.7
	3급	24	45.8	12.5	16.7	16.7	8.3
	없음	62	50.0	17.7	14.5	11.3	6.5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청소년수련시설’이란 명칭에 ‘수련’이란 용어 대체 시 적절한 용어로 ‘활동’이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 16.3%, ‘참여’ 11.2%, ‘교육’ 9.0%, ‘체험’ 6.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활동’이라는 응답은 경상권(63.9%) 및 전라권(60.7%) 그리고 강원제주권(63.2%), 대도시(61.1%)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문화의집(65.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1급 자격증 보유자(63.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시설유형에 따른 ‘수련’이란 용어 대체 시 적절한 용어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수준에서 시설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30 ‘수련’이란 용어 대체 시 적절한 용어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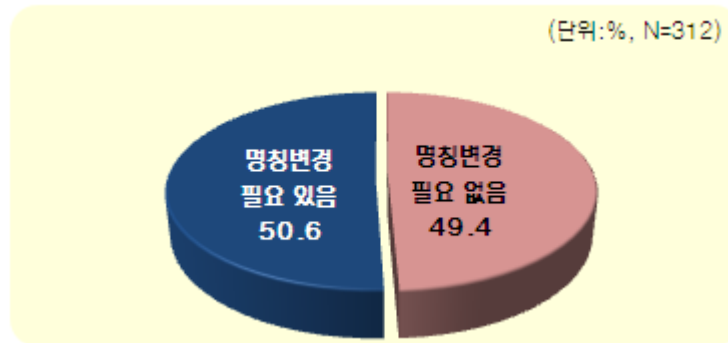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6.601 (0.412)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10.178 (0.253)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66.556*** (0.000)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13.823 (0.312)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2.951 (0.937)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10.150 (0.603)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3)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①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 청소년수련원

명칭변경 필요 있음 50.6% ≒ 명칭변경 필요 없음 49.4%



【그림 VII-62】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 청소년수련원

표 VII-131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 청소년수련원

단위[%]		사례수[명]	명칭변경 필요 있음	명칭변경 필요 없음
전체		312	50.6	49.4
근무지역	수도권	127	50.4	49.6
	경상권	61	55.7	44.3
	충청권	25	48.0	52.0
	전라권	61	45.9	54.1
	강원제주권	38	52.6	47.4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52.6	47.4
	중소도시	127	50.4	49.6
	농산어촌	90	48.9	51.1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46.9	53.1
	청소년수련관	140	49.3	50.7
	청소년문화의집	123	53.7	46.3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58.9	41.1
	법인	122	44.3	55.7
	민간위탁	102	52.0	48.0
	지자체 산하공단	32	56.3	43.8
직위	관장	29	37.9	62.1
	간부	56	48.2	51.8
	일반직원	227	52.9	47.1
자격증 보유	1급	33	48.5	51.5
	2급	193	50.8	49.2
	3급	24	54.2	45.8
	없음	62	50.0	50.0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중, 청소년수련원은 ‘명칭변경 필요 있다’는 응답이 50.6%, ‘명칭변경 필요 없다’는 응답이 49.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명칭변경 필요 있다’는 응답은 경상권(55.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문화의집(53.7%)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직영(58.9%) 및 지자체 산하공단(56.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직원(52.9%)에서 높게 나타났다. ‘명칭변경 필요 없다’는 응답은 충청권(52.0%) 및 전라권(54.1%), 청소년수련원(53.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법인(55.7%), 관장(62.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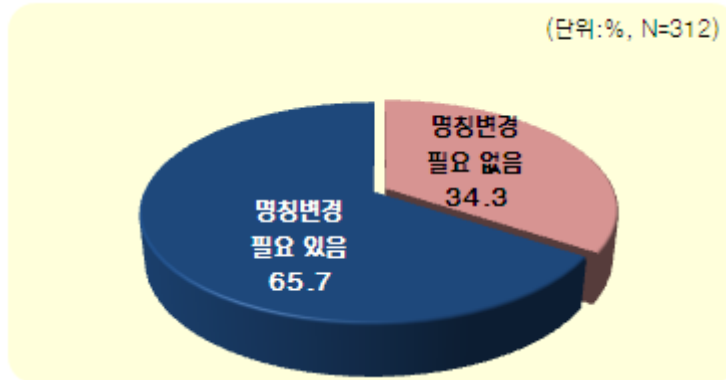
표 VII-132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 청소년수련원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315 (0.859)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264 (0.876)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0.820 (0.664)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3.999 (0.262)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2.455 (0.293)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0.192 (0.979)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②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

명칭변경 필요 있음 65.7% > 명칭변경 필요 없음 34.3%



【그림 VII-63】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

표 VII-133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

단위[%]		사례수[명]	명칭변경 필요 있음	명칭변경 필요 없음
전체		312	65.7	34.3
근무지역	수도권	127	67.7	32.3
	경상권	61	63.9	36.1
	충청권	25	64.0	36.0
	전라권	61	65.6	34.4
	강원제주권	38	63.2	36.8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69.5	30.5
	중소도시	127	64.6	35.4
	농산어촌	90	63.3	36.7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69.4	30.6
	청소년수련관	140	64.3	35.7
	청소년문화의집	123	65.9	34.1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73.2	26.8
	법인	122	57.4	42.6
	민간위탁	102	69.6	30.4
	지자체 산하공단	32	71.9	28.1
직위	관장	29	55.2	44.8
	간부	56	69.6	30.4
	일반직원	227	66.1	33.9
자격증 보유	1급	33	69.7	30.3
	2급	193	66.3	33.7
	3급	24	66.7	33.3
	없음	62	61.3	38.7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중, 청소년수련관은 ‘명칭변경 필요 있다’는 응답이 65.7%, ‘명칭변경 필요 없다’는 응답이 34.3%로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명칭변경 필요 있다’는 응답은 지자체 직영(73.2%) 및 민간위탁(69.6%) 그리고 지자체 산하공단(71.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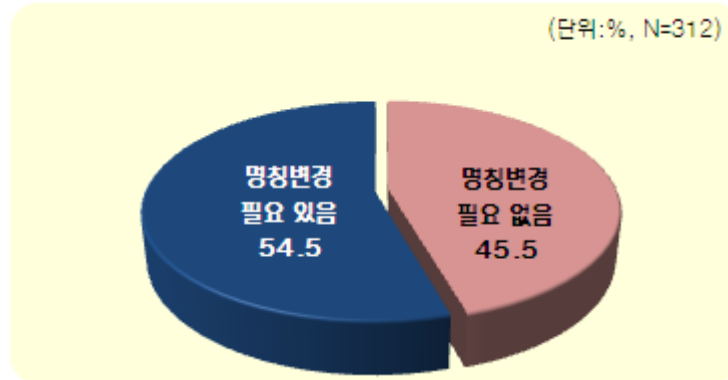
표 VII-134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0.455 (0.978)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896 (0.639)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0.421 (0.810)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6.386 (0.094)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1.827 (0.401)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0.812 (0.847)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③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 청소년문화의집

명칭변경 필요 있음 54.5% > 명칭변경 필요 없음 45.5%



【그림 VII-64】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 청소년문화의집

표 VII-135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 청소년문화의집

단위[%]		사례수[명]	명칭변경 필요 있음	명칭변경 필요 없음
전체		312	54.5	45.5
근무지역	수도권	127	56.7	43.3
	경상권	61	50.8	49.2
	충청권	25	52.0	48.0
	전라권	61	45.9	54.1
	강원제주권	38	68.4	31.6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54.7	45.3
	중소도시	127	55.9	44.1
	농산어촌	90	52.2	47.8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49.0	51.0
	청소년수련관	140	49.3	50.7
	청소년문화의집	123	62.6	37.4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60.7	39.3
	법인	122	50.0	50.0
	민간위탁	102	56.9	43.1
	지자체 산하공단	32	53.1	46.9
직위	관장	29	48.3	51.7
	간부	56	67.9	32.1
	일반직원	227	52.0	48.0
자격증 보유	1급	33	75.8	24.2
	2급	193	50.8	49.2
	3급	24	62.5	37.5
	없음	62	51.6	48.4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중, 청소년문화의집은 ‘명칭변경 필요 있다’는 응답이 54.5%, ‘명칭변경 필요 없다’는 응답이 45.5%로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명칭변경 필요 있다’는 응답은 강원제주권(68.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문화의집(62.6%),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직영(60.7%)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간부(67.9%), 1급(75.8%) 및 3급(62.5%) 자격증 보유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자격증 보유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 자격증 보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36 시설명칭 변경 필요성 - 청소년문화의집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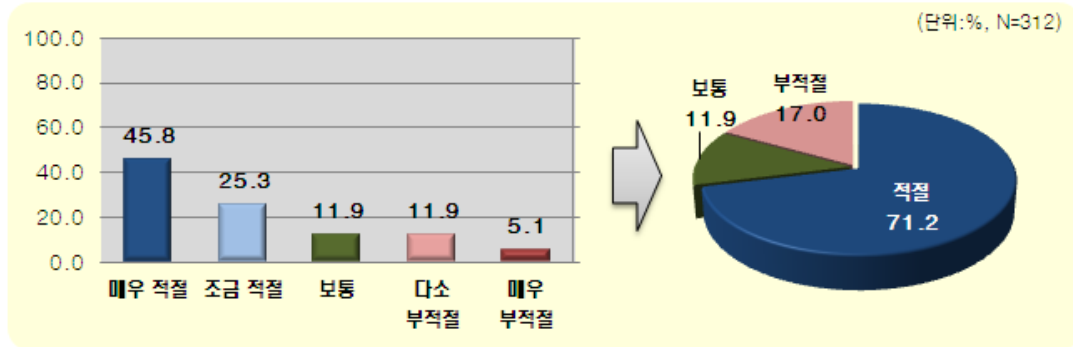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5.431 (0.246)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292 (0.864)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5.393 (0.067)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2.122 (0.547)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5.062 (0.080)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7.920* (0.048)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4) 향후 수련시설을 종합시설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적절 정도

71.2%는 향후 수련시설을 종합시설로 구축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

[매우 적절 45.8%, 조금 적절 25.3%]



[그림 VII-65] 향후 수련시설을 종합시설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적절 정도

표 VII-137 향후 수련시설을 종합시설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적절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적절	조금 적절	보통	다소 부적절	매우 부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전체	312	45.8	25.3	11.9	11.9	5.1	71.2	11.9	17.0
근무지역	수도권	127	37.0	28.3	15.7	13.4	5.5	65.4	15.7
	경상권	61	57.4	19.7	3.3	9.8	9.8	77.0	3.3
	충청권	25	48.0	8.0	12.0	24.0	8.0	56.0	12.0
	전라권	61	50.8	31.1	14.8	3.3	0.0	82.0	14.8
	강원제주권	38	47.4	26.3	7.9	15.8	2.6	73.7	7.9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48.4	22.1	10.5	13.7	5.3	70.5	10.5
	중소도시	127	43.3	27.6	12.6	11.8	4.7	70.9	12.6
	농산어촌	90	46.7	25.6	12.2	10.0	5.6	72.2	12.2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34.7	22.4	20.4	14.3	8.2	57.1	20.4
	청소년수련관	140	51.4	25.0	11.4	9.3	2.9	76.4	11.4
	청소년문화의집	123	43.9	26.8	8.9	13.8	6.5	70.7	8.9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53.6	19.6	7.1	7.1	12.5	73.2	7.1
	법인	122	46.7	25.4	16.4	9.0	2.5	72.1	16.4
	민간위탁	102	40.2	26.5	10.8	18.6	3.9	66.7	10.8
	지자체 산하공단	32	46.9	31.3	6.3	9.4	6.3	78.1	6.3
직위	관장	29	44.8	24.1	6.9	13.8	10.3	69.0	6.9
	간부	56	41.1	23.2	14.3	16.1	5.4	64.3	14.3
	일반직원	227	47.1	26.0	11.9	10.6	4.4	73.1	11.9
자격증 보유	1급	33	45.5	24.2	6.1	9.1	15.2	69.7	6.1
	2급	193	44.6	27.5	11.4	11.9	4.7	72.0	11.4
	3급	24	45.8	20.8	20.8	8.3	4.2	66.7	20.8
	없음	62	50.0	21.0	12.9	14.5	1.6	71.0	12.9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향후 수련시설을 종합시설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적절 정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71.2%(매우 적절: 45.8% + 조금 적절: 25.3%)로 ‘부적절하다’는 응답 17.0%(매우 부적절: 5.1% + 다소 부적절: 11.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1.9%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경상권(77.0%) 및 전라권(82.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관(76.4%),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산하공단(78.1%)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직원(73.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근무지역 및 시설유형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 근무지역 및 시설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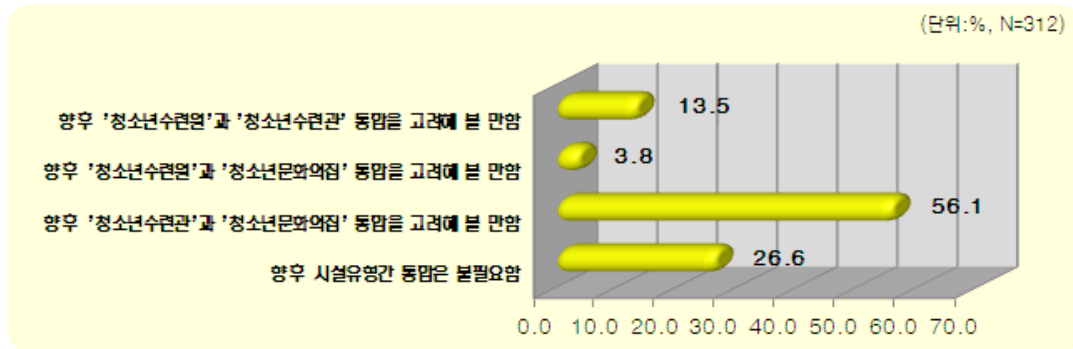
표 VII-138 향후 수련시설을 종합시설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적절 정도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3.175* (0.017)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0.041 (0.960)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3.587* (0.029)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0.788 (0.501)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0.993 (0.372)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0.360 (0.782)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5) 시설유형 통합에 대한 생각

56.1%는 향후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문화의집' 통합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



【그림 VII-66】 시설유형 통합에 대한 생각

표 VII-139 시설유형 통합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명]	'청소년수련원' 과 '청소년수련관' 통합 고려	'청소년수련원' 과 '청소년문화의집' 통합 고려	'청소년수련관' 과 '청소년문화의집' 통합 고려	시설유형간 통합은 불필요
전체		312	13.5	3.8	56.1	26.6
근무지역	수도권	127	11.8	4.7	50.4	33.1
	경상권	61	13.1	1.6	55.7	29.5
	충청권	25	32.0	4.0	52.0	12.0
	전라권	61	4.9	6.6	67.2	21.3
	강원제주권	38	21.1	0.0	60.5	18.4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14.7	2.1	52.6	30.5
	중소도시	127	14.2	3.1	53.5	29.1
	농산어촌	90	11.1	6.7	63.3	18.9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20.4	10.2	46.9	22.4
	청소년수련관	140	10.7	2.1	65.7	21.4
	청소년문화의집	123	13.8	3.3	48.8	34.1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14.3	3.6	66.1	16.1
	법인	122	13.1	5.7	51.6	29.5
	민간위탁	102	12.7	2.9	56.9	27.5
	지자체 산하공단	32	15.6	0.0	53.1	31.3
직위	관장	29	6.9	0.0	65.5	27.6
	간부	56	10.7	3.6	53.6	32.1
	일반직원	227	15.0	4.4	55.5	25.1
자격증 보유	1급	33	3.0	0.0	63.6	33.3
	2급	193	9.3	4.7	59.6	26.4
	3급	24	12.5	0.0	50.0	37.5
	없음	62	32.3	4.8	43.5	19.4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구분된 시설유형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통합을 고려해 볼 만함’이라는 응답이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유형간 통합은 불필요함’ 26.6%,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관 통합을 고려해 볼 만함’ 13.5%,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문화의집 통합을 고려해 볼 만함’ 3.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통합을 고려해 볼 만함’이라는 응답은 전라권(67.2%), 농산어촌(63.3%)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관(65.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직영(66.1%)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장(65.5%), 1급(63.6%) 및 2급(59.6%) 자격증 보유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5% 수준에서는 근무지역, 1% 수준에서는 시설유형, 0.1% 수준에서는 자격증 보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40 시설유형 통합에 대한 생각 요인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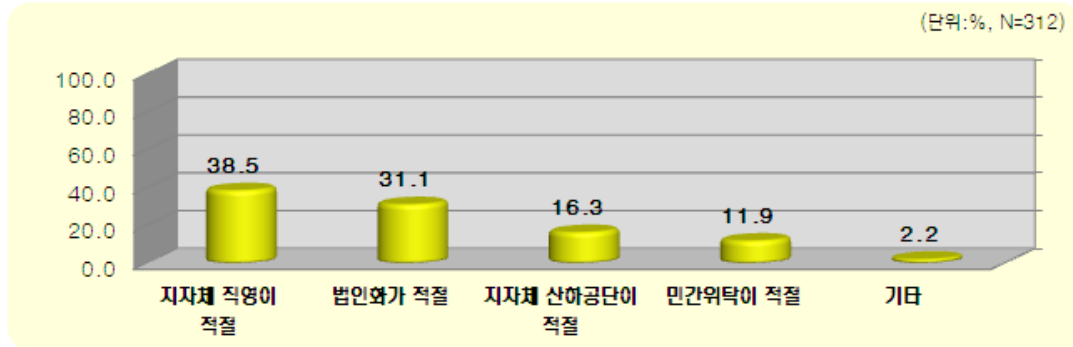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23.318* (0.025)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7.362 (0.289)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7.445** (0.008)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7.279 (0.608)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4.324 (0.633)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29.607*** (0.001)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6) 재직 중인 시설유형을 기준으로, 적절한 수련시설 운영주체 형식

38.5%는 지자체 직영이 적절하다고 생각

31.1%는 법인화가 적절하다고 생각



[그림 VII-67] 재직 중인 시설유형을 기준으로, 적절한 수련시설 운영주체 형식

표 VII-141 재직 중인 시설유형을 기준으로, 적절한 수련시설 운영주체 형식

단위[%]		사례수 [명]	지자체 직영이 적절	법인화가 적절	지자체 산하공단이 적절	민간위탁이 적절	기타
전체		312	38.5	31.1	16.3	11.9	2.2
근무지역	수도권	127	35.4	33.1	16.5	12.6	2.4
	경상권	61	55.7	21.3	9.8	11.5	1.6
	충청권	25	44.0	28.0	24.0	4.0	0.0
	전라권	61	39.3	29.5	16.4	13.1	1.6
	강원제주권	38	15.8	44.7	21.1	13.2	5.3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35.8	25.3	20.0	17.9	1.1
	중소도시	127	38.6	33.1	14.2	11.0	3.1
	농산어촌	90	41.1	34.4	15.6	6.7	2.2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44.9	36.7	14.3	0.0	4.1
	청소년수련관	140	37.1	35.0	16.4	10.0	1.4
	청소년문화의집	123	37.4	24.4	17.1	18.7	2.4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42.9	21.4	30.4	5.4	0.0
	법인	122	45.1	40.2	6.6	4.9	3.3
	민간위탁	102	31.4	28.4	10.8	27.5	2.0
	지자체 산하공단	32	28.1	21.9	46.9	0.0	3.1
직위	관장	29	27.6	44.8	6.9	20.7	0.0
	간부	56	25.0	35.7	14.3	19.6	5.4
	일반직원	227	43.2	28.2	18.1	8.8	1.8
자격증 보유	1급	33	27.3	33.3	18.2	21.2	0.0
	2급	193	43.0	29.0	17.1	8.3	2.6
	3급	24	45.8	20.8	16.7	12.5	4.2
	없음	62	27.4	40.3	12.9	17.7	1.6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재직 중인 시설유형을 기준으로, 적절한 수련시설 운영주체 형식에 대해서는 ‘지자체 직영이 적절’이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법인화가 적절’ 31.1%, ‘지자체 산하공단이 적절’ 16.3%, ‘민간위탁이 적절’ 11.9%, ‘기타’ 2.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청지자체 직영이 적절’이라는 응답은 경상권(55.7%) 및 충청권(44.0%)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원(44.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직영(42.9%) 및 법인(45.1%)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직원(43.2%), 2급(43.0%) 및 3급(45.8%) 자격증 보유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시설유형 및 운영주체 그리고 직위에 따른 적절한 수련시설 운영주체 형식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준에서는 시설유형 및 직위, 0.1% 수준에서는 운영주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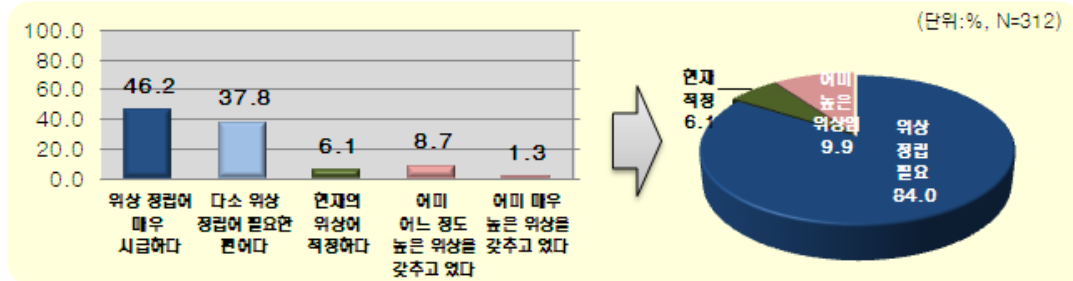
표 VII-142 재직 중인 시설유형을 기준으로, 적절한 수련시설 운영주체 형식

단위[%]		사례수[명]	χ^2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21.576 (0.157)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9.146 (0.330)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16.006* (0.042)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77.608*** (0.000)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19.588* (0.012)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15.508 (0.215)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7) 지역사회에서 수련시설의 위상 수준

84.0%는 지역사회에서 수련시설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
 [위상 정립이 매우 시급하다 46.2%, 다소 위상 정립이 필요한 편이다 37.8%]



【그림 VII-68】 지역사회에서 수련시설의 위상 수준

표 VII-143 지역사회에서 수련시설의 위상 수준

단위[%]		사례수 [명]	위상 정립이 매우 시급하다	다소 위상 정립이 필요한 편이다	현재의 위상이 적정하다	이미 어느 정도 높은 위상을 갖추고 있다	이미 매우 높은 위상을 갖추고 있다	*위상 정립 필요*	*현재 적정*	*이미 높은 위상임*
전체		312	46.2	37.8	6.1	8.7	1.3	84.0	6.1	9.9
근무지역	수도권	127	38.6	43.3	5.5	11.0	1.6	81.9	5.5	12.6
	경상권	61	52.5	29.5	4.9	11.5	1.6	82.0	4.9	13.1
	충청권	25	44.0	48.0	8.0	0.0	0.0	92.0	8.0	0.0
	전라권	61	52.5	32.8	9.8	4.9	0.0	85.2	9.8	4.9
	강원제주권	38	52.6	34.2	2.6	7.9	2.6	86.8	2.6	10.5
시설입지 특징	대도시	95	40.0	41.1	5.3	11.6	2.1	81.1	5.3	13.7
	중소도시	127	44.1	39.4	7.1	8.7	0.8	83.5	7.1	9.4
	농산어촌	90	55.6	32.2	5.6	5.6	1.1	87.8	5.6	6.7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53.1	28.6	8.2	8.2	2.0	81.6	8.2	10.2
	청소년수련관	140	46.4	37.9	4.3	10.0	1.4	84.3	4.3	11.4
	청소년문화의집	123	43.1	41.5	7.3	7.3	0.8	84.6	7.3	8.1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	56	55.4	33.9	3.6	5.4	1.8	89.3	3.6	7.1
	법인	122	37.7	42.6	9.8	9.0	0.8	80.3	9.8	9.8
	민간위탁	102	58.8	30.4	3.9	5.9	1.0	89.2	3.9	6.9
	지자체 산하공단	32	21.9	50.0	3.1	21.9	3.1	71.9	3.1	25.0
직위	관장	29	44.8	37.9	3.4	13.8	0.0	82.8	3.4	13.8
	간부	56	57.1	33.9	0.0	5.4	3.6	91.1	0.0	8.9
	일반직원	227	43.6	38.8	7.9	8.8	0.9	82.4	7.9	9.7
자격증 보유	1급	33	39.4	45.5	3.0	12.1	0.0	84.8	3.0	12.1
	2급	193	56.0	33.2	2.1	7.8	1.0	89.1	2.1	8.8
	3급	24	37.5	45.8	16.7	0.0	0.0	83.3	16.7	0.0
	없음	62	22.6	45.2	16.1	12.9	3.2	67.7	16.1	16.1

■ 응답자 주요 특성에 따른 요인별 차이분석

지역사회에서 수련시설의 위상 수준에 대해서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4.0%(위상 정립이 매우 시급하다: 46.2% + 다소 위상 정립이 필요한 편이다: 37.8%)로 ‘이미 높은 위상을 갖추고 있다’는 응답 9.9%(이미 매우 높은 위상을 갖추고 있다: 1.3% + 이미 어느 정도 높은 위상을 갖추고 있다: 8.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현재의 위상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6.1%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농산어촌(87.8%)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직영(89.3%) 및 민간위탁(89.2%)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간부(91.1%), 2급 자격증 보유자(89.1%)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결과는, 0.1% 수준에서 운영주체 및 자격증 보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44 지역사회에서 수련시설의 위상 수준 요인별 차이분석

단위[%]		사례수[명]	F값 (유의도)
전체		312	
근무지역	수도권	127	1.088 (0.362)
	경상권	61	
	충청권	25	
	전라권	61	
	강원제주권	38	
시설입지특징	대도시	95	2.276 (0.104)
	중소도시	127	
	농산어촌	90	
시설유형	청소년수련원	49	0.040 (0.960)
	청소년수련관	140	
	청소년문화의집	123	
운영주체	지자체민영	56	6.225*** (0.000)
	법인	122	
	민간위탁	102	
	지자체 산하공단	32	
직위	관장	29	1.017 (0.363)
	간부	56	
	일반직원	227	
자격증 보유	1급	33	7.266*** (0.000)
	2급	193	
	3급	24	
	없음	62	

*p<.05, **p<.01, ***p<.001

제 VIII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조사결과 요약
2. 정책 제언
3. 결론: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천

제Ⅷ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조사결과 요약

1) 일반청소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인식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 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된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에서 청소년수련원은 ‘인지’ 79.4%, ‘비인지’ 16.9%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인지’ 70.2%, ‘비인지’ 26.4%로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인지’ 37.4%, ‘비인지’ 59.3%로 나타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에서 청소년수련원은 ‘인지’ 62.6%, ‘비인지’ 32.4%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인지’ 52.0%, ‘비인지’ 44.7%로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인지’ 26.6%, ‘비인지’ 71.1%로 나타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에서 청소년수련원은 ‘인지’ 60.2%, ‘비인지’ 33.8%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인지’ 49.8%, ‘비인지’ 46.4%로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인지’ 26.8%, ‘비인지’ 70.7%로 나타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각 청소년시설 간의 차이 인지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지’ 103%, ‘비인지’ 72.7%로 모른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유무에 대해서 ‘있다’는 응답이 33.6%, ‘없다’는 응답이 12.6%로 나타났으며, ‘있는지 잘 모른다’는 응답이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활용 현황의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에서 청소년수련원은 '있음' 46.2%, '없음' 47.5%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있음' 30.5%, '없음' 64.5%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있음' 17.4%, '없음' 79.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 47.7%, '불만족' 5.0%로 나타났으며, 공간/장비/설비에 대해서는 '만족' 46.7%, '불만족' 6.3%로 나타났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45.2%, '불만족' 6.0%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지도자에 대해서는 '만족' 43.9%, '불만족' 6.8%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 보유자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54.9%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 5.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도록 권유를 받은 경험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원은 '있음' 23.5%, '없음' 75.0%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있음' 19.5%, '없음' 78.4%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있음' 14.9%, '없음' 83.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권유를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원은 '있음' 43.5%, '없음' 55.0%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있음' 31.2%, '없음' 66.9%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있음' 21.9%, '없음' 76.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안내문을 수령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 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청소년수련원은 '있음' 24.5%, '없음' 74.1%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있음' 19.3%, '없음' 78.9%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있음' 12.4%, '없음' 85.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동수업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학교 비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청소년수련원은 '있음' 20.5%, '없음' 78.2%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있음' 17.2%, '없음' 81.1%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있음' 12.1%, '없음' 86.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동수업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에 대한 기대의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원은 '의향 있음' 26.7%, '의향 없음' 37.1%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의향 있음' 24.4%, '의향 없음' 38.8%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의향 있음' 21.6%, '의향 없음' 40.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용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원은 ‘의향 있음’ 28.5%, ‘의향 없음’ 35.5%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의향 있음’ 25.3%, ‘의향 없음’ 37.4%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의향 있음’ 24.3%, ‘의향 없음’ 38.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청소년수련원은 ‘도움’ 34.4%, ‘도움 안 됨’ 24.0%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은 ‘도움’ 32.7%, ‘도움 안 됨’ 24.8%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도움’ 31.5%, ‘도움 안 됨’ 26.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필요성)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청소년수련원은 ‘필요’ 32.0%, ‘불필요’ 28.1%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은 ‘필요’ 29.9%, ‘불필요’ 28.2%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필요’ 30.2%, ‘불필요’ 28.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과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용어에 대한 인식의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활동’의 뜻에 대해서는 ‘인지’ 23.4%, ‘비인지’ 43.6%로 나타나, ‘청소년활동’의 뜻에 대해서 모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련’의 뜻에 대해서는 ‘인지’ 48.1%, ‘비인지’ 22.5%로 나타나, ‘수련’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련’이란 용어에서 부정적 느낌이 드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부정)’ 29.3%, ‘그렇지 않다(긍정)’ 36.6%로 나타나, ‘수련’이라는 용어에서 부정적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기대의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시설 필요 정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42.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7.3%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시설에 바라는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동아리활동 지원’ 26.5%, ‘어려운 청소년 지원’ 14.1%, ‘학교수업과 연계’ 12.4%, ‘청소년 상담’ 9.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수업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34.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5.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31.9%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8.0%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형태에서 대해서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든 상관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35.6%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통합 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응답이 26.3%,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5.9%, '학교와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9.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청소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인식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 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된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시설 인지 정도에서 청소년수련원은 '인지' 88.7%, '비인지' 11.3%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인지' 96.0%, '비인지' 4.0%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인지' 87.9%, '비인지' 12.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시설 업무(역할) 인지 정도에서 청소년수련원은 '인지' 83.9%, '비인지' 16.1%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인지' 91.1%, '비인지' 8.9%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인지' 84.7%, '비인지' 15.3%로 나타나,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인지 정도에서 청소년수련원은 '인지' 79.8%, '비인지' 20.2%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인지' 91.1%, '비인지' 8.9%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인지' 85.5%, '비인지' 14.5%로 나타나,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각 청소년시설 간의 차이 인지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지' 35.5%, '비인지' 35.5%로 알고 있다는 응답과 모른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 유무에 대해서 '있다'는 응답이 89.5%로, '없다'는 응답 4.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있는지 잘 모른다'는 응답은 5.6%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활용 현황의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에서 청소년수련원은 '있음' 52.4%, '없음' 47.6%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있음' 79.0%, '없음' 21.0%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있음' 70.2%, '없음' 29.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 90.2%, '불만족' 1.6%로 나타났으며, 공간/장비/설비에 대해서는 '만족' 85.2%, '불만족' 1.6%로 나타났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84.4%, '불만족' 2.5%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지도자에 대해서는 '만족' 89.3%, '불만족' 0.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능력/실력 보유자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87.7%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 1.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도록 권유를 받은 경험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원은 ‘있음’ 38.7%, ‘없음’ 61.3%로 나타나, 권유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수련관은 ‘있음’ 66.9%, ‘없음’ 33.1%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문화의집은 ‘있음’ 55.6%, ‘없음’ 44.4%로 나타나, 권유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내문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원은 ‘있음’ 35.5%, ‘없음’ 64.5%로 안내문을 수령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수련관은 ‘있음’ 50.8%, ‘없음’ 49.2%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문화의집은 ‘있음’ 52.4%, ‘없음’ 47.6%로 나타나, 안내문을 수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과 없다는 응답이 큰 차이 없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학교 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청소년수련원은 ‘있음’ 29.0%, ‘없음’ 71.0%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있음’ 33.9%, ‘없음’ 66.1%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있음’ 22.6%, ‘없음’ 77.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동수업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학교 비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시설 이동수업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청소년수련원은 ‘있음’ 12.1%, ‘없음’ 87.9%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있음’ 29.8%, ‘없음’ 70.2%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있음’ 19.4%, ‘없음’ 80.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동수업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에 대한 기대의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시설 이용 의향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원은 ‘의향 있음’ 69.4%, ‘의향 없음’ 10.5%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의향 있음’ 78.2%, ‘의향 없음’ 3.2%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의향 있음’ 79.0%, ‘의향 없음’ 6.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원은 ‘의향 있음’ 75.0%, ‘의향 없음’ 6.5%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의향 있음’ 79.0%, ‘의향 없음’ 1.6%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의향 있음’ 83.9%, ‘의향 없음’ 2.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청소년수련원은 ‘도움’ 79.8%, ‘도움 안 됨’ 3.2%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은 ‘도움’ 82.3%, ‘도움 안 됨’ 0.8%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도움’ 85.5%, ‘도움 안 됨’ 0.8%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필요성)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청소년수련원은 ‘필요’ 77.4%, ‘불필요’ 4.0%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은 ‘필요’ 79.%, ‘불필요’ 1.6%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필요’ 83.9%, ‘불필요’ 0.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용어에 대한 인식의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활동’의 뜻에 대해서는 ‘인지’ 83.1%, ‘비인지’ 4.0%로 나타나, ‘청소년활동’의 뜻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련’의 뜻에 대해서는 ‘인지’ 81.5%, ‘비인지’ 5.6%로 나타나, ‘수련’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련’이란 용어에서 부정적 느낌이 드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부정)’ 29.8%, ‘그렇지 않다(긍정)’ 41.9%로 나타나, ‘수련’이라는 용어에서 부정적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기대의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시설 필요 정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90.3%,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6%로 나타나, 응답자 10명 중 9명가량은 청소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시설에 바라는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응답이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동아리활동 지원’ 19.4%, ‘청소년 상담’ 15.3%, ‘학교수업과 연계’ 및 ‘어려운 청소년 지원’ 8.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수업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5.8%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3.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과 청소년시설 간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9.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형태에서 대해서 살펴보면, ‘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통합 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응답이 29.8%, ‘학교와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3.7%, ‘어떤 식으로 운영되든 상관이 없을 것 같다’ 1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수련시설 종사자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인식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의견 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재 역할 및 기능과 관련된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재직 중인 수련시설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역할과 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응답이 61.9%로 나타나, 응답자 10명 중 6명가량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불만족’ 응답은 93%로 낮게 나타났다. 역할과 기능의 내용적 적절 정도에 대해서는 ‘적절’ 70.8%, ‘부적절’ 7.7%로 응답자 10명 중 7명가량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설 명칭에서 ‘수련’이란 용어의 적절 정도는 ‘적절’ 27.2%, ‘부적절’ 43.3%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수련시설에 수지분석(수익확보) 요구에 대해서는 ‘적절’ 18.9%, ‘부적절’ 53.2%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안전’문제에 대한 대비 정도는 ‘대비’ 85.6%, ‘대비 부족’ 4.5%로 나타나, 대비되어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기능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 기능에 대해서는 ‘중요’ 89.1%, ‘중요하지 않음’ 10.9%로 나타났으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기능은 ‘중요’ 98.4%, ‘중요하지 않음’ 1.6%로 거의 모든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동아리활동 운영’ 기능에 대해서는 ‘중요’ 91.0%, ‘중요하지 않음’ 9.0%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자단 등 자치조직 운영’ 기능은 ‘중요’ 92.0%, ‘중요하지 않음’ 8.0%로 나타났다. ‘지역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기능은 ‘중요’ 92.6%, ‘중요하지 않음’ 7.4%로 나타났으며,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 기능에 대해서는 ‘중요’ 92.3%, ‘중요하지 않음’ 7.7%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 기능에 대해서는 ‘중요’ 84.9%, ‘중요하지 않음’ 15.1%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복지지원’ 기능은 ‘중요’ 86.9%, ‘중요하지 않음’ 13.1%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수련시설의 기능의 중요도는 매우 높게 나타난 가운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의 중요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련시설의 기능에 대한 실행수준을 살펴보면,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 기능에 대해서는 ‘실행’ 78.5%, ‘실행되고 있지 않음’ 21.5%로 나타났으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기능은 ‘실행’ 98.4%, ‘실행되고 있지 않음’ 1.6%로 거의 모든 응답자가 실행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동아리활동 운영’ 기능에 대해서는 ‘실행’ 87.8%, ‘실행되고 있지 않음’ 12.2%로 나타났

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자단 등 자치조직 운영’ 기능은 ‘실행’ 88.5%, ‘실행되고 있지 않음’ 11.5%로 나타났다. ‘지역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기능은 ‘실행’ 84.6%, ‘실행되고 있지 않음’ 15.4%로 나타났으며,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 기능에 대해서는 ‘실행’ 84.9%, ‘실행되고 있지 않음’ 15.1%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 기능에 대해서는 ‘실행’ 61.5%, ‘실행되고 있지 않음’ 38.5%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복지지원’ 기능은 ‘실행’ 65.7%, ‘실행되고 있지 않음’ 34.3%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실행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의 실행수준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은 중요도(92.6%)는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실행수준(84.6%)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중인 수련시설이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해 할일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85.6%가 그렇다고 응답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 4.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만족도 및 전문성과 관련된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 수의 적정 정도는 ‘적정’ 23.1%, ‘부족’ 59.9%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련시설의 보수(월급)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17.6%, ‘불만족’ 62.2%로 나타나,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수련시설의 직원복지수준 만족도는 ‘만족’ 20.8%, ‘불만족’ 56.1%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수련시설의 직원교육 제공의 적절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적절’ 응답이 46.5%로 ‘부적절’ 응답 25.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의 청소년분야에 대한 전문성 수준에 대해서는 ‘높음’ 53.5%, ‘낮음’ 7.1%로 높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련시설 직원들의 전문성 다양화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필요’ 응답이 87.8%로 ‘불필요’ 응답 3.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사 보유 기준을 수련시설의 ‘수용정원대비’라는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는 ‘부적합한 기준’이라는 응답이 51.0%로 ‘적합한 기준’이라는 응답 3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교육정책 및 학교와의 연계와 관련된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수련시설의 교육정책과 연계 필요 정도는 ‘필요’ 80.8%, ‘불필요’ 7.7%로 나타나, 응답자 10명 중 8명가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련시설의 교육정책과 연계 운영 정도에 대해서는 ‘밀접히 연계’라는 응답이 41.3%, ‘연계 안 됨’이라는 응답은 29.2%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련시설과 학교의 연계협력 사업의 필요 정도는 ‘필요’ 85.9%, ‘불필요’ 3.8%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수련시설이 학교 연계협력 사업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밀접한

연계협력 필요' 83.3%, '연계협력 불필요' 5.1%로 밀접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관계와 관련된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여성가족부)의 여러 지원(예산 등)에 대해 만족하는지 질문한 결과, '만족' 42%, '불만족' 76.3%로 나타나,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여성가족부)의 지원 적정 정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정' 42%, '부족' 81.1%로 부족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반적인 청소년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여성가족부)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에 대해서 '필요' 80.8%, '불필요' 8.7%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여성가족부)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도 마찬가지로 '필요' 79.5%, '불필요' 10.3%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수련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여러 지원(예산 등)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16.0%, '불만족' 62.8%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련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확대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필요' 84.0%, '불필요' 4.2%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부 청소년정책의 시급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련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에 대해서 '시급' 응답이 81.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시급 안함' 응답은 2.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어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련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시급' 89.4%, '시급 안 함' 1.6%로 시급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력 배치기준 재조정'은 '시급' 84.9%, '시급 안 함' 2.6%로 시급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원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시급' 93.3%, '시급 안 함' 0.6%로 거의 모든 응답자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수련시설에 입점하는 기관의 제한 등에 대한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시급' 74.7%, '시급 안 함' 3.5%로 시급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관련된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주민들의 수련시설 인지 정도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인지' 42.6%, '비인지' 32.7%로 나타나,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인지 정도에 대해서는 '인지' 56.7%, '비인지' 20.5%로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재직 중인 수련시설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관시설이나 유관단체와 연계/교류 필요 정도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필요' 90.1%, '불필요' 1.6%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유관시설이나 유관단체와 현재 연계/교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는

응답이 73.1%,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11.9%로 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재직 중인 수련시설과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이나 유관단체와 연계/교류 필요 정도에 대해서 ‘필요’ 83.0%, ‘불필요’ 1.9%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이나 유관단체와 현재 연계/교류 정도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는 응답이 46.8%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 3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직 중인 수련시설이 지역사회에 홍보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적절히 하고 있다’는 응답이 58.3%로 ‘적절히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 15.1%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향후 기대하는 수련시설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된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재직 중인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필요’ 86.9%, ‘불필요’ 2.9%로 나타나,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적절한 직원 수에 대해서는 ‘10명 미만’이라는 응답이 32.1%, ‘10명~20명 미만’ 30.1%, ‘20명~30명 미만’ 18.9%, ‘30명 이상’ 18.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17.3명으로 조사되었다. 수련시설의 직원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약 30% 인상’ 34.6%, ‘약 20% 인상’ 22.4%, ‘50% 초과하는 인상 필요’ 12.5%, ‘약 50% 인상’ 10.6%, ‘약 10% 인상’ 8.3%, ‘약 40% 인상’ 8.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수준 적정함’이라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그리고 수련시설 직원의 적당한 초임 연봉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1.9%)이 ‘2,000~2,5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2,500~3,000만원 미만’ 31.1%, ‘1,500~2,000만원 미만’ 9.9%, ‘3,000~3,500만원 미만’ 5.1%, ‘3,500~4,000만원 미만’ 1.3%, ‘4,000만원 이상’ 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련시설 직원복지수준의 확대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확대 필요’ 응답이 93.9%로 거의 모든 응답자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축소 필요’ 응답은 0.3%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교육의 확대 필요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확대 필요’ 77.9%, ‘현재 수준 적정함’ 21.2%, ‘축소 필요’ 1.0%로 나타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수준 개선 필요 정도로는 ‘개선 필요’ 84.3%, ‘이미 높음’ 4.8%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재직 중인 수련시설 운영예산의 확대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약 40%내에서 확대 필요’ 27.9%, ‘약 20%내에서 확대 필요’ 27.6%, ‘약 60%내에서 확대 필요’ 13.5%, ‘100% 초과하는 확대 필요’ 12.8%, ‘현재 수준 적정함’ 및 ‘약 80%내에서 확대 필요’, ‘약 100%내에서 확대 필요’ 6.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향후 수련시설에 기대하는 정체성과 관련된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시설명칭 변경 필요 정도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필요’ 47.1%, ‘불필요’ 31.4%로 나타나,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련’이란 용어 대체 시 적절한 용어로 ‘활동’ 57.1%, ‘문화’ 16.3%, ‘참여’ 11.2%, ‘교육’ 9.0%, ‘체험’ 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련시설의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원’은 ‘명칭변경 필요 있음’ 50.6%, ‘명칭변경 필요 없음’ 49.4%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수련관’은 ‘명칭변경 필요 있음’ 65.7%, ‘명칭변경 필요 없음’ 34.3%, ‘청소년문화의집’은 ‘명칭변경 필요 있음’ 54.5%, ‘명칭변경 필요 없음’ 45.5%로 나타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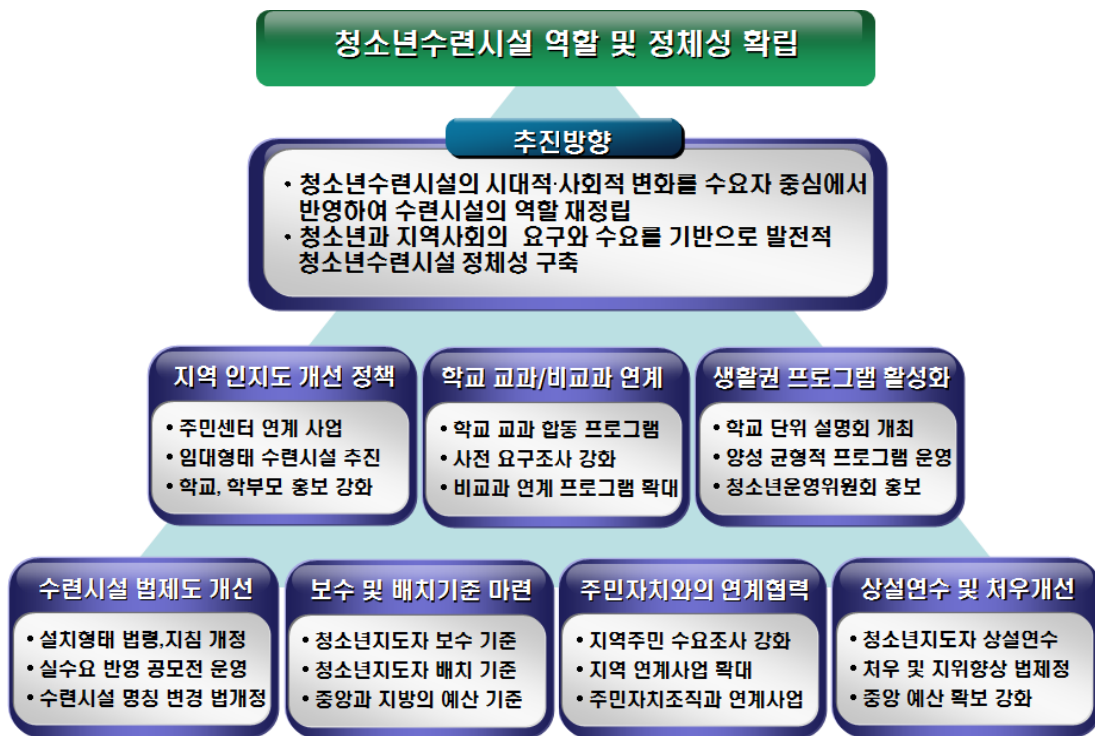
향후 수련시설을 종합시설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적절 정도에 대해서 ‘적절’ 71.2%, ‘부적절’ 17.0%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구분된 시설유형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통합을 고려해 볼 만함’ 56.1%, ‘향후 시설유형간 통합은 불필요함’ 26.6%, ‘향후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관 통합을 고려해 볼 만함’ 13.5%, ‘향후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문화의집 통합을 고려해 볼 만함’ 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재직 중인 시설유형을 기준으로 볼 때, 적절한 수련시설 운영주체로 어떤 형식이 적절한지 질문한 결과, ‘지자체 직영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8.5%, ‘법인화가 적절’ 31.1%, ‘지자체 산하공단이 적절’ 16.3%, ‘민간위탁이 적절’ 11.9%, ‘기타’ 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서 수련시설의 위상(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위상 정립 필요’ 84.0%, ‘이미 높은 위상임’ 9.9%로 나타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2. 정책 제언

본 연구의 문헌고찰, FGI, 일반청소년 인식조사,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청소년 인식조사,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인식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비롯하여 정책방향 관련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토대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및 정체성 확립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수요자 중심으로 반영하여 수련시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요구와 수요를 기반으로 발전적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체성을 구축한다는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다음 그림 VIII-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제언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VIII-1】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 방안

1) 청소년수련시설의 인지도 개선을 위한 수요자 중심 시설정책 추진

청소년들의 인지도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첫째,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둘째, 각 청소년시설 간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거주지역에 청소년시설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집’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로는 첫째, 이 시설이 다른 시설들에 비해 가시성이 낮다는 점에서 들 수 있다. 우선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취지와 달리 아직은 설치되어 있는 동네가 턱없이 부족하고, 대부분 시설의 규모가 작으며, 청소년수련관에 비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다른 시설에 비해 학교연계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청소년들의 접촉 또는 이용가능성이 낮다. 시설의 설립목적 자체가 청소년들의 단체활동을 장려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개별 또는 소규모 수련활동의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셋째, 다른 시설에 비해 가장 최근에 설치되었다는 짧은 역사성으로 인해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및 교사를 포함한 일반인 모두에게도 상당히 생소한

시설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청소년들이 시설 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첫째, 시설의 명칭 문제를 들 수 있다.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관은 크게 숙박시설 및 야외시설 유무와 시설의 위치(일상생활권 혹은 자연권)에 따라 구분되는데, 이는 공급자의 편의에 따라 ‘원’과 ‘관’의 명칭으로 시설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지, 수요자 측면에서 이용가능한 프로그램을 구분해주는 명칭은 아니다. 또한 ‘수련’이란 용어가 요즘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용어가 아닐뿐더러, ‘원’과 ‘관’의 의미 차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청소년은 더더욱 찾기 힘들 것이다. 둘째, 일반인이 보기에 시설 간 프로그램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인접한 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하면, 이웃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큰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는 아마도 운영주체의 철학, 지역사회의 수요, 경영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각 시설마다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다보니 생긴 자연스러운 또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거주지역의 청소년 시설 유무 여부를 알고 있는 청소년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는 ‘시설 부재’와 ‘관심 부족’을 들 수 있다. 현재 청소년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즉 청소년 시설이 평소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부담으로 인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시설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시설의 가시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는 시설의 수도 매우 적으며 지역 간 편포성도 크다. 예를 들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고작 56개소만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 마포구와 도봉구에는 각각 3개 시설이 있지만 강남구와 강서구 등에는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대도시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추가 설치가 매우 힘들 수 있다.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학교 등의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공간 및 인력 공유’의 개념을 도입한 소규모 청소년센터 또는 임대형태의 분소 설치·운영을 고민해볼 수 있겠다.

둘째, 학교연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학교를 통한 시설 홍보 및 학부모 대상의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로 야외시설이 없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학교나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한 이동식 야외체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련관, 문화의집, 또는 학교 단위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체육활동 동아리를 조직화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대회(주말 리그)를 개최해 지역사회의 주요 문화활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 정책방안 1. 청소년수련시설의 인지도 개선을 위한 수요자 중심 시설정책 추진

- 추진목적 :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역사회 인지도 개선
- 추진내용
 - 주민센터 등의 연계를 통한 소규모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역별 다양화 추진
 - 청소년 접근성을 고려한 변화기에 임대형태의 수련시설 설치 추진
 - 학교와 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화활동 중심 기관화
- 추진방법 :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과의 연계, 협력사업 추진
- 추진체계 : 청소년수련시설/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2) 수련시설의 이용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학교 교과/비교과 연계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률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제언으로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내 청소년수련시설 협의회 구성과 이를 통한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 청소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률이 청소년수련원 46.2%, 청소년수련관 30.5%, 청소년문화의집 17.4%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특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의 존재 여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연합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청소년수련시설의 존재와 청소년활동의 효용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때,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과 청소년활동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 지표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수련시설은 교과연계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가운데 121%만이 학교수업과 연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체험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2016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자유학기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체험형 학습을 통한 청소년의 꿈, 끼 발견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은 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학교 및 교사들에게 청소년수련시설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존재감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수련시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별로는 초등학생(60.4%)에 비해 중·고등학생(42.7%, 41.2%)의 이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51.9%) 및 중소도시(51.2%)에 비해 농산어촌 지역(37.7%)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조합해 보면, 농산어촌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접근성의 곤란, 이용자인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간/장비/설비, 제공되는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만족도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청소년수련시설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점과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가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기존의 청소년수련시설도 공간설계 및 배치에 대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경력관리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비교과형 수업 및 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청소년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또한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수련시설도 종래의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진로직업체험, 문화예술체험, 인성교육 등 청소년수련시설이 상대적으로 강점으로 보이고 있는 체험 영역을 비교과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지역 교육청 또는 단위 학교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전문연수과정을 운영하거나,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함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전체적인 이용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수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기자단, 청소년모니터링단, 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축제 등 다양한 모임과 사업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이자 적극적 홍보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조건 및 평가조건을 완화하여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 및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정책방안 2. 수련시설의 이용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학교 교과/비교과 연계

- 추진목적 : 학교연계를 통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률 및 만족도 제고
- 추진내용
 - 지역사회 학교와 교과연계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합동 추진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전 수요자 요구조사 강화
 - 학교 연계사업 확대를 통한 비교과 연계 활동프로그램의 강화
- 추진방법 : 수련시설과 지역 내 초·중등학교의 협력사업 추진
- 추진체계 : 청소년수련시설/초·중등학교,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3) 청소년의 수련시설 참여기대 제고를 위한 생활권 프로그램의 활성화

일반청소년들에게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해 본 결과를 살펴보면,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평균 30%에 미치지 못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원(26.7%)이 청소년수련관(24.4%), 청소년문화의집(21.6%) 보다 시설 이용 의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학교단위에서 캠프를 통해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활동 경험이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보다 더 친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의향도 전체적으로 3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로는 평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자연권 청소년수련원(28.5%)이 생활권 수련시설들(수련관 25.3%, 문화의집 24.3%) 보다 프로그램 참여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을 위한 목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이용 의향이 전반적으로 30% 미만에 그치고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활동이 활발히 수행되지 못하는 이유와도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시설이용에 호의적이지 않는 이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에 저해가 되는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혀내어 그들에게 청소년수련시설이 필요한 시설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있어서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결과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청소년수련시설 이용과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긍정적이다. 성별 차이가 발생한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상에서 남자 청소년들이 원하는 수련시설 여건이 미흡하거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30%를 약간 상회하는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의향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지만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청소년들이 유익성을 공감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된다. 더불어 거주지역 청소년시설이 필요하다는 응답률도 평균 30%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이 기본적으로 설립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보다 예상 도움정도와 청소년수련시설 필요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일반청소년에게 있어서 자신이 의무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참여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수련원이 그렇지 못한 생활권 시설들보다 더 도움이 되며,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기 보다는 시설운영 단체와 청소년지도자들이 주도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와 달리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학교와 같은 절대공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청소년수련시설들은 청소년들의 삶에 녹아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구안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청소년을 위한 목적시설로서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청소년을 찾아가는 서비스의 개발 등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의향과 프로그램 참여 의사에 대한 조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마다 차이는 있지만 약 70% - 80%까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도 75%에서 83.9%에 이르렀다. 즉, 설문 응답자들이 현재에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수련시설 이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목할 것은 수련시설 유형에서 평소 접근가능성이 가장 낮은 청소년수련원이 가장 낮은 이용 의향을 보였고, 생활권 중에서는 운영위원들이 각자 활동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유형에 대해 이용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참여청소년들은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 이용이 생활권 수련시설 보다 다소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각자 자신이 활동하는 시설 유형을 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것이라 사료된다. 다만 청소년수련관(85.7) 보다도 청소년문화의집(89.7%) 운영위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집이나 학교라는 공간에서 시설의 위치가 가까워 접근성에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낮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 입지를 결정할 때, 청소년의 생활공간으로부터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상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의 82.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유익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성별로 청소년수련관의 예상도움 정도에서 남성이 96.8%가 도움이 예상된다고 응답하였고, 예상도움이 안 된다는 답변은 전혀 없었다. 한편 여자 청소년은 77.4%가 도움이 예상된다고 응답해서 남자청소년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일단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가하게 되면 남자 청소년들은 청소년수련시설에 유익성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청소년수련시설의 본 목적을 이행하고,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이 거주지역에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 청소년들은 77.4%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성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거주지역 내 수련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남자 청소년들은 100% 전원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청소년수련원이 자연권 즉,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평소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관을 숙박시설 여부로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생활권 근접 지역 내 집중적으로 단기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프로그램 참여 및 이용 편의 측면에서도 유익하다고 판단된다.

□ 정책방안 3. 청소년의 수련시설 참여기대 제고를 위한 생활권 프로그램의 활성화

- 추진목적 : 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수련시설의 도움과 참여기대 제고
- 추진내용
 - 생활권 수련시설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학교단위 설명회 개최
 - 남녀청소년들의 양성 균형적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추진
 -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한 학교 및 지역사회 단위 홍보 강화
- 추진방법 : 생활권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개편과 학교 합동 효과성 홍보
- 추진체계 : 청소년수련시설/초·중등학교, 시·도교육청,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4) 지역현실에 부합하는 공모전 운영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형태 제도화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및 기능은 지역별로 여건과 특성 등 환경이 다르며 따라서 각 지역의 청소년들의 활동 욕구 또한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지역별로 청소년들의 활동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의 제공 및 지도, 생활상의 제약이나 방해 없이 편안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상의 욕구에 대한 지원, 활동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등이 병행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즉 청소년수련시설은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활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청소년활동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 청소년활동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 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보면 여러 유형의 시설(사회복지관, 상담센터, 문화회관, 체육시설 등)에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의 실제 욕구에 기초하여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이 생성되고 운영되며 지속되는 동시에 변화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타시설에서 제공하는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그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운영형태상 민간위탁, 직영, 운영법인, 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등으로 다양하며, 각각의 운영형태는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으나 청소년

들이 원하는 활동을 적절히 제공하는 기능이 운영의 중심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 기준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예산규모, 예산 편성 기준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운영주체의 형태가 다양하더라도 청소년활동 지원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프로그램이나 사업 내용은 상이할 수 있어도 그 존재이유는 청소년이 필요로 하고 이용하며 청소년활동이 운영되는 시설이어야 한다. 그러한 존재이유가 유지될 수 있으려면 우선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활동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항상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예산의 안정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상당부분 운영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재정의 열악함과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규모나 지원방식이 갖는 한계에서도 그 원인이 있는 문제이다. 지방재정의 열악함에 기인하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운영상 수익사업에 대한 부담을 항상 가져야 하며, 운영비 확보가 더 절박한 문제가 되게 하여 청소년 이전에 사업이 우선이 되게 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공모제의 경우, 운영 여건이나 제안서 작성여력이 미흡한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접근 자체에 한계가 있어 수련시설 간에 빈익부 부익부를 초래하기도 한다. 지역에서 부족한 예산을 중앙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운영하여도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청소년수련시설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재원의 다각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정책지원도 ‘지역 전체 청소년의 인구’, ‘해당 사업을 필요로 하는 지역 청소년, 즉 실수요 청소년인구’, ‘해당 지역의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의지 및 계획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지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방안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자체의 매칭 펀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여건별로 지방의 부담비율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 접근성, 이용 등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여야 한다. 시군구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규모는 매우 크다.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건립하여 기본적인 운영의 지출비용이 커서 어려운 운영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시 규모를 축소하여 건립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립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함으로 각 지역별 청소년수련시설 간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 단위의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어려운게 사실이다.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시 청소년의 접근성과 향후 도시계획에 의거한 발전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거점으로서의 시설 정체성 및 기능을 반영하는 명칭이 필요하다.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설 유형 자체가 ‘청소년활동서비스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청소년활동시설 유형구분에 대한 재검토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 유형으로서의 ‘청소년활동서비스지원센터’라는 용어 외에 각 지역별로 고유한 별칭을 지역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친근하게 청소년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별칭 만들기, 고유 상징 및 캐릭터 만들기 등의 사업을 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 정책방안 4. 지역현실에 부합하는 공모전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형태 제도화

- 추진목적 : 지역현실에 부합하는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안정화 도모
- 추진내용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형태에 대한 법령 및 지침 개정 추진
 - 지역사회 청소년인구 및 실수요가 반영된 공모제도 운영
 -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추진
- 추진방법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의견수렴 및 공청회, 법령 및 지침개정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수련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청소년지도자 보수 및 배치기준 마련

청소년수련시설의 종사자들은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역할확대가 80%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청소년정책의 시급성을 살펴보았을 때,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원기준마련 93.3%,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련시설 운영비 지원기준마련 89.4%,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력배치기준 재조정 84.9%, 수련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 81.7%, 수련시설에 입점하는 기관의 재산 등에 대한 기준마련 74.7% 순으로 조사결과가 나타났다.

위 조사결과를 살펴볼 때 첫째, 청소년시설종사자들은 일정한 인건비 지원 기준 없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인건비를 받으며, 사명감 하나로 현장을 지키고 있고 다른 직종에 비해 이른 나이에 이직을 준비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결과로 인해 현장지도업무

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인건비 지원 기준의 마련과 시행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력 배치기준 재조정의 시급성으로 현행법상 청소년수련관은 500명 기준 청소년지도사 4명(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청소년수련원은 2명(2급 1명, 3급 1명), 나머지 수련시설은 1명이 배치되면 법적 배치 인원을 충족하게 된다. 이를 악용하여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를 법적인원만 배치하고 마는 지자체가 있어 수련시설 고유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 제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원 기준을 사회복지사 또는 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마련하고, 둘째, 최소한의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기준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대구시의 경우 2014년부터 국비지원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사업과 별도의 '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추가지원 사업'을 통해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 인원을 해마다 1명씩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하여 2016년에는 청소년수련관기준 법적 배치 인원 4명의 인건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음은 좋은 사례이다. 셋째, 수련시설의 필수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청소년시설운영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마다 배포하는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침'에 필수 지원사항으로 명기하여 시달할 필요가 있다. 수련시설의 '필수운영경비'는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보험료, 시설관리비, 자산취득비와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기준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들의 인건비 등이 될 수 있다.

□ 정책방안 5. 수련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청소년지도자 보수 및 배치기준 마련

- 추진목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적정 지침을 통한 수련시설 운영의 정상화
- 추진내용
 - 청소년지도자 보수기준 마련
 -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자 배치기준 강화
 - 청소년수련시설 배치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예산지원 기준 마련
- 추진방법 : 지침 및 기준 개정안 연구, 중앙-지자체 협의, 지자체 공무원 연수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주민자치와의 연계와 협력 강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사결과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사회 주민들의 수련시설 인지 정도는 42.6%가 ‘알고 있다’로 그 중 매우 잘 알고 있다는 9.9%였으며, 충청권(48.0%) 및 전라권(50.8%)에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운영주체별로는 지자체 산하공단(62.5%)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인지 정도는 ‘알고 있다’가 56.7%로 그 중 ‘매우 잘 알고 있다’는 14.1%로 나타났으며, ‘알고 있다’는 응답은 수도권(59.1%) 및 전라권(59.0%) 그리고 강원·제주권(63.2%)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로 볼 때 시설종사자들은 지역주민들보다는 청소년들이 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14%정도 높았고, 수련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는 4%정도 높아 전체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기보다는 ‘청소년공간이 있다’는 인지정도로 판단된다. 또한 충청권과 전라권의 경우 지자체장들이 청소년에 대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에서는 청소년친화도시 등의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뿐만 아니라 청소년관련 범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인지정도가 수도권에 높은 것은 청소년시설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50%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 내 수련시설들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수련시설에 어떤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지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에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이 수련시설에 어떤 필요와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련시설들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차원의 청소년과제들을 찾아내고 이를 정책으로 입안해 내는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다. 이는 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홍보의 방법이 아닌 필요에 따른 역할들을 제대로 하게 함으로써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둘째, 현재 제직 중인 수련시설이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관시설이나 유관단체와 연계·교류에 대해서 90.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매우 필요하다는 58.0%, 현재 연계·교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는 응답이 73.1%로 그 중 매우 많이 하고 있다는 27.6%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수련시설이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관시설이나 유관단체와 연계·교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58.0%였는데, 매우 많이 하고 있다는 27.6%였다. 여기서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교류·연계활동을 매우 많이 하고 있는 수련시설들은 과반수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그 이유가 청소년 유관시설이나 유관단체와 연계·교류가 어려운 것인지, 연계·교류를 할 수 있는 청소년유관시설이나 유관단체가 없는 것인지 등 필요한데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을 조사하고, 조사를 기반으로 청소년 유관시설이나 유관단체와 연계·교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과 조건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지역사회네트워크 방식의 MOU체결에 대한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네트워크가 단순한 MOU체결을 통해 증서만 걸어 놓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역할과 협력의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이를 지속적 지켜나갈 수 있는 실천과 구조들을 유기적으로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적·인적 자원의 교환을 넘어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에 대한 가치가 공유되고, 관계의 확장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일상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재직 중인 수련시설이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이나 유관단체와 연계·교류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3.0%로 불필요하다는 응답 1.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이나 유관단체와 연계·교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는 응답이 46.8%,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30.4%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보면 지역사회보다는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이나 유관단체와 연계·교류의 필요성이 7%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실질적으로 연계·교류를 하는 것도 10%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련시설들이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이나 유관단체와 연계·교류를 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 공유할 과제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도 단위, 국가 단위 정책과의 연계가 부족한 것도 한 원인 될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도의 청소년정책이나 국가의 청소년정책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아래로부터 위로의 정책방식보다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높았던 점들이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이나 유관단체와 연계·교류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나 경험을 갖지 못하게 작용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재직 중인 수련시설이 지역사회에 홍보를 적절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적절히 하고 있다는 응답이 58.3%로, 적절히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 15.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식이 단순한 홍보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없고, 광고를 할 만큼의 내용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홍보에 대한 혁신적 생각이 필요한 것 같다. 결국 홍보는 입소문이고, 이 입소문은 단숨에 사라지지 않는 홍보자원이기도 하다. 지역사회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질적인 청소년 담론, 청소년의 변화, 문제 등 지역청소년의 모든 것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에 직접적으로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에 누구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MOU체결이나 각종 협의체에 의해서 작동되지 않는다. 그런 방식은 한계가 있다. 더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 더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차원의 청소년운동의 키워드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운동성이 역동성을 만들어 내고 스스로 진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방성이 중요하다. 이 개방성은 청소년에 대한 공공의 가치가 공유되고 상호 의존관계와 상호 협동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개방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개방할 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어야 하며, 특히 청소년수련시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개방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청소년수련시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개방을 통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은 전혀 새로운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협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네트워크 방식을 뛰어 넘는 지역사회에 청소년수련시설의 혁신적인 필요와 요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아닌 지역사회공동체적 접근을 통해 기관 대 기관의 연계를 넘어선 다양한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내고 협동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수련시설들이 구조적으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자들의 교육과 실험적인 공동체 활동에 대한 발굴과 지원 등도 필요할 것이다.

□ 정책방안 6.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주민자치와의 연계와 협력 강화

- 추진목적 :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역할 강화
- 추진내용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수요조사 강화
 - 지역사회 필요에 부응하는 연계사업의 확대와 강화
 - 지역사회 공동체 모임과 활동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적극 참여와 지원
- 추진방법 : 지역사회 주민자치모임 및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추진
- 추진체계 : 청소년수련시설, 지역 내 주민자치모임 및 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7)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상설연수 및 처우 개선 추진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재직 중인 수련시설 직원교육(연수)의 확대 필요’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로 보수교육 운영방안의 보완과 확대가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다녀 온 사람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업무를 떠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였다’,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했다’, ‘다양한 지역의 지도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등 이였으나 ‘일터 가까운 곳에서 보수교육을 받고 싶다’, ‘교육시간이 길어서(2박3일) 바쁜 시기에 동료직원에게 미안했다’,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서 개인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여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아쉬움도 토로하곤 한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들이 개인 및 일터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확대’와 더불어 ‘사이버 보수교육 구축’ 등 보수교육 운영방안의 보완과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로 수련시설에 배치된 다양한 직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직군별·권역별 상설화가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시설(기관)에 상근하고 있는 직군을 보면 청소년지도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생활체육지도자, 평생교육사, 일반 행정직(회계, 총무), 기능직(기관기계실), 영양사 및 식당근무자 등 매우 다양한 기능과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또는 지방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주관 하에 직군별·권역별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상설화하는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 보수 및 적당한 초임 연봉 수준 향상’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첫째로 표준화된 보수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분야에 대한 보수는 일정부분 표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공공청소년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재정수준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보수는 큰 격차를 보인다. 동일한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전문가에 대한 보수를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가칭‘청소년지도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정이 필요해 보인다. 2012년 12월 20일 청소년기본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보수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청소년지도사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공공의 사회적 책임감도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사회복지계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로서 보수수준 및 공제회 설립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보수교육의 방향이 해당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업무의 효율성과 가치를 제고시켜주는 것에만 머문다면 청소년지도사의 권익은 뒤로한 채 책임만 강조하는 일이기에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직원과 예산 규모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로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 확대가 필요하다. 청소년수련활동의 운영은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해 청소년지도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청소년지도사의 수와 역량이 개별 시설의 청소년활동 서비스 질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된다. 현재 제도상의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은 수련관 이용자 인원에 비해 너무 낮은 기준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의 질 저하와 더불어 안전을 확보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예산의 확대가 절실한데 이는 중앙정부의 예산 증액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청소년정책 예산의 확대를 선행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 예산 증액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별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국가와 지방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 공공시설에 대한 정책예산의 투입과 관리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 정책방안 7. 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상설연수 및 처우 개선 추진

- 추진목적 : 수련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
- 추진내용
 - 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직군별 상설 연수프로그램 운영
 - (가칭)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노력 강화
- 추진방법 : 연수프로그램 강화 및 법령개정 추진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결론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천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나 명칭은 시설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90년대 초반에 수립된 청소년정책에서는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인성이나 덕목을 함양한다는 측면에서 수련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사는데 필요한 건강, 정서, 용기, 예절, 협동, 긍지 등의 6대 덕목을 내면화하는 것을 지향하며, 학교교육과 보완하는 의미에서 수련활동이라는 방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만으로 부족한 것을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수련활동을 통하여 6대 덕목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정책적 개념이었다.

그 이후에 21세기로의 전환, 지식정보화 및 세계화의 가속화, 민주화의 진전 등 많은 사회환경의 변화를 거치면서 청소년활동에서 청소년의 참여, 자율, 인권, 문화, 능력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중시되었다. 그 결과 현재의 청소년정책에서는 청소년의 핵심역량개발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청소년 핵심역량개발은 청소년수련활동과 비교해볼 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덕목들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덕목을 성취해가는 과정과 방법상에서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 지역사회 실생활에서의 활동을 중시하고, 그 활동의 결과로서 청소년이 그 덕목을 내면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실천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재개념화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로 ‘청소년활동’이라는 개념이 정책적

으로 도입되어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의미의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의 명칭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용어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이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권의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에는 시설 운영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서 성인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익성 사업을 운영하거나 본연의 청소년사업이 부진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다. 반면에 민간참여가 많은 자연권의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 등은 학교단체 수련활동 중심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최근의 학교단체 수련활동과 수학여행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학교단체의 시설이용이 크게 위축되어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재원의 불안정성은 청소년수련시설의 본질적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된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이나 역할을 그 무엇으로 설정하더라도,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한다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체성 확립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조사 결과에 나타난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체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현장의 의견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현장 청소년지도자들의 47.1%가 재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고, 57%는 수련이라는 용어 대신에 ‘활동’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며, 71.2%는 수련시설을 종합시설로 구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84%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85.9%는 시설운영을 공영화(지자체 직영 38.5%, 법인화 31.1%, 지자체산하 공단 운영 16.3%)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56.1%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통합을 고려해볼만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체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현장 지도자들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시설로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청소년활동시설은 수련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이 조항을 개정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청소년활동시설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같은 조항에 들어있는 청소년이용시설은 현재에도 선언적인 의미이므로,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거나 청소년활동시설의 7번째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둘째, 현재 법률상의 6개의 청소년수련시설 유형의 명칭과 그에 대한 설명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률상의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등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별 청소년수련시설들의 명칭에 꼭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 등의 명칭 붙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문화센터라고 이름 붙여진 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도 여럿 있고, 수련원이나 특화시설이라는 명칭을 포함하지 않는 시설도 여럿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련이라는 용어는 학교단체 수련활동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현재 수련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활동, 동아리활동, 참여활동, 교류활동, 주말 야외체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하는 용어로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수련원은 학교단체수련활동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원에 비해서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개정하자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난 것도 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각 시설종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수련’이라는 단어를 정비하고,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기능상의 차이보다는 시설 규모의 차이이므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설치 규모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시설유형의 통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수련원과 수련관, 수련원과 문화의집의 통합은 시설의 기능이 달라서 통합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수련관과 문화의집의 통합에 대해 56.1%가 고려해볼만 하다는 응답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 운영방식과 청소년의 이용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는 주로 시설규모와 접근성, 그리고 이를 고려한 지자체의 지원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전국 평균으로 시설규모(수련관 4,965㎡, 문화의집 978㎡), 종사자수(수련관 18.5명, 문화의집 3.9명), 연간 청소년이용자 수(수련관 142,326명, 문화의집 39,062명), 청소년이용률(수련관 60.1%, 문화의집 88.9%), 프로그램 수(수련관 80.9개, 문화의집 26.1개), 예산중 자체수입 비율(수련관 49.5%, 문화의집 14.4%) 등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3). 즉, 청소년수련관은 대규모 시설로 다양한 평생교육형 강좌를 비롯한 수익자부담형 프로그램이 많고 성인이용자의 비율도 높다. 상대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규모와 지도자수가 적은 가운데 프로그램보다는 청소년의 자율적인 시설활용이 많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유형 통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모호하다. 따라서 시설유형의 통합보다는 지역 내에서 수련관과 문화의 집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청소년수련관은 시군구단위에 설치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읍면동 단위에 설치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으므로, 시군구 단위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 어떻게 차별화하며 동시에 어떻게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수련시설의 기능을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로 구축하는 것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이다. 시설유형별로 입지특성과 시설규모, 특성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문화활동, 수련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위한 시설이다.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시설로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71.2%가 찬성하고 있는데, 이의 실행방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 종합시설이라는 의미가 명료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청소년의 편의성을 위해서 검토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는 청소년분야의 청소년활동, 상담, 복지 등과 같은 정책영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청소년이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분야, 문화분야, 보건의료분야, 복지분야, 법률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서비스를 쉽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광범위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청소년분야의 상담, 복지,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 세분화된 서비스를 물리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통합하는 것은 그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리성을 증진하고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같은 통합대상 서비스는 이미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각 사업들의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과 방식 등이 매우 이질적으로 발전되어왔고, 현장에서 협력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도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각 사업들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내 부서와 시도단위의 전달체계도 이미 별도로 구분되어 체계화

되어 있다.

따라서 통합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이러한 사업들이 별도의 독립적 조직을 유지한 채 공간을 차지하며 청소년시설로 들어오는 물리적 통합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통합할 경우에 청소년활동 공간을 심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각 서비스 간에 전문인력과 서비스 대상에 차이가 있어서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도 불투명하다. 실제로 일부 청소년수련시설 중에 청소년수련관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드림스타트, 학교밖지원센터 등 여러 서비스 조직들이 입주하여 실질적인 협력관계 없이 운영되는 사례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이 종합적으로 변하게 되면 청소년활동은 결국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지역단위에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활동이 문화의집 중심으로 전환되면,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의 규모, 인력, 프로그램, 재정 등의 취약성으로 비추어볼 때 이는 결국 지역단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위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이 본래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청소년문화의집과 연계체계를 확고히 구축하면서, 상담과 복지 분야의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갖추고, 이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과 전문기관을 직접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이 가져야할 기본 기능 중의 하나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범위를 더 넓혀서, 지역사회의 청소년대상 서비스를 청소년분야, 교육분야, 보건의료분야, 복지분야, 문화분야, 법률분야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서비스 정보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이를 연계해주는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확고하게 갖추어야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정보를 비치하고 소개해주는 소극적인 통합서비스는 의미가 없다. 청소년 개인별 서비스요구를 충분하게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식이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는 이미 **CYS-Net**으로 정책화되어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위상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주체, 운영재원 등을 통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성격을 확립하는 것이다.

청소년수련시설 중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설립하고 운영비를 부담하는 수련시설만으로 국한해 본다면, 수련시설의 공공성은 확보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일부지역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자체가 직영하거나 공영법인화 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 하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적합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공공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서 공영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질적인 운영예산과 전문 인력의 확보가 부족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시설 운영예산의 확보는 수련시설의 제도적 위상을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인력확보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예산의 부족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핵심고객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익자부담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수익자부담형 사업을 성인중심으로 확대할 때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장애를 가져온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회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운영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표준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확보하게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보조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련시설 운영비 및 인력에 편성에 관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지도사의 임금을 편성하는 기준이 되는 배치지도사의 인건비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청소년지도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배치지도사의 업무를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섯째,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수련시설의 위상정립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수련시설의 위상은 수련시설이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의 측면이다. 여기에는 종사자의 전문성이 핵심이다. 종사자의 전문성은 교육과 자격증으로 표현되는 형식적인 전문성과 종사자가 수행하는 업무난이도나 특성화 등과 같은 실질적인 전문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법률로 규정되어 수련시설마다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이 적절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즉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의 최소기준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실질적인 전문성은 청소년지도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나 업무특성화가 꼭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강사를 채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중심으로 업무를 규정하거나, 청소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다는 청소년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정도를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으로 설정한다면 타 분야의 업무수행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업무이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의 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청소년활동의 영역을 전문화·특성화하고, 이에 맞추어 종사자의 전문성을 심화시켜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일곱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 내용에서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체로 청소년수련시설마다 운영하는 사업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이나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외부압력을 크게 받는다. 특히 교육정책에서 창의적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제 등과 같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이에 대응하도록 내·외부적인 압력에 직면한다.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서비스 내용을 전문화하고 이에 맞는 시설과 인력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 자체로 시설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설의 특성화가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부적인 변화에도 대응하기 쉽고, 불필요한 외부압력도 줄일 수 있다. 즉, 창의적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제와 같은 외부환경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개별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전문화된 시설과 인력,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년 달라지는 요구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이 학교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대행해주는 코디네이팅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연계의 관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는 관점도 있으나,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체성이 정립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하는 추가적인 업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상에서 본 연구의 주제인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재정립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몇 가지 실천방안들을 정리해 보았다. 청소년수련시설에게 부여된 공공적 기능과 역할에 비하여 이를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들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는 오래 묵어온 문제에 대한

해결은 청소년계에 관심을 두거나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눠 부담해야 하는 공동의 책무성 차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나를 위해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포함해 모두가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하는 문제의식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적 담론의 지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이러한 다양한 담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내거나 또는 지금까지 진행 중인 담론을 충분히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공공시설로서의 청소년수련시설 안팎의 애기와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그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연구는 향후에도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권일남·김혁진·오해섭 (2007).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정명·전국재·김치조 (199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모델 연구. 문화체육부.
- 김정률 (2006). 청소년수련관 복합화 건립의 문제점과 대책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주·김혁진·김진호·성기원 (2002).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 김정주·천정웅·김영지·임지연 (1997). 지역청소년센터 운영모델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육성
거점으로서 청소년센터 운영 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혁진 (1997). 청소년정보문화공간 모형개발 지침서.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현철·임희진·정효진·민정석 (201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2015).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제3호, 2015년 5월 29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호순·김영한 (1997). 청소년수련시설 배치계획의 합리적 조정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청
소년개발원.
- 문화체육부 (1993). 청소년수련시설 설계기준 및 모형개발 연구. 문화체육부.
- 박영균·김호순 (201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2). 2012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3). 201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0). 2011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매뉴얼.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3). 2012년 청소년수련시설 통계편람. 여성가족부·한
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1_02.jsp?
viewfnc1=0&viewfnc2=0&viewfnc3=0&viewfnc4=0&viewfnc5=1&viewfnc6=0p](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1_02.jsp?viewfnc1=0&viewfnc2=0&viewfnc3=0&viewfnc4=0&viewfnc5=1&viewfnc6=0p), 2015. 5. 6.

- 유진이 (2002). 청소년수련관의 공간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유진이·홍영균·고계성·윤영식·이종국·주범·채철균 (2004). 청소년여가문화시설 소재 및 모형 개발 연구.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 이광호·전명기·김혁진·김민 (2003). 청소년수련시설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경기대학교.
- 전명기·김영한·박창남 (1998)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체육청소년부 (1991).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1.6). 체육청소년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매뉴얼-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록

부 록 : 설문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청소년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5년도 정책연구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익명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결과는 본 연구에 한해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부담 없이 설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6.

문의
사항

부
록

※ 다음은 학생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해당되는 보기에 ○ 표시해 주세요.

SQ1	학생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는 무엇입니까?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SQ2	학생은 현재 몇 학년입니까?	1) 초등학교 1학년 2) 초등학교 2학년 3) 초등학교 3학년 4) 초등학교 4학년 5) 초등학교 5학년 6) 초등학교 6학년 7) 중학교 1학년 8) 중학교 2학년 9) 중학교 3학년 10) 고등학교 1학년 11) 고등학교 2학년 12) 고등학교 3학년
SQ3	학생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1) 남성 2) 여성
SQ4	학생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충북 11) 충남 12) 강원 13) 경북 14) 경남 15) 전북 16) 전남 17) 제주
SQ5	학생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농산어촌
SQ6	학생은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1) 참여한 적 있다 SQ7번으로 가세요 2) 참여한 적 없다 다음 장의 Q01번으로 가세요 3)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 다음 장의 Q01번으로 가세요
SQ6번 문항에서 '1) 참여한 적 있다'고 체크한 사람만 다음 SQ7번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		
SQ7	다음 중 어느 수련시설에서 운영한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1) 청소년수련원 2) 청소년수련관 3) 청소년문화의집

I.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

Q01. 학생은 다음 청소년시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시설 유형	많이 들어봤음	몇 번 들어본 적 있음	전혀 들어본 적 없음
(1) 청소년수련원	1	2	3
(2) 청소년수련관	1	2	3
(3) 청소년문화의집	1	2	3

Q02. 학생은 다음 청소년시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청소년시설 유형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전혀 모름
(1) 청소년수련원	1	2	3
(2) 청소년수련관	1	2	3
(3) 청소년문화의집	1	2	3

Q03. 학생은 다음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청소년시설 유형	매우 잘 알고 있음	조금 알고 있음	전혀 모름
(1) 청소년수련원	1	2	3
(2) 청소년수련관	1	2	3
(3) 청소년문화의집	1	2	3

Q04. 학생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란 청소년시설들이 서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조금 알고 있다 3) 보통이다
4) 별로 잘 모른다 5) 전혀 모른다

Q05.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까?

- 1) 많이 있다 2) 조금 있다 3) 전혀 없다
4) 있는지 잘 모른다

Ⅱ.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활용 현황

◎ 다음 청소년시설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을 읽은 후 설문문항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수련원 : '숙박'을 할 수 있는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청소년시설
-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청소년시설
-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청소년시설

Q06. 학생은 다음 청소년시설을 찾아가서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시설 유형	많이 이용한 적 있음  Q06-1번으로 가세요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Q06-1번으로 가세요	전혀 이용한 적 없음  Q07번으로 가세요
(1) 청소년수련원	1	2	3
(2) 청소년수련관	1	2	3
(3) 청소년문화의집	1	2	3

 Q06번 문항에서 '많이 이용한 적 있음'이나 '몇 번 이용한 적 있음'에 응답한 사람만 Q06-1번부터 Q06-4번까지 응답하세요.

Q06-1. 학생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매일 이용	2) 일주일에 한두번
3) 한 달에 한두번	4) 서너 달에 한두번
5) 일 년에 한두번	

Q06-2. 청소년시설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 학생은 주로 어떤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2) 동아리활동
3) 청소년운영위원회	4) 학교수업과 연계한 활동
5) 청소년기자단	6) 상담활동
7) 경제적 지원	8) 어떤 활동에도 참여한 적 없음

Q06-3. 학생이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 다음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항목	매우 만족함	조금 만족함	보통	별로 만족 하지 않음	전혀 만족 하지 않음
(1)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	2	3	4	5
(2)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의 공간이나 장비, 설비 등에 대한 만족도	1	2	3	4	5
(3)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1	2	3	4	5
(4)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직원,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1	2	3	4	5

Q06-4. 학생이 이용해본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직원, 선생님)들은 청소년들을 지도하기에 전문적인 능력이나 실력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1) 매우 그렇다	2) 조금 그렇다
3) 보통이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Q07. 학생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다음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도록 권유(추천)받은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시설 유형	권유를 많이 받은 적 있음	권유를 몇 번 받은 적 있음	권유를 전혀 받은 적 없음
(1) 청소년수련원	1	2	3
(2) 청소년수련관	1	2	3
(3) 청소년문화의집	1	2	3

Q08. 학교에서 다음 청소년시설에 대한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시설 유형	많이 받은 적 있음	몇 번 받은 적 있음	전혀 받은 적 없음
(1) 청소년수련원	1	2	3
(2) 청소년수련관	1	2	3
(3) 청소년문화의집	1	2	3

Q09. 학교에서 교과수업시간에 다음 청소년시설들로 이동하여 수업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청소년시설 유형	많이 이용한 적 있음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1) 청소년수련원	1	2	3
(2) 청소년수련관	1	2	3
(3) 청소년문화의집	1	2	3

**Q10. 학교에서 비교과시간(CA, 창의적체험활동시간, 재량활동시간, 동아리시간 등)에
다음 청소년시설로 이동하여 수업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청소년시설 유형	많이 이용한 적 있음	몇 번 이용한 적 있음	전혀 이용한 적 없음
(1) 청소년수련원	1	2	3
(2) 청소년수련관	1	2	3
(3) 청소년문화의집	1	2	3

Ⅲ.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에 대한 기대

Q11.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의 청소년시설을 찾아가 이용할 생각(의향)이 있는지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청소년시설 유형	매우 이용할 생각 있음	조금 이용할 생각 있음	보통	별로 이용할 생각 없음	전혀 이용할 생각 없음
(1) 청소년수련원	1	2	3	4	5
(2) 청소년수련관	1	2	3	4	5
(3) 청소년문화의집	1	2	3	4	5

Q12.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의향)이 있습니까?

청소년시설 유형	매우 참여할 생각 있음	조금 참여할 생각 있음	보통	별로 참여할 생각 없음	전혀 참여할 생각 없음
(1) 청소년수련원	1	2	3	4	5
(2) 청소년수련관	1	2	3	4	5
(3) 청소년문화의집	1	2	3	4	5

Q13. 다음 청소년시설을 찾아가 이용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시설 유형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보통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함
(1) 청소년수련원	1	2	3	4	5
(2) 청소년수련관	1	2	3	4	5
(3) 청소년문화의집	1	2	3	4	5

Q14.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 다음 청소년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필요성)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시설 유형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함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함	보통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
(1) 청소년수련원	1	2	3	4	5
(2) 청소년수련관	1	2	3	4	5
(3) 청소년문화의집	1	2	3	4	5

Ⅳ.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용어에 대한 인식

Q15.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수련활동·교류 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의미하는데, 학생은 이런 “청소년 활동”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까?

-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조금 알고 있다 3) 보통이다
4) 별로 잘 몰랐다 5) 전혀 몰랐다

Q16. “수련”이란 뜻은 인격, 기술, 학문 따위를 닦아서 단련함을 말하는데, 학생은 이런 “수련”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까?

-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조금 알고 있다 3) 보통이다
4) 별로 잘 몰랐다 5) 전혀 몰랐다

Q17. “수련”이란 용어에서 혹시 어려운 훈련이나 강요된 교육과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까?

- 1) 매우 그렇다 2) 조금 그렇다 3) 보통이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V.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기대

Q18. 학생이나 또래 친구들에게 청소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1) 매우 필요하다 2) 조금 필요하다 3) 보통이다
-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Q19. 다음 중 청소년시설이 청소년들에게 중점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역할이나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제공 2) 동아리활동 지원
- 3) 학교수업과 연계 4) 청소년 상담
- 5) 어려운 청소년 지원

Q20. 학교에서의 수업이 지역(동네)의 청소년시설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1) 매우 필요하다 2) 조금 필요하다 3) 보통이다
-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Q21.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역(동네)의 청소년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1) 매우 필요하다 2) 조금 필요하다 3) 보통이다
-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Q22.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 청소년활동, 청소년상담, 청소년보호 등을 위한 시설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1) 청소년활동, 청소년상담, 청소년보호 등을 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통합 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2)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시설, 청소년보호시설 등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3) 학교와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4) 어떤 식으로 운영되든 상관이 없을 것 같다

♪ 설문에 응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및 역할·정체성에 대한 설문조사(시설직원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5년도 정책연구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및 역할·정체성'에 대해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 종사자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익명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결과
는 본 연구에 한해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발전에 활용될
본 연구의 이번 설문조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6.

문의
사항

부
록

※ 다음은 응답자들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해당되는 보기에 ○ 표시해 주세요.

SQ1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수련 시설에 속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서울 4) 인천 7) 울산 10) 충북 13) 경북 16) 전남	2) 부산 5) 광주 8) 세종 11) 충남 14) 경남 17) 제주	3) 대구 6) 대전 9) 경기 12) 강원 15) 전북
SQ2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수련 시설의 입지적 특징은 어떠합니까?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농산어촌
SQ3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수련시설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 청소년수련원 2) 청소년수련관 3) 청소년문화의집		
SQ4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수련시설의 운영주체는 어떠합니까?	1) 지자체 직영 3) 민간위탁	2) 법인 4) 지자체 산하공단	
SQ5	귀하의 직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1) 관장	2) 간부	3) 일반직원
SQ6	귀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1) 1급 자격증 보유 3) 3급 자격증 보유	2) 2급 자격증 보유 4) 자격증 없음	

I.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재 역할 및 기능

Q01. 현재 본인이 재직 중인 수련시설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역할과 기능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조금 만족	3) 보통
4) 다소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Q02. 현재 본인이 재직 중인 수련시설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역할과 기능이 내용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적절	2) 조금 적절	3) 보통
4) 다소 부적절	5) 매우 부적절	

Q03.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에 쓰이고 있는 “수련”이란 용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적절	2) 조금 적절	3) 보통
4) 다소 부적절	5) 매우 부적절	

Q04. 청소년수련시설에 수지분석(수익확보)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적절	2) 조금 적절	3) 보통
4) 다소 부적절	5) 매우 부적절	

Q05. 현재 본인이 재직 중인 수련시설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비되어 있습니까?

1) 충분히 대비	2) 일부 대비	3) 보통
4) 다소 대비 부족	5) 매우 대비 부족	

Q06. 현재 본인이 재직 중인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다음의 기능에 대해 중요성과 실제 실행되고 있는 수준에 대해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항목	중요도			실행수준		
	매우 중요	조금 중요	중요 하지 않음	매우 잘 실행 되고 있음	일부 실행 되고 있음	실행 되고 있지 않음
(1) 청소년을 위한 취미 강좌 운영	1			2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1			2		
(3) 동아리활동 운영	1			2		
(4) 청소년운영위원회, 기자단 등 자치조직 운영						
(5) 지역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6) 학교와의 연계협력 사업 운영						
(7) 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						
(8) 청소년 복지지원						

Q07. 현재 본인이 재직 중인 수련시설은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 1) 매우 그렇다 2) 조금 그렇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Ⅱ.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만족도 및 전문성

Q08. 현재 본인이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 수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적정	2) 조금 적정	3) 보통
4) 다소 부족	5) 매우 부족	

Q09. 현재 본인이 재직 중인 수련시설에서 받는 보수(월급)에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조금 만족	3) 보통
4) 다소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Q10. 현재 본인이 재직 중인 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직원복지수준(휴가, 수당, 성과급 등)에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조금 만족	3) 보통
4) 다소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Q11. 현재 본인이 재직 중인 수련시설에서 직원교육(연수)은 적절히 제공되고 있습니까?

1) 매우 적절	2) 조금 적절	3) 보통
4) 다소 부적절	5) 매우 부적절	

Q12. 현재 본인의 청소년분야에 대한 전문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음	2) 조금 높음	3) 보통
4) 다소 낮음	5) 매우 낮음	

Q13. 수련시설에서 재직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다양화하는 것(전공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	2) 조금 필요	3) 보통
4) 별로 불필요	5) 전혀 불필요	

Q14. 현행법상 '청소년지도사' 보유 기준을 수련시설의 '수용정원대비'라는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적합한 기준임	2) 다소 적합한 기준임	3) 보통
4) 별로 부적합한 기준임	5) 전혀 부적합한 기준임	

Ⅲ. 교육정책 및 학교와의 연계

Q15. 수련시설이 교육정책과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	2) 조금 필요	3) 보통
4) 별로 필요 없음	5) 전혀 필요 없음	

Q16. 최근 수련시설이 교육정책과 어느 정도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밀접히 연계	2) 조금 밀접히 연계	3) 보통
4) 별로 연계 안 됨	5) 전혀 연계 안 됨	

Q17. 수련시설과 학교의 연계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	2) 조금 필요	3) 보통
4) 별로 필요 없음	5) 전혀 필요 없음	

Q18. 최근 수련시설이 학교 연계협력 사업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밀접한 연계협력 필요함
- 2) 다소 밀접한 연계협력 필요함
- 3) 보통임
- 4) 별로 연계협력 필요 없음
- 5) 전혀 연계협력 필요 없음

Ⅳ.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관계

Q19. 최근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여성가족부)의 여러 지원(예산 등)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조금 만족	3) 보통
4) 다소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Q20. 최근 수련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여성가족부)의 여러 지원(예산 등)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적정	2) 조금 적정	3) 보통
4) 다소 부족	5) 매우 부족	

Q21. 전반적인 청소년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여성가족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	2) 조금 필요	3) 보통
4) 별로 불필요	5) 전혀 불필요	

Q22. 수련시설(시설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여성가족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	2) 조금 필요	3) 보통
4) 별로 불필요	5) 전혀 불필요	

Q23. 최근 지자체의 수련시설에 대한 여러 지원(예산 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조금 만족	3) 보통
4) 다소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Q24. 지자체의 수련시설에 대한 역할(시설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필요 2) 조금 필요 3) 보통
4) 별로 불필요 5) 전혀 불필요

Q25. 정부의 청소년정책 중 다음 항목들의 시급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시급	조금 시급	보통	별로 안 시급	전혀 안 시급
(1) 수련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1	2		3	
(2)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련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	1	2		3	
(3)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력 배치기준 재조정	1	2		3	
(4)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원기준 마련					
(5) 수련시설에 입점하는 기관의 제한 등에 대한 기준 마련					

V. 지역사회 네트워크

Q26. 지역사회 “주민”들은 수련시설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위치가 어디인지 등 (시설 인지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음	2) 조금 알고 있음	3) 보통
4) 별로 알지 못함	5) 전혀 알지 못함	

Q27. 지역사회 “청소년”들은 수련시설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위치가 어디인지 등(시설 인지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음	2) 조금 알고 있음	3) 보통
4) 별로 알지 못함	5) 전혀 알지 못함	

Q28. 현재 본인이 재직 중인 수련시설이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관시설이나 유관단체와 연계·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	2) 조금 필요	3) 보통
4) 별로 불필요	5) 전혀 불필요	

Q29. 현재 본인이 재직 중인 수련시설이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관시설이나 유관단체와 연계·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1) 매우 많이 하고 있음	2) 조금 하고 있음	3) 보통
4) 별로 하고 있지 않음	5) 전혀 하고 있지 않음	

Q30. 현재 본인이 재직 중인 수련시설이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이나 유관 단체와 연계·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필요 2) 조금 필요 3) 보통
- 4) 별로 불필요 5) 전혀 불필요

Q31. 현재 본인이 재직 중인 수련시설이 타 시도의 청소년 유관시설이나 유관 단체와 연계·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 1) 매우 많이 하고 있음 2) 조금 하고 있음 3) 보통
- 4) 별로 하고 있지 않음 5) 전혀 하고 있지 않음

Q32. 현재 본인이 재직 중인 수련시설이 지역사회에 홍보를 적절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절히 하고 있음
- 2) 일부 적절히 하고 있음
- 3) 보통
- 4) 별로 적절히 하고 있지 않음
- 5) 전혀 적절히 하고 있지 않음

Ⅶ. 향후 기대하는 수련시설의 역할 및 기능

Q33. 현재 본인이 재직 중인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주제나 내용 측면에서 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	2) 조금 필요	3) 보통
4) 별로 불필요	5) 전혀 불필요	

Q34. 현재 본인이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 수는 몇 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

Q35. 현재 본인이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직원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현재 수준 적정함	2) 약 10% 인상	3) 약 20% 인상
4) 약 30% 인상	5) 약 40% 인상	6) 약 50% 인상
7) 50% 초과하는 인상 필요		

Q36. 수련시설의 직원 초임 연봉(4년제졸, 무경력, 세전 기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1,500 ~ 2,000만원 미만	2) 2,000 ~ 2,500만원 미만
3) 2,500 ~ 3,000만원 미만	4) 3,000 ~ 3,500만원 미만
5) 3,500 ~ 4,000만원 미만	6) 4,000만원 이상

Q37. 현재 본인이 재직 중인 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직원복지수준(휴가, 수당, 성과급 등)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확대 필요	2) 조금 확대 필요	3) 현재 수준 적정함
4) 조금 축소 필요	5) 매우 축소 필요	

Q38. 현재 본인이 재직 중인 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직원교육(연수)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확대 필요 2) 조금 확대 필요 3) 현재 수준 적정함
- 4) 조금 축소 필요 5) 매우 축소 필요

Q39. 현재 본인이 재직 중인 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수준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개선 필요 2) 조금 개선 필요 3) 현재 수준 적정함
- 4) 이미 다소 높은 편임 5) 이미 매우 높음

Q40. 현재 본인이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운영예산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까?

- 1) 현재 수준 적정함 2) 약 20%내에서 확대 필요
- 3) 약 40%내에서 확대 필요 4) 약 60%내에서 확대 필요
- 5) 약 80%내에서 확대 필요 6) 약 100%내에서 확대 필요
- 7) 100% 초과하는 확대 필요

Ⅶ. 향후 수련시설에 기대하는 정체성

Q41. 현재 재직 중인 수련시설의 시설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필요 2) 조금 필요 3) 보통
4) 별로 불필요 5) 전혀 불필요

Q42. 만약 '청소년수련시설'이란 명칭에 "수련"이란 용어를 대체한다면 다음 중 어느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교육 2) 참여 3) 활동 4) 문화 5) 체험

Q43. 만약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다음 시설유형의 명칭변경 필요성에 대해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유형별 청소년시설 명칭	명칭변경 필요성	
	명칭변경 필요 있음	명칭변경 필요 없음
(1) 청소년수련원	1	2
(2) 청소년수련관	1	2
(3) 청소년문화의집	1	2

Q44. 향후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 뿐만이 아니라 보호, 복지, 교육, 상담 등의 기능도 함께 운영하는 종합시설로 구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절 2) 조금 적절 3) 보통
4) 다소 부적절 5) 매우 부적절

Q45. 현재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구분된 시설유형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향후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관' 통합을 고려해 볼 만함
- 2) 향후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문화의집' 통합을 고려해 볼 만함
- 3) 향후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통합을 고려해 볼 만함
- 4) 향후 시설유형간 통합은 불필요함

Q46. 현재 본인이 재직 중인 시설유형을 기준으로 볼 때, 수련시설의 운영주체로 어떤 형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지자체 직영이 적절
- 2) 법인화가 적절
- 3) 민간위탁이 적절
- 4) 지자체 산하공단이 적절
- 5) 기타

Q47. 지역사회에서 수련시설의 위상(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위상 정립이 매우 시급하다
- 2) 다소 위상 정립이 필요한 편이다
- 3) 현재의 위상이 적정하다
- 4) 이미 어느 정도 높은 위상을 갖추고 있다
- 5) 이미 매우 높은 위상을 갖추고 있다

♪ 설문에 응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5-R01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경상 · 조용하
- 15-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최창욱 · 문호영 · 김진호
- 15-R02-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15-R03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 배상률
- 15-R04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 · 김영석 · 김혁진
- 15-R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인규
- 15-R06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 김기현 · 황세영 · 이경자 · 강영배
- 15-R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황여정 · 김정숙 · 이수정 · 변정현
- 15-R08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김지경 · 정연순
- 15-R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백혜정 · 송미경
- 15-R10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좌동훈 · 박세경 · 한미경
- 15-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박선영
- 15-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김진석
- 15-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2015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5-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영한 · 오해섭 · 성윤숙 · 정윤미
- 15-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 과 추진전략 개발 / 오해섭 · 김세광
- 15-R1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성윤숙 · 홍성효
- 15-R12-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 김영한 · 정윤미
- 15-R1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오성배
- 15-R13-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15-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유진 · 박선영
- 15-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이준우
- 15-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 김경준 · 김태기
-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이진영 · 장안리 · 김판준 · 임영언 · 정호원 · 성일광
- 15-R16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Ⅵ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서정아 · 정은주 · 강현철 · 한영근
- 15-R16-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Ⅰ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서정아

15-R16-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정은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윤철경·최인재·유성렬·김강호 (지체번호 15-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지체번호 15-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조사결과자료집 / 윤철경·최인재 (지체번호 15-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지체번호 1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지체번호 15-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지체번호 15-R18-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오민아·이영훈 (지체번호 15-R18-3)

연구개발직립금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김정숙·김기현·황세영

15-R20 대학비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윤민종·김기현·한도희

수 시 과 제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 김영지·김희진

15-R22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 중독과 자살생각 / 장근영·전우영

15-R2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황세영·조성화

15-R23-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 황세영·조성화·곽정난·김경전·현명주

15-R2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김현철

15-R2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김정숙·김기현

15-R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김지연

- 15-R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좌동훈
- 15-R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 · 좌동훈 · 강경균 · 김정숙 · 황세영 · 문호영 · 윤민중
- 15-R29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김지연
- 15-R30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15-R31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김지경 · 윤민중
- 15-R32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좌동훈
- 15-R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 이경상 · 장원경
- 15-R34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 최창욱 · 한도희
- 15-R3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 · 청소년 · 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문호영 · 최창욱

수 락 과 제

- 15-R36 청소년활동 중장기 수요 및 공급기반 조성 연구 / 김영한 · 유성렬 · 임성택 · 주동범
- 15-R37 2014년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 · 유홍식 · 김동일
- 15-R38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이유진 · 김영한
- 15-R39 2015년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최홍일
- 15-R40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 백혜정 · 좌동훈
- 15-R41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전명기
- 15-R42 청소년 디지털 매체 및 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2-1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3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최인재 · 이경상 · 김정숙 · 장근영
- 15-R44 청소년 · 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조성은
- 15-R45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최인재
- 15-R4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위상 정립방안 모색 연구 / 김현철 · 최창욱
- 15-R47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지경 · 이상준
- 15-R48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효과 분석 / 최창욱 · 성은모 · 정윤미
- 15-R49 201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김기현
- 15-R50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박성재 · 민주홍 · 김종성
- 15-R51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이용교
- 15-R52 성남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15-R5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5 / 김희진 · 이종원 · 유성렬 · 김진석
- 15-R5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15-R5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5-R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영지 · 정은주 · 김정주
- 15-R56-1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정은주

- 15-R57 과학적 실험 중심 모형기반 생명과학 교수학습 디자인 실험연구 / 황세영
- 15-R58 2015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 황세영 · 윤민종
- 15-R59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 실태조사 / 성은모 · 강경균
- 15-R60 청소년의 'X-질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강경균
- 15-R61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중장기 계획 연구 / 김영한 · 임지연
- 15-R62 휴먼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 연구 / 성은모 · 서동인
- 15-R63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연구 / 김영한 · 오해섭 · 정윤미
- 15-R64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모상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5-S0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 보고회 (1/19)
- 15-S02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 (2/9)
- 15-S03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23~27)
- 15-S04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23~27)
- 15-S05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3~27)
- 15-S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3~27)
- 15-S07 2014년도 제1차 연구성과발표회 (3/12)
- 15-S08 2014년도 제2차 연구성과발표회 (3/13)
- 15-S09 일본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3/31)
- 15-S10 2015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4/16)
- 15-S11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위원 워크숍 (4/28)
- 15-S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4/29)
- 15-S13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12~13)
- 15-S14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8~19)
- 15-S15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26~27)
- 15-S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28~29)
- 15-S17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 : 지역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18~19)
- 15-S18 2015년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1)
- 15-S19 2015 청소년 문화와 안전 국제포럼 (6/4)
- 15-S20 2015년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위원 워크숍 (6/4)
- 15-S21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6/26)
- 15-S22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7/2)
- 15-S23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7/8~10)
- 15-S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관계자 워크숍 (7/9~10)
- 15-S25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1권역 (7/27~28)
- 15-S26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2권역 (7/28~29)
- 15-S27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권역 (8/3~4)

- 15-S28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30~31)
- 15-S29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7/22)
- 15-S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8/11)
- 15-S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워크숍 (8/21)
- 15-S32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9/17)
- 15-S33 민족정체성 확립의 역량을 미치는 4가지 주요요소 :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세대의 비교 (9/14)
- 15-S34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9/16)
- 15-S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9/18)
- 15-S36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0/19)
- 15-S37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23)
- 15-S38 한·중 국제세미나 (10/27)
- 15-S39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워크숍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10/21~22)
- 15-S40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한·러 차세대 전무가 대화 :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협력 (11/17)
- 15-S41 국회다정다감포럼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11/5)
- 15-S42 2015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11/26~27)
- 15-S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심화워크숍 (12/17~18)
- 15-S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12/10)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7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7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79호)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9호 :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0호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1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2호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3호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4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9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0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1호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2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3호 :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과 이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 KCYPS 초1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4호 :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5호 : 초등학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초4 패널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호 :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호 :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쟁점 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4호 :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6호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7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8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9호 : 그 나라는 어때? 세계의 청소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0호 :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1호 :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2호 : 청소년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해외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3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실태와 과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4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5호 : 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6호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7호 :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8호 :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9호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개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1호 :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2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추진 기본방향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3호 : 학령기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4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현안 Blue Note 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여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가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겨울호

Abstract

Study on the Role Redefinition and Identity Establishment of Youth Facilities

This study aims to restructure the roles and functions of youth facilities by reflecting the demands of the times and the society on recent youth activities. To be more specific, it will first identify the needs and demands of the times and the society on changes in youth facilities, centering on key stakeholders. Then, taking the needs and demands of the times and the society and into account, it will establish the roles and identity of improved youth facilities and draw detailed policy recommendations.

To this end, the authors during this study performed extensive research on literature, held consultative meetings with expert and onsite conferences for youth facility operators of each region, and host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youth facility operators of each facility type, as well as conducting a survey on staff at youth facilities. A workshop has been also held to produce policy recommendations.

This study derived the following seven policy recommendations:

- Prepare user-centric policies to raise the awareness of youth facilities
- Link curriculum with non-curriculum to enhance the usage of youth facilities and user satisfaction
- Revitalize everyday programs to raise the likelihood of youth participation in youth facilities
- Operate contests appropriate to local conditions and institutionalize the installation format of youth facilities
- Prepare criteria for compensation and posting of youth instructors to normalize the operation of youth facilities
- Strengthen the connection and cooperation with citizen autonomy as part of local community
- Seek standing training programs and better treatment for youth instructors working at youth facilities

The study also presented policy recommendations, each of which has been specified in terms of its objective, description, implementation plans and implementation scheme.

Lastly, based on detailed findings of this study, the authors proposed conclusion including policy implications on action plans for the role redefinition and identity establishment of youth facilities.

Keywords: Youth Facilities, Role Redefinition, Identity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문·협력진 ◆

강 영 배 (대구한의대학교)
고 형 복 (광명시청소년수련관)
김 제 원 (대구수성구청청소년수련관)
김 지 수 (인생나자작업장사회적협동조합)
박 찬 열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소 병 조 (부천산울림청소년수련관)
오 승 근 (명지전문대학)
이 세 용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전 성 민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 자문·협력진 순서는 가나다순임

연구보고 15-R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인 쇄 2015년 12월 24일

발 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범신사 전화 042) 254-87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53-3 93330